언론사: 문화일보-1-1.txt

제목: <그래도 희망이다>“戊戌年 새해를 힘차게 맞는 힘, 역시 ‘희망’뿐입니다”  
날짜: 20171229  
기자: 곽시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501.20171229141006003  
ID: 01100501.20171229141006003  
카테고리: 미분류  
본문: 다시 만난 2017년 ‘그래도 희망이다’ 주인공 5人<br/><br/><br/><br/>‘꽃제비’로 산 탈북 청년 이성주 <br/><br/>“<span class='quot0'>통일 대한민국 여는 데 기여</span>” <br/><br/> <br/><br/>암 극복한 이명우 ‘사랑터’ 설립자 <br/><br/>“<span class='quot0'>청년 봉사 회원 더 늘었으면</span>” <br/><br/><br/><br/>40代에 링 복귀 권투선수 최용수 <br/><br/>“<span class='quot0'>나보다 더 뛰어난 후배 양성</span>” <br/><br/><br/><br/>태풍 이겨낸 국정순 前 국밥집 사장 <br/><br/>“다문화 후원 독거노인 도와” <br/><br/><br/><br/>세계자폐인의 날 주최 김용직 회장 <br/><br/>“<span class='quot0'>문화일보 보도 덕 행사 성황</span>”<br/><br/><br/><br/> ‘꽃제비’(북한에서 거리를 떠도는 노숙 아동) 출신 명문대 졸업생, 암을 극복하고 봉사단체를 차린 전직 경찰관, 40대 복싱 챔피언, 태풍 피해 상인, 자폐인 돕기에 앞장선 전직 판사…. 모두 올해 문화일보 ‘그래도 희망이다’ 코너에 등장해 암울한 한국 사회에 희망의 메시지를 던져줬던 인물들이다. 이들은 묵은해를 보내고 힘차게 새해를 맞이할 힘도 역시 ‘희망’뿐이라고 입을 모았다.<br/><br/><br/><br/>불과 11세 나이에 꽃제비로 북한 사회를 떠돌다 탈북해 2002년 국내에 정착한 탈북청년 이성주(30) 씨는 미국 풀브라이트 장학재단 장학생으로 선발돼, 미국 동부 지역 대학들의 갈등 분석·해결 분야 박사과정에 지원해 합격자 발표를 기다리고 있다. 합격하면 내년 8월쯤부터 미국에 건너가 공부할 예정이다. 이 씨는 서강대 정치외교학과를 조기 졸업하고 영국으로 유학, 워릭대에서 석사과정을 마쳤다. 이 씨는 29일 문화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span class='quot1'>경상도와 전라도, 탈북민과 남한사람 등 국내 갈등 해소 방안을 연구해 통일된 대한민국을 여는 데 기여하고 싶다</span>”고 말했다. 이 씨는 지난 1월 6일 문화일보 보도 후에도 탈북민 구호 봉사활동과 공부를 병행했다. 지난달에는 청와대에서 열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환영 공식 만찬에도 참석했다. 그는 “<span class='quot1'>문화일보 보도 후 탈북민에 대한 이미지가 개선됐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다</span>”며 “<span class='quot1'>통일이라는 집을 지을 때 비가 새지 않도록 작은 기왓장을 얹을 수 있게, 희망을 잃지 않고 학업에 매진하겠다</span>”고 각오를 다졌다.<br/><br/><br/><br/>올해 30주년을 맞은 봉사단체 ‘사랑터’ 설립자 이명우(62) 이사장은 천주교에서 운영하는 ‘라파엘의 집’에 사는 시각장애인 아동을 지원하고 있다. 이 이사장은 “<span class='quot2'>약소하게나마 지원 범위를 넓혀나간 점이 올해 가장 큰 성과</span>”라고 말했다. 경찰관 출신인 그는 과거 골수암으로 6개월 시한부 선고를 받았고, ‘건강하게 회복할 수만 있다면 평생 봉사하며 살겠다’는 다짐을 지금도 지키고 있다. 개인이 설립한 봉사단체였던 사랑터는 지난 4월 10일 문화일보 보도 후 어느덧 법인 규모로 성장했다. 이 이사장은 “<span class='quot2'>취업·학업 등 고민이 많겠지만, 그럴 때일수록 어려운 이웃을 살필 수 있는 청년 봉사단체 회원들이 내년에는 더 늘었으면 좋겠다</span>”고 말했다.<br/><br/><br/><br/>권투선수 최용수(45)는 이날 “<span class='quot3'>이제는 나보다 더 뛰어난 후배를 육성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span>”고 밝혔다. 2월 세계권투평의회(WBC) 유라시아 라이트급(61.23㎏ 이하) 실버타이틀 매치에서 스물한 살이나 어린 넬슨 티남파이(24·필리핀)를 상대로 10라운드 58초 만에 화끈한 TKO승을 거둔 뒤 문화일보와 인터뷰를 가진 바 있다. 최용수는 당시 압도적인 경기력을 보이며 ‘40대들에게 희망을 주겠다’는 약속을 지켰다. 지난해 은퇴 13년 만에 복귀, 올해까지 2경기를 치렀고, 모두 승리하며 화려한 귀환을 알린 최용수는 후진 양성과 방송 해설 등으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최용수는 “<span class='quot4'>선수생활, 40세가 넘어 복귀한 경험을 토대로 한국복싱의 내일을 짊어질 희망을 기르겠다</span>”고 밝혔다.<br/><br/><br/><br/>울산 태화시장에서 ‘가마솥 돼지국밥’을 운영했던 국정순(여·56) 씨는 지난해 10월 태풍 차바의 피해로 13㎡(약 4평) 남짓한 국밥집 가게에 높이 2m까지 물이 차는 바람에 냉장고는 물론 집기가 모조리 훼손되는 등 피해가 컸다. 그러나 전국 각지에서 몰려든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으로 태풍을 극복했고, 이제는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남을 돕는 삶을 살고 있다. 국 씨는 ‘착한 먹거리’로 간판을 바꿔달고 팥죽 장사를 하고 있다. 밤에는 야시장에서도 영업한다. 국 씨는 “태풍 피해 당시 많은 분이 도와주신 것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다문화센터에 후원을 하고, 독거노인을 위한 도시락 지원 활동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 씨는 “지금도 어려운 이들이 많겠지만, 희망을 잃지 않고 씩씩하게 살기 바란다”며 밝게 웃었다.<br/><br/><br/><br/>김용직(62) 한국자폐인사랑협회 회장은 이날 “<span class='quot5'>‘아이들보다 하루 늦게 죽기를 원한다’는 기막힌 이야기가 자폐아 부모들에게서 더 이상 나오지 않기를 바랄 뿐</span>”이라고 밝혔다. 1985년 초임 판사 시절 세 살짜리 아들이 자폐성 장애를 앓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김 회장은 이후 자폐에 대한 사회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동분서주해왔다. 김 회장은 “<span class='quot6'>문화일보 보도 후 지난 4월 2일 세계자폐인의 날 행사도 성공적으로 치렀다</span>”며 “<span class='quot6'>희망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다시 한 번 하게 된 게 올해의 가장 큰 성과</span>”라고 말했다. <br/><br/><br/><br/> 김수민·최준영·손우성 기자 human8

언론사: 문화일보-1-2.txt

제목: < Global Focus >새해맞이 축제 속 ‘테러 주의보’… ‘이브 공포’에 떠는 지구촌  
날짜: 20171229  
기자: 김다영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501.20171229110005013  
ID: 01100501.20171229110005013  
카테고리: 국제>유럽\_EU  
본문: 패퇴 IS, 위협 영상 공개<br/><br/><br/><br/>IS,추종세력에 공격 감행 지시 <br/><br/>“<span class='quot0'>클럽 등 사람 많은 곳 노려라</span>” <br/><br/>프란치스코 교황 테러 암시도 <br/><br/><br/><br/>100만 운집 美 타임스스퀘어 <br/><br/>뉴욕경찰, 보안책 마련 고심 <br/><br/><br/><br/>불꽃놀이 펼치는 英 템스강변 <br/><br/>IS 직접적 위협에 경찰 긴장<br/><br/><br/><br/> 2017년의 마지막 날이 다가오면서 전 세계가 새해를 맞이할 축제를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는 중동에서 패퇴한 이슬람 수니파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의 보복 테러 위협이 심화되면서 미국과 유럽 등 특히 서방 국가들이 ‘이브 공포’에 떨고 있는 모습이다. <br/><br/><br/><br/>미국의 번영과 풍요인 상징이자 자유와 평등, 꿈의 도시인 뉴욕은 매년 새해맞이 축제로 미국인은 물론 해외 여행객들로 붐빈다. 뉴욕 맨해튼의 중심지 타임스스퀘어에서는 매년 새해가 되기 직전 카운트다운 행사와 동시에 대형 공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볼 드롭(Ball Drop)’ 행사가 어김없이 열릴 예정이다. 매년 100만 명 이상의 인파가 이를 보기 위해 12월 31일 지구촌 각국에서 뉴욕으로 몰려 전 세계 언론이 꼽는 새해맞이 최고의 명소이기도 하다. <br/><br/><br/><br/>영국 런던에서는 1859년 세워진 명물 시계탑 빅벤(Big Ben)이 12월 31일 마지막 밤 자정을 알리는 종소리가 끝나는 시점에 맞춰 템스 강변을 배경으로 대규모 불꽃놀이가 펼쳐진다. 런던 타워브리지 위로 펼쳐지는 화려한 불꽃을 보러 수십만 명의 사람이 매년 몰려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다. 중남미와 아시아에서도 올해 큰 우려 없이 대규모 축제가 열리는 분위기다. 남미의 문화 중심지 칠레 발파라이소에서는 3일 동안 불꽃놀이를 비롯한 화려한 새해 축제가 이어진다.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코파카바나 해변에서도 화려한 공연과 대규모 불꽃놀이가 펼쳐진다. 아시아에서는 싱가포르 마리나베이에서 레이저쇼와 각종 공연이 열리며, 태국 방콕에서도 내셔널스타디움 및 센트럴월드스퀘어에서 유명 아티스트들의 공연 및 전시가 예정돼 있다. 중동에서 가장 유명한 새해 축제인 두바이 ‘부르즈 칼리파(burj khalifa)’ 불꽃축제는 올해부터 레이저쇼로 변경됐다. <br/><br/><br/><br/>빛이 있으면 어둠도 있듯 새해맞이 행사에서 테러 발발 위험도 커지고 있다. 특히 미국은 테러 방지에 각별한 신경을 쓰고 있다. 맨해튼의 타임스스퀘어 인근에서도 이달 파이프 폭탄 테러가 발생해 테러 용의자를 포함해 4명이 부상 입었다. 성탄절을 앞두고도 해병대 출신의 20대 남성이 캘리포니아의 대표적 쇼핑센터 ‘피어39’ 주변에서 테러를 모의하다 체포돼 조사를 받기도 했다. IS 선전물에 심취한 20대 청년이 뉴욕 맨해튼에서 지난 10월 트럭 테러를 벌여 8명이 사망했다. 미국 abc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공식 인정하면서 이슬람교도가 발끈한 상태”라면서 “뉴욕 경찰이 역대 가장 철저한 보안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고 전했다. <br/><br/><br/><br/>특히 올해는 IS가 근거지인 이라크 모술과 시리아 락까에서 축출되면서 미국 본토를 대상으로 하는 보복 테러 가능성이 있는 상태다. 27일 영국 일간지 더선 등에 따르면 IS는 이날 전 세계에 포진해 있는 추종세력인 이른바 ‘외로운 늑대(자생적 테러리스트)’들을 향해 새해 맞이 축제에서 테러 공격을 감행하라고 지시하는 영상을 공개했다. 나이지리아에서 촬영된 7분짜리 영상에는 영어를 사용하는 IS 지도부 인사가 연말 사람들이 붐비는 나이트클럽과 교회 등에 공격을 감행하라고 지시하는 모습이 담겨 있다. 또 프란치스코 교황에 대한 테러 공격을 암시하기도 했다. 더선은 “약 300명의 IS 추종 영국인이 중동에서 흩어져 터키 등지에서 활동하고 있다”며 “새해를 맞아 런던을 향한 테러를 감행할 것이라는 정보를 당국이 입수했다”고 보도했다. 실제로 IS의 테러 위협 영상에는 템스강의 연말 불꽃축제 영상이 담겨 있어 영국 경찰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br/><br/><br/><br/> 김다영 기자 dayoung817

언론사: 문화일보-1-3.txt

제목: <김종대의 동네 집 이야기>재개발 폐업 목욕탕 복합 문화공간 변신  
날짜: 2017122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501.20171227111005004  
ID: 01100501.20171227111005004  
카테고리: 문화>출판  
본문: 아현동 ‘행화탕’<br/><br/><br/><br/>1958년 개업 하루 100명 손님 <br/><br/>찾는 사람 줄어 2011년 문닫아 <br/><br/><br/><br/>아무도 눈길 안 준 시한부 건물 <br/><br/>2016년‘문화프로젝트’로 부활 <br/><br/><br/><br/>공연·문화마켓·전시·세미나… <br/><br/>편안한 분위기 예술적 영감 가득<br/><br/><br/><br/> ‘행복 목욕탕’이라는 일본 영화에서는 말기 암 환자인 여주인공이 얼마 남지 않은 생을 마감하기 전, 운영이 중단됐던 자신의 목욕탕을 다시 열어 흩어졌던 가족이 모일 수 있도록 노력하는 모습이 감동적으로 그려졌다. 주인공을 진짜 엄마라고 믿고 살아온 딸에게 매년 같은 날에 대게를 보내주는 친엄마를 만나게 해주고 집 나간 남편이 밖에서 낳아온 아이를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등 머릿속으로는 가능할지 모르나 행동으로 옮기기 어려운 일들을 용기 내어 실천해간다. 이 영화를 보면 여주인공의 자기희생적인 행동이 자신에게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서 시작됐다는 것을 알 수 있다.<br/><br/><br/><br/>아현동에 있는 ‘행화탕’은 영화 속의 여주인공처럼 시한부의 삶을 살고 있는 대중목욕탕이다. 1958년에 영업을 시작했다고 알려진 이곳은 목욕탕 굴뚝의 높이만큼이나 인기가 높았던 곳이었다. 목욕탕이 잘됐을 때는 하루에도 100여 명의 손님이 들었다고 한다. 요즘처럼 집집마다 목욕시설을 갖추고 있지 못했던 1960∼1970년대의 목욕탕이 문명인의 상징처럼 생각된 적도 있었는데 한 달에 몇 번 목욕탕에 가느냐 하는 것이 친구들 사이에 논란이 되기도 했다. 하지만 아파트의 보급과 주택에 몸을 씻을 수 있는 시설이 갖춰지고 대형 찜질방이 유행하면서 ‘행화탕’ 역시 찾는 사람이 줄어들어 결국 2011년에 문을 닫고야 말았다. 더구나 아현동 일대가 재개발 지역으로 지정되면서 남겨진 건물마저 시한부의 처지가 되었다.<br/><br/><br/><br/>한동안 아무도 눈길을 주지 않아 쓸쓸한 종말을 기다리던 ‘행화탕’이 2016년 초 젊은 기획자들을 만나면서 영화처럼 아름다운 마무리를 시작하게 됐다. 한시적이어서 더 밀도 있는 문화예술 활동이 가능했다는 기획자의 말처럼 이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화예술 활동들은 거침이 없다. 2016년 5월, ‘행화탕 프로젝트’ 개관식을 시작으로 다양한 공연이 줄을 잇고 있는데 매월 마지막 수요일에 열리는 ‘예술로 목욕하는 날’ 행사는 예술 공연, 문화마켓, 전시, 체험, 세미나로 빈틈없이 채워져 있다. 이곳의 문화 활동들은 서로 다른 분야,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한 공간에 모여 함께하는 특징을 갖고 있는데 이들은 공간과 시간을 공유함으로써 ‘행화탕’이 사라진 이후에도 함께 기억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다. 복합문화공간으로 변신한 ‘행화탕’은 그 나이만큼이나 낡았다. 힘들게 지붕을 받치고 있는 얼기설기한 지붕널은 겨울의 찬바람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지만 할머니 얼굴의 주름처럼 정겹다. 새로 깐 뜨끈한 바닥에 앉아 있으면 외갓집 아랫목에 앉아있는 것 같은 편안함을 느낀다. <br/><br/><br/><br/>목욕탕 내부를 장식했던 낡은 사각타일은 더 이상 모던할 수 없는 공연의 배경이 되고 사우나실과 작은 문으로 연결된 괴기한 분위기의 보일러실은 예술적 영감으로 가득 차 있다. 목욕탕 건물 외에도 지금은 전시장이 된 목욕탕 주인이 살던 2층 주택과 창고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어 예전의 아현동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무엇보다도 목욕탕 굴뚝에 그려진 색 바랜 목욕탕 표시가 과거에 대한 향수를 강하게 불러일으키고 있다.<br/><br/><br/><br/>‘행화탕’은 언젠가는 철거될 운명이지만 어쩌면 마지막이 될 수 있는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는 방법을 선택했다. 비어 있던 공간에 문화가 들어오자 주민들도 다시 이곳을 찾기 시작했다. 주민들 삶의 한 부분이었던 ‘행화탕’은 과거이자 새로운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공간이 되었다. <br/><br/><br/><br/>살구꽃인 행화는 동요 ‘고향의 봄’에도 등장할 만큼 눈부시게 아름다운 연분홍 꽃이다. ‘꽃은 지기 때문에 아름답다’던 어머니의 말씀처럼 꽃이 피면 지는 것이 순리지만 꽃이 지는 모습은 늘 애달프다. 그래서 ‘행화탕’도, 병석의 어머니도 좀 더 오랫동안 아름다운 시간을 함께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하다.<br/><br/><br/><br/> 건축가·디자인연구소 이선 대표

언론사: 문화일보-1-4.txt

제목: < His Story >“영양결핍 北주민에 南바이러스 질환 우려… 통일후 재앙될 수도”  
날짜: 20171227  
기자: 이해완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501.20171227110005001  
ID: 01100501.20171227110005001  
카테고리: 정치>북한  
본문: 신희영 서울대 연구부총장<br/><br/><br/><br/>“70년 고립 北, 의학연구 寶庫 <br/><br/>기생충·아토피 관계 연구 필요 <br/><br/>‘1인 1기생충 갖기 운동’ 펼쳐” <br/><br/><br/><br/>“보건의료 R&D 사업을 통해 <br/><br/>北 주민 돕고 富도 창출해야 <br/><br/>통일한 뒤 격차 줄일 수 있어” <br/><br/><br/><br/>“18년째 어린이병원학교 교장 <br/><br/>소아암 치료한 뒤 사회부적응 <br/><br/>토털케어로 삶도 책임져야죠”<br/><br/><br/><br/>무(無)에서 유(有)를 창출하는 의사가 있다. 무모하다 싶을 정도의 끈기와 도전정신으로 결실을 보는 의사다. 지난 15일 서울대 관악캠퍼스에서 만난 신희영(62) 연구부총장은 인터뷰를 시작하기에 앞서 자신의 이력서부터 건네줬다. 지금까지 방북만 6차례에 맡은 직책만 10개가 족히 넘다 보니 배려 차원에서 이력서부터 건넨 듯했다. 한 우물만 파도 쉽지 않은 세상에 문어발식 겸임이라니…. 처음에는 신 부총장이 ‘폴리페서’(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교수)일 수 있겠다는 생각마저 들었다. 설익은 편견은 보기 좋게 빗나갔다. 신 부총장은 “<span class='quot0'>좋은 뜻으로 일하다 보니 더 큰 원이 돼 돌아온 것 같다</span>”고 말했다. 한 가지 일에 정성을 다하면 다른 일도 잘 풀린다는 게 그의 지론이다. 소아암 환자의 대부(代父)이자 북한 보건의학 최고 전문가라는 평가를 받는다. 신 부총장은 지난달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통해 귀순하다 총상을 입고 치료 중인 북한군 병사 이야기로 대화를 시작했다.<br/><br/><br/><br/> 북한군 병사가 총상을 입고 수술을 받으면서 몸에서 나온 수십 마리의 기생충이 당시 큰 화제였다.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span class='quot1'>기생충이 몸에서 나왔다고 밝힌 것은 분명한 인권유린이자 북한에 대한 혐오 감정을 확산하는 부작용을 일으키는 행위</span>”라며 수술을 집도한 이국종 아주대병원 권역외상센터 교수를 맹비난해 논란이 인 바 있다. 신 부총장은 “<span class='quot0'>기생충이 나왔다고 인권유린을 말하는 것은 정말 바보 같은 소리</span>”라고 지적했다. 소아과 전문의인 그는 “<span class='quot0'>70년 이상 외부세계로부터 고립된 북한 사회는 의약 연구의 보고(寶庫)</span>”라며 “<span class='quot0'>기생충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한 발언으로 보인다</span>”고 설명했다. <br/><br/><br/><br/>신 부총장에 따르면, 우리 어린이들에게 많은 아토피 피부염 증세가 북한 어린이들에게는 거의 없다. 한국도 기생충 감염이 70∼80%에 이르렀던 1970년대에는 아토피 환자가 드물었다. 둘 사이 깊은 상관관계를 추론해볼 수 있다는 얘기다. 그는 “<span class='quot0'>기생충이 몸 안에 있으면 자가 면역 체계가 외부 침입자인 기생충을 공격하느라 자기 신체를 공격해 유발되는 아토피가 생길 여유가 없다</span>”고 설명했다. 북한 사람들 몸은 기생충과 맞서 싸우느라 스스로 자기를 공격할 여력이 없다는 뜻이다. 아직 가설이지만 설득력이 있었다.<br/><br/><br/><br/>“지금 우리나라를 비롯해 보건의료 선진국들은 기생충이 거의 박멸돼 의대생들이 기생충 실물 표본을 구경하기 너무 어려워요. 북한의 기생충은 우리 모두에게 큰 이익을 안겨줄 세계적인 보물입니다. 마치 악어가 악어새를 안 잡아먹듯이 우리도 기생충과 공생해야 합니다.”<br/><br/><br/><br/>신 부총장은 현재 ‘1인 1기생충 갖기 운동’을 펼치고 있다. 기생충으로 면역력도 키우고, 비만도 해결하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br/><br/><br/><br/>신 부총장이 마지막으로 북한을 방문한 것은 2008년 10월이다. 그동안 남한의 민간단체인 ‘어린이어깨동무재단’과 함께 북한에 4개 병원을 지었다. 이후 이명박·박근혜 정부 들어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방북 기회가 찾아오지 않았고, 요즘에는 중국 정부가 남북 의료진의 만남을 허용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설명이다. 신 부총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 당시 “통일은 대박”이란 말을 듣고 지인들에게 “<span class='quot0'>보건이 담보되지 않은 통일은 쪽박</span>”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가 국가정보원 직원에게 ‘경고’를 받은 일화도 소개했다. 그는 북한 김정은 정권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인도주의적 지원은 무조건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br/><br/><br/><br/>“북한에 마지막으로 백신이 간 게 2015년 12월입니다. 당시 백신도 애초 목표의 절반만 갔어요. 백신이라는 건 절차에 따라 모두 접종해야 효력이 발생하는데, 벌써 2년이란 시간이 지났으니 그때 노력이 모두 수포가 된 거죠. 최근에는 백신을 제때 접종하지 못해 사망한 환자 이야기도 들었는데, 그저 안타까울 따름입니다.”<br/><br/><br/><br/>신 부총장이 이토록 북한 돕기에 열을 올리자 세간에는 그가 ‘좌익 인사’라는 편견도 존재한다. 이에 대해 그는 “<span class='quot0'>나는 좌익이 아니라 오히려 우익 중의 우익</span>”이라고 말했다. 의료협력사업에 매달리는 게 이념 성향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다.<br/><br/><br/><br/>“우리는 언제든지 독일식 통일을 준비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이대로 하나가 된다면 큰 불행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남쪽에선 없어진 병이 북한 사람들에 의해 창궐할 수 있고, 북한 사람들은 영양결핍과 면역력이 떨어진 상황에서 남쪽의 바이러스 질환을 맞게 되면 말 그대로 대재앙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br/><br/><br/><br/>신 부총장은 인터뷰 도중 통일을 대비한 보건의료 연구·개발(R&D)을 수차례 강조했다. 현재 그는 연세대, 고려대 교수들과 함께 최우선 R&D 프로젝트 사업 10개를 선정해 상용화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가령, 현재 서울대에서는 백신을 적정온도에 목적지까지 실어나를 수 있는 냉장이동장비 개발이 완성단계에 있다. 냉장이동장비는 태양열발전을 이용해 백신이 4∼10도의 적정온도에 있도록 도와준다. 또 GPS를 통해 백신 온도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적정온도에서 벗어난 불량 백신을 선별할 수도 있다. 새로운 장비는 앞으로 북한 도서에 있는 주민들에게 제대로 된 백신 접종을 가능케 할 전망이다. 지금까지 북한 주민들은 적정온도에 배달되지 못한 ‘맹물 백신’을 접종해왔다는 게 신 부총장의 설명이다. 면역력이 약한 남북한 어린이들이 질병의 격차로 목숨을 잃는 최악의 상황을 막고, 북한 어린이와 청소년이 통일됐을 때 우리 사회에 제대로 적응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여러모로 격차를 줄여 나가야 한다는 게 신 부총장의 생각이다.<br/><br/><br/><br/>그의 집안은 3대째 의사다. 조부부터 따지면 가족 17명이 의사다. 이러한 집안 내력 때문인지 신 부총장은 언제나 남을 돕는 일에 열의가 샘솟았다. 그리고 그 결정체가 바로 서울대 어린이병원학교다. 신 부총장은 2000년부터 18년째 학교장을 맡고 있다. 그는 “<span class='quot0'>서울대 연구부총장직은 아르바이트</span>”라며 어린이병원학교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드러냈다.<br/><br/><br/><br/>“1985년 소아암을 진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치료에 급급해 치료 후 아이들이 겪게 될 문제에 크게 신경 쓰지 못했어요. 문제는 아이들이 치료 기간 2∼3년 동안 학교에 가지 못하다 보니 암 치료 후 사회 부적응자가 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암은 치료했지만, 사회에서 잘살아가는 법은 배우지 못한 거죠.”<br/><br/><br/><br/>신 부총장이 암 치료 후의 삶도 책임지는 ‘토털케어(total care)’를 구상한 계기다.<br/><br/><br/><br/>“처음 병원학교를 만들겠다고 병원장님께 말씀드렸더니 꾸지람을 들었어요. 돈이 안 되는 병원학교를 왜 하느냐고요. 당시 그런 개념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저와 뜻을 함께하겠다며 동료 전문의들이 자기 사무실을 내주면서 어렵게 작은 공간에서 병원학교를 시작할 수 있었죠.”<br/><br/><br/><br/>병원학교가 크게 관심을 받은 것은 김대중 정부 때다. 당시 열악한 환경의 병원학교 소식을 들은 이희호 여사가 개교식에 참석하면서 병원학교의 위상도 격상됐다.<br/><br/><br/><br/>“영부인이 개교식에 오신다고 했더니 병원에서 컴퓨터도 사주고, 책상·의자도 교체해주고 큰 관심을 보이더라고요. 이듬해에는 영부인께서 김대중 대통령을 모시고 다시 한 번 방문해 더 큰 관심을 받는 계기가 됐습니다. 여사님 덕분에 현재 전국적으로 병원학교가 35곳이나 생겼어요. 기적 같은 일이죠.”<br/><br/><br/><br/>서울대 어린이병원은 현재 소아암·백혈병 전용교실 1개를 운영하고 있다. 교실에서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음악 등 11과목 수업이 30여 명 자원봉사자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 신 부총장은 병원학교를 거쳐 새 삶을 살아가는 제자들을 볼 때가 가장 기쁘다고 말했다. 최근에는 병원학교 출신 중 한 명이 서울대 화학생물공학부 교수로 부임해 연구부총장실에서 재회하는 감격을 누렸다.<br/><br/><br/><br/>“제자 중에는 내 뒤를 잇겠다며 서울대 의과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도 있어요. 그런데 그보다 자신이 받은 사랑을 되돌려주고 싶다며 사회복지나 간호학 등을 전공해 봉사하는 직종을 선택하는 학생들이 더 많습니다.”<br/><br/><br/><br/>신 부총장은 과거 조혈모세포 기증운동에도 크게 이바지했다. 1996년 조혈모세포 홍보위원장을 맡고 있을 당시 미국으로 입양을 갔다가 백혈병에 걸린 브라이언 성덕 바우만의 조혈모세포를 찾아줬다. 2년 뒤에는 친부모를 찾는 데 도움을 줬다.<br/><br/><br/><br/>“지금도 바우만과 연락을 하고 지내요. 현재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자신을 돌본 간호사와 결혼해 컴퓨터를 팔면서 화목하게 지내고 있어요. 남들은 내가 이분들을 도와줬다고 말하지만, 오히려 내가 이분들을 통해 더 많은 것을 배워 그저 고마울 따름입니다.” <br/><br/><br/><br/>\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1955년 서울 출생 △경기고 △서울대 의과대(소아과학전공) 학사·석사·박사 △대한혈액학회 이사장 △대한암학회 부회장 △대한수혈학회 회장 △대한소아혈액종양학회 회장 △서울의대 통일의학센터 소장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 운영위원장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 부회장 △서울의대 서울프로젝트 운영위원장 △서울대 연구부총장 이해완 기자 parasa

언론사: 문화일보-1-5.txt

제목: ‘신생아 사망’ 이대목동병원 ‘상급종합병원’ 탈락 가능성  
날짜: 20171226  
기자: 이해완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501.20171226114505009  
ID: 01100501.20171226114505009  
카테고리: 사회>사건\_사고  
본문: 복지부, 재지정 보류 예상 <br/><br/>경찰, 수액 투여과정 수사<br/><br/><br/><br/>신생아 4명이 집단 사망한 이대목동병원이 3기 상급종합병원(2018~2020년) 지위를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일단 상급병원 재지정을 보류한 뒤 경찰 수사를 지켜보면서 최종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은 지금까지 거론됐던 시트로박터 프룬디균 감염뿐 아니라 수액의 처방과 배합, 기계를 이용한 투여 과정 등에서 문제가 없었는지도 수사 중이다.<br/><br/><br/><br/>복지부 관계자는 26일 “<span class='quot0'>이대목동병원의 경우 모든 것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있다</span>”며 “<span class='quot0'>정확한 판단을 내리기 어려워 경찰수사를 끝까지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span>”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span class='quot1'>이대목동병원과 같은 사건이 전에 없었기 때문에 모든 방법과 가능성을 열어두고 상급종합병원 지정과 관련해 결정이 이뤄질 것</span>”이라며 “<span class='quot1'>지금까지 언론에서 제기된 보도내용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여론을 수렴할 계획</span>”이라고 설명했다. <br/><br/><br/><br/>복지부가 지정하는 상급종합병원은 암·중증질환 진료 등 난도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종합병원으로, 이대목동병원은 지난 1기(2012~2014년)에 이어 2기(2015~2017년) 때도 지위를 유지했다. 현재 2기 상급종합병원은 전국 43개소다. 상급종합병원 지위를 얻으면 선도의료기관의 이미지를 얻게 돼 환자 유입 효과가 크고, 종별가산율(30%) 등 건강보험수가에도 가산 혜택이 있다.<br/><br/><br/><br/>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수액의 처방과 배합, 기계를 이용한 투여 과정 등에서 문제가 없었는지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하고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수액 투여 기계 결함 등으로 인해 신생아들에게 정해진 용량보다 더 많은 수액이 투여됐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정밀 감식 중이다.<br/><br/><br/><br/>경찰은 숨진 신생아 4명이 사망 당일인 16일 투여받은 것으로 알려진 종합영양수액(TPN), 스모프리피드, 비타민K 등의 배합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거나, 과다 투여가 이뤄졌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경찰은 이날 신생아 중환자실 간호사 1명, 간호기능원 1명을 참고인으로 불러 신생아 중환자실 의료진 운영 시스템, 위생관리 등에 관한 내용을 집중 조사했다. 주치의였던 조모 교수에 대한 소환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br/><br/><br/><br/>이해완·윤명진 기자 parasa

언론사: 문화일보-1-6.txt

제목: “청와대 출입기자로 대통령 앞에서 파이프 담배 피워”  
날짜: 20171222  
기자: 장재선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501.20171222113005001  
ID: 01100501.20171222113005001  
카테고리: 정치>외교  
본문: - 취재 현장의 목격자들+ / 남시욱 등 지음, 대한언론인회 엮음 / 청미디어<br/><br/><br/><br/>군사 정권기·민주화운동 등<br/><br/>근현대사 지켜본 언론원로들<br/><br/>취재 회고담 34편 모아 출판<br/><br/><br/><br/>특종 비화·뒷이야기 등 담아<br/><br/>現 시국·국가 미래 걱정도<br/><br/><br/><br/>“박 대통령은 군 출신이어서 그런지 권위주의적인 언론관을 갖고 있었지만 출입 기자들에게는 대단히 소탈하게 대했다. 그는 기자들에게 담뱃불을 붙여주는가 하면 방 안에 담배 연기가 자욱하면 손수 창문을 열곤 했다. 지금 생각하면 무안한 노릇이지만 당시에는 파이프 담배가 유행할 때여서 나 역시 박 대통령 앞에서 예사로 파이프 담배를 피웠다.”<br/><br/><br/><br/>박정희 전 대통령 집권기에 청와대를 출입했던 남시욱 전 동아일보 기자가 쓴 글의 한 대목이다. 당시 남 기자는 이후락 비서실장의 소개로 박 대통령을 단독으로 만난 참에 유럽 순방 계획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기사화해 특종을 했다. 남 기자의 글은 이런 ‘무용담’뿐만 아니라 가까이에서 지켜본 박정희 정권의 명(明)과 암(暗)을 균형적으로 기록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이 경제 개발을 위해 얼마나 헌신적으로 노력했는지를 묘사하는가 하면, 정권이 자신들에게 불리한 선거 보도를 했다는 이유로 언론사 간부들을 불법 연행했던 사실도 적었다. <br/><br/><br/><br/>나중에 동아일보 편집국장을 거쳐 문화일보 사장을 하는 등 언론계에 큰 족적을 남긴 남 기자의 취재 회고담은 책 ‘취재 현장의 목격자들+’에 담겼다. 이 책을 엮은 대한언론인회는 원로 언론인 600여 명을 회원으로 둔 모임이다. ‘명기자, 명데스크 못다한 뒷이야기’라는 부제를 지닌 동명의 책을 7집까지 냈다. 2017년 판인 이번 책은 34편의 글을 싣고 있다.<br/><br/><br/><br/>이석희 전 KBS 보도국장도 가까이에서 본 박 전 대통령의 카리스마에 대해 증언한다. 이 전 국장의 글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5·16 군사정변 때 어정쩡한 모습을 보이는 장도영 당시 육군참모총장을 설득하기 위해 함께 찾아갔던 백태하 대령이 장 총장을 권총으로 위협한 비사를 들려줬다고 한다. 이 회고담은 한기호 전 서울신문 정치부 기자가 쓴 글 ‘장도영 장군 50일’과 비교해 읽으면 매우 흥미롭다. <br/><br/><br/><br/>이병훈 전 조선일보 부국장 겸 사진부장의 ‘빛 못 본 특종사진’은 보도지침이 시행됐던 5공화국의 언론 상황을 기록하고 있다. 이 전 부국장은 “<span class='quot0'>신문에 나지도 않을 사진은 왜 찍느냐는 시위대의 항의가 최루가스나 돌보다 더 아팠다</span>”고 회고했다. <br/><br/><br/><br/>민정기 전 중앙일보 기자는 언론인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변신한 과정을 담담히 기록했다. 그러면서도 청년기부터 60년간 단 하루도 빠짐없이 신문을 읽어왔다는 말로 언론에 대한 변함없는 애정을 표현했다. 그는 사후에 염라대왕이 이 세상에서 뭘 했냐고 물으면 “<span class='quot1'>신문을 정말로 열심히 읽었다고 말할 것</span>”이라고 적었다. <br/><br/><br/><br/>현재 대한언론인회 회장을 맡고 있는 이병대 전 KBS 보도제작국장은 세계적인 비디오아티스트 백남준과의 인연을 되돌아봤다. 문화로 서구를 정복하겠다고 큰소리치던 백남준의 진면목을 알려주는 일화들이 가득하다. <br/><br/><br/><br/>영화진흥공사 사장을 지낸 호현찬 전 동아일보 기자는 이렇게 회고했다. “나의 전반 인생은 오로지 신문사 문화부 기자로 시종하였다. 지금 회고하면 무척 힘들고 고단했으나 그래도 보람 있고 자랑스러운 세월이었다.” <br/><br/><br/><br/>대한언론인회에서 발행하는 월간 신문 ‘대한언론’ 주필을 맡고 있는 박석흥 전 문화일보 편집국장 대우의 글은 원로 언론인들이 과거를 반추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현역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 박 전 국장은 “<span class='quot2'>전직 대통령이 수감되고 기존 질서가 붕괴되는 시기에 대한언론은 대한민국 국가 정통성·체제 정당성·남북한 관계를 우려하는 회원들의 여론을 충실히 반영하려고 노력했다</span>”고 밝혔다. <br/><br/><br/><br/>이번 책의 편집을 맡은 유자효 시인은 “<span class='quot3'>현역 언론인이나 언론을 공부하는 학생 그리고 일반 독자들에게 좋은 읽을거리가 되리라고 믿는다</span>”고 말했다. 327쪽, 1만8000원. <br/><br/><br/><br/>장재선 기자 jeijei

언론사: 문화일보-1-7.txt

제목: 82세까지 국민 35.3% 癌 걸리지만… 5년 생존율 70.7%로 ‘쑥’  
날짜: 20171221  
기자: 이용권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501.20171221115505004  
ID: 01100501.20171221115505004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복지부-국립암센터, 2015 통계 <br/><br/><br/><br/>男 5명중 2명·女 3명중 1명 발병 <br/><br/>완치 늘어 생존자 161만명‘최고’ <br/><br/><br/><br/>발병1위 갑상선암→‘위암’으로 <br/><br/>간·폐·췌장암은 생존율 낮은편<br/><br/><br/><br/>한국인이 기대수명(82세)까지 생존할 경우 암에 걸릴 확률이 35.3%인 것으로 나타났다. 남자(79세)37.9%, 여자(85세) 32.0%로 추정됐다. 암 진단을 받은 후 완치 판정을 받는 비율도 계속 증가해 암 생존자가 161만 명에 달했다. 최근 5년간(2011∼2015년) 진단받은 암 환자의 5년 상대생존율은 70.7%로, 2001∼2005년 생존율보다 16.7%포인트 증가했다. 암 발생 순위 1위는 갑상선암에서 위암으로 바뀌었고, 전체적인 암 발생률은 4년 연속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보건복지부와 국립암센터 중앙암등록본부는 21일 국가암등록통계 사업에 따른 ‘2015년 암 통계’를 발표했다.<br/><br/><br/><br/>◇암 발병 순위 변화 = 2015년 기준, 신규 암 환자는 21만4701명(남 11만3335명, 여 10만1366명)으로 2014년(21만8954명)보다 4253명(1.9%) 감소했다. 갑상선암을 제외할 경우 암 발생자는 18만9672명으로 전년 대비 1797명 늘었다. 가장 많이 발생한 암은 위암으로 전체 발생 암 가운데 13.6%를 기록했다. 이어 대장암, 갑상선암, 폐암, 유방암, 간암, 전립선암 순이다. 남성의 경우 위암, 폐암, 대장암, 간암, 전립선암 순으로 많았다. 여성은 갑상선암, 유방암, 대장암, 위암, 폐암 순이다. 갑상선암은 2009년부터 암 발생 1위였지만, 2015년에 6050명이 줄면서 위암에 밀렸다. 갑상선암 과잉 진단 논란이 순위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추정된다. 갑상선암 외에도 위암이 전년 대비 819명(2.7%) 줄었고, 대장암과 간암도 각각 422명(1.6%)·83명(0.5%) 감소했다. 반면 유방암은 전년 대비 798명(4.3%) 늘었고, 전립선암과 췌장암도 각 341명(3.5%), 340명(5.7%) 증가했다. 연령군에 해당하는 표준인구 비율을 가중치로 부여해 산출한 ‘연령표준화 암 발생률’은 1999년 이후 2012년까지 연평균 3.6%씩 증가하다가, 2012년 이후 매년 6.1%씩 감소했다. 다만, 유방암은 1999년 이후 계속 증가하고 있다. 0∼14세 군은 백혈병, 15∼34세 군은 갑상선암, 35∼64세 군의 경우 남자는 위암·여자는 유방암이, 65세 이상 군은 남자 폐암·여자는 대장암이 가장 많았다.<br/><br/><br/><br/>◇암 생존율 증가 = 암 환자의 5년 상대생존율 증가는 갑상선암(100.3%), 전립선암(94.1%), 유방암(92.3%) 등이 이끈 것으로 분석됐다. 간암(33.6%), 폐암(26.7%), 췌장암(10.8%) 등의 생존율은 여전히 하위권을 기록했다. 2001∼2005년 대비 생존율이 10%포인트 이상 상승한 암종은 위암 75.4%(17.6%포인트), 전립선암 94.1%(13.7%포인트), 간암 33.6%(13.2%포인트), 폐암 26.7%(10.2%포인트) 등이다. 생존율이 높아지면서 ‘암 유병자’(암 치료를 받는 암 환자 및 암 완치 후 생존하고 있는 사람)도 많아졌다. 전국 단위 암 발생 통계 산출이 시작된 1999년 이후 집계된 암 환자 중 2016년 1월 1일 생존한 것으로 확인된 암 유병자는 약 161만 명으로 역대 최고 기록이다. <br/><br/><br/><br/>이용권 기자 freeuse

언론사: 문화일보-1-8.txt

제목: 암보다 치료비 더 들고 유전질환이 80%… ‘가계파탄’ 내몰린다  
날짜: 20171219  
기자: 이용권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501.20171219105005004  
ID: 01100501.20171219105005004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 정부 지원 미비에 적기 치료 어려운 희귀질환<br/><br/><br/><br/>전액부담약제 탓에 치료 어려워<br/><br/>인지도 낮고 치료연구조차 더뎌<br/><br/><br/><br/>치료제에 대한 별도방안 없으면<br/><br/>보험급여목록 등재할 수도 없어<br/><br/>치료제 급여등재 2년6개월 걸려<br/><br/><br/><br/>20세 나이에 국내 최연소로 동맥경화우회술 시술을 받게 된 A 씨는 극희귀 질환 ‘동형접합 가족성 고콜레스테롤혈증’ 환자다. 입영통지서를 받고 신체검사를 하던 중 몸에 이상을 발견하고 결국 수술을 받게 됐다. 심근경색과 동맥경화가 동시에 있고, 심장 기능이 절반으로 떨어진 뒤였다. A 씨는 수술 이후에도 약물치료와 혈액투석을 받으며 매달 100만 원이 넘는 치료비를 부담하고 있다. 집안 사정이 좋지 않지만, 일주일에 하루는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하기에 취업도 쉽지 않다. 동형접합 가족성 고콜레스테롤혈증은 100만 명 중 1명에게 나타나는 극희귀 유전병이다. 나쁜 콜레스테롤로 알려진 ‘LDL-C’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높아지며, 10대부터 급사의 위험을 안게 된다.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30대 이전에 심혈관질환으로 사망할 위험이 일반인보다 100배 높아지기도 한다.<br/><br/><br/><br/>우리나라에는 김 씨처럼 희귀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가 지난해 2월 기준 누적 100만 명에 이른다. 정부는 희귀질환자를 위해 ‘희귀질환 관리법’을 지난 2015년 12월 제정했고, 지난해 말에는 시행령과 시행규칙도 갖췄다. 본격적으로 법이 시행됐지만 현장에 있는 의료진과 환자들은 ‘아직도 적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기 어렵다’고 말한다.<br/><br/><br/><br/>◇환자 치료 지원은 부족 = 희귀질환 관리법은 ‘희귀질환 환자들의 의료서비스 접근성 확대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법적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현실의 목소리는 “그렇지 않다”는 지적이 많다. 현재 희귀질환자의 등록·통계 등 인프라 구축에 치중돼, 환자들에게 필요한 치료 접근성 강화나 제도 개선에 대한 부분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희귀질환 관리법 제정 이후 환자들은 약제 신속 급여, 유전상담 급여화, 산정 특례 지원 대상 확대, 희귀질환 전문병원 및 전문의 확충 등 다양한 지원 필요사항을 요구해왔다. 얼마 전 진행된 국정감사에서도 희귀질환 약제의 접근성 확대 및 신속한 등재방안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br/><br/><br/><br/>김장영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심장내과 교수는 19일 “<span class='quot0'>동형접합 가족성 고콜레스테롤혈증과 같은 극희귀 질환은 인지도도 낮고 진단과 치료에 대한 연구도 더뎌 치료 적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span>”며 “<span class='quot0'>특히 동형접합 가족성 고콜레스테롤혈증 환자들은 심각한 심혈관질환이 발생하기 전, 조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span>”고 말했다.<br/><br/><br/><br/>◇항암제보다 부담되는 희귀질환 약제비=‘조기 적절한 치료’는 희귀질환자에게는 큰 경제적 부담으로 다가온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연구에 따르면 정부 관계자 및 학계 전문가 80%가 희귀질환 환자의 본인 부담률을 높이는 가장 큰 원인으로 ‘비급여 및 전액부담 약제’라고 답했다. 특히 희귀질환 약제 부담이 가계 소득에 비해 부담이 크다는 데 동의한 비율은 85.7%로, 항암제 80%보다 높게 나타났다. 현재 희귀질환 치료제 중 40%는 비급여로 남아 있어 환자 본인 부담을 높이고 있다. <br/><br/><br/><br/>희귀질환 환자들의 치료비 부담이 높은 이유 중 하나는 유전성 질환이 많기 때문이다. 희귀질환의 약 80%가 유전성 질환인데, 한 가정에 환자가 여러 명이고 대부분 평생에 걸쳐 치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치료비 부담이 가계 파탄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희귀질환 환자의 의료서비스 접근성 확대방안을 고려할 때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반드시 함께 생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br/><br/><br/><br/>이종혁 호서대 제약공학과 교수는 “<span class='quot1'>희귀질환 환자들은 암 환자에 비해 규모가 작아 급여 적용 후 순위에 놓일 경우 사각지대에서 벗어나기 힘들다</span>”며 “<span class='quot1'>정부는 항암제뿐 아니라 희귀질환 치료제에 대해서도 경제성 평가 면제 기준 확대, 별도의 약가제도 신설 등 다양한 보장성 확대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span>”고 말했다.<br/><br/><br/><br/>◇더딘 정부 지원 =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문재인 케어)를 통해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한다고는 해도 초기에는 예비급여로 편입돼 사실상 급여 혜택을 받는 데 오랜 기간이 걸린다. 과거 희귀질환 치료제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추진 때도 급여등재까지 평균 2년 6개월이 소요됐다. 이는 임상연구에 참여할 환자 수가 부족한 희귀질환의 특성상, 약제의 효능을 입증하거나 비용 효과성을 입증할 근거생산이 어렵기 때문이다. 환자단체에서는 “별도의 방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희귀질환 치료제는 사실상 보험급여 목록에 등재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소연하고 있다. <br/><br/><br/><br/>희귀질환은 환자 수가 적어 다른 질환에 비해 치료제 개발도 쉽지 않다. 전체 희귀질환 중 치료제가 개발돼 미국식품의약국(FDA) 허가를 받은 치료제가 있는 질환은 약 5%에 불과하다. 이런 질환의 특성을 고려해 희귀질환 치료제 급여 등재 시 다른 치료제와 다른 관점에서 제도를 유연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br/><br/><br/><br/>김장영 교수는 “<span class='quot0'>언제 사망할지 모르는 위험을 안고 사는, 즉 치료 시급성이 높은 희귀질환에 대해 임상적 유용성이 확인된 치료제는 의료현장에서 빠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span>”고 강조했다. <br/><br/><br/><br/>이용권 기자 freeuse

언론사: 문화일보-1-9.txt

제목: “‘文케어’ 취약층 부담 줄이지만 全국민 수혜 미미”  
날짜: 20171214  
기자: 이용권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501.20171214142005001  
ID: 01100501.20171214142005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 의료패널 7000가구 조사<br/><br/><br/><br/>高價 비급여,본인부담 많아<br/><br/>수혜 대상 · 지원 범위 제한<br/><br/>민간보험도 반사이익 못 봐<br/><br/><br/><br/>노인만성질환 7년새 倍 늘어<br/><br/>癌생존 男 위 - 女 갑상선 높아<br/><br/><br/><br/>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문재인 케어)이 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은 덜어주지만, 전체 국민이 받는 수혜는 미미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또 민간의료보험 수요에 미치는 단기적 영향 역시 제한적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또 우리나라 의료이용실태를 분석한 결과, 노인이 갖고 있는 평균 만성질환 수는 2008년 2.33개에서 2015년 4.49개로 거의 두 배가 됐다.<br/><br/><br/><br/>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14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9회 한국의료패널 학술대회’를 열고 이 같은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한국의료패널’은 2008년부터 매년 7000여 가구 이상을 추적 조사하는 자료로, 국민의 실제 의료이용과 가계의료비 지출양상을 파악할 수 있다.<br/><br/><br/><br/>◇‘문재인 케어’의 한계 = 김상우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이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따른 민간의료보험 영향 분석’에 따르면 문재인 케어는 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은 줄여주지만, 전체적인 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가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되는 데다 가격이 높은 비급여는 본인 부담이 50∼90%인 ‘예비급여’로 적용되는 탓에 적용대상과 지원 범위가 한정된다는 게 이유다. 김 분석관은 소득 하위 50%의 본인 부담 상한액은 인하되지만 ‘예비급여’는 상한제 적용에서 제외돼 추가 수혜자가 전체 인구의 0.83%에 불과할 것으로 분석했다. 1인당 경감액(평균 85만 원)도 평균 의료비 부담액(477만 원)에 비해 미약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문재인 케어로 민간보험사의 보험금지출은 향후 5년간(2017∼2022년) 총 3조8044억 원(연간 7600억 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지만, 가입자가 단기적으로 줄어들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김 분석관은 정부가 민간 의료보험 보험료 인하를 유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br/><br/><br/><br/>◇노인 의료 문제 심각 =‘우리나라 노인의 장기 소득수준 궤적 유형에 따른 복합 만성질환의 변화(김보린 뉴햄프셔대 등)’에 따르면 노인 건강과 경제적 문제가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2008년 63.1%이던 65세 이상 노인 빈곤층은 2015년 78.0%로 늘어났다. 같은 기간 노인의 평균 만성질환 수는 7년 새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입원 의료이용 만족도 실태와 개선방안’(오영호 보건사회연구원) 연구는 입원 기간 과잉진료를 받았다고 느낀 정도가 클수록, 입원진료비에 대한 부담이 클수록 입원 의료에 대한 불만족도는 높아졌다는 분석을 내놨다.<br/><br/><br/><br/>◇암 생존자 삶의 질 저하 =‘노인 암 생존자의 활동제한 관련 연구(이글라라 가톨릭대)’에 따르면, 남성 암 생존자 중에서는 위암 생존자가 20.2%로 가장 많았고 전립선암(16.4%), 결장직장암(14.1%), 간담췌암, 폐암, 갑상선암 등의 순이었다. 여성 암 생존자의 경우 갑상선암(24.0%), 결장직장암(20.5%), 위암(17.6%), 자궁암, 유방암, 폐암 등의 순이다. ‘암 생존자의 삶의 질과 경제활동(김민희 가톨릭대)’은 암 생존자를 집중 분석, 여성에 나이가 많을수록, 교육수준·소득수준이 낮을수록, 혼인상태가 아닐 때 삶의 질이 떨어졌다.<br/><br/><br/><br/>◇여성 출산은 제도적 문제 =‘가임여성의 흡연행태가 임신·출산 관련 질환에 미치는 영향 분석(박현정 평택대)’ 연구에서는 흡연 경험이 있는 여성은 ‘임신 중 출혈’이 가장 많았으며, ‘저체중아’‘임신성 고혈압’ 등이 나타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성인여성의 출산에 미치는 요인(김윤정 부산가톨릭대)’ 연구는 여성의 출산 가능성은 개인의 특성보다 육아 등에서 필요한 경제적 요인이 해결되었을 때 높아진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br/><br/><br/><br/>이용권 기자 freeuse

언론사: 문화일보-1-10.txt

제목: 국가 대장암검진 내년부터 전액 무료  
날짜: 20171213  
기자: 이용권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501.20171213114506001  
ID: 01100501.20171213114506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복지부, 50세이상자 전부 혜택<br/><br/><br/><br/>현재 건강보험 가입자 상위 50%에 한해 본인부담금 10%를 부담하고 있는 국가 대장암 검진이 내년부터 전 계층에 무료로 제공된다.<br/><br/><br/><br/>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암 검진 실시기준 일부 개정안을 행정 예고하고 오는 26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지금까지 국가 암 검진으로 5대 암(위암·대장암·간암·유방암·자궁경부암) 검진을 받을 때 자궁경부암만 무료였다. <br/><br/><br/><br/>나머지 4대 암은 의료급여 환자 및 건강보험 가입자 중 하위 50%는 무료였지만, 건강보험 가입자 상위 50%는 검진비용의 10%를 본인부담금으로 내야 했다. 대장암 검진은 만 50세 이상일 경우 매년 검진을 받는데, 현재 건강보험가입자 상위 50%는 1차 대변검사 비용 3500원 중 350원, 2차 대장내시경 검사비용 15만 원 중 1만5000원을 내야 했으나 내년부터는 비용 부담이 사라진다.<br/><br/><br/><br/>복지부는 또 대장암이나 간암으로 진료받는 환자의 경우 건강보험 암 진료비 지원 혜택을 받을 때는 대장암과 간암 검진을 받지 않아도 받은 것으로 갈음하도록 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국가 건강검진을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고 지역가입자는 암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없는데, 이런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는 것이다. 병원에서 상시 암 검사를 받는 암 환자의 경우 국가 암 검진 제도를 통해 또다시 검사를 받아야 하는 불편과 비용 낭비를 줄인다는 목적도 있다. 또 국가 암 검진의 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검진결과 판정 의사 실명제를 도입, 의사면허번호와 성명을 명시하도록 했다. <br/><br/><br/><br/>이용권 기자 freeuse

언론사: 문화일보-1-11.txt

제목: 시린 박하香 흐르는 ‘텅 빈’ 겨울산에서 명징한 마음을 찾다  
날짜: 20171213  
기자: 박경일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501.20171213111005003  
ID: 01100501.20171213111005003  
카테고리: 문화>요리\_여행  
본문: ■ 가야산의 ‘겨울 풍경’<br/><br/><br/><br/>가야산은, 금강산처럼 계절에 따라 부르는 이름이 따로 있습니다. 겨울 가야산을 두고 ‘동설송(冬雪松)’이라 부릅니다. 겨울 눈이 쌓인 청청한 소나무 한 그루가 눈앞에 떠오르는 운치 있는 이름이지요. 겨울 금강산을 부르는 이름인 ‘개골산(皆骨山)’에 대면 풍류가 한 수 위입니다. 금강산과 비교할 수 있는 건 이름뿐만 아닙니다. 가야산에는, 금강산에 있는 ‘만물상’이 있습니다. 만물상은 이름 그대로 ‘만 가지 형상을 한 바위가 이루는 세상’입니다. <br/><br/><br/><br/>조선 시대 이중환은 ‘택리지’에서 가야산의 만물상을 일러 ‘석화(石火)’라고 했습니다. ‘돌로 만든 불꽃’이란 뜻이지요. 그 표현 그대로 가야산의 암봉은 맹렬하게 타오르는 불길의 형상입니다. 내친 김에 가야산에 바친 이중환의 헌사를 좀 더 들어보시지요. “뾰족한 돌이 줄을 잇달아서 불꽃같으며 공중에 솟아서 극히 높고 빼어나다…. 나는 듯한 샘물과 반석이 수십 리에 걸쳐 있다.” <br/><br/><br/><br/>하필 매서운 절정의 겨울 추위에 가야산 얘기를 꺼낸 건, 지금 그곳에 가면 잎을 다 떨군 겨울 산의 흰 뼈대를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기묘묘한 암봉이 날 선 창끝처럼 서 있는 겨울 가야산은 지금, 시린 박하 향으로 가득합니다. 가야산 계곡에는 아직 얼지 않은 물소리가 있었고, 산정에는 푸른 빛이 너무 짙어 검은색에 가까운 하늘이 있습니다. <br/><br/><br/><br/>이런 풍경 속으로 오래전의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가야산에 들어 경관과 풍류를 말했던 이가 많지만, 실의와 절망 끝에 가야산을 찾아들어 마지막을 의탁한 이도 적지 않았습니다. 좌절한 지식인이었던 신라의 최치원이 그랬고, 대가야의 마지막 태자 월광도, 신라 마지막 왕 경순왕의 둘째 아들 김황도 그랬습니다. <br/><br/><br/><br/>겨울 가야산에 들면 그들이 여기까지 들어온 이유가 짐작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다 내려놓고 본질로 돌아온 것들의 명징함이 겨울 가야산에는 있으니 말입니다. 눈 쌓인 가야산에는 인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만물상을 거쳐 정상 칠불봉으로 오르는 길. 선비 한강 정구가 가야산을 드나들며 남겼다는 글을 되새겨 봅니다. ‘높은 곳에 오르는 뜻은 마음 넓히기를 힘씀이지, 안계(眼界·시야)를 넓히기 위함이 아니다.’ 그렇습니다. 들숨과 날숨의 흰 입김으로 겨울 산을 가로지르면서 보고, 또 생각해야 하는 것. 그것은 바로 ‘내 마음’입니다. # 합천 가야산인가, 성주 가야산인가<br/><br/><br/><br/>알려지기로는, 그리고 알고 있기로는 ‘합천 가야산’이다. ‘합천 해인사’가 자연스럽듯이 말이다. 가야산은, 또 그 산자락의 해인사는 경남 합천에 있다고 알고 있다. 그런데 지도만 놓고서 따져보면 가야산의 이름은 합천이 아니라 성주가 가져야 마땅하다. 합천은 경남 땅이고, 성주는 경북 땅이다. 그러니 경남 땅으로 알았던 가야산이 실은 경북의 것이란 얘기다.<br/><br/><br/><br/>가야산의 임자가 성주라는 이유는 정상인 칠불봉이 성주 땅에 있어서다. 무슨 법이 따로 있는 건 아니지만, 산은 대개 정상이 있는 곳의 지명으로 불린다. 가야산이 합천 땅으로 알려진 건, 합천에 속한 상왕봉(우두봉)이 가야산 최고봉으로 알려져서다. 18년 전까지는 그랬다. 칠불봉이 가야산 최고봉으로 인정받게 된 건 요즘 국가정보원 직원의 불법 댓글 공작사건 수사과정에서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는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요청이 계기가 됐다.<br/><br/><br/><br/>김 전 청장은 성주경찰서장으로 재직 중이던 1999년 성주군청과 국립공원관리공단에다 칠불봉과 상왕봉의 높이를 정확히 측정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성주서장 재직 중 가야산을 서른 번 넘게 올랐던 김 전 청장은 공문을 통해 ‘칠불봉과 상왕봉에 올라보면 칠불봉 쪽이 더 높아 보인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국토지리정보원이 정밀측정에 나선 결과 김 전 청장의 말대로 칠불봉이 해발 1432.4m로 상왕봉보다 2.6m가 높은 것으로 계측됐다. 가야산의 최고봉이 합천이 아니라 성주로 옮겨진 것이다. <br/><br/><br/><br/>가야산 정상이 성주 땅에 있으니 이로써 가야산은 성주의 것이 된 듯했다. 가야산의 임자가 누구냐를 놓고 성주와 합천이, 경북과 경남은 한바탕 격전을 치렀다. 논란은 길었지만 결론만 보면 바뀐 건 없었다. 여전히 가야산의 임자는 합천이다. 최고봉의 타이틀을 칠불봉에 넘겨줬음에도 국립공원은 가야산 주봉을 여전히 상왕봉으로 삼고 있다. 과학적인 계측의 결과가 켜켜이 쌓인 역사와 전설까지 바꿀 수는 없는 일이었다. 게다가 팔만대장경의 해인사도, 최치원이 깃들어 신선이 됐다는 홍류동 계곡도 모두 가야산 합천 쪽에 있으니…. <br/><br/><br/><br/># 홍류동의 풍류, 해인사의 삼매<br/><br/><br/><br/>매서운 겨울 추위에도 합천의 가야산 홍류동 계곡은 아직 얼어붙지 않았다. 군데군데 살얼음이 잡혔지만 계곡 곳곳의 노송들은 여전히 싱그러운 초록을 잃지 않았고, 물소리도 아직 청아하다. 가야산 어귀에서 해인사 입구까지 3㎞ 남짓 이어진 계곡에 붙여진 ‘홍류동’이란 이름은, 이 계곡의 단풍이 짙어 흐르는 물마저 붉다 해서 얻은 것이다. 그러니 이 계곡의 절정이 가을인 건 두말할 나위 없지만, 코끝이 아린 겨울 추위 속에도 홍류동의 정취는 모자람이 없다. <br/><br/><br/><br/>어찌 된 일인지 올해 가야산의 단풍나무는 마치 박제된 것처럼 잎을 가지에 매단 채 말라붙어 버렸다. 계곡 사이로 볕이 들면 바싹 말랐으되 아직 떨구지 않은 잎들이 온통 붉고 노랗게 반짝인다. <br/><br/><br/><br/>홍류동 계곡은 신분제에 좌절한 신라의 최치원이 홀연히 사라져 신선이 됐다는 전설을 남긴 곳이다. 홍류동 계곡에는 최치원이 남겼다는 시 한 편이 새겨 전한다. “<span class='quot0'>바위 골짝 치닫는 물 첩첩 산골 뒤흔드니 ／ 말소리는 지척에도 알아듣기 어렵구나 ／ 세속의 시비 소리 행여나 들릴세라 ／ 흐르는 물로 산을 둘러치게 하였구나.</span>” 겨울의 적막 때문일까. 세속의 시비를 흐르는 물소리로 막았다는 표현처럼 겨울 홍류동 계곡의 물소리가 유독 크다.<br/><br/><br/><br/>홍류동 계곡을 거슬러 올라가면 해인사다. 신라 애장왕 때 지은 절집이라니 거기 깃든 세월만 1200년이 훌쩍 넘는다. ‘바다 해(海)’에 도장 인(印)’의 이름은 화엄경의 ‘해인삼매(海印三昧)’에서 왔다. 해인삼매란 풍랑이 일던 바다가 잠잠해지면서 삼라만상이 바닷물이 비치는 것처럼 온갖 번뇌가 끊어진 고요한 상태를 일컫는다. 풍랑의 바다가 중생의 마음이라면 고요한 바다는 깨달음을 얻은 부처의 바다를 뜻한다. 그렇다면 절집이 적막에 잠긴 이즈음이야말로 해인사가 가장 해인사다울 때다.<br/><br/><br/><br/># 만물상… 바위가 불꽃으로 타오르다 <br/><br/><br/><br/>합천 가야산이 가진 해인사와 홍류동에 맞서서 성주 가야산이 자신 있게 내놓는 건 타오르는 불꽃 형상의 기기묘묘한 바위들이 늘어선 ‘만물상’이다. 조선시대 이중환은 ‘택리지’에서 가야산의 기기묘묘한 암봉을 두고 ‘돌로 만든 불꽃(석화·石火)’이라고 표현했다. 그의 말대로 만물상의 바위들은 불꽃의 형상이다.<br/><br/><br/><br/>가야산은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전국의 산 중에서 탐방코스가 가장 단출하다. 가야산을 오르는 길이라야 딱 3개뿐이니 말이다. 합천 해인사 쪽에서 오르는 길이 하나 있고, 반대편 성주의 백운동 쪽에서 오르는 길이 두 개 있다. 택리지에 등장하는 불꽃같은 바위는 성주 쪽에서 오르는 ‘만물상 코스’에서 만날 수 있다. <br/><br/><br/><br/>‘만물상’이라면 금강산부터 떠오르지만, 가야산 만물상도 못지않다. 그럼에도 ‘가야산 만물상’을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건, 그곳이 오랫동안 통제구간이었기 때문이다. 만물상은 1972년 10월 가야산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됨과 함께 통제됐다가 38년 만인 지난 2010년에야 개방됐다. 만물상을 닫아놓았던 건 성난 짐승의 갈기처럼 아찔하게 이어지는 암릉 때문이었다. 만물상 코스 대신 암릉 아래 계곡을 따라 오르는 용기골 탐방로를 택할 수밖에 없었던 등산객들은 만물상의 암릉을 올려다보면서 입맛을 다실 수밖에 없었다. <br/><br/><br/><br/>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만물상에다 탐방로를 놓기로 했던 건, 가야산을 제 것으로 삼으려다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성주에 대한 배려이기도 했을 것이었다. 그렇다면 성주 입장에서 칠불봉을 가야산 정상으로 인정받은 게 소득이 영 없었던 것은 아니었던 셈이다. 만물상 암봉에 탐방로를 내고 사다리를 놓아 탐방코스를 열자마자 전국에서 등산객들이 몰려들었다, 특히 단풍이 물드는 가을철이면 탐방로에 정체가 생길 정도로 인파로 붐볐다. 그러나, 겨울만큼은 예외였다. 다른 명산들이 산불방지 기간으로 통제되고 있는 동안에도 가야산만큼은 제한 없이 오를 수 있는데도 그랬다.<br/><br/><br/><br/># 적막한 겨울 가야산의 바람 <br/><br/><br/><br/>겨울 가야산은 적막했다. 산을 오르고 내리는 내내 단 한 명의 등산객도 만나지 못했다. 가야산에 그동안 서너 차례 눈이 지나갔다지만, 녹지 않은 눈 위에 찍힌 발자국은 서너 개에 불과했다. 그나마 만물상 코스에는 사나흘 전쯤에나 지나간 딱 하나의 발자국만 있었다. 산은 텅 비어 있었고 눈밭에는 산짐승들이 지나간 자취만 뚜렷했다. <br/><br/><br/><br/>성주 백운동에서 출발하는 만물상 코스의 구간은 3㎞ 남짓. 국립공원관리공단은 탐방 코스별로 등반 난이도를 매겨놓았는데, 여기 만물상 구간의 경우는 다섯 단계의 난이도 중 최고인 ‘매우 힘듦’이다. 그러나 실제 올라보면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3㎞ 구간을 오르는 데 2시간 30분이나 걸리지만, 긴 등반 시간은 가파른 경사도나 체력의 문제라기보다는 바위를 딛고 오르는 속도 혹은 안전의 문제 때문이다.<br/><br/><br/><br/>겨울 만물상 탐방로가 텅 비어 있는 이유는 바람 때문이었을까. 암봉의 능선 위에 올라서자 매서운 바람이 온몸을 두드렸다. 어찌나 바람이 차고 거센지 두통마저 일 정도였다. 바람은 위태롭게 바위 이곳저곳에 뿌리를 내리고 가지를 뒤튼 소나무 잎 사이를 빗질하듯 지나가면서 소리를 만들었다. ‘쏴아~.’ 차갑고 매서운 겨울바람은 정신을 번쩍 들게 한다. 겨울이면 산악인들이 겨울바람을 맞는다며 소백산을 찾는 것도 이런 이유다. 소백산의 겨울철 칼바람이 얼마나 시퍼렇게 날이 서 있는지 아는 이들은 안다.<br/><br/><br/><br/>그만큼은 아니었지만 만물상의 바람도 정신이 번쩍 들게 하기 충분하다. 위태로운 암릉 구간에 눈이 쌓여 있으면 어쩔까 싶었는데, 거센 바람 때문일까. 눈이 다 날아가서 능선에는 자취도 없다. 군데군데 눈이 쌓인 곳이 있긴 했지만, 아직은 아이젠을 꺼내지 않아도 될 정도다. 만물상의 미덕은 오를수록 점입가경의 풍경을 보여준다는 것. 점점 더 속도가 늦춰지고 감탄사가 길어지다가 마침내 만물상의 가장 훌륭한 조망대이자, 스스로도 명승의 경관인 ‘상아덤’에 당도했다. # 천신과 산신이 만나 가야를 이루다 <br/><br/><br/><br/>‘상아덤’이란 이름은 달에 산다는 미인을 뜻하는 ‘상아(嫦娥)’에다 ‘바위 암(巖)’을 뜻하는 ‘덤’을 합친 이름이다. 풀면 ‘하늘의 여신이 사는 바위’란 뜻이다. 상아덤에는 가야의 시작을 알리는 상징으로 빛나는 전설이 있다. <br/><br/><br/><br/>상아덤에 가야산의 여신인 ‘정견모주(正見母主)’가 깃들여 있었는데, 백성들에게 살기 좋은 터전을 닦아주기 위해 힘을 얻고자 하늘에 기도를 드리니 하늘의 신 ‘이비가지(夷毗訶之)’가 오색구름 수레를 타고 내려왔다. 천신과 산신은 가야산에서 부부의 연을 맺고 아들 둘을 두었는데 큰아들이 대가야의 첫 왕이 됐고, 둘째 아들은 금관가야의 수로왕이 됐다는 얘기다.<br/><br/><br/><br/>상아덤의 바위 무더기 앞에 놓아둔 나무덱에 올라서면 옛사람들이 왜 그곳을 고대 국가의 시작으로 삼았는지 어렴풋하게나마 짐작할 수 있다. 상아덤에서는 만물상의 모든 것을 다 내려다볼 수 있다. 칼날처럼 날이 선 바위도, 뾰족한 창끝이나 톱니 같은 바위도, 부드럽게 둥글어진 바위도 모두 발밑이다. 사방이 벼랑인 암봉 어디쯤을 지나서 여기까지 왔을 텐데 지나온 길을 도무지 짐작조차 할 수 없다.<br/><br/><br/><br/>지금은 아찔하게 현기증 나는 바위와 바위 사이에다가 계단과 사다리를 놓아두어 오를 수 있지만, 그 전까지는 이곳에 발을 디디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으리라. 그러므로 상아덤의 공간은 오랫동안 신의 영역이었을 것이고, 상아덤에서 보는 경관 역시 신들의 시선이었을 것이었다. 겨울 산의 능선을 지나는 칼바람의 정점에 서서 그 풍경을 본다. <br/><br/><br/><br/>성주·합천=글·사진 박경일 기자 parking

언론사: 문화일보-1-12.txt

제목: 중년男 괴롭히는 전립선癌…14년 새 7.5배 늘어  
날짜: 20171212  
기자: 이용권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501.20171212103005002  
ID: 01100501.20171212103005002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 생활양식 서구화로 한국 등 亞 발병률 기하급수 증가<br/><br/><br/><br/>초기 뚜렷한 자각 증세 없다가<br/><br/>대부분 뼈·림프절 전이후 발견<br/><br/>요통·부종 등 신체 고통 동반<br/><br/><br/><br/>화학요법 고령환자에 부담 커<br/><br/>새 치료제는 일부만 보험 적용<br/><br/>치료·약제비 등 지원 이뤄져야<br/><br/><br/><br/>50대 초반인 한모 씨는 최근 소변을 보는 횟수가 부쩍 증가해 얼마 전 병원을 찾았다. 막상 화장실에 가면 소변 줄기가 가늘고 통증이 느껴졌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기다 혈뇨에 깜짝 놀라 부랴부랴 병원에 달려갔다. 2009년 건강검진에서 ‘전립선특이항원’(PSA) 수치가 높게 나와 전립선 비대증약을 복용해 오던 터라, 이번에도 비대증이나 염증 정도로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검사 결과는 전립선암이었다. 이미 뼈와 림프절까지 전이가 진행된 4기로, PSA 수치도 지난번보다 3배 이상 증가했다. 1차 호르몬 치료를 받았으나 반응을 보이지 않게 되면서 항암 화학요법도 시도했지만, 이마저도 실패했다. 현재 2차 호르몬 치료에 마지막 희망을 걸고 있는데, 치료비 부담에 우울증세까지 나타나고 있다. <br/><br/><br/><br/>12일 ‘아시아태평양 전립선암환자연합’ 공동 보고서에 따르면 오는 2030년 아시아 지역의 전립선암 발병률과 사망률이 모두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전립선암은 미국, 영국 등 선진국에서 발생 비율이 높은 ‘선진국병’ 중 하나다. 사회가 고령화되고 생활양식이 서구화됨에 따라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태 전립선암 환자연합은 보고서를 통해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지역은 지난 수십 년간 발병률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왔으며, 국가 정책 개발을 통한 전립선암 환자에 대한 지원이 매우 시급한 상태에 있다고 지적했다. <br/><br/><br/><br/>실제 2014년 국내 남성 9785명이 전립선암 진단을 받았는데, 이는 2000년 대비 7.5배 증가한 수치다. 아·태전립선암환자연합은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태평양 5개국이 활동하고 있다. <br/><br/><br/><br/>대한비뇨기종양학회가 분석한 2015년 기준 전립선암 연령 표준화 발생률 역시 10만 명당 68.5명으로, 2006년(52명) 대비 약 32% 증가했다. 전립선암은 보통 50세 이상에서 급격히 늘어나 최근 고령사회로 진입하는 국내 상황과 맞물려 질병 부담과 검진, 치료비 지원 등의 제도적인 지원 마련 대책이 요구되는 병이다. <br/><br/><br/><br/>◇전립선암, 초기 자각 증세 없는 ‘독한 암’= 전립선은 방광 바로 아래 위치한 남성의 생식기관 중 하나로, 정액의 일부를 만들어내고 저장하는 역할을 한다. 이런 전립선의 일부 세포가 정상적인 증식 조절 기능을 잃어 발생하는 악성 종양이 바로 전립선암이다. 전립선암은 다른 암 질환 대비 증식 속도가 느려 초기에는 뚜렷한 자각 증세가 나타나지 않는다. 이 때문에 보통의 남성들은 특별한 증상이 나타나기 전까지 전립선암 검사를 받는 경우가 드물다. 뼈나 림프절 등 다른 장기로 전이된 말기에 발견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독한 암’이라고도 불리기도 한다. 전이로 발생하는 주된 증상은 혈뇨, 발기부전, 신부전 등이 있다. <br/><br/><br/><br/>특히 말기 전립선암 단계로 진행될 경우 골 전이로 인한 뼈의 통증, 척추 전이로 인한 요통과 좌골신경통, 림프절 전이에 따른 부종과 운동신경 장애 등의 증상으로 큰 신체적 고통을 동반한다. <br/><br/><br/><br/>◇수술과 호르몬 치료 등으로 완치 가능= 다행히 진단과 치료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전립선암 생존율은 우수한 편이다. 특히 최근 전립선암은 전립선 및 주위 조직을 제거하는 수술로 완치가 가능한 단계까지 발전했다. 국내에서 전립선암 치료는 환자 상태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전립선암 세포에 영향을 주는 남성호르몬의 생성을 차단하거나 억제하는 ‘호르몬 치료’(안드로젠 차단 요법·ADT)가 많이 시행되고 있다. 다만 장기간의 호르몬 치료에 반응이 없는 환자의 경우 암세포가 뼈나 림프절, 폐 등으로 전이된 ‘전이성 거세저항성 전립선암’(mCRPC) 상태가 된다. 이런 전이성 전립선암은 항암 화학요법으로 치료하지만, 대부분 60∼70대 고령 환자가 많은 질환 특성상 심리적인 부담이나 신체적 부작용을 견디기 힘든 경우가 많다. 최근에는 화학요법의 부작용을 줄인 새로운 호르몬 치료제들이 나오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화학요법 실패 이후 일부 한정된 치료제에만 보험 급여가 적용돼 활용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br/><br/><br/><br/>◇전립선암 환자 ‘전이’가 가장 두려워=전립선암 환우건강증진협회가 지난 11월 국내 전립선암 환자 239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환자들은 치료 과정에서 ‘전이와 치료 실패로 인한 두려움(74.5%)’이 가장 크다고 답했다. 또 응답자의 58.2%는 치료 과정에서 경제적 어려움도 경험했다. 환자들은 이런 치료 과정의 어려움을 주변에 쉽게 토로하지 못했다. 환자 55.2%는 ‘본인이 환자라는 사실을 주위에 알리지 않는다’고 답했다. 그 이유(중복응답)로는 △‘한 집안의 가장, 남자로서 병약함을 드러내고 싶지 않아서(52.4%)’ △‘경력단절 등 사회적 참여에 제한을 받을까 봐(42.9%)’ 등이 주된 이유로 나타났다.<br/><br/><br/><br/>이달숙 전립선암환우건강증진협회장은 “국내 전립선암 환자들은 은퇴를 고려할 나이지만, 가장으로서 치료비가 집안에 부담이 될까 크게 고민해 경제적인 활동을 힘들게 이어나가는 경우가 많다”며 “치료 및 약제비 지원 등 실제적인 환자들의 질병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제도적인 지원이 하루빨리 이뤄졌으면 한다”고 밝혔다. <br/><br/><br/><br/>이용권 기자 freeuse

언론사: 문화일보-1-13.txt

제목: “10팀중 8팀은 망한다” 아이돌 전성시대의 明暗  
날짜: 20171212  
기자: 안진용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501.20171212101006002  
ID: 01100501.20171212101006002  
카테고리: 문화>방송\_연예  
본문: 5인조 데뷔까지 5억 ~ 10억 들어 <br/><br/>의상·헤어·메이크업·식비 등 <br/><br/>신인은 무대 설때마다 마이너스 <br/><br/>데뷔 2 ~ 3년차까지 20억 투입 <br/><br/><br/><br/>팀 하나 잘 만들면 수백억 매출 <br/><br/>끝까지 빛 못보면 거액 빚만 남아<br/><br/><br/><br/>그룹 방탄소년단이 신드롬이라 할 만한 인기를 누리는 연예계의 또 한쪽에서는 쓸쓸한 소식이 들려왔다. 가수 테이의 소속사 염모 대표가 지난 2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사실이 9일 알려졌다. 30대 중반인 염 대표는 “경제적으로 힘들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겼다. 부익부 빈익빈이 극대화되는 곳, 연예계의 실상이다.<br/><br/><br/><br/>방탄소년단을 비롯해 엑소, 워너원 등 내로라하는 그룹들은 매번 수백 억 원이 넘는 매출을 올린다. 없어서 못 파는 콘서트 티켓은 암표 시장에서 장당 100만 원 넘게 거래되고, 광고주들은 앞다투어 손을 내민다. 아시아 전역에서 한류가 넘실대고 유명 걸그룹 출신인 구하라, 한승연 등이 빌딩을 샀다는 보도가 이어진다.<br/><br/><br/><br/>하지만 눈을 살짝 돌려 KBS 2TV ‘더 유닛’, JTBC ‘믹스 나인’ 등 오디션 프로그램에 참가한 연예인 지망생이나 재기를 꿈꾸는 기성 가수들을 보면 절실함이 느껴진다. 걸그룹 스피카의 멤버였던 양지원은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녹즙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는 모습을 공개하기도 했다. <br/><br/><br/><br/>엄청난 부를 가져다주는 아이돌 그룹을 키우는 건 여간 힘든 일이 아니다. 5인조 아이돌 그룹을 데뷔시키기 위해 연습생 모집부터 데뷔까지 소요되는 비용은 대략 5억∼10억 원 정도다. 춤, 노래, 연기 트레이닝을 비롯해 외모를 가꾸기 위한 운동과 미용 시술 등 끊임없이 돈을 쏟아부어야 한다. 여력이 되지 않는 기획사는 식사를 챙겨주지 못해 연습생들이 직접 해결하곤 한다. <br/><br/><br/><br/>우여곡절 끝에 데뷔해도 곧바로 돈을 벌 수 있진 않다. 지상파 음악 프로그램 출연 기회를 얻어도 무대에 설 때마다 회사는 손해를 본다. 신인 그룹의 1회 출연료는 30만∼50만 원 정도. 하지만 5인조 그룹을 무대에 세우기 위해서는 의상, 헤어, 메이크업 비용이 필요하고 매니저와 차량 유지 비용, 식비 등을 써야 한다. 한 중견 가요기획사 대표는 “<span class='quot0'>무대 한 번 설 때마다 300만∼500만 원 정도 마이너스가 난다고 보면 된다</span>”며 “<span class='quot0'>1주일에 지상파 3사 무대에 모두 서면 1000만 원 이상 손해</span>”라고 토로했다.<br/><br/><br/><br/>그럼에도 TV에 얼굴을 비쳐야 인지도가 상승해 팬이 모이고 행사 섭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매니저들은 높은 경쟁을 뚫고 무대에 설 기회를 따낸다. 그렇게 데뷔 후 2∼3년이 지나면 투입된 투자 비용만 20억 원에 육박한다. 각 가요기획사는 투자를 통해 이 돈을 끌어오는데 결국 인기를 얻지 못하고 해체되면 고스란히 빚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br/><br/><br/><br/>이런 위험을 감수하며 아이돌 그룹 제작에 뛰어드는 이유는 간단하다. 일단 인기를 얻으면 ‘대박’을 터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일정 크기 이상의 팬덤이 확보돼 꾸준한 음반, 음원 매출이 나오고 회당 행사 출연료가 1000만 원 안팎이 되는 순간부터 돈을 긁어모을 수 있다. <br/><br/><br/><br/>지난해 걸그룹 AOA가 “<span class='quot1'>데뷔 3년 만에 정산을 받았다</span>”는 기사가 화제를 모은 적이 있다. 연습생과 신인 시절 발생한 투자 비용을 모두 회수하고 각 멤버가 수익금을 나눠 갖게 됐다는 의미다. 통산 아이돌 그룹들이 표준계약서상 최대치인 7년 계약을 맺는 것을 고려하면 AOA는 향후 4년간 ‘버는 일’만 남은 셈이다. <br/><br/><br/><br/>많은 가요계 관계자는 아이돌 그룹 제작을 ‘확률 높은 로또’라고 말한다. 10팀을 제작하면 그중 인기를 얻어 생존하는 팀은 2팀 정도다. 확률은 20%.0 반면 로또 복권 1등 당첨 확률은 800만 분의 1 정도다. 또 다른 가요기획사 대표는 “<span class='quot0'>요즘 로또 1등 당첨금이 15억 원 안팎인데 아이돌 그룹 하나 잘 만들면 수백 억 원의 매출을 낼 수 있으니 투자자들도 장밋빛 꿈을 꾸며 거액을 투자하는 것</span>”이라고 덧붙였다.<br/><br/><br/><br/>하지만 언론과 여론은 ‘잘된 그룹’에 집중한다. 실패 사례는 자세히 소개되지 않으니 담보 없는 청사진만 들고 노하우나 계획 없이 부나방처럼 뛰어드는 이들이 발생한다. 그들에게 남는 것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빚이다. 언론과 여론이 조명하지 않는 연예계의 암(暗)이다.<br/><br/><br/><br/>안진용 기자 realyong

언론사: 문화일보-1-14.txt

제목: 계명대 동산병원, 대구·경북 첫 ‘유전상담센터’ 개설  
날짜: 20171211  
기자: 박천학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501.20171211172005003  
ID: 01100501.20171211172005003  
카테고리: 지역>대구  
본문: 대구·경북에서도 유전검사와 함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유전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됐다.<br/><br/><br/><br/>계명대 동산병원은 유방암, 난소암 등 유전성 암과 선천성 유전 질환 환자에게 정확한 유전 정보를 제공하고, 신체적·심리적 부분은 물론, 사회적 요소까지 고려한 개인 맞춤형 의료상담을 하는 ‘유전상담센터’를 개설했다고 11일 밝혔다.<br/><br/><br/><br/>센터는 유전검사를 앞둔 환자에게 검사 목적과 방법을 상세하게 안내하고, 검사 후에는 결과에 대한 자세한 해석과 치료방향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가족 상담도 한다. <br/><br/><br/><br/>한편, 동산병원은 차세대 염기서열분석(NGS) 기반 유전자 패널검사를 도입했다. 이 검사는 한 번에 143개의 유전자를 단시간에 분석해 수십억 개의 염기서열을 확인할 수 있다. 암 조직이나 혈액 검사를 통해 빠르고 정확하게 유전자 이상을 밝혀내는 차세대 유전검사법으로 알려져 있다. <br/><br/><br/><br/>대구=박천학 기자 kobbla@

언론사: 문화일보-1-15.txt

제목: 바이오산업 발목 잡아온 ‘생명윤리법’ 기초연구 허용·네거티브 규제化 추진  
날짜: 20171207  
기자: 노성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501.20171207141005002  
ID: 01100501.20171207141005002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과기정통부 ‘바이오경제포럼’<br/><br/>7개 학회와 法개정 방향 논의<br/><br/><br/><br/>‘황우석 쇼크’를 딛고 유전자 치료 등 바이오산업의 선두주자가 되기 위한 생명윤리법 개정에 시동이 걸렸다. <br/><br/><br/><br/>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바이오경제포럼’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지난 2개월간 한국유전체학회 등 바이오 분야 7개 학회의 의견 수렴 결과와 과기정통부의 법 개정 방향 제언이 소개됐다. 개정의 3가지 큰 방향은 △포지티브(원칙금지·예외 허용) 방식 규제를 네거티브(원칙허용·예외 금지)로 전환 △기초·임상연구의 포괄적 금지를 기초 연구는 원칙적 허용 △중앙집권식 통제를 연구현장의 자율과 책임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유전자 교정, 배아 등 바이오 분야의 선구적 신기술을 보유하고도 황우석 쇼크 이후 제정된 생명윤리법의 엄격한 제한 때문에 우수 연구자나 기술이 해외로 유출돼 국제경쟁에서 뒤처질 우려가 있다는 학계 비판이 대두돼 왔다. <br/><br/><br/><br/>학계는 우선 암·에이즈 등 유전자 치료 허용 질환을 열거하는 현행 규제를 폐지하고, 난임치료·희소난치병 등 22개 질환에 대해서만 배아 연구를 허용하는 것도 생명윤리 준수 범위 내에서 기초연구에 한해 허용 쪽으로 개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기초연구와 임상연구를 구분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현재 배아·생식세포 유전자 교정을 완화하자고 제안했다. <br/><br/><br/><br/>그러나 유전체 연구에서는 기초연구에 한해 참여자 동의하에 배아 생성을 허용하자는 견해와 금지 의견이 갈렸다. 잔여배아·체세포복제배아 연구 시 연구계획서에 보건복지부 장관 승인을 받도록 한 중앙집권적 통제도 주제별로 차별화 규제와 자율 관리가 요구된다고 입을 모았다. <br/><br/><br/><br/>생명윤리법 개정 방향은 내년 1월 국가과학기술심의위원회 보고를 거쳐 필요하면 대국민 설문조사 등도 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span class='quot0'>주무부처인 복지부와의 협의를 통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span>”이라고 말했다. <br/><br/><br/><br/> 노성열 기자 nosr

언론사: 문화일보-1-16.txt

제목: “슈퍼박테리아 손놓으면 2050년 1000만명 이상 사망”  
날짜: 20171207  
기자: 이해완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501.20171207115005009  
ID: 01100501.20171207115005009  
카테고리: 미분류  
본문: 유엔 환경총회서 경고 <br/><br/><br/><br/>“당장 대처해야할 심각한 문제 <br/><br/>한국, 항생제 남용 관리 시급”<br/><br/><br/><br/>항생제 내성을 지닌 일명 ‘맹렬한 슈퍼버그(Ferocious Superbugs)’에 대한 국제적 노력과 경각심 고취가 올해 열린 유엔 환경총회에서 가장 큰 화두로 떠올랐다.<br/><br/><br/><br/>슈퍼버그는 항생제 내성으로 어떠한 약도 듣지 않는 감염균 ‘슈퍼박테리아’를 뜻한다. 세계 공동체가 함께 대응하지 않으면 2050년까지 1000만 명 이상이 사망할 것으로 보고됐다. 이는 암 사망자(820만 명)보다 많은 수치다. 우리나라는 항생제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이상으로 사용하고 있어 ‘항생제 공화국’이란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체계를 갖춘 항생제 사용, 감염 관리, 치료제 개발에 집중하지 않으면 유엔이 경고한 슈퍼박테리아의 주요 피해국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br/><br/><br/><br/>에릭 솔하임 유엔환경계획(UNEP) 사무총장은 7일(한국시간) 케냐 나이로비에서 100여 개국의 환경 장관이 참석해 열린 유엔 환경총회에서 “<span class='quot0'>항생제 문제는 지금 당장 대처해야 하는 매우 심각한 문제</span>”라며 “<span class='quot0'>지금 적절히 대처하지 않으면 매우 두려운 결말을 맞게 될 것</span>”이라고 강조했다.<br/><br/><br/><br/>유엔 보고에 따르면 현재 항생제 내성으로 전 세계에서 매년 70만 명이 사망하고 있다. 유엔은 지금 추세라면 2050년에는 매년 1000만 명이 목숨을 잃고, 100조 달러(약 11경 원)에 이르는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암울한 전망 뒤에는 ‘가축 항생제 사용’ 증가도 한몫하고 있다. 유엔은 가축 항생제 사용이 2030년에는 지금보다 67%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br/><br/><br/><br/>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15년 기준으로 국민의 하루 항생제 사용량이 1000명당 24.3명으로 OECD 평균(20.6명)보다 높았다. 최소 사용 국가인 네덜란드(10.7명)보다 2.3배 높은 수치다. 정부는 2020년까지 전체 항생제 사용량을 20%가량 줄일 계획이다. <br/><br/><br/><br/>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span class='quot1'>슈퍼박테리아는 사실상 치료제가 없고, 주변인까지 감염시킬 수 있는 매우 무서운 세균</span>”이라며 “<span class='quot1'>국가적으로 더 많은 재원을 투입해 관리하지 않으면 문제가 커질 수 있다</span>”고 지적했다. <br/><br/><br/><br/>이해완 기자 parasa

언론사: 문화일보-1-17.txt

제목: <정재덕 셰프의 사계절 건강 밥상>들깨수제비, 구수하고 걸쭉한 한사발 허한 속이 푸근해지네…  
날짜: 2017120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501.20171206112005002  
ID: 01100501.20171206112005002  
카테고리: 문화>생활  
본문: 들깨, 밀가루 음식과 찰떡궁합 <br/><br/>가루 활용땐 천연조미료 역할 <br/><br/>나물·볶음요리에 풍미 더해줘 <br/><br/><br/><br/>통들깨 오래 갈면 기름 나와 <br/><br/>약한 불로 볶고 곱게 갈아야<br/><br/><br/><br/> 매서운 칼바람에 모락모락 김이 오르는 뜨끈한 국물음식이 생각나는 계절이다. 수많은 국물음식 가운데 추운 날 한 끼 별미식사로 빼놓을 수 없는 음식 중 하나가 수제비다. <br/><br/><br/><br/>수제비는 사전적 정의로, 장국을 끓여 부드럽게 반죽한 밀가루를 손이나 젓가락으로 얇게 떼어 넣어 끓이는 음식이다. 6세기경 중국문헌 ‘제민요술(齊民要術)’에 ‘박탁()’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등장한다. 국수가 막 생겨날 무렵이니 수제비는 국수와 친척뻘쯤 되는 음식이라 할 수 있겠다. <br/><br/><br/><br/>우리나라에서는 수제비를 조선 초에 ‘운두병(雲頭餠)’이라는 이름으로 불렀다. 그러다 조선 중기 무렵 ‘손으로 밀가루 반죽을 만들어 먹는다’는 의미로 ‘수접(手摺)’이라고 부르면서 ‘수제비’가 됐다고 한다. 한국전쟁 이후에는 서민들의 굶주린 배를 채우기 위한 음식으로 애용되고 이제는 현대인들의 별미음식이 됐지만, 근대 이전까지만 해도 밀 생산량이 많지 않아 수제비는 귀한 음식이었다. <br/><br/><br/><br/>실제로 조선 숙종 때 실학자 홍만선이 엮은 농서 겸 가정생활서인 ‘산림경제’에 보면 ‘영롱발어(玲瓏撥魚)’라는 음식이 나오는데, 이는 일종의 고급 수제비 음식이다. 메밀가루를 반죽해 잘게 썬 쇠고기나 양고기와 함께 수저로 떠서 끓는 물에 넣으면 고기는 밑으로 가라앉고 수제비는 위에 둥둥 뜨는데, 수제비의 그 모습이 물고기가 헤엄치는 듯하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br/><br/><br/><br/>현대에 들어 수제비는 진화를 거듭하고 있다. 다양한 천연재료로 밀가루에 색을 더하고 국물도 사골, 멸치, 조개 등 다양한 재료로 맛을 낸다. 들깨는 밀가루 음식과도 궁합이 잘 맞는다. 들깨 국물을 베이스로 한 수제비는 걸쭉한 국물이 일품인 데다가 영양성분도 뛰어나 겨울철 따뜻하게 먹을 수 있는 건강식으로 손색이 없다. <br/><br/><br/><br/>들깨는 ‘동양의 허브’라고 불릴 정도로 맛과 향이 좋은 식재료다. 요즘 통들깨는 외국산이 너무 많아 국내산 찾기가 쉽지 않다. 국내산 들깨는 껍질이 얇고 낟알 크기가 작은 반면, 외국산은 껍질이 잘 벗겨지지 않고 낟알 크기가 큰데, 외관만으로 구별하기가 쉽지는 않다. 그래서 인증된 우리 농산물 직거래장터에서 구입하는 것을 권한다.<br/><br/><br/><br/>들깨는 맛이 좋고 효능도 뛰어나다. 필수지방산, 무기질, 비타민이 풍부해 성인병 예방에 좋고 오메가3 지방산인 리놀렌산 성분이 다량 함유돼 있어 두뇌발달은 물론, 학습능력 향상과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다. 또 감마토코페롤 성분은 항산화 작용을 해 피부세포 노화를 막아준다. 이 외에도 발암물질과 독소를 배출시켜 암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며, 혈액순환, 신진대사 등 생리활동에도 좋아 장기 복용하면 체질을 개선하는 데 효능을 발휘한다. 한방에서는 만성위염, 기침, 위산과다 등에 처방하기도 한다.<br/><br/><br/><br/>이렇게 영양학적으로 우수한 들깨를 가루로 만들어 음식에 활용하면 더욱 고소하고 진한 풍미를 느낄 수 있다. 천연 조미료 역할을 하는 것이다. 들깻가루로 만들 수 있는 요리들은 들깨수제비, 들깨토란탕, 들깨칼국수, 버섯들깨탕, 들깨추어탕, 들깨무침, 들깨죽 등 국, 탕, 찌개에 다양한 활용이 가능하다. 나물무침이나 볶음요리에 들깨를 넣으면 고소함이 배가되고 맛이 훨씬 깊다. <br/><br/><br/><br/>별미 간식도 만들 수 있다. 가을에 수확한 통들깨를 이용해 만든 들깨강정은 바삭한 식감이 일품이다. 들깨는 소화기능에도 도움을 주므로 밥에 조금씩 넣어 먹어도 좋다. 그러나 뭐니뭐니해도 들깻가루는 밑 국물로 활용될 때 음식의 전체 분위기와 테마를 바꿀 정도의 영향력을 발휘한다. 맛과 영양도 올리면서 음식의 품격까지 한층 높여준다. 따끈한 국물과 개성 넘치는 넓은 면으로 만든 들깨수제비를 준비해 가족과 함께 건강별미를 즐겨보자. <br/><br/><br/><br/>한식당 다담 총괄·사찰음식 명인만들어 보세요재료(2인분 기준) : 수제비 반죽(밀가루 1컵, 소금 한 꼬집, 물 1/5컵), 들깻가루 2T, 통들깨 1컵, 감자 1/2개, 양파 1/4개, 애느타리버섯 30g, 당근채 약간, 호박 1/4개, 국간장 1/2T, 까나리액젓 1/2T, 다진 마늘 1/2T, 소금 소량, 고명(실파, 들깻가루, 실고추), 육수 4컵(다시마 5×5㎝ 3장, 물 6컵, 건표고버섯 2개, 육수멸치 5~6마리, 대파 1/3줄기)만드는 법<br/><br/><br/><br/>1. 통들깨를 볼에 담은 후 물을 부어준다. 둥둥 떠오르는 들깨는 건지고 바닥에 가라앉은 이물질은 버린다. 이 과정을 2~3회 반복해 깨끗하게 세척한다.<br/><br/><br/><br/>2. 씻은 통들깨는 채반에 밭쳐서 물기를 빼주고 은근한 불에서 볶아준다.<br/><br/><br/><br/>3. 냄비에 육수 재료를 넣고 센불에 끓이다가 끓어오르면 다시마를 건져내고 다시 끓인 다음 체에 걸러준다.<br/><br/><br/><br/>4. 손질한 통들깨는 믹서기에 넣고 육수를 붓고 곱게 갈아준다. 그리고 체에 밭쳐 걸러준다. <br/><br/><br/><br/>5. 이후 볼에 넣고 밀가루와 물, 소금, 식용유와 함께 반죽을 치대어 준다. 그리고 냉장고에 넣어 30분간 숙성시켜 준다.<br/><br/><br/><br/>6. 감자는 반으로 자른 후 슬라이스하고 버섯은 밑동을 자른 후 가닥가닥 찢어준다. <br/><br/><br/><br/>7. 냄비에 4의 육수를 붓고 끓이다가 들깻가루를 풀어주고, 끓어오르면 밀가루 반죽을 한 입 크기로 얇게 떼어 넣어준다.<br/><br/><br/><br/>8. 수제비가 둥둥 떠오르면 준비해 둔 버섯과 채소를 넣고 한소끔 끓여준다. 국간장, 까나리액젓, 소금으로 간을 해준다.<br/><br/><br/><br/>9. 완성되면 그릇에 담아 고명을 얹어 내놓는다. 조리 Tip<br/><br/><br/><br/>1. 육수를 만들고 남은 버섯은 슬라이스하여 수제비에 넣어 함께 끓여준다.<br/><br/><br/><br/>2. 들깻가루를 만들 땐 통들깨를 물에 씻어 물기를 제거한 후 프라이팬에 약한 불로 볶은 다음 곱게 갈면 완성이다. 너무 오래 갈면 기름이 나오니 주의한다.<br/><br/><br/><br/>3. 남은 통들깨는 냉동 보관하여 필요할 때 바로 사용하면 편리하다.

언론사: 문화일보-1-18.txt

제목: “기름유출사고 10주년 태안 癌발병률 높아져”  
날짜: 20171205  
기자: 김창희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501.20171205145005002  
ID: 01100501.20171205145005002  
카테고리: 지역>충남  
본문: 전립선癌·백혈병 큰폭 증가<br/><br/><br/><br/>지난 2007년 충남 태안 유류 유출 사고가 7일로 10주년을 맞는 가운데 태안 지역 주민들의 전립선암과 백혈병 발병률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br/><br/><br/><br/>5일 충남도 산하 충남연구원에 따르면 전날 연구원 주최로 열린 ‘서해안 유류 유출 사고 10주년 세미나’에서 태안환경보건센터 박명숙 팀장은 “<span class='quot0'>태안 유류 유출 사고 이후 지속적으로 주민들에 대한 건강 영향 조사를 해온 결과 특정 암의 발병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span>”고 밝혔다. <br/><br/><br/><br/>조사 결과에 따르면 태안 지역 남성의 전립선암 발병률(표준화 암 발병률/10만 명당)은 2004∼2008년 기준 12.1명에서 2009∼2013년 30.7명으로 무려 154% 급증했다. 같은 기간 태안군과 유사한 조건인 충남 서천군(23.4명), 전북 부안군(28.7명), 전남 고흥군(22.8명)보다 훨씬 높았다. 2004∼2008년까지 태안 남성의 전립선암 발병률은 서천·부안은 물론 전국 평균(19.0명)보다 낮았지만 2009∼2013년에는 전국 평균인 26.5명보다 많아진 것이다. 같은 기간 여성의 백혈병 발병률 역시 5.6명에서 8.6명으로 5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br/><br/><br/><br/>홍성 = 김창희 기자 chkim

언론사: 문화일보-1-19.txt

제목: 복당파 “막말 자제”에 한발 물러선 洪  
날짜: 20171130  
기자: 장병철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501.20171130122005002  
ID: 01100501.20171130122005002  
카테고리: 정치>국회\_정당  
본문: 복당파 “리더는 품격 있어야” <br/><br/>洪, 당직자들에 ‘막말 자제령’ <br/><br/><br/><br/>복당 편의 봐준 ‘友軍’이지만 <br/><br/>독불장군식의 ‘洪 리더십’에 <br/><br/>親朴·중도 ‘反洪진영’ 결집땐 <br/><br/>내달 원내대표 경선서 불리해<br/><br/><br/><br/>당내 문제와 관련해 공개 발언을 자제해 온 자유한국당 내 바른정당 출신 복당파 의원들이 홍준표 한국당 대표의 막말을 비롯한 ‘독불장군’식 리더십에 쓴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홍 대표가 원내대표 경선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는 친박(친박근혜)계 및 중도 성향 의원들을 ‘암 덩어리’ ‘바퀴벌레’ 등 거친 표현으로 비난하면서 당 내홍이 심화하는 가운데 홍 대표의 지원군으로 분류되는 복당파 의원들까지 홍 대표의 자제를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br/><br/><br/><br/>30일 한국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일부 복당파 의원은 29일 ‘당 대표 및 최고위원·3선 의원 연석회의’에서 홍 대표의 최근 언행과 홍 대표 체제의 당 운영 상황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한 것으로 전해졌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한 복당파 의원은 홍 대표의 막말 논란과 관련해 “<span class='quot0'>SNS상에서 홍 대표의 막말에 대해 말이 많다</span>”며 “리더는 품격이 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고 한다. 또 일부는 “한국당이 여전히 변한 게 전혀 없다”며 문제를 제기했다고 한다. <br/><br/><br/><br/>복당파는 그동안 친홍(친홍준표)계는 아니더라도 홍 대표의 우군으로 분류돼 왔다. 이들의 복당 과정에서 홍 대표가 상당한 ‘편의’를 봐줬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처럼 복당파가 홍 대표의 면전에서 불만을 표출한 것은 홍 대표의 막말로 촉발된 당내 계파 갈등이 ‘반홍(반홍준표) 진영 결집’의 촉매제로 작용, 오는 12월 12일로 예정된 원내대표 경선에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으로 풀이된다. <br/><br/><br/><br/>실제로 최근 홍 대표가 친박계 등을 향해 연일 수위 높은 발언들을 쏟아내자 이주영·나경원 의원 등 상대적으로 계파색이 옅은 것으로 평가받는 차기 원내대표 후보군까지 나서 홍 대표를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등 불만의 목소리가 당내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br/><br/><br/><br/>이처럼 당내 갈등이 확전 양상으로 치닫자 홍 대표도 목소리를 낮추는 동시에 당직자들에게 ‘막말 자제령’을 내리며 수습에 나서는 모습이다. 홍 대표는 최근 주요 당직자들에게 “<span class='quot1'>원내대표 선거나 원내대표 후보들에 대한 공격은 자제해야 한다</span>”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br/><br/><br/><br/>연일 SNS를 활용해 친박계 등을 비판해 온 홍 대표는 지난 28일 이후에는 침묵을 지키고 있다. 당 일각에서는 “정작 막말을 자제해야 하는 사람은 홍 대표”라는 반응도 나왔다. <br/><br/><br/><br/>장병철·이은지 기자 jjangbeng

언론사: 문화일보-1-20.txt

제목: 타머 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사장, 재판 불출석  
날짜: 20171129  
기자: 정철순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501.20171129145005005  
ID: 01100501.20171129145005005  
카테고리: 사회>사건\_사고  
본문: 타머 전 사장 측 “<span class='quot0'>고혈압과 암 의심돼 독일서 검사 중</span>”<br/><br/><br/><br/>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AVK)의 배출가스 조작 사건에 연루돼 기소된 후 건강상 이유로 재판에 나오지 않던 요하네스 타머(62) 전 총괄사장이 고혈압 등을 사유로 들며 또다시 출석하지 않아 재판이 연기됐다.<br/><br/><br/><br/>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 나상용) 심리로 29일 열린 타머 전 사장 등의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에서 그의 변호인은 “<span class='quot1'>피고인으로부터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5주 정도 입원해야 한다’는 연락을 지난 28일 받았다</span>”고 말했다. 재판부는 주요 피고인인 타머 전 사장이 불출석함에 따라 지난 7월에 이어 이날 재판도 연기키로 했다.<br/><br/><br/><br/>지난 7월 열린 첫 재판에도 타머 전 사장은 건강상의 이유를 들며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그의 변호인은 “<span class='quot1'>피고인의 혈압이 매우 높아서 1시간 이상 비행하거나 차량도 오래 타면 안 된다는 의견을 들었으며 현재 암이 상당히 의심돼 독일 현지에서 관련 검사 중</span>”이라고 주장했다.<br/><br/><br/><br/>타머 전 사장은 지난해 검찰의 AVK 수사 당시 “<span class='quot0'>형식상 총괄회장으로 돼 있지만 세세한 부분까지 체크하는 자리가 아니라 절차를 정확히 모르고 있었다</span>”고 주장했으며 기소된 후에도 변호인을 통해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br/><br/><br/><br/>검찰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 타머 전 사장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지만 수사가 마무리되면서 출국금지를 해제해 그는 한국과 독일을 오가며 업무를 봤다. <br/><br/><br/><br/>정철순 기자 csjeong1101@

언론사: 문화일보-1-21.txt

제목: ‘癌정복’ 그날까지…‘新藥개발’ 밤낮이 없다  
날짜: 20171129  
기자: 김윤림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501.20171129144006005  
ID: 01100501.20171129144006005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경쟁력 키우는 한국 제약업체<br/><br/><br/><br/>세계인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고, 우리나라를 글로벌 제약 강국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제약사들의 연구·개발(R&D)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다. 인류 최대의 질병이라고 불리는 암을 정복하기 위해 세계적인 제약기업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치열한 신약 개발 경쟁을 벌이는 데서부터 일상생활의 불편을 덜어줘 행복한 삶을 누리게 하는 부분까지 제약사의 고민과 노력은 단순히 ‘꺼지지 않는 연구실의 불빛’으로 표현하기엔 지향점이 너무 깊고도 멀다. 세계 시장에 내로라하는 우리나라 대표 제약사들의 경쟁력을 모아 봤다. <br/><br/><br/><br/>김윤림 기자 bestman

언론사: 문화일보-1-22.txt

제목: ‘하이푸’ 전이암 치료 성적 중국서 발표  
날짜: 20171128  
기자: 이용권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501.20171128171005001  
ID: 01100501.20171128171005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서울하이케어 김태희 원장, 간·폐·유방암 치료<br/><br/><br/><br/>국내 의료진이 간암과 자궁근종 치료에 사용되는 비수술 치료 장비 ‘하이푸(HIFU, High Intensive Focused Ultrasound)’로 췌장·폐·유방 등의 암 치료 성과를 중국에서 발표했다. 하이푸는 지난 2013년 보건복지부에 신의료 기술로 등재된 비수술 치료법으로, 고강도 초음파 에너지를 한곳에 모을 때 초점에서 발생하는 고열을 이용해 암세포를 괴사시키는 의료장비다.<br/><br/><br/><br/>서울하이케어의원 김태희 원장은 지난 17∼18일 중국 쓰촨(四川)성 루저우(瀘州)시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2차 ‘한·중 하이푸 포럼’에 참석, ‘하이푸(HIFU) 치료 효과 증대’ 주제 발표를 통해 암이 췌장에서 간으로 전이된 경우, 간에서 폐로 전이된 경우, 유방에서 간으로 전이된 경우 각각 환자의 치료 성적을 발표(사진)했다고 28일 밝혔다. <br/><br/><br/><br/>췌장암 환자(여·50)의 경우 ‘하이푸’ 시술과 동맥 내 두 차례의 항암치료를 시행한 결과 암 크기가 상당히 줄었고, 참기 힘들 만큼 아픈 복통 등도 크게 호전됐다고 발표했다. 또 암이 간에서 폐로 전이된 남성 환자(46)의 경우 ‘하이푸’와 동맥 내 혈관치료, 면역 항암치료, 면역세포 치료 등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복합해 약 2달 정도 치료한 결과 다발성 폐암 전이가 멈추고 암 크기가 줄어든 사례를 소개했다. <br/><br/><br/><br/>유방암 환자(여·35)의 경우는 다발성 암이 간까지 전이된 것은 물론 항암제에 내성이 생겨 암 억제를 위한 호르몬제만 처방받고 적극적인 치료를 못 하는 상황이었다. 이 환자의 경우 약 2개월 동안 동맥 내 항암 주사와 ‘하이푸’를 병행 요법으로 치료한 결과 간에 있던 큰 종양들이 2㎜정도로 작아져 현재는 CT(컴퓨터 단층촬영)에서도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줄어들었다고 발표했다. <br/><br/><br/><br/>이 외에도 약 14㎝ 정도의 거대근종 환자에게 ‘하이푸’와 조영제, 동맥 내 혈관치료를 병행해 3개월 만에 근종을 완전히 제거한 희귀 사례도 김 원장은 소개했다. 보통 하이푸 시술 후 3개월 후 종양 부피의 30∼50%가 줄어들고 1년 후 70∼80%가 소멸되는데 이번 경우는 1회 치료로 3개월 이내에 근종이 완전히 사라진 경우다. 김 원장은 “<span class='quot0'>초음파 조영제와 동맥혈관 색전술을 병행할 경우 기존 ‘하이푸’ 시술로 완전히 제거되지 않았던 거대 자궁근종에 효율적이고 안전한 시술이 가능하다</span>”고 말했다. 김 원장에 따르면 하이푸는 암세포가 전이되지 않도록 신생 혈관까지 파괴하고, 인체에 해가 없는 초음파로 내성이 없으며, 비수술 치료법이어서 치료 후 바로 일상생활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br/><br/><br/><br/>이용권 기자 freeuse

언론사: 문화일보-1-23.txt

제목: <박태균의 푸드 X파일>석류, 유방암·폐경 예방 ‘여성의 과일’  
날짜: 2017112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501.20171128144005001  
ID: 01100501.20171128144005001  
카테고리: 사회>여성  
본문: 석류란 과일을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아마도 씨일 것이다. 서양에서 석류는 ‘씨가 많은 사과’로 통한다. 중국인은 석류의 씨가 미인의 가지런하고 흰 치아와 닮았다고 해서, 중국 남부 지방에선 치아가 곱고 입술이 아리따운 미인을 석류교(石榴嬌)라고 부른다. 석류꽃이 피는 음력 오월은 석류달(榴月)이다. <br/><br/><br/><br/>석류는 외양이 여성의 가슴과 닮았고, 여성이 선호하는 맛이다. 그리스 신화에서 지하세계의 신 하데스는 석류로 페르세포네를 유혹해 아내로 맞았다. <br/><br/><br/><br/>석류는 유대교에서 정의를 뜻한다. 과육 1개에 든 씨앗(613개)의 수가 구약성서 토라에 기록된 율법의 총 숫자와 같다는 이유에서다. 석류는 씨가 전체 무게의 절반을 약간 넘는다. 석류의 영문명인 ‘파미그래니트(pomegranate)’는 중세 프랑스어로 ‘씨가 많은 사과’란 뜻이다. 루비처럼 반짝이는 촘촘한 씨는 부귀와 다산(多産)의 상징으로 통했다. 성경에도 올리브나무·포도·무화과와 함께 풍요와 번영을 의미하는 신성한 과일로 묘사돼 있다. 그리스에선 집들이 선물로 인기가 높다. 행운·번창·가정의 번영을 부른다고 봐서다. <br/><br/><br/><br/>자식 낳기를 바라는 여성에게 석류가 염원의 과일이 된 것도 씨 때문이다. 영국 헨리 8세의 첫 번째 아내인 캐서린 왕비는 자녀를 갖기 위해 문장에 석류를 새겨 넣었다. 그럼에도 캐서린이 왕자를 낳지 못하자 왕은 1533년 캐서린의 시녀 앤 불린과 결혼했다. 앤이 달고 다닌 배지엔 석류를 밟고 서 있는 흰 매가 그려져 있다. <br/><br/><br/><br/>클레오파트라·양귀비 등 절세미인이 즐겼을 만큼 예부터 석류는 여성을 위한 과일로 인식됐다. 실제로 다이어트·흰 치아·유방암·폐경 등 여성의 관심사에 두루 유익하다. <br/><br/><br/><br/>석류의 씨엔 ‘식물성 에스트로겐’의 일종인 이소플라본이 풍부하게 들어 있다. 여성의 몸 안에 들어가 에스트로겐(여성호르몬)처럼 작용한다고 하여 ‘식물성 에스트로겐’으로 통한다. 에스트로겐 분비가 급감하는 폐경 뒤 얼굴이 갑자기 확 달아오르는 등 갱년기 증상에 시달리는 여성에게 석류를 권하는 것은 그래서다. 석류를 즐겨 먹는 페르시아 지역의 폐경 여성은 갱년기 증상을 상대적으로 가볍게 경험한다. 석류 씨 1㎏당 이소플라본 함량은 10∼18㎎이다. 과육보다 씨에 이소플라본이 훨씬 많이 들어 있다. <br/><br/><br/><br/>그러나 지나친 기대는 금물이다. 실제 호르몬제를 대신하기엔 양이 크게 부족하기 때문이다. 호르몬제 한 알을 대체하려면 석류를 씨까지 남기지 않고 700∼800개는 먹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br/><br/><br/><br/>석류는 약성(藥性)이 강한 과일로 알려졌다. 인도의 아유르베다의학에선 꽃·잎·열매·껍질 등 석류의 모든 부위를 약으로 쓴다. 특히 충치나 잇몸이 약한 사람들에게 이롭다. 이를 썩게 하는 주범인 충치균의 발육을 억제하는 카테킨이 풍부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서양에선 석류 성분이 포함된 치약까지 출시됐다. <br/><br/><br/><br/>2008년 미국 UCLA 의대 연구팀이 선정한 ‘건강음료 톱10’ 중 1위가 석류주스였다. 연구팀은 “석류주스는 전립선암 등 일부 암 예방을 돕고 건강한 심장을 유지하게 한다. 항산화물질이 가장 풍부하다”고 칭송했다. 석류즙이 심혈관 질환을 치료하고 예방한다는 광고가 한때 미국에서 방영돼 큰 인기를 누렸으나 2010년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석류의 심장 보호 효과는 과장광고라며 경고 조치했다.<br/><br/><br/><br/>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 대표

언론사: 문화일보-1-24.txt

제목: 삼성전자 “반도체 근로자 癌사망률, 일반인보다 낮아”  
날짜: 20171128  
기자: 권도경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501.20171128140005004  
ID: 01100501.20171128140005004  
카테고리: 국제>국제일반  
본문: 일부 언론 ‘희귀병 사망’보도<br/><br/>인터넷 뉴스룸 통해 강한 반박<br/><br/>“<span class='quot0'>비과학적인 잘못된 정보 전달</span>”<br/><br/><br/><br/>삼성전자가 최근 일부 언론의 ‘반도체 사업장 근로자 희귀병 사망 보도’에 대해 강한 유감의 뜻을 밝히며 공식 대응에 나섰다. <br/><br/><br/><br/>28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 22일과 26일 두 차례 걸쳐 자사 인터넷 뉴스룸의 ‘이슈와 팩트 알려드립니다’ 코너에서 일부 언론의 희귀(희소)병 사망 보도를 반박했다. 언론 보도에 대한 공식 해명 채널인 이곳에 글이 게재된 것은 지난 8월 초 이후 약 4개월 만이다. <br/><br/><br/><br/>삼성전자는 1996년 이후 반도체 사업장에서 발생한 희귀병 사망자가 54명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해, “<span class='quot1'>반도체 생산라인과 희귀병 발병에 대해 오랫동안 논란이 계속됐으나 국내외 여러 연구 조사에서 모두 통계적 유의성이 발견되지 않았다</span>”고 반박했다. 이어 “산업안전보건공단 조사 결과 국내 반도체 근로자의 암 사망률은 일반인 대비 0.74로, 일반인보다 더 낮은 수준”이라며 해당 보도에 대해 ‘일방적인 주장을 기초로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br/><br/><br/><br/>또 이 같은 인과관계와는 무관하게 ‘사회적 부조’ 차원에서 보상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지금까지 127명이 보상받은 것은 물론 지금도 보상신청 창구를 열어둔 상태라고 삼성전자는 설명했다.<br/><br/><br/><br/>삼성전자는 같은 매체가 보도한 ‘삼성전자 희귀병 사망 분석’ 기사에 대해서도 “<span class='quot1'>비과학적인 방법을 통해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span>”면서 “<span class='quot1'>통계의 기본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span>”고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br/><br/><br/><br/>최근 ‘최순실 게이트’나 ‘취업 청탁’ 의혹 보도 등에 대해 공식 대응을 자제해온 삼성이 이처럼 이례적으로 일주일 사이에 2차례나 반박 자료를 내놓은 데 대해 업계에서는 10년 이상 끌어온 이 문제에 대해 좌시하지는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기조 변화가 최근 사장단 등 임원 인사 직후 이뤄진 데 대해 주목하고 있으나 삼성 측은 “<span class='quot2'>잘못된 언론 보도에 대한 원칙적인 해명 차원</span>”이라며 선을 그었다. <br/><br/><br/><br/>권도경 기자 kwon

언론사: 문화일보-1-25.txt

제목: “안 닥치면 몰라”… 연명중단 환자 가족의 고통도 돌아볼 때다  
날짜: 20171128  
기자: 이용권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501.20171128121005004  
ID: 01100501.20171128121005004  
카테고리: 사회>사회일반  
본문: - 성대 외상심리 연구팀 “호스피스 병동 환자·가족 정서적 지원 시급”<br/><br/><br/><br/>말기암 환자 가족들 감정보니<br/><br/>일상 무너지고 간병에만 몰두<br/><br/>자기 삶 실종되고 경제적 갈등<br/><br/>감정 혼란속 환자 증오·원망도<br/><br/><br/><br/>“돈만 보고, 앞만 보고 달릴 게 아니라 이제 내 주위도 돌아보고…. 내가 상황에 닥쳐야 알겠더라고요. 안 닥쳐봤을 때는 몰라요.”(말기 암 환자 보호자 A 씨)<br/><br/><br/><br/>“나는 지금 돈도 필요 없고요. 내 마음을 정리했으니까. ‘안 아프게만 가게 해줘라’ 이겁니다. 이 시간이라도 가족이 안 아픈 것 그것밖에….”(보호자 B 씨)<br/><br/><br/><br/>연명치료를 그만두고 편안한 임종을 하도록 도와주는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한 환자의 가족들이 삶에 대한 집착과 체념, 성찰 등 다양한 애증의 감정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내년 2월 ‘연명의료결정법’ 시행을 앞두고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연명중단 환자는 물론, 고통받는 가족을 위한 신체 및 정서적 지원 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br/><br/><br/><br/>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최근호에 게재된 ‘호스피스 병동 말기 암 환자 가족의 돌봄 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양은숙·이동훈 성균관대 외상심리건강연구소)에 따르면 가족들은 13가지 형태의 공통된 감정경험을 겪는 것으로 조사됐다. 13가지 경험은 △삶의 집착 △침상 지킴이 △돌봄 희생 △돌봄 장정(長征)의 피로 △애증의 골 △병자에게 복수하기 △소진 후의 허탈함 △간병 돌봄 동역자의 위로 △체념 속에서의 최선 △고통으로부터의 자유 △암의 역설적 축복 △성찰적 전회 △존엄한 죽음의 준비 등의 순이다.<br/><br/><br/><br/>연구팀은 9명 말기 암 환자 배우자와 직계가족 보호자를 대상으로 심층 면담을 통해 이들의 감정경험을 현상학적으로 분석했다.<br/><br/><br/><br/>이들은 처음에 가족의 암 선고를 믿지 못하고, 살아있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긴다. 이후 돌봄 과정에서 가족에 대한 죄책감 등으로 인해 직장을 그만두고 간병을 하거나, 다른 가족을 신경 쓰지 못하고 환자 간병에만 몰두하는 현상도 겪는다. 이어 자기의 삶이 실종되고 간병이라는 일상에 매여 지내면서 심리적·경제적 갈등을 겪는 시기를 보낸다. 감정의 혼란상태를 겪으며 마음속으로 환자를 증오하거나 원망하는 형태도 나타났다. 이 단계를 넘어서면 자책감이 늘어나고 미움과 사랑이 반복되며, 주위 같은 처지 가족들에게 위로를 받기로 한다. 이후에는 오히려 삶을 여유롭게 바라보면서 환자의 존엄한 죽음을 준비하는 과정을 겪는다.<br/><br/><br/><br/>연구팀은 “연구 참여자들은 환자에게 무한 헌신을 했지만, 관념상의 폭력 등 애증 감정도 있어 본인은 물론 환자 가족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평가했다. 연구팀은 정부의 지원 정책 필요성을 강조하며 “호스피스 필수 인력에 심리상담 전문가 포함, 보호자의 심리·정서·신체 부담감을 완화하는 ‘유예간호제도’ 도입, 가족 화해 프로그램 도입, 심리·정서 회복 프로그램 구성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br/><br/><br/><br/>이용권 기자 freeuse

언론사: 문화일보-1-26.txt

제목: 洪, 지방선거 전략공천 추진하자 친박 “당 장악 행보 노골화” 비판  
날짜: 20171128  
기자: 이근평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501.20171128115506004  
ID: 01100501.20171128115506004  
카테고리: 미분류  
본문: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와 친박(친박근혜)계가 내년 지방선거 전략공천과 원내대표 경선 날짜 선정 등을 놓고 사사건건 대립하면서 양측의 갈등이 전면전으로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홍 대표 측이 지방선거 전략공천제, 원내대표 조기 경선안을 제시하자 친박계는 “<span class='quot0'>당을 장악하려는 행보가 노골화됐다</span>”고 비판하면서 대대적인 충돌을 예고했다.<br/><br/><br/><br/>친박계인 서병수 부산시장은 28일 한국당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기 전 기자와 만나 “<span class='quot1'>홍 대표가 지방선거 전략공천 의지를 나타낸 건 자기 세력을 모아 당을 관리하고 장악하기 위한 환경을 만들려는 의도</span>”라며 “<span class='quot1'>처음부터 선을 긋고 ‘누구는 된다, 안 된다’고 하면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다</span>”고 말했다. 홍 대표는 서 시장을 공천에서 배제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낮은 지지율을 문제 삼았지만 서 시장 측은 홍 대표가 진행하는 당 장악 시도의 희생양이 됐다는 입장이다.<br/><br/><br/><br/>원내대표 경선 날짜 선정을 두고도 홍 대표와 친박계는 갈등을 빚었다. 정우택 원내대표가 오는 12월 15일을 경선 날짜로 제시하자 홍 대표 측은 7일에 경선을 마무리해야 한다면서 엇박자를 냈다. 정기국회가 끝나는 12월 9일 이전에 운영위원장 선출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게 홍 대표 측 주장이지만 친박계는 선거 구도를 유리하게 가져가려는 꼼수라고 보고 있다. 결국 불필요한 당내 마찰이라는 비판이 당 안팎에서 일자 경선 날짜 선정은 12월 12일로 절충점을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br/><br/><br/><br/>친박계의 반발에도 홍 대표는 전날 오후 “<span class='quot2'>구체제의 잘못을 안고 가는 ‘비빔밥식’ 화합과 통합은 안 된다</span>”며 “암 덩어리는 도려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날 오전 친박계 김태흠 의원이 “<span class='quot3'>계파를 없앤다면서 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말을 하는 것은 자기모순</span>”이라고 홍 대표를 비판하자 재반박에 나선 것이다. <br/><br/><br/><br/> 이근평·이은지 기자 istandby4u

언론사: 문화일보-1-27.txt

제목: 재활·영상 洋·韓方 협진… 척추질환에 ‘최적의 치료’  
날짜: 20171128  
기자: 이용권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501.20171128103005003  
ID: 01100501.20171128103005003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 자생한방병원 ‘한자리 진료’ 개시<br/><br/><br/><br/>X-ray·MRI 영상자료 토대로<br/><br/>의료진 4~5명 함께 병증 진단<br/><br/>학문간 경계 넘어 맞춤형 치료<br/><br/><br/><br/>연구소선‘한방의 과학화’노력<br/><br/>스테로이드 대체 약침 등 연구<br/><br/>SCI급 학술지에 논문 게재도<br/><br/><br/><br/>최근 대형 대학병원 여러 곳이 암 진료에서 다학제(多學際) 진료를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기존의 진료 경계를 허물고 한계를 넓히려는 시도가 주목받고 있다.<br/><br/><br/><br/>다학제 진료란 특정 질병에 대한 각 분야의 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여 최선의 치료방법을 결정하는 진료방법을 뜻한다. 암 환자 1명에 대해 종양내과, 외과, 내과, 영상의학과 등 다양한 진료과의 전문의가 머리를 맞대고 해당 분야의 의학적 소견을 바탕으로 다각도로 점검한 뒤 결론을 도출한다. <br/><br/><br/><br/>효과가 좋고 장점도 많지만, 아쉬운 것은 다학제 진료가 ‘대형병원’에서만, 그것도 ‘암 진료’에만 그치고 있다는 점이다. 여러 의사가 한데 모여 진료하지만, 진료 수가가 참여 의사의 수만큼 책정되지 않아 암보다 상대적으로 진료비가 낮은 다른 질환으로 확대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br/><br/><br/><br/>이 같은 다학제 진료를 대학병원도 아니고, 분야도 암이 아닌 다른 질환에 대해 시행함으로써 주목받고 있는 지역 병원이 있다. 전국에 20개 병원을 운영하는 중증 척추관절질환 전문병원 자생한방병원은 28일부터 서울 강남구 논현동 신사옥 본원에서 ‘한자리 진료시스템’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자생한방병원은 다학제 진료 영역을 ‘한방’ 분야까지 확대하기도 했다. 이진호 병원장은 지난 23일 신사옥에서 문화일보와 인터뷰를 하고 “<span class='quot0'>압구정 본원에서 13일 논현동 신사옥으로 이전을 완료했다</span>”며 “<span class='quot0'>이를 계기로 한의사, 의사 등이 학문적 경계를 뛰어넘어 환자에게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개념의 다학제 진료를 도입했다</span>”고 말했다.<br/><br/><br/><br/>◇‘척추관절질환’ 한자리 진료 = 자생한방병원의 ‘한자리 진료’는 한방과 양방이 함께 진료한다. 엑스레이(X-ray)와 자기공명영상(MRI) 등 환자 영상자료를 토대로 이 병원장이 주재한다. 재활의학과, 영상의학과, 가정의학과는 물론 한방재활의학과 전문의 등 4∼5명 의료진이 함께 환자 병증을 진단하고 환자와 직접 상담하면서 최적의 치료계획을 세운다. 진료는 환자 1명당 30분가량 진행된다. 치료계획은 물론 담당 주치의 배정, 진료 예약, 설명 등이 함께 이뤄진다.<br/><br/><br/><br/>이 병원장은 “<span class='quot0'>이번 신사옥 이전으로 새롭게 선보이는 협진 시스템은 국내에서는 기존에 볼 수 없었던 방식으로, 기존 협진 시스템의 진화된 버전</span>”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자생한방병원은 영상장비로 척추질환의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한 뒤 한방통합치료를 통해 비정상적으로 틀어진 뼈와 근육을 정상적으로 환원시켜 통증을 완화하는 시술을 해왔다. 이런 ‘한·양방 협진 시스템’은 미국 하버드의대 오셔연구소의 관찰 논문(2006)에서 ‘척추질환 치료에 있어 우수한 시스템’으로 추천되기도 했다.<br/><br/><br/><br/>자생한방병원은 진화된 협진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최근 한국갤럽에 의뢰, 전국 1008명을 대상으로 ‘척추·관절질환 의료기관 이용과 한·양방 협진 인식조사’를 실시했다. 이 결과 척추·관절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의 대부분인 76.4%가 평균 2곳 이상의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치료 효과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거나, 의료기관 한 곳에 대한 소견만으로는 불안함을 느낀다는 얘기다. 반면 한방과 양방의 협진에 대해서는 72%가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상호보완적 치료가 가능하고, 진료가 편리하다는 등의 이유가 꼽혔다.<br/><br/><br/><br/>이 병원장은 “<span class='quot0'>인식조사를 토대로 만들어진 한자리 진료시스템에서는 환자와 의료진 간 진료 예약, 치료 계획, 설명 등이 함께 진행돼 환자의 번거로움을 최대한 줄이는 동시에 환자의 요청사항에도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에 치료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span>”이라고 말했다.<br/><br/><br/><br/>◇한방 과학화로 승부 = 자생한방병원의 한자리 진료시스템이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한방에 대한 환자의 믿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아직 한방에 대한 불신이 일부 남아있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 병원장은 “<span class='quot0'>신사옥 자생척추관절연구소에 ‘실험연구센터’와 ‘임상연구센터’를 구축, 전문연구인력들을 통해 한방의 과학화에 힘을 쏟을 계획</span>”이라고 말했다. 이들 연구센터에서는 한의사를 비롯한 전문 연구인력들이 병증의 치료기전을 과학적으로 검증하는 연구들을 진행한다.<br/><br/><br/><br/>환자들이 척추건강이나 한방치료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는 연구에도 무게를 둘 예정이다. 특히 기초연구를 통해 척추 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여러 물질의 효능을 밝히는 한편, 디스크 흡수모델 개발과 스테로이드를 대체할 약침의 효능도 연구한다. 이를 통해 한·양방의 장점을 진료에 접목해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효능을 극대화한다는 게 자생한방병원의 계획이다. 예컨대 척추신경을 감싸는 경막 부위에 스테로이드와 국소마취제를 주사하는 경막외주사는 개인에 따라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이에 스테로이드 대신 한방 약침을 주사했을 때의 안전성과 효능을 임상연구로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또 수핵 세포, 골세포 등에 대한 연구도 동시에 진행해 자생력 중심의 새로운 치료 패러다임을 구축하겠다는 그림도 그리고 있다.<br/><br/><br/><br/>대학병원이 아닌 로컬 병원에서의 임상연구는 드물지만, 자생한방병원은 연구가 활발한 편이다. 1999년 자생척추관절연구소 전신인 자생생명공학연구소를 설립, 비수술 척추디스크 치료 연구를 진행해왔다. 지난 2014년부터는 수련의들이 제1 저자로 국제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도록 내부 규정을 마련, 짧은 기간 동안 총 53편의 연구논문이 과학기술논문 (추가)색인지수(SCI(E))급 국제학술지에 게재됐다. <br/><br/><br/><br/>이 병원장은 “<span class='quot0'>한방 과학화로 구축한 선진국형 모델을 통해 현대 의학의 본고장인 미국·유럽 등지에서 국제학술지에 연구결과를 꾸준히 발표하고, 주요 대학병원과도 공동연구를 추진할 계획</span>”이라며 “<span class='quot0'>한방 과학화 등을 통해 외국인 환자도 유치, 신사옥에 있는 외국인 전용 국제진료센터의 외국인 초진환자를 2020년까지 연평균 3000명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span>”고 밝혔다. <br/><br/><br/><br/>이용권 기자 freeuse

언론사: 문화일보-1-28.txt

제목: 남매 맨손으로 받아 구한 정인근 소방경 ‘LG 의인상’  
날짜: 20171123  
기자: 권도경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501.20171123152005014  
ID: 01100501.20171123152005014  
카테고리: 미분류  
본문: LG복지재단은 23일 다세대주택 화재 현장에서 화마를 피해 3층에서 떨어뜨려진 어린 남매를 맨손으로 받아 구조한 정인근(54·사진) 소방경(인천 검암 119안전센터장)에게 ‘LG 의인상’을 수여했다고 밝혔다.<br/><br/><br/><br/>정 소방경은 지난 20일 인천 서구 왕길동에 있는 5층짜리 빌라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불은 빌라 전체로 번져 있었고 주민들은 유일한 출구인 계단이 불길에 휩싸여 탈출하지 못했다. 정 소방경과 동료 소방관들은 3층 계단 창문으로 뛰어내리려는 주민들을 발견했다. 주민들은 “아이들이라도 먼저 구해달라”고 외쳤고, 정 소방경은 3층에서 주민들이 떨어뜨린 아이들을 한 명씩 차례대로 받아 구조했다. 당시 정 소방경은 10월 신장암 수술을 받고 2주 만에 복귀해 허리에 복대를 차고 근무 중이었다.<br/><br/><br/><br/>LG복지재단 관계자는 “<span class='quot0'>암 수술 직후에도 화재 현장에서 자신의 몸보다 인명 구조를 먼저 생각한 정 소방경의 투철한 사명감은 우리 사회의 귀감이 될 것</span>”이라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br/><br/><br/><br/>권도경 기자 kwon

언론사: 문화일보-1-29.txt

제목: <포럼>존엄사법 실효성 높일 ‘포괄적 적용’  
날짜: 2017112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501.20171123120005012  
ID: 01100501.20171123120005012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이승욱 서울대 명예교수·보건학<br/><br/><br/><br/>내 나이 올해 85세, 이름은 ‘한장수’. 이름에 걸맞게 한세상을 장수한 사람이다. 심근경색 증상으로 한동안 고생했다. 그런데 최근에 증상이 심해져 가끔 의식을 잃는 순간도 잦아지고 가슴이 찢어지는 통증도 견디기도 힘들다. 가족들이 당장 수술을 하자고 했을 때 나는 반대했다. 병원치료비도 걱정이지만 이 나이에 무슨 수술을 하랴 싶다. 그렇지만 갑자기 파도처럼 밀려오는 가슴 통증이 심할 때면 참을 수가 없다. 결국, 깜빡 의식을 잃었다가 회복하기도 했다. 의식 회복은 또 다른 통증의 광란을 겪어야 하는 과정이라 오히려 저주스럽기만 했다.<br/><br/><br/><br/>그러던 중 이른바 ‘웰다잉법’이란 것이 생겨서 존엄사의 길이 틔었다는 얘길 들었다. 참 잘됐다고 생각하고 알아보니 나는 안 된단다. 그 법은 환자의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일 뿐이어서 나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게다가 질병도 ‘암,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폐쇄성 호흡기질환, 만성 간질환’ 등이어야 한단다. 물론 그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질환도 가능하지만, 아직 그런 질환은 지정되지 않았다고 한다.<br/><br/><br/><br/>이른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국회에서 통과됐고, 3개월의 시범 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된다. 우여곡절 끝에 마련된 ‘문명스러운 법’이다. 이 법은 ‘연명의료’와 ‘연명의료 중단’ 등의 결정 및 그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법이므로 일단은 그 법에 맞는 행위만을 대상으로 하는 원칙에 충실해야 할 것이다.<br/><br/><br/><br/>특히, 이 법에서 규정하는 연명치료란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투여, 인공호흡기 착용의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 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에 한정하고 있다. 또한, 법조문을 읽다가 ‘연명의료 계획서’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 등에 이르면, 연구계획서 작성 요구서를 읽는 기분이 된다.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이른바 감사를 대비한 듯한 표현이 곳곳에 나온다.<br/><br/><br/><br/>원래 법이란 것은 제정과 동시에 그 법을 피하거나 악용하려는 반작용이 있게 마련이다. 하지만 이 법은 매우 특별한 법으로서, 법 적용이 유난히 엄격해야 한다. 법 집행 과정에서 환자, 가족, 그리고 의료진들이 존엄사라는 미명 아래 의외의 피해를 보게 되는 경우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법 해석을 까다롭게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있을 수 있는 역기능의 기회를 제거해야 함은 너무도 당연하다.<br/><br/><br/><br/>환자 가족 간의 사생활적인 속성과 맞물려 졸지에 존엄사를 당하는(?) 환자도 있어선 안 되겠지만, 환자의 가족과 의료진과의 사회심리학적 메커니즘도 고려해야 하므로 시행 초기에는 엄격한 법 적용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그렇지만 유연한 적용도 존엄사를 ‘허용하는’ 법의 취지에 맞다. 눈을 들어 주위를 돌아볼 때 ‘한장수’ 노인처럼 존엄스럽게 생을 마감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어도 이 법에 적용이 되지 않아서 기회를 얻지 못하고 오히려 고통스럽게 생을 이어가는 사람은 없는지 연구해 봐야 할 것이다.<br/><br/><br/><br/>위의 네 가지 질병에 한정하는 법조문을 까다롭게 적용하는 것이 오히려 존엄사의 길을 막을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모든 해당자에게 포괄적으로 존엄사의 길을 열어 주는 것이 법의 정신이 아닐까. 우리 주위에 존엄사를 필요로 하는 수요 집단은 없는지 살펴보면서 존엄사의 취지를 살려 보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앞으로의 과제라고 생각된다.

언론사: 문화일보-1-30.txt

제목: <사설>첫 合法 존엄사…치료 중단 폭 넓히고 절차 간소화해야  
날짜: 2017112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501.20171122121005009  
ID: 01100501.20171122121005009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합법(合法) 절차를 밟아 존엄사(尊嚴死)를 선택해 임종한 첫 사례가 나왔다고 한다. 보건복지부 등은 21일 “한 상급종합병원에 입원 중이던 암 환자가 최근 자신의 결정에 따라 연명의료계획서에 서명한 뒤 일시적 생명 연장 조치 없이 숨을 거뒀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2월 제정돼 내년 2월 시행에 앞서 지난 10월 23일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 10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범 사업 중인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존엄사법)의 보완·개정 필요성을 새삼 일깨워준다. <br/><br/><br/><br/>우선, 말기와 임종기 환자만 작성할 수 있는 연명의료계획서의 대상과 연명의료 중단의 폭을 더 넓혀야 한다. 회복할 가망이 없고 2∼3일 내로 숨질 것으로 예상되는 환자는 이미 의식을 잃어 스스로 의사 표현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 단계 전의 환자도 작성할 수 있어야 실효성이 커진다. 병세 악화 전에 가족 전원이 환자의 의사를 확인해 두기도 쉽지 않은 일이다.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부착,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등 4가지로 한정한 중단 대상 연명의료도 의료계 주장대로 체외막산소공급(에크모)·혈압조절제 투여 등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환자의 고통과 생명을 무의미하게 연장할 뿐이기는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br/><br/><br/><br/>연명의료 중단을 위한 서류가 가족은 물론, 의료진도 헷갈릴 만큼 복잡한 현실 또한 정비해야 한다. 무의미한 생명 연장만을 위한 의료를 포기한다는 의사를 건강한 사람도 평소에 밝혀 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시범 의료기관 제출자가 21일 현재 1648명인데, 연명의료계획서는 단 5명인 배경도 달리 있지 않다. 물론 종교계 일각 등이 우려하는 존엄사 남용·악용은 막아야 하지만, 연명의료 중단에 대한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한 입법 취지는 최대한 실질화해야 한다.

언론사: 문화일보-1-31.txt

제목: 불길 속에서 어린남매 맨손으로 구한 ‘슈퍼맨 소방관’  
날짜: 20171121  
기자: 지건태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501.20171121152005002  
ID: 01100501.20171121152005002  
카테고리: 문화>생활  
본문: 정인근 인천소방서 소방경 <br/><br/><br/><br/>에어매트 깔 틈 없이 급박 <br/><br/>3층서 뛰어내리자 받아내<br/><br/><br/><br/>인천서부소방서 소속 정인근(54·사진) 소방경은 20일 오전 10시 54분쯤 화재가 발생한 인천 서구 원당동의 한 다세대 주택으로 출동했다. 현장에 가장 먼저 출동한 그는 시커먼 연기가 뿜어져 나오는 건물 뒤편 3층 베란다에서 ‘살려 주세요’하는 남매의 절규를 들었다. 아래층에서 불길이 빠르게 번지고 있는 상황에서 에어 매트를 설치할 시간적 여유도 없었다. 소방관 경력 30년의 정 소방경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아이들에게 자신이 마치 슈퍼맨인 양 “아저씨가 아래서 받아 줄 테니 뛰어내려”라고 설득했다. 마침 현장을 빠져나오지 못한 이웃 주민의 도움으로 누나인 A(5) 양이 먼저 뛰어내렸고, 다음으로 동생인 B(3) 군이 뛰어내려 차례로 정 소방경의 품에 안겼다.<br/><br/><br/><br/>정 소방경은 3층에서 뛰어내린 몸무게 20㎏의 아이를 받아 낼 만한 몸 상태가 아니었다. 20일 전 그는 암으로 복부를 절개해 콩팥을 떼어내는 대수술을 받았다. 상처가 채 아물지도 않은 몸으로 현장에 복귀한 지 1주일 만에 소중한 생명을 구한 것이다. <br/><br/><br/><br/>정 소방경은 “당시 어린아이들을 무사히 받아낼 수 있게 도와 달라고 기도했다”며 “이런 기도가 기적처럼 행해졌다”고 말했다. <br/><br/><br/><br/>인천 = 지건태 기자 jus216

언론사: 문화일보-1-32.txt

제목: “병원비에 생활비 걱정까지… 돌봄휴직 있어도 못 써요”  
날짜: 20171115  
기자: 정진영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501.20171115142005013  
ID: 01100501.20171115142005013  
카테고리: 사회>여성  
본문: 무급 가족돌봄휴직제 유명무실 <br/><br/><br/><br/>부모·배우자 질병때 90일 가능 <br/><br/>고용보험 지원 안돼 신청 저조<br/><br/><br/><br/>어머니 암 투병 수발 때문에 퇴직을 고민 중이던 직장인 이슬비(여·34) 씨. 가족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이 씨에게 퇴직은 쉽지 않은 결정이다. 그러던 중 ‘가족 돌봄 휴직제도’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고 반색했지만, 이내 실망할 수밖에 없었다. 제도 자체는 이 씨와 같은 상황에 있는 직장인에게 적격이었지만, ‘무급’이라는 것이 결정적인 걸림돌이 됐다. 이 씨는 “<span class='quot0'>부모님이 아프면 육아 이상으로 많은 돈이 들어가고 도움이 필요한데, 제도만 존재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지 않는 것은 문제</span>”라고 말했다.<br/><br/><br/><br/>15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이 제도는 가족(부모, 자녀,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이 질병·사고·노령으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 최대 90일까지 휴직할 수 있는 것으로, 지난 2012년에 도입됐다. 근로자가 신청하면 사업주는 △계속 근무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다른 가족이 돌볼 수 있는 경우 △사업주가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해 14일 이상 노력했으나 채용하지 못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허용해야 한다.<br/><br/><br/><br/>문제는 이 제도가 무급으로 적용된다는 점이다. 유사한 휴직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일본이 고용보험기금으로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 점과 대조된다. 제도 인지도와 도입률도 낮은 편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7년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가정 양립제도 중 ‘출산휴가제’(81.7%)의 인지도가 가장 높았고, 뒤이어 ‘육아휴직제’(79.4%), ‘배우자 출산휴가제’(71.1%) 등이 뒤를 이었다. 가족 돌봄 휴직제는 35.6%로 최하위였다. 고용부에 따르면 일·가정 양립제도 중 가장 도입률이 높은 제도는 ‘90일 이상 출산휴가’(80.2%)였고 ‘배우자 출산휴가’(60.8%), ‘육아휴직’(58.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37.8%) 등이 뒤를 이었다. 가족 돌봄 휴직제는 27.8%에 그쳤다.<br/><br/><br/><br/>한 중소기업 인사담당자인 배승진 씨는 “<span class='quot1'>육아휴직과 가족 돌봄 휴직 모두 가족을 돌보기 위해 활용하는 제도인데, 가족 돌봄 휴직 시에는 고용보험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span>”며 “<span class='quot1'>고용보험금을 꼬박꼬박 내고도 활용하지 못하는 것은 문제</span>”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고용부 관계자는 “<span class='quot2'>육아휴직 급여의 수준을 더 높이는 게 우선순위이고 목표이기 때문에, 아직 가족 돌봄 휴직 급여를 고용보험으로 지원할 계획은 없다</span>”고 밝혔다.<br/><br/><br/><br/>정진영 기자 news119

언론사: 문화일보-1-33.txt

제목: <박태균의 푸드 X파일>전염병에 약한 위기의 과일 ‘바나나’  
날짜: 2017111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501.20171114114005003  
ID: 01100501.20171114114005003  
카테고리: 국제>국제일반  
본문: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생산되는 과일인 바나나에 대한 근심이 깊어지고 있다. 멸종 위기설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슈퍼마켓 진열대에서 바나나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당장 몇 주나 몇 달 후에 바나나 멸종 시나리오가 현실화할 가능성은 없다고 보는 학자가 다수다. 약 1만㏊의 캐번디시 바나나 재배지가 파괴됐으며 몇 년 안 가 상황은 더 심각해질 것이라고 예측하는 전문가도 많다. <br/><br/><br/><br/>바나나 위기설은 왜 끊이지 않는 걸까? 그 이유를 알려면 바나나를 바로 이해해야 한다. 바나나는 나무가 아니다. 파초과에 속하는 큰 풀이다. 뿌리(알줄기)를 잘라 옮겨심기만 하면 열매(바나나)가 열린다. 처음 열매를 맺기까지 9개월가량 소요되며 6개월마다 재수확이 가능하다. 바나나 농장에선 열매를 수확한 후 바로 베어버린다. 바나나가 한번 열린 알줄기에선 다시 열매가 열리지 않기 때문이다. 씨가 없는 바나나는 대부분 유전적 동질성을 지닌다. 유전적 다양성이 부족하면 환경 변화나 전염병에 대한 대처 능력이 떨어지게 마련이다. 바나나가 병충해가 돌면 일시에 전멸할 수 있는 ‘약골’ 식물로 평가되는 것은 그래서다. <br/><br/><br/><br/>실제 사례가 있다. 1950년대까진 ‘그로 미셸(Gros Michel)’이란 품종이 바나나의 주를 이뤘다. 별명이 ‘빅 마이크(Big Mike)’였던 그로 미셸은 맛과 향이 진한 데다 껍질이 두꺼워 상품성이 높았다. 파나마병이 유행하면서 그로 미셸은 순식간에 최후를 맞는다. 푸사륨이란 곰팡이가 일으키는 파나마병은 ‘바나나 암’으로 통한다. 그만큼 바나나에는 치명적이다. 이 병에 걸리면 잎이 갈색으로 변한 후 말라죽는다. 그로 미셸은 파나마병에 저항성이 없어 집단 폐사했고, 1965년 세계 무역 품목에서 제외됐다. 다행히도 1960년대 중반, 파나마병에 잘 견디는 ‘캐번디시(Cavendish)’ 품종이 개발됐다. 그로 미셸보다 크기가 작고 맛과 향도 떨어졌지만 대안이 없어 금세 각광받았다. 캐번디시는 빠르게 그로 미셸의 빈자리를 차지했다. <br/><br/><br/><br/>미국의 저널리스트 댄 쾨펠은 저서인 ‘바나나―세계를 바꾼 과일의 운명’에서 “인도엔 약 600종의 바나나 품종이 있었지만 지난 20년간 캐번디시가 거의 휩쓸었다”고 기술했다. 현재 캐번디시는 전 세계 바나나 생산의 47%를 차지하고 있다. <br/><br/><br/><br/>캐번디시가 요즘 위기에 처해 있다. 1980년대 대만에서 캐번디시가 변종 파나마병으로 말라죽기 시작한 것이 불길한 전조였다. 대만 캐번디시의 70%가 죽었다. 변종 파나마병은 중국·인도·호주 등으로 빠르게 번지고 있다. 파나마병을 일으키는 곰팡이는 곰팡이 살균제·훈증제 등 농약을 무용지물로 만들어 버린다. 변종 파나마병에도 견디는 새 품종을 개발하면 되지 않겠나 생각할 수 있지만, 신품종 바나나를 얻기란 매우 어렵다. 씨가 없는 바나나는 불임(不姙)의 과일이기 때문이다. <br/><br/><br/><br/>최근 ‘바나나겟돈’의 구세주로, GMO 기술이 떠올랐다. 파나마병에 저항성을 가진 피망의 유전자를 삽입한 신품종 GM 바나나가 개발됐고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포장 시험이 이미 시작됐다. 쾨펠은 “바나나는 7000년 전 인류가 경작한 최초의 농작물이자 수렵·채집 생활에서 농경·정착 생활로 전환시킨 과일”이라고 했다.<br/><br/><br/><br/>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 대표

언론사: 문화일보-1-34.txt

제목: 환자 주도 ‘기능 醫學’서 찾는 치유의 길  
날짜: 20171110  
기자: 엄주엽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501.20171110105005006  
ID: 01100501.20171110105005006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 환자 혁명 / 조한경 지음 / 에디터<br/><br/><br/><br/>현대의학은 ‘대증요법’이 지배<br/><br/>환자들 근본적 치료 묻지 않고<br/><br/>의사 처방에 맹목적으로 의존<br/><br/><br/><br/>年 의료과실 사망자 25만명<br/><br/>10만명이 처방약 과실로 사망<br/><br/><br/><br/>病 치료땐 약부터 찾지 말고<br/><br/>음식·환경 등 먼저 체크하고<br/><br/>환자 스스로 건강원리 배워야<br/><br/><br/><br/>우리가 대개의 병원에서 경험하지만, 30분을 기다려 5분 진료를 받고 처방전 하나 받는 게 고작이다. 현대 의학은 ‘대증요법’(對症療法)이 지배한다. 제약회사의 화학 약물을 사용해 증상을 완화하는 게 대증요법이다. 환자들은 그저 “의사가 잘 알겠지…” 하고 넘길 뿐이다. 상식적으로도 대증요법은 수많은 의학 중 한 가지에 불과할 텐데, 우리는 그것이 근본적인 치료와 어떤 상관이 있는지 물어보지 못한다. <br/><br/><br/><br/>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미국 남가주대(USC)를 졸업한 척추 전문의로, 현재 캘리포니아 오렌지카운티에서 17년째 환자를 돌보고 있는 저자는 이 같은 현대 의학에 대해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한다. <br/><br/><br/><br/>그는 임상 현장에서 첨단 의료기와 약품의 처방보다 영양소나 음식이 더 환자의 치료에 효과가 나타나는 걸 경험하면서 영양학과 기능 의학(Functional medicine)을 공부했다. 진료는 환자들의 질병을 관리해주는 차원이 아니라 진정한 건강을 되찾도록 도와주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환자들이 현대 의학의 맹점은 물론 건강의 원리와 영양의 중요성을 배워야 한다는 게 저자의 주장이다. <br/><br/><br/><br/>약물 치료에 의존하는 대증요법은 20세기에 거대 제약회사들이 의료 권력을 장악하면서 의학의 모델이 됐다. 미국에서 가장 로비가 심한 분야는 군수나 석유산업이 아니라 놀랍게도 제약산업이다. 그렇다 보니 미국에서 부패와 타락이 가장 심한 곳도 제약 산업이다. 우리가 무조건 안전성과 효과를 신뢰하는 미 식품의약국(FDA) 내의 ‘신약 허가 부서’ 재정의 60%는 제약회사에서 나온다. FDA는 제약 산업이 소유하고 있는 셈이다. 우리가 ‘양심’을 기대하는 의대와 의사들, 의학저널, 언론은 왜 방관할까. 제약업체는 의대와 대형병원을 후원한다. 그 후원과 제약업체가 주도하는 의료 시스템에서 빠져나오면 의대와 대형병원은 존립이 불가능하다. 미국 신약 허가에서 자문 역할을 맡고 있는 의사나 저명한 의대의 교수, 의학계 거물은 대개 제약회사 고문직을 겸한다. 의사의 돈줄이면서 의사를 교육하는 게 제약회사다. 제약업계는 국제적인 의학저널은 물론 주류 언론의 거대한 광고주다. 미국에서 연간 ‘의료과실 사망자’ 25만 명 중 10만6000명이 처방약의 부작용으로 가장 많이 사망하지만, 언론은 거의 다루지 않는다. <br/><br/><br/><br/>2013년 3260억 달러였던 미국민의 처방약 지출 비용은 2018년에 1조3000억 달러로 치솟을 전망이다. 미국 내 제약회사들의 마케팅 지출 대비 연구·개발비는 19:1이다.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온다. <br/><br/><br/><br/>더 큰 문제는 제약업체가 만들어 놓은 시스템에 따라 교육받고 임상 현장에 나온 의사들이 환자에게 약품을 처방하는 게 일반화했다는 것이다. 예컨대 의대 수련 과정 10년 중 영양학이나 자연물질·비타민·미네랄에 대해 배우는 시간은 고작 몇 시간에 불과하다. 주로 의약품의 용량·투여 방법·독성학·효능·부작용·대처법을 배운다. 이 같은 교육과정은 ‘환원주의적 대증요법’으로 나타난다. 관찰 불가능한 것은 비과학적이라며 배제하고, 따라서 몸이 스스로 치유하는 힘도 인정하지 않는다. 대증요법의 목적은 증상 완화일 뿐 근본적인 해결은 아니다. 예컨대 당장 환자가 혈압이 높으면 혈압약을 처방하고, 그 부작용은 신경 쓰지 않는다. 부작용이 생기면 부작용에 대한 약이나 처치 방법이 있으니 문제가 없다는 식이다. <br/><br/><br/><br/>저자는 제약회사와 의료계가 틀어쥐고 있는 의료 권력이 환자들에게 넘어오는 것, 그것을 ‘환자 혁명’으로 부르고, 환자가 그 주체로 나서기 위해 공부할 것을 제안한다. 의대의 교육과정부터 현장에서의 환자 보호까지, 현대의 의료 시스템은 전면적인 개혁이 필요하며, 그 열쇠는 환자가 쥐고 있다고 저자는 강조한다. 그가 대안으로 삼는 게 기능 의학이다. 생활 습관 교정과 식습관 개선이 훨씬 더 절실한 만성질환이나 성인병도 모두 응급 의학 식 대증요법으로 접근하는 현대 의학에 대한 반성에서 나온 것이다. 기능 의학은 환자의 증상을 보자마자 약부터 찾는 것이 아니라, ‘왜 이 질병이 시작됐을까, 어떤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어떻게 하면 기능을 되살릴 수 있을까’라는, 의사들이 잊고 있었던 질문을 하는 의학이다. <br/><br/><br/><br/>현대 의학이 증상이나 환부에 집중한다면, 기능 의학은 환자 자체, 사람에게 집중한다. 현대 과학은 신체 내 생화학 작용과 네트워크 기능을 밝혀내고 있고, 영양학적 지식이 축적되면서 그 기능과 대사에 대한 이해가 넓어졌다. 우리 몸은 스스로 치유하는 능력이 있고, 노화 질환들을 예방하는 능력도 갖추고 있다. 제약회사의 세일즈맨이 돼버린 의사들이 여기에 관심을 두지 않을 뿐이라고 저자는 주장한다. 예컨대 고혈압의 경우 그 숫자에만 집착하지 말라고 조언한다. 혈압이 문제가 아니라 동맥경화가 문제지만, 의사들은 혈압약만 처방한다. 동맥경화의 진행을 막고 혈관을 튼튼할 게 할 수 있는, 간헐적 단식이나 탄수화물 제한식, 질 좋은 수면이 더 효과적이다. 음식으로 섭취하면 좋지만, 콜라겐과 비타민 C·E·K 등의 복용은 혈관 노화를 막는다. <br/><br/><br/><br/>현대인의 질병 대부분은 음식이 원인이므로 음식을 점검하고, 나쁜 생활 습관이나 환경을 찾아 손상된 몸의 기능을 되살리게 치료의 첫걸을이다. 저자는 당뇨·고혈압·고지혈증·비만 등 만성적인 대사질환과 암에 이르기까지, 현대 의학이 퍼뜨린 잘못된 상식을 바로잡고 치료의 길잡이가 돼 줄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한다.<br/><br/><br/><br/>엄주엽 선임기자 ejyeob

언론사: 문화일보-1-35.txt

제목: 두산연강학술상 외과학 수상  
날짜: 2017110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501.20171106150006016  
ID: 01100501.20171106150006016  
카테고리: 문화>학술\_문화재  
본문: 두산연강재단은 ‘2017 두산연강학술상 외과학 부문’ 수상자로 김영우 국립암셈터 국제암대학원대학교 암관리학과 교수와 오보영 이대목동병원 외과 임상조교수를 선정해 지난 4일 시상식을 개최했다.

언론사: 문화일보-1-36.txt

제목: ‘울산 게놈프로젝트’ 관심 UP…한국형 게놈빅데이터 구축 활기  
날짜: 20171106  
기자: 곽시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501.20171106144006019  
ID: 01100501.20171106144006019  
카테고리: 지역>지역일반  
본문: ‘울산 1만 명 게놈프로젝트 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늘어나면서 한국형 게놈 빅데이터 구축사업이 활기를 띠고 있다.<br/><br/><br/><br/>6일 울산시에 따르면 ‘울산 1만 명 게놈프로젝트’ 사업을 위해 지난달 전 국민을 대상으로 유전자 정보 기증자 280명을 모집한 결과 전체 2254명이 신청, 8대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성별로는 남자 1121명(49.7%), 여자 1133명(50.3%)이 신청했으며, 집단별로는 가족 단위 1126명(49.9%), 개인 단위 1128명(50.1%)이 신청했다. 지역별로는 울산 1982명(87.9%), 타 시도 272명(12.1%)이 각각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시는 게놈 전문가와 외부 의료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한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280명을 대상자로 확정했다.<br/><br/><br/><br/>이들은 이달부터 울산대학병원에서 건강검진과 함께 인체유래물(혈액 30㏄)을 기증하게 되고, 울산과학기술원(UNIST) 게놈산업기술센터가 게놈을 분석, 해독에 들어간다. 우선 올해는 기존에 인체유래은행에게서 제공받은 720명과 이번에 참여한 280명 등 모두 1000명에 대한 게놈을 해독·분석에 들어가게 되며, 오는 2019년까지 모두 1만 명의 한국인 게놈 빅데이터를 구축할 예정이다.<br/><br/><br/><br/>‘울산 1만 명 게놈프로젝트’ 사업은 국민의 자발적인 혈액 샘플 등의 기증을 바탕으로 한국인의 표준 유전자 정보를 수집, 질병 예측 진단과 맞춤형 치료가 가능한 융합 정밀의학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 중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span class='quot0'>현재 사업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span>”며 “<span class='quot0'>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한국인 게놈 표준정보가 만들어지면서 게놈 기반의 바이오메디컬 산업 발전을 가져오고, 장기적으로 유전 질환이나 암 치료, 순환기 질환 등을 치료하는 개인 맞춤형 치료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span>”고 밝혔다. <br/><br/><br/><br/>울산=곽시열 기자 sykwak@

언론사: 문화일보-1-37.txt

제목: 봄엔 장미터널, 가을엔 폭포夜景… 200만명 찾는 ‘축제 특구’로  
날짜: 20171106  
기자: 신선종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501.20171106143005005  
ID: 01100501.20171106143005005  
카테고리: 문화>요리\_여행  
본문: ■ 중랑구 ‘컬처노믹스’ 성과<br/><br/><br/><br/>- 5월 서울장미축제<br/><br/>올해 192만명 ‘꽃잔치’즐겨<br/><br/>지역축제 773개중 톱10 선정<br/><br/>“<span class='quot0'>생산유발효과 197억원 달해</span>”<br/><br/><br/><br/>- 10월 용마폭포축제<br/><br/>폭포공원서 뮤지컬·암벽타기<br/><br/>대대적 문화예술축제로 진화<br/><br/>“지역명소 알리고 경제 기여”<br/><br/><br/><br/>서울 외곽지역인 중랑구가 축제의 도시로 변신하고 있다. <br/><br/><br/><br/>서울 중랑구는 봄에 열린 서울장미축제에 200만 명에 가까운 관광객이 다녀갔고, 가을에 개최한 용마폭포 문화예술축제에도 3만여 명의 관람객이 방문했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구는 이들 축제를 대한민국 ‘컬처노믹스’의 선도 사례로 자리 잡게 하도록 다양한 콘텐츠와 인프라를 구축해 ‘축제도시 중랑’으로 키워나간다는 전략이다.<br/><br/><br/><br/>◇서울장미축제, 192만 명 방문에 197억 원 생산유발 효과 = 지난 5월 19∼21일 중랑천 일대에서 열린 올해 서울 장미축제에는 외국인 5만여 명을 포함해 192만 명이 다녀갔다. 기업의 우수 생산품과 전통시장 부스 운영 등 총 판매액이 15억여 원이었다. <br/><br/><br/><br/>구가 올해 서울장미축제를 한국경제예측연구소에 경제성 분석을 의뢰한 결과 생산유발효과 197억 원, 고용유발효과 232.5명, 소득유발효과가 77억여 원으로 나오는 등 ‘저비용 고효율’의 축제라는 평가를 받으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br/><br/><br/><br/>올 축제가 ‘대박’을 보이자 네이버와 다음 등 포털사이트에서 축제 관련 검색어 1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경기 군포시, 충남 보령시, 강원 화천군, 경북 포항시 등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서울장미축제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찾아오는 등 중랑구는 서울에서 가장 예쁜 축제가 열리는 도시로, 지역 이미지가 개선된 것으로 구는 자체 분석하고 있다.<br/><br/><br/><br/>서울장미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는 외부기관도 인정했다. 한국마케팅협회가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전국 지역축제 733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소비자 1649명이 서울장미축제를 ‘소비자평가 추천하고 싶은 10대 축제’ 가운데 하나로 꼽아 경남 진해 군항제와 충남 보령 머드축제 등 전통 있는 지역 축제와 어깨를 나란히 했다. 지난 2월 서울장미축제는 ‘2017 대한민국 축제콘텐츠 대상’에서 ‘축제 프로그램 우수상’을 수상했다.<br/><br/><br/><br/>올해 축제에선 114년 전통의 로즈페스티벌을 자랑하는 불가리아 카잔루크시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양국의 축제를 대표단과 공연단이 상호 방문키로 했다.<br/><br/><br/><br/>◇축제 성공 요인은 다양한 콘텐츠 = 지난 2013년부터 시작한 장미축제가 짧은 시간 안에 급성장하며 대성공을 거둔 비결은 지역 자산, 다양한 콘텐츠, 지역민의 자발적 참여 등으로 보고 있다. 지역 주민과 함께 10여 년간 가꾼 수천만 송이 장미가 피어나는 대한민국 최장 5.15㎞의 장미터널이 축제의 가장 중심 원동력이라는 분석이다. 이를 바탕으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접목한 다양한 콘텐츠가 관람객을 끈 요인 중 하나다. 중랑구 장미축제를 서울장미축제로 이름을 변경하고, 축제 기간에 매일 다른 테마(장미의 날·연인의 날·아내의 날)로 관람객들의 관심을 유도했다. 올해는 ‘밤에 피는 장미’라는 콘셉트로 축제 전체를 물들이고 오프닝은 소원등꽃 띄우기, 엔딩은 낙화놀이를 킬러콘텐츠로 개발했다. 중랑천 징검다리, 축제장 입구 돌길, 장미터널 내 작은 도서관 등도 새로 콘텐츠를 추가했다. 자원봉사 등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도 성공의 뒷받침이 됐다.<br/><br/><br/><br/>◇동양 최대 인공폭포에서 펼쳐지는 폭포 축제 = 중랑구는 봄에는 서울장미축제, 가을에는 용마폭포 문화예술축제로 관람객을 유혹한다. 용마산 중턱에 조성된 16만7172㎡ 규모의 용마폭포공원은 51.4m의 동양 최대 인공 폭포와 폭 30m, 높이 17m의 국제 공인 규격 인공암벽장인 ‘중랑스포츠클라이밍 경기장’, 폐버스를 활용한 ‘책깨비 도서관’까지 다양한 시설을 갖춘 중랑구의 명소다. 구는 이곳에서 해마다 열던 가을음악회를, 축제에 대한 면목동 지역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지난해 ‘용마폭포문화예술축제’로 이름을 바꿔 종합문화 예술축제로 개최했다.<br/><br/><br/><br/>10월 20∼21일 열린 올해 축제는 화려한 야간 조명으로 밤에도 즐길 수 있는 용마폭포공원을 연출했다. 용마폭포 물줄기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뮤지컬 갈라 콘서트와 서울팝스오케스트라의 공연, 북(BOOK) 페스티벌, 청소년이 참여하는 구민 백일장, 폭포갤러리, 어린이 인공암벽 체험, 용마산 힐링 걷기천국 이벤트 등 풍성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로 주민 공감형 축제로 변신했다. 그 결과 기존에 5000여 명이 찾던 소규모 음악회에서 지난해 2만여 명, 올해 축제에는 3만여 명이 다녀가며 가을 대표축제로 자리매김했다.<br/><br/><br/><br/>나진구 중랑구청장은 “<span class='quot1'>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고 문화의 힘을 빌려 도시 브랜드를 높이고, 지역 경제를 살리며 주민의 자긍심도 높이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한다</span>”고 말했다. <br/><br/><br/><br/>신선종 기자 hanuli

언론사: 문화일보-1-38.txt

제목: <한반도 정찰記>北체제 변혁 ‘大전략’ 구사할 때다  
날짜: 2017110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501.20171101141006002  
ID: 01100501.20171101141006002  
카테고리: 정치>북한  
본문: 황성준 논설위원<br/><br/><br/><br/> 북핵(北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김정은 북한 정권의 속성을 직시해야 한다. 김정은은 핵·미사일 개발에 올인한 상태다. 북한은 2012년 헌법을 개정하며 ‘핵보유국’으로 명기했다. 김정은은 핵을 포기하면 국제사회에서 ‘아무것도 아니다(nothing)’란 점을 잘 알고 있다. 한국이 대화를 애걸하는 것도 핵 때문이며, 아니면 무시당할 것이란 점도 잘 인식하고 있다. 아니 체제 자체를 위협받게 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을 것이다. 결국 북핵 협상은 김정은에게 핵 개발을 위한 시간 벌기 수단 혹은 위기 모면용일 뿐이다. 이 사실은 1994년 제네바 기본 합의와 2005년 9·19 공동성명이 모두 휴지 조각이 된 역사적 사례를 통해 이미 입증됐다. 따라서 김정은 정권이 대화나 협상으로 핵을 포기할 수 있다는 환상에 사로잡혀 있어선 안 된다.<br/><br/><br/><br/>이에 암(癌)과 같은 북핵을 제거하기 위해선 대증요법에만 매달리지 말고, 고통스럽더라도 완전히 도려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예방 타격(preventive strike)·외과 수술적 타격(surgical strike) 등이 그것이다. 물론 북한의 전면 도발이 명확할 경우, 전쟁을 피할 수 없다. 그러나 전쟁은 가급적 피해야 한다. 종심이 짧은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감내하기 힘든 피해를 만들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손자(孫子)도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상책이라고 했다.<br/><br/><br/><br/>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냉전(cold war)의 설계자’ 조지 캐넌이 구상했던 봉쇄 정책을 북한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 한국에선 냉전 체제에 대해 매우 부정적 견해가 강하다. 그러나 나폴레옹 전쟁 직후인 1815년 빈 회의 체제 시기를 제외한다면, 유럽이 냉전 시기만큼 오랜 평화를 누린 적이 없다. 이에 냉전은 ‘긴 평화(long peace)’로 불린다. 그리고 냉전의 반대말은 평화가 아니라 ‘열전(hot war)’이다. 또, 핵은 1945년 8월 히로시마(廣島)와 나가사키(長崎) 이외엔 사용된 적이 없다. 물론 그 전제가 있다. 미·소 냉전체제하에서 ‘공포의 핵 균형’이 구축돼 있었기 때문이다. 즉, 과거 미국이 소련을 상대로 했던 것처럼, ‘공포의 균형’으로 북핵 사용을 억지하는 한편, 국제적 봉쇄를 통해 북한을 압박하면서, 이념전으로 북한 체제를 붕괴시키는 장기적 대전략(grand strategy)을 수립하고 실행해야 할 것이다. <br/><br/><br/><br/>이를 위해선 첫째, 압도적인 군사적 억지(deterrence) 역량을 확보해야 한다. 이 역량의 기초는 한·미 동맹에 기초한 한·미연합군이다. 미국이 동맹국이나 우방국에 확장해 제공하는 ‘확대억지력’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 미군 전략자산 순환 배치·전술핵 도입 등을 통해, 북핵 보복 능력을 갖춰 핵을 사용할 경우 김정은과 그 일가가 멸족당하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한국군의 북핵 억지 및 대북 보복 능력을 대폭 강화해야 함은 물론이다. 그런데 최근 한미연합사를 해체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걱정된다.<br/><br/><br/><br/>둘째, 국제적 봉쇄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마침 전 세계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규탄하며 대북 제재에 나서고 있다. 한국이 앞장서야 한다.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서도 북한이 자산이 아니라 부채(負債)임을 인식하게 해야 한다. 또 일본과의 공조가 매우 중요하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적대국이었던 프랑스와 독일도 냉전 시기 소련의 위협에 함께 맞섰다. 특히 일본과의 관계를 잘못 풀면, 한·미 동맹에 해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그리고 인도적 지원이란 명분으로 북한에 퍼줘선 안 된다.<br/><br/><br/><br/>셋째, 북한 변혁 역량을 육성해야 한다. 냉전은 소련의 붕괴로 해결됐다. 마찬가지로 북핵 문제는 북한이 붕괴하든지, 최소한 김정은 정권이 무너지고 개혁·개방 세력이 집권해야 가능하다. 따라서 북핵 해결의 진정한 주체는 미국도 중국도 아닌 북한 주민이 돼야 한다. 이를 위해선 바깥세상의 정보를 북한 내부로 유입시키는 노력을 끈질기게 진행해야 한다. 북핵의 근원은 남북 간의 이념·체제 대결이다. 이 점을 망각하고 감상적 민족공조론에 빠진다면 김정은에게 농락당할 뿐이다. 그런데 대한민국 내에 소련 공산혁명가 블라디미르 레닌이 말한 ‘쓸모 있는 바보(useful idiot)’가 적지 않은 것 같다.<br/><br/><br/><br/>물론 ‘3대 역량 강화’를 통한 북한 김정은 체제 변화 장기 전략을 교조적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다. 냉전 시기 미국이 그러했던 것처럼, 대화 자체를 피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소련에 이오시프 스탈린이 죽고 니키타 흐루쇼프가 소련공산당 서기장이 된 이후에나 데탕트(detente)를 위한 미·소 대화가 가능했다는 것을 잊어선 안 된다. 또 전쟁 가능성에 대해서도 항상 대비해야 한다. 우리가 원하지 않는다고 전쟁이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군사력을 사용하지 않기 위해 막대한 군비(軍費)를 투입한다는 ‘전쟁의 역설’을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

언론사: 문화일보-1-39.txt

제목: <세상 바꿀 미래의 기술>피 한 방울로 癌진단·공기 모아 물 수확… 5년내 현실이 된다  
날짜: 20171101  
기자: 박세희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501.20171101132005003  
ID: 01100501.20171101132005003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 WEF 선정 10대 유망 기술<br/><br/><br/><br/>“암이 걱정된다고요? 암 진단, 피 한 방울로도 가능해요.” <br/><br/><br/><br/>“공기를 모아 물을 얻어요. 물 부족 걱정은 안녕!” <br/><br/><br/><br/>피 한 방울로 암을 진단하고 공기를 모아 물을 수확하는 새로운 기술이 늦어도 향후 5년 내에는 광범위하게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세계경제포럼(WEF)은 미국의 과학잡지 ‘사이언티픽 아메리칸’과 함께 세상을 바꿀 10대 유망 기술을 최근 발표했다. 인공 광합성을 통해 태양 에너지를 연료로 변환하는 ‘인공 잎’과 공기에서 물을 수확하는 기술 등은 물 부족 등 시급한 전 세계적 사안을 해결하는 데 일조할 수 있을 것이다. 10대 기술은 인류의 건강을 지키고 산업을 변화시키며 지구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 위주로 선정됐다. 또 기술이 성숙화 단계에 접어들어 오는 3~5년 이내에 광범위하게 사용될 수 있는 기술들이다.<br/><br/>① 조직검사 대신 DNA로 진단<br/><br/><br/><br/>◇액체생체검사법 = 조직검사 없이도 간단한 채혈로 피 속에 돌아다니는 DNA 조각을 분석, 암을 진단할 수 있는 기술이다. 그동안 암을 진단하려면 해당 부분의 조직을 떼내 암 여부를 파악해야 했다. 간단한 채혈은 절개, 침습 등의 시술을 불필요하게 만든다. 이는 ‘암과의 싸움’에서 인류가 한 걸음 더 앞서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전통적인 조직검사가 불가능할 때 이용할 수 있는 대안일 뿐 아니라 더 나아가 조직 샘플과 비교해 더 넓은 범위의 정보를 제공한다. 또 혈류 등으로 퍼질 가능성이 있는 암세포의 이동 경로를 쫓아 암세포 전이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하며 증상이나 영상의 힘을 빌리는 것보다 훨씬 빠르고 정확하게 암세포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게 한다.<br/><br/>② 이미지 빅데이터 장착한 AI<br/><br/><br/><br/>◇시각적 딥러닝 = 인공지능(AI)은 데이터를 스스로 학습하는 딥러닝으로 인해 인간보다 시각적 이미지를 더 잘 인식하기 시작했다. 이는 자율주행 자동차, 의료 진단, 보험 청구에 대한 손상 평가, 수위(水位) 및 작물 수확량 모니터링 등 무수히 다양한 분야에 활용될 전망이다. 실제로 인공지능은 영상 의료 데이터 판독과 진단 등에서 큰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br/><br/>③ 대기중 추출로 물 부족 해결<br/><br/><br/><br/>◇공기에서 물 수확 = 대기에 퍼져 있는 물을 수확해 식수 등으로 공급하는 기술로 점차 심화되는 물 부족 현상을 해소할 수 있는 기술로 주목받는다. 공기에서 깨끗한 물을 추출하는 기술은 새로운 것은 아니다. 하지만 기존 기술은 다량의 전기가 사용됐고 아울러 높은 수분이 필요했다. 결국 대기에서 물 수확 시 필요한 에너지를 줄이는 게 이 기술 실용화의 관건이다. 최근 매사추세츠공대(MIT)와 캘리포니아주립대(UC) 버클리대(분교)의 연구진은 에너지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공기를 물로 변환시키는 데 성공했으며 미국 애리조나주의 ‘제로 매스 워터’ 벤처 회사는 태양광 시스템을 활용해 하루에 2~5ℓ의 물을 얻어내는 데 성공했다.<br/><br/>④ 인공 광합성 태양에너지<br/><br/><br/><br/>◇태양에너지를 이용한 액체 연료 = 인공 잎의 인공 광합성 작용을 통해 에너지를 만들고 저장하는 기술이다. 태양에너지로 물을 분해해 수소를 생산하거나 이산화탄소를 청정 연료인 탄화수소로 전환시키는 게 핵심이다. 휴대용 연료전지 개발 등에 다양하게 응용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br/><br/><br/><br/>⑤ 세포지도로 건강관리 혁신<br/><br/><br/><br/>◇인간세포지도 = 인체의 모든 세포나 유전자, 단백질 정보 등을 알아내 이를 지도화하는 프로젝트로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CEO가 설립한 재단 ‘챈 저커버그 이니셔티브’가 시작했다. 모든 세포 유형을 식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세포가 상호 작용하는 방식, 유전자나 특정 세포의 어떤 측면이 변화할 때 신체 기능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알 수 있게 된다. 지도가 완성되면 인류의 건강관리에 중요한 도구가 될 것으로 보인다.<br/><br/>⑥ 맞춤형 모니터링 농작물 생산<br/><br/><br/><br/>◇정밀 농업 = 작물 맞춤형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작물의 수확량을 높이고 품질을 향상시키는 기술이다. 이는 물과 화학물질의 사용을 줄일 수 있으며 센서와 로봇, GPS, 매핑(지도화·mapping) 기술 등이 작물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케어에 사용될 것이다. 농업에 이 같은 고가의 기술들을 이용하는 것이 부담될 수 있지만 저비용 기술도 있다. 예를 들어 살라 수카리에 시드니대 교수는 최근 인도네시아에서 태양광 발전과 휴대전화를 이용해 저렴한 비용으로 작물을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선보였다. <br/><br/>⑦ 수소연료전지용 新촉매제<br/><br/><br/><br/>◇친환경 자동차를 위한 저렴한 촉매 = 수소연료전지 등 무공해 기술에 대한 진전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현재까지는 값비싼 백금이 수소연료전지의 촉매로 사용돼 높은 가격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어왔다. 그러나 백금의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기술 진전이 이뤄졌고 백금이 포함되지 않은, 더 나아가 백금을 포함한 어떤 금속도 전혀 들어가지 않는 최신 기술이 개발됐다. <br/><br/>⑧ 질병 신속대응 ‘게놈 백신’<br/><br/><br/><br/>◇게놈 백신 = 기존의 단백질 백신이 아닌, DNA·RNA로 만들어진 백신으로 기존 백신보다 더 빠르게 제조될 수 있고 저렴하다. 이에 따라 예를 들어 독감 바이러스의 형태가 변형될 때마다 그에 대응하는 백신을 단 몇 주 만에 제조할 수 있다. 또 병원균이 침투했을 때 기존 백신보다 더 빠르게 항체를 만든다.<br/><br/>⑨‘꿈의 처리속도’ 양자 컴퓨터<br/><br/><br/><br/>◇양자 컴퓨터 = 기존 컴퓨터와는 전산 처리 속도 면에서 워낙 차이가 커 ‘꿈의 컴퓨터’라 불리는 양자 컴퓨터는 제작의 어려움과 높은 비용 때문에 상용화가 어려웠으나 최근 들어 양자 컴퓨터에 대한 진전이 급속도로 이뤄지고 있다. 지난해 정보기술(IT) 기업 IBM은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양자 컴퓨터에 대한 ‘퍼블릭 액세스’(공공 접근)를 제공했다. 이를 이용해 20개 이상의 학술 논문이 발표됐으며, 전 세계적으로 50개 이상의 벤처기업과 대기업들이 양자 컴퓨터를 상용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br/><br/>⑩ 에너지 절감 친환경 디자인<br/><br/><br/><br/>◇지역 사회의 지속 가능한 디자인 = 한 도시의 여러 건물에 친환경 건설을 적용하면 우리가 소비하는 에너지의 양을 혁신적으로 줄일 수 있다. UC 버클리대에서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로, 태양에너지를 스마트 마이크로그리드(근거리 소규모 전력공급 방식)로 사용하면 전력 소비를 반으로 줄일 수 있고 탄소 배출량도 0으로 줄일 수 있다. 또 변기와 배수구 등의 폐수를 재활용해 생활용수 수요도 70%까지 줄일 수 있다.<br/><br/><br/><br/>박세희 기자 saysay

언론사: 문화일보-1-40.txt

제목: <미래를 여는 사람들>‘나노 신경망 모사 반도체’ 정두석 KIST 박사 “AI, 퇴행성 질환 진단 정확도 높일 것”  
날짜: 20171101  
기자: 김수민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501.20171101121006025  
ID: 01100501.20171101121006025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 뇌를 닮은 CPU·부드러운 무쇠팔…‘인체의 한계’에 도전하다<br/><br/><br/><br/>“최소전력 쓰는 체계 개발하면 <br/><br/>뇌와 더 닮은 AI로 발전 가능 <br/><br/>양질의 빅데이터 축적된다면 <br/><br/>인간 이상의 진단능력 갖출것”<br/><br/><br/><br/>“철로 된 강판은 자동차 부품은 물론 가전 기기, 섀시까지 활용되지 않습니까. 칩과 같은 하드웨어 연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공 망막 장치, 얼굴인식, 자가학습형 중앙처리장치(CPU) 등 의료와 학습·보안 등 다양한 인공지능(AI) 기술과 서비스에 활용될 수 있어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분야입니다.”<br/><br/><br/><br/>인간 뇌의 효율성은 어마어마하다. 사람의 뇌가 쓰는 전기에너지는 약 20W에 불과하다. 반면 알파고는 이세돌 9단의 바둑 패턴을 이해하기 위해 무수히 많은 시간 동안 1000개가 넘는 CPU를 사용한다. 인간 뇌가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가진 이유도, 하드웨어를 바탕으로 한 AI가 주목받는 이유도 여기 있다. 하드웨어 분야 연구는 상대적으로 적은 전력이 들어 계산 속도가 빨라지는 덕에 알파고 등 빅데이터와 딥러닝 등 소프트웨어를 바탕으로 한 AI보다 한발 앞서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br/><br/><br/><br/>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전자재료연구센터 선임연구원 정두석(37) 박사는 하드웨어 분야에 해당하는 ‘나노 신경망 모사 반도체’ 전문가다. 그는 뇌에서 분비된 신경전달물질이 전기신호로 바뀌어 각종 뇌의 활동을 제어하는 신경망을 수학적 알고리즘으로 모사해, 이를 닮은 반도체 시스템으로 구현하는 연구를 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적은 에너지가 소요되기 때문에 IBM, 퀄컴, 삼성 등은 물론 세계 대기업들이 앞다퉈 도전하고 있는 영역이기도 하다. 정 박사는 “<span class='quot0'>아주 작은 전력으로 구동이 가능한 계산 체계가 개발된다면 우리 뇌와 더 닮은 AI도 개발할 수 있다</span>”고 말했다.<br/><br/><br/><br/>특히 의료용 AI는 인간의 뇌를 닮으려는 과학기술계의 뜨거운 도전 주제다. 인류의 오랜 꿈인 노화와 죽음으로부터 자유로운 삶은 그 자체로 엄청난 부가가치 효과를 생산하기 때문이다. 정 박사는 “시장의 수요에 따라 기술 발전도 결정된다. 시장성이 인정받는 의료용 AI는 끊임없이 개발될 것”이라며 “이미 성능이 평준화돼 값싼 생산만이 중요한 태양전지 같은 분야도 있지만, 의료는 아무리 비싸도 성능이 좋으면 인정받는다”고 설명했다.<br/><br/><br/><br/>정 박사는 AI가 왓슨처럼 병을 진단하는 데 특화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IBM이 개발한 왓슨은 의학저널 300종, 교과서 200종 등 1500만 쪽에 달하는 전문자료를 바탕으로 가장 확률이 높은 병명과 성공 가능성이 큰 치료법을 암 환자에게 제시하는AI 프로그램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해 12월 가천대길병원을 시작으로 총 6개 병원에서 왓슨을 도입해 암 진단에 시범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했다. 정 박사는 “<span class='quot0'>진단은 ‘양성이냐, 악성이냐’는 것으로 구분되기 때문에 양질의 데이터만 축적된다면 AI도 똑똑한 인간 의사 이상으로 정확한 진단이 가능하다</span>”며 “<span class='quot0'>AI는 인간이 감당하기엔 방대한 의료 데이터를 빠르고 체계적으로 추출하고 분석해 의료진의 진단과 치료를 보완할 수 있다</span>”고 설명했다. <br/><br/><br/><br/>특히 퇴행성 뇌 질환처럼 감별 진단이 까다로운 질환의 진단도 빅데이터를 토대로 정확해질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예측이다. 겉으로 드러나는 퇴행성 뇌 질환의 증상은 기억력이 떨어지거나 손발을 떠는 등 노화 증상과 비슷하고 의료 데이터 해석도 복잡하다. 정 박사는 “<span class='quot0'>AI로 유전자·생체·생활습관 정보와 질환의 연관성을 분석하면 퇴행성 뇌 질환 고위험군을 예측할 수 있다</span>”며 “<span class='quot0'>이를 토대로 예방적 치료를 권한다면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 줄일 수 있을 것</span>”이라고 말했다. 그는 “<span class='quot0'>다만 AI의 정확성과 안전성 등을 높여 임상적 근거를 충분히 쌓고 윤리적 문제에 대한 답을 정하는 것이 과제</span>”라며 “<span class='quot0'>AI가 잘못된 진단을 내렸을 때 의사와 AI 둘 중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지 등도 고민해봄 직한 문제</span>”라고 지적했다. <br/><br/><br/><br/>김수민 기자 human8

언론사: 문화일보-1-41.txt

제목: <차세대 산업 육성>“AI, 의사 도와 독창적 진단 하려면 의료영상 등 빅데이터 확보가 필수”  
날짜: 20171101  
기자: 노성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501.20171101121006016  
ID: 01100501.20171101121006016  
카테고리: IT\_과학>인터넷\_SNS  
본문: ‘4차산업혁명委 최연소 위원’ 백승욱 루닛 대표<br/><br/><br/><br/>의료영상 진단 SW ‘독보적’ <br/><br/>공공데이터 자유롭게 흘러야<br/><br/><br/><br/>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의 최연소 민간위원인 백승욱(34·사진) 루닛 대표는 “<span class='quot0'>대학원생들의 싱싱한 두뇌를 활용하자</span>”면서 “<span class='quot0'>인류 전체의 삶의 질 개선이란 원대한 목표를 세우고, 한국만의 고품질 데이터가 존재하는 영역을 잘 찾아내면 글로벌 큰 시장에서도 효과를 발휘할 것</span>”이라고 말했다. 지난 10월 19일, 5년 차 벤처 루닛이 입주한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빌딩에서 백 대표를 만났다. 카이스트 전자공학 박사를 마치고 2013년 동료 5명과 함께 창업한 그는 엑스레이로 폐암·유방암 등의 병변(病變)을 읽어내는 인공지능(AI) 의료 영상 진단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을 인정받고 있다. 최근 중국 알리바바 주최 국제창업대회에서 한국 대표로 4위를 차지했고 세계적 시장조사기관인 ‘시비인사이츠’가 선정한 ‘AI 100’에 꼽히기도 했다. <br/><br/><br/><br/>―엑스레이 영상을 AI로 분석하는 벤처를 시작한 이유는. 전공도 전자공학인데.<br/><br/><br/><br/>“AI란 도구를 갖고 인간이 하기 제일 어려워하는 분야를 찾다 보니 여기에 이르렀다. 처음엔 미국에 회사를 세우려 했다. 하지만 한국이 정기 건강검진 등 엑스레이 의료 영상 데이터가 풍부하고 병원 협업 면에서도 장점이 많다고 판단했다. 벌써 삼성병원·아산병원·세브란스병원 등 빅5와 영상 자료 제공 협약을 체결했다. CT·MRI 등 고가의 장비를 쓰면 암 판독률이 물론 높아진다. 하지만 싸고 널리 보급된 엑스레이를 활용할 수 있다면 아프리카 같은 개발도상국에서도 적용 가능할 것이다. 사람의 생명을 구하고 인류에게 도움이 된다는 점이 사업하는 데 큰 동기로 작용한다.”<br/><br/><br/><br/>―기계학습(Machine Learning)으로 AI의 변별력을 높인다는데, 양질의 데이터 확보가 관건이겠다.<br/><br/><br/><br/>“바로 그거다. 알파고가 이세돌을 이기는 데도 과거 명인들의 기보가 필요했다. 루닛의 AI가 인간 의사를 도와 더 정확하게, 더 독창적으로 진단하려면 풍부한 빅데이터, 검증을 마친 신뢰성 있는 의료 영상 데이터 확보는 필수다. 4차 산업혁명위원회 민간위원 대표로 발표할 때 공공 데이터의 공개와 개인 정보 보호 정비를 요청한 이유다. 데이터가 자유롭게 흘러다닐 수 있도록 해야 한다.”<br/><br/><br/><br/>―대통령 앞에서 발표하려니 떨리진 않았나.<br/><br/><br/><br/>“별로. 다만 젊은 만큼 도움이 되는 말을 하려 애썼다. 앞으로도 대학원생 시절의 싱싱한 아이디어를 제공하려고 노력하겠다.”<br/><br/><br/><br/>―길진 않지만, 사업하면서 느낀 애로는.<br/><br/><br/><br/>“미국·이스라엘 등지의 스타트업과 비교하면 초기 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많다. 고급 인재 확보에 필요한 스톡옵션 도입도 회계법상 너무 장애물이 많다. 벤처 창업 후 수년간을 흔히 ‘죽음의 계곡’이라 부르는데 상장 요건 완화를 비롯한 중간 자금 회수 절차도 개선해야 한다.”<br/><br/><br/><br/> 노성열 기자 nosr

언론사: 문화일보-1-42.txt

제목: <미래를 여는 사람들>“파예할리! 極寒 남극서 내 불확실한 미래 答 찾아 오겠다”  
날짜: 20171101  
기자: 지건태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501.20171101121006032  
ID: 01100501.20171101121006032  
카테고리: 문화>방송\_연예  
본문: ■ 168대1 ‘남극체험단’뽑힌 대한민국 99% 평범 男女 4인<br/><br/><br/><br/>“파예할리(그래, 가보자). 남극!”<br/><br/><br/><br/>두 살배기 딸과 아내를 둔 회사원 공승규(34) 씨. 그는 지난 8월 극지연구소의 ‘남극 체험단’ 모집 공고를 보고 신청서를 냈다. 남극에 대해 별로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그였지만, 남극 도전이 새로운 미래를 여는 첫 단추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남극 체험단 최종 선발자 명단에 이름이 올랐을 때까지도 아내와 직장에 뭐라 얘기를 꺼낼지 몰라 망설였다. 그런 그가 ‘인류 최초의 우주인’ 유리 가가린(Yuri Gagarin)이 첫 우주비행에 나섰을 때 내뱉은 ‘파예할리(그래, 가보자)’를 되뇐 것은 미래에 대한 ‘도전’ 의식이 앞섰기 때문이다. 그와 함께 남극 체험단에 뽑힌 전현정(여·44) 씨와 정승훈(27) 씨, 이소영(여·25) 씨도 똑같은 심경이다.<br/><br/><br/><br/>이들은 12월 서울에서 1만7240㎞ 떨어진 남극 킹조지섬의 세종과학기지로 떠난다. 내년 설립 30주년이 되는 세종과학기지에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 발을 딛는 것은 처음이다. 이들이 168대1의 경쟁률을 뚫고 남극 체험단에 선발된 것은 ‘평범하기’ 때문이었다. 세종과학기지를 운영하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극지연구소는 특별한 재능이나 극한의 환경에서 견딜 수 있는 강한 체력을 갖춘 지원자가 아니라 너무나 평범한 이들을 첫 남극 체험단원으로 선발했다. 미지의 세계인 남극에 대한 동경과 설렘, 도전 의식이 새로운 미래를 꿈꾸는 평범한 사람들에게 널리 퍼져 나가길 바라는 마음에서다. <br/><br/><br/><br/>대한민국에서 가장 평균적인 가장이라는 승규 씨는 결혼 후 가족을 남겨두고 떠나는 첫 해외여행이다. 영화감독을 꿈꿨던 그는 자신의 보물 1호 캠코더에 ‘미지의 땅’ 남극의 비경을 빼놓지 않고 담아올 요량이다. 스스로를 ‘대체 불가한’ 청년이라 소개한 소영 씨는 남극의 세종과학기지에서 생애 최고의 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다. 인디밴드로 거리에서 여러 번 공연한 경험이 있는 그는 노랫말처럼 이 땅이 끝나는 곳에서 펭귄과 현지 대원들에게 ‘뭉게구름’(80년대 대중가요)을 선사할 계획이다. 대학에서 건축학을 전공하고 동화작가가 된 현정 씨는 평범한 가정주부다. 평일은 집에서 아이를 돌보고 주말에는 자영업을 하는 남편의 식당에서 일을 도와야 하지만 남극에서는 자신도 ‘탐험가’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 한껏 들떠 있다. 혈액암에 걸려 기후학자의 꿈을 포기해야 했던 승훈 씨도 이번 남극 탐험 길이 가슴 설레기는 마찬가지다. 좀 더 일찍 완치됐더라면 그는 체험단이 아닌 극지 연구원으로 세종과학기지에 머물렀을지도 모른다. 남극 출발을 앞두고 현지 적응 훈련을 위해 10월 26일 서울의 한 인공 빙벽 등반장에 이들이 모였다. 남극은 이들에게 불확실한 미래이자, 새로운 희망이 움트는 생명의 대지일지 모른다. <br/><br/>◇ 99% 평범한 사람들의 특별한 도전<br/><br/><br/><br/>승규 씨는 남극 체험단 지원서와 함께 제출한 UCC에서 자신을 ‘대한민국 99% 평범한 가장’이라고 소개했다. 남들과 다를 것 없는 평범한 삶을 살지만, 승규 씨는 그런 일상도 하루하루 남극과 같은 극지를 넘고 있다는 생각이다. 그는 남극에 다녀와서도 그런 평범한 가장이 되겠다고 했다. 힘든 항암 치료를 끝낸 지 만 5년이 지나 지구 끝까지 먼 길을 떠나는 승훈 씨는 이번 여행을 무사히 마치면 스스로도 ‘완치’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그는 “앞으로 새로운 꿈을 꾸고, 그 꿈을 향해 더 이상 주저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지금은 남극이란 낯선 환경에 대한 두려움보다 새로운 곳에 대한 흥미와 낭만적인 기대감이 더 큰 소영 씨는 “<span class='quot0'>잘은 모르지만 그곳(남극)에 다녀와서는 분명 지금의 지구를 더 사랑하게 될 것 같다</span>”고 말했다. 세종과학기지에 상주하는 대원들을 소재로 동화를 쓰고 싶다는 현정 씨는 “<span class='quot1'>아이들 동심에 예쁜 공주나 멋진 왕자보다 극한의 환경에서 미지의 세계를 탐구하는 세종과학기지 대원들의 열정과 도전 정신을 담고 싶다</span>”고 말했다. <br/><br/><br/><br/>◇ 불확실한 미래와 미지의 남극은 서로 닮았다.<br/><br/><br/><br/>남극은 지구의 기원을 밝힐 마지막 퍼즐 조각이다. 그 퍼즐 조각이 완성될 즈음엔 인류는 지구를 대체할 은하계의 또 다른 행성을 찾아 나설 수 있을 것이다. 현정 씨는 “<span class='quot1'>지구의 끝 남극에서 미래로 가는 길을 찾을 수 있을 것</span>”이라고 했다. 호기심 가득한 아이의 눈으로 두꺼운 얼음 옷에 가린 남극의 속살을 보고 올 심산이다. 승규 씨는 남극에서 자신의 미래를 찾겠다고 했다. ‘봉급은 적고 끊임없는 위험이 따르며, 무사 귀환은 보장할 수 없음’, 100년 전 ‘런던타임스’에 실린 남극 탐험대원 구인 광고의 카피다. 당시 24명 모집에 무려 2500명이 지원했다. 승규 씨는 이 같은 사실을 언급하며 자신도 그중 한 명이 된 것 같다고 했다. 소영 씨는 남극과 미래의 공통점이 있다면 ‘아무것도 장담할 수 없음’이라고 단정했다. 그 역시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남극에서 자신의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답을 찾겠다는 각오다.<br/><br/><br/><br/>◇ 빙하를 녹여 만든 커피 어떤 맛일까.<br/><br/><br/><br/>체험단 중 가장 막내인 소영 씨는 남극에 도착해 가장 먼저 드립 커피를 만들 생각이다. 멀리 울산에서 올라온 그는 “<span class='quot1'>수억 년 켜켜이 쌓인 눈으로 만들어진 남극의 얼음은 분명 냉장고에서 얼린 것과는 그 맛이 다를 것이다</span>”고 했다. 그는 자신이 직접 원두를 갈아 남극의 빙하를 녹인 물로 따뜻한 커피를 내려 현지 대원들과 나눠 마실 생각이다. 체험단 리더를 맡은 승규 씨는 지난여름 퇴근길에 서울 지하철 2호선에서 우연히 남극 체험단 모집 공고를 봤다. 지루한 일상에서 벗어나고픈 맘에 일단 지원서부터 제출했지만 지난 80일간의 선발 과정에서 여러 번 망설였다. 딸아이가 성년이 됐을 때 아빠도 뭔가 자랑할 게 있어야 할 것 같아 ‘사표 쓴다’는 각오로 용기를 냈다. 남극의 오로라를 꼭 한번 보고 싶다는 현정 씨도 체험담을 글로 써 아이들에게 들려줄 생각이다. 10만 명 중 1.7명이 걸린다는 악성 ‘버킷림프종’을 앓았던 승훈 씨는 “꿈을 포기하지 않고 암을 이겨냈더니 드디어 꿈에 그리던 남극에 갈 수 있게 됐다”고 들떠 있다.<br/><br/><br/><br/>◇ 크레바스·블리자드도 두렵지 않다.<br/><br/><br/><br/>영국의 탐험가 로버트 스콧은 그의 저서 ‘남극일기’에서 “<span class='quot2'>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대원들이 놓지 않은 건 삶에 대한 미련이 아니라 위대한 도전의 기록이었다</span>”고 썼다. 승규 씨는 그의 글을 인용하며 “<span class='quot3'>체험단이 대단한 미션을 수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 자신은 인생 최고의 미션에 도전하는 것</span>”이라고 말했다. 남극에선 땅길 깊숙한 크레바스(빙하가 갈라져 생긴 틈)에 빠져 고립될 수도 있고, 수일 동안 지옥 같은 블리자드(남극의 강한 눈보라)에 갇힐 수도 있다며 누군가 겁을 주자, 소영 씨는 “아직 살아서 할 일이 많다. 꼭 살아서 돌아오겠다”고 말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때 일본에서 죽을 고비를 넘겼다는 현정 씨는 “<span class='quot1'>극한의 공포에서 무사히 빠져나올 수 있었던 것은 혼자가 아닌 가족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span>”고 말했다. 당시 가족과 함께 일본 여행 중이었다는 그는 두 번 다시 그때를 되새기고 싶지 않지만, 서로를 믿고 침착하게 매뉴얼대로 행동한다면 어떤 위기 상황도 극복해 낼 수 있다고 했다.<br/><br/><br/><br/>지건태 기자 jus216

언론사: 문화일보-1-43.txt

제목: “상상처럼 들리겠지만 ‘인간 150세 시대’ 곧 와요”  
날짜: 20171101  
기자: 노성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501.20171101113005011  
ID: 01100501.20171101113005011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과학한림원서울포럼’ 온 ‘DNA 나노로봇 개발자’ 머킨 박사<br/><br/><br/><br/>“나노기술 의료영역 큰 발전 <br/><br/>암·알츠하이머 정복 머잖아”<br/><br/><br/><br/> “<span class='quot0'>과학기술의 힘으로 ‘인간 150세’ 시대가 실현될 것이라고 봅니다.</span>”<br/><br/><br/><br/>‘DNA 나노로봇’ 기술의 최초 개발자로 꼽히는 채드 머킨(사진) 미국 노스웨스턴대 국제 나노테크놀로지연구소장은 31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세계과학한림원서울포럼(2017 IASSF)’의 기조 연사로 나서‘나노의약 발전이 갖는 의미’를 주제로 강연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이 개최한 이번 행사는 ‘건강 100세를 위한 미래과학기술’이라는 주제로 열렸다.<br/><br/><br/><br/>머킨 소장은 “<span class='quot1'>암을 치료하고, 인간이 150세까지 살며, 개인별 맞춤 의료가 진행된다는 이야기가 상상처럼 들리겠지만 나노기술 분야 연구자들이 최근 내놓은 새로운 진단법과 치료법, 질병관리 연구 성과를 보면 곧 현실이 될 것으로 본다</span>”며 “<span class='quot1'>의료 영역은 나노기술 분야에서 가장 큰 발전을 이루고 있는 분야 중 하나</span>”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span class='quot1'>순환하는 종양세포를 탐지하고 유전적으로 식별하며 유전자 및 면역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새로운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다</span>”면서, “<span class='quot1'>이는 암, 심혈관 질환, 알츠하이머병 등과 같은 심각한 질병을 연구하고 치료하는 데 획기적인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span>”고 덧붙였다.<br/><br/><br/><br/>머킨 소장은 나노입자와 ‘소간섭 RNA(small interfering RNA)’를 결합해 안정성을 확보한 뒤 이를 종양세포에 침투하도록 만든, 이른바 ‘DNA 나노로봇’을 개발해 나노분야 세계적인 석학으로 떠올랐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8년간 과학자문을 지내며 “<span class='quot2'>강하고 지속적이며 안정된 기초과학 분야 투자</span>”를 강력히 주장한 바 있다.<br/><br/><br/><br/>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인공나뭇잎 기술을 개발한 대니얼 노세라 하버드대 교수도 기조 연사로 참석해 “<span class='quot3'>최근 인공나뭇잎 기술의 효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데다 연료를 만들어내는 등 다양한 형태로 연구가 진행 중</span>”이라며 “<span class='quot3'>연구 인프라가 없는 국가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유용할 것</span>”이라고 말해 주목을 끌었다. 이경수 성균관대 교수 역시 자각 증세가 거의 없는 조기 폐암을 정확히 진단하는 가이드라인을 개발해 눈길을 모았다.<br/><br/><br/><br/>IASSF는 한림원이 2012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는 국제심포지엄이다.<br/><br/><br/><br/> 노성열 기자 nosr

언론사: 문화일보-1-44.txt

제목: 한양대 한마음창원병원 차성재 교수팀, 카자흐스탄에 내시경 갑상선 절제술 전수  
날짜: 20171031  
기자: 박영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501.20171031171005003  
ID: 01100501.20171031171005003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한양대 한마음창원병원이 카자흐스탄에서 목에 흉터가 남지 않는 ‘겨드랑이 접근 내시경 갑상선 절제 수술법’을 전수했다.<br/><br/><br/><br/>한양대 한마음창원병원은 통합암센터 차성재 교수팀이 지난 23~28일 카자흐스탄 아스타나 대통령병원에서 겨드랑이 접근 내시경 갑상선 절제술 시연을 통해 카자흐스탄에 최신 수술 기법을 전수하고 대통령병원과 업무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 <br/><br/><br/><br/>대통령병원은 하충식 한양대 한마음창원병원 이사장과 통합암센터 차성재·이이호 교수를 초청해 카자흐스탄에서 성공사례가 없는 선진 수술법인 ‘겨드랑이 접근 내시경 갑상선 절제술’을 전수받기 위한 ‘마스터 클래스’를 열었다. 차 교수는 2014년 중앙대 외과 교수로 재임 중 카자흐스탄 알마티 암병원에서 대장암 수술 성공과 복강경 수술을 전수한 바 있다.<br/><br/><br/><br/>이번 방문에서 차 교수팀은 대통령병원 외과 원장과 외과 전문의 등 10여 명이 참관한 가운데 갑상선 암이 의심되는 환자 20명을 초음파 검사로 진료한 후 여포성 종양 환자 5명을 선정해 목에 흉터를 남기지 않는 절제술을 성공적으로 시행했다.<br/><br/><br/><br/>한양대 한마음창원병원은 최신 수술법 전수 외 대통령병원과 업무 협약을 통해 의료 신기술 연구·개발 협력, 의료 인력 연수 추진, 선도 의술 전수 마스터 클래스 추진, 환자 진료 의뢰 협력 관계 구축 등에도 협력하기로 했다. <br/><br/><br/><br/>창원=박영수 기자 buntle@

언론사: 문화일보-1-45.txt

제목: <사설>‘전방위 僞善’ 홍종학 후보, 文정권 위해서도 사퇴해야  
날짜: 2017103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501.20171030115505002  
ID: 01100501.20171030115505002  
카테고리: 미분류  
본문: 홍종학 중소기업벤처부 장관 후보자의 표리부동이 국민을 참담하게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지난 23일 지명 발표 이후 겨우 1주일 지났지만, 면세점 정책 실패를 초래한 ‘홍종학법’, 재벌을 ‘암’이라고 지칭하는 등의 반(反)대기업 정서 등 기업 활동을 지원하는 장관으로는 부적절한 소신에 이어 ‘쪼개기 상속’, 학벌주의 조장, 자녀 특수학교 진학 등 온갖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홍 후보자는 자신은 그렇게 처신하면서 대외적으로는 부(富)의 세습과 편법 증여를 비판하는 법 개정에도 앞장섰다고 한다. 가위 ‘전방위 위선(僞善)’으로 이중인격 아니고는 설명하기 어렵다. <br/><br/><br/><br/>홍 후보자의 아내와 딸은 2015년 홍 후보자 장모 소유의 상가 건물 지분을 각각 25%(당시 8억6500만 원 신고)씩 증여받았는데, 딸은 당시 초등학교 5학년이었다. 이런 ‘쪼개기·격세 증여’로 1억 원 가량의 증여세를 절세했다. 세금 납부를 위해 딸은 어머니로부터 2억 원의 금전 대차 계약을 했다고 한다. 홍 후보자는 2014년 국회의원 시절 격세 상속·증여가 소득 불평등을 심화시킨다며 할증액을 상향하는 법안을 발의한 적도 있다. 이 딸은 1년 학비만 1500여만 원이 들어가는 특성화 중학교에 재학 중인데, 홍 후보자는 문재인 대선 캠프의 정책부본부장을 맡으면서 ‘특목고·자사고의 단계적 일반고 전환’ 공약을 만들었다고 한다. 지난 1998년 펴낸 저서에서 ‘명문대를 나오지 않으면 중소기업 운영은 성공하더라도 근본적인 소양이 없다’고 주장했는데, 중소기업 임직원 다수가 ‘비명문대 출신’이다.<br/><br/><br/><br/>문 정부의 장관급 인사 중 상당수가 언행 불일치를 보여 지탄을 받았다. 홍 후보자는 결정판이다. 문 정권은 물론 진보의 품격까지 오염시키고 있다. 장관 자격은 고사하고 최소한의 공인 의식조차 의심된다. 증여에 불법성은 없는지 세무 조사나 수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조속히 사퇴하는 것이 국민 분노를 달래고 문 대통령에게도 이로울 정도(正道)다.

언론사: 문화일보-1-46.txt

제목: < Fifty+ >보디 빌딩으로 ‘인생 리~빌딩’  
날짜: 20171027  
기자: 박성훈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501.20171027112005001  
ID: 01100501.20171027112005001  
카테고리: 미분류  
본문: 경기도 보디빌딩 장·중년부 동호회<br/><br/><br/><br/>바야흐로 ‘유병 장수시대’다. 의학 기술의 발달로 인간의 기대 수명이 100세를 바라보고 있지만, 암이나 당뇨 등 각종 만성질환을 앓고 있거나 힘이 달려 무기력한 노후를 보내는 이들이 적지 않다. 노년기를 앞두고 꾸준한 체력관리가 필요한 이유다. 그러다 보니 헬스장에는 활기찬 노년 생활을 꿈꾸는 중년층의 모습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꾸준한 운동으로 초콜릿 복근을 만들어 ‘몸짱’ 반열에 오르는 중년들 중에는 내친김에 보디빌더로 나서는 이들도 눈에 띈다. 경기도 보디빌딩 장·중년부 동호회(경보회)가 그들이다. 2013년 보디빌딩 대회에 함께 출전했거나 헬스장에서 함께 운동하다 만난 인연으로 결성한 경보회는 매달 정기적인 체력단련 모임을 하며 끈끈한 친목을 과시하고 있다.<br/><br/><br/><br/>1970년대를 풍미한 프랑코 콜럼부나 아널드 슈워제네거, 루 페리그노, 세르히오 올리바 같은 근육질의 남성을 동경하며 어릴 적부터 보디빌더의 꿈을 키워온 이들은 지금 누구 못지않은 육체미를 뽐내고 있다. <br/><br/><br/><br/>지난 25일 경보회가 정기모임을 하는 경기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D피트니스 클럽을 찾았다. 50∼70대를 아우르는 동호회원들은 이날 장내를 울리는 흥겨운 가요 리듬에 맞춰 운동기구와 씨름하며 자신과의 싸움에 열을 올렸다. 벤치 프레스와 덤벨 등으로 1시간여에 걸쳐 담금질을 마친 이들은 요가실에 모여 벽면 거울에 각자의 한껏 부풀어 오른 근육을 비춰보며 육체미를 과시하기도 했다. 전업 트레이너인 강종근(56) 동호회장은 “대회를 앞두고 몸 관리에 돌입한 회원이 있어서 그를 격려하고 응원하는 차원에서 오늘은 트레이닝 강도를 높였다”고 말했다. <br/><br/><br/><br/>◇헬스 트레이너로 ‘인생 2모작’ 경작하는 중장년 = D피트니스 대표인 정권오(52) 회원은 20여 년간 한 신문사의 출판국 판매사원으로 근무하다 퇴사를 앞두고 지금의 헬스장을 열게 됐다. 바쁜 직장생활 속에서도 새벽마다 운동을 빠뜨리지 않았던 그는 퇴직 전부터 트레이너로서의 삶을 계획했다고 한다. 정 대표는 “<span class='quot0'>신문사를 다니면서 출근 전 운동을 하고 나면 엔도르핀이 돌아 일이 즐거웠다</span>”며 “<span class='quot0'>이제는 스트레스로 힘들어하는 직장인들의 삶에 활기를 불어넣는다는 보람으로 즐겁게 일하고 있다</span>”고 말했다. <br/><br/><br/><br/>전직 경찰인 윤한식(60) 씨도 직장 은퇴를 맞아 인생 2모작을 위해 피트니스 업계로 전향한 경우다. 그는 정년 퇴임 이후 생활체육지도사 2급 자격을 취득, 현재 트레이너로 활동 중이다. 현직에 있을 때도 눈에 띄는 근육질의 몸매 탓에 터미네이터란 별명으로 불리던 그는 “<span class='quot0'>보디빌딩이 없었다면 내 인생도 없었을 것</span>”이라고 입버릇처럼 말한다. 그는 “경기대에서 생활체육지도사 연수생을 대상으로 한 특강 제안을 받았을 때는 강의 제목을 ‘보디빌딩, 내 인생의 전부’라고 정한 일이 있었다. 그만큼 내게 보디빌딩은 각별한 존재”라며 “공직을 떠난 지금, 헬스에 입문하는 이들에게 올바른 운동방법을 가르치며 큰 보람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br/><br/><br/><br/>아파트 단지 헬스장 위탁 운영업을 하고 있는 이재민(49) 회원은 부부 보디빌더로 손꼽힌다. 그는 어릴 적부터 영화에 등장하는 근육질의 남성배우를 동경해 고등학생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엘리트 체육인으로서 보디빌딩에 투신했다. 그의 아내 김연선(49) 씨는 남편의 권유로 운동을 시작해 2014년 경기도보디빌딩대회와 2015년 파주보디빌딩대회에서 연달아 1위를 차지하는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이 회원은 “<span class='quot1'>아내도 대학에서 무용을 전공했던 터라 운동에 거부감이 없었다</span>”며 “<span class='quot1'>함께 운동하다 보니 부부간에 공유할 수 있는 ‘공통분모’가 생겨서 관계가 더 돈독해지는 것을 느낀다</span>”고 말했다. <br/><br/><br/><br/>◇각종 대회에서 입상…중장년 보디빌더 ‘전성시대’ 견인 = 경보회원 중에는 시·군·구나 전국 단위로 열리는 각종 대회에서 입상 경력을 가진 이들도 많다. 경기 화성시에서 포장재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박용덕(58) 회원은 지난 2014년 대한보디빌딩협회가 주최한 미스터코리아대회에서 중년부 1위를 기록한 것을 포함, 지금까지 50여 개의 대회에서 입상 순위권에 오른 바 있다. 회사에서 귀가할 때마다 꾸준히 주민센터 헬스장을 들러 몸을 다진 결과다. <br/><br/><br/><br/>올 9월은 동호회에 상복이 터진 달이기도 하다. 조대성(71) 회원이 지난달 17일 헬스 인생 52년 만에 처음으로 출전한 경기도 보디빌딩 대회에서 시니어 부문 1위를 달성하는가 하면, 윤한식(60) 회원은 같은 달 30일 수원 경기도교통연수원에서 열린 제47회 미스터 YMCA 대회 60대 부문에 주어진 1등 트로피를 거머쥐었다. 이달 들어서는 안성용(55) 회원이 15일 의정부시장배대회 중년부에 출전해 1위를 달성했다. 경력으로는 막내 축에 속하는 김동기(56) 회원은 뒤늦게 근육맨의 반열에 오른 케이스다. 4년 전 운동을 시작한 그는 지난달 29일 열린 대한체육회장배 전국생활체육보디빌딩대회에서 중년부 5위를 기록했다. 그는 “<span class='quot1'>언젠가부터 배가 나오기 시작해 운동을 시작했는데, 강 회장으로부터 전문적인 트레이닝을 받은 뒤로는 눈에 띄게 몸이 달라지는 게 느껴져 의욕이 생겼다</span>”며 “<span class='quot1'>아직 입상순위권에 들 만한 실력은 아니지만, 성적에 연연하기보다는 꾸준한 운동으로 몸을 멋지게 가꾸고 싶다</span>”고 말했다. <br/><br/><br/><br/>◇“평생 건강 지키기 위해선 보디빌딩이 적격”= 경보회원들은 나이가 들수록 생리 기능이 위축되면서 자신감도 잃고 남성성도 약해지게 되는데, 그럴 때 운동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허리춤에 삐져나온 옆구리 살과 볼록하게 나온 배가 중장년의 ‘인격’으로 통하던 시절은 이제 지났다는 것. <br/><br/><br/><br/>조 회원은 본격적인 노년기로 접어드는 주위 지인들에게 보디빌딩을 적극 권하고 있다. 50대 이상으로 접어들면 건강한 삶은 물론, 나이가 들면서 찾아오는 각종 질병과 심리적 위축감이 찾아오기 마련이다. 조 회원은 이를 극복하는 데 운동이 적격이라고 조언한다. 그는 50년 넘게 보디빌딩을 해온 이유에 대해 “생명을 다하는 그 날까지 병치레 없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그는 “내게 행복과 건강 중 하나를 택하라고 한다면 건강을 택할 것이다. 건강하지 않으면 행복할 수 없기 때문”이라며 “보디빌딩을 위해 헬스를 하다 보면 외적으로 아름다워질 뿐 아니라 오장육부가 제 기능을 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br/><br/><br/><br/>안 회원은 재활운동으로서 보디빌딩을 적극 추천했다. 그는 “중·고교 무릎 재활을 위해 헬스를 시작해 지금까지 꾸준히 보디빌딩을 하고 있다”며 “젊은 시절 지하철공사 현장에서 일하다가 빔에 맞아 무릎 관절 수술을 했는데, 재활운동으로 헬스를 하면서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말했다. <br/><br/><br/><br/>박 회원 역시 “보디빌딩은 8년 전 텀블링을 하다가 생긴 허리 디스크 때문에 시작한 것”이라며 “체계적인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다 보니 허리도 점점 좋아지는 것을 느꼈다. 자세도 좋아지니 비정상적인 자세 때문에 생기는 병도 자연히 없어지기 마련”이라고 말했다.<br/><br/><br/><br/>강 회장의 보디빌딩 예찬론도 건강과 맞닿아있다. “운동은 미래에 장수하기 위한 보험이라고 생각합니다. 건강할 때 운동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일단 건강을 잃으면 운동도 못 해요. 하지만 대부분 건강할 때 자만심이 생겨서 바쁘다는 핑계로 운동을 안 하거든요. 나중에 건강을 잃고 후회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건강할 때 보험을 들듯이 운동을 꾸준히 하다 보면 장수하는 거죠.” <br/><br/><br/><br/>고양 = 박성훈 기자 pshoon

언론사: 문화일보-1-47.txt

제목: “내 나이 서른… 이제야 어른이 된 느낌”  
날짜: 20171026  
기자: 김구철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501.20171026150005006  
ID: 01100501.20171026150005006  
카테고리: 문화>영화  
본문: 최희서 대종상 신인·여우주연상 <br/><br/>남우상 설경구, 신인남우 박서준<br/><br/><br/><br/>“<span class='quot0'>매 순간 진실된 연기를 할 수 있는, 진정한 과정을 밟는 배우가 되겠습니다.</span>” <br/><br/><br/><br/>이준익 감독의 ‘박열’에서 첫 주연을 맡은 배우 최희서(사진)는 대종상 2관왕에 오르자 벅찬 감정을 이 같은 소감으로 풀어냈다. <br/><br/><br/><br/>그는 2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열린 제54회 대종상영화제 시상식에서 신인 여우상에 이어 여우주연상까지 거머쥐었다. 그는 이 영화에서 강한 신념과 뜨거운 사랑으로 주인공 박열을 지지하는 일본 여인 가네코 후미코를 연기하며 관객에게 통쾌한 쾌감과 진한 감동을 안겨줬다. 일어와 영어, 이탈리아어 등 다양한 언어를 구사하는 그는 지난 2009년 ‘킹콩을 들다’의 조연으로 데뷔했지만 8년 넘게 이렇다 할 작품을 만나지 못하다가 이 감독의 전작 ‘동주’에 출연하며 주목받았다. <br/><br/><br/><br/>최희서는 “<span class='quot1'>나이가 서른인데 이제야 어른이 된 것 같다</span>”며 “<span class='quot1'>문득 가네코 후미코의 묘지가 떠오르는데, 그분께 감사한다고 전하고 싶다</span>”고 말했다. ‘박열’은 최희서의 수상 외에 감독상, 의상상, 미술상도 받으며 5관왕에 올랐다. <br/><br/><br/><br/>남우주연상은 15년 만에 대종상 무대에 오른 ‘불한당:나쁜 놈들의 세상’(감독 변성현)의 주연배우 설경구가 차지했다. 그는 “<span class='quot1'>나이가 들수록 꺼낼 카드가 많이 없는데, 더욱 노력하겠다</span>”며 “3초만 폼을 잡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br/><br/><br/><br/>올해 개봉작 중 처음으로 1000만 관객을 돌파한 ‘택시운전사’(감독 장훈)가 작품상을 받았으며 ‘더 킹’(감독 한재림)의 배성우와 김소진이 남녀 조연상을 받았다. 또 신인 남우상은 ‘청년경찰’(감독 김주환)의 박서준이 수상했다. ‘더 킹’은 시나리오상, 편집상 등 4개의 트로피를 거머쥐었다. 한국 영화 발전에 큰 발자취를 남긴 영화인에게 수여하는 특별상은 지난 4월 암으로 별세한 배우 고 김영애에게 돌아갔다. <br/><br/><br/><br/>한편 각종 논란에 휩싸이며 ‘참석상’이라고 불리던 대종상은 올해 신뢰도 높은 심사위원단을 구성하는 등 ‘리부트 프로젝트’를 내세우며 변화의 노력을 기울였지만 여전히 여러 부문 수상자가 불참했으며 매끄럽지 못한 진행 등으로 아쉬움을 남겼다. <br/><br/><br/><br/>김구철 기자 kckim

언론사: 문화일보-1-48.txt

제목: 윤석화 “연극인 자녀 장학금 꼭 만들고 싶다”  
날짜: 20171025  
기자: 인지현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501.20171025144005004  
ID: 01100501.20171025144005004  
카테고리: 사회>교육\_시험  
본문: 윤석화 복지재단이사장 취임<br/><br/><br/><br/> 배우 윤석화(사진)가 한국연극인복지재단의 신임 이사장 취임 첫 일성으로 “<span class='quot0'>임기 중 연극인 자녀 장학금을 마련하고 연극인 긴급의료비 기금을 확충할 것</span>”이라고 밝혔다. <br/><br/><br/><br/>윤석화는 24일 서울 대학로 정미소에서 열린 이사장 취임식에서 “<span class='quot1'>주어진 임기 동안 선후배 연극인들이 처해 있는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고 의료, 교육, 여가 등 전반에 걸쳐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다</span>”고 말했다. 연극인복지재단은 연극인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중견 연극인들이 뜻을 모아 2005년 출범한 비영리 단체로, 배우 박정자가 재단 창립 때부터 12년간 이사장직을 맡다 이날 자리를 물려줬다. <br/><br/><br/><br/>윤 이사장은 “<span class='quot2'>자녀 교육 뒷바라지를 하지 못하는 상황에 부딪혔을 때 연극인으로 산 것을 가장 후회한다는 말을 선후배 연극인들에게서 자주 들었다</span>”며 “<span class='quot2'>연극인 자녀 대학 입학 시 일정 금액을 장학금으로 지급하는 기금을 꼭 만들고 싶다</span>”고 밝혔다. 이어 “제가 좋아하는 선배가 암에 걸렸는데 치료비가 없어서 일찍 돌아가신 일이 있었다”며 “임기 내에 연극인 의료지원 기금인 ‘SOS기금’을 최소한 2배까지 늘리겠다”고도 했다.<br/><br/><br/><br/>이날 행사에는 김동호 부산국제영화제 전 이사장과 연극인복지재단을 후원해 온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 삼성문화재단의 한용외 전 사장 등도 참석했다.<br/><br/><br/><br/> 인지현 기자 loveofall

언론사: 문화일보-1-49.txt

제목: < What >국내 에이즈 감염인 6년새 43%↑ ‘세계에 역행’…‘음지의 性’이 최대 위협  
날짜: 20171025  
기자: 이용권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501.20171025114005001  
ID: 01100501.20171025114005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 ‘에이즈 여중생’ 사태로 다시 살아난 ‘AIDS 공포’<br/><br/><br/><br/>‘경험’빨라졌지만 性지식 부족<br/><br/>감염인 중 10~20代 비중 증가<br/><br/>10代 3.3 - 20代 33.8% 달해<br/><br/><br/><br/>혈액제제·수혈따른 감염사실<br/><br/>작년까지 10년이상 보고안돼<br/><br/><br/><br/>HIV, 체액·혈액 통해서 옮겨<br/><br/>식사 등 일상생활론 감염안돼<br/><br/>‘바이러스 감염=AIDS’틀린것<br/><br/>치료제도 개발돼 생존율 향상<br/><br/><br/><br/>한때 ‘20세기 흑사병’으로 불렸다가 지금은 만성질환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는 에이즈(AIDS·Acquired Immune Deficiency Syndrome)에 대한 공포감이 다시 우리 사회를 덮치고 있다. 최근 ‘조건 만남’으로 남자들을 상대해 오던 10대 여중생이 에이즈에 걸린 것으로 나타나면서 내려진 경계경보다. 얼마 전에는 7년 전 에이즈에 걸린 것을 알면서도 성매매를 해 집행유예를 받았던 20대 여성이 또다시 성매매를 하다 적발되기도 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사실이 알려지면서 에이즈에 대한 공포심이 더 커지는 분위기다. 세계적으로 환자가 줄어드는 것과 달리 유독 우리나라에서는 에이즈가 급증하는 추세다. 더구나 발병 연령대가 10대로까지 낮아지면서 관리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대한에이즈예방협회 홈페이지는 에이즈 관련 정보를 찾거나 온라인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가 급증하면서 한때 서버가 마비되기도 했다. 덩달아 에이즈에 대한 잘못된 정보도 무차별적으로 확산하고 있다. 에이즈는 다른 사람에게 전파할 수 있는 감염병이기는 하지만, 성관계·수혈 등 전파 형태가 한정돼 있어 대량 확산이 불가능하며 생활수칙으로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의 평가다.<br/><br/><br/><br/>◇에이즈와 HIV는 달라 =25일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에이즈, 즉 ‘후천성면역결핍증(後天性免疫缺乏症)’은 인체 면역 결핍 바이러스(Human Immunodeficiency Virus·HIV)에 감염돼 발생하는 질병이다. HIV 감염과 에이즈를 혼동하는 경우가 많은데, 모든 HIV 감염인이 에이즈 환자는 아니다. ‘HIV 감염인’은 체내에 HIV를 갖고 있는 사람을 총칭하는 말로 넓게는 병원체 보유자, 양성 판정자, 에이즈 환자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HIV 감염인은 HIV가 몸 안에 들어와 있기는 하지만, 일정한 면역 수치(CD4 200cell/㎣ 이상)를 유지하면서 몸에 뚜렷한 증상이 없는 상태다. <br/><br/><br/><br/>‘에이즈 환자’는 HIV에 감염된 후 면역체계가 파괴돼 종양 등 합병증이 생긴 환자를 말한다. 면역체계가 파괴돼 면역세포 수가 200cell/㎣ 이하이거나, 에이즈라고 진단할 수 있는 특정한 질병이나 증상이 나타난 경우다. HIV에 걸려 치료받지 않으면 면역기능이 서서히 감소해 각종 감염과 암 등 다양한 병적인 증상이 나타난다. 다행히 1987년 HIV 치료제가 개발되면서 전파위험도 줄었고, 감염인의 생존율도 혁신적으로 향상됐다. 1981년 미국에서 에이즈가 처음 보고된 이후, 6년 만이었다.<br/><br/><br/><br/>유엔에이즈(UNAIDS) 국제통계를 보면 지난해 세계 HIV 신규 감염인은 모두 180만 명으로, 이 중 성인 감염인이 170만 명을 기록해 2010년 190만 명보다 11% 감소했다. 이런 감소추세와 달리 한국에서는 2016년 신규 HIV/AIDS 감염인이 1199명으로, 2010년(837명)에 비해 43.2% 증가했다. 성 경험을 하는 나이가 빨라지고 있음에도, 에이즈나 성병에 대한 지식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10~20대 젊은 층을 중심으로 감염자도 늘어나고 있다. 전체 감염자 중 10대 비율은 2000년 0.7%에서 지난해에는 3.3%로 늘었다. 20대도 22.3%에서 33.8%로 급증했다.<br/><br/><br/><br/>◇성접촉이 주원인, 일상에선 감염 낮아=에이즈는 감염경로가 명확히 밝혀진 질병이어서 감염인과 음식을 같이 먹거나 악수를 나누는 등의 행위로는 전파되지 않는다. 모기 매개 등을 통해서도 전염되지 않는다. HIV는 인간의 체내에서만 생존하고 증식하면서 감염인의 체액이나 혈액을 통해서만 감염된다. HIV는 주로 성관계나 수혈 및 혈액 제제를 통한 전파, 병원 관련 종사자가 바늘에 찔리는 등의 의료사고에 의한 전파, 감염된 엄마로부터 신생아에게로 전파되는 수직감염 등의 경로가 주가 되는 이유다.<br/><br/><br/><br/>성접촉에 의한 감염은 에이즈의 주된 감염경로다. 국내의 경우 감염 산모가 출산한 자녀에게 전파하는 수직감염은 1985년부터 현재까지 13건에 불과하다. 혈액제제에 의한 감염은 1995년, 수혈로 인한 감염은 2006년 이후 보고 사례가 없다. 성접촉의 경우 감염인과 성관계 시 성기결합뿐 아니라 항문성교, 구강성교, 출혈이나 상처가 있는 항문에 입을 대는 행위, 성인용품을 씻지 않고 함께 사용하는 행위 등이 감염 위험을 높인다. 남성이 사정할 때 입을 음경에 접속하게 시키는 것도 감염의 위험이 있다. 프렌치 키스는 잇몸에 피가 난다거나 상처가 있는 경우 감염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HIV의 전파는 격렬한 성교로 상처나 염증이 생겼을 때, 성 전파 질환 등에 의해 염증이 생기거나 점막에 궤양이 생겼을 때, 기타 여러 가지 이유로 성기에 상처가 있을 때 더욱 잘 전파된다. HIV 감염인과 성관계를 갖는 경우 보통 1회 성관계 시 HIV가 전파될 확률은 0.01~0.1% 정도로 보고됐지만, 이는 통계적 수치일 뿐 단 한 번의 성관계로도 감염될 수 있으므로 콘돔 사용 등 안전한 성행위가 권장된다.<br/><br/><br/><br/>◇음성화된 성매매가 최대 문제=질병관리본부는 HIV/AIDS의 경우 남성 동성애(men who have sex with men·MSM), 트랜스젠더, 성 산업 종사자, 마약사용자 등 고위험군 사이에서 유행이 지속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최근 논란이 된 경기 용인의 ‘10대 에이즈 소녀’는 물론, 부산의 20대 여성 에이즈 환자도 모두 성매매와 연결돼 있다. 경기 용인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해 중학교 3학년이던 A 양은 여성 청소년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된 B 씨로부터 스마트폰 채팅 앱을 통해 30~40대 남성 10여 명을 소개받아 성매매했다. A 양은 올해 5월 HIV 감염 판정을 받았다.<br/><br/><br/><br/>또 부산에서 검거된 여성 B(26) 씨도 에이즈에 감염된 채 부산 전역에서 수십 명과 성매매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여성은 7년 전에도 에이즈에 걸린 채 성매매를 하다 적발됐다. 부산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B 씨는 8월 14일 부산 동래구 모텔에서 ‘랜덤 채팅’ 스마트폰 앱을 통해 남성과 만나 8만 원을 받고 성관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과 접촉한 성 매수 남성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지만, 성매매 남성이 몇 명인지조차도 파악이 쉽지 않아 감염자 확인이 어려운 상황이다. <br/><br/><br/><br/>이용권·김수민 기자 freeuse

언론사: 문화일보-1-50.txt

제목: 평생 쌓인 폭탄, 하루아침에 터진다… 음주·스트레스·비만·고혈압 등 위험인자  
날짜: 20171024  
기자: 이용권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501.20171024141005007  
ID: 01100501.20171024141005007  
카테고리: 문화>생활  
본문: - 뇌졸중 원인과 예방법<br/><br/><br/><br/>단일 질환으론 사망원인 1위<br/><br/>30~40대에서도 많이 발생해<br/><br/><br/><br/>‘편측마비’등 전조 증상 동반<br/><br/>실어증·급성 두통 등 나타나<br/><br/><br/><br/>3시간 이내 혈전용해제 필수<br/><br/>평소 가까운 병원 숙지해야<br/><br/><br/><br/>“<span class='quot0'>영국의 마거릿 대처와 윈스턴 처칠, 미국의 리처드 닉슨과 프랭클린 루스벨트, 조선 시대 정조, 북한 김정일의 공통점은?</span>”<br/><br/><br/><br/>바로 ‘뇌졸중(腦卒中)’으로 사망했다는 점이다. 한의학에서는 ‘중풍’으로 부른다. 뇌졸중은 ‘뇌 기능이 졸지에 중지’되면서 반신불수, 언어장애, 통증 등의 장애가 남아 사망에까지 이르는 무서운 병이다. 이로 인해 삶의 질도 떨어진다. 죽음보다 두렵다는 치매도 절반 정도는 뇌졸중이 원인인 ‘혈관성 치매’다. 우리나라 뇌졸중 사망자는 인구 10만 명당 50.3명에 달한다. 암에 이어 사망원인 2위를 기록하고 있다. 암은 장기별로 다른 질환으로 구분되기 때문에 단일 질환으로 본다면 뇌졸중이 사망원인 1위다. 주로 노인질환으로 인식됐지만, 최근에는 30~40대에서도 뇌졸중이 늘고 있다. <br/><br/><br/><br/>10월 29일은 세계뇌졸중 기구(World Stroke Organization)가 지정한 ‘세계 뇌졸중의 날’이다. 혈압이 높거나 당뇨병이 있는 사람들은 한쪽 팔다리나 안면에 불편함을 느낀다면 뇌졸중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br/><br/><br/><br/>◇전조 증상 확인해라 = 뇌졸중의 가장 흔한 증상은 몸의 한쪽이 움직이지 않는 상태인 ‘편측마비’다. 수저나 컵을 쥐고 있지 못하고 떨어뜨린다든지 한쪽 팔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는 상태가 이어지는 경우다. 저림이나 따가움, 시림 등의 증상이나 양쪽 팔 또는 다리의 힘이 동시에 빠지는 것은 편측마비에서 제외된다. 흔히 얼굴이 돌아갔다고 표현하는 안면마비는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말초성 신경마비로, 뇌졸중에 따른 안면마비와는 다르다. 말초성은 안면신경마비가 단독으로 나타나지만, 뇌졸중에 의한 안면마비는 안면부 근육이 편측성으로 마비되고 여러 다른 증세와 함께 나타난다.깨워도 일어나지 못하거나, 불러도 눈을 뜨지 못하는 의식장애로 뇌졸중이 발생하기도 한다. 발음이 어눌하거나 말이 새어 나오는 증상, 말을 하지 못하거나 상황에 맞지 않는 엉뚱한 말을 하거나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실어증도 뇌졸중의 중요한 증상 중 하나다. 두 눈으로 보고 있는데 오른쪽이나 왼쪽 중 일부가 잘 보이지 않는다든지, 막이 낀 것처럼 회색으로 가려지거나 이상하게 일그러져 보이는 시야장애, 둘로 겹쳐 보이는 증상도 안과질환으로 잘못 생각하는 뇌졸중의 중요한 증상들이다.<br/><br/><br/><br/>갑작스럽게 주위가 뱅뱅 도는 것처럼 어지럽다든지, 일어나서 걸으려고 하면 몸이 한쪽으로 기울어지거나, 팔다리에 힘은 있는데 움직임을 마음대로 조절할 수 없는 증상도 의심해야 한다. 갑자기 발생하는 심한 두통도 뇌졸중, 특히 뇌출혈의 증상을 우려해야 한다. 그동안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정도의 매우 심한 두통인 경우 반드시 의사의 진료가 필요하다.<br/><br/><br/><br/>◇원인 숙지하고 예방해야 = 뇌졸중의 원인은 대부분 밝혀져 있다. 뇌 속 혈액순환을 방해하거나 뇌혈관을 손상시키는 것은 모두 뇌졸중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인자다. 이 중 고혈압, 당뇨, 심장질환, 흡연, 과도한 음주는 ‘중요한 위험인자’다. 고지혈증, 비만, 짜게 먹는 식습관, 운동 부족, 스트레스 등은 ‘덜 중요한 위험인자’로 분류할 수 있다. 이런 위험인자 가운데 가장 많은 환자에게서 나타나는 것은 고혈압이다. <br/><br/><br/><br/>뇌졸중은 증상이 급작스럽게 나타난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그 원인이 생긴 것은 아니다. 평생 먹는 것과 생활하는 것 등을 통해 뇌혈관에 위험인자들이 쌓이고 쌓여 한꺼번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뇌혈관 손상을 줄 수 있는 위험요인을 빨리 파악해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장 큰 원인인 고혈압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짜게 먹는 식습관을 개선해야 한다. 햄, 베이컨, 라면 등 가공된 고기나 인스턴트 식품은 될 수 있는 대로 피하고 채소와 과일을 많이 섭취해야 한다. 고지혈증을 예방하기 위해 콜레스테롤이 다량 함유된 계란 노른자나 오징어, 마요네즈 등은 피하고 고기는 살코기만 먹는 게 좋다. 운동은 강도가 심한 것보다는 걷기, 수영 등 몸에 무리가 가지 않으면서 오랜 시간 지속할 수 있는 유산소 운동이 권장된다.<br/><br/><br/><br/>◇뇌졸중 ‘시간’이 생명 = 뇌졸중이 발생했을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이다. 이송 시간에 따라 환자의 뇌 손상 정도에 현격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뇌졸중 환자가 발생하면 응급 연락을 취해야 하는 이유다. 한시라도 빨리 ‘혈전용해제’를 환자에게 투입해 막힌 혈관을 뚫어 줘야 한다. 혈전용해제는 3시간 이내에 투입해야 효과적이므로 가급적 2시간 이내에 병원에 도착하도록 해야 한다. 구급차를 기다리는 동안 환자의 넥타이나 허리띠를 풀어 주고 편히 눕히는 것이 좋다. 손가락을 따거나 음식 또는 물을 먹이면 환자의 상태를 오히려 악화시킬 수 있으니 피해야 한다.<br/><br/><br/><br/>김용재 이대목동병원 뇌졸중센터장은 24일 “<span class='quot1'>뇌졸중은 날씨나 계절의 영향보다는 고령·고혈압·고지혈증·가족력 등의 위험인자로 인해 발생하기 쉽다</span>”며 “<span class='quot1'>따라서 뇌졸중 위험인자를 가진 사람들은 계절과 상관없이 평소에 꾸준한 운동과 올바른 식습관으로 뇌졸중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span>”고 강조했다. 김 센터장은 “<span class='quot1'>특히 뇌졸중은 발병 시 ‘골든 타임’ 안에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한 만큼, 뇌졸중 위험인자가 있는 사람들은 신속한 치료를 위해 가까운 병원을 숙지해야 한다</span>”고 말했다. <br/><br/><br/><br/>이용권 기자 freeuse

언론사: 문화일보-1-51.txt

제목: <도약! K-바이오>속도·원가경쟁력·품질 ‘3박자’… 의약품CMO 세계 1위로  
날짜: 20171023  
기자: 권도경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501.20171023142006002  
ID: 01100501.20171023142006002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 (上) 삼성바이오로직스<br/><br/><br/><br/>3공장, 2년만에 완공 눈앞에<br/><br/>‘18만ℓ규모 설비’ 세계 최대<br/><br/>1, 2공장 합쳐 36만2000ℓ<br/><br/>‘癌환자 10명중 1명’ 藥 생산<br/><br/><br/><br/>배양·실험 250여개 클린룸서<br/><br/>위탁 생산부터 공정 개발까지<br/><br/>의약품 ‘g당 최대 20만 달러’<br/><br/><br/><br/>한국제약바이오기업들이 바이오 강국의 초석을 다지고 있다. 바이오산업은 각국이 세계 경제 성장을 이끌었던 정보통신기술(ICT)에 이어 경쟁적으로 육성하는 업종이다. 이는 바이오산업이 지난 20년 동안 한국경제를 먹여 살린 전통 제조업과 다른 차원의 산업영역 개척이자 확장을 의미한다. 문화일보는 ‘도약! K-바이오’ 시리즈를 통해 바이오산업을 신수종사업으로 키워 글로벌 시장을 제패하려는 국내 기업들의 면면을 심층 분석한다. <br/><br/><br/><br/> “삼성바이오로직스 제3공장은 ‘꿈의 공장’이다. 속도·원가경쟁력·품질 세 가지를 모두 갖췄다. 3공장이 완공되면 암 환자 10명 중 1명은 삼성이 만드는 바이오의약품으로 치료받게 된다.”<br/><br/><br/><br/>지난 19일 인천 연수구 송도 바이오대로에 접어들자 셀트리온, 동아제약, GE헬스케어, 머크 등 국내외 제약업체들이 있는 단지가 모습을 드러냈다. 중심부로 들어서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3공장 건설 현장이 시선을 압도한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바이오의약품 위탁생산전문기업(CMO)이다. 신약을 개발하는 대신 제약사들이 주문하면 그 회사 기준에 맞춰 약을 만들어 납품한다. 일종의 위탁생산이지만 단순하게 생산만 대행하는 게 아니라 신약 상용화를 위한 공정 개발에까지 참여한다. 2015년 11월 말 첫 삽을 뜬 3공장이 만 2년 만에 완공을 앞두고 있다. 지상 4층으로 지어진 이곳 면적(11만8618㎡)은 서울월드컵경기장 두 개를 합한 규모다. 3공장 곳곳에서는 마무리 공사가 한창이었다. 현재 공정률은 90%다.<br/><br/><br/><br/>3층 바이오리액터(세포배양기) 홀에 들어서자 거대한 배양기 12대가 눈에 들어왔다. 생산설비 규모로는 총 18만ℓ에 달한다. 핵심시설인 이곳은 마치 조그만 정유화학 공장을 실내로 옮긴 듯한 모습이다. 배관 수백 개가 세포배양기를 둘러싼 채 복잡하게 연결돼 있다. 바이오의약품은 동물세포 등에 원하는 치료물질 유전자를 넣어서 약을 만드는 방식이다. 물과 먹이 등 세포 배양에 필요한 모든 것은 배관으로 이동한다. 의약품은 사람 몸에 직접 들어가기 때문에 한 치의 오차나 미세한 오염도 허용되지 않아서다. 배관은 원료 등이 고이지 않도록 조금씩 기울어져 있다. 배양이 끝나면 세포에서 항체만 따로 분리되는 과정을 거쳐 바이오 의약품이 만들어진다. 세포배양기에서 탄생한 의약품의 가치는 상당하다. g당 가격은 적게는 1만 달러에서 최대 20만 달러에 달한다. <br/><br/><br/><br/>세포 배양과 실험 등은 모두 클린룸에서 이뤄진다. 의약품 생산 과정이 ‘오염과의 전쟁’이기 때문이다. 3공장 내 클린룸은 250여 개다. 세포배양 시 교차 오염을 막기 위해 클린룸을 작은 규모로 많이 설치했다. 품질관리를 위해서는 QC동을 별도로 설치해 하루 평균 1200개 샘플을 채취해 검사한다. <br/><br/><br/><br/>이에 CMO 산업은 ‘과정의 산업’으로도 불린다. 약품을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공정 전체를 팔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제약업체가 유방암 치료제를 위탁 생산해 달라고 주문하면 CMO 기업은 모든 공정을 고객사에 똑같이 맞춰야 한다. 이때 고객사들은 공장, 품질관리, 인력 등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생산시간, 인력 숙련도, 공정 과정, 품질 관리 문화, 제품 생산 가치관 등 소프트웨어도 꼼꼼히 살펴본다. 이는 고객사들이 미국식품의약국(FDA)과 유럽의약품감독국(EMA) 등으로부터 의약품 품질 인증을 받는 근거로 사용되기 때문이다. <br/><br/><br/><br/>윤호열 삼성바이오로직스 상무는 “<span class='quot0'>이제 바이오의약품 시장에서는 속도와 원가경쟁력, 품질 3가지를 갖추지 못하면 퇴출된다</span>”며 “<span class='quot0'>삼성이 제약시장에 들어오면서 3가지 조건을 갖추지 못해도 업체들이 성공하던 기존 패러다임을 깨고 산업 지형을 바꾸고 있다</span>”고 말했다.<br/><br/><br/><br/>삼성바이오로직스는 3공장이 완공되면 1, 2공장과 합쳐 총 36만2000ℓ 규모 생산설비를 보유하게 된다. 만 7년 만에 CMO 기업 중에서 1위(생산 설비 기준)로 올라서는 것이다. 3공장은 다음 달 완공 후 1년 동안 자체 검증과 품질인증을 위한 시험생산 과정을 거쳐 2020년 본격적인 상업생산에 들어간다. <br/><br/><br/><br/> 송도=권도경 기자 kwon

언론사: 문화일보-1-52.txt

제목: <뉴스와 시각>AI시대 일자리 창출과제  
날짜: 20171023  
기자: 김상협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501.20171023120005002  
ID: 01100501.20171023120005002  
카테고리: IT\_과학>IT\_과학일반  
본문: 김상협 사회부장<br/><br/><br/><br/> 하루가 멀다 하고 인공지능(AI) 진화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br/><br/><br/><br/>질적, 양적인 팽창에 속도전 양상이다. 알파고, 왓슨, 무인로봇, 자율주행차 관련 기술의 가속화를 놓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보는 이도 있고, 엄습하는 공포를 토로하는 이도 있다. 이미 인터넷전문은행이 확산되고 인천국제공항에는 14대 로봇 안내원이 일하고 있다. 사례는 급속히 쌓여 간다. 미국 IBM 왓슨은 금융·로봇·헬스케어·요리사·고객서비스·쇼핑과 호텔 등 17개 산업에 적용되고 있다. 왓슨의 암 진단 정확도는 대장암 98%, 췌장암 94%를 기록해 전문의보다 높다. 현재 속도라면 영화 ‘토탈 리콜’에 등장하는 로봇 택시가 서비스를 개시할 날은 코앞에 와 있다. 대한항공은 무인헬기를 개발 중이다. 1982년 제작된 영화 ‘서기 2019 블레이드 러너’에 나온 우주 식민지 개척을 위해 대량 생산된 레플리컨트(복제인간)가 노동력을 대체할 가능성도 그저 상상이라고만 치부할 수 없다.<br/><br/><br/><br/>4차 산업혁명시대, AI 후발국이랄 수 있는 우리나라가 무엇보다 AI로 인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 과제와 함께 AI로 인해 없어지는 일자리에 대한 대책을 서둘러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되는 배경이다. 한국고용정보원은 10년 안에 노동자의 70%가 일자리를 잃을 처지에 놓인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AI가 인간의 감성·창의력·인지능력·직관에 의한 판단력까지 대체할 수 없다는 점에서 중장기적으로 AI에 의한 일자리 소멸을 걱정할 필요가 없어 보이지만, 당장 직장에서 내쫓기는 층은 고통에 내몰릴 수밖에 없다. 상대적으로 AI에 의한 일자리 대체 가능성이 낮은 직종은 전문가, 과학기술, 교육, 보건사회복지, 예술 스포츠 여가 서비스업 정도다. 미국의 인공지능 변호사 로스(Ross)가 미리 입력된 수백만 건의 판례를 토대로 분석을 도울 수는 있어도 법정에서 종합적인 판단력을 토대로 한 변호사와 판사의 활동을 대체할 수는 없다. 스위스 ABB가 만든 휴머노이드 유미라는 로봇 지휘자가 극찬을 받아도 평소 오케스트라 단원과 호흡을 맞추면서 인간의 감성을 담은 음의 세계를 만들 수는 없다. 단순노동의 경우는 다르다. 최근 전문가 여론조사에서도 일자리 소멸 가능성이 큰 직종 1·2·3위로 운수업·도소매업·금융보험업이 꼽혔다. 노동 내 격차, 양극화, 사회 불안정성이 증대할 수밖에 없다. AI가 몰고 올 만만찮은 부작용이다.<br/><br/><br/><br/>미래로 가는 과정에서 이 같은 불가피한 과도기의 진통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인 틀 만들기나 산업 방향 조정과 유도는 정부의 몫이다. 전체적으로 신기술로 인해 급격하게 변화하는 사회 혼란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이다. 보다 적극적으로 AI로 인한 근로자 대체 효과를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 고용 창출 효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정부 정책이 세밀하게 다듬어져야 한다. 새로운 직종,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는 관건은 구태의연한 규제를 서둘러 없애는 일이다. 노동시장 개혁도 급하다. 특히 자율주행차·드론·첨단바이오의약품 분야의 발전은 사실상 정부가 발목을 잡고 있는 격이다. 4차 산업혁명에 대해 정부가 강조하는 만큼 필요한 개혁은 실제 진행되지 않고 있다. 자칫하다가는 세계 경제전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 <br/><br/><br/><br/>jupiter@

언론사: 문화일보-1-53.txt

제목: 4차 산업혁명 대비 의사들 AI ‘열공중’  
날짜: 20171020  
기자: 이용권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501.20171020115005004  
ID: 01100501.20171020115005004  
카테고리: 문화>출판  
본문: 학술대회 줄이어… 생존 모색<br/><br/><br/><br/>질병 치료와 신약에 관해서만 연구하던 의사와 약사들이 인공지능(AI)을 공부하기 시작했다. AI 등 첨단 신기술이 보건의료계에 가장 활발하게 접목되는 점도 있지만, 4차 산업혁명시대에 일부 의료직종이 AI에 의해 사라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 IBM의 인공지능 왓슨이 이미 암 진단의 권위자로 부상하고 있는 상황이다. <br/><br/><br/><br/>대한재활의학회는 20~21일 서울 중구 하얏트 호텔에서 열리는 추계학술대회의 주제를 ‘4차 산업혁명’으로 잡았다. <br/><br/><br/><br/>AI 진출이 가장 활발한 진단검사 분야 의사들도 4차 산업혁명에 대해 ‘열공’ 중이다. 대한진단검사의학회는 18~20일 서울 광진구 워커힐 호텔에서 국제학술대회(LMCE 2017)를 열고 4차 산업혁명 및 정보기술(IT) 발달과 함께 신기술과 서비스가 진단검사의학 분야에 미치는 영향을 중점적으로 다뤘다.<br/><br/><br/><br/>대한약학회는 19일부터 20일까지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약학자, 약사 등 1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신약개발과 헬스케어’를 주제로 추계학술대회를 열었다.<br/><br/><br/><br/>이용권 기자 freeuse

언론사: 문화일보-1-54.txt

제목: <그림이 있는 골프에세이>골프장의 가을, 스코어보다 소중한데…  
날짜: 2017102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501.20171020110005001  
ID: 01100501.20171020110005001  
카테고리: 스포츠>골프  
본문: 너무도 오랫동안 소식이 끊겨 있던 선배 한 분으로부터 연락이 왔다. 지나온 시간의 안부를 묻는 것만큼 형식적인 것은 없으니 생략하겠다면서 골프장을 추천해 달라고 했다. 10년 만에 연락해 골프장을 묻냐고 말하자, 그 선배로부터 “사실은 ‘암, 앎 그렇고말고’라는 모임에서 라운드할 골프장을 찾고 있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선배는 암 투병 중이었다. 20대와 30대엔 치열하게 시를 썼고, 생계가 걱정된 40대부터는 산업전선에서 전쟁 같은 삶을 보냈다. 50대 들어 자신의 삶에 쉼표를 주겠다며 골프를 하기 시작했는데 어느 날 연락이 끊겼다. 그 이유를 이제야 알았다. 선배가 그 독한 암이라는 놈과 싸우고 있다는 것을. ‘암, 앎 그렇고말고’ 모임에서 골프를 좋아하는 사람끼리 이 가을이 가기 전에 골프장을 가자고 약속했단다. 어쩌면 마지막이 될지 모르는 이 가을에, 잘 차려진 풍성한 가을 풍경을 골프를 즐기면서 찬찬히 눈에 담고 싶다는 것이다.<br/><br/><br/><br/>생각해 본다. 습관처럼 오는 가을을 얼마만큼 소중하게 생각했었나. 그들은 마지막 가을이 될지 몰라 가을 풍경이 세트로 차려진 골프장에서 라운드하고 싶어 하는데…. 그동안 골프장에서 지나치게 사치스러웠음을 반성해 본다. 파트너가 맘에 안 든다고, 캐디 서비스가 엉망이라고, 골프장 음식이 ‘개판’이라는 등 불만만 쏟아냈다. 골프장의 그 아름다운 단풍을 파란 하늘과 함께 보면서도 당연한 것이라고 여겼다. 성적이 신통치 않으면 성질을 내면서 “다시는 이 골프장에 오지 않는다”는 말만 했다. 그 선배에게는 숨 막히게 아름다운 골프장 가을이 골프 스코어보다도 더 소중한데….<br/><br/><br/><br/>습한 공기를 내뱉던 여름이 지나간 것도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차고 맑은 공기가 폐 속으로 들어오는 것도 그저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세상에 당연한 것은 없다. 참고 기다릴 줄 알았기에 가을이 온 것이고 또 겨울이 오는 것이다.<br/><br/><br/><br/>선배는 가을 골프장에서 청명한 하늘 뭉게구름 뒤로 지는 석양을 보고 싶다고 말했다. 그래서 대부도에 있는 아일랜드 골프장을 추천했다. 선배는 가을이 오니 마음이 급해지는 것 같다면서, 그래도 가을이 좋은 이유는 정들지 않으려고 오래 머물지 않아서라고 말했다. 지는 단풍이 차곡차곡 쌓인 골프장에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시간을 꼭꼭 끌어안고 나무가 된 단단함을 보고 오겠단다. 가을 골프장에서는 서로 바라보고(시각), 이야기하고(청각), 함께 호흡(후각)했으면 좋겠다. 내려오는 길엔 나무향 짙게 밴 커피숍에 들러 진한 에스프레소 커피 한잔 하고 오라고 권하고 싶다. 더욱 깊어지는 이 가을에…. <br/><br/><br/><br/>이종현 시인(레저신문 편집국장)

언론사: 문화일보-1-55.txt

제목: <기고>방사선 진단·치료기기 투자 화급하다  
날짜: 2017101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501.20171018122005005  
ID: 01100501.20171018122005005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한영이 성균관대 의대 교수 방사선종양학<br/><br/><br/><br/> 현재 우리나라는 인구의 평균수명 연장으로 인한 고령화와 생활 습관의 변화로 인해 암 환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연간 21만7000여 명의 신규 암 환자가 발생하고, 1999∼2014년 누적 암 환자는 146만여 명으로 추정된다. 암 환자가 증가 추세지만, 암의 조기 발견과 의료 기술 향상에 따라 치료율이 점차 향상되고 있는데, 의료 기술 발전의 대표적인 예로 방사선 치료를 꼽을 수 있다. 방사선 치료는 방사선이 세포를 손상 또는 파괴하는 역할을 하지만 이러한 특성을 오히려 암세포의 사멸에만 집중시켜 이롭게 활용하는 치료법이다. 1962년에 코발트(Co-60) 치료기 도입을 시작으로 현재는 국내 암 환자의 25%가량이 방사선 치료를 받고 있다. 이제는 방사선으로 암을 치료하는 것에 대해 생소하게 여기는 사람은 드물어지고 있다.<br/><br/><br/><br/>그러나 보편화한 인식과는 대조적으로 방사선 치료기기의 국산화를 위한 연구 및 투자는 저조한 편이다. 방사선의학 시장 동향 보고서(S&T Marker report, Vol.45)에 따르면 2016년 세계 방사선 치료기기 시장 규모는 약 59억 달러(약 6조 6670억 원)로, 해외 글로벌 기업(베리언 메디컬, 엘렉타)이 90% 이상을 차지한다. 국내 의료 방사선 기기 시장 규모는 272억2000만 원(2015년 기준) 정도이지만, 국내 제조업체는 없으며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br/><br/><br/><br/>방사선 치료기기와는 대조적으로 방사선 진단기기의 경우, 일정 부분 국산화가 이뤄지고 있다. 종양의 유무 등을 판별할 수 있는 방사선 진단기기로는 컴퓨터단층촬영(CT), 엑스레이 촬영 등이 있는데,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발표 자료를 보면 CT 국내시장 점유율은 국산 제품이 26%에 이른다. 하지만 이 또한 대부분이 치과용이나 부위 한정용 CT에서만 국산화가 이뤄져 온 것으로, 전신용 CT는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br/><br/><br/><br/>국내 방사선 치료 수요는 계속 늘고 있으며, 특히 양성자 치료 및 중입자 치료 등의 고성능 기기 수요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고성능 기기는 해외 글로벌 대기업에서 원천 기술과 우수 제품들을 보유하고 있어서 독과점의 양상을 띠고 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국내 연구소와 대학을 중심으로 방사선 치료기기에 대한 연구는 계속 진행되고 있다. 일례로, 성균관대에서 악성종양 치료용 500 센티그레이(cGy)급 듀얼헤드(dual-head) 갠트리 방사선 치료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으며, 한국전기연구원에서도 차세대 융복합 방사선 진단치료기기 기술 개발 프로젝트를 통해 국산화를 추진하고 있다.<br/><br/><br/><br/>이처럼 여러 노력이 있지만, 근본적인 방사선 의료기기 개발을 위해서는 원천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R&D)이 필요하고, 이를 촉진하는 방안은 국가 차원의 R&D 투자가 필수적이다. 특히, 방사선 관련 기술 산업은 시장 진입 장벽이 높고, 배타적인 면이 있어서 국가 차원의 육성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미국·유럽·일본 등 선진국의 경우 이미 1970년대부터 정부 주도의 투자가 이뤄져 왔으며, 현재의 방사선 의료기기 시장에서 독과점을 주도하게 된 배경이라고 할 수 있다.<br/><br/><br/><br/>우리나라는 지속적으로 IT와 소프트웨어 기술 등으로 지식기반형 수출 산업을 선도해왔다. 최근에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춰 국가 차원에서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 등의 신산업 육성에 예산 투자와 관련 사업 분야의 활발한 연구가 진행 중이다. 방사선 의료기기는 성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며 기술에 기반한 지식기반형 산업이라 할 수 있다. 지속적인 R&D 투자와 우호적인 정책의 실행으로 관련 사업이 더 부흥되기를 기대한다.

언론사: 문화일보-1-56.txt

제목: <뉴스와 시각>미·중 대립과 文정부 외교력  
날짜: 20171018  
기자: 이제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501.20171018121006004  
ID: 01100501.20171018121006004  
카테고리: 국제>중국  
본문: 이제교 국제부장<br/><br/><br/><br/> 제19차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대회)가 18일 베이징(北京) 인민대회당에서 개막됐다. 이번 당대회는 시진핑(習近平) 주석 1기 집권 기간인 지난 5년을 평가하고, 최소 5년인 2기 집권 기간을 여는 문이다. 그래서 중국은 물론 세계의 시선은 그의 일거수일투족에 쏠리고 있다. 시 주석의 성적표는 겉으로는 화려하다. 그는 내재된 민주화 바람을 진정시켰고, 암처럼 퍼진 비리와 부패를 일소해 나갔다. 무엇보다 인공섬을 구축해 남중국해를 내해로 만들고 항공모함 건조를 통해 군사력을 키워 미국과 패권을 다툴 수 있는 제국의 기틀을 닦았다. <br/><br/><br/><br/>시 주석이 중국민들에게 심어준 것은 단지 ‘떠오르는 중국’의 위상이 아니라 ‘중국이 가는 길’에 대한 자부심이었다. 베이징에서는 벌써부터 마오쩌둥-덩샤오핑-시진핑은 동급이라는 소리까지 흘러나온다.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는 지난 16일 “<span class='quot0'>마오는 중국민을 외세의 침공에서 지켰고, 덩은 중국민을 가난에서 해방시켰으며, 시는 중국민에게 정치·경제적 시스템에 대한 확신을 안겨줬다</span>”고 평가했다. <br/><br/><br/><br/>방식은 다르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시 주석과 닮은꼴인 측면을 갖고 있다. 그가 생각하는 가치의 중심에는 미국이 놓여 있다.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불법이민자 추방정책을 펼치고 기후변화협약 탈퇴를 선언했으며, 이란 핵협정을 불인증하고 자유무역협정(FTA) 폐기를 역설하고 있다. 지독하고도 집요한 아메리카 퍼스트, 미국 우선주의의 전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1일 “<span class='quot1'>북한 문제는 반드시 해결돼야 한다</span>”며 “<span class='quot1'>궁극적으로 미국을 위해, 전 세계를 위해서 옳은 일을 할 것</span>”이라고 말했다. 참혹한 피해가 예상되는 군사옵션이라도 정의라고 여겨지면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취지다. <br/><br/><br/><br/>자국을 세계의 중심, 이익의 정점에 놓는 둘의 세계관은 필연적으로 대립한다. 핵미사일 실전배치 임박 단계인 북한은 입에 쓰지만 뱉을 수 없는 중국과 고통스럽더라도 곪은 종기를 도려낼 수밖에 없는 미국 사이의 지정학적 교차점에 위치해 있다.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2년 가까이 북핵 해법을 놓고 대화와 협상에서부터 선제타격과 예방전쟁, 정권 교체, 미·중 빅딜론까지 무수한 논의가 쏟아졌지만 명확한 방향을 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3대 세습체제의 인권탄압 국가인 북한은 세계의 골칫거리로 떠올랐다. 지금까지 다른 국가를 상대로 그렇게 노골적으로 핵공격 위협을 가한 나라도 없었다. <br/><br/><br/><br/>미·중이 충돌하는 세계에서 오는 11월 7일 서울에서 개최되는 한·미 정상회담은 한반도의 운명을 논의하는 자리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핵 해법에 대한 한국의 분명한 입장을 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흘 뒤인 10일 필리핀에서 열리는 아태경제협력체(APEC) 회의 기간에는 한·중 정상의 만남 기회도 마련된다. 시 주석 역시 한국의 길을 물을 것으로 보인다. 헤겔은 역사를 보편적인 ‘이성의 간지(奸智)’에 의한 목적의 실현과정이라고 바라봤다. 문재인 대통령은 수사적인 대화와 평화의 외침을 뛰어넘어 미국과 중국의 이익과 이해를 묶어 세울 통일 한반도의 미래를 제시하고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을 설득해야 한다. 난제지만 한국이 가야 할 길이다. <br/><br/><br/><br/>jklee@

언론사: 문화일보-1-57.txt

제목: < His Story >“먹거리·습관·환경이 癌유전자 스위치 켤 수도 끌 수도 있어”  
날짜: 20171018  
기자: 김창희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501.20171018114005002  
ID: 01100501.20171018114005002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태초 먹거리’ 전도사 이계호 충남대 화학과 명예교수<br/><br/><br/><br/>“‘태초 먹거리’ 강의를 시작한 지 만 7년이 지났습니다. 지금까지 4시간짜리 무료 강의를 108회 했습니다. 강의를 듣는 분들의 절반은 암 환우입니다. 태초 먹거리 학교 홈페이지에서 수강 신청을 받는데 워낙 신청자가 밀려 수강 대기인 수가 최고 3000명까지 밀릴 때도 있었죠. 할 수 없이 100명 이상씩 수강자를 모아 대형 강의를 해야 하는데 이 많은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대형 강의 공간을 대관하는 게 어려움이라면 어려움이죠.”<br/><br/><br/><br/> 이계호(64) 충남대 화학과 명예교수는 TV 건강 프로그램과 대중 강의의 스타 강사다. 암을 예방하는 건강 식단과 자연 치유법 등을 설파하는 건강 전도사로 잘 알려져 있다. 월평균 10여 회 전국을 돌며 건강 강의를 하고 있다. 지난 2010년 7월 충북 옥천에 ‘태초 먹거리 학교’를 세운 설립자이기도 하다. 분석 화학자다운 해박한 이론과 지식, 암으로 세상을 떠난 딸의 투병 과정을 겪으면서 터득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 그의 건강 강의는 독특하면서도 특별하다. <br/><br/><br/><br/>지난 13일 인터뷰를 위해 충북 옥천에 자리 잡은 태초 먹거리 학교를 찾았다. 전원주택처럼 지은 학교는 이 교수가 일주일에 두 번 찾는 곳이다. 학교 주변 5000평 규모의 넓은 밭은 그가 인위적 개입을 최소화한 ‘태평 농법’으로 기르는 각종 농산물이 자라고 있었다. 경부고속도로 금강휴게소 IC에서 10여 분 거리에 위치한 태초 먹거리 학교에서 그를 만났다. <br/><br/><br/><br/>“우리 기성세대는 앞만 보고 달렸고, 결과만 갖고 평가했습니다. 과정이 무시되고 기본이 무시됐죠. 건강도 무리하면서 생긴 증상을 비법과 특효약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증상 치료는 전문의가 하지만 원인 치료는 본인이 해야 한다는 단순한 사실을 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비법과 특효약이 있더라도 그 사람 생활 속 질병의 원인이 고쳐지지 않고 반복되면 병은 재발하게 돼 있습니다. 태초 먹거리 학교는 건강을 회복하는 기본을 가르치고 있습니다.”<br/><br/><br/><br/>그의 신념은 후성 유전학(epigenetics)적 건강법이다. 먹거리, 생활습관, 환경 등 3가지를 잘 ‘컨트롤’하면 유전적 요인으로 타고난 암, 당뇨 등 질병 유전자의 발현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다는 이론에 근거를 두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공식품을 피하고 자연 그대로에 가까운 것을 섭취하는 것이 건강이 좋다는 의미에서 태초 먹거리라는 말도 만들었다. <br/><br/><br/><br/>“당뇨 유전자를 갖고 태어난 일란성 쌍둥이가 있었어요. 유전자는 동일하지만 헤어져 자란 지 수십 년 뒤 형은 멀쩡한데, 동생은 중증 당뇨 환자가 됐습니다. 유전자가 동일한데, 왜 이런 차이가 생겼을까요. 형제의 삶을 분석해보니, 먹거리·생활습관·환경이 완전히 달랐어요. 이 3가지가 암 유전자의 스위치를 켤 수도, 끌 수도 있는 것입니다.”<br/><br/><br/><br/>이 교수는 지난해 정년을 2년 앞둔 63세의 나이로 국립대 교수직을 그만두고 명예 퇴임했다. <br/><br/><br/><br/>“7년간 태초 먹거리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동분서주하다 보니 연구 등 본업에 소홀하기도 했고, 제약도 많이 느꼈습니다. 왜 그만두느냐고 말리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일종의 사회운동인 ‘태초 먹거리 운동’에 전념하기 위해 지난해 1989년부터 27년간 봉직해온 충남대 교수생활을 마무리했습니다.”<br/><br/><br/><br/>이 교수는 현재 방송사, 자치단체, 기업, 단체들의 건강 관련 특강 요청을 월평균 15∼20건 받는다고 한다. 대부분 돈을 받지 않는 무료 강의다. 방송 출연 횟수도 지금까지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많다. 우리 사회에 ‘건강하게 살고 싶은 욕구’가 분출하고 있고, ‘건강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인 시대라는 얘기다.<br/><br/><br/><br/>“저를 의사나 대체 의학자로 오해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진료법을 상담하고 치료법을 묻는데 그것은 제 분야가 아닙니다. 뷔페식당에 들어가 식사를 하면 제 뒤를 졸졸 따라다니며 제가 고르는 음식만 먹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처럼 먹으면 건강해질 것 같다는 이유에서죠. 제가 특별히 좋은 음식만 먹는 줄 지레짐작하기 때문입니다. 제 식단은 진짜 평범합니다. 균형 있게 소식을 실천할 뿐, 특별히 이것저것 챙겨 먹지 않습니다.”수많은 사람이 그의 강의에 몰려들지만, 사실 그가 내세우는 건강법에는 비법이나 특효약이 없다. 오로지 ‘기본을 지키라’는 단순명쾌한 얘기가 전부다. <br/><br/><br/><br/>우리나라가 국민소득 2만7000달러 시대에 평균 수명은 80세를 넘겼지만, 그가 보는 한국인 건강지표는 ‘빨간불’이 들어온 지 오래다. <br/><br/><br/><br/>“보건복지부 공식 통계로 3명당 1명이 암에 걸리는 나라가 한국입니다. 또, 대장암 발병률이 세계에서 제일 높은 나라가 한국입니다. 작년 기준으로 10만 명당 45명이 발병했는데, 전 세계 평균 17명의 2.7배입니다. 특히 남자가 여자보다 발병률이 2배 높아요. 대한민국 남자는 세계 최고의 대장암 위험군이지만, 아무도 관심 없습니다. 돈이 되는 암 발병 후 치료에는 관심이 있지만, 예방 쪽은 돈이 안 되니 사회적 관심이 없습니다.”<br/><br/><br/><br/>그는 한국인 식단에 대해 경고 메시지를 날렸다. “기본이 다 무너져 있습니다. 이러다 국민 2명 중 1명이 암에 걸리는 지옥 같은 시대가 올 것”이라는 게 그의 진단이다. 이 교수는 우선 고기를 한꺼번에 몰아서 먹는 식습관을 고쳐야 한다고 조언한다. 60㎏ 체중의 성인의 1일 단백질 필요량은 60g 정도인데 ‘배 터지게 실컷 먹어라’가 미덕이었던 기성세대 음식 문화의 시행착오가 10대 청소년들에게까지 이어지면서 세계 최고의 대장암 발생국이라는 오명을 갖게 됐다는 것이다. <br/><br/><br/><br/>이 교수는 “<span class='quot0'>고기를 먹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조금씩 나눠 먹자는 것</span>”이라며 “<span class='quot0'>고기를 한꺼번에 몰아서 먹는 한국인의 식습관으로 생긴 체내 초과 단백질이 소변으로 배출될 때 어마어마한 독성물질이 나오고 이것이 채식 위주로 최적화된 기다란 장 구조를 가진 한국인들에게 대장암 발생으로 이어진다</span>”고 설명했다. <br/><br/><br/><br/>한국인들의 지독한 마블링 사랑도 문제다. “소고기도 마블링 있는 부위만 찾고, 돼지고기도 삼겹살만 선호하는 식습관이 문제입니다. 맛의 기준이 잘못됐습니다. 과다 지방 섭취는 담즙 과다 분비를 유발하고 결국 장 건강을 해쳐 대장암의 원인이 됩니다.” <br/><br/><br/><br/>그가 제안하는 첫 번째 기본은 ‘미각의 회복’이다. “TV만 틀면 ‘먹방’ ‘쿡방’ 프로그램이 나오고 이에 열광하는 사회는 지혜롭지 못합니다. 기름 맛, 고소함을 맛의 기준으로 삼는 데 잘못됐습니다. 당근의 원래 맛, 케일의 원래 맛, 상추의 원래 맛을 알아야 합니다. 된장 소스나 샐러드드레싱 대신 식재료 본연의 맛을 알기 위해서는 오래 씹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5분 이내에 후딱 먹는 습관을 바꾸고 음식을 입에 넣고 30∼50회 씹는 연습을 해보면, 저절로 제대로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br/><br/><br/><br/>건강한 식습관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고기 단백질 섭취문화를 콩 단백질로 바꿔야 한다는 것도 그의 소신이다. 콩은 고기보다 단백질이 2배 많고 장 건강 회복을 돕는다. 대장에 존재하는 유산균의 먹이가 당인데 콩에 풍부한 올리고당은 소장에서 분해돼 버리는 포도당과 달리 대장까지 도달해 장내 유익균을 활성화시킨다. 이 교수는 전북 순창군과 함께 콩을 발효한 청국장 균주 제조공정 표준화 연구를 정부 지원을 받아 진행 중이다. <br/><br/><br/><br/>그는 오후 9시 이후 고기 야식은 가장 잘못된 식문화라고 지적했다. 한국 특유의 밤 음주 문화와 배달 음식 문화로 밤늦게까지 육류를 먹으면 잠자는 중에도 장이 일해야 돼 결국 장에 무리를 준다는 것이다. <br/><br/><br/><br/>20대 꽃다운 나이의 딸을 암으로 떠나보낸 아버지로서 이 교수는 암 환자에 대한 조언도 잊지 않았다. 이 교수는 “<span class='quot0'>딸이 투병 생활 동안 겪었던 시행착오가 많았는데 암 환자들도 그런 시행착오를 반복하고 있다</span>”며 “<span class='quot0'>항암제, 방사선, 수술 등 표준치료를 마치면 다 낫는다고 착각하는데 암에는 완치가 없다</span>”고 말했다. 그는 “<span class='quot0'>암 환자들의 발병 원인은 그 삶 속에 원인이 있는데 몸 상태가 나아지고, 암세포가 사라졌다고 해서 다시 원래 삶과 습관으로 돌아가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span>”고 강조했다. <br/><br/><br/><br/>옥천=김창희 기자 chkim@

언론사: 문화일보-1-58.txt

제목: 배봉산공원에 인공암벽장 조성  
날짜: 20171017  
기자: 신선종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501.20171017143006012  
ID: 01100501.20171017143006012  
카테고리: 문화>문화일반  
본문: 서울 동대문구는 18일 오후 전농동 배봉산 근린공원에 새로 만든 청소년 체육시설 준공 행사를 열고 암벽등반 시범을 보인다고 17일 밝혔다. 구는 배봉산 근린공원 안에 인공암벽장, X-게임장, 길거리 농구장, 배드민턴장 등을 지난 6월부터 조성했다. 인공암벽장은 높이가 5~7m인 자연형 인조암으로 만들어졌다. 또 X-게임장은 쿼터 파이프(한쪽 벽만 남긴 시설) 등 6종류의 시설을 설치했다.<br/><br/><br/><br/>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span class='quot0'>앞으로도 구민들이 원하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공원을 적극적으로 조성하겠다</span>”고 말했다.<br/><br/><br/><br/>신선종 기자 hanuli

언론사: 문화일보-1-59.txt

제목: 한국인, 소주 1∼2잔에도 암 위험… “절주보다 금주해야”  
날짜: 20171017  
기자: 이용권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501.20171017114005002  
ID: 01100501.20171017114005002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 분당서울대병원 조사 <br/><br/>소량 음주도 식도암 위험 1.5배<br/><br/><br/><br/>서양인과 달리 한국인들은 소주 1∼2잔(30g)의 가벼운 음주를 하더라도 저조한 알코올 분해 능력 때문에 암 발생 위험이 커진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br/><br/><br/><br/>최윤진·이동호 분당서울대병원 소화기내과 교수팀은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된 20세 이상 성인 2332만3730명을 대상으로 약 5년 5개월에 걸쳐 음주량과 소화기계 암(식도암·위암·대장암) 발생 상관관계를 추적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7일 밝혔다. 최 교수는 “<span class='quot0'>한두 잔의 음주가 심혈관계 질환을 예방한다는 연구 결과 때문에 많은 사람이 가벼운 음주는 암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리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span>”면서 “<span class='quot0'>그런 연구는 주로 서양에서 이뤄진 것으로, 알코올을 분해하는 효소가 잘 작동하지 않는 유전자군이 많은 한국인에게는 다른 결과를 보일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span>”고 말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플로스원 최근 호에 발표됐다. <br/><br/><br/><br/>연구팀은 조사 대상자를 1회 음주량에 따라 △비음주자 △가벼운 음주자(하루 알코올 30ｇ 미만 섭취) △과음자(하루 알코올 30ｇ 이상 섭취)로 나눴다. 알코올 30ｇ은 알코올 함량 20%의 소주로 치면 적게는 1∼2잔, 많게는 2∼3잔 정도다. 조사 결과, 가벼운 음주자 그룹이 비음주자 그룹보다 모든 비교 대상에서 암 발생 위험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가벼운 음주자 그룹의 식도암 발생 위험은 비음주자보다 50% 높았으며, 대장암과 위암도 같은 비교 조건에서 각각 12%, 5% 높았다. 하루 알코올 섭취량이 10g(소주 1잔) 미만으로 극소량인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이 경우 위험도는 식도암이 20%, 위암·대장암이 각 8%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br/><br/><br/><br/>이용권 기자 freeuse

언론사: 문화일보-1-60.txt

제목: <글로벌 스타일>격투 뒤 느끼는 ‘힐링’… 내면에 숨겨둔 ‘바이킹’을 許하라  
날짜: 20171012  
기자: 김다영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501.20171012105005002  
ID: 01100501.20171012105005002  
카테고리: 문화>요리\_여행  
본문: 매년 폴란드 볼린섬 전투 축제<br/><br/>무딘 무기 사용…큰 부상 방지<br/><br/>절제된 방법으로 호전성 표출<br/><br/><br/><br/>매년 8월 폴란드의 볼린섬에서는 대규모 전투가 벌어진다. 바이킹의 후손이라고 불리는 남성 수백 명이 갑옷과 투구를 장착하고 팀을 나눈 뒤, 방패와 무딘 칼을 들고 서로를 공격하며 내제돼 있던 폭력성을 가감 없이 표출시킨다. 영국 공영 BBC방송은 최근 이 축제를 사회로부터의 억압과 삶의 아픔을 축제를 통해 극적으로 표현하고 해소함으로써 마음의 안정을 얻는다고 해 ‘바이킹 테라피 클럽’이라고 소개했다. <br/><br/><br/><br/>볼린 축제(사진)는 노르웨이에서 매년 5월 열리는 오슬로의 바이킹 축제와는 또 다른 바이킹 축제다. 수백 명의 슬라브족 및 바이킹들이 모여 연회와 함께 매우 격렬한 결투를 벌인다. 큰 부상 위험이 없는 무딘 무기를 사용하며, 엄격한 규칙에 따라 결투를 진행하면서 그동안 일상생활에서 받은 스트레스와 쌓아두었던 폭력성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표출시킨다. 1990년대부터 이 전투를 기획해 온 이그로 고어윅츠는 “삶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일수록 그들의 호전성을 비교적 절제된 방법으로 표출함으로써 훌륭한 ‘바이킹 시민’이 된다”고 소개했다. <br/><br/><br/><br/>실제 현대인들의 스트레스와 우울감이 증폭될수록 이 축제를 통해 마음의 안정을 추구하려는 사람들이 크게 늘고 있다. 지난 8월 22일 열렸던 2017 볼린 축제에 참가한 맥스 브레이시는 BBC와의 인터뷰에서 “(이 축제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연스럽고 맹렬한 욕구를 풀어내도록 도와준다”고 말했다. 보도에 따르면, 그는 부모님이 암으로 돌아가시고 오랫동안 사귀었던 여자친구와 헤어진 뒤 고통을 잊으려 여러 가지 무술과 운동을 배워봤지만 어떤 것도 만족스럽지 못했다고 한다.<br/><br/><br/><br/>또 다른 참가자 카눈 바티는 “6세 때 아동학대를 당한 뒤 분노와 폭력은 내 삶의 방식이었다. 어린아이에게는 폭력밖에 분노의 감정을 다룰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고 고백했다. 그는 “절제된 방식으로 분노와 좌절의 감정을 밖으로 내보낼 수 있다는 게 내게 매우 유익하다”고 말했다. <br/><br/><br/><br/>BBC방송은 “<span class='quot0'>미국 드라마 ‘왕좌의 게임’의 세트장을 보는 것 같다</span>”고 평가하며 “<span class='quot0'>바이킹들의 대규모 행사 중 하나인 이 축제에 꽤 많은 사람이 그들의 상처 난 과거로부터 탈출하기 위해 참여하고 있다</span>”고 전했다. <br/><br/><br/><br/>김다영 기자 dayoung817

언론사: 문화일보-1-61.txt

제목: “美서도 늘 김치찌개·순두부·삼겹살…”  
날짜: 20171011  
기자: 최명식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501.20171011154005004  
ID: 01100501.20171011154005004  
카테고리: 스포츠>골프  
본문: 투어 위해 한국 온 대니엘 강 <br/><br/>“<span class='quot0'>한국서도 LPGA 우승하고파</span>”<br/><br/><br/><br/> “<span class='quot0'>미국에서도 ‘햄버거 먹을래, 김치찌개 먹을래’라고 물으면 당연히 김치찌개를 선택하죠.</span>” <br/><br/><br/><br/>올해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메이저 대회인 KPMG 위민스 PGA 챔피언십에서 우승한 재미교포 대니엘 강(25·사진)이 12일 인천 스카이72 골프클럽 오션코스(파72)에서 막을 올리는 LPGA 투어 KEB하나은행 챔피언십(총상금 200만 달러) 출전을 위해 한국을 찾았다. <br/><br/><br/><br/>‘강효림’이라는 한국 이름을 지닌 대니엘 강은 한국 음식을 좋아한다고 말했다. 10일 연습 라운드를 마치고 만난 대니엘 강은 “미국에 있을 때 한국 음식을 자주 먹지는 못하지만, 항상 찾는다”면서 제육볶음·김치찌개·순두부·팥빙수·삼겹살·간장게장 등 한식 메뉴를 줄줄이 읊었다. 부산 사투리가 자연스럽게 느껴질 정도로 한국어를 능숙하게 구사하는 대니엘 강은 “한국말은 반말은 잘하는데, 존댓말은 잘 못 하는 편”이라며 웃었다.<br/><br/><br/><br/>2012년부터 LPGA 투어에서 활약한 대니엘 강은 올해 7월 데뷔 5년 만에 첫 우승의 기쁨을 누렸다. 144번째 출전에서 거둔 첫 승. 대니엘 강은 “(우승을 못 해) 등에 원숭이 한 마리, 아니 코끼리 한 마리가 얹힌 기분이었는데 그걸 떨쳐낸 것처럼 기뻤다”고 설명했다. <br/><br/><br/><br/>2013년 11월 암 투병으로 세상을 뜬 아버지를 잊지 않기 위해 오른손 집게손가락에 한글로 ‘아빠’라는 문신을 새긴 대니엘 강은 “한국에서도 꼭 우승해 보고 싶다”며 “부모님 나라에서 열리는 대회이고, 또 우승을 한 번 해보니 그 느낌이 너무 좋고 행복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br/><br/><br/><br/> 최명식 기자 mschoi

언론사: 문화일보-1-62.txt

제목: ‘동양 최대 인공폭포’서 뮤지컬·오케스트라 향연  
날짜: 20171011  
기자: 신선종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501.20171011150005004  
ID: 01100501.20171011150005004  
카테고리: 문화>전시\_공연  
본문: 20~21일 ‘용마폭포 문화축제’ <br/><br/>중랑구민 백일장·암벽 체험도<br/><br/><br/><br/>서울 중랑구는 오는 20·21일 동양 최대 인공폭포가 자리한 용마폭포공원에서 주민 공감형 축제인 ‘2017 용마폭포 문화예술축제’를 연다고 11일 밝혔다. 용마폭포공원은 국제 규모 인공암벽장과 시원한 폭포 물줄기를 감상하며 책도 읽을 수 있는 서울의 대표적인 힐링 공간이다. <br/><br/><br/><br/>구는 이번 축제 기간에 51.4m의 웅장한 용마폭포 물줄기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뮤지컬 갈라 콘서트와 서울팝스오케스트라의 공연·북 페스티벌·청소년과 구민 백일장·폭포 갤러리·어린이 인공암벽 체험·용마산 힐링 걷기 천국 이벤트 등을 연다. 20일에는 뮤지컬 배우 남경주·최정원과 앙상블 더 뮤즈가 시카고·맘마미아 등의 뮤지컬 갈라 콘서트를 펼친다. 21일에는 서울팝스오케스트라(상임지휘자 하성호)가 로시니의 ‘윌리엄 텔’ 서곡을 시작으로 쇼팽의 ‘녹턴 팝스’ 등을 연주한다. 특히 야간에 축제장을 방문하면 ‘반딧불이 어우러지는 숲 속’ ‘낙엽이 바스락거리는 숲길’ ‘빛에 물들어 떨어지는 폭포’ 등 공원 산책로와 용마폭포가 연출하는 야간 조명이 가을밤에 낭만을 더한다. <br/><br/><br/><br/>나진구 중랑구청장은 “<span class='quot0'>봄에는 ‘서울장미축제’, 가을에는 ‘용마폭포 문화예술축제’를 대표로 내세워 더욱 내실 있는 운영으로 대한민국 명품 축제로 발전시켜 나가겠다</span>”고 말했다.<br/><br/><br/><br/>신선종 기자 hanuli

언론사: 문화일보-1-63.txt

제목: < Her Story >피우진 “軍생활 내내 쫓겨날듯 살아나… 별명도 피닉스”  
날짜: 20171011  
기자: 정충신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501.20171011112005003  
ID: 01100501.20171011112005003  
카테고리: 국제>유럽\_EU  
본문: 피우진 국가보훈처장<br/><br/><br/><br/>“군생활 내내 뭔가를 저지르고, 좌충우돌하다가 한직으로 밀려나고, 군에서 쫓겨날 듯하다가 다시 살아나는 과정을 수차례 반복했지요. 헬기조종사는 ‘파파 줄리엣’‘위스키 줄리엣’ 이런 식으로 호출명을 붙이는데, 동료들은 제게 ‘오뚝이’란 별명과 함께 ‘피닉스’가 어울린다며 호출부호를 그렇게 불렀습니다.”<br/><br/><br/><br/>추석 연휴에 들어가기 직전인 지난 9월 22일 서울 용산 서울지방보훈청 집무실에서 만난 피우진(61) 국가보훈처장은 가녀린 몸매 탓에 예비역 중령 이미지가 선뜻 와 닿지 않았다. 여군 최초의 헬기조종사, 특전사 중대장, 88사격단 여군중대장 등 피 처장의 이력서에 따라붙는 ‘여전사’ 이미지를 찾기란 더더구나 힘들었다. 그러나 그의 형형한 눈빛은, 여군 후배들이 왜 그에게 ‘이 시대 마지막 아마조네스’란 닉네임을 붙여줬는지 고개를 끄덕이게 했다.<br/><br/><br/><br/> 피 처장이 2002년 유방암 수술 때 암에 걸린 한쪽 유방과 함께 멀쩡한 다른 쪽까지 절제해달라고 요청해 의사들을 깜짝 놀라게 한 에피소드는 유명하다. “<span class='quot0'>건강에만 지장이 없으면, 군인의 직업상 전투 및 훈련에 ‘백해무익한’ 가슴을 없애 버리고 싶다</span>”는 설명에 의사들은 정신 이상을 의심할 정도였다. 문병 온 후배 여군들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자 “차라리 시원하고 좋다”며 껄껄 웃어 보였다. 그래서 붙은 별명이 ‘아마조네스’였다.<br/><br/><br/><br/>‘아마조네스’란 호칭이 마음에 드느냐고 물었더니 피 처장은 의외로 손사래를 쳤다. 피 처장은 그 대신 동료들이 붙여준, 헬기 조종사 호출명 ‘피닉스(불사조)’가 마음에 든다며 그 사연을 소개했다. 그가 국방부를 상대로 복직투쟁을 벌일 당시 발간해 화제가 됐던 자서전 ‘여군은 초콜릿을 좋아하지 않는다’의 최초 제목도 ‘응답하라, 여기는 불사조’였다는 사실도 공개했다. <br/><br/><br/><br/>피 처장은 남자들이 지배하는 군대라는 정글에서 치열하게 맨몸으로 맞서 싸웠다. 상처투성이의 아마조네스는 결국 ‘여장군의 꿈’을 접어야 했다. 하지만 그는 불사조처럼 또다시 눈부시게 부활했다. 그의 보훈처장 임명은 문재인 정부 인사의 백미였다. 여군 대위 시절 여군 부하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4성 장군(1군사령관)과 맞서 싸운 이야기는 한국 여군사회 전설로 지금도 회자되고 있다. 노회찬 정의당 의원이 피 예비역 중령이 보훈처장에 내정되자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라는 영화 제목이 생각난다. 인사를 넘어선 정의의 실현으로, 그 자체가 ‘보훈’”이라고 했을 정도다.<br/><br/><br/><br/>―보훈처 생활에 적응이 됐나.<br/><br/><br/><br/>“근무 100일이 좀 넘었는데 2㎏ 정도 살이 빠졌다. 242만 보훈 가족을 다 만날 순 없지만, 국가 행사가 많아 바쁘다. 보훈처장 첫 임무를, 임명장도 받기 전에 5·18행사로 시작했다.”<br/><br/><br/><br/>―여군 1호 헬기 조종사 출신으로 첫 여성 보훈처장에 임명돼 화제가 됐다. 장군 출신 또는 독립운동가 가문 출신이 주로 맡는 보훈처장에 파격적으로 발탁됐는데, 보훈처장이 되리라고 어느 정도 예상했나.<br/><br/><br/><br/>“여군 1호 헬기조종사라고 많이 보도됐는데, 잘못 알려진 사실이다. 나보다 7개월 정도 먼저 여군 헬기조종사가 되신 김복선 선배님이 1호이시고, 나는 그다음 기수로 헬기조종사가 됐다. 내가 소속된 ‘젊은 여군 포럼’이 당시 문재인 후보를 지지했지만 보훈처장이 되리라곤 전혀 예상 못했다. 대통령과 개인적인 친분도 없었다.”<br/><br/><br/><br/>―헬기 조종사 지원 동기는.<br/><br/><br/><br/>“헬기 조종사 지원은 당시 여군이 놓여 있던 환경과 관련이 있다. 당시 여군은 ‘여군 병과’로서, 즉 성별로 구분되는 병과로 존재했다. 그런데 그때 여군에게도 임무를 주고 병과별로 선발하려는 움직임이 있었고, 헬기조종사를 뽑기에 지원을 했다. 여군에게도 처음으로 임무가 주어지는 상황이었고, 새로운 임무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였기에 지원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다.”<br/><br/><br/><br/>그의 군 생활은 도전과 투쟁의 연속이었다. 그는 자신에게 닥치는 도전과 모험을 마다하지 않고 정면으로 돌파하기를 즐겼다. 부친이 군 장교 출신인 피 처장은 대를 이어 군인의 삶을 즐긴, 타고난 군인이었다. 피 처장은 군 복무 중 유방암에 걸려 절제 수술을 받으며 병마를 이겨냈지만, 군 신체검사에서 장애 판정을 받고 강제 퇴역당했다. 이후 국방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 군내 여성의 지위 문제를 사회적 이슈로 끌어올렸다.<br/><br/><br/><br/>―군복무기간 여성의 지위 향상을 위해 노력했는데 여군의 역할과 앞으로 어떤 점이 개선돼야 한다고 보나.<br/><br/><br/><br/>“여군은 군인으로서 남군과 똑같은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부당한 처우는 개선돼야 한다. 언론에서 수시로 보도되는 여군 성희롱 성추행 등 사건 사고를 보면 지금도 군에서 계속 이런 문제들이 완전히 근절되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이는 대다수 여성의 상관이 남성이고 이들 남성이 ‘부하 여군, 동료 여군’과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을 체득하지 못한 탓이라고 생각한다. 사관학교나 교육기관에서 여자 생도와 함께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7% 미만의 소수이다. 한 조직의 10%도 안 되는 소수자로서 여군은 다수의 남군과 문화적 분리현상을 일으키게 되고, 이 분리현상이 도리어 성폭력 등의 장애를 일으키게 된다.”<br/><br/><br/><br/>그는 “마지막 한 사람까지 여군에 대한 그릇된 인식이 바뀌도록 군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하고 여군이 소수자 문화를 벗어나서 일상적 주류 문화에 편입할 수 있도록 인력 규모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그래야 여군들이 제 자리를 찾아서, 능력껏 꿈을 펼칠 수가 있으며, 그때까지는 제도로 보직, 진급, 장기복무 등을 보호하고 지원해주어야 하며, 국방부가 이런 혁신을 단계적으로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br/><br/><br/><br/>피 처장은 2008년에 진보신당 제18대 국회의원 비례대표로 출마했었고, 이후 더불어민주당 대선 캠프에도 몸을 담았다. 정치 입문 계기가 궁금했다. “과거에 진보신당 비례대표 3번을 받은 적이 있는데, 여성 정치인으로서 꿈은 예전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다. 당시 군에서 전역을 당하고 복직 소송을 하고 있을 때, 당시 진보신당 노회찬 의원이 제 문제를 해당 상임위에서 거론하면서 내 복직투쟁이 많이 알려지게 됐다. 그 과정에서 저에게 도움을 주려 했던 노 의원과 인연이 닿았고, 진보신당이 지향하는 방향이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군, 그리고 사회 인권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기에 내가 받은 만큼 사회에 갚아야 한다는 의무감으로 비례대표에 응했다. 정치인의 꿈을 꿨던 건 절대 아니다.”<br/><br/><br/><br/>피 처장은 “민주당 캠프에 가게 된 계기는 ‘젊은 여군 포럼’이 당시 문 후보 지지선언을 했기 때문이다. 포럼은 선배의 입장에서 여군 정책과 관련한 전반적인 사안에 대해 조언을 하기 위해 만든 모임으로, 모임을 결성하고 활동을 하는 중 대선이 시작됐고, 정책적 지향점이 맞는 문 후보를 지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br/><br/><br/><br/>피 처장이 임명된 뒤 보훈처의 업무는 크게 늘어났다. 문재인 대통령 지시에 따라 독립 유공자와 참전용사, 국가 유공자 등에 대한 처우 개선 조치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br/><br/><br/><br/>―보훈처장에 임명된 지 4개월이 지났는데 그동안 중점을 둬서 진행한 일이 있다면.<br/><br/><br/><br/>“‘보훈 가족’들에 대한 국민의 따뜻한 관심을 불러일으켰다는 사실이다. 보훈이 정치나 이념적 논쟁의 중심에 섰던 시절에는 일부 이해관계 당사자들만 관심이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5·18기념식이나 현충일 등 큰 국가적 행사에서 대통령과 국민이 다 함께 그날의 주인공들을 생각하며 가슴 뭉클했던 순간이 있었다. 국민 대통합의 기제로서 보훈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었던 계기를 마련한 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생각한다. 그동안 소외된 분들을 찾아서, 생존 애국지사 특별예우금과 참전유공자에 대한 참전명예수당을 대폭 인상하고, 국가유공자 보상금도 지난 8년간 최고 수준으로 인상된 금액으로 2018년도 정부예산안을 마련할 수 있었다. 이런 작업들은 현재도 계속 진행형이어서 앞으로 5년 동안 추진해야 할 핵심과제 중심으로 보훈실행 체계를 개편해 나가겠다.”<br/><br/><br/><br/>―문재인 대통령은 독립운동하면 3대가 망한다는 말이 없어지도록 보훈 유공자 3대에 걸쳐 보상하도록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역사적으로 왜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생각하나.<br/><br/><br/><br/>“1962년 독립유공자를 위한 제도(국가유공자 및 월남 귀순자 특별원호법)가 도입된 후 독립유공자와 그 후손들에 대한 연금 지급 등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다. 그러나 재정부담이 많은 보훈급여금과 대부, 임대주택 우선공급 등 일부 지원은 선순위 유족 한 분을 중심으로 지원하고 있어 그 밖의 유족은 상대적으로 생활 정도가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일제강점기에 국외로 망명해 해외에서 거주하다가 최근에 귀국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영주귀국 독립유공자 및 후손은 주택마련 등 국내정착에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영주귀국 독립유공자 후손은 선순위 유족이 아니더라도 임대주택을 우선공급 받을 수 있도록 현재 입법 추진 중이며, 생활이 어려운 유족에 대한 지원방안을 검토하는 등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br/><br/><br/><br/>―‘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한다’는 인식을 없애기 위해 생존 애국지사의 특별예우금을 대폭 인상하고, 보상 지원금 범위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새 보훈개선안 시행으로 이 같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 독립유공자 자녀·손자녀 등에게 보상금이 제대로 지급되는 체제로 전환되기 위해 남은 과제는.<br/><br/><br/><br/>“내년부터 생계가 어려운 독립유공자의 자녀와 손자녀에게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독립유공자 유족분들이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생활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앞으로 다른 국가유공자와의 형평성, 국가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독립유공자의 공헌과 희생에 맞는 보상체계를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 <br/><br/><br/><br/>인터뷰 = 정충신 부장(정치부) csjung

언론사: 문화일보-1-64.txt

제목: 日 암학회 ‘인터내셔널 어워드’  
날짜: 2017101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501.20171010142006017  
ID: 01100501.20171010142006017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서울대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은 정밀의학연구센터장인 김성진(사진) 박사가 일본 암학회(JCA)가 주관하는 ‘인터내셔널 어워드’(International Award)를 받았다고 10일 밝혔다. 일본 암학회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암학회로, ‘인터내셔널 어워드’는 해마다 전 세계에서 암 연구 발전에 우수한 업적을 낸 연구자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언론사: 문화일보-1-65.txt

제목: 인천국제성모 맞춤형 암병원, 지역 특성화 전략 성공  
날짜: 20170926  
기자: 이용권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501.20170926174005001  
ID: 01100501.20170926174005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전인치료 시행해 개소 4개월만에 병상 풀 가동<br/><br/><br/><br/>인천 가톨릭관동대 국제성모병원은 ‘암 치료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목표로 지난 6월 개소한 맞춤형암치유병원(원장 정철운)이 4개월 만에 병상 가동률 100%를 달성했다고 26일 밝혔다. 지역의 많은 암환자들이 치료를 위해 서울 대형병원으로 원정 진료를 떠나는 현실에서 특성화 전략이 성공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br/><br/><br/><br/>맞춤형암치유병원은 암의 진단과 치료부터 치료 뒤 삶의 질까지 고려하는 전인치료가 목적이다. 이를 위해 내·외과 전문의 2명이 암환자 1명을 관리하는 2인 주치의 제도로 운영된다. 또 입원하는 모든 암환자를 대상으로 외과, 종양내과, 영상의학과, 방사선종양학과 등 3개 이상의 임상과 전문의가 모여 치료계획과 최적의 치료방법을 찾는 대면다학제 진료를 실시하고 있다. <br/><br/><br/><br/>정 원장은 “<span class='quot0'>환자 중심의 의료시스템으로 의료진은 환자를 더욱 상세히 관리할 수 있고, 환자의 심리적 안정을 통해 치료 효과도 좋아 환자들의 만족도가 높다</span>”고 말했다. 또 간호전문인력이 24시간 환자를 돌보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도입하고 환자 케어와 감염 관리를 위해 별도의 간호스테이션을 추가로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br/><br/><br/><br/>암은 수술 이후의 관리도 중요하다. 이에 따라 맞춤형암치유병원은 암환자의 치료 이후의 삶을 암 치유의 연장선으로 보고, 암 전문 교육기관인 ‘암치유교육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암치유교육센터는 암 치료의 핵심인 식(食), 신(身), 심(心)을 교육한다. 각 분야의 전문가와 의료진을 환자지지팀으로 구성해 암환자의 침상으로 직접 찾아가 1대1 맞춤형 교육을 실시한다. 퇴원 후에도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환자와 가족들이 스스로 암을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고 있다. 또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과의 연구 협력을 통해 차세대 염기서열분석(NGS) 검사를 이용한 개인 맞춤형 표적항암제 치료 연구도 진행하고 있다. <br/><br/><br/><br/>한편 국제성모병원 맞춤형암치유병원은 최근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이 후원한 ‘2017 대한민국 보건의료대상’에서 종합대상인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했다. <br/><br/><br/><br/>이용권 기자 freeuse

언론사: 문화일보-1-66.txt

제목: <박태균의 푸드 X파일 >발암물질 논란에 휩싸인 보이차  
날짜: 2017092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501.20170926155005001  
ID: 01100501.20170926155005001  
카테고리: 국제>중국  
본문: 최근 보이차의 발암물질 논란이 온라인상에서 ‘핫이슈’로 떠올랐다. <br/><br/><br/><br/>보이차의 발암물질 논란은 2010년 무렵부터 시작됐다. 광저우(廣州) 질병통제센터가 보이차에서 발암물질 아플라톡신(곰팡이 독소의 일종)이 검출됐다는 논문을 발표한 것이 계기였다. 이후 중국 정부가 철통 방어에 나섰다. 보이차로 인해 암에 걸릴 확률은 지극히 낮다는 내용의 반론을 지속적으로 제기했다. 한동안 잠잠하던 보이차 발암물질 논란이 최근 다수 수면 위로 올라왔다. 중국의 저명 과학저술가 팡저우쯔(方舟子)가 잡지 ‘과학세계’ 7월호에 “보이차가 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는 글을 쓴 것이 논란을 재개시켰다. <br/><br/><br/><br/>보이차에 코를 대고 냄새를 맡아보면 곰팡내가 낸다. 별명이 ‘곰팡이 차’다. 곰팡이 차에서 곰팡이독소의 오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br/><br/><br/><br/>보이차는 국내에선 생산되지 않는다. 기후가 잘 맞지 않아서다. 아열대 기후 지역인 중국 윈난(雲南)성의 시솽반나(西雙版納)·쓰마오(思茅)가 주산지다. 최근엔 광둥(廣東)성에서도 나온다. 보이차, 즉 푸얼(普珥)차란 명칭은 이 차의 집산지 지명(푸얼현)을 딴 것이다. 보이차의 인기가 높아지자 중국 정부는 쓰마오시를 푸얼시로 개명하기도 했다.<br/><br/><br/><br/>중국에선 한때 보이차가 재테크 수단으로도 활용됐다. 2006년 중국의 보이차 경매에서 최고급 보이차가 100g에 22만 위안(당시 환율로 2750만 원)에 낙찰돼 화제를 모았다. 1㎏에 10억 원이 넘는 보이차까지 등장했다.<br/><br/><br/><br/>보이차가 늘 중국에서 최고 대접을 받은 것은 아니다. 중국 문화대혁명 때는 생산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것이 마오쩌둥(毛澤東) 사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중국 본토 생산이 중단되기도 했다. <br/><br/><br/><br/>보이차를 유별나게 사랑했던 민족은 유목·수렵으로 벌판을 누볐던 만주족이다. 만주족이 중국을 지배(청나라)하면서 명차(名茶)의 반열에 올랐다. 지리적으로 채소·과일 등 식물성 식품을 구하기 힘들었던 만주족은 대단한 육식주의자였다. 청 건국 이후 베이징(北京)으로 거주지를 옮긴 만주족은 육식·중국요리의 기름기를 제거해주고 소화 효과를 가진 보이차를 즐겼다. <br/><br/><br/><br/>보이차는 채식을 즐기는 사람에겐 상대적으로 효과가 작다. 만주·몽골·서양인처럼 육식파(肉食派)에게 더 이롭다. 내장 지방이 많이 끼어 있거나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거나 비만으로 인해 기초대사율이 떨어진 사람에게 권할 만하다. <br/><br/><br/><br/>보이차는 후발효차(後醱酵茶)다. 발효시키지 않은 녹차와는 달리 곰팡이를 이용해 충분히 발효시킨 차이기 때문이다. 찻잎을 우려낸 색은 홍차보다 짙은 적갈색이어서 흑차(黑茶)로 통한다. 보이차엔 녹차의 웰빙 성분으로 알려진 카테킨(타닌의 일종, 떫은맛 성분)이 들어 있다. <br/><br/><br/><br/>보이차가 위(胃)를 따뜻하게 하고 면역력을 높이며 숙취·충치·불면 해소를 돕고 꽃가루 알레르기 등 알레르기 체질 개선에 이롭다는 연구결과도 나왔다. 암세포를 죽이고 세포의 돌연변이를 억제한다는 연구결과(중국 쿤밍(昆明)의학원)도 제시됐다. 하지만 아직 암세포 차원의 연구여서 보이차를 항암 음료로 인정하기엔 근거가 부족하다. 보이차의 카페인 함량은 녹차의 절반 정도다. 카페인이 포함된 것은 사실이므로 임신 중이거나 수유 중이라면 보이차 섭취를 하루 한 잔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 현명하다. <br/><br/><br/><br/>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 대표

언론사: 문화일보-1-67.txt

제목: <인터넷 유머>결혼식 하객 예절 3  
날짜: 2017092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501.20170926155005002  
ID: 01100501.20170926155005002  
카테고리: 문화>생활  
본문: 8. 신랑·신부 하객석 비율 맞춰라.<br/><br/><br/><br/>어느 한쪽 하객 수가 많아서 자리 부족으로 하객들 숨도 제대로 못 쉬면서 서 있는데 거기다 대고 굳이 그쪽으로 간다 또.<br/><br/><br/><br/>니 친구 많은 거 잘 알겠으니까 좋은 말 할 때 빈자리 찾아가서 앉아라.<br/><br/><br/><br/>한쪽이 비대해지면 니가 누구 친구든지 간에 상대적으로 빈약한 쪽으로 가서 앉는 거다.<br/><br/><br/><br/>결혼식장이 방공호냐?<br/><br/><br/><br/>괜히 식장 분위기 해치지 말고 흩어져.<br/><br/><br/><br/>9. 답례 인사하는 신랑·신부 붙잡고 술 권하지 마라.<br/><br/><br/><br/>신랑·신부가 인사 오기도 전에 애미애비도 못 알아볼 만큼 만취해서는 고성방가 아우성에 옆 사람 어깨동무 빨래 널듯 걸치고선 왕의 남자 공길이 빙의해서 한 바탕 뛰놀아버리는 이 암 덩어리 같은 놈들아.<br/><br/><br/><br/>아직 식 안 끝났다.<br/><br/><br/><br/>회포는 피로연이나 뒤풀이 때 알아서들 풀어라.<br/><br/><br/><br/>괜히 술 먹고 붙잡아서 그때 못 푼 한이라도 풀듯 주례 연설하지 마라.<br/><br/><br/><br/>신랑·신부 답례 인사 순회공연한다고 바쁘다.<br/><br/><br/><br/>\*물론 어르신들 계시는 자리에서 신랑·신부에게 과도한 스킨십 요청도 금물이다. <br/><br/><br/><br/>10. 결혼식장은 자기과시의 장이 아니다.<br/><br/><br/><br/>대단한 귀빈인 양 위풍당당한 걸음으로 두툼해 보이려고 만 원짜리로 채운 돈 봉투 눈에 보이게 쥐고선 일수 가방 처매고 선글라스 쓰고 담배 냄새 풍기면서 우르르 몰려오는 놈들 있다.<br/><br/><br/><br/>없는 형편에 야인시대 김두한 흉내 내서 금목걸이 금팔찌 차고 입장하는 순간, 신랑·신부가 조폭 출신쯤 되는 줄로 착각한다. 설령 조폭 출신이라도 남의 결혼식장에 그따위로 오는 거 아니다.<br/><br/><br/><br/>양가 부모님 가슴에 대못 박는 짓이고, 신랑·신부 측 하객들한테 대단한 민폐를 끼치는 짓이다. 장소에 맞는 예를 갖춰라. <끝>

언론사: 문화일보-1-68.txt

제목: “호흡기질환 사망률 상승은 미세먼지·오존 악화 탓”  
날짜: 20170925  
기자: 이용권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501.20170925142005004  
ID: 01100501.20170925142005004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OECD 건강통계 2017’ 보고서 <br/><br/>암·뇌혈관 사망률 감소와 대조적<br/><br/><br/><br/>우리나라의 질환 사망률 가운데 암, 뇌혈관,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은 감소했지만 유독 호흡기 질환 사망률만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의 호흡기 질환 감소 추세와도 역행한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심각해지고 있는 미세먼지·오존 등 대기환경 악화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br/><br/><br/><br/>25일 ‘OECD 건강통계(Health Statistics) 2017’에 수록된 우리나라의 질환별 사망률을 보면 호흡기 질환 사망률은 2010년 10만 명당 67.5명에서 2013년 70.0명으로 3년 사이에 2.5명 늘었다. 이는 OECD 평균(10만 명당 64.0명)보다도 높은 수준이며, OECD 평균이 같은 기간 10만 명당 66.1명에서 64.0명으로 줄어든 것과 대비된다.<br/><br/><br/><br/>국내 호흡기 질환 사망률은 다른 질환과 비교해도 차이가 난다. 같은 기간 암에 의한 사망률은 2010년 10만 명당 193.7명에서 178.9명으로 14.8명 줄어들었다. 뇌혈관 질환에 의한 사망률 역시 2010년 86.0명에서 2013년 71.6명으로 감소했으며, 허혈성심장질환에 의한 사망률도 같은 기간 42.0명에서 38.0명으로 줄었다.<br/><br/><br/><br/>이처럼 우리나라에서 호흡기 질환에 의한 사망률이 늘어나는 현상은 그만큼 미세먼지, 오존 등 대기환경이 나빠진 탓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미세먼지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1군 발암물질이다. 오존 역시 문제 요인이다. 오존의 대기 중 농도가 0.01PPM 증가할 때마다 호흡기 질환 사망 위험이 약 2.9%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된 바 있다.<br/><br/><br/><br/>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횟수는 올해 1분기에만 86회로 2015년 같은 기간 55회보다 크게 늘었다. 오존 주의보 역시 2012년 이전에는 연간 100회 미만이었지만, 2013년부터 늘어나기 시작해 지난해는 241회 발령됐다. <br/><br/><br/><br/>오존 주의보는 올해도 지난 8월에 241회를 넘어서는 등 증가추세다. <br/><br/><br/><br/>이용권 기자 freeuse

언론사: 문화일보-1-69.txt

제목: <명작의 공간>왕과 어우동 ‘밀회 계곡’… 흘러가버린 32년전 촬영의 흔적  
날짜: 2017092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501.20170922113005001  
ID: 01100501.20170922113005001  
카테고리: 문화>영화  
본문: (95) 영화 ‘어우동’ 감독 이장호가 찾은 촬영지 ‘충북 단양’<br/><br/><br/><br/> 32년 전 내 나이 마흔한 살의 기억이 이렇게 까마득한 줄 모르고 살다가 영화 ‘어우동’ 촬영지에 대해 기억해내려니까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촬영했는지가 아련하다. <br/><br/><br/><br/>지난 8월 제천국제음악영화제에 참석한 김에 충북 제천과 가까운 단양을 직접 찾아갔다. ‘어우동’ 촬영지를 둘러보고, 사진까지 찍어볼 요량으로 어느 한가한 오후에 혼자 차를 몰고 단양에 갔다. 요즘은 자동차 내비게이션으로 모르는 길도 쉽게 찾아간다. 먼저 목적지를 단양팔경 어디쯤 아닐까 생각하고 검색을 해보았다. 그중 낯익은 지명이 도담3봉과 선암계곡 등 2곳이었다. 하지만 도담3봉은 사진을 보니 왠지 낯설게 느껴졌다. 그렇다면 선암계곡이었다. 선암계곡을 집중 탐색해 볼 생각으로 내비게이션 목적지로 정하고 드라이브를 시작했다. <br/><br/><br/><br/>혼자 두메산골로 가는 길은 왠지 외로움이 가득해 그리운 추억이 방울방울 솟아올랐다. 옛 추억은 그리움처럼 슬픔처럼 가슴을 촉촉하게 젖게 했는데 그만큼 내가 많이 늙어서 그런가. 아니면 기억이 선명하지 않은데 추억만 자꾸 또렷해지기 때문일까.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 보니 어느덧 단양으로 들어서고 있었다. 왼쪽 차창으로 계곡이 펼쳐지기 시작하면서 우선 찾기 쉬운 목표로 넓이가 20평 이상은 되었을 아주 넓고 평평한 암반 위에서 양반들의 풍류 놀이를 촬영했던 그 장소를 떠올렸다. <br/><br/><br/><br/>금세 찾을 것 같았지만 예상처럼 쉽지 않았다. 하선암, 중선암, 상선암이라고 쓰인 도로 안내 표지판이 나타났다. 아마도 중선암일 듯싶었다. 다시 내비게이션 목적지를 중선암으로 지정하고, 눈에 익은 풍경을 발견하기 위해 긴장하면서 천천히 계곡을 누빈다. 마침내 어렴풋이 전에 보았던 것 같은 길가의 풍광이 서늘하게 펼쳐지며 확신이 들기 시작했다. 가슴이 두근두근 ‘아 찾았다’ 하는 순간, 32년 전 그 여름 계곡 옆 하얀 산장이 눈에 들어왔다. 그런데 왈칵 반가움이 자리 잡기 전에 어쩐지 썰렁한 풍광이 낯설게 다가왔다. 틀림없는 그 산장인데 주변 분위기가 다르다. 그 시절의 산장은 외따로 떨어져 숨어 있었는데 지금은 넓은 주차장에 차들이 가득 들어섰고 사람들로 북적거렸다. 웬걸, 계곡은 유원지로 변해 출렁다리까지 가로지르고 있었고, 내 비밀스러운 추억은 산산조각이 나버리고 말았다. 가슴이 아팠다. 갑자기 내 일기장이 길에 떨어져 이 사람 저 사람, 내가 모르는 사람들에게 읽히는 구경거리가 된 것처럼 수치심이 일어났다. <br/><br/><br/><br/>아침에 산장에서 일어나면 그 싱싱한 계곡의 물소리와 시원한 공기를 즐거워하며 돌계단을 내려와 물가에서 유영하는 송사리에게 인사를 건네고, 차가운 물을 떠서 얼굴을 씻던 나만의 장소는 32년의 세월에도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다. 하지만 대낮부터 음주를 즐기는 사람들의 좌판이 그곳까지 내려와 내 추억은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사람들을 피해 그 원망스러운 출렁다리를 통해 계곡 건너편으로 숨어 들어갔다. <br/><br/><br/><br/>그 산자락은 숲이 무성해 그 속에 천민들의 집단 거주지를 만들기 위해 많은 움막과 오두막을 설치했던 기억이 떠올랐으나 정확한 장소를 찾지는 못했다. 이뿐만 아니라 어우동과 성종의 밀회 장면을 촬영했던 바위가 어디쯤 있는지 찾아보려 했으나 여기저기 산책길을 만들어놓은 탓에 숲속을 뒤질 마음이 이미 사라져 포기하고 말았다. <br/><br/><br/><br/>‘어우동’은 1985년에 개봉했지만 사실 1982년에 처음 촬영을 했던 복잡한 사연이 있다. 첫 제작은 현진영화사에서 시작됐다. 현진영화사 김원두 사장이 영화 연출을 내게 맡겼고, 나는 오디션을 통해 신인 배우 이보희를 주연으로 발탁했다. 하지만 김 사장은 내게 자신의 부인인 배우 정희에게 주연을 맡기면 어떻겠느냐는 암시를 줬다. 내가 그걸 무시하고 이보희를 기용해 첫 촬영을 하고 왔는데 김 사장이 러쉬필름(제작진이 참고하기 위해 당일 촬영한 필름을 바로 현상한 것) 시사회에서 “이거 포기해야겠어”라고 말했고, 결국 제작이 무산됐다. <br/><br/><br/><br/>나는 화가 치밀어 장선우 등 조감독들을 데리고 여주 신륵사에 가서 며칠 동안 술을 퍼마셨다. 그러고 있는데 김 사장이 연락을 했다. 청산리 전투를 영화로 만들자며 나를 달랬다. 그래서 ‘일송정 푸른 솔을’(1983년)을 만들게 됐고, 이보희를 조연으로 썼다. 그 후 이보희를 주연으로 내세워 ‘무릎과 무릎 사이’(1984년)를 찍었고, 이 영화가 성공하자 태흥영화사 이태원 사장이 “<span class='quot0'>에로틱한 영화 한 편 더 만들자</span>”는 제안을 해왔다. 이 사장이 현진영화사에서 판권을 사와 다시 ‘어우동’을 만들게 됐고, 이보희에게 진 빚을 갚을 수 있었다. <br/><br/><br/><br/>태흥영화사는 ‘어우동’ 제작비로 약 1억8000만 원을 썼다. 1년에 100억 원대 제작비를 투입하는 영화가 여러 편 나오는 지금의 상황에 비하면 적은 돈이지만 당시에는 영화 두 편을 만들고도 남을 큰 액수였다. <br/><br/><br/><br/>의상 제작비에 가장 많은 돈이 들어갔다. 사극에는 보조 출연자가 많이 출연하는데 그들에게 입힐 의상비가 제작비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그걸 새로 만들려면 더 많은 돈을 들여야 하기 때문에 대개 이미 만들어진 옷을 입혔다. 그러다 보니 시대별로 달라지는 의상을 반영할 수 없었고, 고증을 무시한 채 조선 후기 옷으로 통일했다. ‘어우동’은 조선 초기 성종 대가 배경인 영화이기 때문에 후기 의상을 입힐 수 없었다. 내가 고심을 하자 이 사장이 “<span class='quot0'>옷을 새로 제작해 제대로 만들자</span>”고 과감한 결정을 내려줬다. 그때까지는 조선 의상은 모두 흰옷이었는데 갈잎을 물들인 옷 등 다양한 시도를 할 수 있었다. 이 영화를 통해 한국 사극 의상의 혁신을 이뤘다고 감히 자부한다. <br/><br/><br/><br/>이보희와도 신경전을 벌여야 했다. 어우동이 전라로 뒷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을 찍어야 했는데 당시에는 파격적인 노출 신이라 이보희가 망설였다. 여배우에게 민감한 장면을 강압적으로 찍을 수는 없는 일이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었다. 그때 현장을 보니 필요한 소도구가 준비가 안 돼 있었다. 그걸 트집 잡아 조감독에게 호통을 치며 “이래서 영화 찍을 수 있겠어”라고 오버해서 화를 내고는 단양 현장을 떠나 혼자 경북 풍기로 갔다.<br/><br/><br/><br/>감독 증발 사건은 태흥영화사로 보고됐고, 하루 자고 나니 사방을 수배하던 조감독이 나를 찾아왔다. 못 이기는 척 다시 현장에 가서 서먹해 하는 이보희에게 “이 장면이 꼭 필요하다”고 간곡히 말하자 비로소 이보희가 촬영에 응했다. 다행히도 완성본을 본 이보희가 만족감을 나타냈다. 지금 생각해도 참 고마운 배우다. <br/><br/><br/><br/>이런저런 추억에 젖어 촬영 현장을 둘러보다 문득 당시 겪었던 난센스 일화가 떠올라 그 장소를 찾아봤다. 촬영이 이어지던 어느 날 밤 자다가 소변을 보기 위해 일어나 산장 밖으로 나갔다. 방문을 열고 나가 난간이 있는 복도를 지나면 바로 산자락 숲이 맞닿아 있는데 그곳에 서서 숲을 향해 일을 보다가 기겁을 하고 말았다. <br/><br/><br/><br/>10여 미터 떨어진 소나무에 소복을 입은 여자가 목을 매고 축 늘어져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나는 아직 잠이 덜 깬 상태에서도 ‘내일 아침이면 경찰이 출동하고 난리가 나겠구나’라고 생각하며 우선은 조용히 밤을 지내자고 급히 방으로 돌아와 마음을 달래며 잠을 청했다. 그러나 다음 날 아침은 거짓말처럼 조용했다. 나는 의아해 어젯밤의 모습을 확인하려고 숲을 보았으나 전혀 시체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소나무만 나를 비웃듯 평온하게 서 있었다. 일단 사람들에게는 알리지 않았다. 그런데 다음 날 밤에도 똑같은 모습이 또 보였다. <br/><br/><br/><br/>나는 귀신이 내 눈에만 보인다는 생각에 더럭 겁이 났고, 자고 있던 조감독을 깨워 확인시켰다. 다행히 내 눈에만 보이는 환상은 아니었다. 조감독과 함께 시체의 정체를 확인하려고 가까이 다가간 순간 자살한 여인의 모습이 사라졌다. 나나 조감독이나 그저 빛의 환영을 본 것이었다. 산장 정원에 밤새 켜져 있는 가로등 불빛이 숲 속 나무 그림자와 교묘하게 어울려 만든 속임수에 내가 헛것을 보고 지레 겁을 먹은 것이었다. 내친김에 그 장소도 찾아봤지만 끝내 찾지 못하고, 그냥 싱거운 추억으로 넘겼다. <br/><br/><br/><br/>그날 내가 ‘어우동’을 촬영했던 그 원시적 자연 풍광이 그대로 있고, 도하산장이 외로운 모습 그대로 숨어 있었더라면 나는 펑펑 울면서 그때를 돌아봤을 거다. 하지만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고, 추억의 잔인함에 배신당한 일흔세 살 노인의 비참한 모습으로 발길을 돌려야 했다. <br/><br/><br/><br/>그런 기분으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차를 운전해 제천으로 향했다. 조금 달리니 늘어졌던 기분이 나아졌다. 다시 현실로 돌아오는 노감독을 반겨줄 새로운 젊은 친구들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제천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을 이무영·봉만대 감독, 그리고 배우 오광록을 만나려는 기대로 설레는 건강한 이장호로 바뀌고 있었다. <br/><br/><br/><br/>이장호 영화감독

언론사: 문화일보-1-70.txt

제목: <골프와 나>50代까지 300야드‘펑펑’… 몇 안되는 김응용 ‘골프 맞수’  
날짜: 20170922  
기자: 최명식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501.20170922110005001  
ID: 01100501.20170922110005001  
카테고리: 스포츠>골프  
본문: 김민태 상명진흥㈜ 회장<br/><br/><br/><br/> 김민태(70) 상명진흥㈜ 회장의 골프 구력은 반세기를 헤아린다. 김 회장은 어린 시절 야구를 했지만, 이제는 골프가 더 친숙한 운동이 됐다. <br/><br/><br/><br/>야구선수 출신의 김 회장을 지난 9일 인천 서구 베어즈베스트 청라골프장에서 만났다. <br/><br/><br/><br/>김 회장은 야구선수로 경기상고를 거쳐 성균관대로 진학했다. 대학 시절 외야수로 활약했고 졸업한 뒤 한일은행과 해병대야구팀에서 근무했다. 김 회장은 얼마 전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기록을 확인해 보니 자신의 타율이 ‘3할 7푼 2리’로 돼 있다고 말했다. 김인식 전 국가대표팀 감독과 한일은행 야구팀 동기생이었다는 김 회장은 김 전 감독과는 해병대야구팀에서도 함께 근무했다. 마침 해병대야구팀 감독이 자리를 비우면서 선임이던 김 회장이 ‘감독대행’을 맡아 실업리그 4위였던 해병대를 우승팀으로 올려놓기도 했다. <br/><br/><br/><br/>프로야구계를 주름잡았던 김인식, 이희수, 우용득 전 감독 등이 당시 팀의 주축이었다고. 이후 한일은행으로 복귀한 김 회장은 6년 선배였던 김응용 당시 감독의 추천으로 코치가 됐다. 김 회장은 코치 은퇴 후 은행원으로 근무했다. 일본 도쿄지사 직원을 뽑는 시험에 합격해 1975년부터 4년 가까이 근무했다.<br/><br/><br/><br/>김 회장이 골프를 배운 것은 1969년 대학 1학년 때다. 가족이 골프를 접했고, 특히 어머니가 야구선수인 아들에게 권했다. 당시 신당동 집 마당 한쪽에 그물망으로 친 간이 연습장이 있었다. 어머니에게 개인지도를 해주던 홍덕산(2017년 작고) 프로가 집으로 매일 찾아 왔다. 형과 함께 이때부터 어깨너머로 짬짬이 배웠다. 김 회장은 당시 스물을 갓넘긴 팔팔한 야구 선수였다. 힘이 좋아 공을 칠 때마다 그물망이 찢어지기 일쑤였다. 출중한 비거리 덕에 프로들과 자주 어울렸다. 타수는 프로들보다 처졌지만 한 살 아래인 최윤수, 문홍식 프로 등과 함께 자주 라운드했다. 김 회장의 300야드 비거리는 50대까지 이어졌다. 장타 덕에 에피소드도 많다. 골프장이라야 몇 곳 없던 시절이어서 김 회장이 골프장에 가면 으레 아마추어 골퍼들이 프로 지망생이나 프로로 착각해 곁에 있던 프로 대신 장타를 날리는 그에게 레슨을 부탁하기도 했고, 마지못해 ‘프로 행세’를 했다. 김 회장의 베스트 스코어는 30년 전의 73타. 김 회장은 이글은 많이 뽑아냈다. 하지만 50년 가까이 홀인원은 한 번도 없었다. 스스로 생각해도 이상할 정도. 김 회장은 형, 매형과 함께 야구선수 생활을 하면서도 골프장에 자주 나가곤 했다.<br/><br/><br/><br/>김 회장은 유복하게 자랐다. 부친이 군함을 만들던 코리아 타코마 조선공업㈜의 창업주였다. 부친은 김종필 전 총리의 셋째 형 김종락 전 대한야구협회회장(2013년 작고)이다. 부친이 “이젠 회사 일을 도와줘야겠다”면서 일본 지사 근무를 ‘지시’했다. 김 회장은 하는 수 없이 은행에 사표를 던졌고, 곧바로 부친 회사의 일본 지사에서 군함 건조에 필요한 플랜트 기술을 도입하는 역할을 맡았다. 선박 자재를 대부분 일본에서 수입할 때였다. 코리아 타코마는 미국과의 합작회사였고 한국 측에서 51% 지분을 갖고 있었다. 미국의 선진 기술을 전수받으며 쾌속정을 제작했다. 경남 마산에 기반을 둔 이 회사는 1990년대 초반 채산성을 맞추지 못해 한진중공업에 합병됐다. 30대 나이에 일본으로 나갔다가 40세가 넘은 1992년 국내로 돌아온 김 회장은 이후 회사를 설립해 선박회사의 구조물을 만들어 조선소에 납품했다. 외환위기로 부산에서 해오던 선박 플랜트 사업도 접었다. 이후 경남 통도사CC 등 보유하던 회원권을 매각한 이후 10년 동안 골프를 하지 않았다.<br/><br/><br/><br/>김 회장은 재기를 노렸지만, 좀체 기회가 오지 않았다. 설상가상으로 김 회장은 12년 전이던 2005년 건강검진에서 대장암이 진단돼 3기 상태에서 수술을 받았다. 수술 후 울적했고 갑갑했다. 등산을 시작했지만 걷기조차 어려웠다. 의사를 찾아갔더니 차라리 골프를 하라고 권했다. 김 회장은 10여 년 만에 골프채를 다시 잡았다. 암 수술 후 골프를 다시 할 수 있다는 건 기적이었다. 하지만 기력이 많이 떨어진 탓인지 비거리는 확 줄었다. 김 회장은 “<span class='quot0'>그 뒤 매년 10야드씩 줄어든 것 같다</span>”며 “<span class='quot0'>요즘엔 200야드를 넘는 데 만족하고 있다</span>”고 말했다. 김 회장은 또 야구 꿈나무의 산실 리틀야구연맹에 심판으로 봉사하고 싶다고 제안했다. 매일 야구 경기가 열렸기에 다시 야구판으로 돌아온 게 좋았다.<br/><br/><br/><br/>건강을 회복한 김 회장은 사업을 재개했고, 얼마 후 경기 의정부역사 개발에 참여했다. 당시 신세계그룹 고위간부가 일본지사 시절부터 친분이 있던 인연으로 토목공사를 맡을 수 있었다. 삼성 출신이던 이 임원은 도쿄지사 근무 시절 서울 비서실로부터 이병철 회장의 골프채를 사 달라는 부탁을 들을 때마다 김 회장에게 추천을 의뢰했다. 시타를 맡긴 다음 “사도 괜찮다”는 김 회장의 말이 나오면, 그 임원이 곧바로 골프채를 사 서울 비서실로 전달했다.<br/><br/><br/><br/>김 회장은 2009년부터 건축물 관리 회사 용역업체인 상명진흥㈜을 운영하고 있고, 지인과 함께 약품 유통사업도 병행하고 있다. <br/><br/><br/><br/>김 회장은 “<span class='quot0'>지금은 덤으로 ‘제2의 인생’을 사는 기분</span>”이라고 밝혔다. 김 회장은 얼마 전부터 경기 용인의 선봉대 군 골프장에서 김응용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장과 가끔 만나고 있다. 김 회장은 또래의 야구인 중에서 김 협회장과 자웅을 겨루는 몇 안 되는 실력파. 카트가 없는 이곳을 걸으며 7∼8월 불볕더위에도 둘만의 라운드를 즐겨왔다. 김 회장은 “<span class='quot0'>이젠 잘 치고, 멀리 보내는 걸 뽐내기보다 행복하고 편안하게 운동을 즐기고 있다</span>”면서 “<span class='quot0'>하지만 친구들과의 라운드를 앞두곤 꼭 연습장에서 칼을 갈고 나간다</span>”고 말했다. <br/><br/><br/><br/> 글·사진 = 최명식 기자 mschoi

언론사: 문화일보-1-71.txt

제목: 울산대병원 파업 장기화…수술 취소 등 환자 불편 가중  
날짜: 20170920  
기자: 곽시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501.20170920170005001  
ID: 01100501.20170920170005001  
카테고리: 사회>노동\_복지  
본문: 울산대병원 노조의 파업이 일주일째 계속되면서 환자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br/><br/><br/><br/>20일 울산대병원 노사에 따르면 노조는 올해 임금과 단체협약 교섭에서 절충점을 찾지 못하자 지난 14일부터 파업을 시작했다. 1300여 명의 노조원 가운데 수술실과 응급실 등에서 일하는 필수 유지인력을 제외한 상당수 노조원이 파업에 참여하고 있다.<br/><br/><br/><br/>파업 1주일째를 맞은 병원은 전체 984개 병상 가운데 절반도 안 되는 약 400개 병상만 운영 중이다. 파업이 더 길어지면 운영 병상 수가 계속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br/><br/><br/><br/>암을 비롯한 중증환자의 수술도 취소되거나 연기돼 하루 평균 75건에 이르던 수술이 20~25건으로 줄었다. 외래환자도 하루 3000명에서 2000여 명으로 크게 줄었다. 환자들을 돌볼 간호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신규환자들은 아예 진료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br/><br/><br/><br/>이에 따른 불만의 목소리도 높다. 노조의 파업으로 수술이 연기된 환자의 가족은 “울산에서 암 수술이 가능한 곳이 울산대병원이 유일해 수술 날짜만 기다려왔는데, 환자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태도에 화가 난다”며 “입장을 바꿔 본인들이 수술이 급한 환자나 환자 가족이라면 이 파업을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br/><br/><br/><br/>노조는 기본급 11%(25만6751원) 인상과 사학연금 전환에 따른 보조금 지급, 간호사 충원과 업무 개선, 근무시간 외 환자정보 접근 금지, 생명안전업무직 전원 정규직화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병원 측은 기본급 5만4850원, 통상수당 1만 원 등을 제시했으나, 노조 측이 수용을 거부하고 있다. 노사는 파업 중에도 매일 교섭을 갖기로 하는 등 대화를 지속하기로 했다. <br/><br/><br/><br/>울산=곽시열 기자 sykwak@

언론사: 문화일보-1-72.txt

제목: ‘욕망’에 스러지는 마을… ‘사슴섬’이 아프다  
날짜: 20170920  
기자: 박경일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501.20170920115006005  
ID: 01100501.20170920115006005  
카테고리: 문화>요리\_여행  
본문: 한센인 가옥 무너져 가는 ‘소록도’<br/><br/><br/><br/> 전남 고흥의 소록도. 소록도에 가면 늘 부끄럽습니다. 한센병 환자를 격리했던 이 섬은 한때 최소한의 인권도 지켜지지 않았던 곳입니다. 소록도의 한센병 박물관 전시실 한쪽에 이런 문장이 쓰여 있더군요. “<span class='quot0'>모두 다 모두가 다 이름 있는 모든 것들이다.</span>” 그렇습니다. 이 섬에는 ‘모두 다 이름이 없었던’ 길고 긴 시간이 있었습니다. <br/><br/><br/><br/>소록도에 한센병 환자 격리가 시작된 지 101년. 섬에서는 그 시간의 기억이 빠르게 지워져 가고 있습니다. 소록도의 한센병 환자들이 노환으로 세상을 뜨면서 집이 비워지고 마을이 빠르게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마을이 비워지자마자 나무뿌리는 집을 감아 지붕을 허물어버리고 벽체를 쓰러뜨렸으며, 금세 자란 풀들은 아예 길을 지워버렸습니다. 그렇게 폐허가 된 자리를 불량스럽게 기웃거리고 있는 건 개발에 대한 욕망입니다. 환자들이 떠나고 난 뒤에 기억을 싹 쓸어내 버리고, 근사한 리조트나 해양 케이블카 따위를 놓아서 관광객들을 불러들이겠다는 속셈이겠지요.<br/><br/><br/><br/>그렇다면 혹시 ‘미필적 고의’는 아닐는지요. 소록도에서 기억의 소멸은 ‘그냥 놓아두어서’ 그런 것이지만, 우리는 소록도의 부끄러웠던 기억을 그렇게 지워버리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공범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한센병 환자들을 격리해 섬으로 몰아넣고는 단종수술을 하고, 독방에 가두고, 제 자식마저 마음대로 만날 수 없도록 했던 시절을 만들었던 공범이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게 섬의 마을과 집들이 다 사라지고, 기억마저 모두 휘발되고 나면 우리는 과연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요. 소록도의 기억을 지키고자 온몸으로 힘겹게 버티고 있는 노 건축가는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단언했습니다. 공공건축의 대가로 꼽히는 건축가 조성룡. 재활용 생태공원 선유도 공원과 어린이 대공원 꿈 마루도, 광주의 의재미술관과 홍성의 이응노 기념관도 그의 건축입니다. 칠순을 넘긴 그는 필생의 마지막 작업을 ‘소록도의 마을과 집을 지켜내는 일’로 삼았습니다. 뜻밖에도 ‘짓는 일’이 아니라 ‘지키는’ 것으로 건축가의 마지막 소임을 다하겠다는 얘기입니다. <br/><br/><br/><br/>그는 지금 조급합니다. 빈 마을에서는 지금도 하루하루 거대한 나무뿌리가 집을 먹어치워 버리고 있고, 포클레인의 삽날에 일제강점기부터 있었다던 간장 공장이 허물어지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수시로 소록도를 오가며 사라진 마을의 무너져가는 담벼락이 더는 허물어지지 않도록 강관 비계를 대고, 건물 기둥을 감은 나무뿌리를 쳐냈으며 풀숲에 묻힌 길을 다듬었습니다. 무너지지 않게 지지대를 세운 채 ‘놓아두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곳은 누구도 섣불리 손을 댈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금방 수긍이 됐던 건 폐허가 된 마을에 섰을 때 느껴졌던, 그곳을 지나간 삶에서 전해지는 묵직한 존재감 때문이었습니다. <br/><br/><br/><br/>소록도에는 육지와 격리된 마을이 있고, 집이 있고, 모질었던 세월을 살아낸 사람들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을 지키자는 게 어찌 의미 있는 건축물 몇 개를 남기자는 것뿐이겠습니까. 소록도 안에 어떤 마을이 있었고, 어떤 집이 있었으며 그곳에서 그들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남긴다는 것은 ‘모든 것’에 ‘이름’을 부여해서 모든 것들이 ‘이름 있는 모든 것’이라는 걸 증명하는 일과 다름없습니다. 밥도 떠먹기 힘들 정도로 오그라든 손으로 한 장 한 장 만든 벽돌로 지은 집들을 지킨다는 건 소록도의 역사를 지키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소록도의 마을을 지킬 수만 있다면 소록도는 ‘야만의 시간’이 가져온 절망과 고통을 들여다볼 수 있는 곳이 되고, 공범이었던 우리들의 사죄를 담는 공간이 될 겁니다. 진정한 용서란 이렇게 구하는 것이지요. 공감하고, 또 감동하면서 말입니다. # 사라지게 놔둬서는 안 되는 것들 <br/><br/><br/><br/>우선 소록도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부터. 한센병 환자들이 모여 사는 소록도는 서울 여의도 크기의 1.3배 남짓한 작은 섬이다. 섬 한가운데 잘록한 목에 들어선 국립소록도병원을 중심으로 섬 왼쪽은 병사(病舍)구역, 그러니까 한센병 환자들이 모여 사는 지역이고, 오른쪽은 병원 직원들이 거주하는 관사구역이다. 소록도에 거주하는 한센병 환자는 500명 남짓. 병원 직원과 직원 가족 200여 명을 합하면 700명 정도가 소록도에 산다. <br/><br/><br/><br/>고흥 녹동에서 소록도까지 연륙교가 놓이고, 소록도가 관광객들에게 개방됐다지만, 사실 공개된 구간은 병원 인근에 있는 중앙공원과 주변의 건물 몇 동, 그리고 한센병 박물관까지가 고작이다. 섬의 다른 지역은 외부인들의 출입이 엄격하게 통제된다. 우리가 소록도의 진짜 모습을 잘 모르는 것도, 섬 안에서 마을과 집들이 빠르게 사라져 가고 있음을 눈치채지 못한 것도 이 때문이다.<br/><br/><br/><br/>소록도에 격리된 한센병 환자들은 병원의 병실에 수용된 것이 아니라, 주로 공동 주택에서 살았다. 과거 한센병을 두고 ‘천형’이라고 불렀지만, 사실 이 병은 피부병의 일종일 뿐, 병 자체가 생명을 위협하지는 않는다. 증세가 극히 심한 환자가 아니라면 대부분 공동 주택에 살면서 마을 단위로 생활했다. 환자들에게 섬은 ‘거대한 병실’이 아니라, 소외된 가장 낮은 이들이 모여서 살았던,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살고 있는 생활 공간이라는 얘기다.<br/><br/><br/><br/>소록도는 본래 섬에 살던 주민들을 다 몰아낸 뒤에 한센병 환자 격리시설로 조성한 섬이라서 그런지 마을 이름부터가 대충 대충이다. 동쪽에 있다고 동생리, 서쪽에 있으니 서생리, 남쪽은 남생리…. 뭐 이런 식이다. 19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소록도에는 9개 마을이 있었다. 한때 섬에 사는 주민들만 6000명을 헤아리던 때도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환자가 크게 줄면서 마을 두 곳이 사라지고 7개 마을만 남았다. 남은 마을도 폐가와 공가가 늘고 있다. 이런 속도라면 다른 마을도 하나둘 사라지고 말게 되리라. 이렇게 집이 한 채 한 채 사라지면…, 기억도 곧 지워진다. # 시간의 버팀목을 든든하게 세우다<br/><br/><br/><br/>소록도에서 가장 먼저 사라진 마을이 서생리다. 일제강점기 때 소록도를 한센병 환자 수용시설로 쓰기로 한 뒤 자혜의원을 세우면서 마을이 만들어졌다. 이후 3번에 걸친 소록도 확장공사 과정에서 병원과 함께 섬의 중심이 옮아갔고, 결국 1980년대 중반 주민들이 떠나면서 마을은 비워졌다. 비워진 마을을 금세 나무와 풀이 뒤덮었다. 지붕은 무너졌고 벽은 쓰러졌다. 소록도 역사가 시작된 공간이 속절없이 한순간에 사라지게 된 것이다. <br/><br/><br/><br/>노 건축가인 조성룡 성균건축도시설계원 교수는 연구원과 함께 무너지려는 서생리의 집과 마을을 안간힘을 써서 붙들고 있다. 폐허처럼 남아 있는 독특한 건축양식의 건물 외벽에다 쇠파이프로 비계를 지어 받쳤으며 나무뿌리가 헤집어 넘어지기 직전이었던 축사의 블록 담벼락을 쇠파이프로 지탱했다. 우드칩을 깔아 동선을 만들고 안내판을 세운 것 말고 새로 짓거나 들여놓은 건 하나도 없었다. 더 무너지지 않게 하는 것. 오로지 그것만이 건축가의 목표였다. 무너진 벽의 벽돌 한 장도 환자들이 오그라든 손으로 굽고, 쌓았을 것을 생각하면 버릴 수 없었다. <br/><br/><br/><br/>더 무너지지 않게 받쳐두기만 했으되 공간은 매력적이었다. 허물어진 건물의 사라진 벽을 시간과 역사가 충분히 대체했다. 형체를 잃어가는 것들이 오히려 보이는 것 너머를 보게 했다. 누가 이 벽돌을 찍어냈을까, 여기는 어떤 공간이었을까, 여기서는 누가 살았을까…. 마을 바로 앞 넘실거리는 파도 소리를 들으면서 그들은 과연 어떤 생각을 했을까. <br/><br/><br/><br/>이 공간은 어떻게 지켜져야 할까. 소록도를 다녀온 뒤에 만난 조 교수는 “<span class='quot1'>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나도 잘 모르겠다</span>”고 고개를 저었다. 건축으로 일가를 이룬 노 건축가는 연신 ‘모른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그리고 그는 ‘의견을 모아야 한다’고 했다. 더 무너지고 사라져서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 되기 전에 말이다. 하지만 무너지고 사라지는 걸 지켜내는 일에 세상은 관심이 없다. 관심이 없으니 돈을 대는 이들도 없다. 그나마 국립소록도병원이 병원 유지관리비를 지원하며 애를 쓰고 있지만 그걸로는 역부족이다. <br/><br/><br/><br/>더 큰 문제는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재 보수랍시고 마구잡이로 공사를 벌이는 일이다. 지방문화재로 지정된 자혜의원은 복원을 한다며 반들반들한 시골 역 대합실처럼 바꿔놓았고 소록도의 신사 건물도 국적불명의 건축물로 만들고 말았다. 기가 막히다 못해 분노까지 치밀 일이다. # 출입 통제지역 곳곳에서 만난 풍경 <br/><br/><br/><br/>서생리 마을은 병사구역에 있어서 일반인들이 들어가 볼 수 없다. 종교단체나 봉사활동단체는 절차를 거쳐 출입이 허용되긴 하지만 관광객들에게는 굳게 문을 닫아 걸었다. 박형철 국립소록도병원장은 “<span class='quot2'>앞으로 제한된 소수의 인원만 예약을 받아 서생리와 사라진 일부 마을을 공개하는 방안을 강구 중</span>”이라고 했다.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러자면 우선 병사구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이해가 필수적이다. 소록도 주민들은 하나같이 고개를 저었다. 관광객들이 마을까지 들어와 자신의 거처를 기웃거리는 게 마뜩잖은 눈치였다. 박 원장은 개방 시기에 대해서 ‘천천히 시간을 두고서…’를 강조했다. <br/><br/><br/><br/>발을 들일 수 없는 통제구역임에도 소록도의 병사구역 얘기를 하는 건 섬 안에 무엇이 있는 줄 알아야 그걸 왜 지켜야 하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소록도 병사구역에서 인상적이었던 것 중 하나가 마을과 마을을 잇는 신작로에 세워진 ‘순바구길’ 비석이었다. 해방 후 소록도에는 주민들이 스스로 조직한 ‘건설대’라는 조직이 있었다. 비교적 건강한 환자들로 구성된 건설대는 섬 안에 길을 놓거나 공원을 만드는 등 거친 일을 했다. 비석은 50년 동안 건설대로 일했던 ‘박순암’을 기리기 위해 세운 것이다. 이름의 바위 암(岩)자를 ‘바구(바위)’로 풀어 ‘순바구’란 아명으로 신작로의 길 이름을 삼고서 비석을 세웠다. 소록도 안에 환자들의 피와 땀, 살과 뼈를 깎아 만들지 않은 게 어디 있을까. 소록도에 살면서 누구보다 더 열심히 일했던 박순암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길 이름이 된 그의 이름과 마주치는 순간 ‘한센병 환자’라는 익명으로 뭉뚱그려진 섬 주민들이 모두 하나의 개인으로 호명되는 느낌이었다.<br/><br/><br/><br/>관사구역에는 한국으로 건너와 소록도에서 한센병 환자를 돌보며 40년 넘게 생활하다가 지난 2005년 자신의 병이 깊어지자 편지 한 장 남기고 조용히 고향으로 돌아간 오스트리아 출신의 간호사 마리안느 스퇴거(83)와 마가렛 피사렉(82)의 사택도 있다. 두 간호사가 소록도에서 얼마나 소박한 생활을 했는지는 앉은뱅이 책상 하나 덜렁 놓여 있는 방을 보면 짐작이 가고도 남는다. 따스한 가을 오후의 햇살이 드는 피사렉 수녀 방의 창호 문에는 뜻밖에도 붓글씨로 ‘하심(下心)’이란 글귀가 붙어 있었다. 하심이란 ‘자기 자신을 낮추고 남을 높이는 마음’을 이르는 불가의 용어. 그 글귀에서 종교를 넘어선 숭고한 마음을 읽는다. <br/><br/><br/><br/>소록도에서는 남생리 뒤쪽의 언덕 위에 벽돌로 지어 올린 등대도, 영화세트장에서 가져다 놓은 것 같은 남생리 사무소도, 바다에 한쪽 다리를 담그고 있는 동생리의 이국적인 식량창고도, 구북리에서 마주친 쓰러진 팽나무 거목의 고래 뼈 같은 잔해도, 바다를 정원 삼은 순백의 성당도 모두 마음을 움직이는 풍경이다. <br/><br/><br/><br/>그리고 하나 더. 소록도에는 사슴이 많다. 작은 사슴을 뜻하는 ‘소록’이라는 섬 이름에 걸맞다며 경기 이천의 한 농장에서 병원에 사슴을 기증한 것이 시작이었다. 별 생각없이 섬에 방목한 사슴이 마구 불어나서 지금 200여 마리에 이른다. 사슴은 지금 소록도의 생태를 해치는 최고의 골칫거리가 돼버렸다. <br/><br/><br/><br/>소록도에 머무는 한나절 동안 섬의 은밀한 숲 속에서 수시로 사슴과 마주쳤다. 숨소리를 죽이며 숲길을 가다 펄펄 뛰는 야생의 사슴과 눈이 딱 마주칠 때마다 가슴이 떨렸다. 섬의 골칫거리라고는 했지만, 이렇게 된 게 어디 사슴 잘못일까. 섬 안의 깊은 숲에서 마주친 암사슴의 맑은 눈망울과 수사슴의 겨누는 당당한 뿔은 충분히 감동적이었다.<br/><br/># 소록도 지금 가도 볼 수 있는 것들 <br/><br/><br/><br/>지금까지 이야기가 통제되고 닫힌 곳에 대한 것이었다면 덧붙이는 건 소록도에 가면 언제든 볼 수 있는 것들이다. 소록대교를 건너 섬으로 건너가면 가장 먼저 닿는 곳이 주차장이다. 주차장 한복판에 뜬금없이 붉은 벽돌로 지은 병사건물 한 동이 서 있다. 소록대교 개통으로 방문객주차장을 만들면서 통째로 사라진 마을에서 딱 하나 남은 건물이다. 건물은 쓰레기더미처럼 폐허로 남아 있다가 지난해 국립소록도병원 100주년 기념시설물이 됐다. <br/><br/><br/><br/>본래 소록도병원은 100주년 기념비를 세울 요량이었다. 그러나 제안을 받아든 조 교수는 ‘돌덩이 기념비 대신 폐허가 된 병사를 간수해 기념물로 삼자’고 제안해 만들어진 게 이 기념시설물이었다. 1970년대까지 병사로 사용하던 공간은 뼈대를 건드리지 않은 채 다듬어져 이렇게 기억과 감성의 공간으로 재탄생한 것이다. <br/><br/><br/><br/>주차장에서 병사구역으로 들어서면 가장 먼저 마주치는 것이 바다와 나란한 소나무길이다. 빼어난 경관에 어울리지 않게 이 곳은 수심과 탄식이 깃든 곳이라는 뜻의 ‘수탄장(愁嘆場)’이라 불린다. 소록도의 한센인들은 가족과 자식을 이곳에서 만났다. 감염의 우려 때문에 가족과 함께 살 수 없었던 이들은 한 달에 딱 한 번, 길 이쪽에 늘어서서 길 저쪽의 가족을 바라보았다. 자식의 손을 잡을 수도, 머리를 쓰다듬을 수도 없었다. 철조망이 있었다고 했지만, 그게 없어도 어떤 병든 부모가 자기 자식을 만질 수 있었을 것인가. 한센인 부모는 바람을 안고서야 아이들과 마주했다. 행여나 바람에 병균이 자식 쪽으로 날아갈까 싶어서였다. <br/><br/><br/><br/>한센병박물관 한쪽의 전시실에 소록도에 거주하고 있는 환자가 기증한 명주 저고리와 바지가 걸려 있다. 환자의 어머니가 아들 결혼을 위해 정성껏 누에를 치고 바느질해 지은 결혼예복이었다. 그러나 결혼 1년 만에 아들은 병에 걸렸다. 아내는 떠났고 아들은 가족을 위해 고향을 떠나 소록도로 혼자 들어왔다. 홀로 남은 어머니는 얼마나 아들이 그리웠을까. 어머니는 명주 누비 바지저고리를 가지고 소록도로 와서 아들에게 전해주었다. 그게 아들이 본 어머니의 마지막이었다. 섬을 나갈 수 없었던 아들은 어머니 임종도 지키지 못했다. 박물관에 걸린 저고리와 바지는 그날 어머니가 전해준 것이었다. <br/><br/><br/><br/>소록도 안에 이런 이야기들이 어디 하나둘일까. 우리가 기억해야 할 수많은 이야기들이 그 섬에 있다. 소록도를 지금의 모습으로 지켜내야 하는 이유다. 다시 말하지만 ‘집이 사라지면 기억도 사라진다’.그리고 진정한 화해란 과거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br/><br/><br/><br/>소록도(고흥)=글·사진 박경일 기자 parking

언론사: 문화일보-1-73.txt

제목: 유격대 한진홍 일병, 66년만에 만년필·안경으로 돌아오다  
날짜: 20170919  
기자: 정충신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501.20170919143005001  
ID: 01100501.20170919143005001  
카테고리: 미분류  
본문: 유해발굴감식단, 합천서 68세 아들 윤식 씨에 전달<br/><br/><br/><br/> 6·25전쟁 당시 특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결성된 결사유격대 소속 전사자 유해가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국유단)이 첫 삽을 뜬 뒤 17년 만에 처음으로 확인됐다. <br/><br/><br/><br/>국유단은 19일 육군 직할 결사유격대 13연대 소속으로 6·25전쟁에 참전했다가 1951년 2월 전사한 고 한진홍 일병의 발굴 유품과 신원확인 통지서, 국방부장관 위로패, 유해 수습 시 관을 덮을 태극기 등을 아들 한윤식(68) 씨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한 씨는 이날 경남 합천군 자택 인근 마을회관에서 열린 전달식에서 “<span class='quot0'>할아버지가 생전에 아버지 유해를 찾기 위해 육군본부 등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셨고, 홀어머니는 저를 어렵게 키우시다가 1973년 암으로 돌아가셨다</span>”며 “<span class='quot0'>이제라도 아버님의 유해를 찾아서 만나 뵐 수 있어 너무나 감격스럽고, 국방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span>”고 말했다. 결사유격대는 1·4후퇴 후 후방지역 게릴라 토벌작전을 위해 11∼16연대 및 특별대로 창설됐으며 기밀문서 노획과 빨치산 지대장 생포, 정치군관 요원 생포 작전 등 주요작전을 담당했다.<br/><br/><br/><br/>2남 4녀 중 장남인 한 일병은 1950년 3월 결혼 후 아들을 낳아 살던 중, 1951년 1월 21세의 젊은 나이에 7명의 친구들과 함께 육군 직할부대 결사유격대에 입대했다. 육군 정보학교 입소 후 13연대에 배치된 한 일병은 1951년 2월 초 북한군 후방지역 침투를 위해 상륙작전용 함정을 이용해 강원 삼척 묵호항에 도착했다. 한 일병은 동료들과 함께 최종 목표인 강원도 어은산을 향해 가던 중 북한군이 배치된 것으로 추정된 정선·양양군을 피해 인제군 쪽으로 침투했다. 한 일병은 1951년 2월 15일 강원도 인제군 북면 용대리 설악산 저항령 일대에서 빨치산을 공격하던 중 적 총탄에 전사한 것으로 추정된다. <br/><br/><br/><br/>한 일병의 유해는 2016년 11월 8일 저항령에서 만년필, 안경, 구두 주걱이 달린 열쇠고리, 단추, 탄피 등 유품과 함께 발굴됐다. 한 일병의 유해 발굴은 사소한 단서도 놓치지 않은 국유단의 노력 덕분이었다. 발굴 한 달 전 국유단 조사과 소속 서일권(38) 탐사관은 탐사 예정지인 저항령 날씨와 지형을 미리 검색하던 중 한 등산객이 백두대간 종주 중 저항령 정상부 너덜지대에서 용변을 보다 지표에 노출된 유해를 목격했다는 글을 개인 블로그에 올린 것을 보고, 목격자 연락처를 확보해 암석 위에 노출된 머리뼈 등 한 일병의 유해를 확인했다. 또 아들이 2014년 합천군 보건소에 유전자 시료를 채취해 둔 덕분에 유해는 가족 곁에 돌아올 수 있었다. <br/><br/><br/><br/>정충신 기자 csjung

언론사: 문화일보-1-74.txt

제목: 부산에 국내 첫 ‘시네마 로보틱스’ 구축  
날짜: 20170918  
기자: 김기현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501.20170918143005008  
ID: 01100501.20170918143005008  
카테고리: 경제>서비스\_쇼핑  
본문: ICT·제어기술 영화촬영활용 <br/><br/>60억 투입… 2020년에 완성<br/><br/><br/><br/>부산에 인공지능(AI)을 이용해 첨단 영화제작을 하는 로봇 촬영기사가 등장한다. 부산시는 내년부터 2020년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국비 등 60억 원을 들여 해운대구의 ‘부산 영화촬영스튜디오’에 국내 처음으로 ‘시네마 로보틱스’(Cinema Robotics)를 구축한다고 18일 밝혔다. 시네마 로보틱스는 자동차 제작 등에 이용하는 로봇 암(Robot Arm) 제어 기술과 인공지능 등 정보통신기술(ICT)을 융합해 만든 무인 영상제어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을 활용할 경우 CG합성의 오차를 최소화하고, 제작 기간을 줄일 수 있어 기존 작업에 비해 제작비를 30% 이상 아낄 수 있고, CG작업의 고도화를 이룰 수 있다. <br/><br/><br/><br/>부산 = 김기현 기자 ant735

언론사: 문화일보-1-75.txt

제목: 부산 다중이용시설 6곳 중 1곳에서 ‘레지오넬라균’ 검출…시민 건강 위협  
날짜: 20170913  
기자: 김기현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501.20170913161005001  
ID: 01100501.20170913161005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대형건물, 목욕탕, 찜질방, 종합병원 등 부산지역 다중이용시설 6곳 중 1곳에서 냉방병(레지오넬라증) 원인균이자 폐렴을 일으킬 수 있는 레지오넬라균이 검출됐다. 이들 건물은 정기적인 청소 및 소독 불량으로 시민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br/><br/><br/><br/>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6∼8월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1201건의 레지오넬라균 검사를 한 결과 17.2%인 206건에서 균이 검출됐다고 13일 밝혔다. 시설별로는 대형건물 냉각탑수 83건 가운데 18건(21.7%), 병원시설의 냉각탑수와 온·냉수 910건 가운데 145건(15.9%), 목욕탕 사용수 208건 가운데 43건(20.7%)에서 각각 레지오넬라균이 나왔다. <br/><br/><br/><br/>박테리아의 일종인 레지오넬라균은 냉각탑수 등 인공으로 만들어진 물에서 증식해 공기 방울과 함께 호흡기로 흡입돼 폐렴 등을 일으킨다. 이 균은 25∼45도에서 번식하고 37∼42도에서 급증하기 때문에 냉각수와 온수 등의 정기적인 청소와 소독이 중요하다고 연구원 측은 밝혔다. 레지오넬라 폐렴은 50세 이상 만성폐질환자, 면역 저하자, 당뇨, 암 환자 등에서 주로 발생하기 때문에 병원, 요양시설, 목욕탕 등에선 더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연구원 측은 “<span class='quot0'>해당 보건소에 결과를 통보해 청소·소독 등의 조치 이후 재검사를 하고 있다</span>”며 “<span class='quot0'>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span>”고 밝혔다.<br/><br/><br/><br/>부산=김기현 기자 ant735

언론사: 문화일보-1-76.txt

제목: 모스크바에 한국형 병원 추진  
날짜: 2017091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501.20170912113505004  
ID: 01100501.20170912113505004  
카테고리: 국제>러시아  
본문: ○…분당서울대병원이 6∼7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개최된 동방경제포럼(Eastern Economic Forum)에서 모스크바시 국제의료클러스터재단과 양해각서를 체결(사진)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체결식에는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추진위원회 송영길 위원장과 러시아 경제개발부 올레그 포미체프 차관 등 양국 정부의 주요 관계자들이 배석했다. <br/><br/><br/><br/>분당서울대병원은 협약 체결을 통해 모스크바시 스콜코보 특구 내에 한국형 첨단병원 설립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30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으로, 러시아 현지에서 선진 의료 수요가 가장 높은 분야로 꼽히는 암·심장·관절질환 및 재활치료 분야를 중심으로 설립이 추진되며 이후 교육, 연구 등의 단지가 단계적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br/><br/><br/><br/>모스크바 스콜코보 특구는 대규모 과학기술혁신단지로 ‘러시아의 실리콘밸리’라고 불린다. IBM·마이크로소프트·보잉 등이 입주해 있다.

언론사: 문화일보-1-77.txt

제목: 학교밖 청소년 66.4% “극단선택 생각 해봤다”  
날짜: 20170908  
기자: 이해완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501.20170908120005005  
ID: 01100501.20170908120005005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 10일 ‘자살예방의 날’<br/><br/><br/><br/>26.8% “실제 시도한적 있다”<br/><br/>청소년 사망원인 9년째 1위<br/><br/><br/><br/>부산·강릉의 청소년 집단 폭행 사건 등 청소년 문제가 잇따르는 상황에서 학업을 포기한 ‘학교 밖 청소년’의 67% 가량이 극단적 선택을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우리나라 청소년 사망 원인으로 ‘자살’이 9년째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과 깊은 연관이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이 ‘고령 사회’에 접어든 이후 노인 자살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br/><br/><br/><br/>8일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발간하는 위클리 이슈에 게재된 ‘청소년 자살예방 사업의 추진실적과 향후 과제(오아름 선임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학업을 포기한 ‘학교 밖 청소년’ 수는 약 36만 명으로 추산되며 이들 중 66.4%가 자살을 생각하고 있고, 26.8%는 자살을 시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9∼24세 청소년 인구 10만 명당 사망원인(2015년 기준)은 자살이 7.2명으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운수사고(4.0명), 암(2.9명) 등의 순이었다. 2007년 이후 청소년 사망 원인으로 자살이 줄곧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감소하던 청소년 자살률도 다시 증가하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초·중·고생은 108명에 달했다. 2013년 123명에서 2015년 93명으로 감소했다가 다시 세 자릿수대로 진입했다. 오 선임연구원은 “<span class='quot0'>청소년은 감정조절·문제해결 능력이 미숙해 사전 예방이 매우 중요하다</span>”고 말했다.<br/><br/><br/><br/>노인 자살률 역시 증가세다. 인구 10만 명당 노인 자살률은 2014년 55.5명에서 2015년 58.6명으로 늘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span class='quot1'>내년 자살예방 전담부서를 신설하는 등 적극적으로 자살예방에 앞장서겠다</span>”고 말했지만 관련 예산과 대책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br/><br/><br/><br/>이해완 기자 parasa

언론사: 문화일보-1-78.txt

제목: 하루 36명 자살, 예방 예산 99억… 日의 1.3% 불과  
날짜: 20170908  
기자: 이용권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501.20170908113005003  
ID: 01100501.20170908113005003  
카테고리: 사회>사회일반  
본문: 하루 36명… OECD 평균 2배<br/><br/>年 사회경제적 손실 6조 넘어<br/><br/>정신건강증진센터 역할 미흡<br/><br/>주변의 적극적 치료 권유 필요<br/><br/><br/><br/>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이 하루 평균 36명에 달하는 등 대한민국은 수년째 ‘자살공화국’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2013년 ‘자살예방의 날(9월 10일)’ 지정 이후에도 현실이나 정책이나 달라진 건 없다는 평가다. 관련 통계마다 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몇 배’라는 수식어가 붙는다. 특히 나라의 미래를 책임져야 할 청소년은 물론, 안정적 노후를 즐겨야 하는 노인들의 극단적 선택이 심각한 상황이다. 정책적·사회적인 무관심이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나타나는 극단적 선택을 방조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br/><br/><br/><br/>◇OECD 1위 자살률, 경제 손실도 심각=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5년 기준 1만3153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OECD 기준인 10만 명당 자살률로 보면 우리나라는 25.8명으로, OECD 가입국 평균(12명)보다 2배 이상으로 많다. OECD 2위인 일본(18.7명)보다 7명 이상 많은 압도적 1위다. 건강보험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자살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은 연간 6조4769억 원으로, 암 사망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연간 14조 원)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br/><br/><br/><br/>◇관련 예산, 日의 1.3% 수준=정부가 2011년 자살예방법을 제정하고 5년 단위로 자살예방 기본 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지만, 관련 예산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올해 자살예방사업 예산은 99억3100만 원으로, 일본의 관련 예산 7508억 원의 1.3% 수준이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내년도 예산도 105억5200만 원이다. 지방정부 예산을 모두 합쳐도 200억여 원에 불과하다. 이런 예산으로는 선진국과 같은 수준의 자살 예방 상담 및 지원 인프라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br/><br/><br/><br/>◇겉도는 정책=한국지방정부학회의 ‘지방정부의 자살예방정책이 자살률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기초자치단체의 자살예방 조례 제정과 정신건강증진센터의 설치 운영이 연결되지 않으면서 지역 자살률을 낮추는 데 별 효과를 내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 도시 중심으로 정신건강증진센터가 설치되면서 노인 등 자살 고위험군이 많은 농어촌 지역은 손길이 닿지 않고 있다. 이는 자살률 지역별 편차(10만 명당 서울 19.9명, 강원도 28.7명)를 키우는 원인이 되고 있다.<br/><br/><br/><br/>◇사회적 관심이 해법=20대는 극단적 선택 전 학교·직장 관계를 정리하며 SNS 사진이나 문구에서 이를 암시하는 특징이 있다. 50~60대는 평소와 다르게 호의를 베푸는 등 특이한 행동을 보인다. 중앙자살예방센터 관계자는 “<span class='quot0'>자살 징후가 보일 때 따뜻한 말로 치료를 권유하고, 주변 사람과 함께 대처해야 한다</span>”고 조언했다. <br/><br/><br/><br/>이용권 기자 freeuse

언론사: 문화일보-1-79.txt

제목: 癌환자 9명중 1명·年 2만건 수술… ‘삶의 질’까지 체계적 관리  
날짜: 20170905  
기자: 이용권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501.20170905142005020  
ID: 01100501.20170905142005020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 국내 癌 수술 최다 ‘서울아산병원’<br/><br/><br/><br/>4개 병동·712병상 癌병원<br/><br/>진료전담교수 24시간 상주<br/><br/>복강경 간암 수술 국내최다<br/><br/>췌담도암 300건 이상 시행<br/><br/>위암 수술은 세계최다 기록<br/><br/><br/><br/>‘삶의 질 향상 클리닉’ 인기<br/><br/>환자 수 7년새 7배로 늘어<br/><br/>여러 종양전문科 협력 체계<br/><br/>다양한 증상·질환 통합진료<br/><br/><br/><br/>우리나라에서 암 수술을 가장 많이 하는 병원은 ‘서울아산병원’이다. 지난해 한 해에만 약 2만 건의 암 수술을 시행했다. 매년 새롭게 발생하는 암 환자가 21만여 명이다. 이 중 4만여 명은 수술할 수 없는 전이암 환자인 것을 고려하면, 암 환자 9명 중 1명은 서울아산병원에서 수술받는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독보적인 실적이다. 암 분야 세계 최고로 평가받는 미국의 엠디앤더슨 암센터와 메모리얼슬로언케터링 암센터는 지난해 각각 8407건, 9191건의 수술실적을 기록했다. 암 수술 실적이 많다는 것은 곧 선진적인 시스템 구축과 첨단 암 치료를 만들어갈 수 있는 기반이 된다. 서울아산병원 암병원으로 왜 이처럼 환자들이 몰리는지 분석해봤다.<br/><br/><br/><br/>◇풍부한 실적, 뛰어난 실력 때문 = 서울아산병원의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는 수술 실력으로 이어졌다. 유창식 서울아산병원 암병원장은 5일 “<span class='quot0'>서울아산병원 암병원은 세계 유수 암센터보다 풍부한 암 수술 경험이 있는 만큼 의료진들의 실력도 출중하고, 중증도가 높아 다른 병원이 수술을 꺼리는 환자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살려낸다</span>”고 말했다. 유 암병원장은 “우수한 치료 성적의 밑바탕에는 진료과 간 협진 등 좋은 문화와 체계적인 팀워크, 그리고 우리가 하지 못하는 암 수술은 다른 병원 어디서도 못 한다는 자부심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 암병원은 암 환자만 맞춤형으로 관리하는 입원전담병동도 운영한다. 712병상의 암병원에는 종양내과 환자들만 입원하는 병동이 4개가 있다. 암 환자들에게 꼭 맞는 맞춤형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올해 초부터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한 개 병동에 진료전담 교수가 365일 24시간 병동에 상주해 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전문 진료를 시행하고 있다.<br/><br/><br/><br/>△간암 = 간암센터의 김기훈 교수팀은 국내에서 가장 많은 복강경 간세포암 수술 경험이 있다. 2007년 처음 간암 수술에 최소 침습 복강경 수술을 시작해 현재까지 복강경 간 절제 수술만 680건 이상 했다. 그중 간세포암 수술만 추려도 400건 이상이다. 간암의 경우 절제 시 간문맥 등 혈관 다발에 심한 출혈이 일어날 수 있어 외과 수술 분야에서 까다로운 수술 중 하나로 꼽힌다.<br/><br/><br/><br/>△췌담도암 = 담도·췌장암센터의 김송철 교수팀은 2007년부터 최근까지 복강경 췌담도암 수술을 세계 최고 수준인 300여 건 이상 시행했다. 그중에서도 수술 중 최고 난도로 손꼽히는 위유문 보존 췌·십이지장 절제술을 복강경으로 100건 이상 시행한 병원은 서울아산병원과 미국 메이요 클리닉 단 두 곳뿐이다. 이 수술은 췌장이나 담도에 종양이 생겨 문제가 생겼을 때 위유문을 보존하고 췌장 두부, 십이지장, 소장의 일부, 담낭, 담도 등을 절제한 후 췌장과 소장·간과 소장을 문합하는 복잡하고 까다로운 대수술이다.<br/><br/><br/><br/>△전립선암 = 비뇨기암센터의 안한종·김청수·홍준혁 교수팀은 현재까지 4300건 이상의 전립선암 로봇수술을 시행했다. 전립선이 위치한 골반에는 직장, 방광, 주요 생식기 장기들이 인접해 있어 수술이 까다롭다. 다른 장기에 손상을 주지 않으면서 암 덩어리만 제거하는 세심한 술식이 요구된다.<br/><br/><br/><br/>△위암 = 위암센터의 김병식 교수팀은 복강경 위암 수술을 세계 최다인 7500건 이상 실시하고 있다. 김 교수팀은 위를 절제하고 나머지 부분을 연결하는 수술 전체 과정을 배 속에서 마치는 ‘체내문합술’을 적용해 절개 부위를 줄이면서도 위장관에 대한 조작을 최소화함으로써 부작용을 줄인다.<br/><br/><br/><br/>△대장암 = 국내에서 가장 많은 대장암 수술을 하고 있는 대장암센터의 유창식 교수팀은 현재까지 5000건 이상의 복강경 대장암 수술을 진행했다. 대장암센터에서 수술받은 직장암 환자 10명 중 9명은 항문 기능을 최대한 보존해 수술 전과 같이 장루 없이도 배변할 수 있었고, 항문에서 가장 가까이 근접해 있는 하부직장암이라 할지라도 83%에서 항문 괄약근 보존이 가능했다.<br/><br/><br/><br/>◇환자의 ‘삶과 질’도 치료 = 암 생존율이 70%를 넘어서는 등 암은 더이상 ‘걸리면 무조건 죽는 병’이 아니라는 인식이 널리 퍼지면서 ‘삶의 질’을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서울아산병원 암병원 ‘삶의 질 향상 클리닉’에서 진료받은 환자 수는 지난 7년간 약 7배로 늘었다. ‘삶의 질 향상 클리닉’에서는 암 치료 과정에서 동반되는 ‘수면 장애’와 ‘스트레스’를 보다 적극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환자들의 치료 의지를 북돋워 주고, 암으로 인한 ‘통증’을 적극적으로 치료한다. 암 치료 이후에도 ‘재활치료’와 ‘재발 및 전이 예방’ ‘동반 질환 관리’를 통해 암 환자의 삶의 질을 다양한 측면에서 관리함으로써 암 발병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준다.<br/><br/><br/><br/>‘삶의 질 향상 클리닉’은 재활의학과, 정신건강의학과, 가정의학과, 예방의학과 등 다양한 전문 의료진이 암병원 내 여러 종양 전문과들과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암으로 인해 생길 수 있는 다양한 질환과 증상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필요할 경우, 여러 진료 전문의들이 한 자리에 모여 환자를 진료하는 ‘통합진료’를 통해 암 환자의 삶의 질 향상을 보다 성공적으로 이룰 수 있도록 돕고 있다. <br/><br/><br/><br/>정밀의료도 선도하고 있다. 서울아산병원 암병원은 지난 2012년 국내 최초로 유전체맞춤암치료센터를 개소하고 미국 다나파버 암센터와 협력해 NGS유전자 검사기술인 한국형 온코맵과 온코패널을 개발했다. 또 NGS유전자 검사진행 상황과 검사결과를 자동으로 보고하는 시스템도 갖췄다. 서울아산병원 암병원 관계자는 “<span class='quot1'>최고 수준의 임상경험을 바탕으로 세계 각 국의 의료진들과 협력해 암정복을 위한 연구에 매진하고 있다</span>”고 말했다.<br/><br/><br/><br/> 이용권 기자 freeuse

언론사: 문화일보-1-80.txt

제목: ‘바람아 멈추어다오’ 이지연 음원발표  
날짜: 20170904  
기자: 김인구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501.20170904105005003  
ID: 01100501.20170904105005003  
카테고리: 문화>전시\_공연  
본문: 장덕 ‘연민’ 리메이크… 내달 공개<br/><br/><br/><br/> ‘바람아 멈추어다오’로 잘 알려진 1980∼1990년대 하이틴 가수 이지연(47·사진)이 25년 만에 음원을 발표한다. 4일 홍보사 에이엠지글로벌에 따르면 이지연은 비슷한 시기 활동했던 가수 고 장덕의 ‘연민’을 리메이크해 10월 공개한다. 이지연이 음원을 발표하는 것은 1992년 4집 앨범을 끝으로 미국으로 건너간 후 처음이다.<br/><br/><br/><br/>‘연민’은 1990년 장덕 추모 앨범에 수록된 곡이다. 이지연이 부른 음원은 아트인터내셔널이 제작하는 ‘현이와 덕이 오마주 앨범’에 수록된다. 이지연은 현재 미국 애틀랜타에서 BBQ레스토랑을 운영하며 요리사로 활동하고 있다. 이번 작업에 참여한 것은 SNS가 계기가 됐다. 그는 우연히 페이스북을 통해 친언니처럼 따른 장덕의 오마주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며, 앨범 제작사인 아트인터내셔널 김철한 대표가 암으로 투병 중이라는 사연을 접했다. 이후 김 대표를 위로하면서 앨범 참여 의사를 전했다. 이지연은 그러나 이번 활동에 대해 본격적인 가수 컴백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요리사와 사업가로서 한국 음식을 세련되고 고급스럽게 알리는 것이 우선의 목표”라고 말했다. <br/><br/><br/><br/>김인구 기자 clark

언론사: 문화일보-1-81.txt

제목: ‘13년만의 무대’ 앞두고… 하늘무대로 떠난 ‘포크계의 대부’  
날짜: 20170828  
기자: 안진용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501.20170828143005003  
ID: 01100501.20170828143005003  
카테고리: 문화>전시\_공연  
본문: 가수 조동진, 오늘 새벽 자택 욕실서 쓰러져 70세로 별세<br/><br/><br/><br/>‘포크계의 대부’라 불리던 가수 조동진이 28일 별세했다. 70세. <br/><br/><br/><br/>조동진의 가족에 따르면 최근 방광암 4기 진단을 받고 투병 중이던 조동진은 이날 오전 3시 43분 자택 욕실에서 쓰러진 채 아들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구급차 안에서 숨을 거뒀다. 조동진의 여동생인 가수 조동희는 문화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span class='quot0'>암 투병 중이었는데 심장도 안 좋아서 쓰러진 것 같다</span>”며 “<span class='quot0'>갑작스러운 일이라 경황이 없다</span>”고 말했다.<br/><br/><br/><br/>조동진은 오는 9월 16일 서울 서초구 한전아트센터에서 열리는 ‘꿈의 작업 2017-우리 같이 있을 동안에’ 공연을 통해 13년 만에 무대에 오를 계획이었다. 이를 위해 건강 관리 차원에서 이날 병원에 입원 후 치료를 받을 예정이었으나 비보를 전하게 됐다.<br/><br/><br/><br/>조동진이 세상을 떠나면서 ‘꿈의 작업 2017-우리 같이 있을 동안에’ 공연도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조동희는 “<span class='quot1'>지금으로서는 공연을 열 수 있을지 알 수 없다</span>”며 “<span class='quot1'>추후 공연 관계자들과 회의 후 공식 입장을 내겠다</span>”고 덧붙였다.<br/><br/><br/><br/>이 공연에는 조동진·동희 남매 외에도 장필순, 이병우, 더 버드, 이규호 등 조동진과 절친한 뮤지션이 대거 참여할 예정이었다. <br/><br/><br/><br/>이미 전 석 매진됐기 때문에 조동진의 빈자리를 남겨 둔 채 추모 형태 공연으로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이에 대해 조동희는 “<span class='quot1'>추모 공연을 논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span>”라고 말을 아꼈다.<br/><br/><br/><br/>조동진은 1966년 미8군 밴드의 멤버로 음악을 시작한 후 록그룹 쉐그린과 동방의빛에서 기타리스트 겸 작곡가로 활동했다. 1979년 1집 ‘조동진’을 발표하며 서정성 짙은 포크 음악을 전면에 내세운 조동진은 수록곡 ‘행복한 사람’ 등으로 큰 사랑을 받았다. 이 앨범은 ‘한국대중음악 100대 명반’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당시 포크 음악의 또 다른 축이었던 한대수, 김민기 등이 사회적 메시지를 담은 음악에 집중했다면, 조동진은 따뜻한 감성과 부드러운 가사로 또 다른 형태의 포크 음악을 추구했다.<br/><br/><br/><br/>조동진은 1996년 5집 ‘조동진 5’까지 발표한 후 제주도에서 머물며 은둔 생활을 시작했다. 2001년 ‘하나 옴니버스’ 앨범에 한 곡을 수록했고, 하나음악 출신들이 다시 모인 레이블 푸른곰팡이가 2015년 발표한 옴니버스 앨범 ‘강의 노래’에도 참여했다. 지난해 11월에는 20년 만에 새 앨범 ‘나무가 되어’를 발표했다.<br/><br/><br/><br/>유족으로는 2남(조범구·승구)이 있으며 발인은 30일. 빈소는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병원 장례식장 9호실, 장지는 벽제 승화원이다.<br/><br/><br/><br/> 안진용 기자 realyong

언론사: 문화일보-1-82.txt

제목: 유럽 난민 분산수용 돌파구 찾는다  
날짜: 20170828  
기자: 손고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501.20170828141006008  
ID: 01100501.20170828141006008  
카테고리: 국제>유럽\_EU  
본문: 마크롱 초청 ‘유럽 4개국·阿 3개국 정상’ 오늘 회동 <br/><br/><br/><br/>리비아에 난민촌 설립싸고 <br/><br/>프랑스·伊 불편한 감정 누적 <br/><br/><br/><br/>메르켈 “이·그리스만 책임 부당 <br/><br/>2년동안 난민수용 후회 안해”<br/><br/><br/><br/>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28일 독일과 스페인, 이탈리아 등 유럽의 주요 3개국 정상과 아프리카 3개국 정상을 파리로 초청해 유럽의 난민 수용 문제 등 현안 논의에 들어갔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span class='quot0'>유럽의 정신</span>”을 언급하면서 난민 분산 수용 입장을 피력해 이번 회담에서 난민 문제가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br/><br/><br/><br/>28일 AFP통신 등에 따르면 마크롱 대통령은 이날 ‘유럽의 난민 위기’를 비롯한 유럽 전반의 문제들을 논의하기 위해 메르켈 총리, 파올로 젠틸로니 이탈리아 총리, 마리아노 라호이 스페인 총리 등을 파리로 초청했다. 유럽행 난민들이 주로 아프리카에서 출발하는 만큼 이번 회담에는 파예즈 사라지 리비아 총리, 마하마두 이수푸 니제르 대통령, 이드리스 데비 차드 대통령 등도 참석한다. <br/><br/><br/><br/>메르켈 총리는 이날 일요신문 벨트 암 존탁과의 인터뷰에서 “<span class='quot0'>이탈리아와 그리스가 유입된 난민을 모두 책임지는 것은 부당하다</span>”며 “일부 국가가 난민 분산 수용을 거부했는데 <span class='quot0'>유럽의 정신</span>에 반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는 2015년부터 2년 동안 난민 100만 명을 받아들인 것에 대해서 “<span class='quot0'>정치적이고 인도적인 관점에서 평소 주관대로 결정했다</span>”며 “<span class='quot0'>같은 상황이라면 같은 결정을 할 것이고 당시 결정을 후회하지 않는다</span>”고 말했다. 하지만 최근 유럽에서 테러가 빈발하면서 일각에서는 난민들과 함께 테러리스트들도 몰려올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br/><br/><br/><br/>이번 회담에 대해 토마스 고마르 프랑스 대외관계연구소장은 “<span class='quot1'>프랑스-독일의 동맹관계도 중요하지만 마크롱 대통령이 다른 국가들을 고려하는 자세가 필요하다</span>”면서 “<span class='quot1'>특히 이탈리아와의 관계가 어려운 상황</span>”이라고 지적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최근 “<span class='quot2'>망명 자격이 없는데도 위험을 감수하는 난민들을 단념시키기 위한 것</span>”이라며 유럽행 난민들의 출발지인 리비아에 난민 자격을 미리 심사하는 난민촌 설립 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과거 리비아를 식민 지배했던 이탈리아는 마크롱 대통령의 행보가 일종의 영향권 침범이라고 보고 강력히 반대했다. 두 나라 간 주도권 싸움이 아니더라도 리비아에서 출발하는 난민 문제는 유럽이 해결해야 할 시급한 문제다. <br/><br/><br/><br/>국제이주기구(IOM)에 따르면 올해만 10만 명 이상의 난민이 리비아에서 유럽으로 건너갔으며 2300명 이상은 바다를 건너다가 숨졌다. <br/><br/><br/><br/>손고운 기자 songon11

언론사: 문화일보-1-83.txt

제목: <파워인터뷰>“原電이 잠재原爆? 몰라 하는 소리… 비행기보다 사고확률 낮아”  
날짜: 20170825  
기자: 노성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501.20170825113005004  
ID: 01100501.20170825113005004  
카테고리: 국제>일본  
본문: 정근모前 과학기술처 장관<br/><br/><br/><br/>“우리나라 원자력발전소(이하 원전) 기술은 세계 1등입니다. 미국보다, 유럽보다도 우리가 나아요. 상업용 대형 원전, 소형 원전, 실험용 원전(연구로) 3개 부문을 모두 자체 생산할 수 있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습니다. 국내 기술로 에너지 자립을 100% 완성한 데다, 수준도 세계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우리 원전 산업은 하루 이틀 만에 생겨난 게 아닙니다. 실제로 제3세대 대형 원자로를 아랍에미리트(UAE)에 짓고 있고, ‘스마트’란 이름의 소형 원전은 사우디의 설계의뢰를 받았고, 실험로도 단연코 한국 제품이 제일 좋아요. 네덜란드가 우리에 지어달라고 부탁할 정도니. 4차 산업혁명으로 일자리를 창출하자고 하는데 이것보다 더 부가가치 높은 고급 일자리가 어디 있겠습니까?”<br/><br/><br/><br/>지난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전력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사무실에서 만난 정근모 전 과학기술처 장관은 ‘탈(脫)원전’을 화두로 이야기를 꺼내자마자 폭풍처럼 말을 쏟아냈다. 70대 말의 고령에도 불구, 그는 정확한 연도와 인명을 대며 1950년대 이승만 정부 때부터 시작된 과반세기 한국 원전의 자립사(史)를 생생하게 증언했다.<br/><br/><br/><br/> 정 박사(또는 정 교수로 불러달라고 했다)와의 긴 인터뷰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었다. 원전, 나아가 에너지 정책을 포함한 과학기술 이슈 전반을 바라보는 그의 시각을 가장 핵심적인 내용으로 삼았다. 둘째는 1세대 과학자로서 과학입국 의지를 지닌 지도자와 의기투합해 대한민국의 기초를 다지던 회고담이었다. 사실 딱딱한 첫 번째 주제보다 이 부분이 훨씬 흥미로웠다. 박정희에서 더 거슬러 올라가 이승만, 제1공화국부터 과학기술을 앞세워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려는 선구자들의 분투와 이에 호응해 치열한 멸사봉공의 삶을 살아온 천재들의 스토리는 그야말로 ‘남기고 싶은 이야기’로 후배들에게도 두고두고 들려주고 싶을 정도였다. <br/><br/><br/><br/>아직 정식 회고록을 쓰지 않았다기에 반드시 기록을 남기라고 적극 권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로서 신앙과 봉사의 제2인생을 살아온 사랑의 이야기다. 넘쳐나는 증언들로 따라 적기에 바빴지만 책 1권 분량은 될 ‘정근모 간이 회고록’을 좁은 지면에 차례로 옮겨본다. <br/><br/><br/><br/>―우리나라 원전 개발의 뿌리랄까, 초창기 이야기를 들려주십시오. <br/><br/><br/><br/>“6·25 전쟁으로 잿더미가 됐을 때 남들은 한국이 이제는 희망이 없다고 했어요. 그야말로 완전 파괴, 가진 것 하나 없었습니다. 이승만 같은 지도자만이 큰 자산이었죠. 과학기술로 나라를 세운다, 즉 ‘과학기술 입국’을 처음 실천한 분입니다. 미국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원자력을 평화적으로 이용하겠다고 연설한 게 1953년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1955년 문교부에 원자력과를 만들고, 1957년 국제원자력기구(IAEA) 창립 회원국으로 가입했습니다. 그때 우린 유엔 회원국도 아니었어요, 소련이 비토하니까. 에피소드를 하나 들려 드릴까요? 미국 상업 원전의 파이어니어인 제너럴일렉트릭(GE)의 워커 시슬러 박사가 1956년 방한해 이 대통령에게 우라늄 펠릿(긴 막대)을 보여주면서 ‘이것만 가지면 당신 나라의 에너지 문제는 모두 해결할 수 있다’고 했답니다. 이승만은 세계정세를 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2차대전 후 냉전 체제로 돌입하자 국력 향상을 위한 과학기술 경쟁이 가속화됐죠. 당시 정부의 과학기술 입국 집념은 보통이 아니었어요. 1958년 원자력법을 제정하고, 1959년 1월 원자력원이란 정부기구를 만든 후 2월 원자력연구소도 설립했습니다. 당시 과학의 총화가 원자력이었죠.” <br/><br/><br/><br/>―세계 1위 원자력기술의 자립은 어떻게 확보한 겁니까.<br/><br/><br/><br/>“IAEA 회원국이 된 후 우리가 미국의 실험용 원자로를 받겠다고 나섰죠.(벽에 걸린 사진을 가리키며) 이게 바로 태릉 원자력연구소에 실험로 ‘트리가마크 Ⅱ’를 설치하는 장면이에요. 당시 과기처 장관과 원장 뒤 어딘가에 젊은 제가 배경으로 서 있을 겁니다. 이렇게 원전 선진국의 제품을 직수입해 연구에 불을 붙인 뒤, 경제개발 단계에 맞춰 서서히 자립도를 높여갔습니다. 개인적으로는 1982년 귀국해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사장을 맡으면서 한국형 원전의 표준설계에 매진했던 기억이 큰 보람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1세대, 2세대, 3세대 원전으로 올라가면서 정상 수준의 기술 축적이 이뤄졌다고 보면 됩니다. 초기 IAEA 회원국 중엔 터키, 말레이시아도 있었어요. 다들 하겠다고 나섰지만 하지 못했죠. 하지만 우리는 말로만 한 게 아니라 실제로 해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할 수 있는 나라가 있을까 말까 해요. 우리가 스스로 개발해낸 원전이 21세기의 큰 산업이라고 난 생각해요. 설계에서 건설, 운전·운영 및 관리, 수명이 다하면 폐로와 사용후핵연료 처리까지 모두 해줄 수 있거든요. 우리는 이미 25개 원전을 국내에 지은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br/><br/><br/><br/>―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재생 에너지론자들의 제안이 너무 이상에 치우친 것 아닌가요. <br/><br/><br/><br/>“탈원전 정책은 이상적이라기보다 너무 과격해요. 왜냐하면 에너지 믹스(Mix)는 2년마다 전력수급계획으로 조정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짓고 있는 걸 딱 중단할 필요가 있나요? 노후 원전이 곧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걸 조정해가면서, 안전성이 월등한 새 원전을 공급해가면서 2세대 원전을 폐기하면 좋은데, 새 원전 건설을 중단하다니… 엄청난 경제적 손실이죠. 전체적으로 조화로운 정책이 절실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수출은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국내에서는 짓던 걸 갑자기 중단시킨다? 탈원전은 그래서 엇박자입니다. 영국 사람들이 보면 이상하지 않겠어요? 영국이 어딥니까, 원전과 과학기술의 원조 아닌가요? 원전의 원조가 우리를 선호한다는데, 갑자기 우리는 중단한다니. ‘어떻게 된 거냐’ 제게도 문의가 오고 정부는 아마 더 당혹스러울 거예요.”<br/><br/><br/><br/>(영국은 2025년까지 원전 3기를 짓는 21조 원짜리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우리는 한국형 원자로 APR-1400을 수출하려 애쓰고 있다. 국내에서 건설을 중단한 신고리 원전 5·6호기와 이미 우리가 수출에 성공한 UAE 원전의 원자로와 같은 모델이다.)<br/><br/><br/><br/>―가장 오해가 많은 원전의 안전성에 대해 이야기해보죠. 문 대통령이 관람했다는 영화 ‘판도라’ 보셨나요. 일본 후쿠시마(福島) 원전 사고 이후 국민의 불안감이 높아진 것 같은데요.“원전 개발사 기록에 남은 큰 사고는 1979년 스리마일섬(Three Mile Island), 1986년 체르노빌, 2011년 후쿠시마(福島) 세 번입니다. 각각 안전요원의 부주의, 원자로의 자체 설계 결함, 해일 같은 대형 자연재해가 원인입니다. 저는 판도라를 보지 않았지만 스리마일섬 원전 사고 직전에 개봉됐던 미국 영화 ‘차이나 신드롬’은 기억이 납니다. 헨리 폰다의 딸 제인 폰다가 주인공으로 나온 영화인데요. 최악의 원전 사고를 가정해 원자로가 과열로 녹아내리는 노심(爐心)용융, 그리고 외부로 흘러나온 핵연료가 땅속으로 스며들어 마그마와 합쳐져 미국의 지구 반대쪽 중국까지 도달한다고 묘사하죠. 천만에요, 과학적으로는 틀릴 뿐 아니라, 전혀 불가능한 일입니다. 영화란 게 공상적인 것도 많이 넣잖아요. 스리마일의 경우 급수계통에 이상이 생긴 후 운전원의 대처가 잘못된 사례입니다. 사람 하나 안 다치고, 방사능 유출도 없고, 그냥 재산피해를 본 겁니다. 하지만 이후 미국과학재단을 중심으로 미국 원자력 정책의 획기적 전환을 이뤘지요. 핵심은 안전 훈련입니다. 안전관리, 나아가 ‘위기관리(Risk Management)’ 개념을 만들었죠. 체르노빌 사고는 원자로 설계 자체의 결함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탄소를 감속재로 쓰는 이 흑연로는 과거 소련이 핵무기 제조 원료를 얻으려는 목적으로 설계해 애초부터 세이프티 개념이 안 들어갔어요. 심지어 방사능의 외부 누출을 막아줄 마지막 방어벽인 격납고도 없었죠. 1세대 원전은 흑연로가 많았지만 2세대 원전부터는 아예 사라졌습니다.”<br/><br/><br/><br/>(체르노빌 사고는 저전력 상태에서 냉각 펌프가 정상 작동이 되는지 테스트하던 중 발생했다. 원자로 노심의 수증기 증가가 핵분열 반응을 가속화시키는 설계상 결함 때문에 증기 폭발, 수소 폭발의 2차례 폭발이 일어났다. 31명의 소방관과 긴급요원들이 목숨을 잃었고, 방사능 물질 누출로 우크라이나와 이웃 유럽국가에 암 환자 증가 등 방대한 피해를 줬다. 후쿠시마 사고는 140년 만의 대형지진으로 쓰나미가 발전기를 덮쳐 냉각이 되지 않자 원전의 수소 폭발이 일어난 사례다. 사망자는 없었지만 광범위한 방사능 오염 공포가 있었다.)<br/><br/><br/><br/>―원전의 안전성을 정말 믿어도 됩니까. 일반인들은 원폭과 원전을 혼동하면서 막연한 공포를 갖고 있는데요. <br/><br/><br/><br/>“원전을 언제든지 원폭처럼 변해 터질 수 있는 ‘잠재 원폭’쯤으로 오해하고 있어요. 동위원소가 달라 안 됩니다. (원전의 핵연료 농도는 원폭의 고농축에 비해 매우 낮다. 짧은 시간에 연쇄 핵분열을 일으키는 원폭과 달리, 원전은 매우 느린 속도로 핵폭발을 억제하는 기술이다.)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했다고 하는데, 그게 핵이 폭발한 게 아닙니다. 원전을 식히는 냉각 계통에 문제가 생겨 증기나 수소가 폭발한 거지요. 가장 많은 원전 사고의 유형이 바로 냉각재 손실 사고(loss-of-coolant accident)입니다. 역사상 3대 원전 사고는 원폭과 전혀 무관합니다. 원전이 언젠가 폭탄처럼 뻥 터진다, 이런 오해는 정말 몰라서 하는 소립니다. 원전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안전성 확보입니다. 핵연료에 포함된 동위원소가 생태계에 못 들어오도록 아홉 겹의 방어벽, 즉 9중 차폐가 돼 있습니다. 심층방어 시스템이라 합니다. 2세대 원전부터 적용되고 있지요. 내진 설계도 원전의 핵심입니다. 쉽게 말하면 원전은 그 동네에서 지진에 가장 안전한 건물이에요. 후쿠시마는 지진 이후 해일이 문제였죠.”<br/><br/><br/><br/>―그래도 원전 운전은 사람이 하는데 인재(人災)를 막을 수 있느냐, 기계도 100% 신뢰할 수 있느냐, 걱정하는 이들이 남아 있어요.<br/><br/><br/><br/>“혹시 석탄 쓰는 화력발전소가 내뿜는 방사능이 원전보다 훨씬 더 많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석탄에 우라늄이 함유돼 있거든요. 원전은 안전 설계의 엔지니어링 기술이 들어간 거고, 화력발전소는 안 했으니까 당연하죠. 미국 원전 앞에서 낚시질하는 사진 본 적 없죠? 미국에서 60년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정책으로 전환해 원전을 만들 때 안전이 최우선이었습니다. 많은 분은 원전에서 혹시 방사능이 유출될까 걱정하지만 처음부터 못 나오게 차폐된 안전시설이죠. 사람을 믿을 수 없다? 안전설계 등 만반의 조치를 했지만 실제 사고가 터졌다 이거죠? 비행기 탈 때 조종사가 일부러 자살하려고 마음먹으면 그게 안전한 거냐고 묻는 질문과 마찬가지예요. 김정은 같은 사람을 우리가 정상이라고 보지는 않잖아요? 현대 과학기술에서 원자력과 항공우주 양대 분야가 선두주자입니다. 안전성 공학이란 개념을 만든 게 원자력업계죠. 원자력은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를 합니다. 사고 확률은 비행기보다 훨씬 낮습니다.”<br/><br/><br/><br/>(일반인들이 항공기 사고와 원전 사고를 달리 보는 이유는 선택 가능성 때문이다. 비록 더 위험해도 항공기 사고는 ‘있을 수 있는 일’로 치부된다. 장거리 여행을 위해 어쩔 수 없이 타야 하는 교통수단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러나 원전 사고는 국경과 시간을 넘어 지속될 방사능 오염에 대한 공포, 그리고 다른 방식으로 전기를 얻을 수 있다는 대안 의식이 심리적 거부감의 뿌리에 깔려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br/><br/><br/><br/>―원전에서 에너지로 범위를 넓혀보겠습니다. 박사님은 전기·가스·원자력 등 에너지 분야를 두루 섭렵한 ‘에너지 석학’으로 불립니다. 석탄·석유 등 화석연료와 원전, 신재생 에너지 간 ‘에너지 믹스’ 전략을 어떻게 갖고 가는 게 현명한 국가적 처신일까요. <br/><br/><br/><br/>“에너지를 어떻게 공급해야 하느냐, 앞으로는 거의 다 전기를 공급해야 합니다. 나는 10년 전부터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 전기를 공급하는 ‘산전국(産電國)’이 돼야 한다고 떠들었어요. 전기를 생산할 때 풍력·태양광 등 신재생발전, 석탄·가스 화력발전, 원자력발전, 이런 걸 어떻게 잘 혼합하느냐가 정책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요즘 이거 아니면 저거다 생각들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 에너지 믹스를 최적화할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해요. 특히 원전은 하나 지으면 60년 가는 거 아닙니까. 금방 없앨 수가 없지요. 몇 개를 짓느냐가 문제지, 길게 가는 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력수급계획을 슬기롭게 가져가야죠. 올 연말까지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이 계획은 2년마다 롤링(Rolling)플랜으로 리뷰를 하는 거지, 딱 끊는 식으로는 못해요.”<br/><br/><br/><br/>―비유를 하자면, 지금 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건강을 위해 깨끗한 생식만 하자는 것 같아요. 인체에는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등 고른 영양 섭취가 필요한데 말이죠. <br/><br/><br/><br/>“그럼요, 적절하게 해야죠. 그리고 에너지는 단기적 이슈가 아닙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앞으로 5년간 전기료 인상은 없다’고 했는데, 5년이 문제가 아니라 60년 이상 가는 안목이 필요하거든요. 에너지 공급을 장기적으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생각을 해야지, 문재인 정부 동안만 안 올리면 다음 정부는 어떻게 합니까. 다시 말하지만 에너지 전략에서 각론으로 가기 전에 중간 이슈는 전기 문제입니다. 전력 공급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품질도 유지하느냐 이거죠, 예컨대, 전기가 잠깐이라도 나가면 정전입니다. 정전이 거의 없도록 연중 관리해야 합니다. 제가 미국 있을 때 이야기입니다. 70년대 초에 오일쇼크가 왔어요. 후반에 한 번 더 왔죠. 뉴욕공대 교수로 있다가 휴직하고 미국과학재단의 에너지정책 책임자로 일한 적이 있습니다. 1차 오일쇼크 때는 미국도 제대로 대처를 못 했거든요. 그래서 2차 쇼크 때 지미 카터 대통령이 에너지 석학들을 모두 워싱턴에 모아 과학재단에서 심포지엄을 여러 차례 열었어요. 제가 그걸 정리해서 카터 대통령에게 보고했죠. 그때 이미 지금 한창인 셰일가스 개발도 거론됐어요. 당시엔 기술적으로 간단치 않았었죠. 에너지 문제는 그만큼 호흡이 긴 겁니다.”<br/><br/><br/><br/>인터뷰=노성열 부장(경제산업부) nosr

언론사: 문화일보-1-84.txt

제목: <하재근의 TV세상>‘학교 2017’이 발암인가, 현실이 발암인가  
날짜: 2017082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501.20170823150005001  
ID: 01100501.20170823150005001  
카테고리: 사회>교육\_시험  
본문: ‘학교 2017’은 KBS의 대표적인 청소년 드라마 시리즈 ‘학교’의 2017년 버전이다. ‘학교’ 시리즈는 그동안 배우 장혁, 최강희, 배두나, 김래원, 하지원, 이요원, 이동욱, 조인성, 임수정, 공유 등 수많은 신인을 배출해왔다. 2002년 이후 휴지기를 갖다가 ‘학교 2013’으로 부활해 이종석과 김우빈을 대세 배우 반열에 올려놨다. 그 후 ‘후아유-학교 2015’에 이어 올여름 2017년 버전이 방영되는 것이다.<br/><br/><br/><br/>배우와 설정이 계속 바뀌었기 때문에 정식 시리즈물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한국 드라마 현실에선 보기 드물게 하나의 브랜드로 여러 편을 이어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관심이 쏠렸다. 하지만 시청률 4%대로 반응이 신통치 않다. 작품을 보고 있으면 가슴이 답답해진다. 요즘 시청자를 답답하게 하는 캐릭터들이 ‘암을 유발한다’고 해서 ‘발암’ 캐릭터라고 하는데, 여기엔 발암 캐릭터와 발암 설정이 하도 많아 작품 자체가 통째로 발암 드라마인 것 같은 느낌이다. 적어도 전반부까지는 그랬다.<br/><br/><br/><br/>가상의 사립고에 다니는 학생들의 이야기다. 학교는 학생들을 성적과 부모 재산으로 차별하고, 유력자의 자식들은 벌써부터 성인의 갑질을 흉내낸다. 중견 교사들은 이미 의욕을 잃고 그저 기계적으로 직장인 학교에 출근한다. 그 속에서 젊은 교사가 교육의 가치를 실현하려 하지만 무력할 뿐이다. 이때 ‘엑스’라는 의문의 존재가 나타나 학교를 조롱하면서 조용했던 학교 사회가 흔들린다는 설정이다.<br/><br/><br/><br/>가상의 학교를 통해 학교 현실을 우화처럼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거기에 엑스라는 비현실적인 캐릭터를 등장시켜 판타지적인 재미를 첨가했다. 우울한 분위기로만 가지 않으려는 제작진의 선택일 것이다. 제작진은 ‘학교 2017’이 역대 학교 시리즈 중 가장 밝은 작품이 될 거라고 했다.<br/><br/><br/><br/>과거 청소년 드라마는 그저 밝고 유쾌한 분위기였다. 이에 반해 1999년에 등장한 ‘학교’ 시리즈는 학생들의 현실적 고민과 학교 내부의 문제를 다뤄 공감을 얻어냈다. 휴지기 이후에 등장한 ‘학교 2013’은 학교를 거의 ‘지옥의 묵시록’ 같은 공간으로 그렸다. 이 작품과 ‘후아유-학교 2015’는 보기만 해도 숨이 막힐 것처럼 답답한 분위기였다. 계속 그렇게만 갈 수는 없기 때문에 ‘학교 2017’은 밝음을 선택했을 것이다.<br/><br/><br/><br/>그러나 학교 현실이 밝음으로 포장될 수 없는 것이 문제였다. 대한민국 학교는 이미 ‘발암’적 공간이 돼 버렸다. 과거 ‘얄개’시리즈가 표상했던 낭만적인 학교 풍경은 2000년 즈음에 사라지기 시작했다. ‘학교’ 시리즈는 바로 그 시기의 불안한 학교 분위기를 그렸다. 그 후 대한민국 학교는 최악으로 치달았고 국민이 조기유학이란 이름으로 자식을 해외로 탈출시키는 지경에 이르렀다. 황량한 학교 분위기가 학생들을 황폐하게 만들어 왕따, 학교폭력, 청소년우울증 등이 심화됐다. ‘학교 2017’이 그리는 성적 서열에 의한 차별, 사립학교의 불투명한 운영실태, 유력한 학부모와 교장에 휘둘리는 학교폭력위원회, 학생의 노력보다 부모 재산이 더 중요한 입시 풍경, 비정해진 아이들의 정서 등이 모두 우리 현실이다.<br/><br/><br/><br/>이런 현실에서 억지로 밝은 분위기를 낸 것이 공감받긴 어려웠다. 아무리 판타지로 포장해도 학교 실태를 그린 이상 답답해질 수밖에 없어서 결국 발암 드라마행이다. 대한민국에서 학교 드라마는 어렵다. <br/><br/><br/><br/>문화평론가

언론사: 문화일보-1-85.txt

제목: “양키스타디움서 6번 아이언으로 홈런”  
날짜: 20170823  
기자: 조성진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501.20170823145005001  
ID: 01100501.20170823145005001  
카테고리: 스포츠>골프  
본문: 매킬로이, 자선행사서 샷 대결<br/><br/>아동병원에 100만달러 기부<br/><br/><br/><br/>로리 매킬로이(28·북아일랜드)가 양키스타디움에서 샷 대결을 펼쳤다.<br/><br/><br/><br/>골프 전문매체 골프다이제스트 등은 23일 오전(한국시간) 매킬로이가 미국 뉴욕주 뉴욕 양키스타디움에서 열린 자선 행사에 참여했다고 전했다. 매킬로이는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 뉴욕 양키스의 홈구장인 양키스타디움 홈 플레이트 뒤 관중석에서 내야의 각 루, 파울지역, 외야 등에 설치된 목표물에 골프공을 날리는 이벤트를 연출했다. 암을 완치한 매리 브라우더 하웰이라는 여성이 함께했다. 매킬로이는 자신의 SNS에 샷을 하는 동영상을 올리고 “양키스타디움에서 6번 아이언으로 첫 홈런”이라는 글을 곁들였다. <br/><br/><br/><br/>매킬로이는 지난해 미국프로골프(PGA)투어 플레이오프 페덱스컵 우승자 자격으로 이 행사에 참여했으며, 페덱스는 매킬로이의 이름으로 100만 달러를 세인트 주드 아동병원에 기부할 예정이다. 매킬로이는 오는 24일 오후 뉴욕주 올드 웨스트버리의 글렌 오크스 클럽에서 개막하는 플레이오프 1차전 노던 트러스트에 출전한다.<br/><br/><br/><br/>갈비뼈 통증에 시달리고 있는 매킬로이는 플레이오프 경기를 끝까지 치를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100%의 컨디션은 아니지만, 앞으로 5주 동안 열리는 4개 대회를 모두 마칠 수 있다”고 말했다. 매킬로이는 지난주 끝난 마지막 메이저대회 PGA 챔피언십에서 공동 22위에 머문 후 갈비뼈 통증을 호소한 바 있다. 스포츠매체 ESPN은 “<span class='quot0'>매킬로이가 ‘장기적인 휴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span>”며 “<span class='quot0'>플레이오프가 끝난 후 부상 치료 등을 위해 3개월이 넘게 휴식할 예정</span>”이라고 전했다. <br/><br/><br/><br/>조성진 기자 threemen

언론사: 문화일보-1-86.txt

제목: <정재덕 셰프의 사계절 건강 밥상>피문어죽, 무더위로 기운 빠진 몸… 八八한 ‘바다 보양식’  
날짜: 2017082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501.20170823111005003  
ID: 01100501.20170823111005003  
카테고리: 문화>생활  
본문: 날씨가 아침, 저녁으로 제법 선선해졌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기온이 30도를 훌쩍 넘는 무더위였는데, 입추와 말복을 지나 처서를 맞으니 확실히 더위가 한풀 꺾였다. <br/><br/><br/><br/>처서는 ‘더위가 그친다’는 뜻에서 붙여진 이름이다. ‘여름이 지나면 더위도 가시고 신선한 가을을 맞이하게 된다’는 의미이다. 조만간 처서의 서늘함 때문에 여름내 들끓던 파리나 모기도 사라지고 귀뚜라미가 나오기 시작할 것이다. 여름내 지친 체력을 정비해야 하는 이 무렵 꼭 챙겨 먹어야 할 식재료가 있다. 해양수산부가 8월의 어식백세(漁食百歲) 수산물로 선정한 문어다. <br/><br/><br/><br/>문어에는 타우린 성분이 많이 함유돼 있어 콜레스테롤을 낮춰주고 혈관이 깨끗해지는 데에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다. 피를 맑게 해주고 지혈도 잘되게 해준다고 하여 산모에게 좋은 음식이기도 하다. 또 지방과 칼로리가 적고 단백질이 풍부해 다이어트 식품으로도 그만이다. <br/><br/><br/><br/>과거에 문어는 임금님 수라상에 올라갈 정도로 귀한 음식이었다. 허준의 동의보감에는 문어를 ‘팔초어(八稍魚)’ 또는 ‘팔대어(八帶魚)’라고 지칭하며 ‘맛이 달고 독이 없다’고 표현했다. 조선왕조실록에서도 조선 초기 중국 황제에게 보내는 진상품 목록에 단골로 등장한다. <br/><br/><br/><br/>그래서일까. 예로부터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 중요한 날인 관혼상제(冠婚喪祭)에 빠지지 않고 꼭 올라가는 귀한 식재료이기도 했다. 형편이 넉넉한 양반들이나 귀한 손님에게만 문어요리를 올릴 수 있었던 것이다. 어릴 적 어머니가 할아버지 제사를 지내고 나면 다정한 눈짓으로 ‘얼른 문어 썰어서 먹으라’고 하셨던 기억이 난다. 평소 맛볼 수 없는 귀한 음식인 데다가 어린 아들이 특히 좋아하는 해산물이라고 살뜰히 챙기셨던 것이다. <br/><br/><br/><br/>다른 해산물과 달리, 문어는 잡는 방법이 독특하다. 어두운 곳을 좋아하는 문어의 습성을 이용해 밧줄에 단지를 주렁주렁 매달아 문어가 주로 서식하는 곳에 놓아두는 것이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문어가 단지를 자신의 집처럼 생각하고 안에 들어가 자리를 잡게 되는데 그때 단지를 건져 올려서 잡는다.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포획법인데 이를 ‘단지잡이’라고 한다. <br/><br/><br/><br/>언젠가 전남 여수의 명물로 자리 잡은 문어잡이를 구경한 적이 있었다. 어부들이 높은 파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배 난간에 위태롭게 서서 단지를 바다에 던지는 모습에 경외감마저 느껴졌다.<br/><br/><br/><br/>문어는 피문어, 돌문어, 대문어, 참문어 등 종류가 다양한데 이는 지역마다 부르는 이름이 다르기 때문이다. 실제로는 피문어와 돌문어 크게 두 종류로 나눈다. 피문어는 주로 동해안 수심이 깊은 곳에 서식하며 엄청난 크기를 자랑한다. 우리나라에서 대부분 잡히는 문어가 바로 이 문어로 대문어, 왜문어라고도 한다. 참문어라고도 하는 돌문어는 돌 사이에 숨어 살아서 부르는 이름인데 수심이 얕은 바다에 산다. 대문어에 비해 몸집이 작다.<br/><br/><br/><br/>이런 문어들을 이용해 요즘에는 먹물파스타, 먹물피자, 먹물빵 등 먹물을 이용한 이색 퓨전 요리들을 종종 볼 수 있다. 그래도 뭐니뭐니해도 문어를 통째로 삶아 초고추장에 찍어 먹거나 샤부샤부나 죽 요리로 먹는 것이 가장 친숙하다. 부추와 함께 먹으면 알리신 성분이 살균작용과 소화 촉진에 많은 도움을 주므로 문어 요리에 곁들이면 더 좋다. <br/><br/><br/><br/>다양한 문어 요리 중에서 오늘 소개하는 피문어죽은 간단해 보여도 정성이 참 많이 들어가는 음식이다. 조금만 방심해도 바닥에 눌러 타버린다. <br/><br/><br/><br/>언젠가 우리 한식당 고객 한 분이 암 투병 중인 아내를 위해 맛있고 기력 회복에도 좋은 죽을 끓여주고 싶다며 찾아온 적이 있었다. 그때 피문어죽을 끓여서 전달해드렸는데 아내가 잘 먹어서 기쁘다며 고맙다는 인사를 여러 번 하셨던 적이 있어 더욱 각별하게 생각되는 죽이다. <br/><br/><br/><br/>피문어죽은 죽으로 요리할 때 피문어 삶은 물까지 이용하면 더욱 맛있고 영양 가득한 죽이 된다. 문어 자체가 워낙 좋은 성분이 풍부하기 때문에 기력이 약한 사람들에게 더없이 좋은 건강식이다. 처서를 맞으며 여름내 무더위 때문에 지친 가족을 위해 풍성한 피문어죽으로 건강 밥상을 준비해 보자.<br/><br/><br/><br/> 한식당 다담 총괄·사찰음식 명인<br/><br/><br/><br/>만들어보세요재료<br/><br/><br/><br/>찹쌀 1컵, 피문어 300g, 물 7~8컵, 소금 1/3T, 참기름 소량, 문어 삶을 때 양념(대파 1개, 생강 1/2개, 마늘 3개, 통후추 5알)<br/><br/>만드는 법<br/><br/><br/><br/>1. 쌀은 씻어서 물에 2∼3시간 불린다.<br/><br/><br/><br/>2. 냄비에 물, 통후추, 대파, 생강, 마늘을 넣고 끓어오르면 문어를 넣고 5∼6분간 삶아준다.<br/><br/><br/><br/>3. 문어 삶은 물은 버리지 말고 체에 한 번 걸러 따로 둔다. <br/><br/><br/><br/>4. 냄비에 참기름을 두르고 불린 쌀을 볶는다. 삶은 문어는 잘게 잘라서 쌀과 함께 한 번 더 볶아준다. <br/><br/><br/><br/>5. 여기에 문어 삶은 물 8컵을 붓고 쌀알이 퍼지도록 저으면서 끓여준다. <br/><br/><br/><br/>6. 잘 끓인 피문어죽을 그릇에 담아낸다.<br/><br/>조리 Tip<br/><br/><br/><br/>1. 문어의 진액은 먼저 깨끗한 물에 씻은 후 밀가루에 주물러 깨끗이 손질한다. 밀가루에 버무려 주면 문어 비린내도 잡을 수 있다.<br/><br/><br/><br/>2. 문어를 더욱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는 무를 가지고 문어를 두들겨주면 더욱 부드러워진다. <br/><br/><br/><br/>3. 맛있는 죽을 끓이는 방법 중 하나는 죽을 끓일 때 중간에 육수를 붓지 말고 한 번에 육수를 넣고 쌀알이 퍼지도록 끓여준다. <br/><br/><br/><br/>4. 남은 문어를 보관할 때에는 내장이 부패할 수 있기 때문에 내장을 제거하고 보관하는 것이 좋다.

언론사: 문화일보-1-87.txt

제목: 故 정미경 작가 마지막 손때 묻은… 유작 장편 출간  
날짜: 20170823  
기자: 김인구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501.20170823103005003  
ID: 01100501.20170823103005003  
카테고리: 문화>출판  
본문: 소설 ‘가수는 입을 다무네’<br/><br/><br/><br/>올해 초 세상을 떠나 주위를 안타깝게 했던 소설가 정미경(1960∼2017)의 장편소설 ‘가수는 입을 다무네’(민음사·사진)가 출간됐다. 2014년 계간 ‘세계의 문학’에 연재했던 유작이다.<br/><br/><br/><br/>민음사 측은 22일 “정 작가가 생전에 퇴고를 더 하겠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던 것이다. 원래 지난해 펴내려고 했었다”면서 “사후에 가장 먼저 출간되는 저자의 마지막 장편”이라고 설명했다.<br/><br/><br/><br/>소설은 전성기가 지난 뮤지션 율과 그를 피사체로 삼은 다큐멘터리 감독 이경의 교차 시점으로 펼쳐진다. 전설적 밴드의 리더였던 율은 목소리가 나오지 않으면서 죽음과도 같은 침체기를 겪고 있다. 이경은 그런 율을 다큐멘터리로 기록하는데 점차 서로에게 변화가 생긴다.<br/><br/><br/><br/>주인공이 음악가이지만 마치 정 작가의 분신처럼 느껴진다. 음악이라는 예술을 통해 문학을 투영하는 것 같다. 예술적인 관점에서는 문학과 음악의 경계를 구분 짓는 게 무의미한 일일지도 모른다. 책의 발문을 쓴 김미현(이화여대 교수) 문학평론가는 “작가 정미경은 자신의 아픔을 보여주는 데 인색하면서 남의 고통을 알아봐 주는 데 넉넉했다”며 “소설은 정 작가의 삶 혹은 문학을 가장 극명하게 드러낸 예술가 소설로 읽힌다. 율을 작가 정미경으로 치환하면 예술가들이 지닌 영광과 상처를 날것 그대로 내밀하게 들여다볼 수 있다”고 평했다.<br/><br/><br/><br/>정 작가가 세상을 떠나기 전 자신의 예술혼을 불태웠던 모습을 작품을 통해 전달받을 수 있다. 결국 예술이란 ‘실패를 통해 완성되는 아름다움’이다.<br/><br/><br/><br/>제목은 기형도 시인의 동명의 작품에서 따왔다. 저자의 서문이나 설명이 없어 정확한 이유를 알 수는 없으나 주인공인 가수 율이 처한 상황을 연상시키는 것 같다는 게 민음사 측의 해석이다.<br/><br/><br/><br/>정 작가는 암으로 투병하다가 지난 1월 18일 별세했다. 2002년 오늘의 작가상, ‘밤이여, 나뉘어라’로 2006년 이상문학상을 수상했다. 남편인 김병종(서울대 교수) 화가는 문화일보 ‘명작의 공간’(3월 17일자)에 아내인 정 작가에 대한 애절한 추모글을 게재해 독자들의 눈시울을 붉히게 했다. <br/><br/><br/><br/>김인구 기자 clark

언론사: 문화일보-1-88.txt

제목: “문재인 케어 실손보험에 영향 없다”  
날짜: 20170822  
기자: 김만용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501.20170822140006013  
ID: 01100501.20170822140006013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보험사 판매위축 우려 불식<br/><br/>“중증 질환 경우 보험 필요”<br/><br/><br/><br/>최근 정부가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 이른바 ‘문재인 케어’ 정책으로 인해 국내 보험사들의 실손보험 및 암 보험·중대질병(CI)보험 등 건강보험의 판매가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 가운데 다수 보험사가 이에 대한 내부 분석을 끝내고 다시 영업망을 풀 가동하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br/><br/><br/><br/>2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업계는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이 시행된 이후에도 개인들의 의료비 부담이 크게 낮아지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을 내렸으며 앞으로 실손보험 등의 시장성 또한 긍정적이라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br/><br/><br/><br/>최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안으로 인해 건강보험 보장률은 2015년 대략 63%에서 2022년 70%로 확대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의료비 본인 부담률은 37%(급여 20%, 비급여 17%)에서 30%로 불과 7%포인트 경감되는 것이다.<br/><br/><br/><br/>적어도 30%는 개인이 부담하는 만큼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과 고액의 암 치료 및 중대질병 치료의 경우엔 보험의 역할이 필요할 것으로 업계는 분석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span class='quot0'>암 치료의 경우 환자에게 실제 부담이 되는 것은 1회 성 암 수술비가 아니라, 수술 이후 소요되는 고가의 항암치료비, 장기 간병비</span>”라며 “<span class='quot0'>정부의 새 정책으로도 막기 어렵다</span>”고 말했다.<br/><br/><br/><br/>예를 들어 실손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병원치료비가 1000만 원이 발생하면 개편 이후에도 300만 원가량을 반드시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반면 실손보험 가입 시 본인 부담은 4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내려가게 된다. <br/><br/><br/><br/>김만용 기자 mykim

언론사: 문화일보-1-89.txt

제목: <‘살충제 계란’ 파문>땅에 스민 살충제 DDT 밖에 없을까  
날짜: 20170822  
기자: 이해완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501.20170822115006013  
ID: 01100501.20170822115006013  
카테고리: 사회>사회일반  
본문: 린덴·파라쿼트 잔류 가능성 <br/><br/>농식품부 “토양 조사 진행중”<br/><br/><br/><br/>과거 살충제로 사용된 맹독성 농약이 토양에 그대로 잔류해 우리 식자재를 위협한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농장주들이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맹독성 농약 ‘디클로로디페닐트라클로로에탄(DDT)’이 검출된 것처럼, 금지되기 전까지 오랫동안 사용된 농약들이 많기 때문이다. ‘린덴(Lindane)’과 ‘파라쿼트(Paraquat)’가 이에 해당한다. 과거 사용된 맹독성 농약들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이들 농약이 사용된 지역에 대한 토양·환경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br/><br/><br/><br/>최근 경북 산란계 농장 2곳에서 1973년부터 국내 사용이 금지된 맹독성 농약 DDT가 검출되자 농장주들은 억울함을 호소했다. 전문가들은 친환경 상태에서 키운 닭들이 토양에 남아 있는 농약 성분을 먹어 발생한 사건으로 보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 평가에 외부 전문가로 참여한 권호장 단국대 의대 교수는 “<span class='quot0'>DDT는 이미 조금씩은 우리 몸 안에 남아 있다</span>”며 가능성을 열어뒀다.<br/><br/><br/><br/>국제기구인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가 계란에 설정한 100여 가지 살충제에 대한 ‘최대 잔류 허용 기준치’는 유럽 등보다 낮은 수준이면서도 유독 린덴과 파라쿼트에 대해서는 매우 엄격한 잣대를 세우고 있다. 린덴은 국내 계란에서 검출된 피프로닐보다 최대 잔류 허용 기준이 20배 높은 0.001㎎/㎏, 파라쿼트는 4배 높은 0.005㎎/㎏이다.<br/><br/><br/><br/>암과 다양한 질환을 유발하는 린덴은 살충력이 좋아 널리 사용되다 2009년 대부분 국가에서 사용이 금지되기까지 반세기 동안 전 세계적으로 약 60만t이 생산됐다. 린덴은 2011년 경북 칠곡군에서 토양오염 우려 기준을 초과해 검출된 바 있다. 자살 시도에 많이 쓰여 ‘녹색 악마’로 불린 고독성 농약 파라쿼트는 2012년부터 국내 판매가 금지됐다. 이 같은 우려에 대해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span class='quot1'>토양 조사를 진행 중이며 아직 다른 물질이 검출되지 않았다</span>”고 밝혔다. 하지만 DDT가 검출된 농가에서는 “지금까지 토양 조사가 이뤄진 적이 없다”며 정부의 뒷북 대응을 질책했다. <br/><br/><br/><br/>이해완 기자 parasa

언론사: 문화일보-1-90.txt

제목: <세상 만사-나라 밖>베이비파우더 쓰다 난소암…“4700억원 배상”  
날짜: 20170822  
기자: 손고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501.20170822114006003  
ID: 01100501.20170822114006003  
카테고리: 사회>사건\_사고  
본문: 미국 법원이 건강의약품 기업 존슨앤드존슨에 이 회사의 베이비파우더 제품을 쓰다가 난소암에 걸린 한 여성에게 4억1700만 달러(약 4745억 원)를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21일 AP통신에 따르면 이날 로스앤젤레스 법원 배심원단은 에바 에체베리아라는 여성이 존슨앤드존슨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 1950년대부터 베이비파우더를 매일 쓰다가 2007년 난소암 진단을 받은 그는 소장에서 “위험하고 결함이 있는 탤크 파우더 성질의 영향으로 암에 걸렸다”고 밝혔다. 마그네슘이 주성분인 탤크 가루는 물기를 잘 흡수하고 피부 발진을 막아주는 효능이 있어 미용제품, 목욕제품 원료로 많이 쓰인다. 석면을 포함한 자연 상태 그대로의 탤크는 난소에 작용하면 암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의심을 받아 왔다.<br/><br/><br/><br/>손고운 기자 songon11

언론사: 문화일보-1-91.txt

제목: <도농상생 2017>특화작물 브랜드 · 치유체험 운영… 귀농 4년만에 소득 4배  
날짜: 20170822  
기자: 김윤림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501.20170822113505002  
ID: 01100501.20170822113505002  
카테고리: 경제>산업\_기업  
본문: 6차 산업화 성공 사례 - (7) 차세대 청년 농업인 문경 ‘청화원’ 이소희 씨<br/><br/><br/><br/>지난 16일 오후 경북 문경시로 가는 길에는 시시각각 굵기를 달리한 장맛비가 오다 그치다를 반복했다. 목적지인 농암면 궁터길에 들어서자 한 폭의 풍경화 속으로 들어온 듯한 차분한 평화를 안겨줬다. 차는 천천히 풍경 속을 가로질러 가는데 주먹 크기만 한 사과 알은 과수원이 무료했는지 울타리 밖으로 얼굴을 삐죽 내밀어 이방인을 반겼다. 과수원 옆 내(川)에서는 불어난 물길이 저희끼리 놀면서 우렁찬 소리를 내며 흘러갔다. 숲 속의 습기와 고요 속을 지나 청화원에 다다르자 산골 처녀 같은 주인이 뛰쳐나와 반갑게 맞이했다.<br/><br/><br/><br/> 차세대 청년 여성 농업인 이소희(29) 씨다. 이 씨는 21년 전 귀농한 부모님과 함께 이곳에 살다가 꿈을 이루고 싶어 22세 때인 2010년 수도권으로 나가 5년간 유치원 교사를 했다. 그러나 유치원 교사를 하는 동안 아이들을 데리고 자연학습이라도 가게 되면 고향과 부모님의 모습이 늘 오버랩됐다. <br/><br/><br/><br/>이 씨는 1차 생산 소득만 갖고 빠듯하게 생활하는 부모님을 생각할 때 너무 안타까웠다고 한다. 부모님은 3만9600㎡(1만2000여 평)의 넓은 대지에 유기농으로 이것저것 심었지만, 풀과 함께 자란 농작물을 수확하는 것이 생활조차 힘들게 했고 적지 않은 빚도 쌓였다. 그런 부모님을 보며 안타까운 한숨만 내쉬던 이 씨는 여러 해 동안 고민하다 마침내 해결책을 찾아냈다. ‘그래, 6차 산업을 농촌에서 해보자!’6차 산업은 1차 산업(농림수산업), 2차 산업(제조·가공업), 3차 산업(서비스업)을 복합한 산업을 말한다. 농작물을 생산만 하던 농가가 고부가가치 상품을 가공하고 향토 자원을 이용해 체험 프로그램 등 서비스업으로 확대해 높은 부가가치를 발생시키는 산업이다. 6차 산업은 한마디로 도농상생·협력을 통해 농촌·농업인의 소득 증대를 가져오는 미래 농촌 산업의 방향이다.<br/><br/><br/><br/>“이렇게 말하면 믿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돈 벌려고 왔어요. 확실한 비전이 있었거든요.” 이 씨는 2014년 귀농해 올해가 이곳에서 생활한 지 4년째다. 유기농법을 유지하되, 마을의 특성을 살린 농작물을 가꿔 마을 사람들과 함께 자체 브랜드를 만들었고,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도입해 도시민이 찾아오는 농촌으로 변모시켰다. 게다가 지금은 농고·농대생들과 전국의 농민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강사로도 활동하고 있다. <br/><br/><br/><br/>이 씨는 기존에 부모님이 소유한 3만9600㎡와 임차한 2만6400㎡(8000평)의 국유림까지 합쳐 모두 6만6000㎡(2만 평) 중 시설동과 산책로 등 9900㎡(3000평)를 제외한 5만6100㎡(1만7000평)의 땅을 가꾸고 있다. 봄에는 이 중 1만3000㎡에 취나물·고사리·가죽나물·산마늘(명이나물)·음나무순·곰취 등 6가지 나물을 재배한다. 물론 모두 유기농이다. 다래순은 자연산으로 산에서 채취한다. 여름에는 990㎡ 규모의 땅에서 무농약 인증을 받은 블루베리와 아로니아를 수확한다. <br/><br/><br/><br/>또 주로 부모님이 맡아 재배하는 9900㎡ 규모의 오미자 농사도 거들어 가을에는 오미자와 꾸지뽕 열매를 딴다. 겨울에는 밀린 교육을 다닌다. 전국의 농업인을 대상으로 6차 산업 관련 강의에 나서는가 하면, 한 달에 두 번 경북농민사관학교에서 수업도 듣는다. 올해는 치유농림업 CEO 과정을 이수하고 있다.<br/><br/><br/><br/>이 씨네는 21년간 한 번도 화학비료와 제초제를 써본 적이 없다고 한다. 그 덕분에 체험동과 살림집, 운동장을 제외한 사방에는 풀이 무성하다. 이 씨가 주로 하는 일은 잡초 제거다. 손으로 뽑기도 하고 낫질을 하기도 한다. 뽑거나 벤 풀은 다시 그 자리에 쌓아 둔다. 썩어서 거름이 되기 때문이다. 청화원 옆을 흐르는 작은 천에는 가재와 도롱뇽이 서식하고 있다. 이 씨는 “<span class='quot0'>부모님이 갖고 계신 친환경적 철학을 존중한다</span>”고 말했다.체험장 2곳에서는 16가지의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학생들과 가족 단위 방문객을 대상으로 오미자청 담그기 등 주로 농산물·전통음식체험을 제공하고, 도시에서 무술체육관을 운영했던 부친이 전통무술체험과 함께 후백제왕 견훤이 문경에서 무예를 연마한 연유 등 역사교육도 곁들인다. <br/><br/><br/><br/>특히 이 씨는 유치원 교사를 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아동과 아토피·스트레스·암 수술 후 회복기에 있는 환자들을 위해 환경을 이용한 치유체험을 제공하고 있다. 또 작물 재배 교육 등 4가지 교육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다.<br/><br/><br/><br/>이를 통해 이 씨는 연간 1t의 건나물(생나물로는 8t)과 각종 농산물을 직거래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해 판매하는가 하면, 체험객만도 연간 5000여 명이 찾아올 정도의 성과를 올리고 있다. 올해는 조심스레 7000여 명 방문을 예상하고 있다. 수입을 묻자 이 씨는 “<span class='quot0'>2015년은 전해의 2배, 2016년에도 전해의 2배를 올렸고, 올해도 전해의 2배가 될 거 같다</span>”면서 “<span class='quot0'>1차 산업 때와 비교하면 4배로 늘었다</span>”고 말했다. 열거하기에도 벅찬 이런 성과들은 모두 올해 갓 서른이 된 처녀 농군이 귀농 4년 차에 이룬 것들이다.<br/><br/><br/><br/>이 씨는 “<span class='quot0'>농고·농대생들을 대상으로 한 강의에 가면 정말 꿈이 없고, 비전이 없어 보여 안타까울 때가 많다</span>”며 “<span class='quot0'>청년 농부들이 후계농들에게 빛이 돼야 한다</span>”면서 “<span class='quot0'>성공하는 미래 농업인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span>”고 전했다. 그는 또 “<span class='quot0'>유치원생이나 초등학생 등 인성 형성기의 아이들과 농업을 기반으로 함께하는, 독일의 발도로프 숲 학교 같은 자연학교를 만드는 게 인생의 최종 목표</span>”라고 당찬 포부를 밝혔다. <br/><br/><br/><br/> 문경 = 글·사진 김윤림 기자 bestman

언론사: 문화일보-1-92.txt

제목: ‘삼중음성유방암’ 표적치료제 무진행 생존 ‘2배 증가’ 입증  
날짜: 2017082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501.20170822105006003  
ID: 01100501.20170822105006003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지금까지 항암치료 외에는 달리 뾰족한 치료방법이 없었던 ‘삼중음성유방암’에 새로 개발된 표적치료제의 효과가 처음으로 입증됐다. 삼중음성유방암은 호르몬이나 유전자(HER2)의 영향을 받지 않는 유방암의 한 종류다. 항암제에 일부 반응하더라도 재발이 많고 암의 진행이 빨라 치료가 어려운 암으로 분류되고 있다.<br/><br/><br/><br/>김성배(사진) 서울아산병원 종양내과 교수는 한국, 미국, 프랑스 등 8개국 44개 병원이 참여한 다기관 국제 연구를 통해 전이성 삼중음성유방암에서 AKT 표적치료제의 효과를 연구한 결과, 기존 항암제로만 치료한 환자보다 무진행 생존기간이 2배 증가하는 성과를 보였다고 밝혔다. 무진행 생존기간은 암 치료 후 암이 새롭게 진행(악화)하기 전까지의 기간을 의미한다.<br/><br/><br/><br/>이번 연구결과는 세계 3대 임상 암 연구 관련 의학저널인 ‘란셋 온콜로지(Lancet Oncology)’ 최신호에 편집자 논평과 함께 발표됐다.

언론사: 문화일보-1-93.txt

제목: <세상 만사-나라 밖>英연구팀 “건강한 비만은 없어”  
날짜: 20170816  
기자: 손고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501.20170816153006007  
ID: 01100501.20170816153006007  
카테고리: 문화>생활  
본문: ‘건강한 비만’은 없다는 또 하나의 연구결과가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15일 사이언스 데일리에 따르면 영국 임페리얼 칼리지 런던(ICL)과 케임브리지대 공동연구팀은 과체중이거나 비만한 사람은 혈압, 혈당, 혈중 콜레스테롤 등 대사기능이 정상이라도 체중이 정상인 사람보다는 심장병 발병 위험이 높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연구팀은 유럽 10개국에서 50여만 명이 참가하고 있는 ‘유럽 암·영양 전향적 연구’의 12년 조사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은 결론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심근경색 등 심장병이 발생한 7637명과 대조군 1만 명을 설정해 두 그룹의 조사자료를 비교 분석했는데, 이때 과체중인 사람은 체중이 정상인 사람에 비해 심장병 발병률이 26%, 비만한 사람은 발병률이 28% 높았다. 이 결과는 ‘건강한’ 과체중이나 비만은 없다는 증거라고 연구팀은 지적했다.<br/><br/><br/><br/>손고운 기자 songon11

언론사: 문화일보-1-94.txt

제목: 앞좌석 레이싱카처럼… 뒷좌석 회장님車처럼  
날짜: 20170816  
기자: 김남석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501.20170816112005001  
ID: 01100501.20170816112005001  
카테고리: 경제>자동차  
본문: - 서스펜션 조율따라 달라지는 승차감<br/><br/><br/><br/>車무게 지탱하며 충격흡수<br/><br/>부드럽거나 단단하게 조합<br/><br/><br/><br/>‘더블위시본 + 멀티링크’ 땐<br/><br/>승차감 우수 고급차에 사용<br/><br/>‘맥퍼슨 스트럿 + 토션빔’은<br/><br/>가볍고 고장적어 장착 선호<br/><br/><br/><br/>EQ900, 차세대 기술 적용<br/><br/>긴급상황서도 흔들림 적어<br/><br/><br/><br/>자동차의 차체와 바퀴를 연결해주는 ‘서스펜션(현가장치)’은 사람의 몸으로 비유하면 하체에 해당한다. 용수철(스프링), 완충기(쇼크 옵서버), 서스펜션 암, 자세안정장치(스태빌라이저) 등으로 구성되며 차 바깥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차체 무게를 지지하는 동시에 노면에서 발생하는 충격이 차체나 탑승자에게 직접 전해지지 않도록 충격을 흡수하는 역할을 한다. 또 바퀴와 노면 사이에서 발생하는 구동력, 제동력 등을 차체에 전달해 운전자의 의도대로 차가 달릴 수 있도록 주행안정성을 유지하는 기능도 갖고 있다.<br/><br/><br/><br/>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운전자들은 차를 평가할 때 디자인이나 동력성능, 가격 등과 함께 승차감을 가장 중요한 평가요소의 하나로 고려한다. 이 승차감은 바로 서스펜션 기술이 결정한다. 완성차업체들은 각각의 차종에 맞는 서스펜션 기술을 개발해 주행성능을 향상시키면서도 충격은 흡수해 승차감을 높이는 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br/><br/><br/><br/>차량이 판매되는 지역 환경과 운전자 취향에 따라 서스펜션의 조율도 달라진다. 서스펜션의 강도나 느낌에 따라 흔히 차량 하체가 부드럽다 혹은 단단하다는 표현을 많이 쓴다. 미국과 같이 장거리 주행이 많고 주로 직진 주행을 하는 지역에서는 서스펜션을 부드럽게 하는 반면 유럽과 같이 구불구불하고 울퉁불퉁한 도로를 많이 달리는 지역에서는 단단하게 조율하는 경우가 많다. 국내에 판매되는 차량의 경우 과거에는 미국처럼 부드러운 서스펜션이 선호됐지만 최근에는 독일차 등 수입차 영향으로 유럽처럼 점차 단단해지는 추세다.<br/><br/><br/><br/>서스펜션은 좌우 바퀴가 축으로 연결된 일체식(고정식)과 각 바퀴가 독립적으로 차체와 연결되는 독립식 등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구분된다. 이와 함께 차의 진행방향을 조절하기 위해 좌우로 움직여야 하는 앞바퀴(전륜)와 고정된 뒷바퀴(후륜)에 적용되는 서스펜션 역시 차이가 있다. 전륜 서스펜션은 차의 뼈대 격인 프레임과 차축 사이에 연결돼 차의 중량을 지지하고 바퀴 진동을 흡수하는데 승용차의 경우 승차감이나 조향성이 중요한 만큼 더블 위시본, 맥퍼슨 스트럿 등 독립식이 주로 사용된다.<br/><br/><br/><br/>더블 위시본은 새의 가슴뼈처럼 V자 혹은 Y자 형태의 두 개의 암(Arm)으로 연결되고 그 사이에 스프림과 댐퍼 등이 위치하는데 바퀴에서 발생하는 제동력이나 선회력은 컨트롤 암이 지지하고 스프링은 수직 방향의 하중을 지지하는 구조다. 더블 위시본은 상하뿐 아니라 좌우 방향에서 들어오는 충격까지 흡수하고 내구성도 뛰어나지만 구조가 복잡하고 그만큼 무거워 중형차 이상 고급차에 쓰인다. 고안자 이름을 딴 맥버슨 스트럿은 두 개의 암 중에서 위쪽 암을 제거하는 대신 스프링과 완충기의 강성을 키워 지지대 역할을 한다. 부품 수가 적고 가벼워 가격과 공간 배치에 이점이 큰 반면 성능이 크게 떨어지지 않아 중형차 이하 대부분의 승용차가 맥퍼슨 스트럿을 전륜 서스펜션으로 사용한다.<br/><br/><br/><br/>후륜 서스펜션에는 일체식의 일종인 토션빔과 독립식인 멀티링크 등이 많이 적용된다. 일체식 서스펜션은 좌우 바퀴가 축으로 연결되는데 구조가 단순해 고장이 적고 튼튼하며 공간을 적게 차지하고 가격도 싸다. 하지만 두 바퀴가 연결되어 있어 한쪽에 충격이 가해지면 반대편까지 영향을 받는다. 토션빔은 일체식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두 바퀴를 연결하는 부분이 비틀림 탄성, 즉 토션을 가진 빔에 의해 연결되어 있다. 주로 중·소형차에 많이 쓰인다. 반면 독립식인 멀티링크는 더블 위시본에서 V자 형태의 암을 두 개로 나눠 연결해 3개 이상의 연결점을 가진 서스펜션이다. 복합적인 충격도 잘 흡수하는 등 성능과 승차감이 우수해 고급차에 사용된다.<br/><br/><br/><br/>최근에는 보다 진화된 형태의 서스펜션도 등장하고 있다. 캐딜락이 적용하고 있는 마그네틱 라이드 컨트롤은 유체 속의 자성을 지닌 소립자가 자기장에 반응하는 원리를 이용해 초당 1000회 수준으로 도로의 굴절을 감지하고 충격을 흡수한다. BMW, 볼보 등이 플래그십(기함) 모델에 적용한 에어 서스펜션은 압축공기로 차체를 지지하는 만큼 진동이 적어 승차감이 우수하고 고속주행 시 안정감을 향상시킨다. 제네시스 EQ900에 적용된 제네시스 어댑티브 컨트롤 시스템은 고속선회나 장애물 긴급회피 상황에서도 정확한 서스펜션 감쇠력 제어기술을 통해 승차감을 유지해준다.<br/><br/><br/><br/> 김남석 기자 namdol

언론사: 문화일보-1-95.txt

제목: 이맹희 CJ 명예회장 2주기 추도식  
날짜: 20170814  
기자: 이민종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501.20170814192006001  
ID: 01100501.20170814192006001  
카테고리: 경제>산업\_기업  
본문: 고(故)이맹희 CJ그룹 명예회장 2주기 추도식이 14일 오전 경기 여주시 연라동 연하산 선산에서 열렸다. <br/><br/><br/><br/> CJ그룹에 따르면, 추도식에는 이재현 그룹 회장, 이미경 부회장, 손경식 회장 등 가족과 친인척, 그룹 주요 임원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올해 추도식에는 지난해 첫 추도식에 조동혁 한솔그룹 명예회장, 조동길 한속그룹 회장 등 범 삼성가에서 참석한 것과 달리 외부에서는 참석하지 않았다.<br/><br/><br/><br/> 특히 이 명예회장의 장남인 이 회장이 추도식에 처음 참석했다. 이 회장은 지난해 8월 12일에 특별사면됐으나 직후 열린 1주기 추도식에는 지병인 샤르코마리투스(CMT)와 만성신부전증 악화로 인해 참석하지 못했다. 이날 저녁에는 서울 중구 필동 CJ인재원에서 가족들만 참석하는 제사가 치러진다. <br/><br/><br/><br/> 이 명예회장은 지난 2015년 8월 중국에서 지병인 암으로 별세했다. 1931년 경남 의령에서 이병철 창업주의 장남으로 태어난 이 명예회장은 1962년 삼성화재의 전신인 안국화재에 입사한 뒤 1970년대 중반까지 삼성그룹의 요직을 거쳤다. <br/><br/><br/><br/> 추도식 후 이 회장은 경영진들과의 식사 자리를 통해 “<span class='quot0'>(삼성그룹 창업주인 이병철)선대회장님과 명예회장님께서 강조하신‘사업보국(事業報國·사업을 통해 나라를 지킴)’의 정신을 이어가야 한다</span>”고 말했다. 또 이 명예회장의 ‘좁은 땅 덩어리, 가난한 나라에서 이 땅의 경제인들은 고생이 많았지만, 그 길만이 우리의 살 길이어서 멈출 수 없다’는 철학도 재차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br/><br/><br/><br/> 건강이 호전되면서 지난 5월 수원 광교신도시 ‘CJ블로썸파크’ 개관식을 통해 약 4년 만에 경영에 공식 복귀한 이 회장은 추도식 참석에 이어 9월 18~20일에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리는 ‘케이콘(KCON) 2017 LA’현장 방문 등을 위해 조만간 미국으로 떠날 예정이다. <br/><br/><br/><br/>이민종 기자 horizon

언론사: 문화일보-1-96.txt

제목: <금융 라운지>‘기세당당건강보험’ 판매 개시  
날짜: 20170810  
기자: 김만용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501.20170810112006003  
ID: 01100501.20170810112006003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현대해상은 최근 각종 성인질환을 보장하고 중증으로 발전하면 보장 기간을 늘려주는 ‘기세당당건강보험’ 판매에 돌입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보험은 암, 뇌혈관·심장·간·호흡기·신장 질환, 당뇨병 등 7대 성인질환을 초기 발병부터 중증 진단, 치료관리까지 단계별로 보장한다. 발병 초기에 입원비와 수술비를 지급하고, 증상이 악화해 암,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증, 말기 간경화, 말기 폐질환, 말기 신부전증 등 6대 질병으로 진단 받으면 진단금을 제공하고 보장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해준다고 현대해상은 설명했다. 특히 연 만기 상품임에도 6대 중증 질병으로 진단 받으면 보험료를 추가로 납입하지 않아도 상해 사망, 질병 사망, 입원, 수술 등 10개 특약의 보험 기간을 80세까지 늘려준다. 최대 65세까지 가입이 가능하고 보험기간은 10·15·20년 만기로 선택할 수 있다. 보험료는 40세 남자 기준 20년 만기 가입 시 월 5만 원 수준이다. <br/><br/><br/><br/>김만용 기자 mykim

언론사: 문화일보-1-97.txt

제목: <윤승일 원장의 디톡스 푸드>칼륨·비타민B6 풍부… 肝 해독·골다공증·갱년기 우울증에 효과  
날짜: 2017080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501.20170809110005006  
ID: 01100501.20170809110005006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우엉<br/><br/><br/><br/>우엉(사진)에는 머리에서 발끝까지 오장육부 모든 부분에 효능을 갖는 성분이 많이 들어 있다. 주요 효능으로는 천연 신경안정제 역할을 하는가 하면 몸속 병균을 죽이는 살균작용, 장 속 유산균을 키워주는 기능과 간 해독과 항산화 기능을 통한 면역보호작용 등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하다. <br/><br/><br/><br/>우선 우엉에는 이눌린이란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장 속의 유산균 증식을 도와준다. 유산균 중에서 특히 비피도박테리아 생육에 유익한데 이 비피도균은 장내 유해균을 억제하면서 장의 연동운동을 활발히 해주고 면역력을 강화해준다. 특히 궤양성 대장염이나 과민성 대장증세 등으로 인한 설사와 복통, 가스, 복부팽만감 등에 효과적이다.<br/><br/><br/><br/>한 연구에 의하면 비피도균은 암을 활성화시키는 특정 효소를 억제하는 기능도 지녔다. 우엉의 악티제닌(ATG, arctigenin)이라고 하는 리그난 성분 역시 암세포 증식을 차단하기 때문에 암 예방에는 최적의 식품이라고 할 수 있다. <br/><br/><br/><br/>우엉은 또한 바나나만큼이나 칼륨이 풍부하다. 따라서 혈압이 높거나 짠 음식을 많이 먹는 사람들, 관절염과 골다공증이 있는 사람들에게 좋다. <br/><br/><br/><br/>또 우엉 속에는 비타민 B6가 적당히 들어 있다. 뇌신경을 보호하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며 우울증이나 불안증 등에 도움을 주는 영양제들을 자세히 보면 B6가 꼭 들어가 있는데 글루타메이트가 가바(GABA)로 전환될 때 필수적인 보조효소가 바로 B6이기 때문이다. 뇌 속에 충분한 가바 성분이 넘칠 때 우리는 마음 편안하게 자신감을 갖고 생활할 수 있다는 것이다.<br/><br/><br/><br/>우엉 속 비타민 B6는 또한 갱년기 여성이나 생리 전 증후군으로 인한 두통과 복통, 심리적 우울감, 푸석푸석한 느낌의 전신부종, 식은땀, 불면증 등도 해결해 준다. <br/><br/><br/><br/>이와 함께 몸속 단백질 중에서 메티오닌이란 아미노산이 시스테인으로 바뀌면서 세포 내 유전자의 정상적 활동을 돕는 ‘메틸레이션’이란 대사가 이뤄지는데 이때에도 비타민 B6는 엽산, 비타민 B12와 함께 꼭 필요한 성분이다. 혈액검사에서 호모시스테인 수치가 높게 나오는 사람의 경우 메틸레이션이 잘되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럴 경우 당연히 B6가 풍부한 우엉을 자주 먹어야 한다. <br/><br/><br/><br/>호모시스테인이 과다하면 혈관벽을 파괴시키고 심장병과 뇌졸중을 유발하기도 한다. 고지혈증이 없는데도 심장병이나 뇌졸중이 오는 큰 이유가 바로 호모시스테인 과다증 때문이다. <br/><br/><br/><br/>우엉 속엔 망간과 마그네슘, 비타민 C 또한 적당량이 들어 있어서 칼륨과 함께 골다공증 예방에도 도움을 준다. 한 임상연구에 의하면 우엉차 3잔을 매일 42일 동안 복용했을 때 대조군에 비해서 관절 속 염증을 나타내는 혈액검사 지표 수치가 현저히 낮아졌다는 보고도 있었다. 그 외에도 총항산화능력(TAC)과 과산화소거효소(SOD), 그리고 글루타티온 과산화효소(GPX)가 모두 향상됐다. <br/><br/><br/><br/>항산화 능력과 글루타티온의 상승은 간 해독 대사에도 도움을 준다. 따라서 과음하거나 중금속이나 유해환경 등의 독소에 장기간 노출되었을 때도 우엉은 우리의 몸을 정화해주는 탁월한 기능을 갖는다. 브라질 연구팀의 우엉에 대한 실험은 곰팡이균인 칸디다에 관한 효능 시험이었는데 곰팡이균에 대한 항균작용 역시 탁월했음을 보여주었다.<br/><br/><br/><br/>콩팥 질환에 대한 한 연구에서 우엉 속 악티제닌 성분은 염증 유발물질을 억제함으로써 콩팥을 보호해주는 작용을 했다. 소변을 자주 보고 몸이 부으면서 옆구리에 통증을 호소하고 콩팥의 여과기능이 약한 것이 혈액과 소변검사를 통해서 확인된다면 우엉을 상복해야 한다. 한편 한방에서는 우엉씨와 우엉차가 감기와 인후통에 특히 좋다고 추천하기도 한다. <br/><br/><br/><br/> 빙빙한의원 원장(한의기능영양학회장)

언론사: 문화일보-1-98.txt

제목: 무궁화동산서 세대간 화합… 11일 ‘나라꽃 콘서트’ 개최  
날짜: 20170808  
기자: 신선종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501.20170808141006016  
ID: 01100501.20170808141006016  
카테고리: 문화>전시\_공연  
본문: 서울 영등포구는 오는 11일 오후 여의도 한강공원 서울마리나 앞 무궁화동산에서 나라꽃 ‘무궁화’를 소재로 한 콘서트를 연다고 8일 밝혔다.<br/><br/><br/><br/>구는 이날 콘서트를 청소년부터 어르신까지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세대 간 화합과 소통을 위한 자리로 만든다. 이날 콘서트 첫 무대는 선유중학교 국악동아리인 ‘가온해’가 모둠북 연주로 나라꽃 콘서트를 알리는 웅장한 울림을 전한다. 이어 여의동 주민인 한충길·조승자 씨 부부의 ‘무궁화 꽃이 만발한 동산에 서서’라는 시 낭송, 영등포50플러스센터 공연동아리 ‘청춘 아코디언’이 아코디언 연주를 선보인다. 또 암을 이겨내고 활동을 재개한 가수 진성이 보릿고개, 안동역에서 등을 부른다. 콘서트가 열리는 무궁화동산은 구가 여의도 한강공원에 4080㎡ 규모에 2012년부터 7차례에 걸쳐 무궁화 4100그루를 심었다.조길형 영등포구청장은“<span class='quot0'>우리나라의 꽃인 무궁화의 의미를 널리 알리기 위해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이번 콘서트를 개최하게 됐다</span>”고 말했다.<br/><br/><br/><br/>신선종 기자 hanuli

언론사: 문화일보-1-99.txt

제목: SC제일은행, 은행권 첫 모바일 전용 대출상환보장보험 출시  
날짜: 20170807  
기자: 황혜진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501.20170807151006003  
ID: 01100501.20170807151006003  
카테고리: 경제>유통  
본문: SC제일은행은 BNP파리바 카디프생명과 신용생명보험에 대한 업무협약을 맺고 7일부터 SC제일은행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무배당 더세이프 대출안심보험’을 판매한다고 이날 밝혔다.<br/><br/><br/><br/>은행권 최초의 모바일 전용 대출상환보장보험인 ‘무배당 더세이프 대출안심보험’은 대출받은 고객이 대출 기간 중 사망하거나 80% 이상의 고도장해 또는 암,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 진단 등으로 인해 대출금 상환이 어려워지면 보험회사가 고객의 잔여 대출금을 대신 상환해 주는 보험상품이다. △기본형 △암 보장형 △3대 질병 보장형 중 선택할 수 있다.<br/><br/><br/><br/>가입 대상은 SC제일은행의 신용대출,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자금대출 상품 이용고객으로 지점을 방문하지 않고도 스마트폰 모바일 앱을 통해 편리하게 가입할 수 있다.<br/><br/><br/><br/>SC제일은행은 이번 출시로 지난해 9월 모바일 전용 보험상품 판매를 개시한 이래 총 7종의 모바일 전용 저축보험과 보장성보험을 취급하게 됐다. 디지털 방카슈랑스(은행에서 보험판매) 시장의 선두주자가 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br/><br/><br/><br/>장호준 SC제일은행 자산관리본부 전무는 “<span class='quot0'>불의의 사고나 질병으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으면서 동시에 대출금 상환에 대한 경제적 부담까지 겹친다면 그보다 더 힘든 일은 없다</span>”며 “<span class='quot0'>SC제일은행 대출 고객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로 저렴한 보험료와 편리한 가입절차가 장점인 모바일 대출상환보장보험을 출시하게 됐다</span>”고 말했다.<br/><br/><br/><br/>이번 상품 출시를 기념해 SC제일은행과 BNP파리바 카디프생명은 오는 10월 31일까지 무배당 더세이프 대출안심보험을 포함해 BNP파리바 카디프생명에서 판매하는 신용생명보험에 월 보험료 7000원 이상 가입하는 선착순 1000명의 고객에게 여행용 파우치 세트를 증정한다. <br/><br/><br/><br/>황혜진 기자 best

언론사: 문화일보-1-100.txt

제목: 대장 용종 식별 센서 개발  
날짜: 2017080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501.20170804143006014  
ID: 01100501.20170804143006014  
카테고리: 지역>대구  
본문: 대구한의대는 박종필(사진) 교수 연구팀이 내시경 없이 미량의 혈액만을 이용해 대장 내 용종(폴립) 존재 여부는 물론이고 용종이 암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바이오센서를 개발했다고 4일 밝혔다.

언론사: 문화일보-1-101.txt

제목: <100세 시대 ‘식·의약 안전’>‘꿈의 치료제’ 불리지만… 1회 500만원 · 생명윤리가 ‘걸림돌’  
날짜: 20170802  
기자: 이해완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501.20170802151006021  
ID: 01100501.20170802151006021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 (40) 세포·유전자 치료제의 明暗<br/><br/><br/><br/>세포 조작·유전자 변형 통해<br/><br/>질병의 근본원인 뿌리 뽑아<br/><br/><br/><br/>2014년 4兆 → 2026년 21兆<br/><br/>줄기세포 시장 12년새 5배↑<br/><br/>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주목<br/><br/><br/><br/>안전성·유전자 편집 등 우려<br/><br/>과도한 규제 완화도 과제로<br/><br/><br/><br/>오랫동안 인류는 질병에 걸리면 주변에 흔한 식물들을 통해 민간요법 중심으로 치료해왔다. 1610년 허준이 지은 의서 ‘동의보감’이 대표적인 예다. 그러다 질병 치료에 획기적인 전환이 19세기 말에 이뤄졌다. 진통·해열 치료에 사용하던 버드나무 껍질에서 추출·합성한 ‘아스피린’이 1897년 개발되면서 합성의약품 대량 생산의 길이 열렸다. 20세기 생명공학 기술의 발전으로 인간은 우리 몸의 가장 작은 단위인 ‘세포’와 ‘유전자’를 분석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인간에게 병이 생기는 근본 원인을 발견하고, ‘생체의약품’을 통해 병의 근본을 치료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현재 생체의약품은 ‘세포치료제’와 ‘유전자치료제’와 같은 환자 맞춤형 의약품으로 발전해 인간의 무병장수에 도전하고 있다.<br/><br/><br/><br/>◇무병장수를 책임질 세포·유전자치료제 =‘꿈의 치료제’로 불리는 세포치료제와 유전자치료제는 세포를 조작하거나 유전자를 변형해 질병의 근본 원인부터 치료한다는 측면에서 이상적인 치료법으로 주목받고 있다. 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 첨단 의약품에는 세포치료제, 유전자치료제, 조직공학제제가 포함된다. <br/><br/><br/><br/>이 중 국내에서는 세포치료제와 유전자치료제가 허가를 받아 사용이 가능하다. 기관의 기능을 대체하거나 회복시키기 위한 새로운 기관 또는 조직을 만드는 조직공학제제는 ‘인간복제’ 문제로 일어날 수 있는 윤리적·사회적 문제로 인해 상용화되지 못하고 있다.<br/><br/><br/><br/>조직과 기관의 기능을 회복시키기 위해 세포를 이용하는 ‘세포치료제’는 세포의 종류에 따라 ‘체세포 치료제’와 ‘줄기세포 치료제’로 나뉜다. ‘체세포 치료제’는 피부, 연골, 심장, 뼈, 신경, 근육 세포 등으로 분화가 완료된 세포를 이용해 인체 조직을 재생하거나 인체의 면역 세포를 이용해 암을 치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줄기세포 치료제’는 특정한 세포로 분화가 진행되지 않은 채 유지되다가 필요할 경우 신경·혈액·연골 등 몸을 구성하는 모든 종류의 세포로 분화할 가능성을 가진 세포를 이용해 제조하는 의약품이다. 우리나라 최초 세포치료제는 2001년 개발된 세원셀론텍의 ‘콘드론’(자가연골 세포치료제)이다.<br/><br/><br/><br/>세포치료제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유전자치료제’는 잘못된 유전자를 정상 유전자로 바꾸거나 치료 효과가 있는 유전자를 환부에 투입해 증상을 고치는 의약품이다. 2014년 11월 네덜란드 바이오기업 ‘유니큐어’가 개발한 혈액장애 유전자 치료제 ‘글리베라’가 독일에서 세계 최초로 허가를 받았다. 치료 비용은 110만 유로(약 13억 원)에 이른다. 그만큼 부가가치가 높아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선진국뿐 아니라 중국까지 치료제 개발에 나서고 있다.<br/><br/><br/><br/>◇미래 먹거리 찾는다 = 우리나라에서는 코오롱생명과학이 지난달 12일 국내 최초의 유전자치료제인 ‘인보사’에 대한 판매허가를 얻어 다음 달 출시할 예정이다. 한국은 세계에서 9번째로 유전자 치료제를 내놓는 국가가 된다. 코오롱생명과학이 19년에 걸쳐 개발에 성공한 ‘인보사’는 약물치료나 물리치료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지속 되는 중등도 무릎 골관절염 환자의 치료에 사용할 수 있다.<br/><br/><br/><br/>허가를 앞둔 또 다른 유전자 치료제로는 신라젠이 개발 중인 간암 치료제 ‘펙사벡’이 있다. 현재 3상 임상시험을 진행 중이다. 천연두 백신에 사용했던 벡시니아 바이러스의 유전자를 변형하고, 암세포에만 증식하도록 만든 면역항암제다. 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에 따르면, 세계 유전자치료제 시장 규모는 7억9400만 달러(약 8878억 원)로 앞으로 더욱 커질 전망이다.<br/><br/><br/><br/>유전자치료제 분야가 이제 몸집을 키워나가는 단계라면, 세포치료제 분야는 줄기세포를 중심으로 그 규모가 천문학적으로 커졌다. 미국 학술계는 세계 줄기세포 시장규모를 2014년 36억4500만 달러(약 4조736억 원)에서 2026년 194억5100만 달러(약 21조7345억 원)로 12년 사이 5배가량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1년 파미셀이 세계 최초로 개발한 자가줄기세포 치료제 ‘하티셀그램-AMI’가 국내 1호 줄기세포치료제 허가를 획득하면서 포문을 열었다. 하지만, 우리나라 줄기세포치료 시장은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현행법상 다 자란 세포를 이용하는 ‘성체줄기세포’로만 의약품 개발이 가능한데, 이는 배아줄기세포가 윤리 문제 등으로 개발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br/><br/><br/><br/>◇치료 비용과 과도한 규제 극복해야 = 업계 관계자들은 세계시장에서 우리 치료제가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가격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가령 1∼2년에 한 번씩 접종해야 하는 ‘인보사’는 1회 접종에 400만∼500만 원이 책정될 전망이다. 만약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면 환자는 약값의 30%만 내면 되기 때문에 100만 원대로 부담이 줄어든다. 고비용 문제와 함께 과도한 규제도 풀어야 할 과제다. 현행법에는 세포·유전자치료제 연구를 위해서는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과 ‘치료법이 없을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아직 유전자 치료에 대한 안전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고, ‘유전자 편집’ 등으로 이어질 경우 생명 윤리에 어긋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br/><br/><br/><br/> 이해완 기자 parasa

언론사: 문화일보-1-102.txt

제목: 흥국화재 ‘무배당 유병자를 위한 보장보험’ 인기몰이  
날짜: 20170728  
기자: 김충남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501.20170728152005001  
ID: 01100501.20170728152005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70세 어르신도 뇌졸중 진단비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 가능<br/><br/>뇌졸중 진단비, 비갱신으로 최대 1000만원 보장<br/><br/><br/><br/>지난 6월 새롭게 출시된 흥국화재의 ‘무배당 유병자를 위한 보장보험’이 소비자 호평 속에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br/><br/><br/><br/>그동안 보험 가입이 어려웠던 유병자나 고연령층 소비자의 가입 문턱을 대폭 낮춰 간편하고 편리하게 가입할 수 있도록 설계된 덕이다.<br/><br/><br/><br/>흥국화재의 무배당 유병자를 위한 보장보험은 과거 병력이 있어도 간단한 조건에 맞으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가입 조건은 3개월 이내 입원, 수술, 추가검사 필요 소견이 없고, 2년 이내 상해, 질병으로 인한 입원, 수술이 없으면 된다. 또 5년 이내 암, 협심증, 심근경색, 간경화증, 뇌졸중증, 투석 중인 만성 신장질환에 대한 진단, 입원, 수술이 없으면 유병자 심사형 1종에 가입할 수 있다.<br/><br/><br/><br/>가입 시 ‘뇌졸중 진단비’ 특약을 선택하면 비갱신으로 최대 1000만 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도 있다. 일반암(대장점막내암 포함), 뇌출혈 진단비 최대 3000만 원, 유사암 진단비 최대 300만 원, 급성심근경색증 진단비 최대 2000만 원, 상해수술 50만 원, 질병수술 30만 원, 상해 및 질병 입원 일당 2만 원(첫날부터) 등도 보장한다.<br/><br/><br/><br/>질병 보장뿐 아니라 자동차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벌금, 변호사 선임 비용, 교통사고 합의 비용은 물론 일상생활 중 발생하는 위험 손해에 대해서도 보장한다. 가입 연령은 40~75세로, 고객특성에 맞는 심사 유형에 따라 ‘유병자 심사형 1종’과 ‘일반심사형 2종’으로 선택 가입이 가능하다. <br/><br/><br/><br/>김충남 기자 utopian21@

언론사: 문화일보-1-103.txt

제목: 차병원, 바이오벤처와 여성암 치료백신 공동연구  
날짜: 20170726  
기자: 이용권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501.20170726143006018  
ID: 01100501.20170726143006018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차의과학대 분당 차병원(병원장 김동익)은 주식회사 바이오리더스(대표이사 박영철)와 ‘차세대 여성암 치료백신 공동 연구개발 계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양 기관은 이날 계약을 통해 뮤코맥스(MucoMax®)의 기술을 기반으로 경구 및 주사용 여성암 치료백신 공동개발, 면역 항암제 임상시험 지원, 의료시장 및 사업화 등을 진행하기로 협의했다. 뮤코맥스는 암에 특이적인 항원을 유산균 균체 표면에 발현시킨 뒤 경구 투여해 치료 효과를 내는 신약개발 플랫폼 기술이다.<br/><br/><br/><br/>이번 계약으로 분당 차병원은 유방암, 난소암 등 여성암 환자에 특이적인 바이오마커를 기반으로 한 항원 발굴과 비임상 및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바이오리더스는 분당 차병원에서 발굴한 바이오마커를 뮤코맥스 기술과 결합한 면역 항암제를 개발할 예정이다.<br/><br/><br/><br/>김동익 분당 차병원 원장은 “<span class='quot0'>바이오리더스는 유산균을 이용한 획기적인 면역 항암치료 기술로 업계에서 주목 받고 있는 역량 있는 기업</span>”이라며 “<span class='quot0'>이번 공동 연구가 치료제 개발의 성공으로 이어져 여성암 환자에게 치료 선택의 폭을 넓혀줄 수 있기를 바란다</span>”고 전했다. <br/><br/><br/><br/>한편, 면역항암제 시장은 2018년까지 연평균 14.7%의 높은 성장과 679억 달러의 시장규모가 전망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단일클론항체 기술, 유전자 치료제 기술, 세포 치료제 기술 등 다양한 첨단 기술이 적용돼 신약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br/><br/><br/><br/>이용권 기자 freeuse@

언론사: 문화일보-1-104.txt

제목: <하상도 교수의 식품 오디세이>‘신비의 맛’ 토마토케첩의 두 얼굴  
날짜: 2017072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501.20170725144006010  
ID: 01100501.20170725144006010  
카테고리: 문화>생활  
본문: 토마토케첩(Ketchup)이 들어가지 않는 음식이 없다. 밥투정하는 아이들에게 숟가락을 들게 만든다는 새콤달콤한 신비의 맛으로 특히 패스트푸드나 육류, 튀김요리에는 필수다. 토마토의 건강효과는 모두 알고 있으나 케첩은 첨가물이 들어간 가공식품이고 달콤한 맛에 불안해하는 사람이 많다고 한다. <br/><br/><br/><br/>토마토케첩은 잘 익은 토마토를 으깨어 껍질과 씨 등을 없앤 다음 과육과 액즙을 졸여 농축한 것으로 고형분 함량이 24% 이상인 것을 말한다. 토마토 특유의 신맛에 단맛의 설탕과 짠맛의 소금, 식초 등을 첨가해 만든다. 토마토는 상온에 보관하면 금방 물러지고 곰팡이와 세균도 증식해 저장성이 약해 빨리 상하는 과채류다. 인류는 수확한 토마토를 오랫동안 먹기 위해 케첩을 만들어 먹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케첩은 산도가 높아 상온에서도 잘 상하지 않고 냉장보관에서는 유통기한이 6개월이나 되기 때문이다. <br/><br/><br/><br/>17세기 중국 광둥(廣東)성 지역과 대만 사람들은 인근 해역에서 잡고 남은 생선을 보관하기 위해 소금, 식초, 향신료 등을 넣고 톡 쏘는 맛을 내는 소스를 만들었다고 한다. 생선의 젓갈, 젓국 형태의 이 소스는 케치압(Ke-tsiap), 케찹(Ke-chap)이라 불리며, 말레이반도로 전파됐다. 18세기 초 싱가포르 상인들이 영국에 판매하기 시작해 유럽으로 전파됐으며 토마토를 포함한 영국의 다양한 식재료와 어우러져 토마토케첩이 완성됐다고 한다.<br/><br/><br/><br/>그러나 이 중국의 토속음식을 상품화해 돈을 번 것은 중국인들이 아니라 바로 미국인이었다. 미국 식품회사 하인즈가 1876년 세계 최초로 케첩을 제품화했다. 어류 대신 토마토 과육을 넣고 설탕과 소금, 식초 등으로 맛을 낸 현재의 토마토케첩을 탄생시킨 것인데, 우리나라에는 개화기 때 소개됐고 1971년부터 오뚜기에서 상품화하기 시작했다.<br/><br/><br/><br/>케첩용 토마토는 적색 계통의 펙틴질이 많은 것이 사용된다. 완숙한 것일수록 펙틴질과 색소함량이 높아 좋은 제품이 된다고 한다. 원료 토마토를 으깨어 즙을 걸러내고 설탕과 소금을 넣은 다음 각종 향신료와 식초, 양파, 마늘 등을 넣어 저으면서 끓여 만든다. <br/><br/><br/><br/>토마토는 리코펜을 다량 함유해 노화의 원인인 활성산소를 억제하며, 유방암과 전립선암, 소화기계통의 암을 예방하는 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게다가 리코펜은 열에 강하고 지용성이기 때문에 토마토케첩을 만드는 가열공정 중에도 파괴되지 않으며, 농축시키기 때문에 리코펜 함유량이 매우 높다. <br/><br/><br/><br/>게다가 토마토케첩은 수소이온농도(pH)가 낮아 산성이고, 수분활성도도 낮아 미생물에 의한 변질이나 안전성 문제는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 다만 설탕, 소금 등 첨가물을 사용하므로 과량 섭취 시 나트륨과 당의 과잉섭취 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있다. 그러나 토마토케첩은 밥처럼 먹는 주식이 아니라 식사할 때 살짝 발라먹는 부재료 첨가물일 뿐이다. <br/><br/><br/><br/>세계보건기구(WHO)에서 제안하는 나트륨의 일일권장량은 2g으로 소금 5g에 해당하는 양이다. 토마토케첩에는 100g당 1.3g의 나트륨이 들어 있어 하루 150g의 토마토케첩을 매일 먹어야 나트륨을 초과 섭취하게 되는데, 토마토케첩을 150g씩 매일 먹는 사람은 거의 없다. 따라서 토마토케첩을 통한 나트륨 과잉섭취 문제는 신경 쓰지 않아도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br/><br/><br/><br/>중앙대 식품공학부 교수

언론사: 문화일보-1-105.txt

제목: 배우 오현경, 아내 잃은 슬픔 딛고 다시 무대로  
날짜: 20170724  
기자: 인지현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501.20170724150006007  
ID: 01100501.20170724150006007  
카테고리: 문화>방송\_연예  
본문: 28일 ‘늘푸른 연극제’ 개막<br/><br/><br/><br/> 연극계 원로 배우 오현경(81·사진)이 아내를 잃은 슬픔을 딛고 오는 28일부터 대학로 무대에 다시 선다. <br/><br/><br/><br/>한국연극협회가 주최·주관하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후원하는 ‘늘푸른 연극제’는 이강백 작, 이성열 연출, 오현경 출연의 ‘봄날’을 28일 개막하는 연극제 첫 공연으로 올린다고 밝혔다. <br/><br/><br/><br/>봄날은 오현경에게 2009년 대한민국연극대상 남자연기상을 안겨준 대표작으로, 이 작품에서 오현경은 절대권력을 지닌 탐욕스러운 아버지로 등장한다. 오현경이 무대에 서는 것은 지난 6월 16일 아내이자 연기인생의 동반자였던 배우 윤소정과 사별한 후 처음이다. <br/><br/><br/><br/>오현경은 1994년부터 식도암과 위암으로 두 차례 암 투병을 했으며 아내의 간호로 힘든 시기를 이겨냈다고 밝힌 바 있다. <br/><br/><br/><br/>한국 연극사에 족적을 남긴 원로 연극인들이 주축이 된 늘푸른 연극제에는 올해 오현경 외에도 연출 김도훈(75)·작가 노경식(79)·배우 이호재(76)가 참여한다. <br/><br/><br/><br/>지난해 ‘원로연극제’에서 이름을 바꾼 늘푸른 연극제는 8월 27일까지 서울 종로구 아르코예술극장과 대학로예술극장에서 이어지며 오랜 세월 갈고닦은 대가들의 무대를 선보인다. <br/><br/><br/><br/> 인지현 기자 loveofall

언론사: 문화일보-1-106.txt

제목: <금융 라운지>癌진단 보장금액 업계 최고로 강화  
날짜: 20170720  
기자: 김만용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501.20170720110005004  
ID: 01100501.20170720110005004  
카테고리: 경제>산업\_기업  
본문: 메리츠화재는 암 진단 시 보장금액을 대폭 강화한 ‘(무) 메리츠 올바른 암보험 1707’을 출시했다. 이 상품은 고객의 수요가 높은 암보험을 전화로 쉽게 가입할 수 있도록 해 가입자의 편의성을 증대했다고 메리츠화재 측은 설명했다. 또한, 업계 최고 수준으로 암 진단 보장 금액을 강화했다고 강조했다.<br/><br/><br/><br/>일반 암 진단 시 최대 1억 원, 소액암(유방암, 자궁암, 방광암, 전립선암) 진단 시 최대 5000만 원, 갑상선암으로 대표되는 유사 암은 최대 2000만 원을 지급한다. <br/><br/><br/><br/>보험가입은 0세부터 최대 60세까지이며, 10년 단위 갱신을 통해 최대 100세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보험료는 일반 암으로 1억 원을 가입하면 40세 남성 기준으로 월 2만6000원 수준이다.<br/><br/><br/><br/>암으로 진단받거나 상해 또는 질병으로 80% 이상 후유장해가 발생하면 보험료가 면제된다. 암 수술비, 암 직접치료 입원 일당, 항암 방사선 약물치료비 등 다양한 암 치료 관련 보장도 추가할 수 있다. <br/><br/><br/><br/>김만용 기자 mykim

언론사: 문화일보-1-107.txt

제목: <윤승일 원장의 디톡스 푸드>양파, 혈관속 끈끈하고 탁한 혈액 맑게… 천식·기침 해소에 탁월  
날짜: 2017071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501.20170719112005002  
ID: 01100501.20170719112005002  
카테고리: 문화>생활  
본문: 양파를 까고 앉아 있으면 결국 남는 것은 눈물뿐이다. 왜냐하면 양파 속 황 성분인 알릴 프로필 다이설파이드(allyl propyl disulfide)가 껍질을 벗길 때마다 냉정할 만큼 우리의 눈물을 쏙 빼내니까 말이다. 매운 냄새에 쉽게 눈물을 흘리는 분이라면 양파를 아주 차가운 물 속에 담근 후에 서서히 껍질을 벗기라고 권하고 싶다.<br/><br/><br/><br/>사실 처음 음식을 배우고 요리를 하게 될 때 양파만큼 다양하게 요리 재료로 들어가는 것도 없다. 라면부터 김치, 카레, 찌개, 부침, 냉면 육수 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식재료로 가장 탁월한 것이 양파다. 게다가 영양학적 가치 또한 출중하다 보니 양파는 골프에서 홀대받는 그 ‘양파’가 아닌 음식의 ‘홀인원’이 아닌가 싶다.<br/><br/><br/><br/>89%가 물로 채워진 양파에는 약간의 탄수화물이 있어서 달짝지근한 맛이 난다. 건강한 수용성 식이섬유인 프룩탄(fructan)도 풍부해 장내 유산균의 활성화를 돕기 때문에 뷰티레이트(butyrate)와 같은 짧은사슬지방산 합성이 활발해지면서 장 속의 염증과 대장암 예방에도 일조를 한다. <br/><br/><br/><br/>다만 프룩탄은 체질에 따라 소화가 안 될 수 있고 특히 과민성대장증후군이 있거나 평소 음식에 민감하고 만성 위장장애가 있는 분은 섭취에 주의해야 한다. 속이 더부룩해지면서 복부팽만감이나 변비와 설사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br/><br/><br/><br/>양파를 자르거나 씹을 때 양파 속 효소가 물리적 자극을 받으면 여러 가지 유익한 효과를 만들어낸다. 우선 알리움(allium)과 알릴 다이설파이드(allyl disulfide)가 알리신(allicin)으로 바뀌면서 항암작용과 혈당 조절작용을 하고, 혈관 벽 속의 산화질소를 자극해서 혈관을 넓히고 혈액순환을 도와 혈압을 낮춰준다. 또 혈전을 녹일 뿐 아니라 심혈관질환 예방과 함께 말초순환장애를 돕는다. <br/><br/><br/><br/>‘프렌치 패러독스’라는 말이 있다. 동물성 지방 등의 고칼로리 음식과 빵을 즐기는 프랑스인들에게 의외로 심혈관질환이 많지 않은 것을 두고 하는 말이다. 이에 대해 와인 덕분이라고 말하는 이들이 많지만 실제로는 다양한 양파를 즐겨 먹는 데서 그 이유를 찾아야 할 것 같다. 왜냐 하면 양파의 황 성분은 혈관 속 끈끈하고 탁한 혈액을 맑게 해서 심장순환을 원활히 해주기 때문이다. <br/><br/><br/><br/>양파 속엔 또 다른 플라보노이드 항산화물질인 퀘르세틴(quercetin)이 풍부한데 사과와 녹차, 레드와인, 자몽 속에도 함유돼 있어서 강력한 항암 작용과 함께 내추럴 항히스타민 작용을 해 알레르기 비염과 피부질환에 도움을 준다. 퀘르세틴은 히스타민을 억제하는 작용으로 인해서 감기를 자주 앓는 아이들이나 어르신들에게 도움을 준다. 퀘르세틴이 풍부한 양파를 늘 가정에 준비해 두면서 감기나 비염, 기침, 피부발진 등에 두루두루 민간요법으로 활용할 수 있다. 퀘르세틴은 또한 면역세포의 균형에 관여해서 알레르기나 천식, 기침 등의 해소에 도움을 준다.<br/><br/><br/><br/>양파가 더욱 놀라운 것은 강력한 항암작용을 갖는다는 것이다. 양파를 많이 먹을수록 암 발생 위험이 줄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특히 간암과 대장암, 신장암, 전립선암, 유방암, 난소암과 자궁암이 그렇다. 퀘르세틴과 안토시아닌 외에도 양파에 들어있는 황 성분 중에서 시스테인(allycysteine, methylcysteine)과 오니오닌 A(onionin A) 성분들이 항암작용과 함께 간 해독 작용을 한다. <br/><br/><br/><br/>양파의 비타민C 또한 면역력 보호와 항산화작용을 톡톡히 해주고 있고 엽산과 비타민B6는 함께 작용해 호모시스테인이 과다해서 오는 심혈관질환을 예방해준다. 빙빙한의원 원장(한의기능영양학회장)

언론사: 문화일보-1-108.txt

제목: ‘의족 마라토너’ 화이트헤드, 2관왕 도전  
날짜: 20170714  
기자: 조성진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501.20170714152005001  
ID: 01100501.20170714152005001  
카테고리: 국제>유럽\_EU  
본문: 장애인 마라톤·단거리 ‘제왕’<br/><br/>100m·200m 정상 등극 별러<br/><br/>200m우승땐 세계선수권 4연패<br/><br/><br/><br/>영국의 리처드 화이트헤드(사진)는 ‘특이체질’이다. 장애인 육상 마라톤과 단거리에서 세계 정상에 오를 만큼 탁월한 운동감각을 지녔다.<br/><br/><br/><br/>화이트헤드는 마라톤으로 육상에 입문했다. 2010년 시카고마라톤에서 2시간 42분 52초의 장애인 마라톤 세계신기록을 경신하며 정상에 올랐고, 같은해 하프 마라톤에서도 1분 14초 59의 세계신기록을 세웠다. <br/><br/><br/><br/>2013년에는 42일 동안 영국 14개 도시를 돌면서 무려 977마일(1572㎞)을 달려 10만5000파운드(당시 환율 약 1억8000만 원)의 암·장해 구호기금을 마련했다.<br/><br/><br/><br/>화이트헤드가 단거리로 전업한 건 패럴림픽에 출전하기 위해서다. 그는 조국 영국에서 열린 2012 런던패럴림픽에 마라톤 종목이 포함되지 않자 30대 중반의 나이에 단거리에 뛰어들었고, 마라톤과 200m에서 모두 세계기록을 보유하는 성과를 거뒀다.<br/><br/><br/><br/>화이트헤드는 태어날 때부터 무릎 아래쪽이 없어 장애등급 T42로 분류된다. T42는 절단 및 기타 장애 부문에서도 장애 정도가 가장 높은 등급이다. 200m에 처음 도전한 2011년에는 25초대였으나 지난해부터는 23초대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23초 01의 세계신기록을 작성했다. 런던패럴림픽과 2016 리우데자네이루패럴림픽에서 200m를 연이어 제패했고, 리우패럴림픽에서는 100m 은메달도 목에 걸었다.<br/><br/><br/><br/>화이트헤드의 다음 목표는 15일부터 영국 런던에서 열리는 세계장애인육상선수권대회. 20일 41번째 생일을 맞이하는 화이트헤드는 100m와 200m 2관왕을 노린다. 200m에서 1위에 오르면 세계선수권 4연패를 달성하게 된다. <br/><br/><br/><br/>화이트헤드는 영국 BBC와의 인터뷰에서 “<span class='quot0'>세계선수권 시상대에 다시 한 번 오를 것</span>”이라며 “<span class='quot0'>내가 달리는 걸 보면서 희망을 가지기를 바란다</span>”고 말했다.<br/><br/><br/><br/> 조성진 기자 threemen

언론사: 문화일보-1-109.txt

제목: 수원대 브레인바이오센터장  
날짜: 2017071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501.20170713154006007  
ID: 01100501.20170713154006007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수원대(총장 이인수)는 브레인바이오센터장으로 세계적인 뇌과학자 조장희(사진) 박사를 임명했다고 11일 밝혔다. 수원대브레인바이오센터는 뇌과학, 인공지능, 바이오 분야 연구기관이다. 조 신임 센터장은 양전자방출단층촬영(PET) 개발자로, 그가 개발한 PET는 암과 파킨슨병, 알츠하이머 등의 질병을 조기 발견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언론사: 문화일보-1-110.txt

제목: ‘맛있는 제주 만들기’ 18호점 개장  
날짜: 20170713  
기자: 유현진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501.20170713151006001  
ID: 01100501.20170713151006001  
카테고리: 지역>제주  
본문: 호텔신라가 제주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상생 프로젝트 ‘맛있는 제주만들기’ 18호점이 개장했다.<br/><br/><br/><br/>호텔신라는 13일 제주시 구좌읍 소재의 ‘맛있는 제주만들기’ 18호점이 △메뉴 조리법 △손님 응대 서비스에 대한 컨설팅과 주방 설비 지원 등을 받아 ‘세평맛집’이라는 새로운 이름과 함께 ‘맛있는 제주만들기’ 식당으로 재개장했다고 밝혔다.<br/><br/><br/><br/>세평맛집 사장 이명성(59) 씨는 2011년부터 해물짬뽕 등을 주메뉴로 하는 식당을 운영했지만, 일 평균 10만 원 정도의 매출로 어려움을 겪었고 아내의 암 판정으로 생활 형편도 어려워졌다. 호텔신라는 차별화된 음식 메뉴를 개발해 노하우를 전수하고, 시설물을 전면 교체하는 등 식당 환경도 대폭 개선했다. 세평고기국수, 통문어 흑돈샤부 등에 구좌 당근 등 제주 지역 식자재를 활용한 메뉴를 개발했다. <br/><br/><br/><br/>유현진 기자 cworange

언론사: 문화일보-1-111.txt

제목: ‘순국선열 정신 받들자’… 추모행사 잇달아 여는 강북구  
날짜: 20170713  
기자: 노기섭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501.20170713144006001  
ID: 01100501.20170713144006001  
카테고리: 문화>전시\_공연  
본문: 내일 이준 열사 서거 110주기 <br/><br/>상산 김도연 기념 학술강연도<br/><br/><br/><br/>서울 강북구가 독립운동을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을 기리는 행사를 잇달아 연다.<br/><br/><br/><br/>구는 ‘헤이그 특사’ 이준 열사의 서거 110주기를 맞아 오는 14일 오전 10시 30분 수유동 묘역에서 추모행사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행사엔 박겸수 구청장과 피우진 국가보훈처장, 로디 엠브레흐츠 주한 네덜란드 대사 등이 참석한다. 피우진 처장의 추념사에 이어 일성여중·고등학교 합창단의 추념가, 군악대의 독립군가 연주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추모 글쓰기 대회 시상식도 마련된다. 이준 열사는 1907년 고종 황제의 특사로 이상설, 이위종 등과 함께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평화회의에 참석해 일제의 침략 사실을 폭로하고 을사조약이 무효임을 주장하려 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한 채 같은 해 7월 14일 순국했다. 이준 열사의 유해는 순국 후 56년 만인 1963년 헤이그에서 돌아와 수유동 북한산 자락에 안장됐다.<br/><br/><br/><br/>19일 구청 대강당에선 독립운동가인 상산 김도연(1894∼1967) 선생을 기리는 학술 강연회가 열린다. ‘2·8독립선언과 청년대표 김도연’ ‘조선어학회 사건과 김도연’ ‘광복 후 정치활동’ 등 관련 논문 3편이 발표되고 선생의 업적을 살펴보는 시간이 마련된다. <br/><br/><br/><br/>김도연 선생은 1919년 2·8독립선언 당시 대표 11명의 일원이었고 1942년 ‘조선어학회’ 사건에 연루돼 함흥형무소에서 2년간 감옥살이를 했다.<br/><br/><br/><br/>박겸수 구청장은 “<span class='quot0'>강북구엔 근현대사기념관과 순국선열 묘역 등 우리나라 근현대사의 명과 암을 살펴볼 수 있는 곳이 많다</span>”며 “<span class='quot0'>순국선열의 숭고한 애국정신을 널리 알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span>”고 말했다. <br/><br/><br/><br/>노기섭 기자 mac4g

언론사: 문화일보-1-112.txt

제목: 암 환자들 주변 ‘사회적 지지’에 더 민감  
날짜: 20170712  
기자: 이용권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501.20170712150006001  
ID: 01100501.20170712150006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암 환자들은 건강한 사람보다 주변 사람의 관심과 도움을 뜻하는 ‘사회적 지지’에 더 예민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사회적 지지도가 낮으면 일반인보다 더 우울해 하고, 삶의 질도 떨어졌다.<br/><br/><br/><br/>신동욱 삼성서울병원 교수와 박종혁 충북대병원 교수팀은 암 환자 1818명과 일반인 2000명을 대상으로 사회적 지지도와 우울감의 상관관계를 분석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12일 밝혔다. 연구진은 ‘힘든 일이 있을 때 솔직하게 상의할 사람이 있다’ ‘주변 사람들로부터 사랑받는다고 느낀다’ 등 8가지 항목을 제시해 사회적 지지도를 측정했다. 그 결과 8가지 항목 모두 암 환자의 사회적 지지 평균 점수가 일반인보다 높게 나왔다. 연구진은 암 환자에게는 주변 사람들이 걱정, 배려 등의 손길을 건네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추정했다.<br/><br/><br/><br/>하지만 이런 사회적 지지도가 낮다고 여길 때 받는 충격은 암 환자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br/><br/><br/><br/>연구진은 사회적 지지도와 우울감의 상관관계를 그래프로 분석해보니 암 환자의 우울감이 심해지는 정도가 일반인보다 더 가파르게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또 신체적 기능·정서적 기능·사회적 기능·인지기능·역할 기능 등 삶의 질과 관련한 각 영역에서도 암 환자는 사회적 지지도에 따른 영향을 일반인보다 더 많이 받은 것으로 분석됐다.<br/><br/><br/><br/>신 교수는 “<span class='quot0'>치료 과정에서 암 환자들은 신체적 고통과 함께 정신적으로 불안, 우울, 재발에 대한 두려움 등을 겪는다</span>”며 “<span class='quot0'>가족과 친구들이 대화를 나누고, 정서적으로 잘 돌봐주면 암 환자가 우울증을 덜 느낄 수 있는 만큼 지속적인 관심과 도움이 필요하다</span>”고 조언했다. 이번 연구결과는 ‘일본 임상암학회지(Japanese Journal of Clinical Oncology)’ 최근호에 실렸다. <br/><br/><br/><br/>이용권 기자 freeuse@

언론사: 문화일보-1-113.txt

제목: <윤승일 원장의 디톡스 푸드>감자, 소음인 위장 장애에 藥… 쪄 먹으면 비타민C 손실 적어  
날짜: 2017071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501.20170712111006001  
ID: 01100501.20170712111006001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탄수화물이 풍부한 감자에는 혈당을 상승시키는 전분도 많아서 당지수(glyceminc index·GI)가 높은 편이다. 다만 감자 속 저항성 전분의 혈당 조절 작용과 함께 조리과정에서 가열 후에 아주 차게 식혀 먹으면 과도한 혈당 상승을 막아 주고 당지수 또한 낮아진다. <br/><br/><br/><br/>감자 속엔 칼륨이 풍부해서 심장 보호 작용도 한다. 비타민C는 가열을 많이 하면 파괴되는데 감자를 삶거나 쪄서 먹으면 비타민C 파괴를 억제해 충분히 섭취할 수 있다. 감자 껍질 속엔 엽산은 물론 비타민B6도 풍부해 신경을 안정시켜 마음을 편안하게 하면서 이뇨작용을 원활하게 해 몸이 푸석푸석 붓는 사람들에게 좋다. <br/><br/><br/><br/>비타민B6는 신경 흥분 작용을 하는 글루타메이트가 뇌를 진정시켜 주는 가바(GABA)로 바뀌는 데 반드시 필요한 보조효소다. 이 때문에 비타민B6가 부족한 경우에 불안하고 우울하며 근육 경련이나 불면 등이 나타날 수 있다. <br/><br/><br/><br/>껍질에 풍부한 폴리페놀을 통해서 강력한 항산화 효과를 내는 감자는 활성산소와 염증, 체내 독소를 해독시켜 주는 작용도 한다. 감자가 디톡스 푸드로 분류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br/><br/><br/><br/>우선 감자 속 카테킨은 베타-아밀로이드 독성을 억제해 기억력 저하와 치매를 예방하는 데 탁월한 작용을 하고, 루테인은 활성산소로 인한 망막의 염증을 예방하는 작용을 한다. <br/><br/><br/><br/>이와 함께 감자의 전분은 주로 저항성 전분으로, 소장에서 소화되지 않고 불활성 상태로 대장에 들어가 장내 유익균을 활성화시켜 짧은사슬 지방산을 만들며 장을 튼튼하게 해준다. 짧은사슬 지방산은 체지방 증가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으며 면역력을 키우고 피로 해소에도 일조하는 지방산이다. 궤양성 대장염이나 설사, 변비 해소에도 좋다. 그래서 체질의학에서는 감자가 소음인 위장장애에 탁월한 효능을 갖고 있다고 한다.<br/><br/><br/><br/>탄수화물이 풍부한 감자를 과식하면 자칫 혈당이 증가할 수 있지만 저항성 전분이 혈당 조절 작용을 해서 혈당 문제를 상쇄시켜 준다. <br/><br/><br/><br/>다만 감자를 먹을 때 주의해야 할 점은 인슐린 저항증이다. 비만과 고지혈증, 혈당 조절 문제 등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감자에 들어 있는 글리코알칼로이드라는 독성 물질은 알레르기뿐 아니라 두통과 소화장애, 설사를 유발할 수 있다. 이것은 감자가 자연 포식자들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 내는 물질인데, 햇빛을 오래 쬐거나 저장 기간이 지나치게 길 경우 독성이 증가하면서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다. <br/><br/><br/><br/>경우에 따라 심장박동수가 빨라지거나 혈압이 내려가고 고열과 함께 죽음에 이르게도 한다. 글리코알칼로이드 중에서 솔라닌 성분을 과다하게 먹을 때 동물실험에서는 뇌와 폐, 유방, 갑상선암이 나타났다. <br/><br/><br/><br/>감자에는 솔라닌이 아주 미량 들어 있다. 따라서 체중 70㎏인 성인이 하루에 감자 2㎏ 이상을 먹으면 문제가 될 수 있다. 특히 감자 껍질과 싹에 솔라닌 성분이 많은데, 이를 섭취하면 입안이 아리고 쓰며 화끈거리는 느낌을 받는다.<br/><br/><br/><br/>가짓과 음식인 감자와 함께 가지와 토마토에도 솔라닌 성분이 있으며 뇌 속에서 부교감신경 전달물질인 콜린을 억제하는 작용을 해 기억재생능력을 떨어뜨린다. <br/><br/><br/><br/>또 솔라닌은 소화를 억제하고 근육을 약화시키는 작용도 한다. 상한 감자를 다량으로 먹을 경우 솔라닌이 체내에 유입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br/><br/><br/><br/>아크릴아미드(acrylamides)도 주목해야 할 성분이다. 아크릴아미드는 감자처럼 탄수화물이 풍부한 음식을 굽거나 튀길 때 만들어지는 독성 물질이다. 주로 튀긴 감자에서 많이 나온다. 기름에 오랫동안 튀긴 감자는 아크릴아미드로 인해 몸에 염증을 유발하거나 뇌 신경 기능 저하, 암 발생 촉진 등의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따라서 기름에 오래 튀긴 감자는 조심해야 한다.<br/><br/><br/><br/> 빙빙한의원 원장(한의기능영양학회장)

언론사: 문화일보-1-114.txt

제목: 2시간만에 癌진단, 1주일내 수술… ‘마음의 고통’도 최소화  
날짜: 20170711  
기자: 이용권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501.20170711110005004  
ID: 01100501.20170711110005004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 이대여성암병원 ‘논스톱·원스톱 시스템’<br/><br/><br/><br/>유방치료·재건술 세계적 권위<br/><br/>다양한 수술경험 의료진 협진<br/><br/>짧은 시간에 최적치료 가능케<br/><br/><br/><br/>여성만의 ‘레이디 병동’ 운영<br/><br/>병원 색조·디자인 ‘환자 배려’<br/><br/>요가·합창반·미술치료 병행<br/><br/><br/><br/>외국어 가능한 코디네이터로<br/><br/>60여개국 환자에 맞춤진료도<br/><br/><br/><br/>지난 4일 서울 양천구 목동 이대여성암병원 다목적실. 김현구 외과 교수가 46세 여성 유방암 환자에 대해 설명하자 9명의 교수진이 집중하기 시작했다. 환자에 대한 각종 질문이 쏟아졌다. 병기, 암의 크기, 위치 등 환자의 암 치료에 관한 내용이다. 백남선 병원장을 비롯해 문병인 유방암·갑상선암센터장 등 외과 전문 의료진뿐 아니라 방사선종양학과, 영상의학과, 성형외과 교수진도 함께 참석해 최적의 치료방법을 찾기 위해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br/><br/><br/><br/> 이대여성암병원은 2009년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 처음 시도된 ‘여성암병원’이다. 민간 컨설팅 기관에서 성공한 브랜드 모델 사례로 다룰 정도로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브랜드 가치를 인정받을 만큼 성공한 시스템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대여성암병원의 가장 큰 장점은 모든 의료진의 동선을 환자에 맞춰 가장 짧은 시간 내에 최적의 치료를 받게 하는 것이다. 환자가 방문한 당일 암 진단 결과가 나오고, 1주일 이내에 수술하는 병원은 이대여성암병원 외에는 아직 어디에서도 찾기 어려운 시스템이다.<br/><br/><br/><br/>◇암 진단에서 수술까지 ‘1주일 이내’ 완료=백 원장은 “암은 속도전”이라고 말했다. 문 센터장은 “<span class='quot0'>이대여성암병원의 핵심은 논스톱·원스톱</span>”이라고 했다. 암 환자가 암이 의심돼 병원에 오면 바로 검사에 들어가 2시간 만에 진단을 내린다. 대형병원의 경우 병리과에 조직을 보내 3~5일 정도 소요되는 검사 기간을 동결 조직검사를 통해 최대한 단축한 것이다. 환자들이 암 여부를 놓고 노심초사하는 고통의 시간을 줄여 준다는 취지다. 이후 암 진단이 나오면 1주일 뒤 수술 일정을 잡고 그사이 각종 검사 일정을 배치한다. <br/><br/><br/><br/>백 원장은 “<span class='quot1'>이런 시스템이 가능한 것은 여성암병원에 모든 역량을 쏟아붓고 있기 때문</span>”이라며 “<span class='quot1'>영상의학과, 병리학, 핵의학, 성형외과 등 모든 의료진이 환자가 최우선이라는 신념으로 진료하고 있다</span>”고 말했다. 그는 “<span class='quot1'>최근 원스톱·논스톱 진료라고 소개하는 병원이 많지만, 아직도 1주일 이내에 수술을 시작하는 대학병원은 전 세계적으로 유일무이하다</span>”고 강조했다.<br/><br/><br/><br/>◇여성 배려 시스템=이대여성암병원은 여성 친화적인 환경을 구현하고 있다. 파스텔 톤의 디자인을 통해 갤러리 형태로 진료환경을 조성했다. 남성들은 입원이 안 되는 ‘레이디 병동’도 운영하는 등 철저히 여성 환자에게 운영 코드를 맞췄다. 또 효과적인 치료와 건강한 생활을 도모하기 위해 요가나 필라테스 등 통합 교육프로그램인 ‘파워업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다. 유방암·부인암 환우로 구성된 ‘행복바이러스 합창반’은 ‘내 인생의 가장 특별한 추억을 만들기 위한 합창 프로젝트’라는 슬로건 아래 매주 모여 연습을 하고 있다. 합창반뿐만 아니라 암 치료를 하는 동안 쌓인 스트레스를 날려 주는 ‘해피파워 노래교실’과 시원한 웃음으로 편안함과 기쁨·치유의 경험을 체험하는 ‘행복찾기 웃음 치유 프로그램’도 활발하다. 최근에는 이화여대 교육대학원과 연계한 미술 치료 프로그램이 암 환자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이 외에도 각 의료진이 참여하는 이유회(유방암), 난초회(부인암) 등 환우회도 운영 중이다.<br/><br/><br/><br/>◇다학제적 진료로 완성=이대여성암병원 유방암·갑상선암센터는 최선의 진단과 치료를 위한 다양한 임상연구와 수술 경험을 가진 의료진을 전면에 배치했다. 1986년 국내에서 처음으로 유방 보존술을 시작하는 등 유방암 치료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로 꼽히는 백 원장을 중심으로 문 센터장, 임우성 교수, 권형주 교수, 우주현 교수, 이준우 교수, 김현구 교수, 백세현 교수 등 외과 전문 의료진을 완성했다. 유방암·갑상선암센터는 약 75%의 유방암 수술 환자에게 유방 보존술을 시행해 여성 삶의 질을 높이고 있다. 수술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로 암이 진행된 환자도 항암 요법으로 수술할 수 있게 한 후 수술을 하고 있다. 불가피하게 절제술이 필요한 환자는 암 수술과 유방 재건술을 동시에 시행하는 것도 이대여성암병원의 특징이다. 자가 조직을 이용한 동시 재건은 보형물을 이용한 수술에 비해 어렵고 시간도 길어 시행하는 병원이 많지 않다. 이대여성암병원 유방암·갑상선암센터는 외과 의료진과 성형외과 우경제 교수, 박보영 교수, 홍승은 교수가 협진을 통해 유방암 환자에게 적합한 유방 재건술을 시행하고 있다. 이 외에도 복부 자가 조직을 이용한 동시 재건술, 수술 전 3D 촬영 장비 시뮬레이션 등도 실시하고 있다.<br/><br/><br/><br/>◇해외에 진출하는 여성암병원= 이대여성암병원은 현재 중국, 몽골, 카자흐스탄, 태국,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아랍 등 아시아 국가뿐만 아니라 미국, 캐나다, 멕시코 등 북미와 러시아, 폴란드 등 유럽 국가까지 총 60여 개국에서 환자들이 찾아오고 있다. 해외 환자들의 국내 체류 기간을 줄여 주기 위해 진료와 수술 대기시간을 최소화하는 ‘외국인 환자 우선 진료 시스템’도 구축하고 있다. <br/><br/><br/><br/>중국어·러시아어·아랍어 등 국가별 외국어가 가능한 코디네이터가 해외 환자들에게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며, 담당 교수들도 2~3개의 외국어로 서비스하고 있다. 문 센터장은 “<span class='quot0'>의료 서비스 질 향상, 환자 안전을 위한 다각적인 변화와 혁신 활동으로 해외 환자 유치를 활성화하는 한편, 부인종양센터 및 이대여성건진센터와의 시너지 효과 제고로 세계 어느 나라의 환자라도 믿고 찾아올 수 있도록 할 것</span>”이라고 밝혔다. <br/><br/><br/><br/>이용권 기자 freeuse

언론사: 문화일보-1-115.txt

제목: 인천大 ‘생명과학 권위자’ 김성호 교수 초빙  
날짜: 20170710  
기자: 지건태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501.20170710144006002  
ID: 01100501.20170710144006002  
카테고리: 미분류  
본문: 노벨상 후보… 융합기술원장에<br/><br/><br/><br/>인천대가 생명과학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권위를 인정받는 김성호(80·사진) UC버클리대 교수를 초빙했다고 10일 밝혔다. <br/><br/><br/><br/>김 교수는 1973년 X선 결정구조 분석법을 이용해 리보핵산(t-RNA) 3차원 구조를 처음 밝혀냈으며 1988년 암을 유발하는 라스(RAS) 단백질의 3차원 구조를 규명해 생명과학 분야 노벨상 수상 후보로 꾸준히 거론돼 왔다. <br/><br/><br/><br/>인천대는 김 교수를 융합과학기술원장으로 초빙, 세계 최대 바이오의약품 생산기지로 떠오른 송도국제도시를 무대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바이오 연구중심대학으로 발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r/><br/><br/><br/>인천 = 지건태 기자 jus216

언론사: 문화일보-1-116.txt

제목: ‘유전자 질병’ 조기 진단 기술 세계 첫 개발  
날짜: 20170710  
기자: 윤명진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501.20170710143006017  
ID: 01100501.20170710143006017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서울대 남좌민 교수 연구팀<br/><br/><br/><br/>유전자 관련 질병을 조기에 진단할 수 있는 기술이 국내 연구진에 의해 최초로 개발됐다.<br/><br/><br/><br/>서울대는 남좌민(사진) 화학부 교수 연구팀이 질병 초기에 생성되는 적은 양의 유전자를 파악하고 검사할 수 있는 원천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연구팀이 개발한 기술은 나노미터(10억분의 1m) 크기의 금 입자들이 유전자와 결합하고 분리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신호를 파악해 질병을 일으키는 유전자를 정밀하게 측정하는 분석법이다. 고가의 장비를 이용하는 기존 기술에 비해 비교적 저렴한 방식으로 혈액 등에 포함돼 있는 유전자를 수천 개까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br/><br/><br/><br/>연구팀이 개발한 기술을 통해 에이즈·암 등 다양한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여 완치율을 높이고, 재발과 회복을 위해 드는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 탄저균 등 바이오 테러 물질의 발견과 정밀한 유전자 수사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남 교수는 “<span class='quot0'>이 기술로 질병을 일으키는 유전자나 바이러스가 온몸에 퍼지기 전에 빠르고 정확하게 발견할 수 있게 됐다</span>”고 설명했다. 남 교수 팀이 개발한 기술을 소개하는 ‘결합-해리 나노이합체 분석법을 이용한 초저농도의 DNA 정량’ 논문은 화학분야 세계적 권위지인 ‘앙게반테 케미’ 온라인판에 ‘주목할 만한 논문’으로 실렸다. <br/><br/><br/><br/>윤명진 기자 jinieyoon

언론사: 문화일보-1-117.txt

제목: 만성질환 70세 어르신도 가입 ‘OK’  
날짜: 20170710  
기자: 김만용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501.20170710142006006  
ID: 01100501.20170710142006006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ING생명 ‘종신보험’ 판매시작<br/><br/>생활자금·연금으로 활용 가능<br/><br/><br/><br/>ING생명은 만성질환의 70세 노인도 가입할 수 있는 ‘간편가입 용감한 오렌지 종신보험(무배당·저해지환급형)’ 판매를 최근 시작했다고 10일 밝혔다.<br/><br/><br/><br/>ING생명에 따르면 이 상품은 기존 저해지환급형 종신보험의 장점은 그대로 두고, 더 많은 혜택이 필요한 유병자를 위해 가입조건을 낮췄다.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 환자는 물론 보험가입 시기를 놓친 고령자라도 △최근 3개월 이내의 입원·수술·재검사 의사소견 △2년 내 질병·사고에 따른 입원·수술 이력 △5년 내의 암 진단·입원·수술 이력 등 3가지 항목에 해당 사항이 없으면 가입이 가능하다. 가입 나이는 40세부터 최대 70세까지다. 사망보장은 물론 다양한 특약을 통해 암,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 등 3대 질병 진단금과 입원비, 수술비 등을 보장해준다.<br/><br/><br/><br/>전환옵션이나 특약을 통해 생활자금과 연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생활자금 전환 옵션’을 선택하면 주계약의 보험가입금액을 최대 20년까지 매년 자동감액하고, 이때 발생하는 해지 환급금을 생활자금으로 지급한다. 또한 ‘무배당 신연금전환특약’을 통해 연금으로 전환하게 되면, 가입시의 연금생명표를 적용해 평균수명이 늘었을 경우 보다 많은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단, 장기간병종신연금형은 제외된다.<br/><br/><br/><br/>ING생명 관계자는 “<span class='quot0'>이 상품은 저해지환급형으로서 보험료 납입기간 중 해지 시 해지환급금을 줄이는 대신 보험료를 낮춰 같은 비용으로 더 큰 보장을 받을 수 있다</span>”고 말했다. <br/><br/><br/><br/>김만용 기자 mykim

언론사: 문화일보-1-118.txt

제목: 류샤오보 가족 “마음의 준비 하고 있다”  
날짜: 20170707  
기자: 박세영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501.20170707141006005  
ID: 01100501.20170707141006005  
카테고리: 국제>중국  
본문: 암 치료 중단… 임종 임박한듯 <br/><br/>사망땐 中 인권 논란 불가피<br/><br/><br/><br/>가석방 상태에서 간암 치료를 받고 있는 중국의 반체제 인권운동가 류샤오보(劉曉波·61)가 임종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br/><br/><br/><br/>7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span class='quot0'>류샤오보를 치료 중인 의료진은 가족들에게 ‘임종을 준비하라’고 말했다</span>”고 보도했다. 현재 류샤오보는 랴오닝(遼寧)성 선양(瀋陽)에 있는 중의과대 제1부속병원에서 말기 간암 치료를 받고 있다. <br/><br/><br/><br/>SCMP에 따르면 병원 의료진이 류샤오보의 상태가 심상치 않으니 24시간 대기하라고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류샤오보는 간 기능이 떨어져 사실상 모든 양한방 치료가 중단된 상태다. 병원 측도 성명을 내고 “류샤오보의 배에 복수가 많이 차올랐으며 심각한 상태”라고 밝혔다. <br/><br/><br/><br/>반중단체 궁민리량(公民力量)의 대표인 류는 1989년 톈안먼(天安門) 유혈사태 생존자다. 미국에 망명한 반체제 인사인 양젠리(楊建利)는 “<span class='quot1'>류샤오보의 병세가 위중해 투약을 중단하고 음식 공급도 끊었지만 중국 당국과 병원 측이 한시라도 혼자 놔두지 않고 엄중 감시하고 있다</span>”고 전했다. <br/><br/><br/><br/>미국 정부는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류샤오보를 위해 간암 전문가의 방중을 신청하고 중국 당국이 승인하기를 기다리고 있다. 양젠리는 “중국 당국이 간암 전문가의 방중을 지연시킬 때마다 류샤오보의 생명에 크게 위해를 가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br/><br/><br/><br/>한편 유럽의회는 6일 류샤오보의 해외치료를 중국 정부에 촉구했다. 이날 유럽의회는 전체회의를 소집해 ‘노벨평화상 수상자 류샤오보와 리밍저(李明哲)’ 안건 등 인권문제에 관한 3건의 긴급 결의안에 대해 압도적 다수로 가결했다. 하지만 중국 당국은 류샤오보의 석방을 승인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류샤오보가 끝내 사망할 경우 중국에 대한 인권 침해 비판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br/><br/>베이징=박세영 특파원 go

언론사: 문화일보-1-119.txt

제목: PET-CT로 유방암 검사 대상자 선별  
날짜: 20170704  
기자: 이해완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501.20170704105005002  
ID: 01100501.20170704105005002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유방암 환자의 항암치료 여부를 결정하는 비싼 유전자 검사 전에, PET-CT로 검사 대상자를 선별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유방암 중 에스트로겐 수용체 양성, 인체상피세포성장인자수용체(HER2) 음성의 경우 비교적 예후가 좋은 암으로 항암치료를 생략할 수 있다. 이를 판별하기 위해 온코타입(Oncotype) Dx라는 유전자 검사를 하지만 비용이 비싸다는 단점이 있었다. <br/><br/><br/><br/>연세대 강남세브란스병원 유방외과 정준·안성귀 교수팀은 PET-CT 검사를 통해 측정한 포도당 섭취계수로 온코타입 Dx 점수를 예측할 수 있다고 4일 밝혔다. 연구팀이 유방암 환자 167명의 온코타입 Dx 점수와 포도당 섭취계수를 비교한 결과, 포도당 섭취계수가 높으면 온코타입 Dx 점수도 높아지는 경향을 확인했다. 안 교수는 “<span class='quot0'>수술 전 기본 검사로 시행하는 PET-CT 검사로 온코타입 Dx 점수 예측이 가능해 검사 비용을 크게 낮출 수 있다</span>”고 말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지난 4월 미국 공공과학 도서관 온라인 학술지 플로스원(PLos one)에 게재됐다.<br/><br/><br/><br/>이해완 기자 parasa

언론사: 문화일보-1-120.txt

제목: 137顚138起… 대니얼 강, 첫 우승 ‘메이저’로 품었다  
날짜: 20170703  
기자: 최명식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501.20170703123005001  
ID: 01100501.20170703123005001  
카테고리: 스포츠>골프  
본문: KPMG PGA 챔피언십 정상 <br/><br/>네개 홀 연속 ‘버디쇼’ 압권 <br/><br/>13언더로 투어 5년만에 감격 <br/><br/><br/><br/>오른손 검지에 ‘아빠’ 문신 <br/><br/>4년전 암 투병 중 세상 떠나 <br/><br/>“<span class='quot0'>아빠, 하늘에서 보고 계시죠</span>”<br/><br/><br/><br/>재미교포 대니얼 강(25·강효림)이 미국여자프로골프(LPGA)투어 진출 5년 만에 첫 우승을 차지했다. 메이저대회 정상에 올랐기에 기쁨은 더욱 컸다.<br/><br/><br/><br/>3일 오전(한국시간) 일리노이주 올림피아필즈의 올림피아필즈골프장(파71)에서 열린 LPGA투어 시즌 두 번째 메이저대회 KPMG 위민스 PGA 챔피언십(총상금 350만 달러) 4라운드에서 대니얼 강은 버디 6개와 보기 3개로 3언더파 68타를 챙겨 합계 13언더파 271타로 지난해 우승자 브룩 헨더슨(20·캐나다)을 1타 차로 제치고 정상에 올랐다. <br/><br/><br/><br/>2012년 LPGA 투어에 데뷔한 대니얼 강은 138번째 출전에서 감격스러운 첫 우승을 차지했다. 아마추어 시절 출전한 대회까지 더하면 총 144번째 대회에서 거둔 첫 승리다. 우승 상금은 52만5000달러(약 6억 원)다. <br/><br/><br/><br/>대니얼 강은 아버지(강계성)의 권유로 12세 때부터 두 살 터울의 오빠(알렉스 강)와 함께 골프를 배웠다. 오빠는 아시안투어를 거쳐 현재 미국프로골프(PGA)투어 2부인 웹 닷컴 투어에서 활동 중이다. 대니얼 강의 아버지는 부산에서 증권업에 종사하다 자녀를 키우기 위해 미국 캘리포니아로 이주했다. 어머니는 미스코리아 출신의 한의사였으며, 미국의 골프닷컴은 올해 대니얼 강을 아름다운 여자골퍼 5명에 포함했다.<br/><br/><br/><br/>1992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출생한 대니얼 강은 2010년과 2011년 US여자아마추어챔피언십을 제패하며 이름을 알렸다. 2012년 조건부 시드로 LPGA투어에 발을 내디딘 대니얼 강은 이듬해 풀시드를 확보했다. 하지만 2013년 시즌 중반 아버지의 뇌와 폐에서 암이 발견됐고, 아버지는 몇달 안돼 세상을 떠났다. 아버지가 골프를 무척 좋아했기에 아버지를 위해서라도 꼭 우승하고 싶었다. 대니얼 강은 아버지를 잊지 않기 위해 오른손 검지에 한글로 ‘아빠’라는 문신을 새겼다. 대니얼 강의 종전 LPGA투어 개인 최고 성적은 2012년 9월 킹스밀 챔피언십의 공동 3위. 지난해 상금 순위는 36위였다. 올해 최고 성적은 2월 혼다 타일랜드와 4월 킹스밀 챔피언십 4위다.<br/><br/><br/><br/>대니얼 강은 “오빠는 코스에 대한 조언을 요청하면 늘 완벽하게 조언해준다”며 “미국에서 태어난 뒤 어린 시절 부산에서 잠시 지낼 때 효림이라는 이름도 썼고 호적도 있었지만, 가족을 빼고는 아무도 모른다”고 밝혔다. 대니얼 강은 한글로 ‘아빠’라는 문신을 새긴 것과 관련해 “누군가와 악수를 하면 그 사람도 우리 아빠를 만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br/><br/><br/><br/>최운정(27)과 함께 공동 선두로 출발한 대니얼 강은 10번 홀(파4)에서 보기를 남기면서 헨더슨, 최운정에 1타 뒤진 3위로 내려앉았다. 그러나 11번(파4)부터 14번(파4)까지 네 홀 연속 버디를 잡아내며 승기를 잡았다. 특히 13번 홀(파4)에서는 7ｍ 가까운 긴 버디 퍼트까지 성공하고 주먹을 불끈 쥐었다. 한때 3타 차 선두를 달리던 대니얼 강은 17번 홀(파3)에서 보기를 범했고 앞에서 경기하던 헨더슨이 18번 홀(파5)에서 버디를 추가해 동타가 됐다. 하지만 대니얼 강은 18번 홀에서 2온 후 2퍼트로 나흘 연속 버디를 낚으면서 헨더슨을 1타 차로 따돌리는 짜릿한 승리를 거뒀다. <br/><br/><br/><br/>최운정이 합계 10언더파 274타로 3위에 올랐고 김세영(24)과 양희영(28), 이미향(24) 등이 9언더파 275타로 공동 4위를 자치했다. 박인비(29)는 7언더파 277타로 렉시 톰프슨(22·미국)과 함께 공동 7위다. 신지애(29)는 5언더파 279타, 공동 11위. 유소연(27)은 공동 14위(4언더파 280타)에 머물렀지만 경쟁자들의 부진으로 세계랭킹 1위를 굳건히 지켰다. 세계 2위 에리야 쭈타누깐(22·태국)은 컷 탈락했고, 세계 3위 뉴질랜드 교포 리디아 고(20)는 공동 59위(5오버파 289타)에 그쳤다. <br/><br/><br/><br/>최명식 기자 mschoi

언론사: 문화일보-1-121.txt

제목: 【전문】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  
날짜: 2017070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501.20170701095005002  
ID: 01100501.20170701095005002  
카테고리: 정치>외교  
본문: 도널드 트럼프 미합중국 대통령은 한미 포괄적 전략동맹을 발전시키고, 양국 간 우의를 심화시키기 위해 6월 29일에서 30일, 백악관에 문재인 대한민국 대통령을 초청하였다. 한미 동맹은 그 태동부터 한반도 및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안보, 안정 그리고 번영의 핵심축으로 역할해 왔으며, 이는 점차 전세계로 확대되어 왔다. 미국의 대한민국에 대한 방위공약은 한국전쟁 발발 67주년이 되는 지금도 철통과 같이 유지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어떠한 공격으로부터도 대한민국을 방어할 것임을 재확인하였으며, 양 정상은 북한의 위협에 공동으로 대응한다는 공약을 확고히 하였다. 상호 신뢰와 자유, 민주주의, 인권, 법치라는 공동의 가치들에 기반한 한미 양국 간 파트너십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며, 양 정상은 한미 동맹을 더욱 위대한 동맹으로 만들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br/><br/><br/><br/>1. 한미 동맹 강화<br/><br/><br/><br/>양국 정상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근거한 강력한 연합방위태세와 상호 안보 증진을 통해 대한민국을 방어한다는 한미 동맹의 근본적인 임무를 확인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래식과 핵 능력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군사적 능력을 활용하여 대한민국에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미국의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와 한미 군사위원회회의(MCM) 등 정례 협의 채널은 동맹을 강화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양 정상은 조건에 기초한 한국군으로의 전작권 전환이 조속히 가능하도록 동맹 차원의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결정하였다. 대한민국은 상호운용 가능한 킬-체인,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 및 여타 동맹 시스템을 포함하여, 연합방위를 주도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방어, 탐지, 교란, 파괴하기 위해 필요한 핵심 군사 능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갈 것이다. <br/><br/><br/><br/>양 정상은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으로 인해 증대되고 있는 평화·안보에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 동맹의 공약을 재확인하면서, 동맹 현안 관련 공조 강화를 위해 외교·국방 당국으로 하여금 외교·국방(2+2) 장관회의 및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개최를 정례화하고, 이를 통해 모든 국가 역량을 활용하여 확장억제력을 강화할 것을 지시하였다. <br/><br/><br/><br/>2. 북한 정책에 대한 긴밀한 공조 지속 <br/><br/><br/><br/>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한반도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평화적인 방식으로 달성하기 위해 계속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북한이 도발적이고 불안정을 야기하는 행동과 언사를 자제하고, 국제적 의무와 공약들을 준수하는 전략적 선택을 할 것을 촉구하였다. 양 정상은 북한의 핵 실험과 전례없이 많은 빈도의 탄도미사일 시험발사가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직접적인 위반이며,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으로 인해 야기되는 국제평화와 안보에 대한 위협이 가속화되고 있음을 극명하게 보여준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양 정상은 북한이 도발적 행위를 중단하고 진지하고 건설적인 대화의 장으로 복귀하도록 최대의 압박을 가해나가기 위해, 기존 제재를 충실히 이행하면서 새로운 조치들을 시행하기로 하였다. 또한, 양 정상은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신속하고 충실하게 유엔 안보리 결의상의 의무를 이행해 나갈 것을 촉구하면서, 북한이 신뢰할 수 있는 비핵화 협상에 복귀하도록 북한을 외교적·경제적으로 압박하고 있는 세계 여러 국가들의 건설적 역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양 정상은 중국이 이를 위해 수행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에 주목하였다. 아울러, 양측은 북한의 위험하고 불안정을 야기하는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을 퇴치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br/><br/><br/><br/>양 정상은 제재가 외교의 수단이라는 점에 주목하면서, 올바른 여건 하에서 북한과 대화의 문이 열려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한미 양국이 공히 북핵 문제 해결에 최우선 순위를 부여한다는 점을 재확인하면서, 양 정상은 한국과 미국이 대북 적대시 정책을 갖고 있지 않으며, 북한이 올바른 길을 선택한다면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에게 보다 밝은 미래를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강조하였다. 양 정상은 고위급 전략 협의체를 통해 비핵화 대화를 위해 필요한 여건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지를 포함한 양국 공동의 대북정책을 긴밀히 조율해 나가기로 하였다.<br/><br/><br/><br/>트럼프 대통령은 한반도의 평화 통일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어 대한민국의 주도적 역할을 지지하였다. <br/><br/><br/><br/>양 정상은 북한 정권에 의해 자행되는 끔찍한 인권 침해와 유린 행위를 포함, 북한 주민들의 안위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였으며, 북한의 취약계층에 대한 대북제재 조치의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한다는 데 공감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인도주의적 사안을 포함한 문제들에 대한 남북간 대화를 재개하려는 문 대통령의 열망을 지지하였다. 양 정상은 책임 규명 및 북한의 개탄할만한 인권 상황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재확인하였다. <br/><br/><br/><br/>양 정상은 역내 관계들을 발전시키고 한미일 3국 협력을 증진시켜 나가겠다는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양 정상은 3국 안보 및 방위협력이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여 억지력과 방위력을 증진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양 정상은 기존의 양자 및 3자 메커니즘을 활용함으로써 이러한 협력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또한 암 연구, 에너지 안보, 여성 역량 강화, 사이버 안보와 같은 범세계적 도전에 대응하는 데 있어 한미일 3국 관계를 활용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7월 G20 정상회의 계기에 개최될 한미일 3국 정상회의에서 아베 총리와 함께 3국 협력을 보다 진전시키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로 하였다.<br/><br/><br/><br/>3. 경제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공정한 무역 발전 <br/><br/><br/><br/>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양국 간 상호적 혜택과 공정한 대우를 창출하면서 확대되고 균형된 무역을 증진시키기로 공약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양측은 또한 철강 등 원자재의 전 세계적인 과잉설비와 무역에 대한 비관세 장벽의 축소를 위해 함께 노력하는 등 진정으로 공정하고 공평한 경쟁조건을 증진하기로 공약하였다.<br/><br/><br/><br/>양측은 한국과 미국에서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해 「산업협력대화」 절차의 일부로서 양국 간 투자를 증진하고, 기업인들을 지원하며, 양국간 협력을 촉진하는 데 함께 노력하기로 약속하였다.<br/><br/><br/><br/>4. 여타 경제 분야에 있어서의 양자 협력 증진 <br/><br/><br/><br/>양측은 또한 「고위급 경제협의회」를 통해 여타 경제적 이슈에서의 협력을 증진 및 확대하고, 민관합동 포럼을 통해 경제적 기회 증진을 모색해 나가는 데 함께 노력하기로 공약하였다.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데 있어 과학, 기술과 혁신의 역할을 감안하여 우리는 사이버안보, 정보통신기술과 민간 우주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여성이 담당하는 중요한 경제적 역할을 강조하면서 양측은 여성의 경제적 권한 신장을 증진하기 위한 양자 파트너십을 출범하기로 약속하였다.<br/><br/><br/><br/>5. 글로벌 파트너로서의 적극적인 공조 <br/><br/><br/><br/>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범세계적 사안에 관한 한미 양국 간 협력이 우리의 동맹에 있어 필수불가결하며 동맹의 외연을 넓혀간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글로벌 보건안보 협력과 관련하여, 양 정상은 협력 대상 국가들이 감염병의 위협을 예방, 감지하고 대응하는 데 있어 지원을 해나가겠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양 정상은 이슬람국가(IS)가 초래한 이라크 및 시리아에서의 참혹한 고통과 폭력을 규탄하고, 反IS 국제연대에서의 강력한 한미간 파트너십을 재확인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이라크에 대한 1000만 달러 지원 약속을 포함하여 테러리즘과 폭력적 극단주의로 가장 심각한 피해를 입은 국가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증대해 나가겠다는 대한민국의 공약을 환영하였다. 양측은 아프가니스탄에서의 평화와 안정을 재건하기 위해 한미 양국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아프간 국민과 정부에 대한 지원 노력을 함께 지속해 나가겠다고 약속하였다. <br/><br/> <br/><br/>6. 동맹의 미래 <br/><br/><br/><br/>양 정상은 양국 간의 강력하고 역동적인 유대가 한미 동맹의 토대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경제·무역, 재생·원자력 에너지, 과학·기술, 우주, 환경, 보건, 방산 기술 분야에서의 고위급 협의를 통해 양국 간 미래 지향적 협력을 진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트럼프 대통령과 문 대통령은 한미 양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규범에 기초한 질서를 지지하며, 이를 유지하기 위해 공조해나갈 것을 확인하였다. 양 정상은 한미 동맹의 강력함이야말로 결국 자유, 민주주의, 인권 및 법치의 힘을 드러내는 증거라는 점을 확인하고, 170만 명 이상의 한국계 미국인, 매년 대한민국을 방문하거나 대한민국에서 일하고 있는 수십만의 미국인들, 그리고 문화 및 학생·전문가 교류 프로그램 등을 통해 조성된 양국 국민들 간의 긴밀한 관계 등 인적 유대가 양국의 미래를 상호 연결시키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트럼프 대통령과 문 대통령은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고 방어함으로써 공동의 안보를 강화하는 것으로부터, 강력한 역내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고, 양국 경제 관계와 글로벌 파트너십을 진전시키는데 이르기까지, 한미 동맹이야말로 동맹의 모범이 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양국간 우정과 파트너십이 향후 수십 년에 걸쳐 계속 강해지고 성장해 나갈 것이라는 기대를 표명하였다. <br/><br/><br/><br/>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2017년 연내 방한을 초청하였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기쁘게 수락하였다. 양 정상은 향후 국제 다자회의 등 여러 계기에도 만나 상호 관심사에 대해 계속 논의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언론사: 문화일보-1-122.txt

제목: 속속 집결… 또 ‘투쟁의 場’된 광화문  
날짜: 20170630  
기자: 정진영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501.20170630114506012  
ID: 01100501.20170630114506012  
카테고리: 사회>노동\_복지  
본문: - 민노총, 오늘 ‘사회적 총파업’ <br/><br/><br/><br/>비정규직 등 3만여명 모일 듯 <br/><br/>최저임금 확정안돼 격화 조짐 <br/><br/>소음 유발 · 교통 혼잡 불가피<br/><br/><br/><br/>30일 광화문광장이 정권 교체 후 두 달 만에 다시 ‘대규모 거리 투쟁의 장’으로 변했다.<br/><br/><br/><br/>민주노총이 주도하는 ‘6·30 사회적 총파업 지금 당장’대회 관련 행사가 이날 서울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열렸다. 주최 측 추산 약 3만 명이 집결한 대회에서 민주노총은 비정규직 철폐와 경찰 폭력 규탄, 최저임금 즉각 1만 원 인상 등을 주장하며 다음 달 8일까지 예정된 총파업 주간에 모든 노동자가 참여해달라고 독려했다. 본 대회에 앞서 공공운수노조, 학교비정규직노조, 공무원노조 등 민주노총 산하 노조들도 서울역 광장, 서대문구 경찰청 앞, 양재동 현대·기아차 본사 앞 등 서울 도심 각지에 속속 집결해 사전 집회를 개최하며 총파업 참여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br/><br/><br/><br/>이번 총파업은 이날 대회를 기점으로 대규모로 확산될 조짐까지 보이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서울경인공공서비스지부 소속 15개 대학 청소·경비 노동자들이 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건설노조 타워크레인분과, 삼성전자서비스지회, 비정규직 교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알바노조 등도 파업을 선언했다. 전국 학교비정규직노조(학비노조)는 전날부터 이틀 일정으로 이미 파업에 들어간 상황이어서 일선 학교들의 ‘급식 대란’도 확산되고 있다. 교육부는 학비노조 첫날 17.74%였던 급식 중단 학교 비율이 이날 19.34%까지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br/><br/><br/><br/>이번 파업 과정에서 벌어진 소음유발, 교통혼잡 등으로 인해 많은 시민도 불편을 겪어야 했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조합원 30여 명이 서울 종로구 연건동 서울대병원 입구 통로 좌우를 줄지어 에워싸고 출근하는 직원과 통원 환자들에게 유인물을 나눠주며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외치자, 대다수 시민이 손사래를 치며 유인물 받기를 거부했다.<br/><br/><br/><br/>외래진료를 받고 있다는 김민철(48) 씨는 “<span class='quot0'>비정규직 문제가 잘 해결됐으면 하지만 여기는 병원 아니냐</span>”며 “<span class='quot0'>환자들은 조그만 소음에도 민감할 때가 있는데 아침부터 스피커를 크게 틀어 피해를 주는 것처럼 느껴졌다</span>”고 불편함을 호소했다. 암 병동에 남편이 입원 중이라는 양정미(62) 씨는 의료본부 소속 서울대병원 청소 노동자 100여 명이 서울대병원 시계탑 앞에서 총파업 출정식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며 “<span class='quot1'>암 환자들은 소음 등에 민감하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되는데 암병동 옆인 시계탑 앞에서 이러면 어쩌자는 거냐</span>”고 목소리를 높였다.<br/><br/><br/><br/>민주노총 등이 ‘지금 당장’ 최저임금 1만 원 인상 요구를 하고 있는 가운데, 이날 새벽까지 진행된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법정 시한을 넘겨 논쟁이 계속됐지만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최저임금 법정 심의 기한 마지막 날인 전날 개최됐던 제6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위원 측은 최저임금 1만 원, 월급 환산액 209만 원(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을 제시했다. 반면에 사용자위원 측은 전년 대비 2.4% 인상된 시급 6625원을 최저임금안으로 제시하며 근로자위원 측과 맞섰다. 최임위는 양측이 제시한 최저임금 최초안을 바탕으로 다음 달 3일 제7차 전원회의, 5일 제8차 전원회의를 이어갈 예정이지만 그때까지 합의가 이뤄질지 불투명한 상황이다.<br/><br/><br/><br/>정진영·김성훈 기자 news119

언론사: 문화일보-1-123.txt

제목: <보험산업 3대 규제 ‘파고’>업계 “실손보험 손해율 120% 넘는데 보험료 내리라니…”  
날짜: 20170629  
기자: 황혜진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501.20170629112005001  
ID: 01100501.20170629112005001  
카테고리: 경제>금융\_재테크  
본문: - (中) 당국 ‘보험료 인하’ 압박 논란<br/><br/><br/><br/>국정기획위 “2013~2017년에<br/><br/>업계 1조5244억원 반사 이익”<br/><br/>의료계 “상품 설계 잘못한 탓”<br/><br/><br/><br/>업계 “허위·과잉 의료비 청구에<br/><br/>손해율 높아져서 인상 불가피”<br/><br/><br/><br/>전문가들은 “비급여 개선 시급”<br/><br/>의료항목 표준화 비율 9.7%뿐<br/><br/>통계관리 어렵고 진료비 제각각<br/><br/><br/><br/>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국민 부담 경감을 위해 실손의료보험료 인하에 나서면서 실손의료보험을 둘러싸고 보험업계와 의료업계, 금융당국이 마찰을 빚고 있다. 보험사들은 가격결정권에 대한 과도한 정부의 개입이자 과잉 진료를 유도하는 의료계에 대한 대책이 빠진 ‘반쪽짜리’ 정책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의료업계는 상품 설계의 미숙함 탓이라며 보험업계에 비난의 화살을 돌리고 있다. 2년 전(2015년 10월) 보험료 자율화를 천명했던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는 수장 공백 속에 국정기획위와 보험업계, 의료업계 사이에서 눈치만 보고 있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에 대한 원칙 설정과 의료계 전체의 진료 내용 정보 공개, 관리·처벌 규정 법제화 등이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다.<br/><br/><br/><br/>◇치솟은 실손의료보험료 놓고 계속되는 갑론을박 = 국정기획위는 지난 21일 실손의료보험료의 가격 조정폭(±25%)과 인하 방안 등을 담은 ‘건강보험과 민간 의료보험 연계법’(가칭)을 연내에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간 실손보험료를 인하하겠다고 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다. <br/><br/><br/><br/>국정기획위는 공적 보험인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늘어난 만큼 보험사들의 실손의료비 지급 부담이 줄었는데도 보험사들이 보험료를 올려 막대한 이득을 챙겼다고 보고 있다. 국정기획위는 이에 대한 근거로 지난해 3월 보건사회연구원이 내놓은 자료를 제시했다. <br/><br/><br/><br/>보건사회연구원은 정부가 2013년 4대 중증 질환(암·심장질환·뇌혈관질환·희귀난치질환)과 3대 비급여(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간병비) 항목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면서 민간 보험사들이 2013∼2017년 1조5244억 원의 반사이익을 얻었다고 분석했다. 그런데도 실손의료보험료는 매년 인상됐고 올해 평균 인상률(24개 보험사)은 17%에 달한다고 국정기획위는 지적했다.<br/><br/><br/><br/>보험업계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일부 건강보험 급여 항목 전환은 이미 보험료를 계산할 때 반영됐으며 손해율이 여전히 높다는 것이다. 손해율은 보험사들이 실손보험 수익률을 따지는 지표다. 고객에게서 거둬들인 보험료 대비 고객에게 나간 보험금 비율을 의미하는데, 수치가 100%가 넘으면 손해를 보고 있다는 뜻이다. 지난해 말 기준 보험사 24곳의 실손보험 상품 평균 손해율은 120.7%를 기록했다. 보험사들은 보험료 상승의 근본 원인이 과잉 진료나 허위 입·퇴원 등 병원이 연루된 ‘경성’ 보험사기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항변하고 있다. 허위 또는 과잉 의료비 청구로 손해율이 높아지면서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에 몰렸다는 설명이다. A 보험사 관계자는 “<span class='quot0'>보험료 인상을 막기 위해서는 비급여 항목에 대한 과잉 진료 등 의료계의 고질적인 병폐에 대한 개혁이 선결돼야 한다</span>”고 목소리를 높였다. <br/><br/><br/><br/>반면에 의료계는 애초 상품 설계를 제대로 하지 않은 보험업계 탓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span class='quot0'>상품 설계를 제대로 못한 보험사 잘못은 인정하지 않고 의사들을 탓하는 것은 책임 회피</span>”라고 비판했다. <br/><br/><br/><br/>2년 전 보험료 자율화 방안을 내놨던 금융위도 이렇다 할 의견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span class='quot1'>현재 금융위원장이 사실상 공백 상태라 당장 이에 대한 언급이나 향후 대책 등을 내놓기 어려운 상황</span>”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말 금융위는 보건복지부와 함께 비급여 항목 표준화 등을 담은 ‘실손의료보험 제도 개선방안’을 내놨다. 하지만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 터지면서 정책 추진은 답보 상태다. <br/><br/><br/><br/>시장에서는 정부가 보험사의 팔만 비틀다간 실손보험 판매 자체가 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강화된 자본 적정성 기준인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 예고로 보험업계의 부담도 커진 상황이다. 막대한 손해율로 인한 적자 상황에서 보험료까지 인하되면 여력이 안 되는 중소형 보험사들부터 버티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실손보험 손해율이 220%가 넘는 AIG 손해보험은 이미 실손보험 판매를 중단하고 기존 계약만 갱신하고 있다. <br/><br/><br/><br/>◇전문가들, “비급여 개선이 시급하다” = 전문가들은 실손보험료 상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비급여 항목 표준화 및 원칙 설정과 ‘의원급’ 의료기관으로의 진료 정보 공개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br/><br/><br/><br/>먼저, 비급여 의료항목에 대한 표준화된 코드 마련 및 사용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재는 비급여 항목의 이름이나 코드를 의료기관이 필요할 때 만들어 쓸 수 있어 표준화된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br/><br/><br/><br/>2015년 감사원 발표에 따르면 비급여 의료 항목 코드 1만6680개 중 표준화된 비율은 9.7%(1611개)에 그쳤다. 이로 인해 통계관리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진료 액수와 치료 횟수 등도 천차만별이다. 지난해 6월 보험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도수치료를 받는 데 드는 1회 비용은 4만5000원에서 13만5000원으로, 병원별로 최대 3배가량 되기도 했다.<br/><br/><br/><br/>진료 내용 정보 공개도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현재 진료 내역 공개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만 적용될 뿐 비급여 의료비 비중이 높은 의원급은 해당하지 않고 있다. 보험개발원이 2011∼2014년 진료비 구성 비율을 분석한 결과 상급 종합병원의 실손보험 비급여 의료비 비중은 30.7%인 데 반해 일반병원과 의원은 각각 41.2%, 52.3%나 차지했다. 의료기관의 규모가 작을수록 비급여 의료비로 수익을 내고 있는 셈이다.<br/><br/><br/><br/>정성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span class='quot2'>실손보험이 민간 보험이긴 하지만 3200만 명 이상이 가입한 만큼 과도한 진료 비용을 제재할 수단은 꼭 필요하다</span>”고 말했다. 그는 이어 “<span class='quot2'>보험료 인하는 결국 의료비 지출을 관리하는 데 달려 있다</span>”며 “<span class='quot2'>정책협의체가 가격 통제에만 치우치지 말고 비급여 항목 관리 등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span>”고 덧붙였다.<br/><br/><br/><br/>실손보험 상품의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br/><br/><br/><br/>최양호 한양대 금융보험학과 교수는 실손보험을 기본형과 특약형으로 구분하고, 실손보험 상품의 끼워팔기를 금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span class='quot2'>설계사들이 판매수당을 많이 받기 위해 수수료가 낮은 실손보험을 단독으로 팔기를 꺼리고 있다</span>”며 “<span class='quot2'>저렴한 단독형을 두되, 도수치료를 비롯해 치료 목적에 맞지 않는 고가의 비급여 주사 등은 특약형 실손보험으로 따로 보장하는 게 맞다</span>”고 덧붙였다.<br/><br/><br/><br/>황혜진 기자 best

언론사: 문화일보-1-124.txt

제목: 한국의 바이오신약 개발 어디까지? …전문기자 7인의 역저 출간  
날짜: 2017062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501.20170623161005001  
ID: 01100501.20170623161005001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한국의 바이오 신약개발 과학기술을 소개하는 책 ‘바이오사이언스의 이해’(사진·바이오스펙테이터 발행)가 나왔다. 서울경제신문 등에서 기자 생활을 거친 이기형 바이오스펙테이터 대표와 천승현, 장종원, 서일, 김성민, 조정민, 이은아 등 바이오·제약 분야 전문기자 7명이 함께 쓴 책이다. <br/><br/><br/><br/>암을 비롯해 난치병, 유전질환, 만성질환, 뇌질환을 정복하기 위한 생명과학 기반의 첨단 치료제 개발 원리와 현황을 쉽게 해설한다. 이 과정에서 혁신적인 바이오 의약품 개발에 도전하는 한국 바이오테크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br/><br/><br/><br/>책의 앞부분은 바이오(Bio) 의약품의 개념부터 설명한다.<br/><br/><br/><br/>“케미컬 의약품이 화학 물질들의 합성을 통해 치료제를 만드는 것이라면, 바이오 의약품은 살아 있는 생명체의 유전자나 단백질, 세포를 원료로 치료제를 만든다. 바이오 의약품의 탄생 배경은 분자생물학(Molecular Biology)이다. 분자생물학의 목표는 유전자 정보인 DNA 분석, 단백질 및 세포 사이의 역학 관계 해명 등이다. <br/><br/><br/><br/>케미컬 의약품은 사람의 몸 바깥에서 만들어진 화학 물질이 몸 안으로 들어왔을 때 나타나는 효과를 기대한다. 그런데 바이오 의약품은 기본적으로 살아 있는 생물체 안에서 약을 만든다. 우리 몸은 병에 걸렸을 때 스스로 치료하는 기능이 있다. DNA, RNA, 단백질, 세포 사이의 상호 관계를 연구하면 질병의 원인과 발생 메커니즘을 알게 된다. 그리고 이 메커니즘을 활용해 치료제를 개발한다. 특정 단백질, 예를 들어 인슐린이나 성장호르몬 같은 것이 결핍되었을 때, 이를 재조합해서 만든 단백질을 투여하는 방식으로 치료를 하겠다는 컨셉이다. 물론 유전자나 세포 치료도 포함된다. 바이오 의약품은 케미컬 의약품보다 치료 효과가 높고, 부작용이 적다. 특히 케미컬 의약품이 다루기 힘들었던 암이나 난치병, 희귀질환과 만성질환 등에서 높은 효과를 보인다.”<br/><br/><br/><br/>바이오 의약품 효과의 극명한 사례는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다. 2015년 카터는 기자회견을 열어 자신이 흑색종에 걸렸고, 이미 뇌까지 전이되어 시한부 판정을 받았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피부암의 일종인 흑색종은 미국에서 발병률 6위의 대중적인 암이다. 카터는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암 발병 사실을 밝히면서, 그동안 해왔던 것처럼 봉사하며 남은 생애를 마감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시한부 판정을 받았다는 카터는 2017년 현재 아직도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다. 그는 ‘키트루다(Keytruda)’ 치료를 받았는데, 완치되었다는 판정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암세포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키트루다는 미국의 제약기업 MSD(Merck Sharp & Dohme Corp)가 개발한 면역관문억제제다. 사람의 면역 기능은 그 자체로 강력해서 암세포를 제거할 수 있는데, 암세포는 제거당하지 않기 위해서 거짓 신호를 면역 시스템에 보낸다. 면역관문억제제는 암세포의 페이크(fake) 신호를 막는다. 암세포에게 속지 않은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은 정상 작동해 암세포를 제거하고 암을 치료한다. 4기 암에 걸린 1924년생 노인 카터의 암은 그렇게 치료되었다. <br/><br/><br/><br/>이 책은 키트루다와 같은 첨단 바이오 의약품을 개발하고 있는 한국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한국 바이오테크들의 신약개발 연구 현황, 기술의 원리, 배경이 되는 생명과학을 차분히 설명한다. 고교에서 생명과학 수업을 들었다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해설이다. <br/><br/><br/><br/>그럼에도 이해가 어렵다고 느껴지는 부분에서는 도판을 활용했다. 도판은 필자 가운데 한 명이 직접 칠판에 분필로 그린 것을, 다시 사진으로 촬영해 책에 실었다. <br/><br/><br/><br/>바이오 의약품의 주를 이루는 단백질 의약품, 사람의 면역 시스템을 이용해 암을 치료하는 면역 치료, 유전자에 직접 손을 대는 유전자 치료, 한국이 선도 그룹을 형성하고 있는 줄기세포치료, 암을 발병하기 전에 찾아내는 것이 최종 목표인 조기진단, 근대적인 의료의 개념을 과학으로 뒤집으려는 동반진단과 맞춤 정밀의학, 모든 사람의 공포의 대상이 되어버린 알츠하이머 같은 뇌질환을 치료하는 한국의 첨단 과학기술과 치료제의 개발 현황을 다룬다. <br/><br/><br/><br/>바이오사이언스로 어떻게 사람의 목숨을 구하고, 질병의 공포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시도와 노력이 일어나고 있는지 살펴보는 과정에서 한국의 크고 작은 바이오테크들이 등장하며, 그들이 어떤 활약을 펼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br/><br/><br/><br/>저자들은 “<span class='quot0'>바이오사이언스에 대한 대중적인 이해가 토대가 된다면, 죽음의 공포와 질병의 고통으로부터 좀더 많은 사람들이 해방될 수 있는 제도적·정책적 기반을 마련해놓는 것이 가능해질 것</span>”이라며 “<span class='quot0'>이 작은 책 한 권으로 바이오사이언스와 바이오 의약품의 과학적 배경과 현황을 이야기하고, 동시에 한국의 신약개발과 정책적인 문제를 모두 소개할 수는 없을 것이지만, 작은 시작은 될 수 있을 것</span>”이라고 기대했다. <br/><br/><br/><br/><종합문화팀>

언론사: 문화일보-1-125.txt

제목: 하루가 한세기 같은 전쟁통에도… 삶은 흐르더라  
날짜: 20170623  
기자: 엄주엽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501.20170623104005007  
ID: 01100501.20170623104005007  
카테고리: 문화>출판  
본문: 어느 인문학자의 6·25 / 강인숙 지음／에피파니<br/><br/><br/><br/>6·25를 다룬 전쟁소설이 적지 않지만, 박완서의 소설들이 독자들에게는 각인돼 있을 듯하다. 대개 남성 작가가 기둥으로 삼는 이념적 틀에서 벗어나 여성 주체가 생래적으로 갖는 생명에 대한 경외와 타자에 대한 배려, 비극을 극복하는 유연성이 전쟁 체험의 속살을 더 생생하게 증언하고 치유적 효능도 더 있기 때문일 것이다. <br/><br/><br/><br/>강인숙(84) 영인문학관장의 이 ‘6·25 회고담’도 그와 같다. 박완서의 소설이 체험 없이 쓸 수 없다 보니 소설과 수필을 오가듯 하며 독자를 빨아들이는데, 수필인 이 책은 소설을 읽는 착각에 빠져들게 한다. “<span class='quot0'>보편적인 삶을 뒷받침해줄 질서가 사라진</span>” 전쟁이 픽션 같기 때문일 것이다. 국문학자이자 문학평론가인 저자는 고교 2학년 때 서울에서 6·25를 맞았다. 책은 “전시에 사춘기를 맞은 병약하고 예민한 여자아이”의 눈으로 본 전쟁 체험이자 “내 생애에서 보낸 가장 험난한 날들”을 통해 “세상에 무서울 것이 없어진” 여성으로 자라는 성장기(記)이기도 하다.<br/><br/><br/><br/>함경도 갑산에서 월남한 이후 부친의 연이은 사업 실패로 삼각지에서 이촌동으로 이사하던 날 북한군이 남침했다. 이 사춘기 소녀는 틀에 박힌 학교 교육에 진저리를 쳐 ‘제발 하늘이라도 좀 무너져 내렸으면’ 하고 바라던 때였고, 막상 공습경보가 울리자 해방감을 느낀 철부지였다. 38선이 조용해 본 일이 없어서 시민들도 전쟁 발발 소식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아마 그날 밤 서울 시민들은 대체로 편안한 잠들을 잤을 것이다. 우리 집처럼 말이다.” <br/><br/><br/><br/>하지만 가까워지는 포성에 밀려 한밤중 피란을 떠나 한강을 건너야 했지만 앞이 막혀 움직이지 못했다. “가장 불가사의했던 것은 멀리 보이는 한강철교 위에서 일어나는 일이었다. 많은 차들이 남쪽으로 이동하고 있었다. 그런데 철교 중간에 있는 어느 한 지점에 다다르면, 약속이나 한 듯이 헤드라이트들이 꺼져 버리는 것이다. 필름이 끊기듯이 깔끔하게 불들이 꺼져 버리고, 또 꺼져 버리고, 또 꺼져 버리고….” 동이 터올 무렵에야 피란민들은 어젯밤 폭발음이 철교가 폭파되는 소리였고, 꺼져 버리는 불빛들은 어둠 속에 줄지어 다리를 건너다가 영문도 모른 채 강물에 수직 낙하하는 차량이었음을 알고 경악했다. 전쟁이 피부 깊숙이 와 닿은 순간이었을 것이다.<br/><br/><br/><br/>전쟁이 난 지 나흘 만에 피란 간 경기 광주 정자리에서 처음 인민군을 만났다. “그들은 함경도 사투리를 쓰고 있었다. 5년 만에 들어 보는 순종의 고향 사투리다. 반가워서 말을 걸려는 순간, 나는 그들이 바로 조금 전까지 우리 군대와 죽고 죽이면서 싸운 인민군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은 조금도 무섭지 않았다. 대부분이 소년병이었기 때문이다. …물놀이하러 온 고교생들처럼 철이 없어 보였다.” 그는 그 순간 “같은 말을 쓰는 사람들끼리 서로 죽이는 전쟁을 하는 것은 하늘이 용서하지 않을 것 같았다”는 깊은 절망과 분노를 느꼈다.<br/><br/><br/><br/>인민군은 병력 손실을 보충하기 위해 젊은이 사냥에 혈안이 됐다. “어머니들은 목숨을 걸고 아들들을 숨겼다. 적 치하 3개월 동안 어머니들이 짊어진 가장 고통스러운 멍에였다….” 인민군 치하에서 북한군 소좌의 사랑을 받아 그 부대의 주방일을 하며 식량을 얻어 이웃을 돕고 여성으로도 다시 깨어나는 서른 살 과부 매자 아줌마, 여성동맹 활동을 하며 배급을 받아 가족을 먹여 살렸을 뿐 아니라 이혼한 전 남편까지 숨겨줬지만 9·28 서울수복 이후 행방이 묘연해진 스물두 살 이혼녀 등 전쟁 중에 이중의 고통을 받는 여성들에 대한 저자의 시선은 따듯하다. “하루가 한 세기 같은” 전쟁을 통해 저자는 사춘기를 지나 어른이 된다. “그보다 더 나쁜 날들은 있을 수 없는데도 그것을 견뎌냈다는 사실이 언제나 자신감을 자아냈다. 그 후 60년이 넘는 세월을 살아오며 뇌수술을 받고 암에 걸렸을 때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다”고 말한다.<br/><br/><br/><br/>책은 전쟁 체험과 함께 전쟁 중 부산 천막 교사에서 시작해 1953년 서울 동숭동으로 옮겨진 서울대 국문과 재학시절의 이야기로 이어진다. 저자가 책에서 인용하는 “오오! 계절이여, 성이여! 상처 없는 영혼이 어디 있으랴”라는 랭보의 시구처럼 그의 청춘기는 전쟁과 낭만이 교직됐다. 당시 같은 과 동기생이었던 남편 이어령 전 문화부 장관과의 만남과 사랑은 이 책을 통해 처음 상세히 공개된다.<br/><br/><br/><br/>이어령은 처음에 저자를 향한 친구의 사랑을 전하는 메신저 역할이었다. 하지만 그 친구는 “이성으로 다가오지 않아” 깨끗이 거절했다. 어느 날 졸업생 환송회를 한 날 보낸 편지에서 이어령은 “<span class='quot1'>30도의 술에 취하여 이 글을 쓰오</span>”라고 말문을 열었다. 저자는 당시 일기에 “<span class='quot2'>그가 마신 두 잔 술에 나는 아직도 취해 있는 것 같다</span>”고 썼다. 하지만 저자는 이미 당시 화제를 모은 ‘문리대학보’의 편집과 거기에 실었던 ‘이상론(李箱論)’ 등 이어령이 보인 천재성에 압도돼 있었다. <br/><br/><br/><br/>3학년 1학기에 둘은 극장이나 같이 가는 친구로 지내기로 했으나 “두 달도 못 되어 나는 한 남자를 태양으로 삼아 종일 그쪽만 바라보며 사는 해바라기가 되어 있었다”고 회고했다. 이어령은 딴 남자를 쳐다볼 여유를 주지 않았다. “재학 중에도 그랬지만 졸업한 후에도 그는 날마다 직장이 끝나자마자 만나서 밤 11시가 되지 않으면 놓아주지 않았다. 외곬으로 모이는 그 집착과 몰입과 열정이 나는 싫지 않았다. 사랑에 대한 확신을 다져 주고 있었기 때문이다.”<br/><br/><br/><br/>엄주엽 선임기자 ejyeob

언론사: 문화일보-1-126.txt

제목: 암환자 피로감, 이거 먹으면 해결된다는데...  
날짜: 20170622  
기자: 이용권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501.20170622145006007  
ID: 01100501.20170622145006007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홍삼, 암환자 피로회복에 효과<br/><br/><br/><br/>암 환자가 홍삼(사진)을 섭취하면 항암 치료 과정에서 나타나는 피로감을 줄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br/><br/><br/><br/>김열홍 고려대안암병원 종양혈액내과 교수팀은 항암 치료를 받는 대장암 환자 438명을 대상으로 홍삼 섭취가 피로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피로 해소 효능이 확인됐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길병원, 서울성모병원, 강남세브란스병원, 서울대병원 등 전국 15개 대학병원이 참여했으며 이날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암학회’에서 발표됐다.<br/><br/><br/><br/>암으로 인한 피로는 암 환자의 80% 정도가 흔히 경험하는 대표적인 증상으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 항우울제, 부신피질호르몬제, 인지행동치료 등으로 접근하고 있지만 아직 치료 효과나 근거가 많이 부족한 상황이다. <br/><br/><br/><br/>연구팀은 홍삼의 효능을 확인하기 위해 조사 대상자를 219명씩 두 그룹으로 나눠 A그룹에는 16주에 걸쳐 하루 2회씩 홍삼 1000㎎을 복용하게 했고, B그룹에는 홍삼 성분이 포함되지 않은 가짜 약을 먹게 했다. 이후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피로도 지표인 ‘BFI’(Brief Fatigue Inventory) 설문조사를 이용해 그룹별 평균 피로점수(높을수록 피로도 낮음)를 분석했다.<br/><br/><br/><br/>이 결과 전반적인 피로도는 홍삼을 복용한 A그룹(81.07점)이 가짜 약을 먹은 B그룹(78.1점)보다 피로를 덜 느낀 것으로 나타났다. 대인관계에 있어 오는 피로도 역시 A그룹(86.43점)이 B그룹(81.31점)보다 낮았다. 또 보행능력에 따른 피로도는 A그룹 88.33점, B그룹 83.73점이었고, 기분에 따른 피로감의 경우 A그룹 83.93점, B그룹 80.98점 등이었다. <br/><br/><br/><br/>연구팀 일원으로 이날 아시아태평양암학회에서 연구 결과 발표를 맡은 오상철 고려대구로병원 종양혈액내과 교수는 “<span class='quot0'>이번 연구 결과는 암 환자의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리는 피로감 부분을 홍삼이 매우 효과적으로 개선했다는 점을 밝힌 것</span>”이라며 “<span class='quot0'>연구 과정 중 치료와 관련해 식별 가능한 이상 반응이 없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항암치료의 효과적인 보조치료제로서 홍삼의 가능성을 확인한 것이 큰 의미</span>”라고 밝혔다. <br/><br/><br/><br/>이용권 기자 freeuse

언론사: 문화일보-1-127.txt

제목: <윤승일 원장의 디톡스 푸드>양배추, 혈압조절·癌예방에 탁월한 효능… 갑상선 약하다면 데쳐먹어야  
날짜: 2017062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501.20170621110006002  
ID: 01100501.20170621110006002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양배추 속엔 황이 들어 있다. 계란 노른자, 마늘, 양파, 브로콜리, 소고기 간 등에 풍부한 황은 우리 몸에서 많은 일을 하는 미네랄이다. 탄수화물 대사를 위한 인슐린 합성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간 해독에 좋은 글루타티온 합성에도 절대적인 존재다. 관절 속에서도 황이 없으면 콜라겐 부족을 야기해 만성 퇴행성 관절염을 유발한다. 뇌 안에서도 뇌신경세포 보호를 위해서 필요하고 어르신들이 유황온천에 가서 몸을 담그시는 이유 또한 이 황의 해독능력과 관절보호 능력을 높이 사셨기 때문이리라.<br/><br/><br/><br/>황은 타우린 합성에도 관여한다. 타우린은 이뇨작용이나 안정작용을 하며 쓸개즙의 원활한 역할을 위해서도 꼭 있어야 한다. 감정이 불안하고 업다운이 심한, 집중력 장애가 있는 아이들에게 타우린은 마음을 진정시키며 뇌세포를 보호해준다. <br/><br/><br/><br/>양배추는 또 티오시아네이트(thiocyanates), 루테인(lutein), 지아잔틴(zeaxanthin), 이소티오시아네이트(isothiocyanates), 설포라판(sulforaphane) 등의 강력한 항산화 성분을 다량 함유하고 있어 유방암, 대장암, 전립선암 예방에도 탁월한 효능을 보여준다. <br/><br/><br/><br/>비타민도 양배추에는 풍부하게 들어있다. 비타민 K의 경우 100g당 하루 필요량의 85%를 함유하고 있어서 혈액을 적절히 응고시켜주는 작용 외에도 뼈를 튼튼히 함과 동시에 면역력을 보호하면서 뇌신경세포 파괴로 인한 기억력저하와 알츠하이머 증상 호전을 돕는 데 일조한다.<br/><br/><br/><br/>비타민 C는 하루 필요량의 45%가 들어 있어서 항산화 기능과 함께 뼈를 튼튼히 하고 관절의 염증을 줄여주는 데 도움을 준다. <br/><br/><br/><br/>그 외에도 양배추는 식물성 섬유소와 비타민 B6, 엽산, 망간 등을 풍부하게 함유해 비타민 B1, B5, 철분, 마그네슘, 인산, 칼슘 등과 어우러져 혈압을 조절하고 관절과 뼈를 강화해 준다. <br/><br/><br/><br/>양배추 속 물질인 인돌-3-카비놀은 항암작용뿐 아니라 위점막이 헐어서 오는 위궤양 회복에도 도움을 준다. 양배추를 쪄서 하루 두 큰 수저 정도의 양을 먹게 되면 위암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다.<br/><br/><br/><br/>그 외에도 여성호르몬인 난포호르몬(estrogen)이 과다해서 오는 에스트로겐 과다증으로 인한 유방암이나 자궁종양 예방에도 양배추는 도움을 준다. 특히 여성이 과음을 하고 튀긴 음식과 프라이팬에 태운 고기 등을 즐겨 먹어 나타난 호르몬 불균형으로 암 발병에 노출됐을 경우에 유익하다.<br/><br/><br/><br/>생리전증후군이나 갱년기장애, 폐경기우울증 등 모두 에스트로겐 과다증과 관련이 많은데 에스트로겐은 지방을 축적시키는 작용이 크기 때문에 생리 중에 생리 양이 많으면서 덩어리가 많거나 가슴이 붓는 느낌, 눈 밑 다크서클, 몸이 푸석푸석 붓는 증상들이 있다면 의심해 봐야 한다. 이런 여성이라면 양배추의 다양한 기능적 성분들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br/><br/><br/><br/>설포라판이 풍부한 브로콜리와 방울양배추(브러셀 스프라우트), 콜리플라워와 함께 양배추에는 글루타티온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많이 들어있어 활성산소를 억제하고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보호해준다. 글루타티온은 특히 유해환경물질과 잔류농약, 미세먼지와 황사 등의 보이지 않는 간독성물질을 해독하고 소변으로 잘 배출시키는 능력자다.<br/><br/><br/><br/>한편 양배추에는 요오드 흡수를 억제하는 성분이 들어 있어서 생양배추를 먹게 되는 경우에 갑상선을 붓게 하고 갑상선 억제를 조장할 수 있다. 따라서 갑상선 기능이 약한 분들은 살짝 데치거나 삶아서 먹는 것이 안전하다. <br/><br/><br/><br/> 빙빙한의원 원장(한의기능영양학회장)

언론사: 문화일보-1-128.txt

제목: <100세 시대 ‘식·의약 안전’>혈당·수면 등 ‘라이프 로그’ 축적… ‘건강 이상’ 미리 잡는다  
날짜: 20170614  
기자: 이용권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501.20170614143006010  
ID: 01100501.20170614143006010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36) 4차 산업혁명과 바이오헬스 산업<br/><br/><br/><br/>첨단IT기술+의료기술 만나 <br/><br/>헬스케어 패러다임 大전환 <br/><br/><br/><br/>딥러닝 통해 질병 진단하고 <br/><br/>유전체 절단해 난치병 극복 <br/><br/>AI헬스시장 4년뒤 66억달러<br/><br/><br/><br/>바이오 헬스 산업은 현시대를 관통하고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 ‘4차 산업혁명’에 가장 근접해 있다는 평가를 받는 분야다. 산업연구원(KIET)도 최근 보고서에서 기초적 접근단계에 있는 다른 산업 분야보다 바이오 헬스는 가까운 미래에 기술을 활발하게 적용하면서 정밀의료, 스마트 의료 등의 이행이 촉진될 것으로 전망했다.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이 4차 산업혁명을 정의하면서 주요한 요소로 밝힌 ‘업종 간 융합’은 이미 바이오 헬스 분야에서 활발하다. WEF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해 ‘3차 산업혁명을 기반으로 디지털·물리학·생물학적 영역의 경계가 허물어지면서 기술이 융합되는, 인류가 이제껏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혁명’이라고 표현했다. <br/><br/><br/><br/>정보기술(IT)과 의학기술의 결합으로 활발해지고 있는 스마트 헬스 케어, 인공지능(AI) 진단, 맞춤형 관리, 가사 로봇, 신약 개발, 유전자가위 등이 대표적이다. 생명공학 분야에서도 다양한 산업이 융·복합되면서 새로운 기술들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정밀의학과 맞춤 의료가 비약적으로 발전할수록 첨단바이오의약품 영역도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한다.<br/><br/><br/><br/>◇헬스 케어 패러다임 변화 = 첨단기술의 융합은 건강관리 산업에 혁신을 가져왔다. 기존의 산업 중심이 시스템 중심으로 펼쳐졌다면, 앞으로는 개인의 일상생활과 모바일로 압축된다. 대중의 관심과 경향을 빅데이터로 분석한 결과를 보면 사회 혁신의 중심은 10여 년 전 시스템·전략·기획 등에서 최근 SNS·태블릿(Tablet)·캠핑 등 개인 생활로 변화하고 있다. 이런 혁신의 변화는 최근 헬스 케어 시장에서의 개인형, 맞춤형 서비스 트렌드와 맥을 같이 한다. <br/><br/><br/><br/>바이오 헬스 산업은 빅데이터, AI 등 4차 산업혁명 기술과 유전공학 기술의 발전 등으로 경험기반·범용에서 데이터 기반·맞춤형으로 진화하는 중이다. 이를테면 기존에는 의료인 개인의 지식과 경험을 기반으로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해온 반면, 앞으로는 개인의 진료기록은 물론 라이프 로그 등이 데이터로 축적되면서 이를 토대로 통계 분석적으로 관리된다. 라이프 로그란 심박 수, 혈압, 혈당, 운동량, 수면 시간 등 일상생활에서 측정되는 생체정보를 의미한다.<br/><br/><br/><br/>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유전체 정보 분석기술이 현실화하면서, 질병과 관련 있는 유전자 이상을 사전에 감지하고 대응할 수 있게 됐다. 이는 치료(Cure) 중심에서 개인화된 헬스 케어·예방(Care·Prevention)으로의 전환을 가속화 한다. 과학기술자들이 인간 유전체 염기서열을 완성하면서 유전 정보로부터 개인의 질병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탐색하거나 개인에게 적합한 의학적 처방을 모색하는 일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br/><br/><br/><br/>이외에도 스마트폰의 보급, 웨어러블 디바이스 등이 활발하게 보급되면서 헬스 케어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병원 밖에서 환자 스스로가 건강을 관리하고 상태를 지켜보는 서비스도 확산 중이다. 개인별 특성에 맞춰지다 보니 치료 효과는 물론 관리도 정교해지는 것이다.<br/><br/><br/><br/>◇활발한 바이오헬스 산업 = 글로벌 시장조사 기업인 ‘프로스트 앤드 설리번’에 따르면 AI 헬스 케어 시장 규모는 2015년 8억 달러에서 2021년에는 66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됐다. 애플과 구글 등 글로벌 기업은 물론 보험사의 참여도 적극적이다. 애플은 아이폰, 애플워치 사용자의 운동량과 활동량 등을 측정한 데이터 통합 건강관리플랫폼인 ‘Health kit’를 출시했다. IBM은 인공지능 ‘왓슨’을 전 세계 50여 개 주요 병원에서 진단보조로 활용하고 있다. IBM은 헬스 케어 관련 업체들을 인수하면서 관련 사업을 강화하고 있다. 미국의 생명보험사 ‘Cigna’는 개인 건강정보를 측정해 건강군, 건강 위험군, 만성 질환군, 급성 질환군 등으로 계층을 구분하고, 개인별 건강·질환을 관리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Noom’이라는 체중관리서비스가 출시됐다. 개인 활동량, 체중, 식단 등 건강정보를 측정해 입력하고, 전문가 상담이 결합된 체중관리서비스를 제공한다.<br/><br/><br/><br/>빅데이터를 활용한 다양한 개인 맞춤 신약 개발도 예상된다. 아직 초기 단계지만 국내도 정밀의료사업단이 꾸려져 한국인 유전자에 맞는 신약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또 줄기세포 치료제와 면역항암제 등 세포치료제, 다양한 기술과 바이오가 융합된 3D 프린팅 같은 첨단바이오의약품 분야 연구·개발도 활발하다.<br/><br/><br/><br/>유전체에서 원하는 부위의 유전자를 정교하게 잘라내는 기술인 ‘유전자 가위’의 발전도 주목받고 있다. 기술을 활용해 안구질환, 암, 혈구성 빈혈, 근위축증 등 난치성 질환을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br/><br/><br/><br/>의료기기 개발도 활발하다. 이른바 ‘ICBM’(사물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모바일)을 기반으로 한 ‘4P’(Participatory·참여, Predictive·예측, Preventive·예방, Personalized·개인화) 중심의 신개념 의료기기다. 삼성메디슨은 딥러닝 기술을 적용해 유방암 등 관련 질병의 악성 여부를 알려주는 진단 시스템을, 바텍은 수면무호흡증 환자의 기도 위치를 알려주는 AI 기술을 개발했다. <br/><br/><br/><br/>이용권 기자 freeuse

언론사: 문화일보-1-129.txt

제목: < Consumer >환자는 절박한데… 일부 병원, 비싼 수술·주사로 ‘돈벌이’  
날짜: 20170608  
기자: 이용권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501.20170608114006003  
ID: 01100501.20170608114006003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최근 건강검진에서 혈액암의 일종인 만성호중구성백혈병을 진단받은 60대 부산 여성 A 씨는 큰 충격에 휩싸였다. 혈액암이라는 사실도 놀라웠지만, 천차만별인 의료비용 때문이었다. 온갖 인맥을 동원해 암을 잘 고친다는 곳을 수소문해 서울의 한 의원급 의료기관을 찾았는데, 치료비로 1000만 원을 요구받았다. 또 다른 추천으로 서울 강남에 있는 한방의료기관을 방문해서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 한 달 약값만 무려 500만 원에 달했고, 입원 치료 시에는 추가 비용도 있었다.<br/><br/><br/><br/>#초등학생 아들을 둔 40대 여성 B 씨도 최근 의료기관을 방문했다가 고가의 비용 때문에 충격을 받았다. 자녀의 키가 또래보다 작아 여기저기 광고하는 성장클리닉을 소개받아 갔더니 자녀의 최종 키가 170㎝를 넘지 않는다는 진단과 함께 호르몬 주사 치료를 제안받았다. 호르몬 주사제 비용은 1000만 원. 이곳 성장클리닉뿐 아니라 의료계에서는 호르몬 주사제 평균가격이 1000만 원선에 형성됐다고 들었다.<br/><br/><br/><br/> 생명의 위험을 느끼는 환자나 자녀가 최우선인 보호자들은 이런 고가의 치료비 요구에 생각할 여지 없이 바로 응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절박한 환자는 자신의 건강을 좌우하는 의사 앞에서 ‘슈퍼 을(乙)’이기 때문이다.<br/><br/><br/><br/>8일 보건의료 시민사회단체 등에 따르면 이런 환자의 절박함을 악용해 ‘치료’보다는 ‘장사’에 치중하는 의료기관들이 적지 않다. 김재천 건강세상네트워크 환자권리사업단 집행위원은 “<span class='quot0'>암이나 특정 질환에 걸리면 환자들은 충격이 큰데, 그런 취약한 부분을 이용하는 의사들이 있는 게 사실</span>”이라며 “<span class='quot0'>훌륭한 의사도 많지만, 이들로 인해 의료 윤리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span>”이라고 말했다.<br/><br/><br/><br/>안전성이나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경우도 많지만, 이에 대한 객관적인 임상 자료를 알려주는 경우도 거의 없다. 가볍게는 최근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서 드러난 각종 비타민 주사제 역시 ‘장사’로 볼 수 있다는 게 시민사회단체의 지적이다.<br/><br/><br/><br/>김 집행위원은 “<span class='quot1'>마늘주사, 백옥주사 등이 유효성이 없는 것이라는 임상 결과가 나왔음에도 여전히 많은 곳에서 처방되고 있다</span>”며 “<span class='quot1'>각 병원이 로봇수술을 경쟁적으로 홍보하는 것도 환자들을 혹하게 하는 하나의 마케팅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상황</span>”이라고 지적했다.<br/><br/><br/><br/>공공병원이 턱없이 부족하고, 의료기관 대부분이 민간기관인 상황이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분석이다. 김 집행위원은 “<span class='quot1'>시장논리에 따라 민간병원은 살아남기 위해 ‘의료’를 상업화의 수단으로 여기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다</span>”며 “<span class='quot1'>결국 일부 의료기관들이 환자의 건강에 대한 염려와 불안을 장사 도구로 활용하는 문제점이 나타난 것</span>”이라고 지적했다.<br/><br/><br/><br/>문제는 이런 고가의 의료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사회적 안전장치가 없다는 점이다. 익명을 요구한 환자단체 관계자는 “<span class='quot2'>면허가 없는 사람이 의료행위를 하면 불법으로 처벌받지만, 면허가 있는 의료인들의 경우에는 효과 없는 의료행위에 대해 비싸게 진료비를 받아도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는 상황</span>”이라고 했다. 그는 “<span class='quot2'>환자 입장에서 객관적인 사실로만 판단하고 불필요한 치료 유혹에 빠지지 않아야 하는데, 환자라는 특성상 쉽지 않다</span>”고 말했다.<br/><br/><br/><br/>그는 또 “<span class='quot2'>대부분 환자는 절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효과가 없을 수도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값비싼 비용을 부담하고 치료를 받는다</span>”며 “<span class='quot2'>이 때문에 나중에 치료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도 해당 의료기관에 문제를 제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이런 문제들이 오랜 기간 개선되지 않는 원인이기도 하다</span>”고 말했다.<br/><br/><br/><br/>의료인들의 자정 노력이 선행돼야 하지만, 이에 맞춰 법·제도적 뒷받침도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김 집행위원은 “<span class='quot1'>의사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려면 의사들 스스로 자정 노력이 이뤄질 수 있도록 윤리적 행위에 대한 의무를 강제해야 한다</span>”며 “<span class='quot1'>예를 들면 최근 삼성서울병원에서 발생한 대리수술의 경우, 관련 규정이 없는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에서는 이미 1980년대부터 중대 범죄로 규정할 정도로 엄격하게 처리하고 있다</span>”고 말했다.<br/><br/><br/><br/>그는 “<span class='quot1'>의료계에서는 국내 상황이 여의치 않다고 핑계를 대지만, 시스템이 따르지 못한다면 시스템을 고쳐야 한다</span>”며 “<span class='quot1'>환자의 생명과 건강이 최우선인 만큼 환자 권리를 보호하는 것은 가장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한다</span>”고 말했다.<br/><br/><br/><br/>건강세상네트워크에서는 법적으로 환자에 대한 설명 의무와 피해보상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특히, 유효성이 확인되지 않은 치료로 환자가 손해를 입었을 때, 환자가 이를 규명하는 게 아니라 의료인이 왜 이런 치료법을 사용했는지 규명하도록 해야 하며 검증되지 않은 치료법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처벌하는 강력한 법체계가 필요하다고 이 단체는 지적했다. <br/><br/><br/><br/>이용권 기자 freeuse

언론사: 문화일보-1-130.txt

제목: < Consumer >“왜 필요한 치료인지 물어보고, 검사 많이 하면 의심해봐야”  
날짜: 20170608  
기자: 이용권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501.20170608114006004  
ID: 01100501.20170608114006004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좋은 의사·병원 고르는 법<br/><br/><br/><br/> 좋은 의사, 좋은 병원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환자들이 소위 ‘똑똑’해야 한다. 이것저것 잘 검토하고 꼼꼼히 점검해야 한다.<br/><br/><br/><br/>김재천 건강세상네트워크 환자권리사업단 집행위원은 8일 “<span class='quot0'>환자가 병원에서 여러 가지 치료 옵션을 제안받았을 때 ‘나에게 이게 왜 필요한 건지’ 의사에게 물어봐야 한다</span>”고 조언했다. 미심쩍거나 효과가 불확실한 치료는 받지 않는 것이 좋다.<br/><br/><br/><br/>병원에 가기 전에 최소한의 병원 평가정보를 미리 확인하는 것도 필요하다. 보건복지부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본인이 가고자 하는 병원의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항생제를 얼마나 처방하는지, 주사제 처방률은 높은지 등을 확인할 수 있다.<br/><br/><br/><br/>병원의 의료진 소개가 부실하거나, 의료진이 자주 바뀌는 병원도 좋은 병원인지 의심해봐야 한다. 또 이름이 자주 바뀌는 병원이나, 이것저것 검사를 많이 하는 병원도 피하는 것이 좋다.<br/><br/><br/><br/>병원에 도착해서도 치료를 받을 때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환자 권리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부의 경우 먼저 시술이나 처치부터 해놓고 환자동의서에 서명하도록 하는 때도 있는데, 이는 반드시 시술 전에 해야 하는 사항이다.<br/><br/><br/><br/>암이나 고난도 수술의 경우 의사의 임상 경력을 확인하는 것도 필요하다. 전문의 여부는 필수확인 요소다. 대학병원 교수의 경우 관련 연구논문을 확인하는 것도 좋은 의사를 판단하는 방법 중 하나다. 가급적 ‘과학기술논문인용색인(SCI)급’ 학술논문의 주저자인지를 확인하면 된다. 연구실적이 좋다고 꼭 우수한 의사인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자신의 전문분야에 대해 끊임없이 연구하고 공부한다는 의미는 있기 때문이다.<br/><br/><br/><br/>환자가 왔을 때 검사를 이것저것 많이 하는 경우는 실력 없는 의사일 가능성이 크다. 능력 있는 의사는 꼭 필요한 검사만으로도 충분히 치료할 수 있다.<br/><br/><br/><br/>좋은 의사는 환자의 말을 많이 듣고, 환자의 증상을 많이 물으며 생활습관이나 질환으로 인한 어려움을 상세하게 물어보고 듣는다.<br/><br/><br/><br/>또한 치료 과정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환자의 알 권리를 존중해 주는 의사가 좋은 의사다. 약이나 시술, 수술적 처방도 중요하지만, 환자의 나쁜 생활습관을 교정하려고 노력하는 의사를 선택하는 것도 후회할 가능성이 낮다. 아무리 ‘명의’라고 해도 환자 본인과 맞지 않으면 좋은 의사라고 할 수 없다. 의사와 환자 간의 신뢰가 두터운 경우가 환자에게 가장 좋다.<br/><br/><br/><br/> 이용권 기자 freeuse

언론사: 문화일보-1-131.txt

제목: ‘폐선암→소세포폐암’ 변환 과정 세계 첫 규명  
날짜: 20170607  
기자: 이용권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501.20170607154006003  
ID: 01100501.20170607154006003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폐선암’이 표적 치료 도중에 악성도가 더 심한 ‘소세포폐암’으로 변하는 기전을 국내 연구진이 처음으로 규명했다. 폐선암은 국내 폐암의 85%를 차지하는 비소세포폐암 중 가장 흔한 형태의 암이다.<br/><br/><br/><br/>김태민 서울대병원 혈액종양내과 교수와 KAIST 의과학대학원 주영석 교수, 이준구 전문의팀은 미국임상종양학회 공식 학회지인 ‘임상 종양학저널’(Journal of Clinical Oncology) 최근호에 이런 연구결과를 발표했다고 7일 밝혔다. <br/><br/><br/><br/>폐암은 암세포의 특성에 따라 크게 비소세포폐암(폐암의 85%)과 소세포폐암(나머지 15%)으로 나뉜다. 비소세포폐암은 세포의 모양에 따라 다시 폐선암과 편평상피세포폐암, 대세포폐암 등으로 구분한다. 예전에는 흡연과 관련 있는 편평상피세포폐암의 빈도가 가장 높았으나, 최근에는 폐선암이 가장 흔하다.<br/><br/><br/><br/>일부 비소세포폐암 환자는 폐암을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유전적 변이 중 하나인 ‘상피세포 성장인자수용체(EGFR) 유전자 돌연변이’를 갖고 있다. 이 돌연변이는 주로 폐선암에서 발견되며 여성·비흡연자·한국을 비롯한 동양인에서 많이 나타난다. EGFR-돌연변이가 있으면 이를 억제하는 표적치료제를 쓴다. <br/><br/><br/><br/>문제는 초기에는 종양의 크기가 줄어들다가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시 커진다는 것. 치료제에 대한 내성이 나타나는 것이다. 특히 폐선암에서는 이런 내성의 하나로 표적치료 중 소세포폐암으로의 변하기도 한다. 소세포폐암은 폐선암보다 상대적으로 암세포의 성장과 전이가 빨라 환자의 상태를 빠르게 악화시킨다. <br/><br/><br/><br/>연구팀은 이 변환과정을 밝히기 위해 EGFR-돌연변이 폐선암 환자 4명의 표적치료 전후 종양 조직을 ‘전장유전체염기서열분석 기법’을 이용해 비교 분석했다. 그 결과, 소세포폐암으로 변환된 환자는 치료 전 폐선암 조직과 치료 후 소세포폐암 조직 모두에서 종양 억제유전자인 ‘TP53’과 ‘RB1’이 완전히 비활성화돼 있음이 확인됐다. 즉, 폐선암의 첫 진단 시 조직을 이용해 ‘TP53’‘RB1’ 유전자 검사를 하면 치료 중 소세포폐암으로 변할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알 수 있게 된 것이다. 이 같은 확인은 유전자 검사 없이 두 유전자에 대한 간단한 면역 병리 검사만으로도 예측이 가능한 만큼 임상 적용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br/><br/><br/><br/>주영석 교수는 “<span class='quot0'>전장유전체염기서열분석 기법을 통해 암세포의 진화과정을 재구성해, 폐선암의 소세포폐암 변환 현상을 밝혔다</span>”고 말했다. 이준구 전문의는 “<span class='quot1'>진료현장에서 지난 10년간 해결하지 못한 의문점을 세계 최초로 밝혀낸 의미 있는 연구</span>”라고 밝혔다. 김태민 교수는 “<span class='quot2'>임상과 기초연구가 잘 연계된 대표적인 연구사례</span>”라며 “<span class='quot2'>연구에 참여한 기관을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진료에 응용할 예정이다</span>”고 말했다. <br/><br/><br/><br/>이용권 기자 freeuse@

언론사: 문화일보-1-132.txt

제목: <인사청문회>靑, 김상조 임명 기류… 김이수·강경화도 “치명적 아냐”판단  
날짜: 20170607  
기자: 이근평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501.20170607121006006  
ID: 01100501.20170607121006006  
카테고리: 사회>사회일반  
본문: 김상조 청문회뒤 긍정적 여론 <br/><br/>야권도 보고서 채택 여지 있어 <br/><br/>강경화 의혹에는 “악성 아냐” <br/><br/>김이수 “시비 가려질 것” 판단 <br/><br/><br/><br/>정치권과 마찰 최소화에 주력<br/><br/><br/><br/>문재인 대통령이 내정한 장관급 후보자들에 대한 검증 국면에서 불거진 야권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 문 대통령은 정면돌파 기류를 보이고 있다. 특히 김상조(사진)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임명 강행 분위기가 강하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들도 낙마할 만한 사안은 아니라는 입장을 견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br/><br/><br/><br/>이에 문재인 정부 초기 조각 과정에서 여권과 자유한국당 등 일부 야권의 협치를 둘러싼 공방과 이에 따른 경색 국면이 이어질 수도 있는 형국이다.<br/><br/><br/><br/>7일 청와대에 따르면 지난 2일 인사청문회를 거친 김상조 후보자의 경우 청문회를 마친 뒤 의혹 해소를 넘어 긍정적인 여론마저 감지되고 있어 사실상 임명 강행 의지를 보이고 있다. <br/><br/><br/><br/>청와대 관계자는 “<span class='quot0'>김상조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각종 의혹을 납득할 수 있게 해명했다</span>”며 “<span class='quot0'>국회의 청문 보고서 채택에 무리가 없다</span>”고 평가했다. 가장 큰 쟁점이 된 위장전입과 신용카드 신고액 0원 의혹은 각각 아내의 암 투병과 검소한 씀씀이와 같은 인간적인 사연이 알려지면서 자연스럽게 해소됐고 부동산 다운계약서와 논문 표절 논란은 적정한 사과에서 확전을 막았다는 것이다.<br/><br/><br/><br/>김상조 후보자 임명을 강경하게 반대하는 한국당을 제외하면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이 부적격 의견을 내면서도 보고서 채택 가능성에 여지를 두고 있는 점도 임명이 가시권에 들어왔다는 청와대의 판단을 견고하게 하고 있다. 정운찬 전 국무총리 등 사회 인사 498명이 지난 6일 김상조 후보자 임명 지지 성명을 내는 등 정치권 바깥의 지원 사격 역시 고무적이다.<br/><br/><br/><br/>강 후보자와 김이수 후보자에 대해선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이 낙마를 고려할 만큼 치명적이지는 않다는 게 청와대 중론이다. 강 후보자의 위장전입과 증여세 탈세 의혹은 의도성 측면에서 악성으로 보기 힘들고 김이수 후보자에게 제기되는 이념 편향성과 5·18 민주화운동 당시 유죄 판결 문제는 청문회에서 시비가 가려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청와대는 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를 놓고서는 도덕성 흠결보다 일자리 추경 등 정책관이 청문회에서 주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야당의 공세 수위가 비교적 낮아 무난한 통과를 점치고 있다. 따라서 청와대는 임명 자체를 넘어 정치권과 마찰을 최소화하는 방안 마련에 더 주력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br/><br/><br/><br/>이근평 기자 istandby4u

언론사: 문화일보-1-133.txt

제목: <그래도 희망이다>“탈북자들 정신적 트라우마 이겨낼 수 있게 도와줄 것”  
날짜: 20170605  
기자: 전현진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501.20170605113506002  
ID: 01100501.20170605113506002  
카테고리: 미분류  
본문: - 脫北해 서울서 ‘한의사 家業’ 8代째 잇는 정일경 씨<br/><br/><br/><br/>집안서 이어져 온 의술로 치료<br/><br/><br/><br/> 脫北해 서울서 ‘한의사 家業’ 8代째 잇는 정일경 씨<br/><br/><br/><br/>탈북자 출신 한의사 정일경(43·사진) ‘100년한의원’ 원장은 북한을 떠난 지 18년이 흘렀지만 아직도 가끔 누군가에게 쫓기는 악몽을 꾼다. 첫 번째 탈북 시도 때 붙잡혀 고문을 당했던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이다. 지난 2일 서울 중구 서소문동 100년한의원에서 만난 정 원장은 “<span class='quot0'>같은 처지의 탈북자들이 정신적 트라우마를 이겨낼 수 있도록 한의사로서 힘이 되고 싶다</span>”고 말했다.<br/><br/><br/><br/>정 원장은 1974년 8월 함경북도 청진시에서 태어났다. 정 원장의 집안은 8대째 한의사 직업을 이어가고 있다. 정 원장의 아버지는 평양의대에서 한의사 자격을 딴 1기 졸업생. 하지만 출신 성분은 좋지 못했다. 정 원장의 아버지는 북한의 출신 성분 중 가장 낮은 복합계층(또는 적대계층)에 속했다. 게다가 정 원장의 아버지는 1985년 가족을 두고 혼자 탈북했다. 정 원장의 부친에게 치료를 받았던 당시 국가안전보위부 간부가 ‘곧 정치범 수용소에 갇히게 될 것’이라고 귀띔해줬기 때문이다. 정 원장은 아버지와 작별 인사조차 나누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정 원장은 대학 진학을 꿈꾸기도 어려운 여건이었지만, 한의사가 되는 길이 자신의 숙명이라고 믿었기에 오히려 더 열심히 공부했다. 정 원장은 결국 수석으로 청진의대에 입학했다. 뛰어난 성적 덕분에 북한 당국도 정 원장의 대학 진학을 막을 수 없었다.<br/><br/><br/><br/>정 원장이 탈북을 결심한 건 대학을 졸업한 1998년이었다. 출신 성분의 한계를 벗고 자유로운 삶을 살고 싶어서였다. 정 원장은 먼저 탈북해 중국과 러시아에서 생활하던 아버지와 비밀리에 연락했지만 첫 번째 탈북 시도는 실패에 그쳤다. 이때 붙잡힌 그는 모진 고문을 당했다. 이듬해 두 번째 시도에서 탈북에 성공했다. 정 원장은 2000년 아버지와 함께 한국 땅을 밟았다. 정 원장은 2001년 상지대 한의대(석사 통합 7년 과정)에 입학했고, 졸업 후에는 한의원을 개업, 경희대 대학원에 진학해 한의학 박사학위를 땄다. 출신 성분과 부친의 탈북 전력에 가로막혔던 꿈을 한국에서 펼치게 됐다. 2003년엔 어머니도 탈북했다. 2004년에는 경희대에서 만난 부인 한봉희(41) 씨와 결혼도 했다. 부인도 탈북자 출신이다.<br/><br/><br/><br/>정 원장의 목표는 자신의 의술로 탈북자들의 몸뿐만 아니라 마음도 고치는 것이다. 정 원장은 “<span class='quot0'>많은 탈북자가 나처럼 크고 작은 정신적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span>”며 “<span class='quot0'>같은 처지에서 공감해주고 이해할 수 있기에 건강한 삶을 살도록 돕고 싶다</span>”고 말했다. 그는 정확한 진맥을 돕는 은빛 쇠반지, 침을 뜨겁게 달궈 환부에 놓는 불침 등 집안에서 이어져 온 의술을 계승·발전시켜 난치성 만성 질환 치료에도 집중하고 있다. 정 원장은 “<span class='quot0'>지난달 암, 당뇨 등 난치병을 한의학 전통에 따라 뿌리부터 치료하는 난치병 특수 클리닉을 새롭게 열었다</span>”며 “<span class='quot0'>선조들의 지혜를 발전시킨 자연치유 프로그램</span>”이라고 설명했다.<br/><br/><br/><br/>정 원장은 경기 고양시에서 서울 중구까지 자가용으로 출퇴근하는 것 자체가 북한을 떠났기 때문에 이룰 수 있었던 성공이라고 자평했다.<br/><br/><br/><br/> 전현진 기자 jjin23

언론사: 문화일보-1-134.txt

제목: 순천향대병원, NGS 기반 유전자 검사 도입  
날짜: 20170601  
기자: 이용권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501.20170601142006005  
ID: 01100501.20170601142006005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순천향대 서울병원(원장 서유성)이 인간의 유전자를 분석할 수 있는 ‘차세대 염기서열분석 NGS’(Next-generation sequencing) 기반의 검사 장비(사진)를 도입해 오는 15일부터 가동에 들어간다고 1일 밝혔다.<br/><br/><br/><br/>이 NGS 장비는 미국 및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은 Illumina 사의 MiSeqDX로, 최첨단 기술로 유전자를 검사할 수 있는 염기서열 분석 장비다. 개인의 고유한 유전 정보를 분석해 분자 수준의 진단 및 맞춤형 치료를 가능하게 해주고 가족 검사를 통해 예방적 의료도 기대된다.<br/><br/><br/><br/>이 NGS 검사는 환자에서 채취한 소량의 혈액에서 핵산을 추출한 후 여러 단계의 결합과 증폭 과정을 거쳐 분석 시스템을 가동해 유전 정보를 얻는 방식이다. NGS 기반의 검사방법은 기존의 단일 유전자 검사인 ‘생거시퀀싱’(SS·Sanger Sequencing)과 달리 한 번에 수십·수백 개의 유전자를 한 패널로 구성해 유전 정보를 분석하기 때문에 유전성 질환 및 암 질환의 진단율을 높일 수 있고 시간과 비용에서 효율성이 좋다. 짧은 시간에 저렴한 비용으로 다량의 데이터를 얻을 수 있다.<br/><br/><br/><br/>또 NGS 결과로 유전성 질환과 암 질환의 세부 진단 외에도 최근 개발되고 있는 분자 수준의 표적 약물의 치료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NGS 기반의 유전자 검사를 시행할 경우 유전성 질환과 비유전성 혈액암, 고형암에 대하여 선별 급여 적용을 받아 환자는 총 검사 비용의 50%를 부담하게 된다.<br/><br/><br/><br/>김지은 진단검사의학과 교수는 “<span class='quot0'>NGS 유전자 패널 검사의 시작은 진단 패러다임의 전환을 예고한다</span>”며 “<span class='quot0'>질병의 세부 진단, 개인별 맞춤 치료 및 예방적 의료가 가능해진 만큼 이 검사법이 다양한 진단에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span>”고 말했다. 현재 17개의 대학병원과 종합병원에서 NGS 기반의 장비를 보유하고 있고 순천향대 서울병원이 두 번째로 많은 유전자 패널 검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br/><br/><br/><br/>이용권 기자 freeuse

언론사: 문화일보-1-135.txt

제목: “힘줘서 좋은건 사랑뿐, 그 외엔 힘 빼야”  
날짜: 20170601  
기자: 최현미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501.20170601113005003  
ID: 01100501.20170601113005003  
카테고리: 문화>종교  
본문: ‘기쁨이…’‘사랑은…’ 문고본 출간한 이해인 수녀<br/><br/><br/><br/>명랑하고 유쾌한 시인 이해인(72) 수녀에게는 많은 별명이 따라다닌다. 민들레 영토 수녀, 명랑 수녀, 하얀 구름 수녀, 작은 위로의 수녀, 국민 이모 수녀님. <br/><br/><br/><br/>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보면 누구든 아무 설명 없이 이 친근한 별명의 뜻을 알게 된다. 수도자라면 근엄할 것이라는 선입견은 찾을 곳 없고 9년째 투병 중인 암 환자가 가질 만한 무거움도 없다. 직접 만나든 시로 만나든 선한 마음에 대한 믿음을 확인하게 하는 그가 시 산문집 ‘기쁨이 열리는 창’과 10년간 쓴 편지와 묵상에 좋은 글을 모은 ‘사랑은 외로운 투쟁’을 문고본으로 냈다. <br/><br/><br/><br/>마침 다큐멘터리 ‘마리안느와 마가렛’의 ‘한국가톨릭 매스컴 대상’ 특별상 수상차 부산 성 베네딕도 수녀원에서 서울로 올라온 그를 30일 서울 성분도 은혜의 뜰에서 만났다. 그는 다큐멘터리에서 내레이션을 맡았다. 스스로를 수도자 생활 50년, 시인 40년, 암 환자 9년이라는 시인과의 만남은 편안하고 유쾌했다. <br/><br/><br/><br/>이번에 나온 두 권은 각각 2004년과 2006년에 출간된 책이다. 시간도 시간이려니와 시인이 암 투병 전에 내놓은 책이기에 어쩔 수 없이 그의 ‘지금 이야기’를 들으려는 독자들의 선택에서 순위가 밀렸던 책들이다. 하지만 10년을 넘어온 책은 여전히 다정하다. 오히려 병과 싸우고 더 유쾌하게 우리를 맞아주는 이해인 시인과 겹쳐져 시간을 이긴 책의 아름다움은 더 크다. 시인도 두 권을 참 아끼는 책이라며 특히 어렸을 때 많이 읽던 문고본이라서 더 기쁘다면서 사람들이 책과 시를 많이 읽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br/><br/><br/><br/>독자들이 궁금해할 건강부터 물었다. 그는 방사선 치료도 끝나고 지금은 1년에 한 번씩 검진하고 있다. “<span class='quot0'>완치라기보다 예측불허의 상황에서 더 퍼지지 않고 일상 생활할 수 있어 감사하다</span>”는 시인은 투병 과정에서 스스로에게 놀란 사연을 전했다. “한숨도 쉬고 한 번쯤 울 줄 알았는데 암을 즐기는 듯한 나를 보니 낯설었다. 한 시인은 내가 체면 때문에 울지도 못한다며 실컷 울라고 했다. 그래서 진짜 울려고 깜깜한 밤 성당에 갔는데도 눈물이 나지 않았다. 긍정적으로 생각하기도 하고 강원도 양구 감자바위 유전자가 담대하기도 하고. 또 아픈 사람들을 보며 준비가 많이 된 듯도 하다. 나를 객관화하고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으려 한다”고 그는 말했다. 후배 수녀님들로부터 여장부 같다는 말도 들었다는 그는 이젠 아픈 사람에게 어떻게 말을 건네야 할지 알게 됐고, 겸손함도 배웠다고 했다. <br/><br/><br/><br/>“방사선 치료를 받을 때 옆 방에서 30분간 힘 빼는 연습을 해야 했다. 힘을 빼야 방사선이 몸에 들어갈 수 있단다. 그때 옆 방에 있던 김자옥 씨가 내가 안쓰러웠던지 치료받을 때 ‘하느님께서 빛이 있으라 해서 빛이 있었다’를 생각하라고 했다. 수녀인 나에게 그런 조언을 하다니 했는데 치료받을 때 진짜 그 생각을 했다. 힘을 줘서 좋은 것은 사랑과 봉사뿐이다. 그 외엔 모두 힘을 빼야 한다.”<br/><br/><br/><br/>이런 일들을 거친 뒤 얻은 그의 결론은 “재미있고 기쁘게 살아야겠다”는 것이다. 이해인 수녀가 요즘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도 ‘일상의 황홀’이다.<br/><br/><br/><br/>“수도자로서의 삶이 엄격하지만 이 안에서도 동료와의 대화 같은 일상은 황홀하다. 구두를 신는 것도 황홀하다. 병원에서 슬리퍼 신고 링거병 달고 다닐 때 신발 신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얼마나 부러웠는지 모른다. 그런데 지나면 잊어버린다. 이 순간이 마지막인 것처럼, 늘 순간 속에서 영원히 사는 연습을 해야 한다. 그래서 요즘 모든 것이 즐겁다”고 그는 말했다. 특히 아침에 묵상하면서 그날 자신이 만날 사람들을 떠올리며 그 사람에게 줄 것을 생각하는데, 실제로 그것을 받은 사람들이 기뻐하면 다시 자신에게 큰 기쁨으로 돌아온다고 했다.<br/><br/><br/><br/>하지만 시는 그리 쓰지 않는다고 했다. “<span class='quot0'>하늘나라 쪽으로 이사하는 순례객으로 주변을 정리해야겠다고 생각하니까 쓰는 것에 그리 큰마음이 없다</span>”는 것이다. 대신 매일 일기 같은 것은 쓰고, 생각나는 것 있으면 버리는 종이 뒤에 쓴다고 했다. 그렇지만 1976년 첫 시집이자 초대형 베스트셀러 ‘민들레의 영토’를 출간하면서 시작된 시인으로서 삶과 시에 많은 것을 빚졌다고 했다. <br/><br/><br/><br/>“사람들은 수도원을 세상과 격리된 공간으로 생각하는데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면담시간에 수도사가 된다면 수도 생활의 아름다움과 기쁨을, 가능하다면 글로 전하고 싶다고 했다. 당시 깊게 생각하지 않고 앵무새처럼 말했는데 돌아보니 그 말처럼 됐다. 나는 수도원 안에 있어도 내 시가 동서남북으로 날아가 시장에도 가고, 감옥에도 가고, 사람들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위로를 줬다. 내가 세상을 떠나더라도 시가 천사의 노릇을 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한다”고 그는 말했다. <br/><br/><br/><br/>그의 일상은 변함없이 바쁘다. 부산 광안리 성 베네딕토 수녀원에서 오전 5시 40분 묵상으로 시작해 일과표대로 지낸다.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는 전국은 물론 미국, 일본 등에서 그를 보러온 사람들을 맞는다. 많은 사람이 보내는 편지, 이메일에 답장하고 전화도 받는다. 인생 상담은 기본이고, 꾸짖어달라는 요청, 이름을 지어달라거나, 영치금을 보내달라는 요청도 있다. 그의 해인 글방에는 1980년대부터 받은 편지가 가득 쌓여있다. 힘이 들 때도 있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생각하면 정성을 다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는 많은 사람과 나눈 숱한 일화를 전하며 사람들은 모두 자신만의 이야기를 지닌 책 같다고 했다. 이해인 수녀는 어떤 책일까 잠깐 생각해 본다. 유쾌하면서도 따뜻하고 깊은 책. 옆에 두기만 해도 위로가 되는 책이 아닐까 한다. <br/><br/><br/><br/>그는 자신이 세상과 수도원을 잇는 러브레터가 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리고 오랫동안, 하지만 요즘 특히 마음에 와 닿는 말을 독자들에게 전했다. “<span class='quot0'>감사는 더 깊어지고, 사랑은 더 애틋해 지고, 기도는 더 간절해졌습니다.</span>” <br/><br/><br/><br/>최현미 기자 chm

언론사: 문화일보-1-136.txt

제목: “담배광고 우선 금지… 30년 내 제조·판매금지도 이뤄지길”  
날짜: 20170530  
기자: 이용권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501.20170530142006010  
ID: 01100501.20170530142006010  
카테고리: 경제>경제일반  
본문: 31일 ‘세계 금연의 날’… 서홍관 금연운동협의회장 인터뷰<br/><br/><br/><br/>“한국인 사망원인 1~3위의 공통 인자가 담배입니다. 국민건강을 책임져야 할 사람이 담배 문제에 관심이 없다면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br/><br/><br/><br/>‘세계금연의 날’(5월 31일)을 앞둔 30일 국립암센터 가정의학과 교수인 서홍관(사진) 한국금연운동협의회장은 “<span class='quot0'>흡연은 암을 일으키고 혈관과 폐를 망가뜨려 국내 사망원인 1~3위인 암, 뇌혈관, 심혈관 질환과 모두 관련성이 있다</span>”며 “<span class='quot0'>(새 정부는) 흡연에 대한 대책 없이 국민건강을 책임질 수 없다</span>”고 말했다.<br/><br/><br/><br/>협의회가 정부에 요구한 금연정책의 최우선 사항은 담배 광고의 전면 금지다. 서 회장은 “<span class='quot1'>우리나라에서 해마다 흡연자 6만 명이 사망하는데, 담배회사 입장에서도 매년 6만 명 고객이 사망하는 셈</span>”이라며 “<span class='quot1'>이 때문에 담배회사는 새로운 6만 명의 고객을 발굴하기 위해 청소년을 대상으로 광고를 열심히 한다</span>”고 비판했다. 그는 “<span class='quot1'>청소년들이 자주 가는 편의점, 그중에서도 반드시 지나쳐야 하는 계산대 주변에는 온통 담배광고로 도배돼 있다</span>”며 “<span class='quot1'>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소매점 광고는 조속히 규제돼야 한다</span>”고 목소리를 높였다.<br/><br/><br/><br/>두 번째로 필요한 정책은 담뱃갑 겉면 30%를 차지하고 있는 현행 경고그림·문구를 더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 회장은 그러면서 담배 브랜드 로고와 디자인을 없애고 담뱃갑 전체를 경고그림으로 덮고 있는 ‘민무늬 담뱃갑’ 도입을 요구했다. 담뱃값 인상도 필요조건이라고 강조했다.<br/><br/><br/><br/>그는 “<span class='quot1'>우리나라 담뱃값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34개국 중 최하위였다가, 2000원을 올려 그나마 31등</span>”이라며 “<span class='quot1'>OECD 국가 평균인 6500원 정도로 올려 중간 수준에는 도달해야 한다</span>”고 주문했다. 담뱃값 인상에 대한 흡연자들의 반대에 대해 담뱃세 인상을 통해 확보된 국민건강증진 기금이 올바르게 사용된다는 국민적 신뢰만 있으면 담뱃값 인상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했다. 흡연자들의 70%가 금연을 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서 회장은 “<span class='quot1'>현재 국민건강증진기금이 모두 건강을 위해 쓰이는 것이 아니고, 일부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측면도 있다</span>”며 “<span class='quot1'>국민건강증진기금은 국민건강에 써야 하는 목적성 기금인 만큼, 오롯이 국민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데에만 사용돼야 한다</span>”고 지적했다.<br/><br/><br/><br/>그는 협의회의 궁극적 목표는 ‘담배제조·판매의 금지’라고 했다. 담배가 없어진 나라는 아직 없지만, 우리나라가 새 역사를 쓰면 된다고도 했다. 서 회장은 “<span class='quot1'>불과 20년 전까지만 해도 버스·지하철·비행기 등 우리나라 모든 곳에서 담배를 피웠지만, 지금은 대부분이 금연구역이 됐다</span>”며 “<span class='quot1'>이런 빠른 변화를 보면 담배 제조·판매 금지도 20~30년 내 충분히 시행될 수 있을 것</span>”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span class='quot1'>특정 음료수에 발암물질이 하나라도 나오면 그 음료수 판매가 가능하겠나</span>”라며 “<span class='quot1'>하물며 담배에는 60여 가지 발암물질이 들어있다</span>”고 말했다. <br/><br/><br/><br/>이용권 기자 freeuse

언론사: 문화일보-1-137.txt

제목: < Fifty+ >“불쑥 시작한 전원집 짓기 갖은 고생… 결론은 ‘참 잘했어요’”  
날짜: 20170526  
기자: 박경일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501.20170526115006006  
ID: 01100501.20170526115006006  
카테고리: 문화>방송\_연예  
본문: 은퇴 앞둔 공기업 간부의 ‘내 집 짓기’<br/><br/><br/><br/>중년에게 가장 큰 로망은 바로 ‘내 집 짓기’ 다. 한국의 중년의 뿌리는 대부분 농촌에 있다. 실제로 고향이 농촌이 아니더라도, 그건 마찬가지다. 누구든 한두 세대만 거슬러 올라가면 ‘농사짓고 사는 삶’과 마주치기 때문이다. 중년에게 시골살이에 대한 꿈이 강력한 건 그래서다. 꿈꾸는 전원에서의 삶이 ‘언제’ 실현될지, 아니 그게 ‘진짜’ 실현될 수 있을지조차 알 수 없지만 말이다. 지금부터는 ‘중년의 내 집 짓기’에 대한 이야기다. 줄곧 도시생활을 해온 중년에게 집을 짓는다는 건 용기에 대한 이야기이면서, 한편으로는 후회의 이야기이기도 하다. 그가 집을 짓는 과정에서 용기가 건져 올린 건 무엇이고, 후회로 남은 건 무엇일까. 은퇴를 코앞에 둔 한 공기업 간부의 집 짓기 이야기를 따라가 본다. <br/><br/><br/><br/>#1 “공기·물 좋은 곳서 살고 싶다”… 癌수술 아내의 바람<br/><br/><br/><br/> 그의 집 짓기는 아무런 준비 없이 돌연히 시작됐다. 임기 만료가 얼마 남지 않은 이재성(59·한국관광공사 상임이사) 씨. 1985년 한국관광공사 입사. 말단 직원에서 시작해 한때 부사장 겸직 직위까지 올라봤으니 남들이 부러워하는 최선의 코스를 달려온 셈이다. 직장에서 능력을 인정받으며 여기까지 잘 달려왔다.<br/><br/><br/><br/>사실 그는 은퇴 이후의 삶에 대해 깊이 생각해본 적이 없었다고 했다.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된 집 짓기 이전까지는 말이다. 충남 논산과 홍성에서 유년시절을 보내 그저 ‘전원생활을 해보고 싶다’는 정도의 막연한 꿈만 갖고 있을 뿐이었다. 은퇴를 앞둔 대한민국의 중년이라면 이런 사정은 다 비슷하리라. <br/><br/><br/><br/>지금으로부터 6년 전. 그러니까 2011년 9월의 일이다. 이 씨는 새벽에 건강검진을 받으러 가는 아내 황영애(56) 씨를 병원에 내려주고 출근했다. 그런데 아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전화를 했다. “<span class='quot0'>의사가 ‘간단한 처치’가 필요하다고 한다</span>”는 얘기였다.<br/><br/><br/><br/>그리고 오전 10시. 다시 병원에서 전화가 와서 보호자를 찾았다. 청천벽력. 아내 몸에서 암 덩이가 자라고 있었다는 얘기였다. 의사는 서둘렀다. “<span class='quot0'>한시라도 빨리 수술해야 한다</span>”고 했다. 건강검진을 받으러 병원에 간 지 4시간 만에 아내는 암 환자가 되고 만 것이었다. <br/><br/><br/><br/>대학병원에서 암 수술을 받은 뒤 퇴원한 아내는 집에 들어서자마자 “죽기 전에 공기 좋고, 물 좋은 곳에 가서 살고 싶다”고 했다. 그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고 했다. 땅을 사놨기를 했나, 집 짓기를 알기나 하나…. 아내와 함께 전원생활을 하고 싶다는 꿈을 꾸기는 했지만 무엇 하나 준비해 둔 것이 없었다. 이 씨는 “<span class='quot1'>암 환자가 된 아내에게 무엇 하나 해줄 수 없다는 게 가슴이 아팠는데, 막상 아내가 원하는 걸 얘기했는데도 그걸 해낼 자신이 없었다</span>”고 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아내의 전원생활에 대한 꿈을 이뤄줘야 했다. 한시라도 빨리….<br/><br/><br/><br/>#2 “노후자금을 왜 시골집에 쏟아붓냐”… 주변 사람들의 만류<br/><br/><br/><br/>집 짓기의 결심은 섰지만 그야말로 첩첩산중이었다. 적당한 땅을 고르고, 양심적인 건축업자를 정하고, 치밀하게 설계도면을 그리고…. 마음은 바빴지만 단번에 이 많은 것을 배울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직장 일이 바빠 땅을 보러 다닐 여유부터가 언감생심이었다. 건축업자는 다 믿을 수 없었고, 설계도면은 봐도 봐도 눈에 익지 않았다. 집 짓기 공사 인부를 관리하는 일도 엄두가 나지 않았다. <br/><br/><br/><br/>이 씨는 고심 끝에 펜션 건축과 운영 경험이 있는 지인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마침 지인이 강원 횡성에 경매로 받은 산이 있다고 했다. 경매받은 땅에다 마음 맞는 이들이 모여 함께 집을 짓자고 권했다. 그게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다. 그때만 해도 이 씨는 몰랐다. 이렇게 고마웠던 지인과 나중에 서로 얼굴을 붉히는 사이가 될 줄은….<br/><br/><br/><br/>시골 땅에 집을 짓겠다고 하자 주변 사람들의 만류가 시작됐다. 시골에 가 있던 사람들도 정리하고 도시로 들어오는 판에 ‘망하는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이었다. 퇴직은 다가오는데 노후자금이 풍족하다면 모를까, 노후생활에 쓸 돈을 집 짓기에 쏟아 넣으면 어떻게 살 거냐는 조언이었다. 결과적으로 그 우려는 맞았다. 집을 다 짓고 2년이 지났지만 은행 대출로 충당한 3억 원의 절반 이상이 빚으로 아직 남아 있다.<br/><br/><br/><br/>그러나 그는 집 짓기를 ‘천 번 만 번 잘한 선택’이라고 했다. 아내가 원하던 전원생활을 선물할 수 있었던 것을 빼고도 그렇다고 했다. 물소리와 새소리, 그리고 청량한 공기, 그리고 이웃과 교분을 나누는 전원의 삶은 충분히 만족스러웠다. 새로 지은 집으로 이사하자 은퇴 이후의 삶에 대한 조바심도 사라졌다고 했다. <br/><br/><br/><br/>#3 “집을 처음 지어 모르는 모양인데”… 눈치보게 만든 업자들<br/><br/><br/><br/>이제 그의 본격적인 집 짓기 과정을 들여다보자. 아무리 치밀하게 준비해도 기간이며 비용까지 애초의 계획과 단 하나도 맞아들어가지 않는 게 집 짓기다. 지인은 “<span class='quot2'>두 달 만에 집을 다 짓겠다</span>”고 호언했다. 되돌아보면 그 말을 철석같이 믿은 게 가장 큰 실책이었다. <br/><br/><br/><br/>공사 기일은 늦춰졌고, 공사가 늦어지면서 비용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설계부터 완공까지 160㎡(약 49평)짜리 이층집을 짓는 데 필요한 예산을 계산해보니 2억 원이 조금 넘는 수준. 아무리 비용이 더 들어간다고 해도 3억 원이면 차고 넘칠 것이라 생각했지만 그것으로도 턱없이 모자랐다. 돈도 돈이지만, 더 힘들었던 건 집을 짓는 내내 계속된 갈등이었다. 갈등은 설계 과정부터 시작됐다. 설계사와 건축업자들은 매번 ‘처음 집을 지어서 모르시는 모양인데…’라는 말로 시작했다. 이렇게 바꾸면 비효율적이다, 저렇게 요구하면 돈이 많이 든다며 난색을 표했다. 설계부터 건축까지 업자들의 관심사는 오로지 하나, ‘쉽게 짓자’는 것이었다. <br/><br/><br/><br/>집을 짓다가 다 지은 벽체를 뜯어낸 적도 있다. 벽체와 지붕이 만나는 부분의 몰딩을 아내가 마음에 들지 않아 했다. 다 해놓으면 괜찮을 것이라고 아내를 달래던 이 씨는 그날 밤 아내가 한숨도 못 자는 모습을 보곤 건축업자를 찾아갔다.<br/><br/><br/><br/>“<span class='quot0'>돈이 얼마가 더 들어도 좋은데 이건 안된다</span>”고 막아섰다. 결국 다 뜯어내고 재공사를 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지만 이때부터 아내 황 씨는 공사장 인부들로부터 ‘까다로운 사람’으로 낙인 찍혔다. 내 돈 내고 내 집 짓는데도 인부들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었다. #4 “두달이면 끝난다더니”… 시행착오·갈등 끝 4년만에 완공<br/><br/><br/><br/>서울에서 집을 짓는 횡성까지 가자면 양평을 지나게 되는데, 이 씨는 국도변에 손글씨로 ‘철근 팝니다’라는 글을 적어놓고 세워둔 트럭을 여러 번 봤다고 했다. 필시 공사장 어디선가 빼돌린 철근일 것이었다. 거길 지날 때마다 이 씨는 ‘혹시 나처럼 집 짓는 공사장에서 철근을 빼돌려 파는 게 아닐까’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거듭된 요구가 거절되고, 약속 어기기를 밥 먹듯 하자 의심은 의심을 낳았다. <br/><br/><br/><br/>두 달이면 끝난다던 공사는 한없이 길어졌다. 외벽에 돌을 붙이던 서울에서 온 인부들은 ‘일이 힘들다’며 가버렸고, 유리창을 달던 인부들은 ‘돈을 더 달라’며 공사를 중단했다. 여름이 오기 전에 완공할 수 있다던 공사가 해를 넘겨 계속됐다.<br/><br/><br/><br/>공기 단축의 다짐을 받아도 약속은 하나 마나였다. 지인과의 갈등도 깊어질 대로 깊어졌다. 가장 야속했던 일은 완공도 안 된 집에 사돈댁을 초대하곤 진입로 포장을 부탁했을 때의 일이다. 추가 대금을 요구하길래 급한 마음에 1000만 원을 쥐여주고 사정했지만 딱 하루 와서 포장공사를 하는 시늉만 하고는 돌아가서는 감감무소식이었다.<br/><br/><br/><br/>공사 뒤처리도 엉망이었다. 마당 한쪽에 나무를 심으려는데 땅에 삽날이 안 들어갔다. 파보니 인부들이 집 짓다 남은 시멘트를 죄다 땅에 부어 묻어두고 간 것이었다. 지뢰밭을 딛듯 위태롭게 공사를 이어가며 천신만고 끝에 집을 다 짓고 준공검사를 받은 게 2015년 말이었다. 집짓기를 결심한 지 4년 만의 일이었다.<br/><br/><br/><br/>#5 “좋은 집은 생각을 바꾼다”… 더없이 만족스러운 전원생활<br/><br/><br/><br/>이 씨는 집을 다 짓고 난 뒤에 돌이켜보니 갈등의 절반 이상이 ‘사람’이 아니라 ‘상황’이 만든 것이란 걸 깨닫게 됐다고 했다. 새집에서 살아보니 집 짓기를 맡겼던 지인도 애초에는 성의껏 집을 지으려 애썼다는 걸 비로소 알게 됐다. 수시로 예기치 않은 일이 벌어지면서 감정의 골이 깊어진 것이었다.<br/><br/><br/><br/>고된 집 짓기 끝에 1년여 전부터 새집에서의 생활을 즐기고 있는 이 씨는 “<span class='quot1'>전원생활이 더없이 만족스럽다</span>”고 했다. 우선 ‘인구 늘리기’ 정책 때문인지 이사 온 타지 사람에게 횡성군과 횡성군 산림조합은 황송할 정도로 우호적이었다. 우려했던 마을 주민들의 텃세도 마음을 여니 금방 극복할 수 있었다. 처음에는 진입로에 바리케이드까지 치고 집 짓기를 막아섰던 이웃이 이제는 집 앞에 갓 딴 두릅을 가져다 놓고 가고, 상추 모종과 고추 모종도 나눠준다. 이 씨 부부는 이웃 주민들과 한 달에 한 번씩 식사를 겸한 모임을 갖고 ‘여행계’를 붓고 있다<br/><br/><br/><br/>마을 주민들과 가까워진 비결로 이 씨는 ‘처음 이사 와서 이웃에게 들은 한 가지 충고’를 들었다. 그 충고란 “농사일로 한창 바쁠 때 부부가 운동복 갖춰 입고서 운동한다고 돌아다니지 말라”는 얘기였다. 이 씨는 인근의 귀농한 한 아주머니 얘기를 들려줬다. 고된 집 짓기로 앓아 누웠는데 손님들의 방문이 잦자 마을 아주머니에게 “섭섭하지 않게 비용을 드릴 테니 청소만 해주실 수 있겠냐”고 물었단다. 그랬더니 육두문자의 답이 돌아왔다. “<span class='quot0'>저 ×이 이제 나를 파출부로 안다</span>”는 것이었다. 조심스러운 부탁이 그만 이웃의 자존심을 건드리고 말았던 것이다.<br/><br/><br/><br/>얼마 전에는 이웃 주민이 집 앞 도로 옆에 축사를 지었다. 그걸 놓고 이 씨는 아내와 ‘회의’를 했다고 한다. 부부가 내린 결론은 “<span class='quot3'>마을 사람들에게 축사 얘기는 한마디도 꺼내지 말자</span>”는 것이었다. 서로의 생계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지내야 한다는 게 결론이었다. 그렇게 마음먹고 나니 생각만큼 불편도 크지 않았다. 도시에서라면 이럴 수 있었을까. 이게 모두 다 ‘집’이 바꾼 것이다. 좋은 집은 생각을 바꾼다. 그게 이 씨의 요즘 생각이다.<br/><br/><br/><br/> 횡성 = 박경일 기자 parking

언론사: 문화일보-1-138.txt

제목: <북팀장의 문장과 책>‘生의 마지막 순간’에 깨달은 진실  
날짜: 20170526  
기자: 최현미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501.20170526111006011  
ID: 01100501.20170526111006011  
카테고리: 문화>출판  
본문: 만약 지금 아는 것을 그때도 알았더라면 난 무조건 춤을 더 많이 췄을 거야. 자신에게 약속해요. 무슨 일이 있더라도 멋진 삶을 살아요. (86p, 286p)<br/><br/><br/><br/> 환자들에게 정서적 위로를 주는 호스피스 채플린(chaplain)으로 일하는 작가 케리 이건이 환자들에게 들은 마지막 순간에 깨달은 삶의 진실이다. 작가 역시 상처가 많았다. 하버드대를 졸업해 원하는 직업을 얻고 산티아고 순례길을 함께 걸었던 남자 친구와 결혼할 때까지만 해도 부러울 것이 없었다. 하지만 첫 아이를 출산하면서 투여받은 진통제 부작용은 그의 삶을 고통으로 몰아넣었다. 아이가 무릎 위에 있는데도 죽었다고 생각하며 환각, 망상, 정신분열, 자살 충동에 시달렸다. 긴 치료로 회복된 그는 독서 클럽에서 만난 이의 소개로 채플린으로 일하게 된다. 그렇게 찾아간 호스피스에서 그는 “제발 내 이야기를 써달라”는 여성을 만나게 된다. 자신이 인생의 마지막에서야 깨달은 것들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다고 했다.<br/><br/><br/><br/>그 여성뿐만이 아니었다. 전신에 암이 전이된 할머니, 총기 사고로 반신불수가 된 청년, 뇌졸중으로 온 몸이 마비된 남자…. 사연은 제각각이었지만 이들은 모두 할 말이 많았다. ‘살아요(원제 On Living／부키)’는 이 말들의 기록이다. <br/><br/><br/><br/>가족이 모든 것의 시작이라는 이야기, 나이들수록 더 큰 사랑이 필요하다는 이야기, 기쁨만큼이나 슬픔과 고통도 변한다는 깨달음. 작가는 이들의 말에 귀 기울이면서 사람들은 누구나 지금의 삶을 있게 한 자기만의 사연과 이야기가 있다는 사실, 누구나 살아가면서 말도 안 되는 사연 한 가지쯤은 있다는 사실, 그것이 바로 평범한 삶이며, 또 그런 평범한 삶이 아름답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한다. <br/><br/><br/><br/>이들이 죽기 전에 가장 아쉬워한 것 중 하나는 몸이었다고 한다. 달릴 때 느끼는 다리의 감각, 맨몸에 닿는 물의 느낌, 아기 머리에서 맡았던 냄새, 그리고 온 몸으로 세상과 만나는 춤. 많은 이들이 이렇게 말했다. “다시 젊어진다면요? 당연히 춤을 추겠어요!”라고. 그리고 이런 말도 덧붙였다. “원하는 모습이 되기 위해서는 당장 노력하세요. 미루지 마세요. 기다린다고 해서 더 쉬워지지 않을 것이며 남은 시간은 짧으니까.”(271p) <br/><br/><br/><br/>최현미 기자 chm

언론사: 문화일보-1-139.txt

제목: 한화손보, 저소득층 자녀 위한 ‘기부보험’ 캠페인  
날짜: 2017052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501.20170525160005014  
ID: 01100501.20170525160005014  
카테고리: 사회>사회일반  
본문: 월드비전과 업무협약 체결<br/><br/><br/><br/> 김태철(사진 오른쪽) 한화손해보험 장기보험부문장은 2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동 월드비전 사옥에서 어호선 월드비전 마케팅부문장과 저소득층 자녀(4~19세 대상)를 위한 무료보험 업무제휴(MOU)를 맺었다. 이번 제휴를 시작으로 한화손보는 저소득층 자녀에게 3대 진단비(암·뇌·심장)와 상해·질병 입원비, 수술비 등을 무료로 보장하는 ‘기부보험’ 캠페인을 진행한다.

언론사: 문화일보-1-140.txt

제목: <시니어 재테크>은퇴준비 출발점은 ‘수명 계산’… 시간·생활비 ‘함수’ 풀이를  
날짜: 2017052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501.20170525143006002  
ID: 01100501.20170525143006002  
카테고리: 문화>문화일반  
본문: 은퇴준비의 출발점은 내가 몇 살까지 살 것이냐를 짐작하는 것이다. 70세까지 살 것이라고 보는 사람과 100세까지를 생각하는 사람과는 30년의 차이가 난다. 1년 생활비를 4000만 원이라고 하면 30년이면 은퇴비용이 12억 원이나 차이 나게 된다. 성공적인 은퇴준비를 위해서는 수명을 보는 관점을 바로 가져야 한다. <br/><br/><br/><br/>다음 두 가지는 꼭 기억하자. 첫째, 수명의 불확실성이 커진다. 지금 태어난 사람의 기대수명은 83세 정도라고 한다. 기대수명은 미래의 의학기술을 예측해서 결정하지 않고 과거의 자료에 기반해 계산한다. 장수를 가능케 하는 의학기술 변화가 클수록, 기대수명 예측은 틀릴 가능성이 커진다.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는 얘기다. <br/><br/><br/><br/>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지난해 ‘죽음을 피하기(cheating death)’라는 표지 기사에서 인간의 한계수명인 120세까지 기대수명을 연장시킬 수도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본질적 문제점은 돈의 수명보다 나의 수명이 길어지면 노후파산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기대수명보다는 기대수명의 불확실성을 감안해 보수적으로 나의 수명을 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br/><br/><br/><br/>둘째, 수명이 돈의 함수가 돼 간다. 5월 2일자 파이낸셜 타임스에는 혈액암에 걸린 한 여성의 얘기가 소개됐다. 이 여성은 한 달에 약 1500만 원 정도 드는 칵테일 요법 항암제를 복용하면 15년 정도 더 살 수 있다. <br/><br/><br/><br/>하지만 이 여성의 연봉이 1700만 원 정도이다 보니 약값을 감당하기 어렵고 이 약값을 지원해주는 보험료를 내기도 어려운 형편이다. 이전에는 항암제의 독성이 문제가 됐는데 이제는 항암제 독성은 줄었지만 암을 치료하는 데 드는 재정 부분에 독소가 새로 등장하게 됐다는 내용이다. <br/><br/><br/><br/>지금껏 돈이 많고 적고 여부가 수명에 크게 영향을 주지 못하다 보니 사람 수명은 하늘에 달렸다는 말을 해왔다. 이제는 유전자도 조작하고 독성이 적은 항암제가 나오다 보니 이러한 공식이 깨지고 있다. 문제는 이 공식을 깨는 데 돈이 많이 든다는 점이다. 노후를 설계할 때 나의 수명에 대해 객관적이고 보수적인 시각을 가져야 한다. 수명의 불확실성이 여느 때보다 커졌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하고, 그 불확실성으로 인해 내 수명도 생각보다 길어질 수 있다는 보수적인 관점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건강과 수명이 돈의 영향을 받는 시대로 접어들었다. 노후설계를 위해서는 수명의 관점부터 바로 가져야 한다. 김경록<br/><br/><br/><br/> 미래에셋은퇴연구소장

언론사: 문화일보-1-141.txt

제목: 암 수술 후 부작용 빈혈, 수혈 대신 철분제 정맥 주사가 효과  
날짜: 20170524  
기자: 이용권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501.20170524163005002  
ID: 01100501.20170524163005002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국내 암센터 등 공동연구팀, ‘미국의학협회지’에 논문… 환자 92%에서 증상 개선효과<br/><br/><br/><br/>국내 연구진이 위암 수술의 가장 흔한 부작용인 빈혈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국제학술지에 보고했다.<br/><br/><br/><br/>김영우 국립암센터 국제암대학원대학교 교수팀은 국내 7개 대형병원 위함치료 외과 의사들과 공동으로 위암 수술 후 생긴 급성 빈혈을 치료하는 데 ‘철분제 정맥주사’가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규명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연구결과를 담은 논문은 미국의사협회가 발행하는 ‘미국의학협회지’(JAMA)에 이날 게재됐다.<br/><br/><br/><br/>위암 수술 후 환자가 겪는 부작용 중 가장 흔하고 위험한 게 빈혈이지만, 치료방법은 많지 않다. 수혈하거나 철분을 복용, 또는 자연 치유를 기다리는 세 가지뿐이지만, 모두 효과적이지 못하다.<br/><br/><br/><br/>연구팀은 위암 수술 후 5∼7일 사이에 혈액 내 혈색소 수치가 7∼10 g/㎗ 사이의 중간 정도 빈혈이 있었던 454명(평균 나이 61.1세)에게 ‘페릭 카르복시 말토즈스’라는 철분제를 7년에 걸쳐 정맥에 주사했다. 이 결과 환자 중 92.2%는 12주 후 헤모글로빈 수치가 평균 2 g/㎗ 이상 개선됐다. 반면 위약(가짜약)을 주사한 대조군은 54%에서만 헤모글로빈 수치가 목표치 수준으로 개선됐으며, 평균 혈색소 수치도 여전히 빈혈 상태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br/><br/><br/><br/>의료진은 철분제 정맥주사만으로 헤모글로빈 수치를 높여 빈혈을 개선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그동안의 부적절한 수혈을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김 교수는 “<span class='quot0'>이번 연구를 통해 위암뿐만 아니라 모든 종류의 수술 후 빈혈 환자들에게 철분제 정맥주사를 효과적이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를 마련한 데 의미가 있다</span>”고 말했다. <br/><br/><br/><br/>이용권 기자 freeuse@

언론사: 문화일보-1-142.txt

제목: 러셀 크로 “그는 내 롤모델이었다”  
날짜: 20170524  
기자: 손고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501.20170524153006012  
ID: 01100501.20170524153006012  
카테고리: 문화>영화  
본문: ‘굿바이 로저 무어’ 세계 스타들 애도 밀물 <br/><br/><br/><br/>브로스넌 “내 연기를 이끌어” <br/><br/>맥그리거 “빈곤층 지원 존경” <br/><br/><br/><br/> 영화 ‘007 시리즈’에 주인공 ‘제임스 본드’로 최다 출연했던 배우 로저 무어가 89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그의 별세 소식에 할리우드 스타 등 세계 유명 인사들의 애도가 잇따르고 있다.<br/><br/><br/><br/>23일 BBC에 따르면 영국 출신 배우 무어는 이날 스위스에서 암 투병을 하던 중 눈을 감았다. 무어의 가족들은 공식 트위터 계정을 통해 부고 소식을 알렸으며, 장례는 고인의 유언에 따라 모나코에서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다.<br/><br/><br/><br/>무어는 45세 때 ‘3대 제임스 본드’ 역할을 맡은 것을 시작으로 57세에 이르기까지 12년에 걸쳐 7편의 007 시리즈에 출연했다. 1973년 ‘007 죽느냐 사느냐(Live And Let Die)’의 주인공을 맡아 주목을 받기 시작했으며, 이후 제임스 본드 역할로 최다 출연하면서 세계적 스타에 올랐다.<br/><br/><br/><br/>그의 별세 소식에 많은 할리우드 배우들은 애도의 뜻을 전했다. 5대 제임스 본드 역할을 맡았던 배우 피어스 브로스넌은 페이스북을 통해 “<span class='quot0'>‘세인트’에서부터 ‘007’까지, 무어는 내 삶의 큰 부분이었다</span>”며 “<span class='quot0'>그는 위대한 ‘제임스 본드’였고, 그의 연기가 나를 이 시리즈로 이끌었다</span>”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배우 러셀 크로도 트위터에 “로저 무어, 그를 정말 좋아했다”며 “10세 때 나는 ‘사이먼 템플러’(무어가 TV 시리즈 ‘세인트’에서 맡은 역할)처럼 옷을 입고 싶어 했다. 그는 나의 롤모델이었다”고 전했다.<br/><br/><br/><br/>제3세계의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해 힘써온 무어의 삶에 존경을 표한 배우도 있었다. 배우 이완 맥그리거는 “<span class='quot1'>지난 26년간 모든 아이들의 권리를 위해 지치지 않고 싸워준 무어에게 감사한다</span>”고 애도했다. 무어는 1991년부터 유니세프 친선대사를 맡는 등 인도주의적 봉사활동에도 힘써왔다. 1983년 ‘007 옥토퍼시’를 인도에서 촬영하며 빈곤층의 어려움에 충격을 받은 그는 이후 제3세계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해 힘써왔고, 그 공로로 1999년과 2003년 대영제국 훈장을 받았다. <br/><br/><br/><br/> 손고운 기자 songon11

언론사: 문화일보-1-143.txt

제목: 희귀질환 치료제 40%가 비급여… “허가받은 新藥 건강보험 적용을”  
날짜: 20170523  
기자: 이용권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501.20170523142006006  
ID: 01100501.20170523142006006  
카테고리: 지역>지역일반  
본문: - 오늘은 ‘희귀질환 극복의 날’<br/><br/><br/><br/>국내 환자 수 35만명에 달해<br/><br/>“급여항목 포함이 가장 절실”<br/><br/><br/><br/>지난해 관련法 만들어졌지만<br/><br/>유전진단·상담 지원 등 빠져<br/><br/><br/><br/>올해로 서른을 맞은 이경은(여·가명) 씨는 대학 졸업 후 친한 친구들 사이에서도 연락이 닿지 않는 친구였다. 취업 후 갑자기 왕래를 끊고 ‘잠적’한 탓에 한동안 친구들의 원망을 사기도 했었지만, 남모를 사연이 최근 알려졌다. 그는 3년 반 전부터 온몸의 근육이 마비돼 가는 병의 원인을 찾느라 이 병원, 저 병원을 전전하다가 친구들과 연락이 끊긴 것이었다. 큰 병원에서 여러 가지 검사를 해 봐도 정확한 병명을 알 수 어렵다는 답변을 듣거나 오진을 받다가, 최근 들어서야 칼륨 부족으로 근육이 마비되는 희소질환 ‘저칼륨혈증 주기성 마비’라는 판정을 받았다. 뒤늦게 판정을 받고 치료를 시작하긴 했지만, 3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한 탓에 이미 몸의 근육이 상당히 마비돼 일상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br/><br/><br/><br/>정부가 이런 희귀질환자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말부터 희귀질환관리법을 시행했다. 그리고 23일은 처음으로 운영되는 ‘희귀질환 극복의 날’이다. 정부는 희귀질환 의약품 개발 지원 등의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히고 있지만, 여전히 희귀질환자들의 고충은 크기만 하다.<br/><br/><br/><br/>◇확진도 어렵고, 치료는 더 어려워 = 희귀질환자들은 대부분 이 씨와 같이 최종 확진에 이르기까지 오랫동안 다수의 병원을 헤맨다. 한국희귀질환재단에 따르면 국내 희귀질환 환자 중 86.1%가 정확한 진단까지 두 개 이상의 병원을 찾아다닌 것으로 파악됐다. 최종 진단을 위해 10개 이상의 병원을 방문한 환자도 6.8%에 달한다. 또 전체 희귀질환자의 62%가 오진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즉 질환에 맞는 치료가 아닌 엉뚱한 치료를 받아 상태가 더 나빠지는 경우도 많다는 것이다.<br/><br/><br/><br/>이는 희귀질환 환자 자체가 적다는 이유로 정부나 의료기관에서 희귀 질병에 대한 진단·치료 연구에 관심이 높지 않기 때문이다. 희귀질환은 해당 질병을 앓고 있는 환자가 2만 명 이하이거나 진단이 어려워 유병인구를 알기 어려운 질환을 의미하긴 하지만, 국내 희귀질환 환자 수를 다 합하면 약 35만 명에 달한다. 또 현재까지 발견된 희귀질환은 7000여 가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을 만큼 다양하다. 여기에 아직 자신의 질환을 제대로 진단받지 못한 환자들이나, 발견되지 않은 희귀질환을 포함한다면 그 규모는 더 늘어날 수 있다.<br/><br/><br/><br/>◇조기 진단과 치료제 지원 부족 = 정부가 희귀질환에 대한 인식개선 등을 위해 지난해 ‘희귀질환관리법’을 시행했지만, 환자들은 여전히 실질적인 혜택이 부족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대표적인 요구사항이 치료 지원이다. 전 세계적으로 7000여 가지 희귀질환 중 치료제가 개발돼 미국식품의약국(FDA)에 허가된 것은 약 400개다. 그중 우리나라에 허가된 희귀의약품은 239개 정도로, 이 중 40% 정도는 건강보험에 포함되지 않아 환자·보호자가 큰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환자들은 이미 치료제가 개발된 질환만이라도 빠르게 허가하고 급여해 신약으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br/><br/><br/><br/>피부의 깊은 부분에 두드러기처럼 나타나는 ‘혈관부종’ 중 유전성 혈관부종의 경우 급성발작 시 바로 병원을 찾지 못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지만, 급성발작 증상의 유일한 치료제인 ‘피라지르’는 급여가 되지 않는다. 혈액암 종류의 하나인 다발골수종의 치료제인 ‘카르필조밉’(제품명 키프롤리스)도 2015년 국내 허가를 받았지만, 여전히 급여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br/><br/><br/><br/>백민환 한국다발골수종환우회 회장은 “<span class='quot0'>환자들은 신약의 보험급여를 기다리다 죽어가고 있는데, 정부가 ‘메디컬 푸어’의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span>”며 “<span class='quot0'>법안을 마련해 환자들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환자들에게 실제로 무엇이 가장 필요한지를 정확히 살펴 정책의 실효성을 도모했으면 한다</span>”고 말했다.<br/><br/><br/><br/>◇필요한 유전진단 지원도 부재 = 전문가들은 희귀질환관리법안의 또 다른 한계점으로 유전상담 지원이 빠져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전체 희귀질환 중 80% 이상이 유전성 질환이기 때문에 희귀질환의 조기진단과 예방에는 유전진단과 상담이 필수적이라는 것이 전문가 평가다.<br/><br/><br/><br/>희귀질환 추정 환자를 대상으로 유전진단검사를 하면 확인이 어려운 희귀질환의 조기 진단이 가능하고, 희귀질환자 가족에 대한 유전상담을 통해 예방도 할 수 있다. 실제 질병관리본부의 연구용역에서도 국내 희귀질환자들과 그 가족들의 효율적인 질환 관리를 위해서는 48~78명의 유전상담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br/><br/><br/><br/>그러나 이번 시행법에는 유전상담사를 양성하거나 관련 상담과 진단에 대한 수가 산정은 포함되지 않았다. 현재 질병 관련 교육상담 수가 산정은 만성질환과 암으로 한정돼 있다. 대한의학유전학회 등 전문가 단체는 이런 교육상담을 희귀질환의 유전상담으로 확대하고, 아울러 희귀질환관리법에 명시된 ‘전문인력 양성’ 대상에 유전상담사도 포함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br/><br/><br/><br/>이용권 기자 freeuse

언론사: 문화일보-1-144.txt

제목: <사설>金 경제부총리 내정자, 정책의 均衡 잡는 조타수 돼야  
날짜: 2017052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501.20170522121007008  
ID: 01100501.20170522121007008  
카테고리: 정치>외교  
본문: 새 정부 1기 경제팀의 큰 틀이 짜였다. ‘경제사령탑’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김동연 아주대 총장이 지명됐고, 청와대 정책실장에 장하성 고려대 경영대학원 교수가 임명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의장을 맡는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에는 김광두 서강대 석좌교수가 임명됐다. 앞서 ‘재벌 저격수’로 불리는 김상조 한성대 교수가 공정거래위원장에 발탁됐다. 소년가장 출신에 상고 신화의 주인공인 김 총장은 기재부 예산실장, 국무조정실장 등을 역임한 정통 관료다. 장 교수는 재벌개혁을 주창하는 진보학자이자 시민운동가다. 김 교수는 한때 ‘박근혜 대통령 경제교사’로 불린 개혁적 보수학자다. 이들의 이력을 보면 경제민주화에 중점을 두되 위기관리도 철저히 해보겠다는 포석으로 읽힌다.<br/><br/><br/><br/>공직 경험이 없는 교수 출신 정책실장을 관료가 보완해주는 식의 구도는 바람직하다. 하지만 우려도 적잖다. 우선, 정책실장과 경제부총리의 역할 분담이 애매하다. ‘컨트롤 타워’가 누군지 불분명해 정책 혼선이 걱정된다는 얘기다. ‘재벌 저승사자들’이 전면에 나서면서 대기업 지배구조의 대수술을 포함한 경제민주화 정책의 득세도 걱정된다. 재벌개혁론자들의 강력한 주장에 밀려 경제부총리의 목소리가 묻히지 않을지도 염려된다. 다행히 장 신임 실장은 “<span class='quot0'>두들겨 패기식 재벌개혁은 안 된다</span>”고 했다. 김 공정위장 지명자도 “재벌개혁을 경직적으로 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러나 기업들은 그 말을 곧이곧대로 듣지 않는 분위기다.<br/><br/><br/><br/>물론 경제적 불평등 해소는 사회통합을 위해 해결해야 할 시대적 과제다. 하지만 경제활력을 떨어뜨릴 정도의 과격하고 급속한 정책이어선 곤란하다. 우리 경제가 지금 글로벌 경기회복세를 타고 살아난다고 하지만 저성장에 구조적 난제는 그대로이기 때문이다. 1300조 원대의 가계부채, 사상 최악의 청년실업률, 인구절벽 등은 여전히 암 덩어리다. 이런 마당에 성장·분배의 이분법적 사고에 매몰돼 성장의 선순환을 경시하면 한국경제의 미래는 없다. 김 부총리 내정자는 저성장 극복을 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잡겠다고 했다. 옳은 방향이다. 김 부총리 내정자가 문 정부의 정책 균형(均衡)을 잡아줄 조타수 역을 제대로 해야 경제활력도 되찾을 수 있다.

언론사: 문화일보-1-145.txt

제목: 의정부성모병원, 대장암 적정성 평가 1등급 획득  
날짜: 20170518  
기자: 오명근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501.20170518174006002  
ID: 01100501.20170518174006002  
카테고리: 사회>사회일반  
본문: 가톨릭대 의정부성모병원은 17일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이 전국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장암 적정성 평가에서 종합점수 98.75점으로 1등급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의정부성모병원은 이번 발표로 대장암 분야에서 4년 연속 1등급을 획득했다.<br/><br/><br/><br/>의정부성모병원은 수술과 검사, 전문 의료진 등 15가지 지표 평가항목에서 만점을 받았다. 특히 대장암 수술을 담당하는 전문 의료진 부분에서는 매우 높은 100점을 받아 의료계의 주목을 받았다. 대장암은 국내 암 사망률 4위를 차지하며 노령화 인구증가와 식생활의 서구화로 인해 수술환자 수가 증가하는 질병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대장암 진료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2012년부터 대학병원 등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br/><br/><br/><br/>의정부성모병원장 전해명 교수는 “<span class='quot0'>의정부성모병원은 CMC 의료진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 수준 높은 의료진을 서울성모병원에서 초빙해 경기 북부에서도 국내 최고 수준의 암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을 갖췄다</span>”며 “<span class='quot0'>앞으로도 다학제협진팀의 의료진을 필두로 최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span>”고 말했다. <br/><br/><br/><br/>의정부=오명근 기자 omk

언론사: 문화일보-1-146.txt

제목: <라이프 닷 북>‘내 몸 공부’ 내 몸 작동 원리 알아야 病의 원인·메커니즘 한눈에 보인다  
날짜: 20170517  
기자: 최현미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501.20170517145006002  
ID: 01100501.20170517145006002  
카테고리: 문화>출판  
본문: 건강에 관심 많은 당신, 자신의 몸에 대해서는 얼마나 알고 있나요? 이 질문에 당당하게 그렇다고 대답할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온갖 사이비 건강 정보가 넘쳐 나는 시대니, 정확한 이해는 오히려 더 어려워졌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고 올바른 ‘내 몸 공부’가 필요하다. <br/><br/><br/><br/>‘내 몸 공부’(창비·사진)는 지난 40년간 서울대에서 의사들을 가르쳐온 엄융의 서울대 명예 교수가 에세이 형식으로 풀어낸 몸에 대한 책이다. 이는 2005년부터 10년간 서울대 학생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었던 ‘우리 몸의 이해’라는 강의를 기본으로 발전시킨 것으로 단단한 의학 지식을 토대로 동서양의 역사와 문학, 예술 등을 오가며 흥미롭게 이야기를 풀어낸다. 저자는 아무리 좋은 약과 치료법도 몸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무용지물이라고 말한다. 우리 몸이 어떻게 구성되고 어떻게 작동하는지도 모르면서 최신 건강법이나 신약 정보에 귀 기울이는 것은 덧셈 뺄셈도 모르면서 고차방정식을 풀겠다고 덤비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이야기다. <br/><br/><br/><br/>다세포생물인 인간은 많은 세포의 단계적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다. 세포, 조직, 기관 등이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서로 협력하고 작용하는 것이다. ‘내 몸 공부’는 이 같은 분류를 따랐다. 10개의 장으로 구성된 책에는 여러 층위의 이야기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몸의 구조와 작동 원리에 대해 알아가다 보면 병의 원인과 메커니즘도 한눈에 들어온다.<br/><br/><br/><br/>동서양의 역사, 문학, 예술 등 다양한 분야와 어우러진 몸 상식도 흥미롭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이 준비한 세균전 이야기와 대표적인 성병인 매독의 명칭과 관련된 일화, 뇌사가 인간의 사망 기준에 포함되기까지의 에피소드, 노화 방지의 명약이라는 멜라토닌의 비밀 등 다양한 이야기가 펼쳐진다. 현대인의 건강에 가장 위협적인 병은 암이 아니라 순환계질환이라거나, ‘단맛은 혀끝, 신맛은 혀 양쪽’ 등 혀의 위치에 따라 맛을 감지하는 부위가 다르다는 ‘혀의 맛지도’는 오래전에 폐기되었다 등 통념을 깨는 지식도 전한다. <br/><br/><br/><br/>저자는 의학 연구와 건강관리가 모두 몸에 대한 이해에서 비롯되기에 건강식품의 이름을 외우고 첨단 의료기술을 좇기보다는 우선 몸에 대한 이해에 집중하라고 조언한다. <br/><br/><br/><br/>실제로 많은 사람이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고 치료를 하지만, 몸의 어떤 기능에 문제가 생겨 어떻게 치료하는지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고 한다. 몸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면서 주도적으로 건강을 관리한다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다. 우리 몸이 작동하는 원리와 질병의 메커니즘을 깨달아야 건강한 삶을 위해 필요한 의학 상식의 기초체력을 키울 수 있다.<br/><br/><br/><br/> 최현미 기자 chm

언론사: 문화일보-1-147.txt

제목: < What >방사성 제거서 바이오에너지까지… 바닷속 ‘팔방미인 미래자원’  
날짜: 20170517  
기자: 정진영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501.20170517140005006  
ID: 01100501.20170517140005006  
카테고리: 경제>금융\_재테크  
본문: - 주목받는 미세조류<br/><br/><br/><br/>광합성하는 수중 단세포생물<br/><br/>스트론튬 90%이상 감소효과<br/><br/><br/><br/>화석원료와 화학적 속성 비슷<br/><br/>대량생산 新에너지 자원 주목<br/><br/>의약품·건강식품으로도 활용<br/><br/><br/><br/>美·英 석유기업 집중 연구투자<br/><br/>정부, 영흥도 해양배양장 설치<br/><br/><br/><br/>지난 2011년 3월, 동일본대지진 당시 발생한 후쿠시마(福島) 제1 원자력발전소 폭발사고는 전 세계인들에게 방사성 물질에 대한 공포감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사고 당시 바다로 대량 유출된 스트론튬은 반감기가 30년으로 다른 방사성 물질보다 훨씬 긴 데다, 암을 유발하는 등 인체에 치명적이어서 공포감을 배가시켰다. 일본 정부는 막대한 비용을 들여 제염 작업을 펼쳤지만, 고방사성 물질인 스트론튬은 지난해 미국 서부 해안에서도 검출되는 등 여전히 전 세계로 확산 중이다.<br/><br/><br/><br/>17일 환경업계에 따르면 방사성 스트론튬을 친환경적으로 제염할 방법이 국내에서 연구돼 화제를 모았다. 비결은 미세조류였다. 미세조류는 엽록소를 갖고 있어 광합성을 하는 수중 단세포 생물이다. 일반적으로 식물성 플랑크톤이라고 불린다. 한국원자력연구원 방사성폐기물 처분연구부 이승엽 박사팀과 서강대 정광환·이승엽 교수팀은 지난 2014년 미세조류 ‘클로렐라 불가리스(Chlorella Vulgaris)’가 광합성을 할 때 물속의 탄산이온과 스트론튬 이온 간의 결합을 촉진해 고방사성 물질인 스트론튬을 90% 이상 감소시킨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지금까지 용존 방사성 물질 제염은 물리·화학적 흡착 및 침전 방식으로 이뤄져 왔지만 이 방식은 비용부담이 크고 오염수를 정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 공동 연구팀의 연구 결과는 미세조류를 이용해 대량의 오염수를 저비용·친환경 방식으로 제염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br/><br/><br/><br/>미세조류는 현재 기초과학 및 기후변화 연구재료부터 건강보조식품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 및 활용되고 있다. 건강식품·식품첨가물·사료로 상용화에 성공한 클로렐라의 경우 세계 시장 규모가 380억 달러(2015년 기준)로 추산된다. 미세조류에 포함된 색소나 지방산, 항산화제, 항생물질 등은 의약품과 화장품 원료로도 쓰이고 있다.<br/><br/><br/><br/>특히 미세조류가 주목받는 분야는 바이오에너지다. 생명자원을 활용한 바이오에너지는 화석연료인 휘발유와 디젤의 화학적 속성과 유사해 활용범위가 넓다. 현재 생산·판매되는 산업적 바이오에너지의 원료는 콩, 옥수수, 사탕수수, 갈대 등 주로 육상생물자원이다. 이들 육상생물자원은 대부분 인간의 식량자원이나 가축 사료로 사용되기 때문에 다량의 자원을 에너지 생산에 이용할 경우 식량부족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에너지 원료를 생산하기 위해 식량 생산 경작지가 침해되는 등의 문제도 발생한다.<br/><br/><br/><br/>반면, 미세조류는 육상생물자원보다 △단위면적당 고생산성 △비식량 원료 자원 △비경작지 및 유휴공간 이용 가능 △해수·기수·담수·각종 폐수 및 하수 등 다양한 수자원 활용 가능 △탁월한 온실가스 저감 능력 △기존 인프라 사용으로 사회적 투자비용 저감 △바이오에너지 외에 단백질원 및 색소 형태의 고부가가치 원료 확보 가능 등 많은 장점을 갖고 있다.<br/><br/><br/><br/>무엇보다 주목을 받는 부분은 단위면적당 고생산성이다. 미세조류는 매일 두 배로 증식될 만큼 번식력이 뛰어나고 지질 함량도 높아 단위시간 및 단위면적당 생산성이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미국 유타주립대 연구진은 2014년 미세조류가 1에이커(4050㎡)에서 연간 2500갤런(9460ℓ)의 바이오에너지를 생산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현재 바이오에너지의 원료 대부분을 차지하는 대두(180ℓ)나 옥수수(68ℓ)보다 월등한 생산성이다.<br/><br/><br/><br/>미세조류의 산업적·환경적 부가가치에 일찍 눈을 뜬 미국과 영국, 일본 등 선진국과 엑손모빌, BP, 바스프 등 세계적인 석유화학기업들은 2000년대 중반부터 관련 연구에 많은 투자를 해 오고 있다. 미국의 시장조사업체 파이크리서치에 따르면 지난 2011년 827억 달러 수준이었던 바이오에너지 시장규모는 오는 2021년에는 1853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체 바이오에너지 중 15%를 미세조류 바이오에너지가 차지할 것이라는 업계 전망을 고려하면 2021년 미세조류 바이오에너지의 세계시장규모는 278억 달러 규모로 추산된다.<br/><br/><br/><br/>미세조류는 이처럼 높은 활용 가능성을 갖고 있지만, 기술 개발은 전 세계적으로 아직 초기 단계다. 정부 차원에서 미세조류 관련 기술과 지적 재산권 선점이 필요한 시점이다. 정부는 지난 2009년부터 매년 490억 원을 투입해 미세조류 바이오디젤 상용화를 진행하고 있다. 해양수산부 해양바이오에너지 생산기술개발연구센터는 2012년 인천 영흥도 화력발전소가 있는 바닷가에 해양배양장을 설치했다. 해양배양장은 세계 최초로 시도된 것으로, 육상배양과 달리 대형 수조나 별도의 먹이가 필요하지 않아 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식으로 평가받았다. 해수부는 지난 2015년 5월 미세조류에서 추출한 바이오디젤로 서울과 부산 간 차량 주행에 성공해 한국석유관리원에서 품질인증을 받는 결실을 이루기도 했다.<br/><br/><br/><br/> 정진영 기자 news119

언론사: 문화일보-1-148.txt

제목: ‘최적의 유방癌 치료’ 위한 전문醫 협진… 정교한 로봇 수술, 여성美 잃지 않게  
날짜: 20170516  
기자: 이용권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501.20170516112005001  
ID: 01100501.20170516112005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 연세암병원 ‘베스트 팀’ 진료<br/><br/><br/><br/>‘완벽한 치료, 완전한 재건’ 목표<br/><br/>유방외과·종양내과·핵의학과 등<br/><br/>‘필요한 모든 科’ 동원할 수 있어<br/><br/><br/><br/>환자 유전자 분석해 맞춤형 치료<br/><br/>부작용 많은 항암제 투약은 줄여<br/><br/>절제·재건 동시에… 부담 최소화<br/><br/><br/><br/>美 MD 앤더슨 암센터 등과 협력<br/><br/>최신 치료 기법 수시로 업데이트<br/><br/><br/><br/>샤워 중 가슴에 멍울이 잡혔던 신수영(가명·여·47) 씨는 연세암병원 유방암센터를 찾아 검사를 받다가 양쪽 유방에 모두 암이 발생한 것을 알았다. 특히 왼쪽 유방에는 6㎝ 정도에 달하는 커다란 종괴가 확인됐고 임파선 전이도 의심되는 등 치료 자체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연세암병원은 그 즉시 유방 외과를 비롯해 종양내과와 성형외과, 병리과, 영상의학과 등 다양한 의료진을 한데 모았다. 의료진은 오랜 회의 끝에 우선 암 덩어리의 크기를 줄이고 수술하는 방식이 가장 적절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br/><br/><br/><br/> 다행히 종양내과에서 4차례의 항암치료를 진행하자 왼쪽 유방의 암 덩어리는 약 2㎝로 작아졌다. 이어 유방 외과와 성형외과가 동시에 참여하는 종양 성형수술을 효과적으로 시작할 수 있었다.<br/><br/><br/><br/>현재 신 씨는 암 발생 부위 절제와 재건을 동시에 받은 뒤 현재 호르몬 치료와 방사선 치료만을 남겨두고 있다. 암 덩어리를 축소한 후 제때 수술을 실시한 덕분에 수술 부위에 문제가 나타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고통도 크게 줄일 수 있었다. ‘완벽한 치료, 완전한 재건’을 목표로 내건 연세암병원 유방암센터의 성과라는 평가가 나왔다. 조영업(유방 외과 교수) 센터장은 “<span class='quot0'>유방암 진단과 치료는 물론 재활에 관련된 모든 의료진이 협력해 최적의 치료법을 환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span>”고 말했다.<br/><br/><br/><br/>◇연세암병원의 ‘베스트 팀’ 방식 = 월 110~130여 건 이상의 유방암 수술을 시행하는 연세암병원 유방암센터의 가장 큰 특징은 유방 외과를 중심으로 각 관련 진료과 의료진이 모두 참여하는 ‘다학제 진료(Best Team)’다. 여러 관련 진료과가 참여하는 협진제를 운영하고 있는 대다수 대학병원에서 주로 담당 주치의가 환자의 진단부터 치료를 대부분 이끌어 가는 방식과 다소 차이가 있다. 연세암병원의 베스트 팀 진료는 ‘유방 외과, 종양내과, 영상의학과, 방사선 종양학과’ 교수진을 주축으로 ‘성형외과, 병리과, 재활의학과, 핵의학과’ 교수진이 추가로 참여하는 형태다. 한 명의 주치의가 여러 명의 팀 형태로 확대된 방식이다. 필요한 경우 다른 과의 의료진도 베스트 팀 진료에 함께 참여한다.<br/><br/><br/><br/>조 센터장을 비롯한 5명의 전문의로 구성된 유방 외과는 유방암 환자의 수술적 치료를 전담하고 있다. 유방의 형태를 최대한 보존하기 위해 성형외과 교수진 4명도 함께 참여해 환자별 최적 수술을 시행한다. 최근에는 암 부위를 절제한 후 남은 유방 조직을 활용해 본래의 유방 형태를 최대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종양 성형수술도 국내에서 처음으로 성공했다. 다빈치 로봇을 활용함으로써 수술의 정교함을 한층 높였다. 종양내과와 방사선종양학과는 항암약물치료와 방사선치료를 맡고 있다. 5명의 전문의로 이뤄진 영상의학과 교수진은 병리과와 함께 정확한 진단을 통해 치료계획 수립을 뒷받침하고 있다. 핵의학과에서는 최신 분자 영상 기법을 이용해 유방암의 재발과 생존을 예측하는 모델을 만든다. 또 환자의 재발 위험도에 따라 전이를 조기 발견하는 방법도 이용하고 있다. 재활의학과 교수진은 유방암 수술로 발생할 수 있는 림프부종에 대한 전문적인 치료를 담당하고 있다. 이외에도 센터 전문간호사 등 의료진이 진료일정과 치료 진행에 관한 여러 궁금점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준다. 불안감을 해소하고 합병증 예방교육도 동시에 진행하면서 빠른 회복을 통한 일상생활로의 복귀를 돕기 위해서다.<br/><br/><br/><br/>◇맞춤형 ‘치료·유방 재건’ = 연세암병원은 다양한 환자별 상태에 따른 최선의 치료법 찾기를 목표로 하고 있다. 먼저 약물치료는 각 환자의 유방암 세포를 분석해 유전자 특성에 따른 맞춤형으로 진행한다. 유전자 분석에는 대표적인 유방암 표적치료제 ‘허셉틴’ 개발에 참여한 국제적인 유방암 유전자 분석 의학자 백순명 교수도 참여하고 있다. 유방암 환자의 유전자 분석을 통해 필요한 치료만 진행함으로써, 불필요한 항암제 치료에 따른 부작용과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한다. 아울러 이런 맞춤형 치료는 실제적인 항암치료 및 암 재발방지 효과도 거둘 수 있다고 센터 측은 설명하고 있다.<br/><br/><br/><br/>이외에 다국적 제약사 및 미국의 MD 앤더슨암센터 등 세계적 암치료기관과 협력관계를 맺고 각종 신약 임상시험에도 주도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최신치료기법을 수시로 업데이트한다.<br/><br/><br/><br/>유방 재건도 환자별 특성에 맞는 ‘복부 지방 근육(복직근)이식’ ‘등 근육 이식 및 보형물 이식’ 등의 다양한 재건술을 시행 중이다. 특히 유방절제술과 함께 재건술을 동시에 시행, 환자의 수술부담을 최소화하고 있다. 유방암 환자들이 겪는 림프부종을 예방하기 위해 ‘감시 림프샘 생검술’로 절제부위도 최소화하고 있다. 림프부종은 유방암 수술 시 불가피하게 암 전이를 예상해 겨드랑이 주변 림프절을 광범위하게 절제하면서 팔이 붓는 등의 통증을 겪는 현상을 말한다. 또 전문 간호사들은 모든 수술 환자를 대상으로 주 3회 림프부종 예방과 영양 식단, 운동법 교육도 시행하고 있다. 산부인과와의 협진을 통해 추후 임신이 필요한 여성, 임신 중인 여성 등 환자의 상황에 따라 수술 시기와 치료법도 조정하고 있다.<br/><br/><br/><br/>조 센터장은 “<span class='quot1'>환자 자체가 약자이지만, 암 환자는 더 약자이고 여성은 그보다 더 약자</span>”라며 “<span class='quot1'>약자들이 단순히 치료만 하고 가는 곳이 아니라 근심 없고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친절한 의사, 설명 잘하는 의사, 말 잘 들어주는 의사가 되도록 모든 의사가 노력하고 있다</span>”고 말했다.<br/><br/><br/><br/> 이용권 기자 freeuse

언론사: 문화일보-1-149.txt

제목: 유방癌 年 7.9% 급증… 사실상 여성에 가장 위험한 癌  
날짜: 20170516  
기자: 이용권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501.20170516105006001  
ID: 01100501.20170516105006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50대 이상서 ‘뒤늦게 발견’ 많아<br/><br/>호르몬 치료·피임약 등 조심해야<br/><br/>‘앤젤리나 졸리’式 예방적 절제도<br/><br/><br/><br/>우리나라 유방암 환자는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1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유방암 진료 인원은 2011년 10만4293명에서 2015년 14만1379명으로 4년간 35.6% 증가했다. 연평균 증가율은 7.9%에 달한다. 인구 10만 명당 유방암 진료 인원도 지난 2011년 207명에서 280명으로 늘었다.<br/><br/><br/><br/>유방암은 국내 여성 암 중 발병률이 두 번째로 높지만, 발병률 1위가 완치율이 높은 갑상선암인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여성에게 가장 위험한 암으로 평가된다. 최근 확대된 단체 검진의 효과로 조기 유방암 진단율이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유방암 환자가 때를 놓쳐 병원을 찾고 있다.<br/><br/><br/><br/>문제는 뒤늦게 병원을 찾는 유방암 환자들이 50대 이상의 장노년층이라는 특징을 보이고, 그 이하 연령대에 비해 암 진행 정도가 심각한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이는 20~40대인 경우 직장 생활 등으로 의무적인 단체 검진을 통해 조기에 발견할 확률이 높지만, 50대 이상 장노년층은 본인이 관심을 두지 않으면 적극적으로 검진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br/><br/><br/><br/>아울러 많은 여성이 폐경 이후에는 유방암 발병 위험이 낮아진다고 생각하는 고정 관념도 암을 키우고 있다. 대한유방암학회가 지난 1996년부터 2010년까지 국내 유방암 환자를 폐경 전후로 나눠 비율을 조사한 결과 1996년에는 생리 여성의 비중(60.9)이 폐경 여성(39.1)보다 훨씬 높았지만, 2010년에는 그 비중이 51.3대 48.7까지 좁혀졌다. 장노년층 폐경기 여성들은 생리 여성에 비해 더 오랜 기간 여성 호르몬에 노출돼 오히려 보다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 최근의 학계 평가다.<br/><br/><br/><br/>조영업 연세암병원 유방암센터장은 “<span class='quot0'>유방암 예방을 위해 검진을 정기적으로 받고, 특히 음주는 유방암의 적인 만큼 피하는 것이 좋다</span>”면서 “<span class='quot0'>중년기 비만도 유방암 발병률을 높이며, 호르몬 치료나 피임약 등도 조심해야 한다</span>”고 조언했다.<br/><br/><br/><br/>유전자 검사를 통해 전체 유방암의 5~10%를 차지하는 유전성 유방암도 차단할 수 있다. 유전성 유방암 유전자를 보유한 미국 여배우 ‘앤젤리나 졸리’가 사전에 유방절제술을 받아 화제가 됐던 것처럼, 사전에 암 발생 가능 부위를 절제하는 수술도 가능하다. 연세암병원 유방암센터는 유전성 유방암 진단을 통해 조기 치료는 물론 필요 시 예방적으로 유방 및 난소를 절제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상담하고 있다. 또 이런 유전성 유방암이 환자 가족 등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유전적 특성을 공유하는 가족들에 대한 조기 진단 프로그램과 생활교정 또한 시행하고 있다.<br/><br/><br/><br/> 이용권 기자 freeuse

언론사: 문화일보-1-150.txt

제목: 난치성 폐암, 새 치료법 기준 찾았다  
날짜: 20170515  
기자: 이용권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501.20170515170005006  
ID: 01100501.20170515170005006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span class='quot0'>난치성 폐암, 새 치료법 기준 제시</span>”<br/><br/> 연세암병원 연구진, 특정 치료약물에 잘 듣는 바이오마커 새로 규명<br/><br/><br/><br/>연세대 의대 교수진이 국내 폐암 환자 중 가장 많은 ‘편평상피세포형 폐암’ 환자를 위한 새로운 치료 가이드를 제시했다.<br/><br/><br/><br/>조병철·김혜련·홍민희 교수(연세암병원 폐암센터 종양내과)와 강한나 박사는 편평상피세포형 폐암 환자 중 특정 유전자 바이오마커(단백질이나 DNA, RNA, 대사 물질 등을 이용해 몸 안의 변화를 알아낼 수 있는 지표)가 있을 경우 높은 치료 반응도를 거둔다는 사실을 임상과 동물실험을 통해 규명했다고 15일 밝혔다. 연구진은 폐암세포의 성장에 관여하는 생체신호 중 하나인 ‘FGFR’(섬유아세포성장인자수용체, fibroblast growth factor receptor)를 차단하기 위해 암 치료약물 중 하나인 ‘도비티닙’(Dovitinib)의 효과를 측정했다. 연구진은 편평상피세포형 폐암을 인위적으로 발병시킨 실험용 쥐에 도비티닙을 투입하고 암세포 사멸 여부를 조사한 결과 일부 조사군에서 암세포가 30일 이내 빠르게 축소되고 사라지는 것을 확인했다. 반면 치료반응이 없는 조사군에서는 15일 만에 암세포가 급격히 성장하는 모습이 관찰됐다. 연구진은 도비티닙 약물에 사멸되는 환자의 암세포 덩어리와 마우스를 유전자 분석해 보니 18개의 핵심 유전자군의 발현이 높게 나타난 것을 확인했다.<br/><br/><br/><br/>조병철 교수는 “<span class='quot1'>같은 유형의 폐암 환자라도 암세포 유전자의 돌연변이 특성이 제각기 달라 표준적인 치료가 어려워 다른 암보다 치료의 어려움이 매우 컸다</span>”며 “<span class='quot1'>이번 연구는 난치성 편평세포암에서 도비티닙에 좋은 치료 효과를 보일 수 있는 환자를 사전에 선별할 수 있는 기준점을 마련한 데 의의가 있다</span>”고 밝혔다.<br/><br/><br/><br/>이번 연구는 보건복지부 질병중심 중개기반연구기금으로 수행이 됐으며, 국제 암학술지인 ‘Annals of Oncology’지 최근호에 게재됐다.<br/><br/><br/><br/>이용권 기자 freeuse

언론사: 문화일보-1-151.txt

제목: KT-국립암센터, 맞춤형 정밀의료 분야 새 지평 연다  
날짜: 20170511  
기자: 임정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501.20170511143006011  
ID: 01100501.20170511143006011  
카테고리: IT\_과학>인터넷\_SNS  
본문: KT는 국립암센터와 경기 고양시 국립암센터에서 ‘클라우드·빅데이터 기반 정밀의료 분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정밀의료란 환자 유전체 정보, 진료·임상 정보, 생활습관 정보 등을 통합 분석해 환자 특성에 맞는 진단 및 치료를 제공하는 의료 서비스다. 지난해 8월 9대 국가전략 프로젝트로 선정된 이후 진료의 정확도와 치료 효과를 동시에 높일 수 있는 새로운 의료 패러다임으로 주목받고 있다.<br/><br/><br/><br/>KT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환자 유전체 정보 및 임상·유전 정보 등을 통합 관리하는 클라우드 인프라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국립암센터는 진행성 주요 암 환자에 대한 유전체 검사·분석을 통해 암 환자 진단법과 치료제 개발에 집중하게 된다. KT와 국립암센터는 정밀의료 분야의 공동 연구 및 학술 협력, 클라우드 기반의 암 데이터센터 구축 및 운영, 정밀의료 실현을 위한 기술적 협력 등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br/><br/><br/><br/>이강현 국립암센터 원장은 “<span class='quot0'>정밀의료는 암 환자의 생존율을 높이고 질병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새로운 의료 패러다임</span>”이라며 “<span class='quot0'>이번 협약이 암 정복에 한 단계 다가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span>”고 말했다. 이문환 KT 기업사업부문장 부사장은 “<span class='quot1'>의료 분야 4차 산업혁명의 시발점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국립암센터와 협력 범위를 지속 확대해 나갈 것</span>”이라고 말했다. <br/><br/><br/><br/>임정환 기자 yom724@

언론사: 문화일보-1-152.txt

제목: 求道의 봉암사 1년에 아흐레만 山門이 열린다  
날짜: 20170510  
기자: 박경일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501.20170510115006006  
ID: 01100501.20170510115006006  
카테고리: 문화>요리\_여행  
본문: 경북 문경서 만난 ‘맑은 풍경’<br/><br/><br/><br/> 경북 문경을 대표하는 건 험준한 산의 낮은 목을 찾아 넘는 영남대로의 고갯길 ‘문경새재’입니다. 길은 이쪽과 저쪽을 잇는 물리적인 도로를 의미하기도 합니다만, 때로는 방향과 도덕으로 읽힙니다. 길을 한자로 ‘도(道)’라고 적는 건 이런 이유겠지요. 문경을 찾아 나선 길 위에서 물리적인 길은 버리고, 길의 또 다른 의미인 도덕과 방향, 도리를 읽어 봤습니다. 굳게 문을 걸어 잠근 사찰에서, 물 위에 석선(石船)으로 떠 있는 정자에서 만난 것은 맑은 정신과 도리, 그리고 옛사람들이 정신의 방향타로 삼았던 풍경이었습니다. # 두 번의 결사, 그리고 개혁의 정신 <br/><br/><br/><br/>경북 문경에는 해방 이후 불교계에 일대 선풍(禪風)을 일으킨 사찰 봉암사가 있다. 봉암사를 말하자면 ‘결사(結社)’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다. 결사란 불가의 스님들이 뜻을 모아 불교 내부의 타락과 잘못을 혁신하려는, 일종의 종교개혁과도 같은 운동을 말한다. 우리 불교 역사에서 대표적인 세 번의 결사가 있었다. 보조국사 지눌의 정혜결사, 천태종의 백련결사, 그리고 당대의 고승들이 혈기 넘치던 시절 모여 시작한 봉암결사다. 앞서 정혜와 백련결사는 고려 때에, 그리고 봉암결사는 해방 두 해 뒤인 1947년의 일이다. <br/><br/><br/><br/>정혜결사는 전남 순천의 송광사에서, 그리고 백련결사와 봉암결사는 경북 문경에서 있었다. 세 번의 결사 중 두 번이 다 문경 땅에서 이뤄졌다는 얘기다. 천태종의 백련결사가 이뤄진 건 문경 산북면의 절집 미면사다. 미면(米麵). 절집의 이름이 ‘쌀과 국수’다. 경내에 우물 두 개가 있는데 매일 한쪽에는 쌀이, 다른 한쪽에서는 국수가 나왔다는 얘기가 전하는 절집이다. 고려 혼란기에 고승들이 이 절집에서 백성들과 함께 가부좌를 틀고 앉았다. 그러나 지금 미면사 자리는 염소를 방목하는 묵정밭과 수풀이 돼 버리고 말았다. 아쉽게도 절터의 자취라고는 남은 게 없다.# 결사 70년… 치열한 구도의 시간 <br/><br/><br/><br/>봉암결사는 문경의 희양산 아래 절집 봉암사에서 이뤄졌다. 때는 1947년 10월. 봉암사에 성철스님과 자운, 보문, 우봉스님이 ‘부처님의 법대로만 살아보자’는 뜻을 세우고 모였다. 그때부터 1950년 3월까지 2년 6개월 동안 결사에 참여한 50여 명의 스님들은 가부좌를 틀고 말 그대로 뼈를 깎는 수행에 들었다. 밭매고, 나무하고, 동냥하고, 수행하고…. 어느 것 하나라도 소홀하면 몽둥이가 날아들었다. 조선조의 억불정책과 일본 제국주의 탄압을 넘어서 불교 근간을 세우기 위한 한국불교의 혁신운동이 이렇게 시작됐다. 봉암사에서 결사가 이뤄진 지 올해로 꼭 70년이다. 봉암결사가 불교계에 끼친 영향은 절대적이었다. 지금 절집의 발우공양이며 금강경, 반야심경 독송의식도 결사에서 시작됐다. 봉암결사에 참여한 선승들은 불교계를 이끄는 재목이 됐다. 결사 스님 중에서 성철스님을 비롯한 4명의 종정과 지관스님 등 7명의 총무원장이 나왔다. 희끗희끗한 바위산인 희양산을 봉황의 머리로 삼고, 구왕봉과 곰틀봉을 좌우의 날개로 거느리고 있는 자리. 이곳에 결사를 이끌었던 당대 고승의 수행의 자취가 남아있다.# 세상과 돌아앉아 있는 절집 <br/><br/><br/><br/>봉암사는 세상에서 돌아앉아 있다. 1982년 조계종단이 봉암사를 ‘종립특별선원’으로 지정하면서 산문은 굳게 닫혔다. 2년 전까지만 해도 연중 외부인의 출입이 허용되는 건 부처님오신날 딱 하루뿐이었다. 그러던 것이 지난해부터는 개방 기간을 4월 말부터 5월 초에 열리는 ‘문경 찻사발 축제’ 기간으로 확대했다. 그래 봐야 출입이 허용된 것도 9일뿐. 하루 출입 인원은 미리 예약한 200명이다. 그것도 절집에서는 안내에 따라 움직여야 하고 딱 1시간만 머문다는 조건이다.<br/><br/><br/><br/> 지난 7일 축제가 끝나면서 봉암사는 다시 문을 닫았다. 이제 1년을 또 기다려야 발길을 들일 수 있는 봉암사를 찾아갔던 건 절집이 두르고 있는 맑은 정신에 대해 말하고자 함이다. 그리고 앞으로 1년을 기다려서 산문을 들어설 만한 가치가 있음을 말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절집의 불탑이며 법당의 그윽함으로 마음이 평안해지는 데다, 불교 신자가 아니어도 마음을 다하는 수행을 목격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감동이니 말이다. 봉암사는 35년 동안 문을 닫아걸면서 ‘신비의 영역’이 됐다. 흐트러진 마음으로는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그래서 발소리마저 조심스러워지는 수행의 맑은 정신이 가득 고인 그런 공간이 된 것이다. # 곳곳에서 맑은 기운이 출렁이다 <br/><br/><br/><br/>수신불가. 속계에서 벗어나 산문에 들어서자 휴대전화가 먼저 알아챘다. 산문을 지나 절집으로 드는 백운계곡의 물 위로 야광나무 꽃들이 지천으로 꽃잎을 떨구고 있었다. 숲길을 걸어 들어가 만나는 봉암사의 모든 것에서는 맑은 기운이 묻어났다. <br/><br/><br/><br/>봉암사 중심의 삼층석탑부터 모시저고리를 입은 듯 유독 흰빛으로 말갛다. 절집이 뒤로 두고 있는 희양산의 거대한 바위와 색이 같다. 탑은 단순미의 절정이다. 1100년이 넘었으되 탑 윗부분인 보주며 보륜까지 거의 완전하다. 불국사의 석가탑을 모델로 삼았다는데, 석가탑이 장중한 맛을 준다면 이 탑은 단정하면서도 날렵한 상승미를 보여준다. 절집 위쪽 숲길을 걸어 들어가 만나는 백운계곡의 마애여래좌상도 유독 희고 맑다. 일부러 그런 바위를 택했는지 바위를 파서 새겨넣은 여래상의 얼굴이 환하다. 돌에서 흰 기운이 뿜어져 나오는 듯도 하고, 순백의 창호문을 통과한 빛을 받고 있는 듯도 하다. <br/><br/><br/><br/>문경을 통틀어 국보는 단 한 점. 그게 봉암사에 있다. 지증대사의 부도비다. 멀리 남해에서 가져온 점판암에다 지증대사의 업적을 새긴 것이라는데, 사실 이것보다는 그 옆에 있는 보물인 지증대사 부도가 눈길을 더 붙잡는다. 통일신라 석공예술의 극치라는 말은 여기다 붙여줘야 마땅하리라. 부도는 기품이 넘치고 힘차며 아름답다. 단단한 화강암을 비누 조각처럼 세밀하게 깎아낸 솜씨라니…. 한 쪽의 지붕이 깨지는 바람에 국보의 반열에는 오르지 못했지만, 크기와 솜씨로 보면 명품도 이런 명품이 없다. <br/><br/><br/><br/>어디 이뿐일까. 봉암사에서는 목탑형식으로 지어진 극락전도, 희양산의 흰 암봉을 이고 있어 북악산을 두르고 있는 ‘청와대’와 꼭 빼닮은 수행법당의 장중함도, 절집을 가득 채운 적막 사이로 끼어드는 새소리도 모두 발길을 붙잡는다. 봉암사에서 주어진 1시간이 돌아서는 내내 아쉬울 따름이다. # 전나무 숲길 지나 만나는 겹벚꽃 <br/><br/><br/><br/>문경의 절집들은 봉암사의 기운을 받았을까, 아니면 거꾸로 문경의 절집들이 봉암사의 기운을 만들었을까. 산문을 걸어 잠근 봉암사를 빼고도 문경에는 내로라하는 기품있는 절집이 여럿 있다. 문경 산북면의 김룡사와 대승사가 대표적인 곳이다. 두 절집은 지척에 있으되 들어선 자리는 사뭇 다르다. 김룡사는 들을 가로질러 산자락 아래 들어서 있고, 대승사는 비탈진 산길을 차고 올라간 길 끝에 있다. <br/><br/><br/><br/>김룡사는 한때 48개나 되는 말사를 거느린 대찰이었다. 봉암결사를 이끌었던 성철스님이 대구 파계사 성전암의 문을 열고 나와 대중에게 최초의 법문을 한 곳도 바로 이곳 김룡사였다. 하지만 지금은 한때 거느렸던 직지사의 밑으로 들어갔다. 김룡사에서 가장 인상적인 건 산문 앞에 도열한 전나무다. 일주문을 지나 푸른 이끼로 뒤덮인 거대한 전나무들이 만든 어둑한 숲길 끝에 절이 있다. 숲이 깊어 꽃이 늦는 모양인지 경내에는 치렁치렁한 겹벚꽃이 이제야 지고 있다. 김룡사에는 법당 곳곳에 심은 겹벚꽃 나무의 꽃이 유난히 탐스럽다. <br/><br/><br/><br/>김룡사 절 뒤편 산비탈에는 석조약사여래입상과 오층석탑이 있다. 대충대충 깎은 솜씨. ‘어찌 저리 못생겼을까’란 말이 저절로 툭 튀어나온다. 여래상은 뭉툭한 코와 이지러진 얼굴, 몸통은 대충 윤곽만 다듬어냈다. 석탑은 이보다 더하다. 아무렇게나 돌을 썰어내서 쌓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품격이나 솜씨를 거론하기가 민망할 정도다. 그럼에도 백성들이 두 손을 모아 빌었던 건 이런 투박한 불상과 석탑 앞이 아니었을까. 화려한 외양이 아니라 그 앞에 바쳐진 지극한 마음을 생각한다면 이것도 허투루 볼 일이 아니다.<br/><br/><br/><br/> <br/><br/><br/><br/># 암자로 가는 길에 만난 극상의 숲 <br/><br/><br/><br/>대승사는 공덕산 중턱에 들어선 절집이다. 사과밭과 가지를 뒤튼 노송 사이로 이어지는 비탈진 산길을 굽이굽이 한참 올라야 하지만, 말끔하게 아스팔트로 포장된 길은 넓고 번듯하다. 잇단 불사로 경내에는 법당이 빼곡한데, 그래도 건물 하나하나에서 품격이 느껴진다. <br/><br/><br/><br/>대승사 역시 유서깊은 절집이다. 김룡사 창건 한 해 전에 창건됐다. 신라 진평왕 때 사면에 불상이 새겨진 바위(사불바위)가 산꼭대기에 내려앉자 왕이 친히 와서 절을 세웠다는 기록이 삼국유사에 전한다. 대승사에서 산내 암자 윤필암까지 이어지는 1㎞의 숲길 중간쯤에 사불바위로 오르는 길이 있다. 거기서 사불바위까지는 20분이 채 안 걸린다. 사불바위를 앞에 두고 서면 윤필암과 묘적암 일대의 경관이 한 눈에 들어온다. 암자의 단정한 모습도 좋지만 신록이 녹음으로 번져가는 숲의 경관이 눈이 다 부실 지경이다. <br/><br/><br/><br/>대승사의 압권이라면 윤필암에서 묘적암으로 이어지는 숲길이다. 길은 느티나무와 소나무, 참나무, 서어나무가 이뤄낸 극상의 숲 속에 있다. 온통 초록의 바탕에다 먹으로 그린 듯한 나무둥치가 신령스러운 느낌마저 준다. 이쪽 숲에 바위벽에 새긴 마애여래 좌상이 있는데, 거기까지 오르는 계단 길의 경관이 그림과도 같다. 길 끝의 암자 묘적암은 늘 문을 닫아걸고 있는데, 그럼에도 이 길을 권하는 건 극상의 숲이 주는 청량감 때문이다. 한번 발을 디디면 좀처럼 나가고 싶지 않은 숲이 거기 있다. <br/><br/># 바위로 지은 배가 떠 있는 풍경<br/><br/><br/><br/>여기까지가 문경의 사찰에 대한 이야기라면, 이제부터는 유교 이야기다. 유교의 선비문화를 상징하는 건 ‘구곡(九谷)’이다. 빼어난 자연 경관에 이름을 달아놓은 구곡은 팔경(八景)과 마찬가지로 자연의 이치 속에서 삶의 도리를 찾았던 선비들의 유가적 전통을 드러낸다. 문경 땅에는 구곡이 많다. 선유구곡, 쌍용구곡, 화지구곡, 석문구곡…. 구곡이 많다는 건 그만큼 경치가 좋은 곳이 많다는 뜻이다. <br/><br/><br/><br/>그중 금천의 물길이 흘러내리는 석문구곡에 정자 주암정이 있다. 문경의 정자를 경관만으로 순위를 매겨본다면 그 맨 앞줄에다 적어놓아야 마땅한 곳이다. 주암정은 ‘배 주(舟)’자에 ‘바위 암(巖)’자를 쓰는데 이름처럼 배 모양의 바위 위에 지어놓은 정자다. 바위 모양이 어찌나 배와 똑같이 닮았던지 신비로운 느낌마저 준다. 누구나 정자가 들어앉은 모습을 보면 ‘물 위에 배가 지나는’ 장면을 떠올리게 된다. <br/><br/><br/><br/>정자는 500년 전 조선 현종 때 벼슬을 한 조상을 기리기 위해 인천 채씨 문중에서 해방 한 해 전인 1944년에 세운 것. 본래 금천의 물가에 있었던 것인데, 물길이 달라지면서 천변에 물을 가둬 연못을 조성했다. 비록 정자의 역사는 오래되지 않았지만, 정자 앞에 서면 500년 전 바위배에서 유유자적한 삶을 즐겼을 옛 선비의 모습이 그려지는 듯하다. <br/><br/># 정자와 황금비율의 소나무 <br/><br/><br/><br/>두 번째로 꼽을 곳이 진남교반 일대를 굽어보는 자리에 세워진 정자 봉생정이다. 진남교반은 문경의 명소 중의 명소로 꼽히는 곳. 일제강점기인 1933년 대구일보가 ‘경북 8경’을 정하기 위해 명승지를 놓고 투표를 실시한 결과 제1경으로 선정된 곳이 바로 진남교반이다. 제2경은 문경새재였으니 1경과 2경을 모두 문경이 가져간 셈이다. <br/><br/><br/><br/>야트막한 야산 정상에 지어진 봉생정은 거기서 물길을 굽어보는 경관도 훌륭하지만 그보다 더 인상적인 것이 툇마루에 앉으면 돌담 너머로 보이는 기괴한 가지의 소나무다. 툇마루에 앉아보면 4대 3 황금비율의 자리에서 아름드리 소나무가 가지를 뒤틀고 서 있다. 봉생정에 새겨진 건 서애 유성룡의 자취다. 하회마을과 한양 사이를 오가는 길에 서애는 여기 봉생정에서 쉬어갔다. 여기서 그는 고모산성과 좁은 목을 넘어가는 위태로운 고갯길 토끼비리 일대의 지형과 지세를 익혔을 것이었다. 그리고 훗날 ‘징비록’을 쓰면서 이처럼 천혜의 지형을 내버려두고, 충주의 탄금대에서 적군과 맞서 결국 대패하고 만 신립 장군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br/><br/># 민박집 곁방이 된 정자 이야기 <br/><br/><br/><br/>정자에 깃든 이야기로 말하자면 쌍용계곡의 병천정과 산양면의 원모정도 빼놓을 수 없다. 문경과 상주의 경계에 있는 병천정은 조선 중기의 문신 송명흠이 쌍용구곡을 소요하며 머물던 정자다. 그는 영조의 면전에서 죽음을 무릅쓰고 사도세자의 구명을 주장한 대쪽 같은 선비였다. 병천정은 그러나 안내판도 없고, 하루 7만 원에 행락객들에게 잠자리로 내주는 민박집 곁방 신세다. 정자는 문경 땅에 있지만, 상주 지역 문중으로 소유권이 넘어가면서 문경도, 상주도 관리하지 않은 탓이다. <br/><br/><br/><br/>근래 보수한 산양면의 원모정은 부자의 뜨거운 정(情)이 깃든 곳이다. 임진왜란 당시 팔순의 아버지가 자신을 업고 피란하는 아들에게 ‘나를 내려두고 가라’고 간청했으나 아들이 그 말을 듣지 않자 업은 아들의 귀를 물어뜯어 온통 피투성이가 됐단다. 결국 부자는 왜적에 붙들렸는데, 효심에 감동한 왜적도 부자를 살려줘 이를 기리려 정자를 세운 것이다. 문경새재로만 알려진 경북 문경 땅 곳곳에는 이렇게 실타래처럼 풀려나오는 이야기들로 가득하다. 그 이야기들이 말하고자 하는 건 하나같이 경계해야 할 것과 지켜야 할 것들이다.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지켜야 할 정신 같은 것들 말이다.<br/><br/><br/><br/> 문경=글·사진 박경일 기자 parking

언론사: 문화일보-1-153.txt

제목: “하늘은 효도하는 자를 도와… 기쁨 드릴 수 있어 행복”  
날짜: 20170508  
기자: 최명식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501.20170508142006002  
ID: 01100501.20170508142006002  
카테고리: 문화>문화일반  
본문: 11년째, 5월이면 당진·서울·부산·광주서 ‘효도잔치’<br/><br/><br/><br/>김원길 ㈜바이네르 대표 <br/><br/> <br/><br/>매년 2억 들여 2300 명 초청 <br/><br/> 마이크 들고 공연 ·식사 대접 <br/><br/><br/><br/> 김원길(56·사진) ㈜바이네르 대표는 5월 가정의 달이면 정신없이 바쁘다. 올해로 11년째 매년 5월이면 어김없이 효도잔치를 열기 때문이다.<br/><br/><br/><br/>국내 컴포트 신발 부문 1위 업체인 바이네르를 27년째 이끄는 김 대표는 지난 2일 고향인 충남 당진시를 시작으로 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소기업 중앙회 그랜드볼룸에서 효도잔치를 진행했다. 오는 11일에는 부산, 12일엔 광주에서 효도잔치가 예정돼 있다. 효도잔치에 매년 2000명 이상의 어르신을 초청한다. 올해 행사에 참석하는 어르신은 약 2300명이다. 효도잔치에서 식사를 대접하고 공연을 펼치는 등 흥겹고 뜻깊은 시간을 제공한다. 당진시 12개 마을에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효도 잔치로만 매년 2억 원 이상을 사용하고 있다.<br/><br/><br/><br/>효도잔치는 어렵게 자란 김 대표가 어린 시절부터 꿈꿔왔던 일이다. “<span class='quot0'>성공하면 반드시 남에게 베풀겠다</span>”는 자신과의 약속을 실천하고 있다. 지난 4일 경기 고양시 본사에서 만난 김 대표는 “<span class='quot1'>어르신들을 모셔 잠시나마 기쁨을 드릴 수 있어 행복하다</span>”면서 “<span class='quot1'>힘이 닿는 한 꾸준히 계속할 것</span>”이라고 말했다.<br/><br/><br/><br/>김 대표는 효도잔치를 위한 비용을 지불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효도잔치의 일정, 프로그램을 직접 챙긴다. 김 대표가 사회자로 나서기도 하고 인기 가수들과 함께 공연하는 등 어르신들을 위해 흥겹고 유쾌한 퍼포먼스를 펼친다. 또 자사 제품의 가방을 기념품으로 일일이 건네기도 한다. 유명 가수보다 김 대표가 어르신들에겐 인기가 높다.<br/><br/><br/><br/>김 대표는 신발공장에 취직해 자수성가했다. 김 대표는 아들(김우현)을 프로 골퍼로 키우면서 한국프로골프(KPGA)투어 대회를 창설했고 몇 해 전부터는 연인원 1500여 명이 참가하는 전국 규모의 아마추어 골프대회를 개최해오고 있다. 쌀 소비 홍보대사를 맡아 전국 매장에서 고객들을 위한 떡잔치를 진행하고 있고, 임직원은 국립암센터의 암 정복을 위해 자원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br/><br/><br/><br/>김 대표의 사훈 겸 경영이념은 ‘세상을 아름답게, 사람을 행복하게, 그 속에서 나도 행복하게’다. 멋있는 사업가 10명을 조련하는 게 목표라는 김 대표는 “하늘은 효도하는 자를 돕는다. 사업이 성공한 건 다 어르신들 덕분”이라고 말하며 웃었다. <br/><br/><br/><br/> 고양 = 최명식 기자 mschoi

언론사: 문화일보-1-154.txt

제목: 의료인 대상 ‘폐경’ 연수강좌  
날짜: 2017050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501.20170504141006014  
ID: 01100501.20170504141006014  
카테고리: 문화>전시\_공연  
본문: 윤병구(삼성서울병원 산부인과·사진) 대한폐경학회장은 오는 14일 서울 서대문구 그랜드힐튼호텔에서 ‘폐경 호르몬요법(MHT)과 암’을 주제로 의료진 대상 연수 강좌를 진행한다. 사전등록은 7일까지 받는다.

언론사: 문화일보-1-155.txt

제목: 저소득층 수술·치료 위해 ‘장병 헌혈증’ 5000장 기부  
날짜: 20170504  
기자: 정충신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501.20170504141006013  
ID: 01100501.20170504141006013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공군 8전비, 250명 살릴 분량<br/><br/>“<span class='quot0'>생명나눔 활동 적극실천할 것</span>”<br/><br/><br/><br/>매년 4000여 명의 공군 장병들이 5년 동안 모은 사랑의 헌혈증(사진)이 저소득층 수술 및 치료를 위해 기부됐다.<br/><br/><br/><br/>공군 제8전투비행단(8전비)은 4일 지난 5년간 장병들이 모은 5000장의 헌혈증을 강원 원주 세브란스기독병원에 기부했다고 밝혔다. <br/><br/><br/><br/>김성덕 정훈공보과장은 “<span class='quot1'>이번에 기부한 헌혈증 5000장은 혈액 약 200만㏄ 분량으로 중환자 250여 명을 살릴 수 있다</span>”며 “<span class='quot1'>원주지역 저소득 계층의 암, 백혈병 등 고위험질병 수술 및 치료에 사용될 예정</span>”이라고 밝혔다.<br/><br/><br/><br/>8전비는 매년 약 4000명의 장병이 헌혈에 동참하는 등 공군 전 부대를 통틀어 헌혈을 가장 많이 실시한 ‘헌혈부대’다. 특히 분기마다 ‘사랑의 헌혈차’가 비행단을 방문한 것은 물론이고 장병들이 헌혈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항공의무대대를 중심으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br/><br/><br/><br/>8전비는 지난 2011년부터 혈액은행제도를 시행, 장병들에게 기증받은 헌혈증을 모아 어려움에 처한 장병과 군 가족, 지역 주민 등을 지원해왔다. 장병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1만여 장의 헌혈증을 기증받아 지금까지 수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지원했다. 이번 헌혈증 기부 역시 혈액은행제도가 토대가 됐다. <br/><br/><br/><br/>헌혈증을 전달한 8전비 항공의무대대장 김미정(간호사관학교 41기) 소령은 “헌혈증 5000장은 장병 한 명 한 명의 작은 실천이 모인 값진 결과”라며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생명나눔 활동을 적극 실천하겠다”고 밝혔다.<br/><br/><br/><br/>8전비에는 지난해 8월 생면부지의 중증재생불량성 빈혈 환자들을 위해 조혈모세포(골수)를 기증한 김재헌 하사가 복무하고 있다. 2016년 공군을 빛낸 인물 ‘희생·봉사’ 부문 상을 받은 김 하사는 조혈모세모 기증뿐 아니라 헌혈을 84회 실시해 적십자헌혈유공자 금장을 수상했다. 김 하사는 현재 부대 내에서 생명 나눔 전도사로 활동하며 장병들에게 이웃사랑의 참뜻을 알리는 첨병이 되고 있다. <br/><br/><br/><br/> 정충신 기자 csjung

언론사: 문화일보-1-156.txt

제목: <아낌없이 주는 나무, 우리 선생님>교정에 나무·꽃 심어 ‘人性 백년대계’… “노력의 소중함 알려줘”  
날짜: 20170427  
기자: 임대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501.20170427143005020  
ID: 01100501.20170427143005020  
카테고리: 사회>교육\_시험  
본문: 이의동 서울 문현고 교사<br/><br/><br/><br/>‘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는 말은 옛말이 된 지 오래다. 교사들의 권위와 명예는 갈수록 추락하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최근 내놓은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년간 교총에 접수된 교권 침해 상담은 572건에 달했다. 10년 전에 비해 300% 증가한 수치다. 교권 회복은 ‘공교육 붕괴’를 막기 위한 ‘최선’이자 ‘최후’의 지상과제가 됐다. 이에 문화일보는 무너지는 교권을 바로 세우기 위한 차원에서 교육부, 전국 시·도 교육청과 함께 특별 기획 시리즈를 준비했다. 훌륭한 인재를 키워 내기 위해 묵묵히 ‘꿈나무’들에게 물을 주며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의 사명을 수행하고 있는 현장의 수많은 교사를 찾아간다.<br/><br/><br/><br/> 서울 송파구 장지동 문현고등학교에 들어서면 분홍빛의 예쁜 모과꽃이 방문자들의 눈길을 사로잡는다. 화단에는 먹음직스러운 상추도 줄을 맞춰 자라고 있다. 포도나무와 감나무도 올가을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 땅속에서 열심히 영양분을 빨아들이고 있다. 수양 오디, 레드키위 등 잘 알려지지 않은 과실나무들도 교정 여기저기에서 새순을 틔우고 있었다.<br/><br/><br/><br/>꽃과 나무 등 식물이 인간의 정서 순화에 도움을 준다는 사실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농촌진흥청이 초등학생 33명을 대상으로 2년간 식물 가꾸기 체험을 진행한 결과,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의 공격성이 첫해에 7%, 2년째에는 13% 정도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성인 암 환자를 대상으로 원예치료 프로그램을 진행한 결과에서도 스트레스가 34%, 우울증은 45%가량 감소하고 정서순화는 13%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br/><br/><br/><br/>문현고도 2011년부터 교정에 꽃과 나무를 심기 시작했다. 이 프로그램을 주도한 교사가 역사를 가르치는 이의동 교사다. 이 교사는 이미 ‘나무 심는 선생님’으로 유명하다. 이 교사는 26일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span class='quot0'>입시 위주의 교육으로 인해 인성이 메말라 가면서 남을 배려할 줄 모르는 학생들로 인해 과연 이것이 올바른 교육인가라는 갈등을 많이 느꼈다</span>”며 교정에 꽃과 나무를 심게 된 계기를 설명했다.<br/><br/><br/><br/>이 교사가 이 프로그램을 처음 시작한 것은 2008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양재고 재직 때부터였다. 벼를 ‘쌀 나무’라고 부르며 이양법을 모르는 학생들에게 직접 모심기를 보여주고 싶어 교정 안에 조그맣게 논을 일궈 모를 심은 것이다. <br/><br/><br/><br/>이 교사는 “<span class='quot0'>결과보다는 과정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줘 지식만 쌓으면 된다는 학생들의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고, 자연을 닮은 인성을 심어주고 싶었다</span>”고 말했다.<br/><br/><br/><br/>이 교사의 생각은 그대로 적중했다. 지난해 문현고에 입학한 하준수(18) 군은 “키위나무가 몇 년간 열매가 열리지 않다가 지난해 처음 열매가 열렸다고 했는데, 그걸 보면서 비록 꿈을 이루지 못할지라도 노력해 가는 과정이 매우 소중하고 언젠가는 결실을 볼 수 있다는 것을 배웠다”고 말했다.<br/><br/><br/><br/>조은수(19) 양은 이 교사의 활동을 보면서 교사가 되는 꿈을 갖게 됐다고 했다. 조 양은 “<span class='quot1'>빌딩이나 콘크리트에 익숙해 있는 학생들에게 자연을 느끼고 자연과 어울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준 선생님에게 깊은 존경심을 갖게 됐다</span>”며 “<span class='quot1'>나도 교사가 돼 학생들에게 정말 의미 있는 교직 활동을 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됐다</span>”고 말했다.<br/><br/><br/><br/>이 교사는 ‘학교 과일나무 100만 그루 심기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전국 1만1500여 개의 초·중·고·대학 교정에 100그루의 나무를 심자는 운동이다.<br/><br/><br/><br/>“2012년부터 전국 선생님들과 시·도교육청 직원에게 매년 이메일을 보내 프로젝트에 동참할 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호응해 주시는 선생님들을 보면 정말 감격스럽습니다. 얼마 전에는 충남 당진에 사시는 72세의 학교 ‘지킴이’ 선생님께서 전화를 주셔서 격려해 주시더군요. 40여 년 교직 생활 중에서 가장 감격스러웠던 순간이었습니다.”<br/><br/><br/><br/>이 교사의 호소에 호응해 주는 학교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 서울의 모 초등학교는 올해부터 과일나무 심기 프로젝트를 학교 특별사업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모 부속 여고의 교장도 “<span class='quot2'>정말 좋은 아이디어로, 학교 전체를 꽃과 과일나무로 장식하겠다</span>”고 밝혀 오기도 했다. <br/><br/><br/><br/>“주말에도 계속 학교에 나와 꽃과 나무를 가꾸니 집사람이 학교에 애인이 있냐고 핀잔을 주더군요. 내년이면 정년퇴직인데, 퇴직해도 계속해서 우리나라의 모든 학교에 과일나무가 무성하게 자랄 수 있도록 운동을 계속해 나갈 겁니다.”<br/><br/><br/><br/> 임대환 기자 hwan91

언론사: 문화일보-1-157.txt

제목: 항암제 장착 정자로 여성 생식기관 암세포 잡는다  
날짜: 20170426  
기자: 이용권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501.20170426115505001  
ID: 01100501.20170426115505001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獨 연구팀, 자궁 · 난소암 실험 성공 <br/><br/>면역거부 없고 암세포 정확히 찾아가<br/><br/><br/><br/>남성의 정자에 항암제를 장착시켜 여성 생식기관의 암세포만 정확하게 찾아가 죽이는 치료법이 개발되고 있다. 독일 드레스덴 통합나노과학연구소(IIN) 과학자들은 정자를 ‘유도 미사일’처럼 활용해 자궁암이나 난소암을 치료하는 새로운 암 치료법의 동물시험에 성공했다.<br/><br/><br/><br/>26일 과학 매체 ‘Phy.org’와 영국 일간지 데일리메일 등은 이 같은 사실을 전하면서 “정자가 인체에서 면역거부 반응을 일으키지 않고, 체내 깊숙한 부위에 있는 난자를 정확하게 찾아가 침투하는 특성을 이용했다”고 설명했다.<br/><br/><br/><br/>IIN 연구팀은 약물 독성이 암세포뿐 아니라 건강한 세포까지 병들고 죽게 하는 기존 항암제의 부작용을 해결하면서도 외부에서 침입하더라도 면역시스템의 공격을 받지 않는 정자에 주목했다. 정자는 특정 당분 분자(당단백질)를 운반하지만, 인간의 면역시스템이 이를 받아들인다.<br/><br/><br/><br/>특히 긴 꼬리 같은 편모를 활용한 강한 추진력으로 헤엄쳐 나팔관에 들어간 뒤 난자 막을 뚫고 들어가 수정하는 성질이 있다. IIN 팀은 ‘독소루비신’이라는 항암제 액에 정자를 몇 시간 동안 담가 약물을 흡수토록 했다. 이후 정자의 머리 부분을 수 나노미터(nm·10억분의 1m) 크기의 미세한 금속 ‘투구’로 덮어 암컷의 생식기관에 주입했다.<br/><br/><br/><br/>정자에 금속 ‘투구’가 있어 초음파 영상으로 이를 관찰하면서 자기장을 이용해 방향과 움직임을 조종하면 암세포가 있는 부위로 정확하게 유도할 수 있다는 게 연구팀의 설명이다. 암세포에 도달한 정자는 난자에 침투하는 것처럼 암 세포막을 뚫고 들어가고 투구에 달린 4개의 ‘금속 팔’이 암세포에 달라붙게 해줘 약물을 분사하게 된다. IIN 연구팀은 소의 정자를 이용한 실험실 내에서의 성공을 바탕으로 향후 인간 정자를 이용한 실험과 생체 실험 등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br/><br/><br/><br/>이용권 기자 freeuse

언론사: 문화일보-1-158.txt

제목: ‘무병장수 꿈’ 현실화 되나… 노화세포 제거 물질 개발  
날짜: 20170426  
기자: 임대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501.20170426114505004  
ID: 01100501.20170426114505004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울산과학기술원 연구팀 발표 <br/><br/>생쥐 퇴행성관절염 완화 확인<br/><br/><br/><br/>몸에 쌓인 노화 세포를 제거해 신체 조직의 재생능력을 높이는 기술이 동물 실험에서 확인돼 인류 희망인 ‘무병장수’의 꿈이 실현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br/><br/><br/><br/>울산과학기술원(UNIST) 자연과학부 화학과 김채규 연구교수는 미국 존스홉킨스 의대 전옥희 박사 등 국제 연구진과 공동으로 노화 세포를 제거해 퇴행성 관절염을 완화하는 기술과 후보 약물을 개발해 ‘네이처 메디신’(Nature Medicine) 온라인판에 발표했다고 26일 밝혔다.<br/><br/><br/><br/>인간을 비롯한 생명체는 모두 늙는 과정에서 세포도 함께 노화해 신체 조직과 장기 등에 쌓인다. 노화 세포가 축적되면 만성 염증반응이 생기는 환경을 만들고, 주변 조직과 세포도 쉽게 손상된다. 결국, 생체조직의 재생능력이 떨어져 암이나 치매, 당뇨병, 퇴행성관절염 같은 다양한 퇴행성 질환이 유발된다.<br/><br/><br/><br/>김 교수는 “<span class='quot0'>축적된 노화 세포를 인위적으로 제거하면 몇 가지 퇴행성 질병을 완화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보고됐다</span>”며 “<span class='quot0'>이번 연구에서는 퇴행성관절염에 걸린 생쥐를 이용해 노화 세포를 제거하면 생체 재생능력이 회복된다는 걸 밝혀낸 것</span>”이라고 설명했다.<br/><br/><br/><br/>연구진은 퇴행성관절염 환자에서 나온 노화 세포를 배양해 성능을 평가한 결과, 노화 세포를 제거할 수 있는 후보 물질(UBX0101)을 찾아내는 데 성공했다. 이 물질을 퇴행성관절염을 일으킨 유전자 변형 생쥐에게 주입한 결과, 노화 세포가 없어지고 생쥐의 퇴행성관절염도 완화된 사실을 확인했다. 노령기(2년 정도)의 또 다른 유전자 변형 생쥐에게 특정한 화합물(AP20187)을 투여해 노화 세포를 제거한 결과에서도 약물을 투여하지 않는 생쥐보다 건강한 상태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br/><br/><br/><br/>김 교수는 “<span class='quot0'>향후 임상시험에 약물 안전성과 효율성을 지켜봐야 한다</span>”며 “<span class='quot0'>연구결과는 암, 치매, 당뇨병과 같은 다양한 노인성 질환에 적용할 수 있어 인류의 꿈인 ‘무병장수’에 과학적이고 현실적인 방법으로 접근 가능할 것</span>”이라고 기대했다. <br/><br/><br/><br/>한편, 이번 연구에서 노화 세포를 표적으로 삼는 약물 스크리닝 방법과 발굴된 후보 약물은 미국 실리콘밸리의 생명과학 스타트업 기업인 ‘유니티 바이오테크놀로지’(Unity Biotechnology)에 기술이전이 완료됐다. 이번 연구에서 발굴된 후보 약물은 올해 퇴행성관절염 환자들을 상대로 임상시험에 착수할 것으로 전망된다.<br/><br/><br/><br/>임대환·이용권 기자 hwan91

언론사: 문화일보-1-159.txt

제목: <윤승일 원장의 디톡스 푸드>율무, 체내 콜레스테롤 배출·항염·이뇨작용 탁월해… 알레르기 예방 도움도  
날짜: 2017042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501.20170426110006001  
ID: 01100501.20170426110006001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율무는 영어로 ‘욥의 눈물(Job’s Tears)’이다. 성경 속 욥은 하나님이 내린 온갖 고난과 시련을 극복하느라 많은 눈물을 흘렸을 터인데 율무의 모양이 욥의 눈물방울처럼 고통과 염증을 해결해주는 성경적 의미의 힐링작용을 가졌기에 이런 명칭이 나오지 않았나 싶다.<br/><br/><br/><br/>한의학에서는 율무를 의이인(薏苡仁)이라고 부르며 몸이 붓고 신장기능이 약할 때, 그리고 비만 조절을 위해서 많이 처방한다. 주로 소변을 잘 보게 하는 이뇨작용이 강력하기 때문이다. 또 청열배농(淸熱排膿) 작용이 있어서 열을 식히고 염증과 고름을 제거하는 데 많이 사용된다. 영양학적으론 항산화, 항염작용을 하는 것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br/><br/><br/><br/>실제로 율무 속엔 벤족사지노이드(benzoxazinoid) 성분이 들어 있어서 항염작용을 한다. 비만세포(mast cell)에서 나오는 히스타민을 억제하기 때문에 알레르기 예방에도 도움을 준다.<br/><br/><br/><br/>세포 면역을 담당하는 T림프구는 ‘T헬퍼1 세포(Th1)’와 ‘T헬퍼2 세포(Th2)’로 크게 나뉘는데 이 두 가지의 불균형이 자가면역질환이나 알레르기 질환을 유발한다. 그런데 Th1과 Th2의 균형을 잡아서 알레르기 해결에 도움을 주는 것이 바로 율무다. 또 율무는 체내 염증과 암 대사과정에 관여하는 ‘콕스2(COX-2)’라는 효소를 억제해 주기 때문에 항염, 항암효과가 있다.<br/><br/><br/><br/>율무는 머리도 좋게 한다. 뇌 속의 신경 미세아교세포(microglia)가 흥분하면 염증을 일으키면서 뇌세포를 파괴한다. 뇌미세아교세포는 달콤한 당분 성분과 지나친 탄수화물중독증, 뇌 혈액순환장애, 만성 스트레스, 위장관 질환인 장누수증후군과 소장과다세균, 곡식 속의 단백질인 글루텐(밀, 보리, 오트밀 등에 많다), 술과 약물 과다복용 등에 의해 자극돼 염증 유발물질인 엔에프카파비(NF-kB·Nuclear Factor kappa B)를 활성화한다. <br/><br/><br/><br/>NF-kB는 염증 및 면역반응에 관여하는 단백질 전사인자로서 염증 자극이나 세균 등의 감염에 의해 활성화되면서 염증을 유발한다. 율무는 이러한 염증 유발물질인 NF-kB를 억제해 뇌세포를 보호해준다. <br/><br/><br/><br/>율무는 또한 장내 세균에도 작용해서 젖산(lactic acid)과 부티르산(butyric acid) 같은 짧은사슬 지방산을 만들어 주는데 장을 튼튼히 해주고 고지혈증을 예방해주면서 몸속 피로를 줄여주는 에너지 대사에도 관여한다. <br/><br/><br/><br/>최근 장내 세균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으며 뇌 기능과 직결돼 있다는 연구 결과가 많이 나오고 있다. 뚱뚱한 사람의 장내 세균을 이식하면 비만이 되고 마른 사람의 장내 세균을 이식하면 비만이 치료된다는 연구도 많아지고 있다. 즉 장이 좋아야 뇌가 좋고 장내 세균이 건강해야 비만이 오지 않고 피로가 해소된다는 것이다.<br/><br/><br/><br/>장내 세균의 활성화는 또한 ‘2형 당뇨’와 비만, 대사증후군에도 직접 도움을 주기 때문에 평소 스트레스가 많고 비만하면서 고지혈증이 있는 분들에게 율무는 절대적으로 유익하다. <br/><br/><br/><br/>율무에는 식이섬유 성분도 풍부하게 들어있다. 따라서 체내 콜레스테롤 배출을 돕고, 장 속에서 중성지방이 흡수되지 않게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 식이섬유는 쓸개즙과 결합해서 쓸개즙이 원활히 배출되게 만들어 주는 기능도 한다. 나이가 들면서 담즙 순환이 느려지면 담석이 오거나 담도질환이 나타나기도 한다. 율무는 게다가 몸에 나쁜 ‘저밀도 지단백(LDL·low-density lipoprotein) 콜레스테롤’이 산화되면서 활성산소를 유발하는 과정을 차단하기 때문에 강력한 항산화 효과를 보인다. <br/><br/><br/><br/>빙빙한의원 원장(한의기능영양학회장)

언론사: 문화일보-1-160.txt

제목: 정자에 항암제 장착 ‘유도미사일’로 활용 암 치료법 개발  
날짜: 2017042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501.20170426070005001  
ID: 01100501.20170426070005001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독일 연구팀, 정자 추진력과 면역거부 없는 특성 이용 <br/><br/> <br/><br/>정자에 항암제를 장착시켜 여성 생식기관의 암세포만 정확하게 찾아가 죽이는 치료법이 개발되고 있다. <br/><br/><br/><br/>26일 과학매체 Phy.org와 영국 일간지 데일리메일 등에 따르면, 독일 드레스덴 통합나노과학연구소(IIN) 과학자들은 정자를 일종의 ‘유도 미사일’로 활용, 자궁암이나 난소암을 치료하는 새로운 암 치료법의 실험실 내 시험에 성공했다.<br/><br/><br/><br/>이는 정자가 인체에서 면역거부 반응을 일으키지 않고, 체내 깊숙한 부위에 있는 난자를 정확하게 찾아가 침투하는 특성을 이용한 것이다. <br/><br/><br/><br/>항암제들은 많다. 문제는 약물의 독성이 암세포뿐 아니라 건강한 세포까지 병들고 죽게 하는 부작용이다. 이에 따라 과학자들은 항암제가 암세포에만 직접 작용하는 다양한 방법을 연구해왔으나 아직 획기적 성과는 많지 않으며 그나마 일부 암 종류에만 듣는다. <br/><br/><br/><br/>그 방법의 하나가 인체에 쉽게 침투할 수 있는 박테리아(세균)를 약물의 운송 도구로 삼는 것이다. 문제는 이 방법이 상대적으로 효율적일 수 있으나 인체의 면역시스템이 세균을 ‘침입자’로 인식해 목표지점에 이르기 전에 파괴하는 것이다.<br/><br/> <br/><br/>IIN 연구팀은 그 대안으로 정자의 특성에 주목했다. 정자 역시 다른 사람의 몸에는 외부에서 들어온 것이긴 해도 면역시스템의 공격을 받지 않는다.<br/><br/><br/><br/>정자는 특정 당분 분자(당단백질)을 운반하지만 모든 인간의 면역시스템이 이를 받아들인다. 게다가 긴 꼬리 같은 편모를 이용, 무서운 추진력으로 헤엄쳐 나팔관에 들어간 뒤 난자 막을 뚫고 들어가 수정하는 성질이 있다.<br/><br/><br/><br/>정자의 이런 특성을 이용, 불임치료법 등 다양한 연구를 해온 IIN 팀은 독소루비신이라는 항암제 액에 정자를 몇 시간 동안 담가 약물을 흡수토록 했다. 이 약물은 암세포 성장에 필요한 효소인 토포이소머라아제를 차단하는 방식으로 암세포를 말려 죽인다.<br/><br/><br/><br/>그다음 단계로 정자의 머리 부분을 철분 용액으로 코팅된, 수 나노미터(㎛ 10억분의 1)크기의 아주 미세한 금속 ‘투구’로 덮었다. 이를 질 속에 주입하면 약을 실은 정자가 자궁경관 방향으로 나아간다.<br/><br/><br/><br/>정자에 ‘철 투구’가 있어 초음파 영상으로 이를 관찰하면서 자기장을 이용해 방향과 움직임을 조종해 암세포가 있는 부위로 정확하게 유도할 수 있다. <br/><br/><br/><br/>암세포에 도달한 다음엔 정자는 난자를 침투하는 것처럼 암 세포막을 뚫고 들어가고 투구에 달린 4개의‘ 금속 팔’이 암세포에 달라붙게 해줘 약물을 분사하게 된다. <br/><br/><br/><br/>IIN 연구팀은 그동안 소의 정자를 이용해 실험실 내에서만 암세포에 도달토록 하는 실험에 성공했다. <br/><br/><br/><br/>철분 투구를 씌워 무거워진 결과 원래 정자의 유영속도의 절반으로 이동속도가 떨어졌으나 암세포를 찾아내고 정확하게 파괴할 수 있는 능력엔 문제가 없었다고 보고했다. <br/><br/><br/><br/>연구팀은 앞으로 인간 정자를 이용한 실험과 생체 실험 등을 진행할 것이라면서 5년 안에 정자를 이용한 난소암과 자궁암 치료법을 완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 치료법은 남녀 모두의 다른 암 치료에도 활용될 수도 있다. <br/><br/><br/><br/>이번 연구결과는 미국 코넬대학교가 운영하는 국제 과학 논문 웹사이트 ‘아카이브’(arXiv)에 최근 실렸다. <br/><br/><br/><br/><연합뉴스>

언론사: 문화일보-1-161.txt

제목: 곡성, 자궁경부암 예방접종률 전국 1위  
날짜: 20170425  
기자: 이용권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501.20170425145006004  
ID: 01100501.20170425145006004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86.3% 기록… 전국 평균 2배 <br/><br/>지자체·교육청 긴밀협조 성과<br/><br/><br/><br/>‘뭣이 중헌디’라는 대사로 인기를 끈 영화 ‘곡성(哭聲)’의 배경 장소로 유명세를 치른 전남 곡성(谷城)이 자궁경부암 예방접종률에서 전국 최고인 것으로 조사됐다. 백신 이상 반응에 대한 근거 없는 소문으로 일부 학부모가 자녀의 접종을 꺼리면서 전국적으로 예방접종률(평균 46.6%)이 저조한 것과 대비된다. 지방자치단체와 교육기관 등의 긴밀한 협조 때문으로 분석됐다.<br/><br/><br/><br/>25일 질병관리본부(KCDC)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해부터 자궁경부암 무료 예방접종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전국 255개 보건소 접종률 중 전남 곡성군이 86.3%로 가장 높았다. 전국적으로 접종률이 80.0%를 넘는 곳은 곡성군이 유일했다. KCDC의 분석 결과 곡성군의 경우 보건당국과 교육청이 협업 체계를 갖춰 접종대상자 명단을 학교에 통보하고, 학교에서는 가정통신문 등으로 접종을 독려하고 있다.<br/><br/><br/><br/>자궁경부암은 자궁 입구인 자궁경부에 발생하는 악성종양으로, 사람유두종 바이러스(HPV) 감염이 주된 원인이다. 국내에서 한 해 4000여 명의 환자가 새로 발생하고 900여 명이 사망하고 있다.<br/><br/><br/><br/>자궁경부암은 백신으로 예방할 수 있어 정부는 지난해 6월부터 매년 초등학교 6학년 여학생을 대상으로 무료로 자궁경부암 백신(2회)을 맞도록 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중학교 1학년과 초등학교 6학년에 해당하는 2003∼2004년 출생 여성 청소년이 1차 접종 대상이었고, 올해는 2004∼2005년생이 대상이다. <br/><br/><br/><br/>정기석 질병관리본부장은 이날 곡성군청을 찾아 “<span class='quot0'>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은 암 예방 효과가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 데다 작년에 부작용에 대한 근거 없는 소문이 퍼지면서 접종률이 50% 정도에 그쳤다</span>”며 “<span class='quot0'>올해는 적극적인 안내를 통해 접종률을 70% 이상으로 높이겠다</span>”고 밝혔다. <br/><br/><br/><br/>이용권 기자 freeuse

언론사: 문화일보-1-162.txt

제목: 바이오기업 신라젠 항암제 佛기술수출료 45억원 확보  
날짜: 20170425  
기자: 유현진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501.20170425143006005  
ID: 01100501.20170425143006005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바이오기업 신라젠이 프랑스 제약사로부터 항암제 ‘펙사벡’에 대한 기술수출료 400만 달러(약 45억 원)를 확보했다. 펙사벡은 신라젠이 우두바이러스를 이용해 자체개발한 면역 항암제다. 우두바이러스 유전자를 조작해 암세포를 직접 공격하는 동시에 면역세포를 활성화한다.<br/><br/><br/><br/>신라젠은 이탈리아에서의 펙사벡 간암 임상 3상 환자 등록에 따라 프랑스 트랜스진으로부터 기술 수출에 따른 단계별 기술료인 ‘마일스톤’ 400만 달러를 받았다고 25일 밝혔다. 신라젠이 지난 2011년 트랜스진과 체결한 ‘간암대상 펙사벡의 글로벌 임상 3상 계약’에 따라 유럽지역에서 첫 임상환자가 등록될 경우 트랜스진이 신라젠에 마일스톤을 지급해야 한다. 앞으로 임상 경과 등에 따라서 추가로 마일스톤, 로열티 등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br/><br/><br/><br/>필리페 아르시나르 트랜스진 대표는 “<span class='quot0'>유럽 환자의 첫 임상은 펙사벡 진행이 진일보한 것으로 볼 수 있다</span>”며 “<span class='quot0'>간암과 같은 고형암 환자에게 효과가 있는 면역항암제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할 것</span>”이라고 말했다. 신라젠 관계자는 “<span class='quot1'>유럽 임상시험은 암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높게 평가받는 연구기관과 연구진이 함께 진행하고 있어 기대감이 크다</span>”고 말했다. <br/><br/><br/><br/>유현진 기자 cworange

언론사: 문화일보-1-163.txt

제목: 아베정권 인사 잇단 구설… 日국민 73% “기강 해이”  
날짜: 20170424  
기자: 박준희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501.20170424141006018  
ID: 01100501.20170424141006018  
카테고리: 국제>일본  
본문: 각료 등 막말·불륜 논란 <br/><br/>北風으로 지지율은 반등<br/><br/><br/><br/>최근 아베 신조(安倍晋三·사진) 일본 정부 각료와 집권 자민당 의원들의 설화(舌禍)나 구설수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일본 국민은 “<span class='quot0'>정권의 해이함이 드러나고 있다</span>”고 지적했다. 그러나 북한의 도발에 적극 대응하는 아베 정권에 대한 동조 여론이 일며 ‘아키에(昭惠) 스캔들’로 잃었던 지지율은 회복된 것으로 나타났다.<br/><br/><br/><br/>23일 교도(共同)통신의 여론조사(22∼23일 실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3.2%는 최근 아베 내각 각료의 문제 발언과 불륜 문제에 의한 정무관의 사임 등에 대해 “(정권의) 해이함이 드러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20.9%에 그쳤다.<br/><br/><br/><br/>앞서 야마모토 고조(山本幸三) 지방창생담당상은 지난 16일 문화재 학예사(큐레이터)를 ‘암(癌)’으로 표현하며 “쓸어버려야 한다”고 막말을 했다가 문제가 되자 발언을 철회했고, 자민당 중의원이기도 한 나카가와 도시나오(中川俊直) 경제산업성 정무관은 18일 불륜 문제가 들통나 사임했다. 이처럼 정권 주변 인사들의 부적절한 발언과 행동이 잇따라 논란이 되고 있으나, 정작 아베 내각의 지지율은 오히려 지난달보다 큰 폭으로 올랐다. 북한의 미사일 위기를 소란스럽게 부각시키며 ‘북풍’을 일으킨 일본 정부 여당의 전략이 아키에 스캔들로 하락한 지지율의 재상승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br/><br/><br/><br/>이번 조사에서 아베 내각 지지율은 58.7%로 3월 조사보다 6.3%포인트 올랐다. <br/><br/><br/><br/>박준희 기자 vinkey

언론사: 문화일보-1-164.txt

제목: <지식카페>최고급 주상복합 → 회생불능 공룡 → 재생사업… ‘榮辱’의 역사  
날짜: 2017041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501.20170419150005001  
ID: 01100501.20170419150005001  
카테고리: 문화>미술\_건축  
본문: 안창모의 도시 건축으로 보는 서울 - ① 세운상가의 발전·몰락·생존<br/><br/><br/><br/>1994년, 서울이 조선의 수도로 탄생한 지 600년 되는 해를 기념하는 행사가 대대적으로 펼쳐졌다. 새삼스레 서울시민들은 자신들이 600년 된 역사 도시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이후 역사 도시가 갖추어야 할 많은 장소와 건축들이 소중해졌다. 가회동의 도시 한옥, 인사동의 골목길이 우리에게 남겨진 이유다. ‘정도 600년’ 행사 이후 역사 도시를 보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고, 이는 시의 정책으로 이어졌다. 주목할 것은 역사 도시가 조선뿐 아니라 대한제국을 포함한 근현대사를 포괄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철거 대상이었던 세운상가가 살아남은 이유다. 청계고가가 철거되고 복개된 청계천이 복원되면서 세운상가마저 철거하고 주변을 재개발하려는 계획이 공표됐다. 그러나 이 계획이 세계유산인 종묘에 위협적이라는 점이 부각되고, 세운상가 철거와 주변 개발의 부적정성이 사회적 이슈가 됐다. 당국은 논란이 벌어지자 철거에 대한 대못을 박기 위해 세운상가 ‘가’동을 서둘러 철거하며 세운초록띠공원을 조성했다. 이후 10년 만에 ‘역사도심 기본계획’ 발표와 함께 세운상가 철거계획이 백지화되고, 세운상가 재생을 통해 도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계획이 발표됐다. 지난 10년 사이에 세운상가의 운명이 드라마틱하게 바뀐 것이다.<br/><br/><br/><br/>#중·일전쟁과 2차세계대전 그리고 6·25전쟁의 사생아<br/><br/><br/><br/>사실, 세운상가의 탄생 배경에는 우리의 비극적 근현대사가 있다. 세운상가는 올해로 50년이 되었다. 그러나 세운상가의 뿌리는 해방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세운상가가 세워진 땅이 일본의 중국 침략과 하와이 진주만 습격을 통해 태어난 ‘소개(疏開)도로’였기 때문이다. 소개도로는 공습이나 화재 따위에 대비하여 한곳에 집중되어 있는 주민이나 시설물을 분산하는 도로를 말한다. <br/><br/><br/><br/>전쟁에서 비행기가 전략병기로 등장하면서 후방 도시를 무력화하는 것이 현대전의 핵심임을 간파했던 일본은 중·일전쟁을 도발하기 직전 공습으로부터 도시를 보호하기 위한 방공법(防空法)을 통해 지금의 청계천 자리에 소개도로를 만들었다. 종묘에서 퇴계로에 이르는 폭 50m 길이 1000m에 이르는 도로였다. 전쟁을 배경으로 급조된 소개도로가 해방과 6·25전쟁을 거치면서 암적 존재로 변했다. 해방공간과 전후 행정 공백기에 거대한 슬럼이 되며 사창가인 ‘종삼(종로3가)’과 연결됐다. <br/><br/>#두 모더니스트, 박정희와 김수근의 현대도시에의 꿈<br/><br/><br/><br/>1960년대까지 이곳은 서울에서 가장 어두운 곳의 하나였다. 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 당시 대통령에게는 당연히 정리 대상이었는데, 이에 대한 해법을 제시한 사람이 건축가 김수근이었다. <br/><br/><br/><br/>부산에서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항만을 반듯하게 정비하여 박정희의 눈에 들었던 김현옥이 1966년 4월 서울시장에 임명됐고, 김 시장은 대통령의 기대에 부응했다. 김 시장은 세종로 지하보도 건설을 시작으로 고가도로 건설 등 수많은 건설프로젝트를 진행했는데, 그 중에서 압권은 세운상가 건설이었다. <br/><br/><br/><br/>당시 종묘 앞의 슬럼화된 소개도로 정비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공한 사람은 김수근이었다. 김수근은 전후복구 과정에서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룬 패전국 일본의 1964년 도쿄(東京)올림픽 개최를 위한 도시개조프로젝트에 대한 경험이 있었다. 일본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동서로 발달한 서울의 가로체계 한계를 극복하고자 남북방향의 입체적 도시 축이 제안되었다. 사업에는 민간자본이 참여했다. 김 시장은 재정이 궁핍했던 시기의 각종 도시개발사업에 민자를 적극 유치했으며, 세운상가에서는 건설사가 상가와 아파트 분양을 통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공공성이 배제된 바로 이점이 세운상가의 몰락을 가져오는 단초가 됐다. <br/><br/><br/><br/>김수근의 제자로 세운상가프로젝트를 주도했던 건축가 윤승중에 따르면, 지상은 자동차만을 위한 공간으로, 3층은 인공대지 위에 쇼핑몰을 제안했다. 그러나 민간 사업자는 높은 임대료와 분양 수입을 챙길 수 있는 1층을 자동차 전용 공간으로 만들지 않았다. 김수근 팀의 제안을 전면 거부하지는 않았지만, 최소한의 도로만 둔 채 소개도로의 중앙에는 상가를 두었다. 자동차 방해 없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남북으로 연결된 쇼핑몰이 계획되었지만, 접근성이 좋은 1층에 대규모 상업시설이 마련되면서 3층의 인공대지 위 상업가로의 활성화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한편 김수근 팀이 제안한 계획과 구조시스템도 달라졌다. 최초 계획안은 저층과 고층 주거군 사이에는 중정을 두었고, ‘V’자형 대각선 구조체가 3층과 5층의 인공대지를 받치는 구조였다.<br/><br/><br/><br/>그러나 초기 계획안은 평이한 수직기둥과 수평보의 구성으로 바뀌었다. 당시 5·16 주도세력의 지원을 받고 있던 김수근은 세운상가프로젝트를 통해 동서로 발달한 서울의 도로체계에 남북축을 추가하여 균형 잡힌 도로망과 교통체계를 구축하고자 했고, 동시에 종묘에서 남산에 이르는 녹지축을 만들고자 했다. 배경과 목적은 달랐지만 세운상가 프로젝트는 서울을 현대도시로 바꾸겠다는 박정희의 정치적 모더니즘과 건축에 도시를 담고자 했던 모더니즘 건축의 이상을 구현하고자 했던 건축가 김수근의 합작이었다. <br/><br/>#1·21사태, 냉전체제가 바꾼 세운상가의 운명<br/><br/><br/><br/>1966년 11월 15일에 착공된 세운상가는 1967년 7월 10일 ‘가’동의 상가점포를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완공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1968년에 발생한 1·21사태는 세운상가의 운명을 바꿨다. 휴전된 지 불과 15년 밖에 안 된 시점에 발생한 김신조 무장공비 일당의 청와대 습격 사건은 위정자는 물론 시민들에게 전쟁의 공포를 떠올리기에 충분했다. <br/><br/><br/><br/>1968년에 이미 서울인구는 400만 명을 돌파하고 있었다. 6·25 전쟁 당시 서울을 사수하겠다는 정부 말을 믿다 한강 다리가 폭파되면서 피란을 가지 못했던 경험이 있는 서울시민들에게는 충분히 두려운 상황이었다. 이는 정부에도 큰 부담이었다. 급기야 1969년 정부는 한강 이남에 인구 100만 명의 신시가지 건설계획을 발표했다. 강남개발이 본격화한 것이다. <br/><br/><br/><br/>정부는 영동2지구 개발로 본격화한 강남개발을 독려하기 위해 사대문 안의 개발을 억제했다. 이는 막 비상하려던 세운상가에는 치명타였다. 결국 냉전체제가 낳은 1·21사태로 촉발된 강남개발이 세운상가를 통해 구도심을 현대도시로 탈바꿈시키고자 했던 두 모더니스트의 꿈을 좌절시킨 셈이다.<br/><br/><br/><br/>197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세운상가는 최고의 주거지였고, 서울에서 물가가 가장 비싼 상가였다. 저층과 고층의 주거동 사이에는 옥상정원이 꾸며졌고, 중정이 위치한 주거동의 이국적 공간구성은 영화 속 무대가 되기도 했다. 실제 빌딩 속 교회, 피트니스클럽, 실내골프장과 사우나를 갖춘 세운상가에서는 서울 시민들이 1990년대에나 누릴 수 있었던 호사를 1970년대에 만끽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1970년대 후반에 강남개발이 성과를 내기 시작했고, 1988년 서울올림픽을 계기로 경제 중심이 강북에서 강남으로 옮겨지며 세운상가는 누가 봐도 확실히 회생불능의 공룡이 됐다. <br/><br/>#도시를 꿈꾸었던 건축, 세운상가의 몰락<br/><br/><br/><br/>강남개발이 속도감 있게 개발되는 와중에 도심 집중을 완화하기 위해 시행된 도심 내 상업시설의 서울 외곽 이전 정책으로 세운상가의 핵심인 수입전자상가가 용산으로 이전하면서, 세운상가 상권의 몰락도 빨라졌다. 그 결과 종로에 면한 세운상가는 대낮에도 낯 뜨거운 물건을 팔고, 젊은 여자와 어린이들은 다닐 수 없는 포르노 상권이 지배하는 장소로 추락했다. <br/><br/><br/><br/>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세운상가 철거와 주변 블록 전면 재개발의 명분이 됐다. 지금은 1980년대의 악명에서 다소 벗어났지만, 아직도 전반적인 상황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 2004년 ‘세운상가 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위한 국제지명초청현상설계가 있었고, 그 계획안의 전모가 발표되면서 이제 이곳이 곧 사라질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세계유산 종묘에 위협적인 계획안은 전문가와 시민사회의 반대에 부딪쳤고, 세운상가의 도시건축적 가치가 새롭게 조명되기 시작했다. <br/><br/>#20세기 모더니스트의 꿈을 품었던 세운상가<br/><br/><br/><br/>동서로 발달된 도시구조를 극복하기 위해 남북으로 새로운 도시 축을 만들고자 했던 김수근 팀의 세운상가에는 1960년대의 암울한 현실을 극복하려는 의지가 담겨 있었다. 위정자는 눈엣가시인 슬럼과 사창가를 없애고, 번듯한 현대도시를 통해 보릿고개를 극복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다. 또 식민지하 근대화의 극단적 현실인 슬럼화된 소개도로를 숙제로 떠맡은 건축가에게는 건축적 모더니즘의 이상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였다. <br/><br/><br/><br/>김수근 팀은 20세기 건축가들의 도시계획 프로젝트를 잘 알고 있었다. 프랑스 건축가 르 코르뷔지에의 ‘빛나는 도시’계획안과 ‘위니테 다비타시옹’, 네덜란드 로테르담의 전후재건프로젝트 그리고 1960년대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일본의 ‘도쿄만 계획’과 대지진의 참화를 겪은 마케도니아의 ‘스코페 복구계획’이 세운상가의 모델이었다. <br/><br/><br/><br/>그러나 이들 프로젝트는 종이 위의 계획에 머물렀거나 극히 일부만이 실현됐다. 이에 반해 세운상가는 놀랍게도 계획이 채 마무리되기도 전에 착공돼 3년이라는 매우 짧은 시간에 전체 모습을 드러냈다. 국민소득이 200달러가 채 안 되었던 시절이었기에 더욱 놀라운 성과였다.<br/><br/><br/><br/>이러한 성과를 한두 사람의 역할로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도심 한복판의 슬럼을 정비해야 했던 정부의 절박함, 절대적 빈곤 속에 이상적인 도시설계의 꿈을 펼치고자 했던 건축가의 큰 그림 그리고 자본주의 논리에 충실했던 건설회사의 결합체가 세운상가였다. 세운상가가 3년이라는 짧은 시간에 구상에서 계획 및 설계 그리고 완공에 이를 수 있었던 이유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남과 북이 분단되어 대립이 극심했던 ‘분단체제’는 세운상가의 큰 꿈을 앗아가 버렸다.<br/><br/>#근현대사 질곡의 현장에서 역사도시 서울의 새로운 지평<br/><br/><br/><br/>자신의 운명이 남의 손에 좌우되던 식민지하 한반도 제1도시 서울에서 공습대비용으로 만들어진 소개도로, 전후의 비극적 삶이 펼쳐졌던 곳 그리고 쿠데타로 집권한 정권이 탈출구의 하나로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고자 했던 도시프로젝트의 현장, 여기에 건축을 통해 모더니스트의 이상을 구현하고자 했던 건축가의 꿈…. 그러나 그 꿈이 일장춘몽으로 끝나면서 철거대상이 됐다가 다시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 있는 세운상가! <br/><br/><br/><br/>그곳에는 지난 세기 우리의 지난한 삶과 현대사가 담겨 있고, 삶을 다시 정상 상태로 돌려놓고자 하는 고민들이 펼쳐지고 있다. 2011년 광주디자인비엔날레에서 세운상가가 처음 재조명됐고, 2015년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세운상가의 도시사적 의미를 조명한 필자의 ‘아키토피아의 실험’ 전시가 열렸다. 이와 함께 ‘세운상가 활성화 설계공모’에서 이스케이프 건축사무소(장용순·김택빈·이상구)의 제안인 ‘현대적 토속(Modern Vernacular)’이 당선돼 공사 중에 있다. 보행도시에 대한 새로운 제안이 50년 묵은 건축프로젝트의 새로운 미래를 펼쳐줄지 지켜볼 일이다.<br/><br/><br/><br/>안창모 경기대 교수<br/><br/><br/><br/> ‘도시건축으로 보는 서울’을 연재하는 안창모(55) 경기대 건축학과 교수는 서울대 건축학과 졸업 후 동대학원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1990년에 건축사면허를 취득했고, 미국 컬럼비아대와 일본 도쿄(東京)대에서 객원연구원을 지냈다. 경기대에서 근대건축의 역사와 이론을 가르치며 근대건축 연구 및 보존 단체인 한국도코모모 설립추진위원장, 한국건축역사학회 부회장, 문화재청 문화재위원,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 중이다. 저서에 ‘한국현대건축50년’(1996), ‘덕수궁-시대의 운명을 안고 제국의 중심에 서다’(2009) 등이 있다. 2014년 베니스 건축비엔날레에서 서울과 평양의 도시와 건축을 비교 전시한 ‘한반도 오감도’로 황금사자상을 수상한 한국관의 공동 큐레이터를 맡기도 했다.

언론사: 문화일보-1-165.txt

제목: 삼성화재, 실손의료비에 3대 질환 통합보장  
날짜: 20170419  
기자: 김충남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501.20170419145005005  
ID: 01100501.20170419145005005  
카테고리: 경제>산업\_기업  
본문: 삼성화재(사장 안민수)는 실손의료비와 암·뇌·심장 3대 질환을 통합 보장하는 ‘다이렉트 건강보험’(사진)을 출시해 판매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br/><br/><br/><br/> 다이렉트 건강보험은 특정 소액암, 일반 암, 10대 주요 암 등 암 종류에 따라 단계별로 집중 보장받을 수 있다. 또한 암 재진단 시에는 ‘재진단 암 진단비’ 담보를 통해 재발에 대한 걱정을 덜었다. 단 직전 진단 확정일로부터 2년이 지나야 한다. 뇌·심장 질환의 경우, 고객 니즈가 높은 급성 뇌경색뿐만 아니라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 진단비를 지급한다. 뇌출혈 및 급성심근경색증은 두 번째 진단비까지 지급된다. 단 첫 번째 진단 확정일로부터 1년이 지나야 한다.<br/><br/><br/><br/>다이렉트 건강보험은 고객이 원할 경우 실손의료비 담보 추가도 가능해, 실손의료비와 3대 질환을 하나의 건강보험으로 통합 보장받을 수 있다. 특히 직전 2년간 실손의료비 보험금 청구가 없으면 다음 연도에는 연간 실손의료비 보험료의 10%가 할인된다. 또 다이렉트 건강보험은 가성비를 중시하는 인터넷 고객 특성에 맞춰 적립보험료 없이 보장보험료만으로 구성된 순수보장형으로 가입이 가능하다.<br/><br/><br/><br/>다이렉트 건강보험은 만 19세부터 65세까지 가입할 수 있으며 15년마다 재가입을 통해 최대 100세까지 보장한다. 한편 삼성화재는 다이렉트 건강보험 출시를 기념해 이달 28일까지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br/><br/><br/><br/>김충남·윤정아·윤정선 기자 utopian21

언론사: 문화일보-1-166.txt

제목: 신한생명, 자녀 암 치료비·부모엔 간병비 지급  
날짜: 20170419  
기자: 김충남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501.20170419145005003  
ID: 01100501.20170419145005003  
카테고리: 경제>금융\_재테크  
본문: 자녀와 부모 모두에게 든든한 보장을 해주는 생활비 암보험이 출시됐다. <br/><br/><br/><br/>신한생명(대표 이병찬)은 자녀의 암 치료비는 물론, 부모가 간병과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생활비를 지급하는 ‘(무)신한아이맘든든 생활비 암보험’(사진)을 출시했다고 19일 밝혔다.<br/><br/><br/><br/>이 상품은 태아부터 15세까지 가입할 수 있는 어린이 전용 암보험으로 갱신 없이 최대 100세까지 보장된다. 보험기간 중 ‘특정암’으로 진단을 받으면 매월 100만 원씩 5년간 총 6000만 원(보험가입금액 1000만 원 기준)의 생활비가 지급된다. 특정암은 유방암, 전립선암, 기타 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비침습방광암, 제자리암, 경계성 종양을 제외한 암을 말한다. 또한 유방암 또는 전립선암 진단 시 2000만 원, 소액암은 각각 200만 원의 진단급여금을 지급한다. 소액암은 기타 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 종양, 대장점막내암, 비침습 방광암을 말한다. <br/><br/><br/><br/>이 상품은 보험 형태를 3종(순수보장·50% 환급·100% 환급형)으로 구성해 선택의 폭을 넓혔다. 또 암 또는 합산장해 지급률이 50% 이상이면 보험료 납입을 면제해준다. 수술, 응급실 통원, 입원 관련 특약을 100세 만기 비갱신형으로 구성해 갱신 주기마다 보험료가 올라가는 부담을 없앴다. 장애인가족(5%), 다자녀 가정(0.5~1%), 저소득층(5%)의 경우 주계약보험료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br/><br/><br/><br/>김충남·윤정아·윤정선 기자 utopian21

언론사: 문화일보-1-167.txt

제목: 금리 올리고 적립 늘리고…알뜰형 ‘깨알혜택’… 수익 높이고 위험 줄이고…맞춤형 ‘통큰펀드’  
날짜: 20170419  
기자: 김충남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501.20170419144006026  
ID: 01100501.20170419144006026  
카테고리: 경제>금융\_재테크  
본문: 저(低)금리 기조가 지속되고 대내외 불확실성은 커지면서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는 금융 소비자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한 푼이라도 아쉬운 때일수록 금융 회사들이 내놓는 특화 상품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은 물론 연령대, 주 활동 지역 등을 고려해 나에게 딱 맞는 맞춤형 상품을 찾아낸다면 ‘깨알 특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여행을 좋아하는 1인 가구라면 편의점과 항공 등에 할인 및 포인트 적립 서비스가 집중된 카드 상품을 찾아보는 식이다. 시중금리보다 더 높은 수익을 원하면서도 리스크(위험)를 줄이고 싶은 고객을 위한 다양한 펀드 상품도 최근 속속 출시되고 있다.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트렌드에 맞춰 혁신 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간접투자상품도 인기를 모으고 있다. 보험상품의 경우 실손의료비에 암 등 3대 질환을 통합 보장하거나 자녀 암 치료비와 부모 간병비를 동시에 지급하는 신상품들이 주목을 받고 있다.<br/><br/><br/><br/>김충남·윤정아·윤정선 기자 utopian21

언론사: 문화일보-1-168.txt

제목: <사설>가수 전인권 ‘적폐’로 몬 文 지지자 일각의 反民主 적폐  
날짜: 2017041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501.20170419114006002  
ID: 01100501.20170419114006002  
카테고리: 정치>국회\_정당  
본문: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지지자 일각이 자신들의 비위를 거스르는 발언을 한 대중가수까지 ‘적폐’로 모는 막가파식 행태를 또 서슴지 않고 있다. ‘한국 록 보컬의 살아 있는 전설’로 불리는 전인권(63) 씨가 공연 홍보를 위한 18일 기자간담회에서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를 칭찬했다가 ‘인터넷 문자 몰매’의 봉변을 했다. 민주당 경선 당시 안희정 지지 의원 등에게 퍼부었던 ‘문자 폭탄’의 재연으로 보인다. 이런 행패야말로 문 후보 선창에 따라 이들이 청산을 외치는 적폐이면서 ‘반민주(反民主)’의 전형이다.<br/><br/><br/><br/>전 씨의 발언은 적폐는커녕 자연스러운 것이었다. “(미국 애플사 설립자)스티브 잡스처럼 완벽주의자들은 암 수술을 하고 나오자마자 간호사의 명찰이 비뚤어진 걸 신경 썼다고 한다. 안철수란 사람도 잡스처럼 완벽증을 갖고 있다. 그런 사람들은 얘기가 안 통할 수는 있지만 나쁜 사람은 될 수 없는 것 같다. 대충 넘어가는 사람은 발전하지 못한다.” 이런 말은 문 후보 지지자가 듣기에 못마땅했을 수는 있어도 ‘적폐 세력 전인권의 공연 예매를 취소하겠다’ ‘무슨 자격으로 그런 말을 하나’ 운운할 일은 결코 아니다.<br/><br/><br/><br/>정치적 견해에 대한 자유로운 표현은 민주주의의 기본이다. 전 씨가 안희정 민주당 경선 후보를 공개 지지했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 촉구’ 촛불집회 무대에 세 번 올라 ‘애국가’ ‘걱정 말아요 그대’ 등을 불렀던 것도 전혀 트집 잡을 일 아닌 이유다. 내 편 아니면 무조건 적(敵)으로 돌리는 편 가르기로는 문 후보의 ‘대통합’도 공허하게 들릴 수밖에 없다.

언론사: 문화일보-1-169.txt

제목: <하상도 교수의 식품 오디세이>식용유 사용 ‘과유불급’  
날짜: 2017041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501.20170418143006003  
ID: 01100501.20170418143006003  
카테고리: 미분류  
본문: 지난 3월 한 방송사에서 ‘대왕카스테라 그 촉촉함의 비밀’을 방영했다. 대왕카스테라를 만들 때 ‘버터’ 대신 과량의 ‘식용유’를 사용하고 특히 일반 제품 대비 5~8배의 지방이 검출된다고 지적해 논란이 있었다. 이로 인해 현재 많은 매장이 90% 이상의 매출 감소를 이겨내지 못해 폐업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사실 버터도 돼지비계나 쇼트닝처럼 콜레스테롤이 많은 동물성 포화지방이라 리놀렌산 등 불포화지방이 70% 이상인 식용유보다 좋다고 할 것도 아니다. <br/><br/><br/><br/>논란이 된 식용유는 상온에서 완전히 액상이 되는 기름을 말한다. 유전자 등 단백질이 없는 순수한 형태의 지방이라 ‘GMO표시’에서도 예외가 인정된다. 일반적으로 콩기름, 옥수수기름, 카놀라유, 포도씨유, 땅콩기름, 동백유 등을 식용유라고 하며 참기름, 들기름도 포함된다. 최근에는 셰프들이 프리미엄 식용유인 올리브유를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발화점이 200도로 다른 기름보다 낮아 튀김, 볶음요리보다는 샐러드의 드레싱이나 가볍게 튀기는 파스타 등에 주로 사용된다. 우리 국민은 하루에 필요 열량의 20%가량인 46.1g의 지방을 먹는다고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시하는 하루 섭취권장량인 50g, 세계보건기구(WHO)의 권고치인 60g에 비해서는 양호한 수준이다. 그러나 최근 우리나라 국민의 지방 섭취량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어린이와 청소년의 지방 섭취량이 위험 수준에 도달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특히 포화지방은 적게 먹을수록 좋은데, WHO와 식약처는 각각 매일 20g, 15g 이하로 먹기를 권장하고 있다.<br/><br/><br/><br/>지방을 과다 섭취하면 혈중 지방농도가 상승하고 이로 인해 동맥의 벽에 지방 찌꺼기가 쌓여 동맥이 점점 좁아진다. 심장, 뇌 등으로 가는 혈관 내벽에 콜레스테롤이 과다 축적된 상태를 동맥경화라 하는데, 협심증, 심근경색, 뇌졸중 등의 주원인이 된다. <br/><br/><br/><br/>지방 섭취가 우려되는 또 다른 이유는 칼로리가 높기 때문에 비만을 일으킨다는 것이다. 게다가 밀가루나 감자처럼 탄수화물이 많이 든 식품을 120도 이상 고온의 식용유에 튀겨 먹으면 아크릴아마이드가 생겨 암 위험이 커진다. 식용유를 오래 튀기거나 사용하면 불쾌한 냄새가 나고, 맛, 색, 점성, 산가 등의 변화로 품질이 낮아지는 ‘산패 현상’이 발생해 버려야 한다. <br/><br/><br/><br/>식용유를 가정에서 올바르게 보관하는 방법은 산소와의 접촉을 가능한 한 피하도록 밀봉해야 하고, 햇빛과의 접촉 또한 막아야 한다. 온도에 민감해 뜨겁거나 더운 곳보다는 서늘한 곳에 보관하며, 오래된 기름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사용 시 주의사항으로 길게 가열하거나 장기간 사용하지 말아야 하며, 반드시 환기하면서 조리해야 한다. 식품을 기름에 튀길 때 발생하는 유증기는 발암성이 있어 폐암의 원인이 되며, 미세먼지 또한 다량 발생하기 때문이다. <br/><br/><br/><br/>지방은 인간의 생명 유지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영양소다. 에너지를 제공하며, 지용성 비타민의 체내흡수와 이용을 돕는다. 그러나 많이 먹어 좋은 음식은 세상 어디에도 없다. 오죽했으면 일본의 뇌과학 전문의인 야마시마 데쓰모리가 ‘식용유가 뇌를 죽인다’라는 책을 썼겠는가? 식용유는 양날의 칼처럼 일장일단이 있다. 식용유의 사용을 무서워할 필요는 전혀 없으나 ‘과유불급(過猶不及)’, 꼭 필요한 만큼만 사용하고 먹는 게 좋다.<br/><br/><br/><br/> 중앙대 식품공학부 교수

언론사: 문화일보-1-170.txt

제목: <오후여담>여우 복원사업  
날짜: 2017041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501.20170418115505005  
ID: 01100501.20170418115505005  
카테고리: 문화>출판  
본문: 황성규 논설위원<br/><br/><br/><br/> ‘여시’라는 말은 들을 때마다 으스스해진다. 여시는 강원도와 경남 및 전라도와 제주도의 방언이다. 표준어로 여우라고 하면 귀엽고 예쁘장한 느낌으로 다가온다. 그런데 1980년대 군사정권 시절의 ‘여시 사건’은 으스스한 게 아니라 무시무시했다. ‘여사’라고 쓴 원고가 신문에는 ‘여시’로 나왔기 때문이다…. 어쨌거나 어릴 때 어른들로부터 여우 얘기를 듣고 나면 대소변을 참고 밤을 새워야 할 만큼 무서웠다. 그만큼 여우는 부정적이면서 무서운 이미지로 우리의 전설이나 설화에 등장한다. 꼬리가 아홉 개 달린 구미호. 요즘에는 몹시 교활한 사람(특히 여자)을 비유적으로 이른다. 천 년 묵은 놈이 변하여 된다는 전설상의 여우 ‘매구’도 있다. 이 매귀(埋鬼)가 구미호와 합쳐지면 스릴은 배가된다.<br/><br/><br/><br/>그러면 여우란 어떤 이미지인가. 영어의 여우, 곧 폭스(fox)는 흔히 못마땅하게 여기는, 여우처럼 교활한 사람을 가리키거나 매력적인 여성을 지칭한다. 그 반면 암 여우 곧, 빅슨(vixen)이라고 하면 성질 더러운 여자를 가리킨다. 우리 말도 비슷하다. 국어사전은 갯과의 포유동물 외에 여우의 쓰임을 두 가지 더 설명하고 있다. 매우 교활한 사람, 그리고 하는 짓이 깜찍하고 영악한 계집아이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여우비와 여우볕이란 우리말이 있다. 볕이 나 있는 날 잠깐 오다가 그치는 비, 그리고 비나 눈이 오는 날 잠깐 났다가 숨어 버리는 볕을 말한다. 잽싼 그의 행동이 연상된다. 선인들은 여우를 어떻게 봤던가. 이솝은 우화에서 여우를 교활함의 상징으로 만들어 놓았고, 니콜로 마키아벨리는 ‘군주론’에서 사자처럼 용맹하고 여우처럼 교활하라고 했다. 중국 한나라 때의 학자 유향 역시 편저 ‘전국책(戰國策)’ 초책 편에서 호가호위(狐假虎威)를 경계하라고 했다.<br/><br/><br/><br/>숱한 전설과 얘기를 만들어주던 여우가 이젠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으로 내몰렸다. 목도리를 위한 무차별 사냥과 쥐약이 주범이다. 그래서 환경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이 나섰다. 2월 말부터 최근까지 소백산 일대에 여우 암컷 13마리를 방사했다. 이로써 소백산 일대에는 모두 18마리의 여우가 야생에서 자라게 됐다. 이들이 새끼를 낳게 되면 30마리 이상으로 늘어날 것이다. 호랑이 없는 산에 여우를 복원하는 일도 쉽지는 않다. 여우의 최대 천적은 인간이기 때문이다.

언론사: 문화일보-1-171.txt

제목: <발언대>재난 빅데이터 분석·방범 U-City 구축…‘안전 명품도시’로  
날짜: 2017041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501.20170417135006002  
ID: 01100501.20170417135006002  
카테고리: IT\_과학>IT\_과학일반  
본문: 이석우 남양주시장<br/><br/><br/><br/>요즘 4차 산업혁명과 미래사회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미래는 빅데이터, 인공지능, 센서, 사물인터넷, 드론, 3D 프린터, 자율 주행차, 플랫폼을 기반으로 온다고 과학자들은 말한다.<br/><br/><br/><br/>남양주시는 4차 산업혁명의 미래를 기다리지 않고 행정에 접목해 직접 실천하고 있다. 시는 2014년 9월 전국 최초로 빅데이터 팀을 운용해 예산을 절감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개선했다. 올해 2월에는 생활권역별로 8개 행정복지센터를 개청해 복지허브 플랫폼을 구축했다. 4차 산업혁명의 흐름에 맞는 행정 시스템을 발 빠르게 준비한 것이다.<br/><br/><br/><br/>기존에는 기상청에서 호우주의보를 발령하면 직원들은 무조건 비상근무를 했다. 지금은 재난 및 강우량 데이터를 분석, 무조건적인 비상근무가 아니라 피해가 우려되는 강우량일 경우에만 탄력적으로 비상근무를 한다. 그 결과 초과근무수당과 급양비 1억 원 이상을 절감하고 비효율적인 대기시간을 줄였다.<br/><br/><br/><br/>또한 교통카드와 국민연금공단 데이터를 분석해서 버스노선 및 배차 간격을 조정하고, 서울시와 광역버스 증차 협의를 위한 데이터 부족 문제를 해결했다. 과거 10년치 민원 데이터를 분석해서 상습 민원 발생 지역과 민원의 본질적 문제를 해결하는 체계를 마련했다. 기온·강우량과 방역 민원의 상관관계를 분석해 파리·모기·동양하루살이 등의 방역 시기를 예측하고 방역지도를 제작하기도 했다.<br/><br/><br/><br/>빅데이터 활용뿐만 아니라 첨단교통관리시스템(ATMS) 구축, 교통·방범·불법주정차관리 U-City 구축, 교통신호제어시스템 무선(LTE) 통신방식 도입 등 스마트 남양주시를 꾸준하게 만들어 왔다.<br/><br/><br/><br/>이제부터 우리 시는 4차 산업혁명의 흐름에 맞는 행정을 주도할 방침이다. 더 편리하고 안전한 남양주를 만들기 위해 단계별로 시 행정 전반에 4차 산업혁명의 기술을 도입하는 것이다. 1단계로 공직 내부의 일하는 방식을 혁신하고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30개 중점과제 가운데 시민 생활과 밀접한 10개 과제를 우선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버스노선을 신설하고 배차 간격을 조정하면 교통 정체문제가 자동 해소된다. 센서를 활용해 독거노인 고독사를 방지하고, 암·치매·결핵 등 주요 질환 건강지표 데이터와 공동주택 관리비를 분석해 100세까지 건강하고 비리가 없는 마을을 만들 생각이다.<br/><br/><br/><br/>2단계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재난·재해·방범을 갖춘 스마트 도시, 시 전 지역에서 도시가스를 100% 사용할 수 있는 도시, 많은 시민이 에너지 제로 및 절감형 주택에서 사는 도시, 도로·교통이 편리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지능형 도시관리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다.<br/><br/><br/><br/>시는 4일 4차 산업혁명의 흐름에 맞는 ‘남양주 4.0 비전’을 선포했다. 이는 사물인터넷, 드론, 로봇, 센서 등을 활용해 4차 산업혁명의 흐름에 맞는 지능형 도시관리 시스템을 갖춘 ‘최고 행복도시 남양주’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행정복지센터 중심의 행복 텐미닛 플랫폼’도 원만하게 운영될 것으로 기대된다. 인구 100만 명을 앞둔 남양주시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첨단 행정도시, 명품 자족도시로 발돋움할 날도 이제 멀지 않았다고 본다.

언론사: 문화일보-1-172.txt

제목: 발암물질 함유 건축용 페인트 내년부터 시장서 퇴출  
날짜: 20170414  
기자: 정진영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501.20170414144005007  
ID: 01100501.20170414144005007  
카테고리: 경제>경제일반  
본문: 환경부, 사용 금지물질 지정 <br/><br/>차량·선박용 등은 규제 제외<br/><br/><br/><br/>아토피와 암을 유발한다고 알려진 ‘크로뮴 6가 화합물’, 이른바 ‘6가크롬’이 이르면 내년부터 건축용 페인트 원료에서 완전히 퇴출될 전망이다. ‘6가크롬’은 국제암연구소(IARC)가 규정한 1군 발암물질이다.<br/><br/><br/><br/>14일 환경부에 따르면 ‘6가크롬’을 건축용 페인트 용도로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유독물질 및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 고시 일부 개정안이 이달 중 행정예고와 규제심사를 거쳐 5월 중 공포될 예정이다.<br/><br/><br/><br/>‘6가크롬’은 노란색을 내는 특징 때문에 페인트 원료로 널리 쓰여왔지만, 환경부가 지난 2007년 취급제한물질로 지정했다. 환경부 조사에 따르면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의 경우 페인트 원료로 ‘6가크롬’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해 1월 페인트 업계가 자발적으로 ‘6가크롬’을 건축용 페인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협약을 업계와 체결한 바 있다.<br/><br/><br/><br/>개정안 부칙은 ‘6가크롬’을 건축용 페인트 용도로 제조 및 수입을 제한하는 시점을 고시 발령일로부터 6개월 후, 판매·보관·저장·운반·사용을 제한하는 시점은 1년 후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년 5월까지는 국내 페인트 시장에서 ‘6가크롬’을 함유한 건축용 페인트가 완전히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차량용이나 선박용, 전기·전자용, 공업용, 도로표지용, 플라스틱용 등 산업용으로 쓰이는 ‘6가크롬’ 함유 페인트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span class='quot0'>건축용 외의 나머지 분야에 쓰이는 ‘6가크롬’ 함유 페인트에 대한 제한은 대체물질 개발 상황에 따라 점진적으로 확대를 검토할 예정</span>”이라고 전했다. <br/><br/><br/><br/>정진영 기자 news119

언론사: 문화일보-1-173.txt

제목: 韓 12% 알코올중독… 음주량 세계평균 2배  
날짜: 20170412  
기자: 이용권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501.20170412114005001  
ID: 01100501.20170412114005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 WHO 통계자료 분석 <br/><br/>7대 암 발생과 직접 연관<br/><br/><br/><br/>술에 관대한 우리 사회의 음주문화로 인해 알코올의존증(중독)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학계에서는 성인의 12% 이상이 알코올 중독 환자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br/><br/><br/><br/>12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심각한 알코올 중독자가 전국 15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음주 문화는 가볍게 마시기보다는 폭탄주 등 과음이 많고 이에 따른 부작용도 작지 않다. 대학 신입생 환영회를 위해 ‘소주 8000병’을 준비한 한 대학 총학생회가 사회적 이슈가 됐고,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던 40대 남녀가 얼마 전 “죽을 때까지 마셔보자”며 여관방에서 수십 병의 소주를 마시다 여성이 사망하기도 했다. 이런 현상은 우리 사회가 알코올에 대해 여전히 지나치게 관대하기 때문인 것으로 지적된다.<br/><br/><br/><br/>세계보건기구(WHO) 통계를 보면 15세 이상 인구의 1인당 연간 알코올 소비량은 2010년 기준 평균 6.2ℓ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12.3ℓ로 크게 높았다. 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알코올 중독 환자도 많을 수밖에 없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에 따르면 성인 12.7%가 알코올 중독 위험군으로 추정된다.<br/><br/><br/><br/>알코올 전문병원인 다사랑중앙병원의 전용준 원장은 “<span class='quot0'>알코올은 구강인두암, 후두암, 식도암, 간암, 대장암, 직장암, 유방암 등 7가지 암의 발생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최근 보고됐다</span>”고 밝혔다. 전 원장은 “<span class='quot0'>알코올이 일으키는 대표적인 암으로 많은 사람이 간암을 떠올리지만, 구강인두암, 식도암도 알코올과 연관성이 높다</span>”고 지적했다. 해당 연구를 보면 알코올을 하루 50g 이상(소주 3∼4잔) 섭취하는 사람은 술을 전혀 마시지 않는 사람에 비해 구강인두암 또는 식도암이 발생할 위험이 4∼7배 증가했다. 같은 양의 알코올을 섭취했을 때 대장암 또는 유방암 위험은 약 1.5배 높아졌다.<br/><br/><br/><br/>복지부는 이날 서울 중구 페럼타워에서 대학 내 폭음, 음주사고 등 음주 폐해 예방을 위한 ‘2017 대학생 절주 서포터스 발대식’을 열었다. ‘술 없는 문화’ 조성에 앞장서겠다는 취지의 행사다. 대학생 절주 서포터스는 올해 전국 77개 대학에서 음주인식도 조사, 절주특강, 상담지원, 절주 홍보 포스터 제작, 무알코올 칵테일 행사 등 각종 캠페인을 전개한다. <br/><br/><br/><br/>이용권 기자 freeuse

언론사: 문화일보-1-174.txt

제목: < Her Story >[단독]양수경 “지금 내 재산은 제로… 아이들 지키려 무대로”  
날짜: 20170412  
기자: 김구철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501.20170412113005002  
ID: 01100501.20170412113005002  
카테고리: 문화>방송\_연예  
본문: 17년만에 컴백… 가수 양수경<br/><br/><br/><br/>‘이 밤 왠지 그대가／내 곁에 올 것만 같아／그대 떠나버린 걸／난 지금 후회 안 해요／그저 지난 세월이／내리는 빗물 같아요.’ 1990년 발표돼 공전의 히트를 기록한 가수 양수경의 대표곡 ‘사랑은 창밖에 빗물 같아요’의 가사다. 현재 40∼50대 중장년층 중 이 노래를 한 번도 따라부르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당시 큰 인기를 모았다. 1988년 ‘바라볼 수 없는 그대’로 데뷔한 양수경은 데뷔 초부터 뛰어난 가창력과 발랄한 무대 매너로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그대는’ ‘사랑은 차가운 유혹’ ‘이별의 끝은 어디인가요’ 등을 잇달아 히트시키며 가요계를 휩쓸던 그는 1998년 1월 소속사 예당엔터테인먼트 대표인 변대윤(본명 변두섭) 회장과 결혼한 뒤 1999년 홀연히 가요계를 떠났다. 전업주부로 지내며 남편의 사업에도 참여해 한때 ‘주식 부자’로 화제가 되기도 했지만 그의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2003년 아버지가 암 판정을 받은 후 15일 만에 별세했고, 몇 년 뒤인 2009년에는 자신의 집 위아래층에서 함께 살던 여동생도 세상을 떠나자 두 명의 조카를 입양했다. 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2013년 남편과도 사별한 그는 여동생의 아들, 딸과 자신의 아들 등 세 자녀를 홀로 키우며 팬들의 기억에서 잊힌 채 힘든 삶을 이어왔다. 그러던 중 지난해 7월 17년 만에 신곡을 발표하며 가요계로 돌아온 그를 서울 강남구 한 카페에서 만났다. 50줄에 접어든 그는 여전히 소녀 같은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이야기를 진솔하게 털어놓았다.<br/><br/><br/><br/>인터뷰에 앞서 사진촬영을 진행했다. 새 소속사(오스카이엔티)가 생겼지만 이날 혼자 나온 그는 여러 벌의 의상을 직접 가지고 와 “어떤 색이 좋을까요”라고 묻고는 보라와 파랑이 어우러진 화려한 의상을 선택했다. 그런 모습에서 처음 연예계에 나온 신인 같은 설렘이 느껴졌다. 전성기 때 CF 모델로도 활동했던 그는 환한 표정으로 다양한 포즈를 취했다. 하지만 인터뷰가 시작되자 표정이 굳어지며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입을 열었다.<br/><br/><br/><br/>“근거 없는 말들이 우리 가족을 괴롭히고 있어요. 아직도 돈이 많아 아이들을 유학(세 자녀는 현재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살고 있다) 보냈다며 제 기사에 ‘아이들을 죽이겠다’는 협박성 악플도 달리고 있어요. 채권자(그는 남편의 빚 일부를 떠안았다)들의 입장에서 험한 말을 해도 도의적으로 감수해야 하지만 지금 제 재산은 ‘0’이에요. 제가 편하려고 해명하는 게 아니라 저도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걸 말하고 싶어요. 저도 큰돈이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걸 경험했기 때문에 그 마음을 잘 알지만 좀 너그러이 봐주셨으면 해요.”<br/><br/><br/><br/>눈물을 글썽이다가 조금 마음이 가라앉은 그에게 “결혼 후 평범한 주부로 살아가던 이야기를 해달라”는 말을 건넸다.<br/><br/><br/><br/>“처음에는 밤일을 안 해서 너무 좋았어요. 가수 활동을 하며 매일 7∼8곳의 업소를 돌았거든요. 워낙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돈을 버는 게 좋았지만 너무 바빠서 쉬고 싶은 생각도 있었어요. 그러다가 연예계가 분주해지는 연말이 돼 TV에 나오는 동료들의 모습을 보니 허전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무대 의상을 다 없애고 반짝이 옷 한 벌만 남겨뒀었는데 그걸 부여잡고 펑펑 울었어요. ‘조금 있다가 다시 노래를 해야지’ 하다가 지금까지 온 거예요. 아이 키우는 게 서툴렀지만 최선을 다했어요. 아이 뒤통수 예쁘게 해주려고 잠을 못 잤고, 이유식도 직접 만들어 먹였어요. 침구도 매일 소독했고요. 나름 바빴지만 늘 허전했어요.”<br/><br/><br/><br/>“나는 은퇴한 적이 없다. 잠시 휴식시간을 가졌을 뿐”이라고 강조하는 그에게 오랜 시간이 흐른 뒤 가요계에 복귀한 이유를 물었다.<br/><br/><br/><br/>“절박했어요.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다시 노래를 해야 했어요. KBS 2TV ‘불후의 명곡’ PD가 2년 동안 나와달라고 요청했지만 계속 거절해오다가 ‘더 이상 나이가 들면 기회가 없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용기를 냈어요. 노래 부르는 건 제가 분명히 잘할 수 있는 일이니까요. 사람들의 손가락질이 무서워 아이들 보살피는 일을 피할 수는 없었어요.”<br/><br/><br/><br/>복귀 후 지난해 8월 KBS 1TV ‘콘서트 7080’ 무대에 처음 올랐다. 이날 이 프로그램은 ‘양수경 특집’으로 70분을 꾸몄고, 사회자인 배철수는 “<span class='quot0'>선배로서 양수경 씨의 컴백을 진심으로 환영한다</span>”고 축하인사를 전했다.<br/><br/><br/><br/>“그 무대는 평생 못 잊을 것 같아요. 가수 활동을 하며 수많은 무대에 서 왔지만 그날은 많이 떨렸어요. 독실한 기독교 신자는 아니지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한 후 무대에 올라갔죠. 무대에 올라가서 객석을 바라보고 깜짝 놀랐어요. 팬들이 저를 보고 울고 있었어요. 20년 가까이 한 번도 나타나지 않은 저를 기다려준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하니 뭉클해지며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외국 나갈 때 입국신청서 직업란에 ‘가수’라고 쓰다가 어느 순간 점만 찍게 됐어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의미로요. 아이들의 엄마로 살아온 시간도 행복했지만 가수로서 존재감을 다시 느끼며 가슴이 벅차올랐어요.”<br/><br/><br/><br/>지난해 10월에는 MBC ‘2016 DMC 페스티벌-레전드 토토가’에 나가 녹슬지 않은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했고 SBS 예능 프로그램 ‘불타는 청춘’에 출연해 진솔한 속마음을 털어놓기도 했다.<br/><br/><br/><br/>“연예인들을 직접 보니 신기했어요(웃음). 그러면서 내가 살아있다는 느낌도 들었고요. 특히 예능 프로그램은 정말 대단해요. 출연자들이 막걸리도 마시며 40시간 정도를 편하게 얘기하는데 그걸 3시간짜리로 재밌게 편집하니까요. 방송에 나가도 전에 알던 동료들을 만날 수 없어 조금 서운해요. 또 저를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것도 부담스럽고요. 하지만 사람들의 시선이 따뜻하게 다가와서 기분이 좋아요. 물론 제가 힘든 일들을 겪어서 측은하게 보는 시선도 있겠지만 많은 분이 저를 보고 젊은 시절 추억을 떠올리는 것 같아요. 그런 시선을 받으면 힘이 나요. 아련함도 느껴지고요.”오랜 공백을 깨고 다시 대중 앞에 나선 그가 가장 걱정한 건 무엇이었을까. 나이가 든 모습일까. 그는 “<span class='quot0'>목소리가 잘 안 나와 힘들었다</span>”고 토로했다. <br/><br/><br/><br/>“‘꼭 다시 성공하자’는 각오로 나왔지만 처음부터 작곡가와 보컬 트레이너에게 혹독한 악평을 듣고 모멸감을 느꼈어요. 저 잘되라고 극약처방을 한 거겠지만 받아들이기 힘들었어요. 나이가 들며 근육이 약해지면 소리도 변해요. 목소리가 떨리게 되죠. 멋으로 떠는 게 아니라 힘이 없어서 떨리는 거예요. 목소리와 자세를 지적받으며 계속 연습하고 있어요. 매일 아들 사진을 보며 버티고 있죠. 지금도 많이 모자라지만 자세도 어느 정도 고쳤고, 소리도 조금씩 좋아지고 있어요. 소중한 기회가 주어졌으니 더 열심히 해야죠.”<br/><br/><br/><br/>그는 다시 노래를 하며 오랫동안 잊고 있던 자신이 ‘여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다고 했다.<br/><br/><br/><br/>“그냥 엄마로 살았어요. 행동이나 몸짓이나 모두 엄마였어요. 그냥 엄마가 아니라 ‘치맛바람’을 내는 열혈 엄마였죠. 아들을 전교 회장으로 만들었어요. 주변 분위기에 휘둘리는 치맛바람이 아니라 제 소신을 갖고 최선을 다해 아이들을 키웠어요. 그러다가 노래를 다시 하며 20년 동안 안 신던 하이힐을 다시 신어보고 깜짝 놀랐어요. 거울을 보니까 제 자세가 달라져 보이더라고요. 오랜만에 제가 ‘여자’라는 걸 느꼈어요.”<br/><br/><br/><br/>“<span class='quot1'>지금의 양수경이 보여줄 수 있는 전성기 때와 다른 매력이 뭐라고 생각하냐</span>”는 질문에 그는 “안정감”을 꼽았다.<br/><br/><br/><br/>“아직 부족하지만 제 노래가 전보다 차분해졌어요. 제가 무대로 걸어 나오면 객석에 있는 팬들의 추억도 같이 따라 나오거든요. 공감할 수 있는 추억이 있다는 게 제가 지닌 가장 큰 무기죠. 팬들을 대하는 제 마음도 편안해졌어요. 전에는 공연이 끝나면 팬들을 피해서 나갔는데 지금은 ‘한번 안아보자’고 하시면 안아드려요. 그런 게 좋아졌어요.”<br/><br/><br/><br/>2시간 가까이 인터뷰를 진행하며 그의 표정이 한층 밝아졌다. 그러면서 씩씩한 목소리로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다. <br/><br/><br/><br/>“계속 무대에 서서 팬들을 만나고 싶어요. 그러면서 아름다운 가수로 기억되고 싶어요. 또 저처럼 혼자 된 여성들을 돕는 일도 하고 싶어요. 법적인 일들과 생활고 등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 몰라요. 국가에서 복지 정책을 펴지만 혼자 된 여성들을 돌봐주지는 못해요. 또 아이들이 궁핍하지 않을 정도로 돈도 벌어야죠. 돈이 많다고 행복한 건 아니니까요.”<br/><br/><br/><br/>미니앨범 타이틀 ‘사랑 바보’ <br/><br/><br/><br/>“살게 해다오 웃게 해다오” <br/><br/>그녀 삶 닮은 가사 애달파<br/><br/><br/><br/>가수 양수경이 17년 만에 발표한 미니앨범에는 타이틀곡인 신곡 ‘사랑 바보’와 자신의 히트곡 ‘사랑은 창밖에 빗물 같아요’, 리메이크곡 나훈아의 ‘갈무리’·여진의 ‘그리움만 쌓이네’ 등 4곡이 수록됐다. <br/><br/><br/><br/>작곡가 하광석이 만든 ‘사랑 바보’는 양수경이 가사를 붙이진 않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아파할 가슴도 없어(중략)／살게 해다오／웃게 해다오’라는 내용이 그가 겪은 삶의 아픔과 닮아 있다는 느낌이 든다. 이에 대해 양수경은 “이별 노래는 내게 안 맞는 게 없다. 어둡고 슬픈 노래를 안 하려고 ‘스마일 어게인’이라는 타이틀을 정해 놓았는데 결국 이 노래를 하게 됐다”며 “더 비참한 내용의 노래를 녹음해놓고 발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br/><br/><br/><br/>그는 여러 히트곡 중 ‘사랑은 창밖에 빗물 같아요’를 넣은 이유를 묻는 질문에 “<span class='quot2'>비만 오면 라디오에서 이 노래를 틀어줘서 자연스럽게 내 대표곡이 됐다</span>”며 “<span class='quot2'>대중을 위해 이 노래를 선택했다</span>”고 답했다. <br/><br/><br/><br/>리메이크곡 2곡은 각각 의미가 있다. 그는 “나훈아 선생님은 내가 가장 존경하는 선배 가수다. ‘불후의 명곡’ 300회 특집에서도 ‘갈무리’를 부를 예정”이라며 “나훈아 선생님 같은 가수는 두 번 다시 나올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분이 다시 복귀하시길 바라는 응원의 의미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br/><br/><br/><br/>그는 이어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들 좋아하는 ‘그리움만 쌓이네’는 여성 팬들을 위해 넣었다”며 “처음에는 이 노래를 가볍게 생각했는데 여진 선생님을 직접 만난 후 나 자신이 부끄러워졌다. 사랑의 아픈 감정을 섬세하게 풀어낸 이야기를 듣고 배운 점이 많다”고 덧붙였다.<br/><br/><br/><br/>인터뷰 = 김구철 부장 (문화부) kckim

언론사: 문화일보-1-175.txt

제목: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에 건강검진센터 문 열어…‘원스톱 검진 가능해’  
날짜: 20170411  
기자: 박성훈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501.20170411160006002  
ID: 01100501.20170411160006002  
카테고리: 지역>경기  
본문: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에 암과 심내혈관 질환 등을 저렴한 값에 검사받을 수 있는 건강검진센터가 새로 문을 연다. 도는 11일 파주병원에서 센터 개소식을 열었다. 병원 내 1만246㎡ 부지에 지상 2층(연면적 983.16㎡) 규모로 지어진 센터에는 X레이실과 심뇌혈관클리닉센터, 폐기능실, 동맥경화실 등이 들어서 한자리에서 종합검진을 받을 수 있다. 센터에는 내과와 산부인과, 치과, 영상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분야의 전문 의료진 5명과 MRI(자기공명영상장치) 장비 등 의료장비도 설치됐다. <br/><br/><br/><br/>도 관계자는 “<span class='quot0'>파주병원에서 검진을 받으려면 과마다 돌아다녀야 했는데, 이제 검진센터에서 한 번에 편리하게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됐다</span>”며 “<span class='quot0'>파주 인근 공단과 기업 근로자는 물론 주민들이 폭넓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span>”고 말했다. <br/><br/><br/><br/>파주=박성훈 기자 pshoon@

언론사: 문화일보-1-176.txt

제목: 서초구 취약계층 130명에 암 예방교육  
날짜: 20170411  
기자: 김도연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501.20170411142006022  
ID: 01100501.20170411142006022  
카테고리: 사회>교육\_시험  
본문: 수료땐 암검진 무료 진행<br/><br/><br/><br/>서울 서초구(구청장 조은희)가 4월 한 달간 매주 화요일마다 취약계층을 위해 ‘암 예방 건강대학’을 운영해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서울성모병원과 협력으로 2003년부터 시작된 구의 ‘암 예방 건강대학’은 지금까지 1만여 명의 주민이 교육에 참여하는 등 필수 주민복지 사업으로 자리 잡았다. 올해에는 지역 내 취약계층 130여 명을 대상으로 서울성모병원 위장관외과 박조현 교수 등 8명의 전문의가 참여해 타 지자체와 차별화된 맞춤형 건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br/><br/><br/><br/>‘암 예방 건강대학’ 교육 수료자(3회 이상 출석자)에 대해선 위암, 간암, 대장암 중 1종을 선택해 무료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준다. 최근 3년간 ‘암 예방 건강대학’을 통해 362명의 주민이 무료 암 검진을 받은 바 있다.<br/><br/><br/><br/>김도연 기자 kdychi

언론사: 문화일보-1-177.txt

제목: 아산병원 ‘삶의 질 클리닉’ 작년 1만7000명 진료  
날짜: 2017041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501.20170411112006002  
ID: 01100501.20170411112006002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암 생존율이 높아지면서 암 발병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기 위해 ‘삶의 질 향상 클리닉’(사진)을 찾는 암 환자들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br/><br/><br/><br/>서울아산병원 암병원이 암 스트레스 클리닉, 평생건강 클리닉 등 삶의 질 향상 클리닉에서 진료받은 환자 수를 분석한 결과, 2010년 2400여 명에 불과하던 환자가 연 평균 38%씩 늘어 2016년 약 1만7000명이 클리닉을 찾았다고 11일 밝혔다. 또 이들 중에서도 예방 차원을 넘어 스트레스, 수면장애, 암성통증 등 보다 세분화된 클리닉을 찾아 적극적으로 삶의 질을 관리하는 환자들이 크게 늘었다. <br/><br/><br/><br/>실제 2010년에는 삶의 질 향상 클리닉 환자의 90%가 평생건강 클리닉에 집중됐지만, 2016년에는 전체 환자의 65%가 평생건강 클리닉을, 나머지 35%가 스트레스, 수면장애, 통증, 재활 관련 클리닉 등을 찾았다. 정신건강 관련 클리닉의 경우 2010년 개설 당시에는 276명이었던 것이, 현재 3041명으로 11배 증가했다. <br/><br/><br/><br/>서울아산병원 암병원은 완화의료 클리닉을 비롯해 암 평생건강 클리닉, 암 스트레스 클리닉, 암 수면장애 클리닉, 암 재활 클리닉, 암 만성질환 클리닉, 암성통증 클리닉, 암환자 상처관리 클리닉까지 총 8개의 삶의 질 향상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다.

언론사: 문화일보-1-178.txt

제목: <여기는 오거스타>강풍 뚫고… 호프먼, 버디 7개·無보기 나홀로 맹타  
날짜: 20170407  
기자: 최명식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501.20170407121006001  
ID: 01100501.20170407121006001  
카테고리: 스포츠>골프  
본문: - 마스터스 첫날<br/><br/><br/><br/>4개홀 연속 버디…4타차 선두<br/><br/>매킬로이 이븐파 공동 12위<br/><br/><br/><br/>작년 이어 또 ‘쿼드러플 악몽’<br/><br/>스피스, 3오버파 공동 41위<br/><br/><br/><br/>강풍의 심술에 너도나도 녹초가 됐다.<br/><br/><br/><br/>7일 오전(한국시간) 미국 조지아주 오거스타의 오거스타 내셔널 골프클럽(파 72)에서 개막된 미국프로골프(PGA)투어 시즌 첫 메이저대회인 제81회 마스터스(총상금 1000만 달러) 1라운드. 강풍은 그린에 오른 볼을 흔들고, 벙커의 모래를 날려버리면서 출전자들을 괴롭혔다. 오거스타의 강풍으로 인해 올 시즌 초반 기세등등했던 20대는 주춤했고, 관록을 뽐내는 30∼40대가 나란히 1∼3위로 약진했다.<br/><br/><br/><br/>1라운드의 주인공은 세계 52위 찰리 호프먼(41·미국)이었다. 대부분의 출전자가 고전했지만 호프먼은 펄펄 날았다. 막판 4개 홀 연속 버디를 포함해 보기 없이 버디 7개를 뽑아냈다. 호프먼은 7언더파 65타로 2위에 4타 앞선 선두에 올랐다. <br/><br/><br/><br/>지난해 메모리얼 토너먼트에서 우승했던 윌리엄 맥그리트(38·미국)가 3언더파 69타로 2위, 리 웨스트우드(44·영국)가 2언더파 70타로 3위에 이름을 올렸다. 마스터스를 3차례(2004, 2006, 2010년)나 제패한 필 미켈슨(47·미국) 등 8명이 1언더파 71타로 공동 4위군을 형성했다.<br/><br/><br/><br/>PGA투어 사상 5번째 커리어 그랜드 슬램을 노리는 로리 매킬로이(27·북아일랜드)는 이븐파 72타, 공동 12위로 첫날 일정을 무난히 마쳤다. 매킬로이는 전반에 보기 3개를 남겼지만 후반 들어 13번 홀과 15번 홀(이상 파5), 16번 홀(파3)에서 버디 3개를 잡아내 타수를 만회했다. 암 수술을 받은 어머니의 곁을 지키다 출전한 제이슨 데이(30·호주)는 2오버파 74타로 공동 27위에 자리했다.<br/><br/><br/><br/>그러나 2015년 그린재킷을 입었던 조던 스피스(24·미국)는 지난해에 이어 ‘쿼드러플 보기(4오버파)’ 악몽에 시달리면서 3오버파 75타를 적어내 공동 41위로 밀려났다. <br/><br/><br/><br/>스피스는 15번 홀에서 3번째 샷을 그린 앞 해저드에 빠트렸고, 1벌타를 받고 친 5번째 샷은 그린을 훌쩍 넘겨 6번 만에 그린에 올렸다. 이미 평정심을 잃은 스피스는 3퍼트, 9타로 홀아웃했다. 버디 3개와 보기 2개를 챙겼던 스피스는 15번 홀에서 발목을 잡히면서 언더파 대열에 합류할 기회를 잃었다.<br/><br/><br/><br/>한편 조직위원회는 오거스타 내셔널 골프클럽에 시속 32∼48㎞의 강풍이 불었고, 순간적으로는 시속 48∼64㎞에 달하는 돌풍이 몰아닥쳤다고 밝혔다. 2라운드에선 다소 누그러지겠지만, 시속 24∼32㎞의 바람과 순간 시속 40∼48㎞의 돌풍이 예보됐다. 선두 경쟁이 본격화하는 3, 4라운드는 그러나 평온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br/><br/><br/><br/> 오거스타=최명식 기자 mschoi

언론사: 문화일보-1-179.txt

제목: ‘기대수명’ 고소득-저소득층 6.11년差  
날짜: 20170407  
기자: 이용권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501.20170407113505002  
ID: 01100501.20170407113505002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 보건협회 학술대회 보고서 <br/><br/><br/><br/>소득·지역별 건강 불평등 심각 <br/><br/>뇌졸중치료실 58% 수도권 집중 <br/><br/>만성질환 진료비 전체 84% 차지 <br/><br/>알코올 등 4大 중독 비용 109조<br/><br/><br/><br/>의학기술 발달과 전 국민 건강보험 등에 힘입어 우리나라 보건수준은 향상되고 있지만, 여전히 소득별·지역별 ‘건강 불평등’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br/><br/><br/><br/>알코올, 마약, 도박, 인터넷 등 4대 중독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은 한 해 109조5000억 원에 달했다. 해결 과제가 산적하다는 지적이다.<br/><br/><br/><br/>박병주 (서울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대한보건협회 회장은 ‘세계 보건의 날’을 맞아 7일 서울 성북구 동덕여대 100주년 기념관에서 열린 협회 60주년 기념 보건학 종합학술대회 기조강연에서 이 같은 당면 공중보건문제를 지적했다.<br/><br/><br/><br/>◇건강 불평등 해결은 최대과제 = 2009년부터 2014년까지 보건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소득 상위 20%의 기대수명은 83.70세로, 소득 하위 20%(77.59세)보다 6.11년을 더 살았다. 또 남성 암 환자의 경우 소득 상위 20%의 5년 치료 생존율(37.84%)은 소득 하위 20%(24.04%)보다 13.80%포인트나 높았다. 지역별 불균형도 심각하다. 전국 140개 병원 중 62개 병원(44.6%)이 뇌졸중 전문치료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중 58%에 달하는 36개 치료실이 수도권에 집중됐다. 이에 따라 사망률은 서울 서초구의 경우 인구 10만 명당 19명이었지만, 경남 고성군은 10만 명당 57명으로 큰 격차가 났다.<br/><br/><br/><br/>◇높은 사회경제 비용 = 만성질환에 지출하는 높은 진료비 비중도 큰 숙제다. 만성질환 진료비는 44조 원에 달해 전체 진료비의 84%를 차지했다. 감염병 문제도 당면 해결 과제다. 지난해 2001년 이후 15년 만에 콜레라 환자가 발생한 데다, 우리나라는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압도적인 결핵 발생국 1위 국가다. 알코올, 마약, 도박, 인터넷 등 4대 중독에 따른 정신 보건학적 문제는 더 심각하다. 4대 중독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은 한 해 109조5000억 원에 달해 암(14조8600억 원), 장애(11조1370억 원), 흡연(5조6000억 원)보다 월등히 높았다.<br/><br/><br/><br/>◇우울한 복지지표 = OECD 국가 중 1위인 ‘자살률’(10만 명당 25.8명)과 ‘65세 이상 노인 자살률’(10만 명당 64.9명)도 우울한 우리 사회의 단면을 드러내고 있다. OECD 국가 중 최저수준인 저출산 문제도 2001년 이후 15년째 ‘초저출산 국가’(합계출산율 1.3명 미만)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인구 감소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박 회장은 “<span class='quot0'>정부는 민간전문가들과 소통·협력해 효과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국회는 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공중보건사업정책을 수립할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span>”며 “<span class='quot0'>우리나라가 진정한 선진국으로 진입하려면 정부와 국회, 민간단체의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이 시급하다</span>”고 강조했다.<br/><br/><br/><br/>이용권 기자 freeuse

언론사: 문화일보-1-180.txt

제목: 끔찍한 전쟁범죄, 용서가 가능한 것인가  
날짜: 20170407  
기자: 엄주엽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501.20170407103005004  
ID: 01100501.20170407103005004  
카테고리: 국제>유럽\_EU  
본문: 폭력 앞에 선 철학자들 / 마크 크레퐁·프레데릭 웜 지음, 배지선 옮김 / 이숲<br/><br/><br/><br/>“<span class='quot0'>자기가 저지른 죄를 인정하지도 않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지도 않는 사람을 용서할 수는 없습니다.</span>”<br/><br/><br/><br/>책에서 다루는 프랑스 철학자 장켈레비치의 준엄한 선고다. 그는 러시아계 유대인으로 1940년 반유대주의 법에 의해 교수직과 프랑스 국적을 박탈당했고, 제2차 세계대전 기간에 레지스탕스 활동에 참여했다. 그는 나치의 범죄에 대해 “<span class='quot0'>사람들이 용서할 수 있는 범위로는 공포의 폭을 측정할 수 없는</span>”, 따라서 “<span class='quot0'>합당한 처벌과 속죄, 시효가 있을 수 없는 ‘불가능한 용서’에 해당한다</span>”고 봤다. 그는 “누가 희생자를 대신해서 용서를 공언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정치가가 희생자들에게서 용서할 권리를 빼앗을 수 있겠습니까? 끔찍한 범죄의 흔적이 ‘기억에 암’처럼 남아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도덕적 권위에 준거해 용서에 동의하라고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묻고 “용서는 사람들이 죽어간 집단수용소에서 이미 죽었다”는 말로 용서의 불가능성을 주장했다.<br/><br/><br/><br/>책은 제2차 세계대전의 와중인 1943년부터 5월 혁명이 일어난 1968년 사이, 프랑스에서 벌어진 폭력적 상황과 이에 맞서 사유하고 행동했던 열두 명의 현대 철학자의 사상과 논쟁을 다룬다. 이는 폭력과 용서의 문제로 집약된다. 사르트르에서 출발해 카뮈, 메를로-퐁티, 카바이예스, 시몬 베유, 캉길렘, 레비스트로스, 들뢰즈, 푸코, 데리다에 이르기까지 프랑스의 내로라하는 현대 철학자들이 총동원됐다. 일제강점과 군사독재를 겪으며 폭력으로 얼룩진 역사를 지나온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용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장켈레비치가 와 닿는다.<br/><br/><br/><br/>독일에 대한 장켈레비치의 분노는 세계 곳곳에서 지속적인 반향을 얻었다. 독일 총리 빌리 브란트가 바르샤바 게토의 봉기를 기리는 기념비 아래 무릎을 꿇은 역사적인 장면은 이 같은 오랜 분노와 기다림의 결과였다. <br/><br/><br/><br/>이는 또한 독일인들이 무거운 죄책감에 짓눌려 살지 않도록, 늘 과거의 흔적에 얽매여 살지 않도록 하는 행동이기도 하다. 일본과는 달랐다. 책에는 일본에 대한 언급이 나온다.<br/><br/><br/><br/>저자인 철학자 마크 크레퐁은 “<span class='quot1'>지금도 일본이 그러듯이, 많은 정부가 과거에 대한 용서를 구하는 데 주저하는 태도를 비판할 수 있고, 용서를 구하거나 허락하는 문제가 개인이 민중과 역사와 자신을 동일시하는 능력과 얼마나 깊이 연관되어 있는지 가늠할 수 있다</span>”고 일본을 거명한다. <br/><br/><br/><br/>브란트의 사과는 독일인에게 ‘개인이 민중과 역사와 자신을 동일시하는 능력’이 있음을 보여준다. 이것이 결여됐을 때 ‘위안부 합의’ 같은 허투른 방식이 나오고, 이는 절대 사과와 용서에 다가갈 수 없다. 책에 나오는 “용서를 구하는 것과 용서하는 것은 모두 담론, 법령, 위원회 혹은 법률안 따위에 의지해서 미리 정해진 언어에 끼워 맞추고 제도화하는 오류”라는 표현은 한·일 위안부 합의에 딱 들어맞는다. 장켈레비치의 준엄한 선고는 최근 회고록에서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양민학살 등의 관여를 부인한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정확히 적용된다. 이에 대해 이준일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span class='quot2'>섣부른 용서는 결코 정의롭지 못하다</span>”고 한 말은 이 책을 관통하는 주제다.<br/><br/><br/><br/>엄주엽 선임기자 ejyeob

언론사: 문화일보-1-181.txt

제목: 양주농촌테마공원, 주말농원·딸기수확체험 인기  
날짜: 20170403  
기자: 오명근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501.20170403101007002  
ID: 01100501.20170403101007002  
카테고리: 지역>전남  
본문: “<span class='quot0'>감동이 있는 양주 농촌테마공원으로 놀러 오세요.</span>” <br/><br/><br/><br/>경기 양주시가 지난 2015년 조성한 양주농촌테마공원이 주말농원 이용과 딸기수확 등 시민들의 새로운 체험 휴식공간으로 각광받고 있다. 31일 양주시에 따르면 시가 지난 2015년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을 통해 양주시 은현면 도하리 일대 12만㎡에 양주농촌테마공원을 조성한 이후 지난해 관람객 7150명이 영농체험을 위해 방문하는 등 인기를 끌고 있다.<br/><br/><br/><br/>시는 올해 1억 원의 예산을 투입, 벤치와 파고라 등 쉼터, 안전펜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해 주말농원 이용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딸기체험 기회를 주는 등 감동을 주는 공간으로 조성하고 있다.<br/><br/><br/><br/>올해 개장 3년째인 양주농촌테마공원은 도시민에게 휴식·체험·도농교류의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5000㎡ 면적의 주말 농원을 분양하는 한편 웰빙채소 텃밭과 암 예방 텃밭, 고혈압 예방 텃밭, 당뇨 예방 텃밭 등 기능성 텃밭을 조성해 새로운 주말농원을 운영하고 있다.<br/><br/><br/><br/>규모가 큰 딸기재배 온실(2205㎡ )에서는 국산품종(설향)을 재배해 유치원생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인기 있는 딸기수확 체험을 운영한 결과 지난해 720명이 참가했다. 올해에는 1000명을 목표로 딸기수확 체험을 진행하고 딸기전문지도사를 배치해 딸기재배농가들의 현장교육과 견학코스로도 활용할 예정이다.<br/><br/><br/><br/>7000㎡의 잔디광장과 1만㎡의 경관단지 탐방로에는 청보리, 메밀, 코스모스 등을 심어 장관을 이루고 있다. 봄에는 벚꽃과 황매화, 조팝나무, 철쭉, 진달래, 영산홍 등 화려하고 아름다운 꽃을 만끽할 수 있고 여름에는 생태숲에 조성된 산책로를 거닐며 여유를 느낄 수 있다.<br/><br/><br/><br/>양주=오명근 기자 omk

언론사: 문화일보-1-182.txt

제목: 울산大병원, 지역의료 서비스 ‘선도 모델’로  
날짜: 20170331  
기자: 곽시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501.20170331145005004  
ID: 01100501.20170331145005004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 올 개원 42주년… 급성장<br/><br/><br/><br/>환자진료 중점둔 가치 실현<br/><br/>전국 최고 시설과 장비 갖춰<br/><br/>치료성적 대부분 1등급 평가<br/><br/><br/><br/>“<span class='quot0'>전국 최고의 시설과 의료기술이 있는데, 왜 서울로만 가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span>”<br/><br/><br/><br/>울산대병원이 수도권 지역 대형병원으로의 환자쏠림현상 속에서도 지역 거점병원으로 성공 모델을 구축, 의료지방화를 선도하고 나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31일 울산대병원에 따르면 올해로 개원 42주년을 맞은 울산대병원은 2012년 국내 최고수준의 암치료센터를 준공하고, 2015년에는 상급병원으로 승격되는 등 해마다 질적·양적 성장을 거듭했다. 이에 걸맞게 의료장비도 트루빔(방사선 암치료기), 다빈치Xi(로봇수술시스템) 등 전 세계적으로 가장 우수한 장비를 보유하고 있으며, 수술실, 응급실, 중환자실 등 전국 최고의 시설을 갖추고 있다.<br/><br/><br/><br/>치료 성적도 전국 최고수준이다. 가장 어렵다고 알려진 간이식의 경우 130차례를 시행하는 동안 수술사망률 0%를 기록하고 있으며, 신장이식 역시 이식환자의 10년 생존율이 93%로 국내 평균 80%를 훌쩍 뛰어넘었다. 골수이식도 사망률 2∼3% 수준으로 전국평균 8%에 비해 현저히 낮게 나타났다. 이 밖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병원의 치료성적에서도 대부분 1등급 평가를 받았다.<br/><br/><br/><br/>이에 따라 일부 다른 지방 병원의 경우 2010년 11월 KTX 2단계 개통 이후부터 환자들의 역외유출을 우려하고 있지만, 울산대병원은 환자 수가 지난해 말 기준으로 2011년보다 17%가 늘어났다. 실제 울산시의 조사결과 2014년 기준 울산지역 역외유출 환자 수는 56만 명으로 전년 대비 22.7% 감소했고, 타 지역 환자 유입은 61만 명으로 전년 대비 24.6% 증가했다.<br/><br/><br/><br/>의료계에서는 울산대병원의 이 같은 성공사례는 환자의 수도권 쏠림현상이 가속화되고, 서울지역 대형 병원이 지방 환자 유치를 위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지방 병원도 성공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좋은 모델로 평가하고 있다.<br/><br/><br/><br/>울산대병원은 이 같은 성공 비결에 대해 돈보다 환자에 중심을 두는 울산대병원의 가치실현 때문이라고 밝혔다. 국내 많은 병원이 실제로 의료행위에 따라 인센티브를 주지만, 울산대병원은 의사들에게 돈 문제를 빼고 오직 환자진료에 가치를 두도록 하기 위해 인센티브제를 시행치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울산대병원에서는 오직 의학적 판단에 의거한 소신 있는 진료가 뿌리를 내렸으며, 환자들은 불필요한 검사 등 과잉진료를 받지 않게 돼 상대적으로 비용 절감 등의 혜택을 받고 있다.<br/><br/><br/><br/>정융기(사진) 원장은 “<span class='quot1'>지방분권화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요즘 의료계에도 수도권으로의 쏠림현상이 심각하다</span>”며 “<span class='quot1'>울산대병원은 이런 측면에서 많은 지역환자에게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 의료계의 지역 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해나가는 새로운 모델이 될 것</span>”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span class='quot1'>울산대병원을 대한민국 의료의 표준 병원으로 만들어 국내 의료계가 이 표준에 따라오도록 만들겠다</span>”며 “<span class='quot1'>이 표준이 전국적으로 정착되면 우리나라 의료계가 한층 발전하고, 국민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질도 좋아질 것</span>”이라고 설명했다.<br/><br/><br/><br/>울산 동구 전하동에 위치한 울산대병원은 현재 961병상 규모에 2200여 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이달부터 울산대학교 부속병원으로 전환됐다.<br/><br/><br/><br/>울산=곽시열 기자 sykwak

언론사: 문화일보-1-183.txt

제목: 암환자 진료에 ‘왓슨’시대 도래  
날짜: 20170328  
기자: 박천학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501.20170328172006001  
ID: 01100501.20170328172006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대구지역 대학병원들 치료가이드라인 제공<br/><br/><br/><br/>대구·경북지역에도 인공지능을 암 진단 및 치료에 활용하는 시대가 열렸다. 지역 대학병원들이 암 환자 진료 지원을 위해 IBM사에서 개발한 최첨단 인공지능 ‘왓슨’을 잇달아 도입하고 있다.<br/><br/><br/><br/>28일 지역 대학병원에 따르면 계명대 동산병원은 오는 4월 17일부터 본격적으로 암 진료에 왓슨을 이용한다. 왓슨은 방대한 양의 전문 의학지식을 스스로 학습하고 분석해 환자에게 적합한 최적의 치료 방법을 8초 안에 의사에게 제안하는 이른바 ‘인공지능 의사’다. 왓슨은 이 가운데 암 치료에 특화돼 있으며 매일 쏟아지는 300개 이상의 의학저널, 200개 이상의 의학교과서, 1500만 페이지에 이르는 의료정보, 치료 가이드라인을 분석해 환자에게 최선의 치료법을 의사에게 제공한다. 동산병원은 부인암과 대장암의 단일공(Single Site) 로봇수술을 세계 최초로 성공하기도 했다.<br/><br/><br/><br/>박건욱 동산병원 암연구소장은 “<span class='quot0'>이 같은 인공지능 시스템은 환자 맞춤형 암 진료의 신기원을 열 것으로 기대된다</span>”며 “<span class='quot0'>지역 암 환자들이 더 나은 치료법을 찾아 서울의 유명 대학병원을 전전하는 번거로운 관행도 줄일 수 있을 것</span>”이라고 말했다. <br/><br/><br/><br/>또 대구가톨릭대병원은 왓슨을 오는 4월 중 도입하기로 했다. 대구가톨릭대병원은 우선 6대 암(폐암, 유방암, 위암, 대장암, 직장암, 자궁경부암) 치료에 왓슨을 활용한다. 대구가톨릭대병원은 지난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위암, 폐암, 유방암, 대장암 적정성 평가에서 1등급을 받았다. 권오춘 대구가톨릭대병원장은 “<span class='quot1'>암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이 빠르게 회복해 행복한 삶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span>”고 전했다.<br/><br/><br/><br/>한편, 대구파티마병원은 스마트폰으로 진료 예약부터 수납까지 가능한 스마트 헬스 케어 플랫폼 ‘엠 케어(M-Care)’ 서비스를 도입했다. 대구파티마병원은 이 서비스 시행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들의 대기시간과 번거로운 이용 절차 등 불편함을 덜 수 있을 것 이라고 밝혔다. <br/><br/><br/><br/>대구=박천학 기자 kobbla@

언론사: 문화일보-1-184.txt

제목: “후회 안하려 늦깎이 유학…‘문화외교관’ 꿈꿔요”  
날짜: 20170328  
기자: 김인구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501.20170328151006015  
ID: 01100501.20170328151006015  
카테고리: 문화>출판  
본문: 日 현지인 대상 수필경연대회서 최우수상 화제 이정선 씨 <br/><br/><br/><br/>“뒤늦게 꿈을 찾아 떠나온 유학생활이지만 후회는 없다. 문화 분야에서 한·일 양국뿐만 아니라 국제 사회를 무대로 활동하는 ‘문화 외교관’이 되고 싶다.”<br/><br/><br/><br/>일본 도쿄(東京)대 대학원에서 유학 중인 이정선(37·사진) 씨가 ‘고토노하대상(言の葉大賞)’이라는 일본어 수필 경연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 현지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경연대회에서 한국인이 수상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br/><br/><br/><br/>고토노하대상은 재단법인 고토노하협회가 커뮤니케이션 능력 향상을 목표로 매년 개최하는 대회다. 일본 문부과학성, 교토(京都)시, 요미우리(讀賣)신문, 아사히(朝日)신문 등의 후원으로 올해 7회째를 맞이하고 있다. 초·중·고등학생, 대학생, 해외, 일반인 부문으로 나뉘어 최우수상과 우수상을 수여한다. 올해는 총 1만4587건이 응모한 가운데 이 씨는 ‘낙지를 곱씹으며’라는 제목으로 대학생 부문에서 최고로 선정됐다.<br/><br/><br/><br/>이 씨는 27일 “한국에서 직장에 다니다가 문화 경영을 공부하기 위해 2년 전 일본에 왔다. 도서관에서 우연히 안내문을 보고 응모했는데 이렇게 수상하게 돼 기쁘다”면서 “암을 극복한 아버지가 낙지 볶음을 해주시던 기억을 떠올렸다. 딸에 대한 사랑, 삶과 죽음의 경계 등을 솔직하게 표현했다”고 밝혔다.<br/><br/><br/><br/>이 씨는 고려대 일문과를 졸업한 후 공기업인 한국전력에 취업하면서 학업을 계속하려던 애초의 꿈과 멀어졌다. 2009년에는 아버지가 대장암을 선고받아 유학 계획을 모두 접어야 했다. 그러나 아버지가 건강을 회복하면서 다시 용기를 냈다. 2014년 문부과학성 국비 장학생 시험에 도전해 최고령으로 합격한 후 2015년 4월 유학길에 올랐다.<br/><br/><br/><br/>이 씨는 “<span class='quot0'>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 11년간의 공기업 생활을 정리하고 학업을 계속하고 있다</span>”며 “<span class='quot0'>나중에 세계유산 분야에서 일해 보고 싶다</span>”고 말했다. <br/><br/><br/><br/> 김인구 기자 clark

언론사: 문화일보-1-185.txt

제목: “유전자정보로 내 건강 예측”… 울산이 ‘들썩’  
날짜: 20170328  
기자: 곽시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501.20170328144006004  
ID: 01100501.20170328144006004  
카테고리: 지역>지역일반  
본문: 市, 2차 게놈 기반 사업 접수 <br/><br/>600명 모집에 1650명 몰려<br/><br/><br/><br/>게놈 해독을 통해 시민들에게 건강정보를 제공하는 ‘게놈 기반 바이오메디컬 육성사업’이 울산시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br/><br/><br/><br/>28일 울산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3일부터 오는 4월 7일까지 ‘게놈 기반 바이오메디컬산업 육성사업’에 참여할 시민 참여자 600명을 모집하고 있다. 이 사업은 울산과학기술원(UNIST)과 울산대병원이 시민들의 게놈을 분석해 개인별 생애주기에서 발생 가능한 질병의 유무를 데이터로 도출, 건강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시민에게 제공되는 건강정보는 간기능검사, 당뇨검사, 전해질검사 등 건강검진 결과를 비롯해 일반질환과 암 발병 가능성, 신체적 특징을 예측할 수 있는 유전자 지표 분석 결과, 게놈 기반 생체나이 예측 결과 등이다.<br/><br/><br/><br/>28일 현재까지 이 사업에 참여를 희망한 시민들은 1650명으로, 2.75대1의 높은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 울산시민 장모(45) 씨는 “<span class='quot0'>혈액35㏄만 제공하면, 암 발병 가능성과 미래 건강 상황을 알 수 있다는 사실에 유전자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span>”고 말했다. 시는 다음 달 7일까지 희망자를 접수한 뒤 컴퓨터 추첨 프로그램으로 최종 참여자를 선정한다. 시는 앞서 지난해 시민 100명을 사업 참여자로 선정해 게놈을 분석하고 건강정보를 제공했다. 시가 이들을 상대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 전원이 “<span class='quot1'>게놈을 통한 주민 건강 복지사업이 필요하다</span>”고 답했으며, 96%는 “<span class='quot1'>건강상태 확인에 도움이 되었다</span>”고 답변했다.<br/><br/><br/><br/>울산 = 곽시열 기자 sykwak

언론사: 문화일보-1-186.txt

제목: 의정부성모병원, 위암 적정성 평가 1등급 획득  
날짜: 20170324  
기자: 오명근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501.20170324163006001  
ID: 01100501.20170324163006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가톨릭대 의정부성모병원은 24일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 발표한 위암 적정성 평가 결과 종합점수 97.36점으로 1등급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발표에 이어 위암적정성 평가분야에서 올해에도 2년 연속 1등급을 획득한 것으로 의정부성모병원이 위암 수술 분야에서 국내 최상급 수준을 보유한 대학병원으로 평가받을 전망이다.<br/><br/><br/><br/>의정부성모병원은 16가지 구조 과정지표 평가항목 가운데 전문인력 구성 여부를 비롯, 진단적평가 영역과 수술 영역, 보조항암화학요법 영역 등 12가지 항목에서 만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br/><br/><br/><br/>의정부성모병원장 전해명 교수는 “<span class='quot0'>유방암과 대장암 평가에서 2년 연속 1등급을 받은 데 이어 위암 수술에서도 2회 연속 1등급을 받게 돼 기쁘다</span>”며 “<span class='quot0'>경기 북부에서 국내 최고 수준의 암 치료 병원이 돼 주민들이 마음 놓고 치료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span>”고 말했다. <br/><br/><br/><br/>의정부=오명근 기자 omk@munhwa.com <br/> <br/>[ 문화닷컴 바로가기 | 소설 서유기 | 모바일 웹 ]

언론사: 문화일보-1-187.txt

제목: “엄마는 강하다”…암투병 美여성 쌍둥이 출산하고 숨져  
날짜: 2017032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501.20170324071005001  
ID: 01100501.20170324071005001  
카테고리: 사회>여성  
본문: 미국 캘리포니아 주 프레즈노에서 임신 기간에 암과 사투를 벌인 30대 임신부가 쌍둥이를 출산한 다음날 세상을 떠난 안타까운 사연이 알려졌다.<br/><br/><br/><br/>23일(현지시간) 폭스뉴스 등에 따르면 제이미 스나이더(30)는 지난해 5월 병원에서 쌍둥이를 임신했다는 의사의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다. 과거 난소암으로 난소 하나를 잃어버린 상태였기 때문이다. <br/><br/><br/><br/>설상가상으로 임신한 스나이더의 자궁에서는 악성 종양이 자라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뱃속에서 자라고 있는 쌍둥이를 낳기 위해 암과 싸우기로 결심했다. <br/><br/><br/><br/>그는 임신 기간에 스탠포트 의료센터에서 화학요법과 방사선 치료를 받았다. 스나이더는 자신의 투병 과정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br/><br/><br/><br/>분만일인 지난 17일 제왕절개를 통해 쌍둥이를 출산하고 자궁절제 수술을 받았다. 쌍둥이 아이들은 건강한 것으로 알려졌다.<br/><br/><br/><br/>그녀는 출산 전날 페이스북에서 “내일은 위대한 날이다. 신은 항상 내 곁을 지켜줬고 주변 사람들도 나를 위해 기도했다. 내일 제왕절개를 하고 곧바로 자궁적출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br/><br/><br/><br/>그러면서 “나는 지금 컨디션이 좋은 상태다. 역경 속에서도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갖도록 해준 신과 여러분께 감사의 말을 전한다”고 했다. <br/><br/><br/><br/>하지만 스나이더는 자궁적출 수술이 끝난 뒤 울혈성 심부전증으로 숨졌다. 그녀는 갓 태어난 남녀 쌍둥이뿐만 아니라 오브리와 매디 등 2명의 딸을 남기고 저 세상으로 간 것이다.<br/><br/><br/><br/>이에 그녀의 친구와 친지들은 남아있는 4명의 아이를 위해 온라인 기금모금 사이트인 ‘고펀드미닷컴’(gofundme.com)에 스나이더의 사연과 함께 온정을 호소했다.<br/><br/><br/><br/>그녀의 오랜 친구인 라리나 캠퍼닐은 “스나이더는 임신 중 암과 사투를 벌이면서도 항상 미소를 잃지 않은 밝은 사람이었다”면서 “그녀가 쌍둥이를 잠시나마 보고 저 세상으로 가서 너무 다행”이라고 눈시울을 붉혔다.<br/><br/><br/><br/>네 아이의 아버지인 히스 코이니는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 뉴햄프셔에서 캘리포니아로 이주할 계획이라고 언론들은 전했다. <br/><br/><br/><br/><연합뉴스><br/><br/> <br/> <br/>[ 문화닷컴 바로가기 | 소설 서유기 | 모바일 웹 ]

언론사: 문화일보-1-188.txt

제목: “아산의학상 수상 계기로 첨단 췌장이식·치료제 개발에 매진”  
날짜: 20170322  
기자: 이용권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501.20170322154006009  
ID: 01100501.20170322154006009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제10회 아산의학상’ 받은 한덕종 교수 · 김진수 단장<br/><br/><br/><br/>“모두 각자 분야에서 열심히 하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분야가 아닌 다른 분야에 대한 시샘이나 질시, 간섭이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br/><br/><br/><br/>아산사회복지재단에서 수여하는 국내 최대 의학상인 아산의학상 ‘임상의학 부문’ 수상자인 한덕종 서울아산병원 일반외과 교수는 22일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한 교수는 “<span class='quot0'>다른 의사들도 각자 자기 분야에서 열심히 하는데, 나는 다른 사람이 하지 않았던 췌장이식 분야를 해 눈에 띄어 운 좋게 상을 받은 것 같다</span>”고 소감을 밝힌 뒤 이 같은 전문가 협업시스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br/><br/><br/><br/>한 교수는 신장 및 췌장이식의 불모지였던 국내에서 1992년 7월 국내 최초 뇌사자 신장 및 췌장 동시 이식에 성공했다. 1992년 12월에는 국내 최초 생체기증자 췌장 이식에 성공해 말기 신부전과 당뇨 합병증 환자들에게 새로운 치료의 장을 제시하기도 했다. 지난해 말 기준 그는 국내 최다인 4631건의 신장이식을 시행했으며, 췌장이식은 350건으로 국내 췌장이식의 67%를 차지한다.<br/><br/><br/><br/>한 교수는 “<span class='quot0'>의사뿐 아니라 열심히 하면 누구든지 전문가가 될 수 있다</span>”며 “<span class='quot0'>많은 사람이 자기 분야에서 열심히 해 전문가가 돼야 선진국</span>”이라고 말했다. 그는 “<span class='quot0'>남의 것만 바라보고, 눈치 보고 질시하고 간섭하는 문화는 사라졌으면 좋겠다</span>”고 당부했다. 이식에 대한 제도적 문제점도 지적했다. <br/><br/><br/><br/>한 교수는 “<span class='quot0'>이식은 ‘매매’라는 과거의 인식에서 벗어났음에도, 여전히 관(官)이 주도해 기술이나 제도가 뒤늦다</span>”며 “<span class='quot0'>규제 일변도의 제도를 개선하고, 학회 전문가 등 민간영역의 참여를 이끌어 이식을 활성화해야 한다</span>”고 강조했다.<br/><br/><br/><br/>아산의학상 ‘기초의학 부문’ 수상자인 김진수 기초과학연구원 유전체교정연구단장도 정부와 민간의 연구에 대한 투자와 규제 개선을 당부했다. 김 단장은 유전자의 염기서열 일부를 자르거나 교정할 수 있는 ‘3세대 유전자 가위’(크리스퍼-카스 9)를 개발해 세계 최초로 인간 세포 유전자를 교정하는 데 성공한 인물이다. 이 기술이 활용되면 다양한 유전 질환, 암, 퇴행성 질환에 대한 극복이 예상된다.<br/><br/><br/><br/>김 단장은 “<span class='quot1'>이 기술이 앞으로 생명과학의 핵심기술이 되고, 질병 치료에도 쓰이며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를 창출해 우리 사회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span>”이라며 “<span class='quot1'>하지만 적절하게 투자하지 않고, 연구 규제를 풀지 않으면 연구 추진동력을 잃어 20~30년 전 바이오기술처럼 뒤늦게 시작한 다른 나라들에 일자리와 부가가치를 빼앗기게 될 것</span>”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span class='quot1'>아산의학상 수상을 계기로 환자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치료제 개발과 상용화에 매진하겠다</span>”고 말했다.<br/><br/><br/><br/>아산재단은 지난 21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호텔에서 시상식을 열고 한 교수와 김 단장에게 각각 상금 3억 원을 전달했다. 또 만 40세 이하의 젊은 의학자 부문에는 최정균 카이스트 바이오 및 뇌공학과 교수와 안정민 울산의대 심장내과 교수를 각각 선정해 상금 5000만 원을 시상했다. <br/><br/><br/><br/>이용권 기자 freeuse@munhwa.com <br/> <br/>[ 문화닷컴 바로가기 | 소설 서유기 | 모바일 웹 ]

언론사: 문화일보-1-189.txt

제목: 신라젠, 항암바이러스 약 펙사벡 임상 3상 호주서 첫 환자 등록  
날짜: 20170320  
기자: 유현진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501.20170320175005003  
ID: 01100501.20170320175005003  
카테고리: 미분류  
본문: 신라젠(대표 문은상)이 호주에서 항암 바이러스 제제 펙사벡의 임상 3상 첫 환자를 등록하는 등 글로벌 임상이 순항하고 있다.<br/><br/><br/><br/>신라젠은 지난 16일 호주에서 진행한 ‘간암 대상 펙사벡 글로벌 임상 3상’에서 뉴질랜드, 미국, 한국, 싱가포르 등에 이어 새롭게 환자 등록국으로 이름을 올려 총 9개국으로 등록 국가수가 증가했다고 20일 밝혔다. 호주에서는 시드니 소재 로열 프레드 알프레드 병원에서 임상이 진행된다. <br/><br/><br/><br/>이 병원의 사이먼 스트라서 교수는 “<span class='quot0'>원발성 간암은 호주에서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효과적인 치료제는 암환자들에게 꼭 필요하다</span>”며 “<span class='quot0'>우리는 이 놀라운 임상시험에 참여하고 첫 환자가 등록되어 매우 흥미롭게 생각하고 있다</span>”고 말했다.<br/><br/><br/><br/>신라젠 관계자는 “<span class='quot1'>글로벌 임상시험은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다</span>”며 “<span class='quot1'>펙사벡이 조속히 상업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span>”고 강조했다.<br/><br/><br/><br/>한편 신라젠은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승인을 받고 전 세계 140여 개 병원, 600명의 간암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 3상을 개시해 현재까지 9개국에서 91명의 환자가 임상시험에 참여하고 있다. <br/><br/><br/><br/>유현진 기자 cworange@ <br/> <br/>[ 문화닷컴 바로가기 | 소설 서유기 | 모바일 웹 ]

언론사: 문화일보-1-190.txt

제목: 녹차, 대장암 예방에 효과…대장 선종 발생 줄여  
날짜: 20170320  
기자: 이용권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501.20170320145005001  
ID: 01100501.20170320145005001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녹차 추출물이 대장 선종 발생을 줄여 대장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대장 선종은 암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대장 용종 조직으로 ‘대장암의 씨앗’이라고 불린다.<br/><br/><br/><br/>이동호 분당서울대병원 소화기내과 교수팀은 내시경적 대장 용종 절제술을 시행한 143명을 대상으로 1년간 매일 0.9g의 녹차추출물을 섭취한 복용군(72명)과 그렇지 않은 대조군(71명)으로 구분해 선종 발생률을 분석한 결과 복용군에서 선종 발생률이 감소한 것을 확인했다고 20일 밝혔다. 녹차추출물을 1년간 복용한 후 대장내시경을 시행한 결과 이시성(과거나 미래) 선종 발병률은 복용군에서 23.6%(72명 중 17명), 대조군에서 42.3%(71명 중 30명)로 복용군의 발병률이 대조군보다 18.7% 더 낮았다. 재발성 선종 발생 건수 역시 복용군에서 대조군보다 감소했다.<br/><br/><br/><br/>이동호 교수는 “<span class='quot0'>최근 서구화된 식습관 등의 요인으로 대장암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연구를 통해 생활 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녹차를 활용한 대장암 예방법 및 치료에 가능성을 제시한 것은 의미 있는 결과</span>”라고 밝혔다.<br/><br/><br/><br/>한편 해당 연구는 분당서울대병원과 아모레퍼시픽 바이탈뷰티 간의 양해각서(MOU)의 일환으로 진행됐으며, 이번 임상시험에 사용된 녹차 추출물은 아모레퍼시픽 R&D센터에서 제공받았다. 연구 결과는 3월 유럽 임상영양·대사증후군 공식 학회지 ‘클리니컬 뉴트리션(Clinical Nutrition)’에 게재됐다. <br/><br/><br/><br/>이용권 기자 freeuse@ <br/> <br/>[ 문화닷컴 바로가기 | 소설 서유기 | 모바일 웹 ]

언론사: 문화일보-1-191.txt

제목: SK㈜ C&C-건양대병원, 왓슨 기반 ‘에이브릴’ 활용해 AI 종합병원 만든다  
날짜: 20170316  
기자: 임정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501.20170316151005005  
ID: 01100501.20170316151005005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SK㈜ C&C는 16일 대전 건양대병원에서 자사 인공지능(AI) 플랫폼 ‘에이브릴’ 기반 병원 업무 서비스 업무협약(MOU) 및 IBM 왓슨 포 온콜로지 도입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병원 곳곳에 SK㈜ C&C의 AI 에이브릴을 도입, 정확한 치료법 제시는 물론 병원 내 모든 의료 정보가 환자와 의사를 위해 움직이는 맞춤형 AI 의료 도우미 서비스를 선보이기 위해 추진됐다. <br/><br/><br/><br/>이를 위해 양 기관은 △왓슨 포 온콜로지(Watson for Oncology) 도입 △환자와 의료진 맞춤형 AI 도우미 서비스 개발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SK㈜ C&C와 건양대병원은 오는 4월 왓슨 포 온콜로지 시스템을 오픈할 예정이다. 건양대병원 의사들이 폐암, 대장암, 유방암 등 각종 암에 대한 치료법을 제안하고 환자들도 의사와 함께 왓슨 포 온콜로지 분석 내용을 확인해 볼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br/><br/><br/><br/>왓슨 포 온콜로지는 환자의 진료 기록을 근거로 방대한 의학 논문과 관련 치료 자료들을 빠르게 분석해 결과를 제시함으로써 의사들의 정확한 치료법 제안을 도울 뿐 아니라 환자들에게 치료에 대한 확신을 주는 효과가 있다. 양 기관은 또 환자나 의료진 누구나 태블릿PC, 스마트폰 등을 통해 에이브릴에 접속하면 언제든지 자신만을 위한 AI 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환자들은 에이브릴과 채팅을 통해 병원 예약은 물론 질병 검진을 위한 사전 주의사항을 들을 수 있다.<br/><br/><br/><br/>진료 후에도 에이브릴과 대화하며 병원진료기록과 자신이 입력한 건강 데이터(건강검진기록, 생활습관 등)를 기반으로 상태를 체크하며 암 등 각종 질병 발생확률을 확인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 플랜에 따른 운동, 식이요법, 생활습관 등을 추천받을 수도 있다. 최원준 건양대병원 원장은 “<span class='quot0'>건양대병원의 우수한 암 협진팀과 더불어 AI 의료시스템까지 도입해 암 환자들에게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span>”고 말했다. <br/><br/><br/><br/>임정환 기자 yom724@munhwa.com <br/> <br/>[ 문화닷컴 바로가기 | 소설 서유기 | 모바일 웹 ]

언론사: 문화일보-1-192.txt

제목: “평소 고마운 할머니 구한다는 생각에…”  
날짜: 20170316  
기자: 이관범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501.20170316142007019  
ID: 01100501.20170316142007019  
카테고리: 사회>여성  
본문: 불길에 뛰어들어 어르신 구조 <br/><br/>니말 씨, 외국인 첫 ‘LG 의인상’<br/><br/><br/><br/>불길에 뛰어들어 이웃을 구한 스리랑카 출신의 근로자 니말(39·사진) 씨가 ‘LG 의인상’을 받았다. 2015년 LG 의인상이 제정된 이후 첫 외국인 수상자다.<br/><br/><br/><br/>LG복지재단은 지난 2월 10일 경북 군위군 주택 화재 현장에서 90대 할머니를 구한 니말 씨에게 LG 의인상과 치료비를 포함한 상금 3000만 원을 전달했다고 16일 밝혔다. <br/><br/><br/><br/>니말 씨는 고국에 있는 어머니의 암 치료비를 마련하기 위해 5년째 한국에서 일하고 있다. 그는 지난달 인근 농장에서 작업하던 중 불이 났다는 소식을 듣고 현장으로 달려갔고, 집안에 할머니가 갇혀 있다는 말을 듣자마자 뛰어들어가 구해냈다. 이 과정에서 그는 얼굴과 가슴 등에 심각한 화상을 입고, 폐 등에도 이상이 생겨 3주간 중환자실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으나 여전히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태다. <br/><br/><br/><br/>그는 “평소 마을 어르신들이 나를 따뜻하게 보살펴준 게 고마웠다”며 “할머니를 구해야 한다는 생각에 불 속으로 뛰어들 용기가 생겼다”고 말했다.<br/><br/><br/><br/>LG복지재단은 이와 함께 지난 11일 서울 용산구 용문동 다가구주택 화재 현장에서 온몸으로 불길을 막아 일가족을 구조한 최길수(34)·김성수(43) 소방관에게도 LG 의인상을 주기로 했다. <br/><br/><br/><br/>두 소방관은 가족이 대피할 수 있도록 온몸으로 불길을 막았다. <br/><br/><br/><br/> 이관범 기자 frog72@munhwa.com <br/> <br/>[ 문화닷컴 바로가기 | 소설 서유기 | 모바일 웹 ]

언론사: 문화일보-1-193.txt

제목: 김병종 “세상 떠난 아내 작품에 대한 글 쓰며 상실의 고통 치유”  
날짜: 20170315  
기자: 장재선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501.20170315104005004  
ID: 01100501.20170315104005004  
카테고리: 문화>출판  
본문: - 本紙에 ‘故 정미경 작가 작품 공간’ 게재 김병종 화백<br/><br/><br/><br/>“<span class='quot0'>지난 1월 아내와 사별하고 잠 못자고 밥 못먹고 지내</span>”<br/><br/>“<span class='quot0'>그녀의 진면목 알릴 의무감… 아주 간절하게 쓰고 싶었죠</span>”<br/><br/>“<span class='quot0'>소설 ‘나의 피투성이 연인’ 지금 이 상황과 너무 닮아</span>”<br/><br/><br/><br/>“제가 과연 아내의 작품 공간에 대한 원고를 쓸 수 있을까, 처음엔 걱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원고를 쓰면서 저 스스로 치유가 되는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몸과 마음이 회복되는 느낌입니다.”<br/><br/><br/><br/>김병종(64) 서울대 미대 교수. 화가이자 문필가로도 널리 알려진 그는 지난 1월 아내인 소설가 정미경 씨를 잃었다. 정 씨는 지난해 12월 암 선고를 받은 후 한 달여 만에 세상을 떠났다. 만 57년의 삶이었다. 마니아 독자층을 거느리고 있던 중견 소설가 정 씨의 갑작스러운 타계는 문학계 안팎에 큰 충격을 줬다. 남편인 김 교수가 넋을 놓은 것은 말할 나위도 없다. <br/><br/><br/><br/>김 교수와 정 작가는 대학생 때 각기 모교였던 서울대와 이화여대를 배경으로 쓴 소설을 한 잡지에 게재한 인연으로 만났다. 400여 통의 연애편지를 주고받은 끝에 결혼한 두 사람은 부부이자 예술 동지였다. 정 씨는 발병한 후 수술이나 항암 치료를 한사코 거부하고 집에서 남편과 지내고 싶어 했다. 부부는 한 달 동안 함께 지내며 책도 읽고 산책도 하며 많은 대화를 나눴다. 마치 신혼으로 회귀한 듯한 시간을 보낸 후, 정 씨는 ‘거짓말처럼’ 세상을 떠났다.<br/><br/><br/><br/>지난 2월 하순, 문화일보는 김 교수에게 가혹한 요청을 했다. “<span class='quot0'>정미경 선생의 작품 공간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 기획 시리즈 ‘명작의 공간’에 써 달라.</span>”<br/><br/><br/><br/>김 교수는 “고마운 제안인데, 내가 과연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잠을 자지 못하고 밥도 잘 먹지 못하고 있다. 위험한 상태라는 게 의사 친구 말이다”고 했다. 그의 음성은 어둡게 가라앉아 있었다. 그러나 그는 “간절히 쓰고 싶다”고 했다. 아내가 작가로서 이상문학상을 받는 등 인정을 받긴 했으나, 노력과 함량에 비하면 그 평가는 미미한 편이었다는 것이다. “정 작가의 재능과 노력을 가장 잘 아는 사람으로서, 그의 진면목을 세상에 알려야 한다는 의무감이 있습니다. 보나 마나 펑펑 울며 쓸 것 같아 두렵기도 하지만 그래도 해야 할 일 같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br/><br/><br/><br/>김 교수에 따르면, 정 작가는 2000년쯤부터 서울 서초구 방배동 지하 원룸을 작업실로 사용했고, 이곳에서 혼자 혈투를 벌이는 것처럼 소설을 썼다. ‘밤이여 나뉘어라’ ‘무화과 나무 아래’ ‘무언가(無言歌)’ ‘프랑스식 세탁소’ 등 수작들이 여기서 나왔다. <br/><br/><br/><br/>“이번에 그 작업실에 가서 아내의 유품을 정리했는데, 미발표 유작도 있습니다. 출판사에서 그것들을 책으로 펴내자고 하더군요. 이 상황이 아내가 썼던 작품 ‘나의 피투성이 연인’의 내용과 너무 닮았습니다. 소설 속에선 작가인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자, 남편 유작 출간 문제를 놓고 아내가 고민합니다. 사적 편지, 일기 같은 것도 있기 때문에 생전에 센세이셔널리즘을 혐오했던 남편이 그런 일을 슬퍼할 것이라는 생각으로 아내는 괴로워하지요. 현실에서는 남편인 제가 고민하고 있지요. 아내와 남편을 바꾸면, 소설이 현실을 소름 끼치도록 정확하게 예견하고 있는 셈입니다.”<br/><br/><br/><br/>정 씨는 작가로서의 성취를 열망하면서도 남편과 두 아들 뒷바라지를 ‘성직처럼’ 해냈다는 게 김 교수의 회고. “제가 열두 살 때 아버지를 여의고 홀어머니 밑에서 컸습니다. 경상도(옛 마산) 출신의 아내는 결혼한 후 제 고향(전북 남원)에 내려가 시어머니를 모시고 두 아들을 키웠지요. 그러면서 글을 썼습니다. 신춘문예 당선 희곡 ‘폭설’이 거기서 쓴 작품이지요. 이렇게 저만 아는 숨은 이야기들을 세상에 알리고 싶네요.”<br/><br/><br/><br/>김 교수가 정 작가의 작품에 대해 쓰는 ‘명작의 공간’은 이번 주 금요일(17일)자부터 2회에 걸쳐 게재된다.<br/><br/><br/><br/>장재선 기자 jeijei@munhwa.com <br/> <br/>[ 문화닷컴 바로가기 | 소설 서유기 | 모바일 웹 ]

언론사: 문화일보-1-194.txt

제목: ‘흡연女 혈중 암물질’ 非흡연녀의 3.5배  
날짜: 20170310  
기자: 이용권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501.20170310124006007  
ID: 01100501.20170310124006007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남성보다 축적 정도 더 심해 <br/><br/>대사능력 떨어져 배출 못해<br/><br/><br/><br/>여성이 담배를 피울 경우 암 등을 유발하는 각종 독성물질의 체내 축적 정도가 남성보다 더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br/><br/><br/><br/>지선하 연세대 보건대학원 교수팀은 한국 암 예방 연구에 참여한 21∼73세의 건강한 성인 401명(남 232명, 여 169명)을 흡연자(190명)와 비흡연자(211명)로 나눠 ‘잔류성 유기오염물질(POPs)’의 혈액 내 농도를 측정한 결과, 여성이 남성보다 최대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10일 밝혔다. 연구팀은 이 같은 성별 차이에 대해 “여성이 남성보다 체내 대사능력이 떨어져 독성물질을 체외로 배출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추정했다.<br/><br/><br/><br/>POPs는 다이옥신, 폴리염화바이페닐(PCBs), 디디티(DDT), 과불화화합물(PFCs) 등 독성물질 26종을 총칭한다. POPs가 축적되면 면역체계 교란·중추신경계 손상·출산장애·암 등을 일으킨다.<br/><br/><br/><br/>연구팀이 조사 대상자 혈액을 채취해 PCBs 등의 잔류농도를 측정한 결과, 흡연 여성의 PCBs 농도가 비흡연여성보다 최소 2.7배에서 최대 3.5배까지 높았다. 남성에서도 흡연자의 다이옥신류로 분류되는 PCB 157의 농도가 비흡연자의 2.3배에 달했다. 디디티 등 유기염소계 살충제 농도도 여성의 경우는 흡연자가 비흡연자의 3.2배에 달했다.<br/><br/><br/><br/>해외에서는 흡연하는 여성에게서 태어난 아이의 POPs 농도가 높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되기도 했다. 담배를 피울 때 담배 자체로서도 유해물질 축적의 원인이 될 수 있지만, 담배를 빨아들이는 과정에서 대기 중의 POPs가 함께 흡입돼 체내에 축적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이 연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연구비 지원을 받아 이뤄졌으며, 국제학술지 ‘역학저널’(Journal of Epidemiology) 최근호에 발표됐다. <br/><br/><br/><br/>이용권 기자 freeuse@munhwa.com <br/> <br/>[ 문화닷컴 바로가기 | 소설 서유기 | 모바일 웹 ]

언론사: 문화일보-1-195.txt

제목: <오후여담>인질극  
날짜: 2017030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501.20170309140006005  
ID: 01100501.20170309140006005  
카테고리: 국제>중동\_아프리카  
본문: 박현수 조사팀장<br/><br/><br/><br/>인질극은 무고한 사람을 감금하고 생명을 위협하며 자기의 목적을 이루려고 벌이는 비열하고 잔악한 행위다. 가장 많은 희생자가 발생한 인질극은 일명 ‘베슬란 학교 인질 사건’. 2004년 러시아 연방의 북(北)오세티야 공화국 도시 베슬란의 한 학교에 학생과 주민 등 1200여 명이 인질로 잡혔다. 러시아 내 ‘체첸’ 지역의 일부 독립파 반군들이 일으킨 것으로 구출과정에서 인질범과 러시아 병력 사이에서 총격전이 벌어져 무려 385명이 사망하고 700명 이상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br/><br/><br/><br/>스포츠가 악용된 사례도 있다. 올림픽 역사상 최고의 비극이었던 1972년 뮌헨 올림픽이 대표적. 팔레스타인의 무장 조직 ‘검은 9월단’이 이스라엘 선수단이 묵고 있는 선수촌에 침입했다. 이들은 이스라엘이 감금하고 있는 200명이 넘는 팔레스타인 수감자들을 석방할 것을 요구하며 이스라엘 선수 11명을 인질로 삼았으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선수 전원을 사살해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다. 이 사건은 2005년 스티븐 스필버그가 감독을 맡아 ‘뮌헨’이라는 영화로도 제작돼 큰 반향을 일으켰다.<br/><br/><br/><br/>국가 차원의 인질 사태도 있다. 1979년 이란의 이슬람 혁명 직후 정부의 지지를 받은 이란 학생들이 테헤란 주재 미 대사관을 점거, 외교관과 직원 등 66명을 인질로 잡았다. 당시 지미 카터 미국 대통령이 독재자 무하마드 레자 팔레비 이란 국왕에게 암 치료를 명분으로 입국을 허용했던 게 발단이 됐다. 이란인들은 도피성 망명이라며 팔레비 국왕을 송환하고 그의 재산을 반환할 것을 요구했다. 인질들은 무려 444일 동안이나 잡혀 있어야 했다. 1980년 4월, 미군 특수작전부대가 ‘독수리 발톱’ 작전을 감행했으나 출동한 헬기가 충돌해 구출 요원 8명이 사망하는 바람에 비극으로 끝났다. 재선에 나선 지미 카터 대통령은 참패했다. <br/><br/><br/><br/>최근에는 국가가 대놓고 인질극을 벌이는 전대미문의 사태가 발생했다. 북한이 말레이시아 국적자를 전원 출국 금지한 것이다. 체제 자체가 인질극의 주범이고 무대다. 북한 스스로 국가가 아니라 범죄 집단임을 다시 한 번 과시하는 셈이다. 핵탄두와 미사일, 그리고 생화학무기까지 보유하고 있다. 이런 집단과 마주하면서도 일부 정치세력은 사드 배치에 반대하고, 개성공단은 즉각 재개하겠다고 한다. 나라는 누가 지킬 것인가. <br/> <br/>[ 문화닷컴 바로가기 | 소설 서유기 | 모바일 웹 ]

언론사: 문화일보-1-196.txt

제목: <사설>惑世誣民(혹세무민) 가짜뉴스, 反사회적 범죄로 다스려야  
날짜: 2017030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501.20170309115005006  
ID: 01100501.20170309115005006  
카테고리: IT\_과학>IT\_과학일반  
본문: 불순한 의도로 생산돼 혹세무민(惑世誣民)하는 가짜뉴스가 갈수록 기승을 부리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 선고일을 결정·발표한 8일에도 SNS에는 황당한 가짜뉴스가 난무했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남편은 통합진보당 당원’이라는 글이 대표적인 예다. 이 대행 남편은 통진당과 전혀 무관한 현직 대학교수다. 박영수 특별검사가 야당 중진에게 절하는, 완전히 조작된 사진도 나돌았다.<br/><br/><br/><br/>세계 각국의 골칫거리인 가짜뉴스 횡행은 한국 사회에서도 이미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 지난해 7월 경북 성주가 사드 배치 장소로 발표된 직후에 ‘사드 전자파 때문에 참외가 다 죽는다. 암이나 백혈병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는 가짜뉴스가 나돌았고,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의 출마 포기에도 가짜뉴스가 상당한 역할을 했다. 가짜뉴스는 사실 확인을 소홀히 한 단순 오보와는 차원이 전혀 다르다. 개인의 인격과 명예를 고의로 훼손할 뿐 아니라 사회적 정보에 대한 신뢰 체계를 근본적으로 붕괴시킨다. 개인의 정보 편식(偏食)을 부추기고, 건전하고 합리적인 공론 형성도 막는다. 반(反)사회적 범죄로 엄중히 다스려야 마땅한 이유다.<br/><br/><br/><br/>가짜뉴스로 개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경우 등은 정보통신망법·공직선거법 등에 따라 처벌된다. 하지만 인격권 침해는 우회하면서 사회 불안을 초래했을 경우 등엔 처벌하기 어려운 입법 미비가 현실이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난 2월 28일 국무회의에서 ‘가짜뉴스 모니터링 강화, 명확한 기준과 처벌에 대한 법령의 조속한 정비 등 선제적이고 강력한 대응’을 관련 부처에 주문한 배경도 달리 없을 것이다. 언론계를 포함한 민·관의 종합적 공조 대처가 시급하다. 서울대 언론정보연구소가 이달 말에 선보일 ‘SNU 팩트체크’ 플랫폼의 가짜뉴스 검증 기능 등이 주목되는 것도 그 때문이다. <br/> <br/>[ 문화닷컴 바로가기 | 소설 서유기 | 모바일 웹 ]

언론사: 문화일보-1-197.txt

제목: “의료 소외 농민위해 의료법인 만들겠다”  
날짜: 20170308  
기자: 박정민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501.20170308114005003  
ID: 01100501.20170308114005003  
카테고리: 경제>산업\_기업  
본문: - 취임1년 김병원 농협중앙회장<br/><br/><br/><br/>“위탁경영·기부채납 놓고 고민<br/><br/>3년內 農家소득 5000만원시대”<br/><br/><br/><br/>“<span class='quot0'>암이나 노인성 질환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민들에게 임기 내에 고급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span>”<br/><br/><br/><br/>김병원(사진) 농협중앙회 회장은 7일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기자실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간담회에서 ‘농협중앙회 의료법인 설립 추진’ 을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br/><br/><br/><br/>김 회장은 “<span class='quot1'>농촌 지역의 고령층은 암, 성인병 등 고비용 질환에 시달리고 있지만 도시와 달리 고급 의료서비스로부터 소외돼 심각한 문제</span>”라며 “<span class='quot1'>농민들을 위한 특화된 병원을 만들기 위해 의료법인 설립을 추진 중</span>”이라고 말했다. 그는 “<span class='quot1'>(법인 설립을 위한)연구용역은 진행 중</span>”이라며 “<span class='quot1'>유명 대학병원 등에 위탁으로 할 것인지, 기부채납 형태로 할 것인지를 고민하고 있다</span>”고 말했다.<br/><br/><br/><br/>지난해 3월 취임한 김 회장은 ‘농업인이 행복한 국민의 농협’이라는 비전을 수립한 후 농협 중복업무의 통합과 조직·인력 슬림화 등 다양한 개혁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것을 지난 1년간의 성과라고 자평했다.<br/><br/><br/><br/>그는 또 “<span class='quot1'>올해 사업구조개편을 마무리하고 완전한 경제지주체제를 출범시키는 한편 2020년까지 농가소득 5000만 원 달성을 위해 조직의 모든 역량을 결집할 것</span>”이라며 중점 추진 과제를 공개하기도 했다. <br/><br/><br/><br/>농협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농업 생산성 향상 △농가 수취가격 향상 △농업경영비 절감 △농식품 부가가치 제고 △농외소득원 발굴 △농가소득 간접지원 등 6대 핵심역량 중심으로 75건의 범농협 과제를 발굴·추진할 방침이다. <br/><br/><br/><br/>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 <br/> <br/>[ 문화닷컴 바로가기 | 소설 서유기 | 모바일 웹 ]

언론사: 문화일보-1-198.txt

제목: 인공지능 질병 위험 예측서비스  
날짜: 2017030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501.20170307110005002  
ID: 01100501.20170307110005002  
카테고리: IT\_과학>모바일  
본문: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이 인공지능(AI)으로 환자 스스로 숨어 있는 병을 찾아내는 무료서비스를 시작했다. 세브란스병원은 인공지능 전문기업인 ‘셀바스AI’와 손잡고 개인의 건강검진 기록을 입력하면 간암과 폐암 등 주요 6대 암 및 심장, 뇌혈관질환, 당뇨 등 주요 성인병의 3년 이내 발병 확률을 예측하는 온라인 서비스를 개설했다고 7일 밝혔다. 서비스 이용자는 세브란스병원 건강검진센터 홈페이지 내 ‘자가 건강진단 인공지능 질병 위험도 코너(sev.iseverance.com/health/self\_test/selvy·사진)’에 접속해 총 24개 항목에 자신의 건강검진 정보를 입력하면 된다. 또 세브란스병원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AI 질병 위험 예측서비스를 모바일 환경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입력한 정보는 병원 서버에 저장되지 않고 서비스 사용 종료와 함께 삭제된다. <br/> <br/>[ 문화닷컴 바로가기 | 소설 서유기 | 모바일 웹 ]

언론사: 문화일보-1-199.txt

제목: ‘맞춤형 암세포 진단칩’ 개발  
날짜: 2017030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501.20170306154006014  
ID: 01100501.20170306154006014  
카테고리: IT\_과학>IT\_과학일반  
본문: 박명환(사진) 삼육대 화학생명과학과 교수 연구팀은 최근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하버드의대와 공동연구를 진행해 간단한 혈액검사를 통해 암 진단과 환자맞춤형 치료를 할 수 있는 새로운 암세포 진단칩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br/> <br/>[ 문화닷컴 바로가기 | 소설 서유기 | 모바일 웹 ]